

2008

2008 Sports White Paper

체육백서

발간사 >>>

오늘날 스포츠는 개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국민통합과 경제적 수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스포츠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하여 얻는 개인의 행복증진과 의료비 절감은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경기대회에서 거둔 좋은 성적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의 사기진작과 국가브랜드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각국들이 스포츠를 개인이 아닌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자국의 스포츠 정책을 강화하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체육정책의 비전은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체육활동의 기반이 되는 학교체육, 특히 초등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파견하여 체육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교운동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주요 국제대회 유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엘리트스포츠 성과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고부가가치의 유망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스포츠가 국가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통해 소외 없는 함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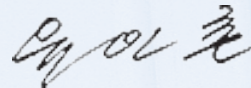
‘2008 체육백서’에는 체육의 제도적 기반,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분야와 체육시설, 스포츠 산업, 체육정보화, 국제체육교류 등 체육정책 전반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를 포함한 분야별 성과를 수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백서가 각 체육단체, 대학, 연구소, 스포츠산업계 등 체육 관계자들이 정부정책을 이해하고 향후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백서 발간을 위해 애쓰신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집필진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9.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Contents >>>

제1장 체육의 정의와 대상 34

제1절 체육의 정의 34

- 1. 체육의 학문적 정의 34
- 2. 체육의 법적 정의 34
- 3. 체육의 개념적 한계 35

제2절 체육의 유사 개념 36

- 1. 스포츠, 게임, 놀이 36
- 2. 여가, 레크리에이션, 레저스포츠 38
- 3. 운동, 운동경기 39

제3절 체육의 분류 41

- 1. 생활체육, 평생체육, Sport for All 41
- 2.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42

제4절 체육정책의 범위 45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50

제1절 체육정책의 변천 50

- 1.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 50
- 2. 1990년대 중반까지의 체육정책 51
- 3. 국민의 정부(1998~2002) 54
- 4. 참여 정부(2003~2007) 56
- 5. 이명박 정부(2008~현재) 58

제2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60
1. 중앙정부 체육조직	60
2.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조직	64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0
4. 체육단체	74

제3절 체육진흥재원	90
1. 개 관	90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91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	92
4. 국민체육진흥기금	95

제4절 체육관련법제	102
1. 개 관	102
2. 체육관계법 현황	103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112**

제1절 개 관	112
----------------	------------

제2절 국민의 여가활동	114
1. 여가시간	114
2. 여가활동 유형	115
3. 레저스포츠 활동	117

Contents >>>

제3절 생활체육 직접 참여 실태	119
1. 생활체육 참여유형	119
2. 운동 참가 및 불참 이유	125
3. 희망 운동 종목	127
제4절 생활체육 간접참여 실태	129
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129
2. 운동경기 관람유형	130
3.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133

제4장 생활체육 136

제1절 개 관	136
1. 생활체육정책 방향	136
제2절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140
1. 시·도 생활체육교실	140
2. 생활체육 광장	140
3.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141
제3절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	145
1.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145
2. 생활체육대회 개최	146
3. 동호인 리그	148
제4절 직장체육활동 육성	154

1.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154
2.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155
제5절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생활체육 나눔운동)	156
1.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156
2. 외국인노동자 체육행사 지원	157
제6절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158
1.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158
2.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159
3.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59
4. 노인체육지도자 배치	160
제7절 생활체육 홍보	162
1. 스포츠 7330캠페인 전개	162
2.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전개	166
3.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166
제8절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및 협력	168
1. 배 경	168
2.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168
3. 학교체육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협력 및 홍보 강화	169
제9절 세계한민족축전	171
1. 개최배경	171
2. 변천과정 및 축전 특징	171
3. 연도별 개최현황	172

Contents >>>

제10절 과제 및 발전방안	173
1.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사업의 확장	173
2.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의 전문화	173
3. 직장체육 환경구축과 내실화	174
4.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강화	175
5.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의 선진화	176
6.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176

제5장 전문체육 180

제1절 개 관	180
제2절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181
1. 선수층의 저변확대	181
2. 꿈나무 선수의 육성	185
3. 후보선수의 효율적 관리	189
제3절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훈련시설의 확충	195
1.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	195
2. 국가대표 훈련시설의 확충	202
제4절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운영	209
1. 전국체육대회 운영	209
2. 전국동계체육대회 운영	211
3.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213

제5절 프로경기의 진흥	215
1. 종목별 프로단체 현황	215
제6절 과제 및 발전방안	221
1. 전문체육 시스템의 개선	221
2. 우수선수의 체계적 육성	222
3. 프로스포츠의 체질 개선을 통한 정상화 노력	223

제6장 장애인체육 **226**

제1절 개 관	226
제2절 장애인체육 조직 및 재정	228
1. 국내 장애인체육 조직 변천과정	228
2. 대한장애인체육회	229
3. 가맹경기단체	232
4.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238
5. 재 정	238
제3절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240
1. 생활체육부문	240
2. 전문체육부문	245
3. 국제교류	252
제4절 과제 및 발전 방안	262

Contents >>>

제7장 체육시설	264
제1절 개 관	264
1. 체육시설의 개념	264
2. 체육시설의 종류	265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269
1. 체육시설 조성정책의 전개과정	269
2.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계획)	270
3.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271
4. 창의한국	272
5.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274
6. 미래의 문화, 문화의 미래	275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276
1. 전문체육시설	277
2. 생활체육시설	284
3.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	292
제4절 태권도공원 조성	295
1. 태권도공원 조성의 의의	295
2.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경과	296
3. 태권도공원 향후 사업추진 일정	300
제5절 과제 및 발전방안	301
1. 조성정책의 평가	301
2. 체육시설 조성정책 방향 및 발전과제	301

제8장 스포츠산업 306

제1절 개 관 306

- 1. 스포츠산업의 개념과 특성 306
- 2. 스포츠산업 환경 313

제2절 스포츠소비 현황 319

- 1. 스포츠소비 정의 319
- 2. 스포츠소비의 특성 320
- 3. 스포츠소비 지출 320

제3절 스포츠산업 현황 324

- 1. 스포츠산업의 규모 및 현황 324
- 2. 스포츠용품업 326
- 3. 스포츠시설운영업 327
- 4. 스포츠서비스업 329

제4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335

- 1. 스포츠산업 정책의 제도적 기반 335
- 2. 스포츠용품업 지원정책 341
- 3. 체육시설업 및 스포츠서비스업 지원정책 358
- 4.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 367
- 5. 스포츠산업 정보망 및 연구활성화 369

제5절 과제 및 발전방안 371

- 1. 법·제도 개선 371
- 2. 체육단체 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입원 다변화 371

Contents >>>

제9장 체육전문인력 374

제1절 개 관 374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375

- 1. 선수·코치 375
- 2. 심 판 382
- 3. 체육계 대학(원) 385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394

- 1. 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개요 394
- 2.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399
- 3.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402
- 4. 체육지도자 배치·활용 404

제 4절 과제 및 발전방향 409

제10장 체육정보화 412

제1절 개 관 412

제2절 체육정보화 추진현황 414

- 1. 체육정보화 정책 414
- 2. 체육정보화 기반 구축 416
- 3. 체육종합정보체계 구축 424

제3절 과제 및 발전방안	438
1. 포털사이트 재구축 및 실용적 콘텐츠 구축	438
2. 체육정보화 기반 확대	439
3. 체육정보의 표준화	439
4. 스포츠산업 정보 확장 및 개발	440
5. 체육정보화 5개년계획에 의한 정보경쟁력 강화	440

제11장 국제 체육 **444**

제1절 국제체육계 동향	444
1. 국제체육기구 현황	444
2. 스포츠에서의 도핑방지 강화	450
3. 스포츠의 상업화	456

제2절 우리나라의 스포츠외교	459
1. 스포츠외교 정책과 조직	459
2. 체육교류협정 체결	462
3.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	464
4.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466

제3절 국제교류 현황	470
1. 국제종합경기대회	470
2.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489

Contents >>>

제12장 남북 체육교류 · 협력	498
제1절 개 관	498
1. 남북 체육교류 · 협력의 의의	498
2. 남북 체육교류 · 협력의 기능	502
제2절 남북체육교류 · 협력 정책 환경	505
1. 법제도적 기반	505
2. 교류 자원	506
제3절 남북체육교류 · 협력 사업	508
1. 1990년 이전 남북체육회담을 통한 체육교류의 발전	508
2.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509
3. 2001년~2008년	512
제4절 과제 및 발전 방향	525

표 목 차 >>>

제1장 체육의 정의와 정책 대상

(표 1-1) 놀이, 게임, 스포츠의 특성 비교	37
(표 1-2)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의 차이점	39
(표 1-3) 세계 각국의 'Sport for All' 운동	42
(표 1-4)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특성 비교	43
(표 1-5) 문화관광부 체육국 관장 업무	47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표 2-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주요사업	53
(표 2-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54
(표 2-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55
(표 2-4)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57
(표 2-5) 이명박정부 문화비전 2008~2012의 체육부분 주요 정책과제	59
(표 2-6) 체육조직기구의 변천 요약	63
(표 2-7)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66
(표 2-8)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68
(표 2-9)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력 현황	71
(표 2-10)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71
(표 2-11)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회계 예산	72
(표 2-12) 200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73
(표 2-13) 대한올림픽위원회 사업 (KOC규정 제2장)	74
(표 2-14) 역대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75
(표 2-15) 우리나라 역대 IOC위원	75
(표 2-16) 시·도 체육회 현황	77

표목차 >>>

(표 2-17) 대한체육회 해외 지부 현황	78
(표 2-18)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	80
(표 2-19) 대한체육회 연도별 예산 현황	82
(표 2-20)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의 자체수입 비율	83
(표 2-21)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현황	87
(표 2-22)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 연합회 현황	87
(표 2-23) 연도별 예산 현황	89
(표 2-24) 회원단체 예산과 자체수입 비율	89
(표 2-25)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90
(표 2-26) 분야별 예산 현황	91
(표 2-27) 정부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	92
(표 2-28)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 총괄표	93
(표 2-29)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94
(표 2-30)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	95
(표 2-31)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및 보급률 변화	97
(표 2-32) 체육활동참여의 우선조건	97
(표 2-33) 기금조성 내역	99
(표 2-34) 기금지원 실적	99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표 3-1) 요일별 여가시간 분포(%)	114
(표 3-2) 한국·미국·독일 성인의 생활시간구조	115
(표 3-3) 여가활동 연도별 비교(%)	116
(표 3-4) 월 2~3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자 참여빈도 연도별 비교(%)	121
(표 3-5) 참여종목 연도별 비교표	121

(표 3-6) 운동시간 분포도(%)	122
(표 3-7) 운동시간대 분포도(%)	122
(표 3-8) 연도별 운동시간대 분포도 비교(%)	123
(표 3-9) 운동장소의 연도별 비교(%)	124
(표 3-10) 운동경비 분포도(%)	125
(표 3-11)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의 연도별 비교(%)	127
(표 3-12) 희망 운동종목(%)	128
(표 3-13) 희망 운동 종목의 연도별 비교(%)	128
(표 3-14)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129
(표 3-15) 관람종목의 연도별 비교(%)	131
(표 3-16) 경기관람 빈도의 연도별 비교(%)	131
(표 3-17)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연도별 비교(%)	133
(표 3-18)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비교(%)	134

제4장 생활체육

(표 4-1) 주2회 이상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변화(%)	137
(표 4-2)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의 증가	137
(표 4-3)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결성 현황	138
(표 4-4) 시·도 생활체육교실 연도별 운영 현황(생활체육교실 수)	140
(표 4-5) 생활체육광장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141
(표 4-6) 2008년 지역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142
(표 4-7)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143
(표 4-8)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146
(표 4-9) 연도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현황	147
(표 4-10) 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 배치 현황	149

표목차 >>>

(표 4-11) 지역동호인클럽리그 운영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149
(표 4-12) 시·도 종목별대회 연도별 지원 실적	149
(표 4-13)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현황	150
(표 4-14)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150
(표 4-15) 2008년 전일제 지도자 활동 실적(12월말 기준 누계실적)	155
(표 4-16) 소외계층 용구지원 추진 실적	156
(표 4-17) 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158
(표 4-18) 노인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160
(표 4-19) 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161
(표 4-20) 스포츠 7330 정책 추진 경과	164
(표 4-21) 스포츠 7330 단계별 목표와 내용	165
(표 4-22) 스포츠 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실적	165
(표 4-23)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연도별 추진실적	166
(표 4-24) 국민생활체육지 발간 연도별 추진실적	166
(표 4-25)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연도별 예산현황	167
(표 4-26) 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 업무협력 합의서 주요 내용('05.12.20)	169
(표 4-27) 학교체육보급프로그램(2008) 운영 현황	170
(표 4-28) 학교내 잔디운동장 연차별 조성 추진계획	170
(표 4-29) 세계한민족축전 연도별 개최 특징	172
(표 4-30) 세계한민족축전 연도별 개최현황	172
(표 4-31) 직장체육 육성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법	175

제5장 전문체육

(표 5-1) 2008년도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현황(2008. 12. 31 현재)	182
(표 5-2) 체육계 학교 현황(2008.12. 31 현재)	183

(표 5-3) 2008년도 체육계학교 지원 예산(2008. 12. 31 현재)	184
(표 5-4) 신인선수(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현황	185
(표 5-5) 2008년도 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 현황	187
(표 5-6)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2008. 12. 현재)	187
(표 5-7)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현황	188
(표 5-8) 연도별 후보선수 발굴 및 최종선발 인원수	190
(표 5-9)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 비율(2008. 12월 현재)	190
(표 5-10) 2008년 후보선수의 훈련종목과 정원	192
(표 5-11) 2008년 후보선수의 훈련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지원 내역	193
(표 5-12) 전임지도자 종목과 정원	194
(표 5-13) 2008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195
(표 5-14)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195
(표 5-15) 2008년도 국가대표선수 훈련인원	197
(표 5-16) 2008년 국가대표선수 세부 훈련종목	198
(표 5-17) 연도별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및 지원 현황	199
(표 5-18) 외국인코치 초청 현황	199
(표 5-19) 국외정보수집 사업 현황	200
(표 5-20) 국가대표선수·코치 훈련여건 개선 현황	202
(표 5-21)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현황	204
(표 5-22) 국가대표 선수촌 연도별 시설 개·보수 현황	206
(표 5-23)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시설 연도별 투자 현황	206
(표 5-24) 국가대표 선수촌 연도별 시설 확충 현황	206
(표 5-25)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 조성 연도별 추진 현황	207
(표 5-26) 연도별 전국체육대회 개최현황	211
(표 5-27) 연도별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현황	212
(표 5-28) 연도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현황	214

표 목 차 >>>

(표 5-29) 프로단체 현황(2008. 12월 현재)	215
(표 5-30) 프로축구 연도별 관중수 변화추이	217
(표 5-31) 프로야구 관중 입장수	218
(표 5-32) 남자 프로농구 관중수	219
(표 5-33) 여자 프로농구 관중수	219
(표 5-34) 프로배구 관중 입장수	220

제6장 장애인체육

(표 6-1) 체육구조별 정부 및 민간조직	226
(표 6-2) 국내 장애인체육 발전과정	228
(표 6-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과 역할	230
(표 6-4) 시도장애인체육회 현황(2009. 3월 현재)	231
(표 6-5)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2008. 12월 현재)	233
(표 6-6)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	234
(표 6-7)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	237
(표 6-8)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238
(표 6-9) 대한장애인체육회 예산의 연도별 증가추세	239
(표 6-10) 2009년도 대한장애인체육회 예산내역	239
(표 6-11) 2008년 장애인생활체육 사업영역 및 사업실적 현황	240
(표 6-12) 특수체육교사 양성대학 현황(2008. 12월 현재)	243
(표 6-13) 2008년 전일제지도자 배치 현황(2008. 12. 31 현재)	244
(표 6-14)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예정 현황	245
(표 6-15) 연도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246
(표 6-16)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현황	247
(표 6-17) 2008년 선수 훈련지원	248

(표 6-18) 2008년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현황	248
(표 6-19) 경기력향상연구연금(2005년 이전 명칭 '장애인선수연금') 지급 현황	250
(표 6-20)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 체육인복지사업 지급 현황('07년~'08년)	250
(표 6-21) 장애인체육 실업팀3 현황(2009. 2월 현재)	251
(표 6-22)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 건립내역	251
(표 6-23)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의 종목별 공간사용계획(14개 종목 활용)	252
(표 6-24)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가입현황	253
(표 6-25) 하계장애인올림픽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254
(표 6-26) 동계장애인올림픽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255
(표 6-27) 역대 대회개최 및 참가현황	256
(표 6-28) 2008년 국제대회 국내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 현황	257
(표 6-29) 역대 농아올림픽대회(하계) 개최 및 참가현황	259
(표 6-30) 2008 스포츠외교인재육성을 위한 IPC 인턴쉽 파견사업 현황	260
(표 6-31) 2008 장애인체육스포츠아카데미	260
(표 6-32)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260
(표 6-33) 2008 국제심판·등급분류사 양성사업	261

제7장 체육시설

(표 7-1) 운동종목별·시설형태별 체육시설의 종류	265
(표 7-2)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266
(표 7-3) 전국 시·도별 체육시설업 현황	267
(표 7-4) 공공체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	276
(표 7-5) 연도별·지역별 운동장 지원 현황	278
(표 7-6) 연도별·지역별 체육관 지원실적	279
(표 7-7) 지역별 전문체육시설 지원실적	280

표 목 차 >>>

(표 7-8) 전국체전시설 지원실적	281
(표 7-9)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지원실적	282
(표 7-10) 국민체육센터 연도별 · 지역별 건립 지원 현황	284
(표 7-11) 생활체육공원 연도별 · 지역별 지원실적	286
(표 7-12)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연도별 · 지역별 지원실적	288
(표 7-1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연도별 · 지역별 지원실적	289
(표 7-14)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 추진실적	290
(표 7-15)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개요	291
(표 7-16) 간이체육시설(농구장, 족구장) 지원현황	291
(표 7-17)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연도별 · 지역별 지원실적	292
(표 7-18)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수(2008. 12월 현재)	293
(표 7-19) 태권도공원 명칭공모 결과	297
(표 7-20) 태권도공원 조성 방향 국민제안 공모 결과	298
(표 7-21) 사업추진 일정	300

제8장 스포츠산업

(표 8-1) 스포츠산업 분류항목	308
(표 8-2) 국내 인터넷 사용자 추이	314
(표 8-3) 운동용구 수출입 현황	317
(표 8-4) 도시기구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 품목별 소비	322
(표 8-5) 교양오락비와 스포츠소비	323
(표 8-6) 한국 · 미국 · 일본의 스포츠산업 규모 비교	324
(표 8-7) 연도별 스포츠산업 하위시장 시장규모	324
(표 8-8) 2006년도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체 종사자수	326
(표 8-9) 주요 리조트형 시설 현황	327

(표 8-10) 연도별 전국 골프장 이용객 현황	328
(표 8-11) 연도별 주요 신고·등록 체육시설현황	329
(표 8-12) 2001~2007년도 스포츠서비스업 주요업종 이용자수	330
(표 8-13) 주요 프로스포츠 관중 추이	330
(표 8-14)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 수 및 경기당 평균 관중 수	330
(표 8-15) 주요 프로스포츠 수용규모 및 좌석점유율	331
(표 8-16) 체육계학과 학생 및 스포츠산업 관련학과 현황	332
(표 8-17) 연도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수입현황	333
(표 8-18) 스포츠신문 매출 현황	334
(표 8-19)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산업 연구 조직구조 변화	339
(표 8-20)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를 위한 투자실적	343
(표 8-21) 인증 시험·검사장비 도입현황	343
(표 8-22) 2008 서울국제스포츠박람회 전시규모 현황	346
(표 8-23) 국가별 전시참가업체 현황	346
(표 8-24) 품목별 참가비율	346
(표 8-25) 해외바이어 참가현황	346
(표 8-26) 상담 및 계약실적	347
(표 8-27) 생산장려 체육용구 지정현황	349
(표 8-28)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현황	351
(표 8-29)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용자 사업개요	355
(표 8-30)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용자현황	356
(표 8-31)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 기준	358
(표 8-32)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현황	359
(표 8-33) 연도별 스포츠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362
(표 8-34)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 기준	364
(표 8-35)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현황	364

표 목 차 >>>

(표 8-36)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366
(표 8-37)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현황	368

제9장 체육전문인력

(표 9-1) 종목별 등록선수수	375
(표 9-2) 연도별 선수수의 변화	378
(표 9-3) 꿈나무선수 육성현황	378
(표 9-4)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	379
(표 9-5) 종목별 후보선수수	380
(표 9-6) 종목별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수	381
(표 9-7) 종목별 심판	383
(표 9-8) 체육계학과 학과수 및 학생수(전문대학)	385
(표 9-9) 체육계학과 교수수(전문대학)	387
(표 9-10) 대학교 체육계학과 학생수	388
(표 9-11) 체육계학과 교수수(대학교)	391
(표 9-12) 대학원 체육계학과 학생수	391
(표 9-13) 경기지도자의 자격 요건	394
(표 9-14)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요건	395
(표 9-15)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	397
(표 9-16) 경기지도자 양성 기관	398
(표 9-17)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399
(표 9-18) 연도별 경기지도자 양성현황	399
(표 9-19) 종목별 경기지도자 양성현황	400
(표 9-20)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현황	402
(표 9-21)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현황	402

(표 9-2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405
(표 9-23) 업종별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406
(표 9-24) 2008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실적	407
(표 9-25) 2008년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실적	408

제10장 체육정보화

(표 10-1) 근거리통신망 현황	417
(표 10-2) 초고속통신망 현황	417
(표 10-3) 전산장비 현황	418
(표 10-4)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419
(표 10-5) 연도별 기관홈페이지 이용현황	420
(표 10-6) 체육유관기관 도메인	421
(표 10-7) 체육정보화 콘텐츠 구축 내역	422
(표 10-8) 체육정보망 주요 구축내용	426
(표 10-9) 스포츠산업 정보 주요내용 및 DB구축	429
(표 10-10) 스포츠용품 인증사업의 정보자료 구축내용	430
(표 10-11) 체육통계포털시스템 구축내용	431
(표 10-12) 국민체육진흥 정보 및 내용	433
(표 10-13) 생활체육 정보 및 내용	434
(표 10-14) 전문체육 정보 및 내용	435
(표 10-15)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정보 및 내용	436

제11장 국제 체육

(표 11-1) IOC 위원 국가별 배출 인원수 현황	445
-------------------------------	-----

표 목 차 >>>

(표 11-2) IOC 위원 대륙별 배출 인원수 현황	445
(표 11-3)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의 회장국적	446
(표 11-4) 올림픽 정식종목 국제경기연맹 회장의 대륙별 · 국가별 분포	448
(표 11-5)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 본부 소재지	449
(표 11-6) 국제기구 각종 위원회 활동의 연도별 인원수	450
(표 11-7) WADA Foundation Board 구성	452
(표 11-8) WADA 금지약물 목록	453
(표 11-9) 도핑컨트롤센터 연도별 시료 현황	455
(표 11-10) 도핑방지컨트롤센터 연도별 양성건수	456
(표 11-11) 올림픽 공식후원업체의 기별 후원금액	458
(표 11-12)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의 체육외교 정책	459
(표 11-13) 문화비전(2008~2012)	460
(표 11-1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요 업무	461
(표 11-15)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과 국제경기팀의 주요업무	461
(표 11-16) 체육교류협정 체결 현황	463
(표 11-17)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의 체육외교 전문요원 양성 방안	464
(표 11-18) 스포츠외교인력 강화 방안	465
(표 11-19) 스포츠외교인력 운영실적	465
(표 11-2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활동하고 있는 위원 현황	466
(표 11-21) IOC 산하 분과위원회(commissions) 위원 진출 현황	467
(표 11-22) 국제경기연맹 · 임원 진출 현황	468
(표 11-23) 아시아경기연맹 · 회장단 진출 현황	468
(표 11-24) 기타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임원현황	469
(표 11-25) 2008년도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현황	470
(표 11-26) 하계 올림픽 대회 개최 및 한국의 참가현황	471
(표 11-27) 베이징 올림픽 종목별 경기장 현황 및 선수촌과 이동거리	473

(표 11-28) 베이징 하계올림픽 경기일정	474
(표 11-29) 베이징 하계올림픽대회 경기력 상위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476
(표 11-30) 베이징 올림픽 참가국별 메달획득 현황	477
(표 11-31) 베이징 올림픽에서 나타난 세계신기록 현황	478
(표 11-32)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팀 종목별 참가 선수단	480
(표 11-33) 한국 배정된 미디어 카드 할당 현황	481
(표 11-34) 베이징 올림픽 파견 TV 방송 기자단 현황	481
(표 11-35) 베이징 올림픽 언론사별 ID 카드 배분 현황	482
(표 11-36) 제 1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 개최지역 및 종목	483
(표 11-37) 아시아비치경기대회에 종목별 투숙호텔 및 경기장 지역	484
(표 11-38) 아시아비치경기대회에 한국 선수단 구성 현황	484
(표 11-39) 아시아비치경기대회 각 국가별 종합순위 및 메달 분포	485
(표 11-40) 종목별 금메달 획득 국가 현황	486
(표 11-41) 2008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선수단 해외파견 현황	489
(표 11-42) 2008년도 종목별 국제대회 파견 현황	489
(표 11-43) 북경올림픽 대비 심판 및 임원지원 사업 결과	491
(표 11-44) 국제스포츠기구회의 참가 파견 사업 결과	492
(표 11-45) 2008년도 국제스포츠인사 초청사업 결과	492
(표 11-46) 국제경기연맹 총회 파견 사업 결과	493
(표 11-47) 아시아경기연맹 총회 파견 사업 결과	494
(표 11-48) 2008년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원 사업 결과	494
(표 11-49) 2008년도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사업 결과	495
(표 11-50) 올림픽제패기념 및 국위선양을 위한 주요종목 개최 사업 결과	495

표 목 차 >>>

제12장 남북 체육교류 · 협력

(표 12-1) 남북체육회담 주요일지	508
(표 12-2)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 · 평양 교환경기 개최 현황	510
(표 12-3) 1991년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현황	511
(표 12-4)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	511
(표 12-5) 2000년~2008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주요 사항)	517
(표 12-6) 체육 관련 북한방문 현황(2001년~2008년)	519
(표 12-7) 체육 관련 북한주민접촉 현황(2001년 8월~2008년)	519
(표 12-8) 체육 관련 남한방문 현황(2001년~2008년)	520

그림목차 >>>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기구	63
〈그림 2-2〉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체육기구	76
〈그림 2-3〉 대한체육회 기구표 (2007. 12월 현재)	79
〈그림 2-4〉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구성도	85
〈그림 2-5〉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 기구 : 1실 4팀	86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그림 3-1〉 여가활동 유형(%)	116
〈그림 3-2〉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119
〈그림 3-3〉 연도별 생활체육 참여율 비교(%)	120
〈그림 3-4〉 운동실시 장소 분포(%)	124
〈그림 3-5〉 운동 참여 이유(%)	126
〈그림 3-6〉 운동 불참 이유(%)	126
〈그림 3-7〉 관람 종목 분포(%)	130
〈그림 3-8〉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132
〈그림 3-9〉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133

제5장 전문체육

〈그림 5-1〉 꿈나무선수 선발 절차	186
〈그림 5-2〉 국가대표종합훈련장 마스터플랜	208

그림목차 >>>

제6장 장애인체육

〈그림 6-1〉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	230
-----------------------	-----

제7장 체육시설

〈그림 7-1〉 창의한국 3대 추진목표	272
〈그림 7-2〉 창의한국 5대 기본방향 및 27대 추진과제	273
〈그림 7-3〉 Sports Future 21 비전 체계도	274
〈그림 7-4〉 공간단위별 기본체육시설 조성방향	302

제8장 스포츠산업

〈그림 8-1〉 국내 스포츠 산업 분류	310
〈그림 8-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조직도(2008. 12월 현재)	340
〈그림 8-3〉 인증제사업 구성도	342
〈그림 8-4〉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절차	349
〈그림 8-5〉 기금 용자 시행절차	356
〈그림 8-6〉 전략과제(중·장기과제)선정절차	366
〈그림 8-7〉 자유공모 과제 선정절차	367

제9장 체육전문인력

〈그림 9-1〉 체육지도자 양성절차	396
---------------------	-----

제10장 체육정보화

〈그림 10-1〉 체육기관별 정보화 구성도	416
〈그림 10-2〉 체육종합정보망 구성도	425

제11장 국제체육

〈그림 11-1〉 올림픽 정식종목 국제경기연맹 본부의 대륙별 소재지 비율(%)	499
〈그림 11-2〉 동·하계올림픽대회 합산 마케팅수입	457
〈그림 11-3〉 하계올림픽대회 TV중계권료	457
〈그림 11-4〉 경기단체(협회) 국제업무 기구 (음영 부분)	462
〈그림 11-5〉 대회 심볼 마크	472
〈그림 11-6〉 대회 마스코트	472

01

제1장 체육의 정의와 대상

- 제1절 체육의 정의
- 제2절 체육의 유사 개념
- 제3절 체육의 분류
- 제4절 체육정책의 범위

제1절 체육의 정의

1. 체육의 학문적 정의

체육의 과학적 연구는 18~19세기 초부터 체조(Gymnastics)의 개념으로 근대체육의 기초를 쌓은 몇몇 체조가들에 의하여 시도되었지만 체육에 대한 용어가 최초로 문헌상에 기록된 것은 18세기 후반 델사르트(Delsarte)의 “Education Physique”에서 비롯된다. 이후 이 용어는 1840년대 신체와 교육의 합성어인 “Physical Education”으로 일반화되었다.

20세기 초 체육이 신체 그 자체를 교육(education of physical)하는 것이냐 혹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교육(education through physical)적 활동이냐라는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의 한 분야”라는 주장으로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전인교육론적 정의는 체육이 학문적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서 신체운동 자체에 대한 기본개념, 방향, 운동지각 형성에 대한 관심과 인간행동 측면에서의 운동현상 연구로 확대되면서 “움직임 교육(movement education)”, “인간운동(human movement)”, “운동학(kinesiology)”, “인간운동학(human kinetics)”, “운동과학(exercise science)”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스포츠’를 활용하여 “스포츠연구(sport studies)” 또는 “스포츠과학(sport sci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의 체육에 대한 정의의 발전 과정을 정리해 보면 체육(體育)이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신체 활동을 매개 또는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한 영역”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인간의 체운동을 탐구하는 과학과 기술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체육의 법적 정의

체육의 법적 개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교육적 측면에서 출발한 체육의 범위를 넓게 확장한 것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체활동의 다양한 현상과 기능의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체육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육으로서의 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활동, 운동, 스포츠, 레저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의 유사개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3. 체육의 개념적 한계

그러나 체육을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한다고 해서 ‘체육’이라는 용어와 현실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신체·정신활동, 인간의 생활문화로서의 일체의 신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간의 불일치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이라는 용어는 개념적인 혼란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체육 현상 역시 커다란 변화와 확장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즉, 근대 스포츠가 도입되기 시작했던 1900년대 초기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학교체육의 현상이 모든 체육현상의 대부분을 차지해왔기 때문에 체육이라는 용어가 적합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전문체육, 즉 엘리트스포츠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체육 현상은 학교체육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이 때부터 체육이라는 용어의 부적합성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부터 여가스포츠활동을 지칭하는 생활체육활동이 급증하면서부터 교육의 영역이 아닌 상업스포츠(프로스포츠), 여가스포츠, 학교에서 육성되지 않는 엘리트스포츠의 영역이 크게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스포츠산업’이란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확장되어 기존 ‘체육’의 개념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체육’과 ‘스포츠’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학계에서는 ‘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 스포츠는 체육(교육)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 스포츠는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써 신체문화, 생활문화의 한 영역이 되어 경쟁적이든 경쟁적이지 아니든 일체의 신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삶의 문화로서 점점 다양화하고 있는 일체의 신체활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현상을 포함하는 개념 정립을 위한 체육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체육의 법적, 행정적 용어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책에서는 체육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체육’을 위에서 설명한 스포츠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사용하였다.

제2절 체육의 유사 개념

1. 스포츠, 게임, 놀이

체육은 수많은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동들이 스포츠(sports), 게임(game), 놀이(play) 등의 활동이다. 상황에 따라 스포츠, 게임, 놀이 등의 활동들은 체육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어느 경우에는 이들 개념이 체육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체육을 포함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체육을 중심으로 이들의 활동을 체계화하면 체육은 인간의 움직임(human movement)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의 움직임 중에서 생계를 위하여 하는 활동을 제외한 움직임을 신체 활동(physical activity)이라고 한다. 일을 위한 움직임과 신체 활동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 즉, 일에서는 신체 활동이 일의 목적에 대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신체 활동에서는 신체의 움직임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신체 활동은 체육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지만 이들 신체 활동이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 체계화되는 단계에 따라 놀이, 게임, 스포츠라는 용어로 불리게 된다.

놀이는 신체 활동 중에서 허구성과 비생산성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문화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되는 활동의 체계이다. 놀이의 허구성이란 현실 생활을 벗어나 일어나는 활동이다. 비생산성이란 활동의 결과로 아무런 상품, 재화, 또는 새로운 종류의 물질이 창조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경쟁은 존재할 수 있으며 흥미를 목적으로 하는 민속놀이나 어린이들의 놀이 등이 전형적 보기가 할 수 있다.

게임은 놀이로 인정되는 신체 활동 중에서 경쟁성에 바탕을 두고 승부를 내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고, 규칙을 정하며, 결과의 불확실성을 유지하면서 확률, 전술 및 신체의 기능을 통하여 승부의 결과를 결정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경쟁성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상대 사이에 승리를 위한 패권을 겨루는 것을 말한다. 분리성이란 사전에 미리 규정되고 정해진 공간과 시간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특성을 의미한다. 규칙성이란 일상적인 규범의 적용이 일시 정지된다는 합의하에 활동이 성립하며, 활동의 장에 있어서도 새로운 규범의 제정을 이루고 통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확실성이란 활동의 전개 과정이나 결과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함을 나타내며, 이의 결정이 운(chance)이나 전술

(strategy), 그리고 신체의 운동기능(motor ability)에 의존함을 뜻한다.

스포츠는 게임 중에서 결과의 결정에서 격렬한 대근 활동을 중심으로 신체적 기량이 강조되고 활동의 가치, 규범, 기술 등의 제도화 수준이 매우 높아 그 활동을 위한 조직이 구성되며, 이 조직을 통하여 규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는 특성을 지닌 활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하나의 체육 활동이 사회에서 스포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놀이와 게임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에 더하여 신체적 기량이 경쟁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활동 체계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 활동의 체계에서 스포츠는 게임에 바탕을 두고, 게임은 놀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게임은 놀이의 허구성과 비생산성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스포츠 또한 놀이의 허구성과 비생산성은 물론 게임의 경쟁성, 분리성, 불확실성, 규칙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프로 스포츠에서와 같이 스포츠에서 비생산성과 허구성이 사라지면 겉으로는 스포츠의 형태를 띄지만 일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

(표 1-1) 놀이, 게임, 스포츠의 특성 비교

놀 이	게 임	스 포 츠
허구성 비생산성	허구성 비생산성	허구성 비생산성
	분리성 규칙성 불확실성 경쟁성 확률, 전술, 신체기능에 의한 결과의 결정	분리성 규칙성 불확실성 경쟁성 확률, 전술, 신체기능에 의한 결과의 결정
		신체적 기량 가치, 규범, 기술의 제도화

참고로 체육과 스포츠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스포츠는 체육(교육)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체육은 교육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되 스포츠는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서 신체문화, 생활문화의 한 영역이 되어 경쟁적이든 경쟁적이지 아니든 일체의 신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으로 보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교육의 한 영역인 체육보다는 오히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는 이제 경쟁스포츠는 물론 비경쟁적스포츠, 생활스포츠, 레저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을 포함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참여하는 신체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2. 여가, 레크리에이션, 레저스포츠

여가는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개념에서 정의된다. 즉,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시간을 생존을 위한 시간과 생계를 위한 시간, 그리고 자유시간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시간이 생존의 영역이며, 그 다음으로는 생계의 영역이다. 따라서 생존과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시간이 남았을 경우 자유시간, 즉 여가시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생존과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고도 여유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존과 생계를 위한 시간은 필수적이고도 구속적인 반면에 여가 시간은 선택적이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가는 여유로운 시간의 개념을 토대로 그 자유시간에 하는 여가 활동은 물론, 여가 활동을 통하여 경험하는 만족과 즐거움의 심리상태와 체험까지를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여가가 체육과 깊은 관계를 지니고 체육과 유사 개념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여가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활동 중에서 체육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가는 체육 활동 중 여가스포츠 또는 레저스포츠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의 한 부분으로서 여가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에 비하여 활동의 다양성이 적으며, 활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다. 또한 여가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개되는 반면에 레크리에이션은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가활동은 자유롭고 개인 내적인 만족을 위하여 자유시간에만 실천될 수 있는 데에 비하여 레크리에이션은 사회 집단이나 조직의 에너지 재충전이나 재생의 의미를 강조하여 실천되기 때문에 자유시간외에도 조직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은 일반적으로 뒤쪽에 강세를 주어 [리크리에이션]으로 발음하면 에너지의 재생 또는 재창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앞쪽에 강세를 주어 [레크리에이션]으로 발음하면 휴양, 기분전환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레크리에이션이 재생과 재창조의 의미에서, 기분전환 또는 휴양의 의미로 전환되어 여가의 의미와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레저스포츠는 '레저(leisure)'가 여가를 나타내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여가에서 행해지는 스포츠라는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레저스포츠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이다.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데 적합한 골프, 서핑, 스쿠버다

이빙, 수상스키, 래프팅 등의 종목들은 흔히 레저스포츠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 여가시간에 행해지면 여가스포츠이기 때문에 레저스포츠 종목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표 1-2)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의 차이점

구 분	여 가	레크리에이션
범 주	포괄적 활동	한정적 활동
조직정도	비조직적	조직적
목 적	개인적 목적우세/자유, 내적만족 강조	사회적 목적 우세/재생, 사회편익 강조
시 간	자유시간	자유시간, 준 자유시간내

3. 운동, 운동경기

운동(exercise)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운동에 활용되는 체육활동은 인간의 어떤 움직임이든 가능하다. 즉, 신체활동이든, 놀이활동이든, 게임 및 스포츠활동이든 무엇이든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실천하는 체육활동은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운동경기(athletics)에서 겨루는 운동들은 모두 사회로부터 정규 스포츠로서 인정을 받은 종목들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경기를 통하여 기량을 겨루기 위해서는 승부의 결과를 정하기 위한 규칙이 분명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 다른 경기의 결과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에는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 활동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으며, 승부를 가리지 않는 신체 활동, 즉, 산보를 할 수도 있고, 맨손 체조도 할 수 있으며, 줄넘기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정을 받지 않지만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신체 활동 게임을 통하여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줄넘기를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한번에 쉬지 않고 줄넘기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가를 겨룰 수도 있으며, 5분 동안에 줄넘기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가를 겨룰 수도 있다. 줄넘기의 신체 활동을 겨루는 방법은 겨루는 사람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줄넘기 활동의 경쟁을 스포츠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줄넘기를 하면서 신체적 기량을 겨루는 방법이 스포츠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줄넘기의 경쟁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겨루는 사람들에

제1장 체육의 정의와 대상

따라서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으며, 이렇게 정해진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경쟁한다 하더라도, 그 경쟁조건은 다음 시기에 쉽게 바뀌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줄넘기도 스포츠로 인정될 수 있다. 줄넘기협회를 구성하여 줄넘기의 경쟁 조건과 줄넘기의 기술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줄넘기로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줄넘기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킨다면 줄넘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갖춘 것이다. 그러나 줄넘기가 정식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규 스포츠 종목의 명분이 되는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로서 가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줄넘기협회의 회원수의 확보나 미래에 국내종합체육대회는 물론 세계종합체육대회에서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정식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절차와 같이 국제줄넘기협회를 구성하여 회원국을 확보해야 하며, 국제종합스포츠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종합스포츠기구에 국제줄넘기협회가 정식 가맹단체로 가입되어야 하며, 세계적으로 가맹국과 각 가맹국에서의 일정한 회원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줄넘기의 예를 보면 스포츠의 정의가 명확해진다. 줄넘기 활동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다. 줄넘기로 운동을 하는 방법에는 놀이로 하던, 게임으로 하던, 스포츠로 하던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줄넘기를 스포츠 활동 방법으로 운동을 하려면 줄넘기 협회에서 규정하는 기술과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 줄넘기를 겨루고, 협회가 규정하는 규칙들을 지켰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공인심판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줄넘기는 운동(exercise)에서 운동경기(athletics)가 되는 것이다.

제3절 체육의 분류

일반적으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과 활동목적에 따라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생활체육, 평생체육, Sport for All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육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서구에서 등장한 평생체육(Sport for Lifetime),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Sport for All)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모든 사람이 성, 연령, 계층, 인종, 종교에 구애됨이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출발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국민 전체의 일상 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활체육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생활체육의 실천 영역은 매우 넓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로 분류된다. 우선적으로 생활체육참가자의 연령수준이나 생애주기별로는 유아체육, 아동체육, 청소년체육, 성인체육, 장년체육, 노인체육 등으로 분류되며, 생활체육참가자의 대상에서 특수한 대상을 지칭하는 분류에는 여성체육, 장애자체육, 군인체육 등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생활체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따라 가정체육, 지역사회체육, 직장체육으로, 그리고 생활체육활동을 제공하는 단체나 재원의 종류에 따라 공공체육, 민간단체체육, 상업체육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평생체육은 1965년 미국에서 전개된 것으로 평생교육의 원리를 바탕으로 체육이 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체육활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Sport for All은 성, 연령, 출신계층, 사회경제적 지위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가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회운동 캠페인이다.

제1장 체육의 정의와 대상

페인이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Sport for All이라는 용어는 1975년 유럽의 스포츠 관계장관회의에서 Sport for All 헌장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이 용어에 포함된 내용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스포츠 활동이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한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스포츠 활동의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한 참가기회보장과 대중적인 체육활동, 그리고 질 높은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 있다.

생활체육운동은 유럽의 Sport for All과 같이 사회체육진흥의 운동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캠페인 구호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유럽의 Sport for All이나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운동과 같이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1-3) 세계 각국의 'Sport for All' 운동

미 국	Physical Fitness Movement	호 주	Life Be In It
구 소 련	The Further Development of Mass Sport1 + 2 Movement	노 르 웨 이	Trimming
구 서 독	Trimming 130	일 본	체력육성운동(體力育成運動)
캐 나 다	ParticipAction	중 국	전민건신운동(全民健身運動)
체 코	Spartakiad	한 국	생활체육운동

2.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에서는 체육활동이 여가를 위하여 전개되는 반면, 학교체육은 체육활동이 교육을 위하여 전개된다. 또한 전문체육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우월성을 추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체육은 엘리트체육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전문체육을 운동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한체육회의 경기단체에 등록된 아마추어선수들이 행하는 엘리트스포츠와 프로스포츠협회에 등록된 프로선수들이 행하는 프로스포츠가 해당된다.

학교체육에서는 체육활동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2001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교육의 지침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체육의 성격을 움직임 육구의 실현 및 체육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내재적 가치와 체력 및 건강의 유지와 증진, 정서의 순화, 사회성 함양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하는 교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체육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인간의 움직임에 기초를 두고 신체활동과 놀이를 바탕으로 한 체육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간이게임과 정식게임으로 체육활동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 이르면 정식 스포츠종목의 경기능력을 배양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인간의 움직임, 신체활동, 놀이, 게임, 스포츠라는 활동의 체계가 단계적으로 높아져가면서 체육교육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체육의 목표에서도 운동의 기능과 체력 증진에만 한정되지 않고 운동과 건강에 대한 지식과 이의 활용 능력, 그리고 운동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태도를 기르는 정서적 영역에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체육이 단지 체육의 외면적 활동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움직이는 인지적인 원리와 정서적인 차원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은 여가를 위해 실천하는 체육활동으로 활동주체나 목적, 장소 등에서 엘리트스포츠와 학교체육과 구분되며 특히 엘리트스포츠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생활체육은 여가스포츠활동으로서 학교체육이나 전문체육과 여러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대상의 측면에서 학교체육은 학생을, 전문체육은 운동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 범위의 사람만이 가능하지만 생활체육은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다. 학생들도 학교의 교육 활동이 아닌 여가 활동으로 체육을 한다면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다.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이 의무적인데 반하여 생활체육은 자발적이다. 활동의 내용도 학교체육은 게임과 체력 운동, 무용, 스포츠 등을 주로 다루며, 전문체육에서는 공식적인 스포츠만을 포함하는데 비하여 생활체육에서는 다양한 여가스포츠는 물론이고 스포츠화 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형태의 놀이 및 게임 활동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표 1-4)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특성 비교

구 분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대 상	학생	청년(최적 연령기)	모든 사람
활동 방법, 내용	의무적	의무적	자발적, 즐거움
내 용	게임, 스포츠, 체력운동, 무용 등	정규 스포츠	놀이, 게임, 스포츠, 체력운동, 무용 등
시 간	수업 시간	훈련과 시합시간	자유시간
장 소	학교체육 시설	정규 체육 시설	모든 시설
의 도 성	강	강	약
목 적	교육	승리, 직업영역	여가, 욕구충족

제1장 체육의 정의와 대상

생활체육은 활동의 시간과 장소에서도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에 비하여 자유롭다. 활동의 목적에서도 학교체육은 교육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지며, 전문체육은 승리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지며 생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은 여가를 선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체육구조에서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은 각각의 영역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부문간의 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생활체육참여자의 운동기능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운동경기를 하기보다는,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생활체육교실에서 운동기능을 익히는 수준에 있다. 또한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즉 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운동기능 수준도 낮아 이들이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전문체육이 가능한 통로는 몇몇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운동부에 제한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육성되는 운동부의 운동선수들은 학교체육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운동부는 학교체육에 포함되기 어려우며 엘리트스포츠라는 영역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이 융합 발전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4절 체육정책의 범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에 관한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체육정책 및 행정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교체육,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우수한 능력을 가진 선수의 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엘리트 체육), 체육활동·신체활동과 관련된 산업적 활동, 장애인을 위한 생활·엘리트체육 등이 모두 체육정책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체육정책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업무로 생활체육·전문체육·스포츠여가산업 및 국제체육교류 진흥, 체육시설의 확충, 체육정보화, 체육과학의 진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생활체육종목 및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체육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전통 민속경기의 진흥,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 1-5 참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레크리에이션의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는 국가의 체육용구·기자재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 의무와 체육용구업체 및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융자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체육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약을 통해 학교체육시설 건립, 스포츠강사 배치, 학교스포츠클럽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체육·신체활동과 연관된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면서 체육정책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경우 체육용품, 체육시설업 이외에 스포츠마케팅, 에이전트 등 서비스업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체육 수요가 점점 다양화 고도화하면서 래프팅·패러글라이딩, X-게임 등 신종 레저스포츠가 급증하고 있어 레저스포츠진흥법 제정 등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육성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2008년에는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체육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제1장 체육의 정의와 대상

또한 스포츠분야에서의 약물 복용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지면서 세계반도핑 기구(WADA)가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부간 자문그룹 회의 (IIIGADS)에 참여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약물복용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의 수립, 국내 선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약물 복용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국제교류활동 등의 업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2006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설립되었다. 나아가 체육콘텐츠가 관광, 게임·방송 등 다른 산업의 콘텐츠로 활용되면서 체육정책이 다루어야 할 영역이 다른 영역과 중첩되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의 영역은 체육 자체뿐만 아니라 체육과 연관된 다양한 환경 영역과의 상호관계나 연계를 통하여 보다 확대될 것이며 이에 체육정책의 영역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점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1-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관장 업무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체육, 전문체육, 레저스포츠, 스포츠산업 및 국제체육교류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5.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6.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8. 생활체육종목 및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
9. 체육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
10. 프로운동경기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전통민속경기의 진흥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13.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에 관한 사항
14. 스포츠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지원
16.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민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스포츠 용품·용구·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9.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20.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22.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3. 태권도 등 전통스포츠의 세계 보급에 관한 사항
24.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5.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6. 경륜·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27.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육성
2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29.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30.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1.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2.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33.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34. 대한올림픽위원회·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협의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업무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제1절 체육정책의 변천

제2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제3절 체육진흥재원

제4절 체육관련법제

제1절 체육정책의 변천

1.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

우리나라의 체육정책과 제도는 정부수립 후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체육정책과 제도의 틀을 확립하여 체육진흥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제3공화국 이후이다.

제3공화국 전에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경기기술 향상, 올림픽대회 참가를 통한 국위 선양, 다른 나라와의 스포츠교류 등이 이루어져 사실상 민간주도로 체육행정의 전반이 이루어졌다. 정부내에서는 중앙교육행정이 문화행정·체육행정을 포함하여 문교부에서 관장되어 왔기 때문에 담당부서(문화국 체육과)에서 주로 교육적 차원의 체육행정을 수행하였다. 당시 체육시설은 서울운동장 야구장(1959. 8월 준공)과 효창운동장(1960. 10월 준공) 및 장충체육관(1962. 12월 준공) 뿐이었다. 때문에 국민의 관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육의 대중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극히 미약하였다.

제3공화국은 체육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육정책과 제도를 확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체위 향상과 국민체육진흥을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하여 엘리트체육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설립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강력한 정부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한 체육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체육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제3공화국이 각종 제도와 조직을 갖추고 체육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1962년)했다는 점은 한국 체육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법의 내용은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의 설정, 지방체육의 진흥, 학교 및 직장체육의 진흥,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국립종합경기장의 설치, 선수의 보호 및 육성,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조항을 담고 있어 체육행정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1970년 3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체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체육·학교체육·체육시설·체육기금·운동용구 및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체육행정기능은 교육을 담당하는 문교부에서 담당하여

체육철학, 체육기초과학,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체육연구와 같은 분야의 발전은 미흡하였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국력과시를 위한 엘리트체육에 중점을 두어 체육 분야별 균형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다만, 1961년부터 민간단체인 한국레크리에이션협회가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보건·체육·레크리에이션 등의 사회체육활동 보급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체육정책의 특징은 문교부에 의하여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 1990년대 중반까지의 체육정책

이처럼 제3공화국이 국민통합을 위한 체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제5공화국에서는 체육입국을 표방하여 스포츠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제5공화국은 ‘스포츠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체육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제5공화국의 체육부문에 대한 정책의지는 체육부 출범으로 가시화 된다. 체육부 신설로 국민체육 진흥을 본격화하고, 체육을 생활화하며, 체육을 통한 국민통합과 복지 증진 및 국위 선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1982년 3월 20일에 이루어진 체육부의 발족은 한국 체육사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을 이루었다. 비록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자 체육부가 신설되었지만 그 이전까지 문교행정의 시각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오던 체육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려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제5공화국은 우리나라 역사상 체육행정이 가장 주목받던 시기이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의 개최를 위하여 막대한 행·재정적인 자원이 체육에 투입된 시기였다. 따라서 체육행정력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에서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엘리트체육에 집중되었다.

행정부 내에서 체육을 담당하던 국가 수준의 조직이 전격적으로 중앙부처 수준으로 승격됨으로써, 체육행정의 위상이 제고되고 체육기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4위라는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대회를 유치한 후 체육 외교적 측면에서 국제체육교류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공산권을 포함한 미수교국과의 적극적인 체육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체육계 유력 인사와의 유대강화, 순회홍보 실시, 제3세계 저개발국 스포츠 지원, 그리고

각종 주요 국제경기대회 및 회의에 참가하여 국제체육계에서 우리나라 지위향상과 스포츠를 통한 국제우호 증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88서울올림픽대회에는 역대올림픽 사상 최다 국가인 160개 국가에서 1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체육외교의 성과를 이루었다.

정부는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회 준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등에 정책적 관심을 두어 왔으나, 양 대회 준비에 행정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증진시키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제6공화국 정부는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모체로 하여 88서울올림픽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세우고 생활체육을 전달할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탄생('91.2.6)시켜 국민생활체육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올림픽 이후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식이 크게 개선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부응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전 정부에 비하여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국가의 행정조직 및 기구의 정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호돌이 계획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종합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제6공화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근로청소년, 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소외집단을 포함한 각계각층에 대하여 적합한 생활체육프로그램과 국민개개인이 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 기준치를 만들고 건강생활체조를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였다. 1988년 12월에는 처음으로 국민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1989년 이후 3년마다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체육진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그 동안의 체육정책이 엘리트스포츠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벗어나, 발전이 미흡한 생활체육을 중점 진흥하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균형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즉, 제3공화국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이어진 체육입국의 국가시책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던 엘리트스포츠를 점차 민간차원으로 이양하고, 국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에 역점을 두게 된 것이다.

(표 2-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주요사업

	시 설	프 로 그 램	지 도 자
주 요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올림픽기념 생활관 건립 - 소규모 근린생활체육시설 건립 - 국·공립학교(초등학교)내 테니스장 설치 - 광역권별 수영장 건립 - 레포츠공원 조성 기존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 학교체육시설 개방·이용 확대 - 올림픽시설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기 종목의 개발·보급 - 계층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 건강생활체조 개발·보급 '90 전국 스포츠교실 운영 직장체육프로그램 개발 '90 전국씨름왕선발대회 개최 국민체력평가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 제도 개선

이러한 문민정부의 체육정책은 한편으로는 민간체육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동안 양적인 팽창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체육정책이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문민정부의 체육정책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의 수립으로 집약되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국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도모,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 국제체육 협력증진 및 민족화합 도모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생활체육 중점 진흥을 통해 국민체육 활동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모든 종목의 기본인 수영·육상·체조 등 기본종목과 하계종목에 비해 취약한 동계종목의 중점 육성을 추진하였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당초 155개의 단위사업으로 출발했으나 학교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사업기간 동안 총 138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는 (표 2-2)와 같다. 제1차 5개년계획의 당초 계획에 의한 투자 규모는 총 1조 6,669억원이었으나 4조 1,293억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148%의 증가를 보였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시·군 단위지역 기본체육시설인 운동장(34개소)·체육관(32개소)과 동네체육시설(1,456개소)등이 대폭 확충되었다. 또한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를 처음으로 양성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 19,314명을 양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1994년 동계올림픽과 1996년 하계올림픽에서 10위 이내에 드는 등 세계 상위의 경기력을 계속 유지했으며, 체육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획기간 중에 481명에게 경기력향상연금 114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9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체육 분야에서는 1993년에는 19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1999강원동계아시야경기대회를, 1996년에는 2002월드컵축구경기대회를 일본과 공동으로 유치하여 국제체육계에서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의 위상을 한층 더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남북간 체육교류에 있어서는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체육지도자 상호교류 등 단계적인 남북간의 체육교류를 계획하였으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표 2-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정 책 과 제	추 진 내 용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의식 고취 • 체육활동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 국민건강증진 기회 확대
엘리트체육의 지속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 • 국내경기대회 운영의 개선 • 우수한 경기지도 인력 양성 • 체육인 복지향상 및 체육단체의 자율성 제고
국제체육협력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체육계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 • 국제체육교류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도모
체육과학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과학의 연구기반 강화 • 체육과학의 실용화
체육행정체제의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행정체제의 정비·보강 • 체육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체육과학분야에서는 1995년 12월 과학적인 국민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위해 국민체력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체육활동의 과학화를 도모하였다.

3. 국민의 정부(1998~2002)

IMF 경제위기 속에서 출발한 국민의 정부는 지방화·민간화·다원화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체육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체육업무의 분권화·민간주도화를 추진하였다. 즉 IMF 경제위기는 정부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작은 정부론을 불러일으켰으며, 전체적인 정부조직의 축소에 따라 체육조직의 축소도 불가피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출범 초기 선정한 10대 국정과제에서 엿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

는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둘째, 체육지도자 양성, 셋째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확충, 넷째 경기단체 재정자립기금 지원 및 법인화, 다섯째 체육용기구 품질향상 지원, 여섯째 2002년 월드컵 등 준비 등 6개 주요사업을 선정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 체육정책 방향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복합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IMF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전문체육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엘리트 체육의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용기구 등 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와 함께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2)을 수립하고 제반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21세기는 체육·여가생활의 만족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체력과 비만 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기회 부여, 여가활동 기회 확대 등 건강한 체육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국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두 축이 상호연계 발전되도록 체육발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동 계획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2002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재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경기장 시설 확보, 숙박·방송·보도시설 확보, 다양한 문화행사 준비,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등의 적극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표 2-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 내용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주민활동의 장으로써 체육시설 확충 • 미참여 인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 생활체육지도인력의 육성 및 활용 • 국민체력관리의 과학적 지원 • 민간주도적 생활체육 확산
세계상위권 경기력의 유지 및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 발굴 및 육성체계의 전문성 보강 • 경기단체 자율성 제고 • 경기운영체계의 합리화 및 전산화 강화 •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발전
국제교류 역량 강화 및 남북 체육교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류 대상국 확대 및 교류 내실화 • 체육외교역량의 강화로 국제체육기구 내 역할 강화 • 남북체육교류 추진으로 민족화합 분위기 조성 •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상징종목의 세계적 보급 확산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부문별 목표	추진 내용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발전의 재도약 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준비 운영체제 구축, 경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 • 경기운영, 개최식 등 대회운영 단계적 준비 • 범국민적 대회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전 정부적 지원
체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산업의 연구 개발 • 취약지구 민간체육시설 우선 용자 지원 • 민간체육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 체육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및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 강구
경쟁력 있는 체육과학 발전 추구 및 체육행정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체육과학연구원 기능 증대 • 국민체력 증진 연구 및 경기력향상 연구 역량 강화 • 체육부문 종합정보망 구축 및 다양한 체육정보 제공 • 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지방체육조직에 전문인력 배치

4. 참여 정부(2003~2007)

참여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시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서 첫째, 생활체육참여율의 획기적 제고(50%)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둘째,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를 통한 국위 선양, 셋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 넷째, 국제 체육교류의 실질화로 국가이미지 제고, 다섯째,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로 남북 화해 분위기 구축 등을 향후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계획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연령·계층·지역의 차별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생활·전문체육을 체계화·선진화하며, 체육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체육의 과학화·정보화를 추진하며, 국제체육협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체육정책 수립 및 집행, 체육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한 “분권”을 설정하였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 체육과학·정보화, 체육행정·재정 등 6개 부문, 21개 과제, 146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참여정부의 체육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내용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확충 •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과학적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 • 레저스포츠 발전 방안 마련 • 생활체육지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생활체육 인식 제고 및 추진체제 강화
과학적 훈련지원을 통한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체계 확립 • 전문체육시설의 다기능화·현대화 •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 전문체육단체 자율성 및 재정자립 기반 강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스포츠산업 진흥 관련 법적 기반 마련
국제체육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선수권대회 등 종목별 주요 국제대회의 유치 • 스포츠외교 전문인력 양성 • 국가간 체육교류·협력 내실화 •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기반 조성 •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 스포츠 반도핑 활동의 활성화
체육과학의 진흥 및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의 학문적 연구 활동 지원 • 체육종합정보체계 구축
체육행정시스템의 혁신과 체육진흥재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정책 추진체제의 체계화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

5. 이명박 정부(2008~현재)

이명박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준비하여 제시한 “문화비전 2008~2012”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라는 정책의 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체육정책은 “문화비전 2008~2012”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나는 한국인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라는 주제로 15분 프로젝트 즉, 문을 열면 15분 거리에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슬로건으로 대표된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체육에서는 체육친화적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기본체육활동 기반조성,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전국대회 운영제도 개선, 선수인권 보호체계 구축,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병행 환경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 체력 향상,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전통무예 지정·육성 보급,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제고,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 여건 개선, 레저스포츠시설 공간 등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소수자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을 위해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활동 강화, 태권도의 세계화, 선진스포츠 도핑방지시스템을 확립하고, 엘리트스포츠 경쟁력 분야에서는 2012런던 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선수양성, 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비인기종목 활성화, 육상발전 계획 추진, 엘리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스포츠의·과학 및 정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스포츠용품의 고부가가치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표 2-5) 이명박정부 문화비전 2008~2012의 체육부분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내용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 전통무예 지정 및 육성 보급 강화 •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 제고 • 레저스포츠시설·공간 확충
체육친화적 교육 환경 교육 친화적 체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 조성 •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 선수인권 보호 체계 구축 •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 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 소수계층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경기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강국 이미지 지속 •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활동 강화 • 태권도의 세계화 • 선진 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활동 강화 • 스포츠용품 고부가가치화 및 u-스포츠사회 구축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 • 민간체육시설의 이용환경 개선
엘리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런던올림픽 대비 국가대표선수 체계적 양성 및 훈련 과학화 • 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 비인기 종목 활성화 • 스포츠의·과학 및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육상진흥 토대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 • 엘리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체육행정시스템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단체의 조직 및 기능 선진화 • 선진형 체육법·제도 정비 •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제2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1. 중앙정부 체육조직

1) 체육조직의 변천

(1) 1980년 이전의 체육조직

우리나라의 체육행정조직은 8.15광복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기에 마련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1946년 3월 29일 문교부 교화국 내에 체육과를 설치하고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0일 교화국을 문화국으로 개편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는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인원은 4~5명이었다.

정부의 체육조직은 5.16 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종래 문화국에 속해 있던 체육과가 체육국으로 승격되고, 인원 및 예산도 20명, 1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1961.10.2).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1963년 12월 14일 제3공화국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예체육국 체육과로 환원되었으며, 1968년 7월 24일 문교부의 문화예술행정이 문화공보부로 이관되면서 사회교육국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 8월 31일에는 다시 체육국을 신설하고 체육과를 국민체육과와 학교체육과로 그 기능을 분리하였다. 1973년 3월 9일에는 체육국내에 학교급식과가 추가되어 3개 과가 되었다. 1979년 3월 19일에는 문교부 직제 개정으로 체육국의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 종전의 학교체육과, 국민체육과, 학교급식과가 체육과, 학교보건과, 체육교류과로 변경되었다. 1981년 11월 2일에는 체육국과 사회체육국을 통합하여 체육국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학교체육과, 국민체육과, 국제경기과, 교육협력과, 재외국민교육과로 정비되었다.

(2) 1980년대의 체육조직

1981년 9월 30일 스위스 바덴바덴에서 88올림픽의 서울개최가 확정되고 그해 11월 86년 아시아 경기대회도 유치하게 되면서 체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1982년 3월 20일에 체육부를 신설하여 그 이전까지 문교

행정의 시각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오던 체육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체육부는 발족 당시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체육정책과, 사회체육과, 학교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과학국(기획과, 지도훈련과, 조사연구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을 두어, 1실 3국 10과 4담당관의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체육부 전체의 정원은 총 187명이 되었다.

이후 체육부는 1987년까지 다섯 차례의 직제 개편을 통해 소폭의 변동이 있긴 하였으나 전체적인 기조는 유지되었다. 1988년 6월 18일에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심의회)을 신설하여 체육행정을 청소년행정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청소년국의 신설로 체육부 정원은 225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 2월 12일 체육진흥국 내에서 사회체육과가 생활체육과로 개칭되고, 학교체육과가 폐지되고 사업관리과가 신설되었으며, 체육과학국이 체육지도국으로 개칭되었으나, 여전히 체육관련 조직은 체육진흥국(생활체육과, 사업관리과, 체육시설과), 체육지도국(조사기획과, 훈련과, 지도육성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 체제를 유지하였다. 한편 학교체육업무 중 급식관련 업무는 1989년에 발표된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에 따라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사회체육과를 생활체육과로 개칭한 것은 사회단체 수준의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일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부정책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990년 7월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세부추진계획인 ‘호돌이 계획’에서도 나타난다.

1990년 9월 10일에는 청소년국이 1실 2관 6과의 청소년정책조정실(청소년기획관, 청소년협력관, 청소년기획과,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시설기금과, 홍보협력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1990년 12월 27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하였다.

(3) 1990년대의 체육조직

1993년 3월 6일에 1989년에 발표된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에 따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통합하여 문화체육부에는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지원국(체육과학과, 지도육성과, 훈련지원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를 두어 3국 9과 체제를 갖추었다.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1994년 5월 4일에 해외협력과를 체육교류과로 개칭하고, 1994년 5월 16일에 학교체육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나, 전체적인 체육관련 조직은 3국 9과 체제를 유지하였다.

1994년 12월 23일에 문화체육부내에 관광업무가 이관되면서 체육지원국을 폐지하여, 체육행정조직은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지원육성과, 체육시설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의 2국 7과, 77명으로 축소되었다.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칭하고,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을 체육국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체육기획과와 협력총괄과를 체육정책과로 통합하였다. 또한 기존의 생활체육과는 그대로 생활체육과로 유지하고, 지원육성과와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과로, 국제경기과와 체육교류과를 체육교류과로 통합하는 등 체육담당부서를 1국 4과로 축소하였다. 그 결과 총 인원은 2국 7과, 77명에서 1국 4과, 56명으로 21명이나 감소하였다.

1999년 5월 24일에는 체육정책과와 체육교류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통합하여 1국 3과, 40명으로 행정조직 및 정원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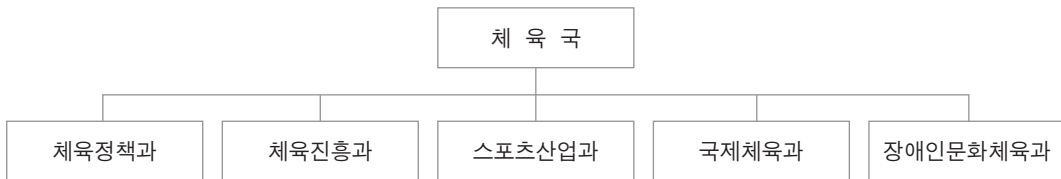
(4) 2000~2007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체육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경제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근무시간의 단축은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증대시켰고, 이러한 현상은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증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가한 국민의 여가시간을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유도하고,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전담부서의 신설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3월 9일 생활체육과가 다시 설치되었다. 이후 스포츠여가산업에 대한 수요 및 관심 증가에 따라 2004년 11월에 다시 직제개편을 실시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는 한편, 체육진흥과는 폐지하고 체육진흥과 업무 중 학교운동부, 전국체전 등의 업무는 생활체육과로 태권도공원 조성, 프로단체 육성 등에 관한 업무는 스포츠여가산업과로 국가대표선수 육성, 대한체육회 지도 감독 등의 업무는 국제체육과로 이관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체육을 이관 받아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고 장애인체육진흥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6년 7월 25일 기존의 '과'단위를 '팀'단위로 재편하였다.

(5) 2008~현재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팀'단위를 다시 '과'단위로 개편하였으며, 2008년 12. 31일자로 생활체육과가 체육진흥과로, 장애인체육과가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되었다. 생활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로 개편되면서 새로 개편된 과에서는 기존의 생활체육업무 이외에 국가대표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전문체육과 관련한 업무를 이관 받아 동일과에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문화체육과 역시도 기존의 장애인체육업무 이외에 장애인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여 기능을 확대하였다.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기구

〈표 2-6〉 체육조직기구의 변천 요약

• 1982. 3. 20	체육부 신설(1실 3국 10과 3관 4담당관, 187명) -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 체육과학국, 국제체육국
• 1990. 2. 12	골프장업무 인수
• 1992. 1. 1	한국마사회 운영의 지도·감독업무 인수
• 1993. 3. 6	문화체육부 발족, 3국 9과, 98명 - 체육정책국, 체육지원국, 국제체육국
• 1994. 12. 23	3국 9과, 98명 ⇒ 2국 7과, 77명, 체육지원국 폐지
• 1998. 2. 28	문화관광부 발족, 2국 7과, 77명 ⇒ 1국 4과, 56명, 국제체육국 폐지
• 1999. 5. 24	1국 4과, 56명 ⇒ 1국 3과, 40명
• 2001. 1. 29	한국마사회업무 농림부 이관
• 2002. 3. 9	생활체육과 신설 1국 4과, 45명
• 2004. 11. 7	스포츠여가산업과 신설, 체육진흥과 폐지
• 2005. 12. 15	장애인체육과 신설 1국 5과 52명
• 2006. 7. 25	과명칭이 팀제로 변경 1국 5팀
• 2008. 2. 29	문화체육관광부 신설, '팀'제가 '과'제로 변경 1국 5과 50명
• 2008. 12. 31	생활체육과 ⇒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과 ⇒ 장애인문화체육과로 명칭 변경

2) 부서별 주요업무

2008년 12월 31일 현재 체육국의 체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 국제체육과, 장애인문화체육과의 부서별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육정책과는 체육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연구기관의 육성·지원, 경륜·경정사업 지도·감독,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지도·감독,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개최,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의 포상 등을 수행한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진흥 계획 수립·시행,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후보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지원,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및 국민체력실태조사, 공공체육시설 확충,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여가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스포츠여가산업 진흥 기반 조성, 스포츠·여가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스포츠·여가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록 및 신고시설업의 관리,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태권도공원 조성, 우수체육용구 생산 지원·장려,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체육과는 국제경기대회의 유치·개최 및 참가 지원, 국제체육교류 협정 체결 및 교류,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 스포츠외교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반도핑 정책 수립 등의 소관 업무를 하고 있다.

장애인문화체육과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장애인 체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 활동의 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조직

1) 개 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체육행정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

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존립의 목적이며, 주민의 체육활동은 바로 주민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복리는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풍요하고 평등한 경제생활, 문화적이고 인간다운 생활, 편리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의 삶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전체적인 사회발전으로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문화·체육 등의 사회문화 복지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그 대상으로 하는 생활행정이자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접촉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체육지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조직과 행정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의 변천

1982년 체육부 발족 이전의 지방 체육행정조직은 각 시·도 교육위원회로서 교육·과학에 관한 업무와 함께 체육 사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체육부가 발족한 후 1982년 12월 28일 국무총리 지시 사항인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 지원기구 정비강화방안'과 1983년 1월 14일 내무부 지침인 '시·도 체육지원 전담기구 설치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시·도 및 교육위원회에 체육행정 담당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각 시·도는 지역 실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아래 체육지원계를 두거나 체육지원담당관을 설치하고 지방체육진흥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부산직할시, 인천직할시, 경기도는 체육지원담당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 밑에 지원계와 시설계를 두었으며, 서울특별시는 올림픽업무를 전담하는 올림픽기획단을 설치하는 한편 기타 일반체육진흥업무는 총무과 서무계에서 담당하였다. 기타 시·도는 기획관리실에 체육지원계를 설치하여 체육업무를 관장하였다.

1989년에는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방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 주민체육업무를 전담할 행정부서를 생활체육과로 확대 설치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중앙정부조직이 축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행정조직도 체육담당부서가 다른 부서와 통합되면서 체육청소년과 또는 문화관광과 등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조직행태는 2008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 및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을 전담하는 부서가 담당 또는 팀단위로 존재하기

에 이르렀다.

3) 지방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 현황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각·시도에서는 대체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국 등의 국 단위 수준에서 체육진흥과, 체육청소년과의 과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하부로 체육진흥팀(계, 담당)과 체육시설팀(계, 담당)이 지방의 체육진흥업무와 시설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근무 인력은 평균 10명~20명 내외이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월드컵경기가 끝난 후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한 서울, 대구, 광주 등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에서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주민자치팀, 생활환경정비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체육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10명 내외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표 2-7)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서울	소 계	185	34	27	116	4	4
	문화국 체육과(체육진흥, 체육시설)	24	17	1	3	2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61	17	26	113	2	3
	시설관리공단						
부산	소 계	166	50	35	69	6	6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38	32	2	2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28	18	33	67	6	4
대구	소 계	167	73	39	54	1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17	12	5			
	세계육상지원단	67	48	16	3		
	체육시설관리사무소	83	13	18	51	1	
인천	소 계	105	29	21	12		43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18	14	3	1		
	시설관리공단 (문학경기장사업소, 삼산체육관사업단, 계산국민체육센터)	87	15	18	11		43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광주	소 계	47	20	7	8		12
	문화체육정책실 체육지원과	18	13	4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7	2	2	5		8
	월드컵경기장 관리사업소	12	5	1	2		4
대전	소 계	89	20	27	1		41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지원과(체육지원, 생활체육, 체육시설, 체전관리)	14	10	3	1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본부)	75	10	24			41
울산	소 계	137	36	47	54		
	문화체육국 체육지원과(체육기획, 생활체육, 대회지원)	16	11	4	1		
	시설관리공단	121	25	43	53		
경기	소 계	19	14	4	1		
	(본청)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행정, 체육지원, 체육시설)	14	9	4	1		
	(2청)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	5	5				
강원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 국제행사과	42	29	10	2		1
충북	문화관광환경국 체육과	12	10	1	1		
충남	문화국 체육청소년과	18	14	2	1		1
전북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16	11	4	1		
전남	관광문화국 스포츠산업과	19	14	4	1		
경북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체육지원, 체육시설, 장애인체육)	15	13	1	1		
경남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청소년과(체육행정, 생활체육, 체육청소년시설)	15	12	2	1		
제주	문화관광교통국 스포츠산업과	14	11	2	1		
총계	총 계	1066	390	233	324	11	108
	본청	382	285	68	22	2	5
	시설관리사업소	684	105	165	302	9	103

1. 기술직 : 전기·토목·건축·기계
 2. 기능직 : 사무 보조(워드 등)
 3. 별정직 : 공무원분류 상 별정직으로 채용된 체육지도사 등
 4. 계약직(전문직 포함) : 일용계약 등에 따라 채용된 체육전문가
- * 출처 : 각 지방자치단체(전국체전준비기획단 등 한시조직은 제외)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표 2-8)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서울	소 계	162	96	11	8	42	5
	문화체육과(문화공보과 등)/ 자치행정과(자치행정체육과 등)/ 사회진흥과 생활체육팀(계)/체육시설팀 등	162	96	11	8	42	5
	시설관리공단(센터)						
부산	문화체육과(체육청소년·진흥담당)/ 총무과/문화빙상센터(빙상팀)	82	59		10		13
대구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문화공보과	30	23	3	4		
인천	문화관광체육과/문화홍보과(실)/총 무과/문화체육과/문화공보과(실)/관 광문화과	39	30	3	6		
광주	소 계	30	16	8	4		2
	문화관광체육과/총무과	23	12	5	4		2
	광산구도시개발사업소	7	4	3			
대전	소 계	31	21	2	5	1	2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팀)/문화홍 보실/관광공보실	26	19	2	2	1	2
	체육시설사업소(구죽, 진잠체육관 /대덕문화체육관)	5	2		3		
울산	소 계	45	20	12	4		9
	문화체육과/문화관광과/문화홍보과	25	19	4	1		1
	도시관리공단	20	1	8	3		8
경기	소 계	970	245	174	193	80	278
	체육청소년과/문화체육과(문화관 광과 등)/ 교육체육과(공보체육과 등)/ 주민자치과(지원과)/ 평생학습 과/ 총무과	276	169	66	36	1	4
	시설관리공단(사업소), 체육관	694	76	108	157	79	274
강원	소 계	231	107	35	40	3	46
	체육진흥과/체육청소년과/복지문화 국(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스포츠 마케팅과/문화체육과/교육체육과 등	154	98	24	26	3	3
	시설관리공단	77	9	11	14		43
충북	소 계	163	61	31	36	25	10
	문화체육과/평생학습체육과/문화관광과	78	42	16	15	5	
	시설관리사업소(공단)	85	19	15	21	20	10

구 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충남	소 계	122	56	21	28	3	14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64	44	9	9	1	1
	공공시설관리사업소	58	12	12	19	2	13
전북	소 계	275	89	75	61	3	47
	체육진흥과/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태권도공원과/농촌관광과	103	54	20	24	2	3
	시설관리사업소(사무소)	172	35	55	37	1	44
전남	소 계	190	83	38	49	1	19
	문화체육과/문화관광과/스포츠산업과	163	77	32	42		12
	시설관리과/체육공원/문화체육진흥사업소/농어민체육관/공설운동장	27	6	6	7	1	7
경북	소 계	332	128	58	102	3	41
	체육진흥과/문화관광과(문화체육관광과 등)/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 등	231	101	34	57	3	36
	체육시설관리사업소/국민체육센터	101	27	24	45		5
경남	소 계	539	170	120	74	5	170
	문화관광과(문화체육과 등)/체육청소년과/문화공보과	174	85	42	33	4	10
	체육시설관리사업소(공단)/창녕개발공사	365	85	78	41	1	160
제주	소 계	126	11	18	19		78
	문화체육과/스포츠산업과	74	7	12	8		47
	체육시설관리사무소	52	4	6	11		31
총계	총 계	3367	1215	609	643	166	734
	본청	1704	935	283	285	62	139
	시설관리 조직	1663	280	326	358	104	595

1. 기술직 : 전기 · 토목 · 건축 · 기계
 2. 기능직 : 사무 보조(워드 등)
 3. 별정직 : 공무원분류 상 별정직으로 채용된 체육지도사 등
 4. 계약직(전문직 포함) : 일용계약 등에 따라 채용된 체육전문가
- * 출처 : 각 지방자치단체(전국체전준비기획단 등 한시조직은 제외)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설립배경 및 목적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국민에게는 ‘대통합의 장’이 되었으며, 민족적으로는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였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서울올림픽대회를 영원히 기념하고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과 성과를 보존,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4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 혁

국민체육진흥재단을 모체로 하여 1989년 4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경기시설이나 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0년 7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을 설립하였다. 그 후 공단은 국제청소년교류, 청소년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국제선수단 숙소 제공을 위하여 1990년 9월 올림픽유스호스텔을 개관하였고, 1993년 12월에는 (주)한국스포츠TV를 설립하였다.

또한 1994년 10월에는 안정적인 체육진흥재원 조성을 위해 잠실경륜장을 개장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합하여 부설기관으로 설치하였다. 2000년 2월에는 경영효율화의 한 방편으로 (주)한국스포츠TV를 매각하였으며, 2001년 9월에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개시하였다. 2002년 8월에는 경정장을 개장하였고, 2003년 3월에는 올림픽홀을, 2004년 9월에는 소마미술관을 개관하였다. 2006년 2월에는 경륜장을 광명돔경기장으로 이전하였고, 2008년 11월에는 조직효율화의 일환으로 경륜·경정사업을 경주사업본부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조직 및 인력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본부 이외에 스포츠산업본부와 경주사업본부, 체육과학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출자회사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체 조직은 이사장을 비롯하여 3임원 3본부(원)장 3단 36실 6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단본부는 3임원 7실 20팀으로 되어 있다.

스포츠산업본부는 1본부장 1단 2실 10팀으로 되어 있고 경주사업본부는 1본부장, 2단 23실 30팀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원은 1원장 4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원은 본부 174명, 스포츠산업 134명, 경주사업 404명, 연구원 71명 등 78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9)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력 현황

(2008. 12. 31 현재)

구 분	정 원 (현 원)								
	계	임 원	관리직	일반직	영업·기술	연구직	기 능	운영직	지 도
계	775(783)	6(5)	3(3)	409(397)	29(50)	41(32)	17(19)	270(277)	-
본 부	168(174)	3(3)	-	125(132)	-	-	5(3)	35(36)	-
스포츠산업	136(134)	1(0)	1(1)	66(45)	29(50)	-	6(5)	33(33)	-
경주사업	398(404)	1(1)	2(2)	196(194)	-	-	6(11)	193(196)	-
연구원	73(71)	1(1)	-	22(26)	-	41(32)	-	9(12)	-
(주)체육산업개발	212(187)	1(1)	-	40(34)	66(60)	-	40(33)	54(49)	11(10)

4) 자산현황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이익잉여금 3,110억원 등 발족기금 3,521억원으로 시작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조성액은 2008년 12월말 현재 1조 5,328억원이다. 주요 고정자산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0)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구 분	내 역
올림픽공원	770,908.90㎡(서울시 소유 몽촌토성 675,030.00㎡ 별도)
올림픽회관	연면적 24,303.35㎡, 지하 2층, 지상 15층
경기장 (6개)	제 1,2,3체육관, 올림픽수영장, 테니스장, 벨로드롬
올림픽유스호텔	연면적 25,055.69㎡, 지하 1층, 지상 18층
올림픽홀	연면적 10,827.93㎡, 지하 1층, 지상 2층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구 분	내 역	
올림픽미술관	연면적 10,191.17㎡, 지하 2층, 지상 2층	
올림픽 문화센터	연면적 9,639.50㎡, 지상 3층	
올림픽 스포츠센터	선수촌	대지 1,302.49㎡, 연면적 3,808.00㎡ (지하1층, 지상 3층)
	분 당	대지 3,880.00㎡, 연면적 17,141.23㎡ (지하3층, 지상 5층)
	일 산	대지 3,716.50㎡, 연면적 35,849.45㎡ (지하6층, 지상10층)
구 축 물	조각작품 및 기념조형물 218점	

5) 예 산

보조금사업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09년도 예산 규모는 1,189,997백만원으로 주요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회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사 업	금 액	사 업	금 액
	합 계	1,189,997	합 계	1,189,997
본부	계	102,322	계	102,322
	일반관리	9,939	일반관리	27,389
	올림픽공원	30,423	올림픽공원	26,133
	스포츠센터	14,988	스포츠센터	11,695
	스포츠산업	516	건설관리	16,810
	올림픽유스호텔	18,479	스포츠산업	1,039
	경륜·경정·투표권 전입금	27,976	투표권운영	1,258
			올림픽유스호텔	17,998
경륜	계	260,817	계	260,817
	경륜수득금	212,448	본장운영	116,705
	교차투표수수료	13,596	경륜훈련원	4,865
	운영자금이자수입	4,642	지점운영	47,457
	식당매점위탁수입	123	스포츠단	1,096
	지점매점수입	9,929	경륜예비비	1,917
	경정지점공동활용등	19,562	시설환경개선준비금	17,704
	기타수입	498	타기관배분금	32,548
	기타차입금	20	공단전출금	38,525
경정	계	84,244	계	84,244

구 분	수 입		지 출	
	사 업	금 액	사 업	금 액
	합 계	1,189,997	합 계	1,189,997
	경 정 수 득 금	77,628	본 장 운 영	43,110
	운 영 자 금 이 자 수 입	580	경 정 훈 련 원	1,003
	본 장 식 당 수 입	638	지 점 운 영	18,127
	본 장 지 점 매 점 수 입	2,554	스 포 츠 단	1,223
	조 정 호 수 입	1,939	경 정 예 비 비	1,182
	기 타 수 입	485	시 설 환 경 개 선 준 비 금	6,469
	기 금 차 입 금	420	타 기 관 배 분 금	7,561
			공 단 전 출 금	5,569
투 표 권	계	739,648	계	739,648
	투 표 권 수 입	706,790	투 표 권 위 탁 비	278,812
	지 급 보 증 금 회 수	22,455	타 기 관 배 분 금	85,596
	기 타 사 업 외 수 입	10,403	공 단 전 출 금	375,240
국 고	계	2,966	계	2,966

(표 2-12) 200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계	885,944	계	885,944
• 이자수입	27,243	• 기금관리비	12,449
• 회원제골프장수입	20,100	• 사업운영비	6,958
• 투자사업수입	14,573	- 부가금운영	496
• 연구원 운영수입	1,465	- 투자사업운영	2,489
• 법인회계전입금	379,911	- 연구원운영	3,973
- 경 룻	20,950	• 경상지출(보조금)	366,845
- 투표권	358,961	• 용자지출	16,692
• 복권기금전입금	22,663	• 투자지출	20,732
• 융자회수	22,564	• 공자금예탁	200,000
• 공자금원금회수	25,000	• 여유자금운용	262,268
• 여유자금회수	372,425		

4. 체육단체

1)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

대한올림픽위원회는 IOC의 올림픽 헌장 제1장과 제4장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우리나라의 국가 올림픽위원회(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로서 1946년 창설되어 1947년에 제41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사업에 관하여 IOC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올림픽 정신을 함양, 보급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적, 신체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제친선과 세계평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2-13) 대한올림픽위원회 사업 (KOC규정 제2장)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올림픽연합회(AN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대해 한국을 대표
•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와 IOC의 후원을 받는 지역대회, 대륙대회, 대륙간 대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을 구성하여 대회에 파견하고 관리
• 국내에 있어서 스포츠의 진흥 및 올림픽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올림픽 표장 등을 관리
• 올림픽청소년캠프, 올림픽아카데미의 대표자 선정, 파견 및 주관
• 스포츠의학의 진흥 및 IOC 및 국제경기연맹이 금지한 약물의 사용 금지활동
• 올림픽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의 사업 통할
• 각국 올림픽위원회와의 스포츠 교류
•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내 개최 시 개최도시 지명권 및 올림픽현장에 근거한 대회조직의 책임
• 올림픽박물관, 올림픽아카데미 등 올림픽 교육기구의 설립, 스포츠행정가 연수 및 올림픽 관련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교과과정 반영 노력을 통한 올림픽의 확산
•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경기단체로서, 대한체육회 및 당해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경기단체가 회장단 중에서 선출한 각 1인의 위원 △대한체육회 회장 및 사무총장 △위원총회가 선출하는 40인 이내의 인사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올림픽 참가 경험이 있는 현역 및 은퇴선수로서 조직된다. 위원장은 위원총회에서 대한체육회 회장을 추천 선임한다.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에는 최고의결기구인 위원총회와 최고집행기구인 상임위원회, 각종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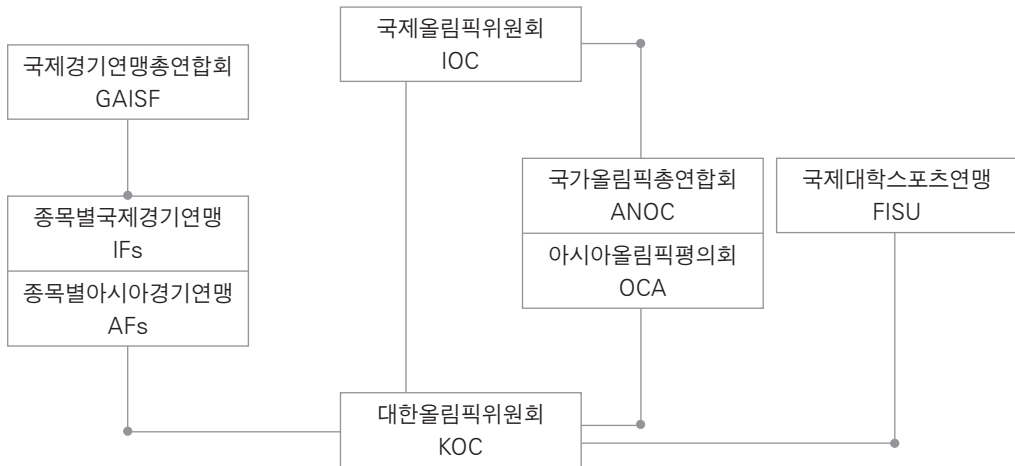
를 두고 있다. 위원총회는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규정의 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며, 상임위원회는 IOC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총회의 결의 또는 위임된 사항의 집행 처리, 위원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상정, 다음연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의 작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각종 위원회로는 대한대학생스포츠위원회·문화위원회·의무위원회·올림픽아카데미위원회·남북체육교류협력위원회·선수위원회·KOC미디어위원회·국제관계특별위원회·스포츠와환경위원회·스포츠마케팅위원회 등이 있다.

(표 2-14) 역대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성 명	기 간		성 명	기 간
제 1대	여운형	1947. 6 ~ 1947. 9	제14대	김택수	1974. 2 ~ 1979. 2
제 2대	정한범	1948. 2 ~ 1948. 9	제15대	박종규	1979. 2 ~ 1980. 7
제 3대	신익희	1948. 9 ~ 1949.10	제16대	조상호	1980. 7 ~ 1982. 7
제 4대	신흥우	1949.10 ~ 1951. 6	제17대	정주영	1982. 7 ~ 1984.10
제 5대	조병옥	1951. 6 ~ 1952. 9	제18대	노태우	1984.10 ~ 1985. 4
제 6대	이기봉	1952. 9 ~ 1960. 4	제19대	김종하	1985. 4 ~ 1989. 2
제 7대	김동하	1961. 7 ~ 1962. 1	제20대	김종열	1989. 2 ~ 1993. 2
제 8대	이주일	1962. 2 ~ 1962.12	제21대	김운용	1993. 2 ~ 1997. 2
제 9대	이 효	1962.12 ~ 1964. 1	제22대	김운용	1997. 2 ~ 2001. 2
제10대	이상백	1964. 1 ~ 1966. 4	제23대	김운용	2001. 2 ~ 2002. 5
제11대	장기영	1966. 6 ~ 1968. 2	제24대	이연택	2002. 5 ~ 2005. 2
제12대	민관식	1968. 3 ~ 1970. 1	제25대	김정길	2005. 2 ~ 2008. 4
제13대	김용우	1971. 7 ~ 1971.11	제26대	이연택	2008. 4 ~ 2009. 2

(표 2-15) 우리나라 역대 IOC위원

성 명	기 간	성 명	기 간
이기봉	1955~1960	김운용	1986~2005
이상백	1964~1966	이건희	1996~현재
장기영	1967~1977	박용성	2002~2007
김택수	1977~1983	문대성	2008~현재
박종규	1984~1985		



〈그림 2-2〉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체육기구

2) 대한체육회

(1) 설립배경 및 목적

대한체육회는 1920년 7월 13일에 창립되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창설된 대한체육회는 일제시대 때 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해방과 더불어 부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9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매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 우수선수 발굴과 스포츠인구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와 청소년대표 등 우수선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는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 △체육인의 복지 향상 등의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다.

(2) 연혁

1920년 7월 13일 기미년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창립된 조선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나, 1945년 11월 26일 광복과 더불어 조선체육회로 다시 부활하였다.

또한 1954년 3월 16일에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1968년 3월 1일에는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회가 흡수 통합되었다. 1982년 12월 31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대한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하였다.

1986년에는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1988년에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996년 4월에는 제6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가 개최된 것을 비롯하여, 1997년 1월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1997년 5월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개최, 1999년 1월 제4회 강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9년 6월 17일 제109차 IOC총회를 개최하고, 2002년 9월에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2003년 8월에는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아울러, 2006년 3월에는 2006 국가올림픽총연합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7년 4월에는 2014년 제17회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였고,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역대 최다 금메달 획득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세계 속에 한국스포츠를 빛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3) 조직 및 인력

대한체육회 정관 제6조는 “대한체육회가 가맹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별 아마추어 경기단체로서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52조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시·도에 지부를 두고, 해외에도 지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56개의 가맹경기단체와 16개의 시·도지부, 17개의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시·도체육회에는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별로 조직된 218개 시·군·구 체육회와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다. 시·도별 체육회 및 해외지부는 (표 2-16)와 (표 2-17)과 같다.

(표 2-16) 시·도 체육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설 립 일	예 산		
		2006	2007	2008
서울특별시체육회	1953. 2.20	15,659(17,013)	17,562(18,942)	18,454(21,548)
부산광역시체육회	1963. 3.17	15,102(15,496)	11,446(11,966)	12,861(16,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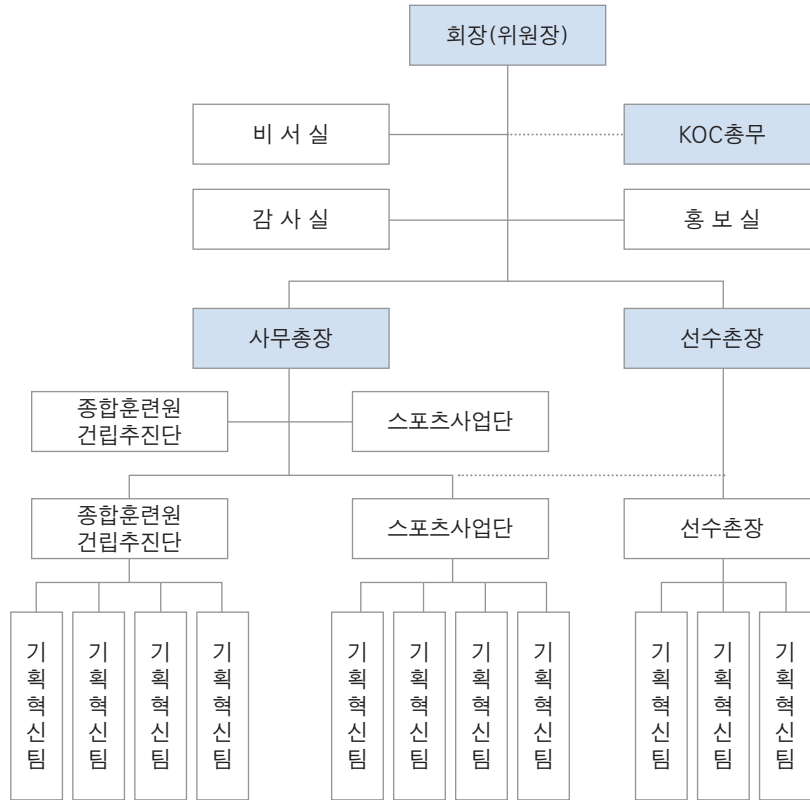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구 분	설 립 일	예 산		
		2006	2007	2008
대구광역시체육회	1981. 7.20	7,344	8,263	9,166
인천광역시체육회	1981. 7. 1	12,316(12,970)	13,521(14,174)	21,318
광주광역시체육회	1986.11. 1	7,817	9,622	8,051
대전광역시체육회	1989. 1. 1	9,606(9,810)	11,710(11,911)	13,266
울산광역시체육회	1997. 7.15	6,083(6,780)	6,815(7,830)	10,119(11,168)
경기도체육회	1946. 2	19,490(55,908)	22,359(75,512)	21,810(68,012)
강원도체육회	1946. 5. 1	9,786(23,759)	10,587(26,760)	12,706(25,854)
충청북도체육회	1946. 3	7,541(11,321)	8,366(13,524)	8,368(15,583)
충청남도체육회	1927. 3	17,038(29,346)	16,341(32,049)	17,483(31,368)
전라북도체육회	1947. 3.13	14,798(22,114)	14,766(24,455)	17,532(26,871)
전라남도체육회	1945. 9	7,305(13,188)	8,135(14,372)	16,053(24,186)
경상북도체육회	1949. 1	10,969(23,082)	13,412(25,706)	8,203(25,639)
경상남도체육회	1945.12.22	10,794(24,892)	11,191(25,671)	12,523(25,863)
제주도체육회	1951. 6.15	5,891(7,212)	5,573(7,090)	5,844(7,816)

괄호 안은 시군구 체육회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임 * 출처 : 대한체육회

(표 2-17) 대한체육회 해외 지부 현황

지부명	가맹일	지부명	가맹일	지부명	가맹일
일본	62. 5.25	브라질	85. 9.25	뉴질랜드	94. 7. 8
미국	72. 6. 7	호주	87. 9.28	필리핀	01.11.15
독일	76. 6. 3	아르헨티나	87. 9.28	중국	05. 4. 7
캐나다	77. 9.19	파라과이	89. 3.27	영국	06. 9.27
스페인	82. 9. 6	괌	89. 3.27	말레이시아	08. 4.25
홍콩	84. 8.31	사이판	99. 2. 5		



〈그림 2-3〉 대한체육회 기구표 (2008. 12월 현재)

대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각종위원회 및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각종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학생의 보건 및 체력 향상을 담당하는 학교체육위원회, △여성체육을 담당하는 여성체육위원회,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생활체육위원회 △국제종합경기,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경기자 및 경기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경기력향상위원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아래 사무처와 선수촌을 두고, 회장 직속의 감사실, 비서실과 홍보실을 두며 사무처는 사무총장 직속의 종합훈련원건립추진단과 스포츠사업단 두고, 사무총장 아래 경영총괄본부(기획혁신팀, 인사관리팀, 경영지원팀, 정보관리팀)와 체육진흥본부(학교생활체육팀, 경기운영팀, 국제교류팀, 국제경기팀) 두며, 선수촌에는 선수촌장을 두고 그 아래에 선수촌운영본부(선수촌관리팀,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훈련지원팀, 스포츠의과학팀) 두고 있으며 국제체육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KOC 총무를 두어 회장을 보좌하고 있다. 조직원은 임원의 경우 회장 1명, 부회장 11명, 이사 29명, 감사 3명이며, 1사무총장, 1선수총장, 3본부 3실 2단 11팀, 15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가맹경기단체 현황

대한체육회에 속한 경기단체는 정가맹 경기단체와 준가맹 경기단체로 구분된다. 정가맹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경기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맹약하여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받은 경기단체를 말한다. 준가맹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에 가맹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가맹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로서 정관 제7조 및 제8조의 권리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경기단체를 말한다.

대한체육회는 정가맹 경기단체와 준가맹 경기단체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대한체육회와의 권리·의무관계가 없는 인정단체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단체의 경우에도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대한체육회에는 54개 정가맹 경기단체, 2개 준가맹 경기단체 등 총 56개 가맹경기단체가 있으며 해당 종목의 보급 및 선수의 양성, 국내대회의 개최,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및 파견 등 국제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속한 경기단체 현황은 (표 2-18)과 같다.

(표 2-18)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영문	설립일	예산(백만원)		
				2006	2007	2008
1	대한육상경기연맹	Korea Amateur Athletic Federation	1945. 9.23	4,336	5,549	7,919
2	대한축구협회(사)	Korea Football Association	1928. 5.20	43,357	46,024	64,267
3	대한테니스협회(사)	Koera Tennis Association	1945.10. 1	3,687	4,875	4,320
4	대한정구협회(사)	Korea Soft Tennis Association	1945.10. 1	665	827	899
5	대한탁구협회(사)	Korea Table Tennis Association	1945. 9.28	2,034	2,398	1,964
6	대한핸드볼협회(사)	Korea Handball Federation	1945. 7.27	1,680	2,665	2,304
7	대한역도연맹(사)	Korea Weightlifting Federation	1945. 2.20	1,420	1,596	1,467
8	대한아마투어복싱연맹	Korean Amateur Boxing Federation	1945.11.10	1,287	1,546	1,614
9	대한빙상경기연맹(사)	Korea Skating Union	1945.11.24	3,688	4,279	4,909
10	대한유도회(사)	Korea Judo Association	1945.10.28	2,330	3,172	2,548
11	대한체조협회(사)	Korea Gymnastic Association	1945. 9. 1	4,720	5,464	5,450

연번	단체명	영문	설립일	예산(백만원)		
				2006	2007	2008
12	대한사이클연맹(사)	Korea Cycling Federation	1945.11.30	3,177	2,699	3,741
13	대한농구협회(사)	Korea Basketball Association	1945.12.19	2,193	3,753	2,916
14	대한배구협회(사)	Korea Volleyball Association	1945. 3. 6	3,603	3,910	4,085
15	대한씨름협회	Korea Ssireum Association	1927.11.27	962	946	1,226
16	대한럭비협회(사)	Korea Rugby Union	1946. 3.10	1,216	875	1,399
17	대한레슬링협회	Korea Wrestling Federation	1946. 3.14	2,456	3,088	3,258
18	대한수영연맹(사)	Korea Swimming Federation	1946. 3.15	2,904	2,594	3,207
19	대한야구협회(사)	Korea Baseball Association	1946. 3.18	2,303	2,261	2,150
20	대한스키협회(사)	Korea Ski Association	1946. 4.28	2,158	2,992	2,569
21	대한승마협회(사)	Korea Equestrian Federation	1946. 5.20	1,384	1,708	1,621
22	대한아이스하키협회(사)	Korea IceHockey Association	1947. 1.11	1,447	1,513	1,097
23	대한하키협회	Korea Hockey Association	1947. 6. 7	1,539	2,197	1,986
24	대한검도회(사)	Korea Kumdo Association	1953.11.20	1,580	1,971	1,844
25	대한궁도협회	Korea National Archery Association	1922. 7.11	360	436	469
26	대한사격연맹(사)	Korea Shooting Federation	1955. 2. 8	2,630	3,380	2,599
27	대한펜싱협회(사)	Korea Fencing Association	1947.11.26	1,284	2,220	1,499
28	대한태권도협회(사)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61. 9.16	3,637	4,912	4,933
29	대한배드민턴협회(사)	Korea Badminton Association	1957.11.15	6,993	6,796	5,619
30	대한조정협회(사)	Korean Rowing Association	1962.10.31	1,587	1,904	1,692
31	대한인라인롤러연맹(사)	Korea Roller Sports Federation	1979. 3.10	756	856	821
32	대한요트협회(사)	Korean Yachting Association	1979. 3.17	1,688	1,793	1,863
33	대한볼링협회(사)	Korea Bowling Congress	1969. 8.10	3,102	1,217	1,612
34	대한양궁협회	Korea Archery Association	1983. 3. 4	1,951	2,937	2,678
35	대한카누연맹(사)	Korean Canoe Federation	1983. 3.26	1,078	1,546	1,242
36	대한골프협회(사)	Korea Golf Association	1965. 9.23	2,579	2,881	2,853
37	대한근대5종연맹(사)	Modern Pentathlon Union of Korea	1982. 9.15	1,516	2,197	1,912
38	대한수상스키·웨이코보드협회(사)	Korea Waterski and Wakeboard Association	1979. 2.10	336	480	410
39	대한산악연맹(사)	Korean Alpine Federation	1962. 4.21	2,279	2,386	1,998
40	대한보디빌딩협회(사)	Korea Bodybuilding Federation	1987. 6.16	720	730	677
41	대한세팍타크로협회(사)	Korea Sepaktakraw Association	1988. 8.29	464	1,657	765
42	대한수중협회(사)	Korea Underwater Association	1968. 3. 6	905	902	1,115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연번	단체명	영문	설립일	예산(백만원)		
				2006	2007	2008
43	대한우슈협회	Korea Wushu Association	1989. 1.20	662	479	727
44	대한소프트볼협회(사)	Korea Softball Federation	1989. 1.25	776	843	867
45	대한B.S경기연맹	Korea Bobsleigh Skeleton Federation	1989. 5. 5	319	443	378
46	대한컬링경기연맹	Korean Curling Federation	1994. 1.25	517	509	615
47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사)	Korea Triathlon Federation	1987. 8. 2	1,855	1,830	2,251
48	대한바이애슬론연맹(사)	Biathlon Union of Korea	1982. 9.15	713	956	865
49	대한스쿼시연맹	Korea Squash Federation	1989. 5. 4	619	570	686
50	대한당구연맹	Korea Billiard Federation	1996. 5. 2	755	1,296	1,261
51	대한택견연맹(사)	Korea Taekkyon Association	1991. 1.14	947	1,059	645
52	대한공수도연맹	Korea Karatedo Federation	1980. 8.22	788	619	970
53	대한댄스스포츠연맹	Korea Federation of Dancesport	2001.10. 1	794	379	704
54	대한루지경기연맹	Federation Luge Korea	1989. 5. 5			182
55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준)	Korea Orienteering Federation	1977.10.10	207	181	597
56	대한바둑협회(준)	Korea Baduk Association	2002. 1.25	650	1,447	1,066

(5) 재정현황

대한체육회의 2008년도 예산은 자체수입 125억 6,600만원, 국고 649억 7,7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589억 5,400만원 등 총 1,364억 9,7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의 1,052억 2,100만원보다 약 29.724% 증가한 규모이다.

(표 2-19) 대한체육회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계(A)	재원별			자체예산비중 (B/A) × 100(%)
		국고	기금	자체(B)	
2006년	95,592	45,541	42,109	7,942	8.3
2007년	105,221	44,910	53,249	7,061	6.7
2008년	136,497	64,977	58,954	12,566	9.2

* 출처 : 대한체육회

(표 2-20)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의 자체수입 비율

(단위 :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 100(%)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 100(%)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 100(%)
시·도체육회	177,539	6,403	3.6	189,669	6,450	3.4	213,757	6,116	2.9
시·군·구체육회	110,513	6,470	5.9	138,178	5,949	4.3	138,621	8,421	6.0
가맹경기단체	149,151	95,755	64.2	158,740	88,366	55.7	175,333	115,127	65.7

* 출처 : 대한체육회

3)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 설립배경 및 목적

1986년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일반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열기 고조와 산업발달과 자동화시대의 도래로 국민건강 및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생활체육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및 시설건립 뿐만 아니라 클럽중심의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 처럼 체육동호인의 활동을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동호인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이들 단체들을 대표하는 민간차원의 생활체육 중심단체를 통해 지원함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국의 체육동호인들은 1990년 7월부터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결성을 시작하였으며, 이어 시·도 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을 추진하여 1990년 11월 30일 15개 시·도 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이러한 배경 아래, 민간차원에서 범국민 체육활동을 확산하고 다양한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목적으로 각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참여 속에서 1991년 2월 6일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관련 중심단체로서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건강과 체력 증진 △국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 △세계 한민족의 동질성과 조국애 함양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 혁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1991년 2월 6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이후 1991년 3월 9일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의 가입을 시작으로 종목별 연합회가 속속 결성되었다.

또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에서 개최하던 세계한민족축전 행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산하단체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1994년 7월 31일 국민생활체육협회에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가 통합되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세계한민족축전의 운영 및 참가동포의 사후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해외동포를 위한 해외생활체육 실천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 등 풀뿌리 생활체육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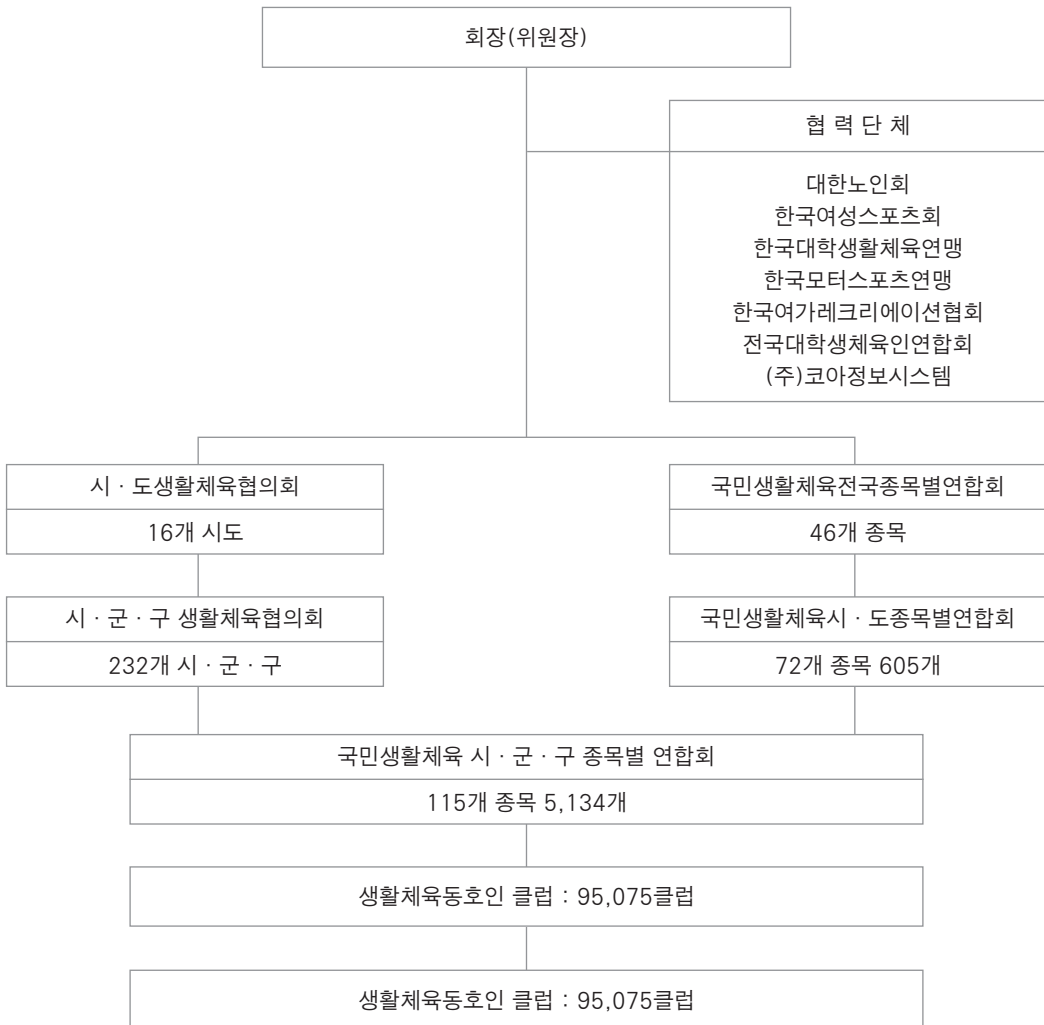
(3) 조직 및 인력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2008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와 46개 전국종목별연합회 및 7개 협력단체가 있으며,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에는 해당 시·도 행정구역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와 생활체육 시·도별 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되는데 전국적으로 232개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와 72종목 605개의 시·도 종목별연합회가 있고,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는 115종목 5,134개 시·군·구 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되어 전국적인 동호인클럽 연결망을 갖추고 점차 선진국형 발전형태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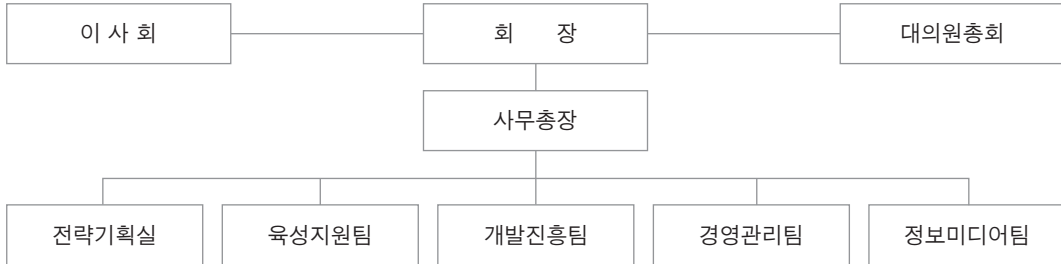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에는 1실 4팀이 있으며, 전략기획실은 기획, 예산업무와, 스포츠마케팅 업무, 육성지원팀은 산하 회원단체관리 업무와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 전국종목별연합회육성,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및 생활체육국제교류 업무, 개발진흥팀은 스포츠클럽육성지원 및 사업지원 업무, 경영관리팀은 인사, 회계 및 감사 업무, 정보미디어팀은 홍보·공보 및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원은 창립초기 임원인 회장, 사무총장 포함 정원 25명으로 출범한 이래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증가하는 국민생활체육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직의 확대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던 중, 정부의 체육단체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94년 7월 31일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정원을 47명으로 증원하였다. 이후 21세기 무한경쟁의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고 생활체육 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전산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1996

년 3월 11일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정원 52명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나, 1998년 IMF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정원 38명에서 2008년 현재 41명에 이르렀다.



〈그림 2-4〉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구성도



〈그림 2-5〉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 기구 : 1실 4팀

(4) 회원단체 현황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원단체는 각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와 전국종목별연합회 및 협력단체로 구성된다. 종목별 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정한 종목별 체육동호인의 중앙조직을 말하며, 협력단체는 국민생활체육협회 활동에 참가를 희망하여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인정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또한, 시·도 생활체육협의회는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와 시·도 종목별 연합회로 구성되며,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시·군·구 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된다.

시·도(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지역주민 참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전개를 통한 생활체육 동호인의 지속적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는 해당 종목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신규 동호인클럽을 창출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전국규모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주관, 해당종목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신규 동호인클럽 창출을 위한 안내 및 동호인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 2-21)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현황

구 분	설 립 일	예 산(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서울특별시	1990.11.20	3,963(7,478)	3,235(7,672)	6,546(9,998)	7,413(16,181)	7,759(15,552)
부산광역시	1991. 3.20	1,130(2,704)	1,168(3,568)	1,525(4,026)	1,577(4,316)	1,675(4,641)
대구광역시	1991. 2. 1	1,161(2,944)	1,161(3,076)	1,274(3,649)	1,453(4,342)	4,818(7,263)
인천광역시	1991. 4.25	1,094(2,383)	1,250(3,010)	1,672(3,656)	3,516(5,329)	2,998(4,898)
광주광역시	1991. 4.22	1,880(2,966)	1,371(2,740)	1,487(3,055)	1,520(3,318)	1,232(3,016)
대전광역시	1991. 7.26	1,995(3,515)	1,767(3,847)	1,338(3,596)	1,593(3,946)	1,746(4,494)
울산광역시	1997. 9. 3	1,095(2,798)	1,185(2,933)	1,431(3,611)	1,705(7,610)	1,286(3,697)
경 기 도	1990.11.29	7,481(20,077)	7,564(23,401)	7,288(24,501)	7,398(30,408)	6,753(29,418)
강 원 도	1991. 7. 1	1,117(4,962)	1,388(7,172)	1,174(7,732)	1,547(10,042)	1,293(9,451)
충 청 북 도	1990.11. 5	1,212(3,894)	1,982(4,829)	1,292(5,506)	1,456(6,047)	1,489(5,832)
충 청 남 도	1991. 5.25	1,953(4,240)	3,395(7,242)	1,577(6,805)	1,658(6,584)	1,297(6,836)
전 라 북 도	1990. 9.20	1,171(3,227)	2,321(6,898)	2,639(7,490)	2,411(8,387)	1,856(8,044)
전 라 남 도	1990. 8.22	2,332(5,254)	1,761(5,966)	3,590(9,220)	2,188(5,879)	1,545(7,678)
경 상 북 도	1990. 9.21	1,497(4,571)	1,486(4,735)	1,612(7,499)	2,414(6,110)	1,400(5,530)
경 상 남 도	1990.11.20	1,096(4,620)	1,049(6,633)	1,169(7,383)	1,246(8,141)	1,170(8,843)
제주특별자치도	1991. 5.13	1,277(1,907)	1,372(2,085)	1,566(2,570)	3,016(4,849)	2,837(4,093)

괄호안은 시군구 협의회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임 * 출처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표 2-22)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 연합회 현황

연 번	구 분	설 립 일	예 산(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1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1991. 3. 9	1,351	1,263	1,616	1,979	2,003
2	국민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연합회	1991. 3.31	614	640	718	788	910
3	국민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연합회	1991. 4. 2	940	1,190	1,272	1,602	1,509
4	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	1991. 7.13	240	279	286	338	341
5	국민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	1991. 9.26	243	207	293	309	367
6	국민생활체육전국스케이팅연합회	1991.11.20	129	133	154	143	198
7	국민생활체육전국윈드서핑연합회	1993. 2.10	83	94	206	197	203
8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	1993. 2.13	465	437	421	546	580
9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1993. 3.12	253	189	186	240	215
10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	1994.10.19	245	253	361	602	476
11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1994.11.29	233	281	224	224	386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연 번	구 분	설 립 일	예 산(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12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1994. 8.23	58	79	84	208	333
13	국민생활체육전국사격연합회	1995. 2.17	173	245	220	179	274
14	국민생활체육전국스키연합회	1996. 2.23	138	161	134	208	168
15	국민생활체육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	1997. 1.17	426	400	162	168	166
16	국민생활체육전국볼링연합회	1997. 2.18	222	353	329	357	302
17	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	1998.11.30	267	262	274	257	464
18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1999. 1. 1	93	102	171	539	1,662
19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1999. 1.16	148	133	118	101	188
20	국민생활체육전국풋살연합회	1999. 1.19	162	177	264	426	441
21	국민생활체육전국생활체조연합회	1999. 1.22	223	251	294	332	531
22	국민생활체육전국종합무술연합회	1999. 3.10	182	215	217	248	275
23	국민생활체육전국정구연합회	1999. 3.18	125	135	157	165	160
24	국민생활체육전국스쿼시연합회	1999. 4.22	53	65	58	75	163
25	국민생활체육전국농구연합회	1999. 4.24	258	305	278	341	273
26	국민생활체육전국국무도연합회	1999. 6.28	207	171	170	178	199
27	국민생활체육전국합기도연합회	1999. 7.20	180	206	164	143	407
28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1999. 7.20	160	184	284	383	373
28	국민생활체육전국하키연합회	1999. 8.19	47	33	25	25	44
30	국민생활체육전국보디빌딩연합회	1999. 9.29	131	136	142	89	130
31	국민생활체육전국줄다리기연합회	1999.11.24	105	85	99	107	111
32	국민생활체육전국국학기공연합회	1999.11.27	138	156	231	195	294
33	국민생활체육전국익스트림게임연합회	2000. 6. 9	4	16	22	22	72
34	국민생활체육전국골프연합회	2000. 7. 7	87	156	138	145	218
35	국민생활체육전국당구연합회	2000.12.15	140	192	169	190	246
36	국민생활체육전국인라인하키연합회	2001. 2. 7	54	46	85	85	80
37	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연합회	2001. 3.10	146	170	173	191	217
38	국민생활체육전국늑시연합회	2001. 3.31	202	237	273	223	316
39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2001. 4.22	291	236	203	277	399
40	국민생활체육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	2002. 8. 9	52	190	100	123	393
41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2003. 3.31	224	34	77	76	92
42	국민생활체육전국라켓볼연합회	2003. 3.31	110	63	102	127	131
43	국민생활체육전국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2003. 3.31	173	5	148	169	210
44	국민생활체육전국등산연합회	2003. 3.31	108	108	111	103	131
45	국민생활체육전국유수연연합회	2004. 1.30	128	156	193	124	168
46	국민생활체육전국씨름연합회	2004. 1.30	228	249	491	788	1,133

(5) 재정현황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창립초기 9억7천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자체예산을 포함하여 12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출발하였으나,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업무량의 증대 및 세계한민족축전의 개최에 따라 그 사업규모가 크게 증대되어, 2008년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162억8,335만원 및 자체예산 15억1,750만원 등 총 178억85만원의 예산규모로 성장하였다.

(표 2-23)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계(A)	재 원 별			자체수입비중 (B/A) × 100(%)
		국 고	기 금	자체수입(B)	
1997	9,351	2,188	6,043	1,120	11.9
1999	10,528	2,276	6,828	1,424	13.5
2001	15,876	4,056	8,555	3,265	20.5
2003	19,171	-	17,983	1,188	6.2
2004	20,330	-	18,294	2,036	10.0
2005	18,590	-	17,408	1,182	6.4
2006	18,209	-	16,891	1,318	7.2
2007	20,302	-	18,911	1,391	7.4
2008	17,801	-	16,283	1,518	8.5

* 출처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표 2-24) 회원단체 예산과 자체수입 비율

(단위 : 백만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예산(A)	자체 수입(B)	B/A × 100 (%)	전체 예산(A)	자체 수입(B)	B/A × 100 (%)	전체 예산(A)	자체 수입(B)	B/A × 100 (%)	전체 예산(A)	자체 수입(B)	B/A × 100 (%)	전체 예산(A)	자체 수입(B)	B/A × 100 (%)
시·도협의회	31,454	2,881	9.2	33,455	2,996	8.9	37,188	2,497	6.7	42,111	2,482	5.8	41,152	1,479	3.6
시·군·구협의회	77,540	4,219	5.4	62,352	4,346	6.9	73,116	5,264	7.1	89,378	5,308	5.9	88,134	7,512	8.5
종목별연합회	10,239	5,045	49.3	10,678	5,196	48.7	11,897	8,537	71.8	17,809	9,624	54.0	17,980	12,226	68.0

* 출처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제3절 체육진흥재원

1. 개 관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은 크게 중앙정부의 국고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민간체육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체재원 등으로 구성된다. (표 2-25)과 같이 범위를 한정하여 산정한 체육진흥재원의 규모는 2003년 1조6,600억원, 2004년 1조7,976억원, 2005년 1조9,762억원, 2006년 1조8,957억원, 2007년 2조 8416억원, 2008년 3조 1,303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시·도 교육청의 체육예산 등의 재원을 포함할 경우 실제 체육진흥재원의 규모는 이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25)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단위 : 억원)

	국 고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 방 비	체육단체	계
2003	1,426	1,726	12,847	601	16,600
2004	1,093	1,526	14,443	914	17,976
2005	1,137	1,747	16,041	837	19,762
2006	1,489	2,291	13,835	1,342	18,957
2007	1,812	2,367	20,510	1,266	25,955
2008(%)	2,343(7.5)	2,578(8.2)	24,808(79.3)	1,574(5.0)	31,303(100)

* 국 고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예산

* 지 방 비 : 시도 및 시군구 일반회계 최종예산

* 체육단체 : 대한체육회 및 지회, 가맹경기단체(중앙) 자체 수입 예산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시·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연합회(중앙) 자체수입 예산

2008년도 체육재정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비가 7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가 7.5%, 기금이 8.2%, 체육단체 자체수입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까지 국고가 국민체육진흥기금보다 많으나, 2003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국고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즉, 국가 체육예산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2001년 체육국의 예산은 1,639억 3,600만원으로 월드컵이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의 국제체육부문이 899억9,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전문체육육성 지원으로 512억3,6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2년도 예산은 1,588억 7,400만원으로 국제체육 46.4%, 전문체육 34.0%, 생활체육 18.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생활체육부문의 예산은 1998년 75억원 수준에서 2002년 297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의 경우 327억 800만원으로 22.9%의 점유율을 보여 다른 부문에 비해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예산이 규모나 점유율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26 참조).

2004년의 경우는 예산이 1,093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2년과 2003년은 각각 월드컵축구대회,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된 반면 2004년에는 대규모 국제대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년 예산은 1,137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였으며 전문체육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 지원은 기금사업의 비중 증가와 함께 국고예산의 감소를 볼 수 있다. 2007년도는 2,22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총액 규모에서 약 850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의 경우는 2,34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총액 규모에서 약 6억원 가량 소폭 증가하였다.

(표 2-26)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158,874	142,556	109,314	113,684	148,852	233,715	234,340
전문체육	54,059	53,056	68,361	79,518	98,342	179,341	193,058
생활체육	29,654	32,708	31,083	23,452	25,776	27,248	17,913
국제체육	73,720	54,187	7,331	8,025	13,899	11,939	12,997
스포츠산업	1,441	2,605	2,539	2,689	10,835	6,674	6,262
장애인체육	-	-	-	-	-	8,513	4,110

* 2008년도 분야별 예산은 국고(일반, 군특) 총액을 기재

· 일반행정지원 예산(264백만원)은 생활체육에 포함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정부예산에서 체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93년 0.10%에서 '98년 0.22%로 급증하였으나 2004년 0.09%, 2005년 0.08%, 2006년 0.10%, 2007년 0.11%, 2008년 0.13%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2002월드컵축구경기대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에 예산이 반영되어 증가되었다가 사업이 종료되면서 축소되었으나, 다시 2008베이징올림픽,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개최에 따라 점차 증가되는 현상이다(표 2-27 참조).

(표 2-27) 정부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정부예산(A)	문 화 관 광 부		체 육 부 문	
		예 산(B)	점 유 율(B/A, %)	예 산(B)	점 유 율(B/A, %)
1993	407,641	2,377	0.58	428	0.10
1995	557,805	3,838	0.69	511	0.09
1997	705,284	5,245	0.74	1,541	0.21
1998	807,629	6,183	0.76	1,816	0.22
1999	884,850	6,943	0.78	1,572	0.18
2000	946,199	9,149	0.96	1,799	0.19
2001	1,002,246	9,706	0.96	1,639	0.16
2002	1,060,963	10,991	1.03	1,589	0.15
2003	1,114,831	11,401	1.02	1,425	0.13
2004	1,183,560	15,340	1.30	1,093	0.09
2005	1,343,704	15,676	1.17	1,137	0.08
2006	1,448,076	9,644	0.66	1,489	0.10
2007	1,641,435	12,681	0.77	1,812	0.11
2008	1,782,797	15,136	0.85	2,343	0.13

* 2005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문화재청, 청소년 예산이 포함되었음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국고 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기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부세·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조되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30~50%인 국고 보조율에 따라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국고보조 사업의 예산 증가는 지방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지방행정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교실 등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다.

(표 2-28)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08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09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서울특별시	28,086,848	196,249	0.70	28,387,517	201,445	0.71
부산광역시	7,676,924	121,397	1.58	7,320,203	108,370	1.48
대구광역시	4,550,670	102,129	2.24	5,397,242	115,192	2.13
인천광역시	8,244,648	82,988	1.01	8,796,247	92,715	1.05
광주광역시	3,150,920	49,407	1.56	3,042,088	37,270	1.22
대전광역시	2,790,401	54,094	1.94	2,807,482	61,260	2.18
울산광역시	3,450,044	67,357	1.95	3,548,419	58,995	1.66
경기도	27,432,540	461,675	1.68	26,810,514	528,551	1.97
강원도	7,876,568	247,995	3.15	7,563,695	180,943	2.39
충청북도	6,178,081	79,610	1.20	6,282,156	75,574	1.20
충청남도	8,357,937	166,874	1.99	8,243,458	119,902	1.45
전라북도	8,798,313	104,877	1.19	8,909,424	102,699	1.15
전라남도	11,516,783	187,643	1.63	11,722,080	152,044	1.30
경상북도	12,542,276	234,312	1.90	11,603,622	161,332	1.40
경상남도	13,176,211	284,488	2.16	12,661,346	246,547	1.95
제주특별자치도	2,215,074	39,742	1.80	2,218,931	40,140	1.80
합계	156,044,238	2,480,837	1.73	155,314,424	2,282,979	1.56

1. 2008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고 + 지방비, 일반회계 최종예산

2. 2009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고 + 지방비, 일반회계 당초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포함한 금액(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008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2조48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156조44억원의 1.73%를 차지했으며, 2009년도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예산 155조3144억원 중 2조 2829억원으로 1.56%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도 2009년 예산의 경우 경기도가 5285억원인 것에 반해 제주도는 401억원으로 경기도의 약 7.58%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편차 현상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있으나, 체육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의 건설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2-29, 표 2-30).

(표 2-29)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08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09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서울특별시	20,974,402	95,197	0.45	21,036,900	98,436	0.47
부산광역시	5,006,310	100,769	2.013	4,781,366	93,371	1.953
대구광역시	2,811,000	67,924	2.41	3,412,000	95,117	2.78
인천광역시	5,971,960	57,683	0.97	6,558,253	71,363	1.09
광주광역시	2,105,374	40,482	1.92	2,023,211	32,447	1.60
대전광역시	1,936,003	48,337	2.50	1,920,005	55,809	2.91
울산광역시	2,363,905	34,711	1.46	2,595,794	37,842	1.45
경기도	10,237,373	49,721	0.49	10,075,151	49,061	0.49
강원도	2,609,300	93,840	3.60	2,662,000	44,732	1.68
충청북도	2,165,027	11,367	0.50	2,594,889	8,761	0.30
충청남도	3,071,000	40,646	1.30	3,238,000	39,630	1.20
전라북도	3,344,160	19,844	0.59	3,401,827	26,408	0.78
전라남도	4,073,940	44,463	1.09	4,624,312	45,415	0.98
경상북도	4,039,660	40,002	1.00	3,863,300	25,475	0.70
경상남도	4,638,551	15,333	0.33	4,528,328	19,692	0.43
제주특별자치도	2,215,074	39,742	1.80	2,218,931	40,140	1.80
합계	77,563,039	800,061	1.40	79,534,267	783,699	1.29

1. 2008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고 + 지방비, 일반회계 최종예산

2. 2009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고 + 지방비, 일반회계 당초예산

* 광역자치단체 예산만 계산(기초자치단체 보조금 포함)

(표 2-30)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08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09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서울특별시	7,112,446	101,052	1.42	7,350,617	103,009	1.40
부산광역시	2,670,614	20,628	0.77	2,538,837	14,999	0.59
대구광역시	1,739,670	34,205	1.96	1,985,242	20,075	1.01
인천광역시	2,272,688	25,305	1.11	2,237,994	21,352	0.95
광주광역시	1,045,546	8,925	0.85	1,018,877	4,823	0.47
대전광역시	854,398	5,757	0.67	887,477	5,451	0.61
울산광역시	1,086,139	32,646	3.00	952,625	21,153	2.22
경기도	17,195,167	411,954	2.40	16,735,363	479,490	2.81
강원도	5,267,268	154,155	2.93	4,901,695	136,211	2.78
충청북도	4,013,054	68,243	1.70	3,687,267	66,813	1.80
충청남도	5,286,937	126,228	2.39	5,005,458	80,272	1.60
전라북도	5,454,153	85,033	1.56	5,507,597	76,291	1.39
전라남도	7,442,843	143,180	1.92	7,097,768	106,629	1.50
경상북도	8,502,616	194,310	2.30	7,740,322	135,857	1.80
경상남도	8,537,660	269,155	3.15	8,133,018	226,855	2.79
제주특별자치도	-	-	-	-	-	-
합계	78,481,199	1,680,776	1.76	75,780,157	1,499,280	1.48

1. 2008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고 + 지방비, 일반회계 최종예산

2. 2009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고 + 지방비, 일반회계 당초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총계

4. 국민체육진흥기금

1) 설치근거 및 연혁

최초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 여건 조성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법률 제12336호, 1972. 8. 14)이 제정되어 1974년 1월 1일부터 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이 시작되면서 탄생하였다.

1972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설립(허가권자 : 문교부장

관, 1972. 9. 23) 되었다. 1982년에는 「정부조직법」(법률 제3540호, 1982. 3. 20)의 개정으로 개정 법률에 따라 체육진흥업무가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다.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다. 또한 1989년 4월 20일 국민체육진흥재단이 해산되고 올림픽잉여금 3,110억원 등 총 3,521억원의 발족기금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2) 기금의 필요성

체육(Sports)은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밑거름이자 국가 이미지·경쟁력 제고의 수단이며, 또한 사회·국민통합의 동력이며, 건전 청소년육성의 교육기회 제공 등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선진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이러한 체육의 가치를 인식하여 체육진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2년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면개정 이후 예산 및 기금으로 전문·생활·학교체육진흥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 및 체육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욕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유형의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스포츠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체육활동에 기초한 여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고 재원은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는데 큰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증가하는 국민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첫째, 체육 재정 수요에 대한 정부예산의 한계 둘째, 체육 인프라의 부족 셋째, 국민복지증진 차원에서의 체육정책 실현 넷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에서 찾을 수 있다.

(1) 체육재정 수요에 대한 정부예산의 한계

우리나라의 체육재정은 크게 정부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민간기부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체육부문 예산이 정부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8년 0.06%로 선진국의 체육예산비중(0.2%~1.6%)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현재의 정부예산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체육 욕구 증가 등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는 체육재정 수요에 대처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방·교육·복지 등 국가재정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체육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체육 인프라의 부족

우리나라의 체육인프라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등 정부의 지속적인 체육시설의 확충 노력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선진국과 비교시에는 여전히 체육 인프라의 양과 질에서 모두 열악한 상황이다.

2006년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적정 체육시설 소요면적은 $5.7m^2$ 로 최근의 급격한 공공체육시설 공급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국민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은 $2.38m^2$ 로 소요면적 대비 41.7% 수준에 미치고 있다.

(표 2-31)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및 보급률 변화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면 적	1.92㎡/인	2.09㎡/인	2.38㎡/인
보 급 율	33.7%	36.7%	41.7%

(표 2-32) 체육활동참여의 우선조건

구 분	비 율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방	44.2 %
체육활동의 홍보활동 강화	14.2 %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3.5 %
체육시설의 사용료 조절	13.7 %
체육활동 기구의 품질개선 및 보급	8.8 %
지도자의 질적 향상 및 양적 증가	4.9 %
기 타	-

2008년도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체육활동 참여의 우선조건

으로서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방을 가장 많이(44.2%) 선택하였다. 체육활동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학교운동장이 23%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16.3%, 헬스클럽 11.3%, 등산로 8.4%, 시설스포츠센터 4.8% 순이었다.

(3) 국민복지 증진 차원에서의 체육정책 실현

스포츠는 문화복지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를 진흥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에 속하며, 국가적인 지원 없이 민간부문의 활동에만 맡겨 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체육부문을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문에만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경쟁시장의 속성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이용기회가 박탈되는 등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국민복지정책을 이루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 부문에 대한 공익기금의 개입이 불가피한 바, 기금의 역할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4)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

오늘날 올림픽, 월드컵 등과 같은 국제경기대회는 단순한 스포츠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그 자체가 국가 위상제고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상승 및 경제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스포츠산업의 성장가능성은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포츠산업 육성차원에서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 용품 개발, 스포츠 마케팅 확장 등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서도 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3) 기금 조성

(1) 조성재원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해 배분되는 복권수익금, 경륜·경정사업 등에 따른 수익금,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따른 기금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시설물의 대여, 임대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2) 조성실적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이익잉여금 3,110억원 등 발족기금 3,521억원을 기반으로 '89~'08년까지 3조 3,971억원을 조성하고, 2조 2,16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08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조 5,328억원이다.

(표 2-33) 기금조성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발족기금	조성금액	기금지원액	적립기금
'89~'07	3,521	29,580	19,586	13,515
'08	-	4,391	2,578	1,813
합 계	3,521	33,971	22,164	15,328

4) 기금지원 실적

(1) 지원 실적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4) 기금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실 적															
	소계	'89~'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22,164	2,130	548	593	704	972	2,708	1,031	1,243	1,726	1,526	1,747	2,291	2,367	2,578	
국민 체육 진흥	소계	21,119	1,394	439	478	649	942	2,708	1,031	1,243	1,726	1,526	1,747	2,291	2,367	2,578
	전문 체육	9,656	933	300	305	415	443	2,324	522	603	829	420	443	556	667	896
	생활 체육	10,023	394	113	145	200	447	301	430	555	747	952	1,145	1,549	1,527	1,518
	학교 체육	1,440	67	26	28	34	52	83	79	85	150	154	159	186	173	164
청소년육성	774	500	100	100	44	30	-	-	-	-	-	-	-	-	-	
올림픽기념	271	236	9	15	11	-	-	-	-	-	-	-	-	-	-	

※ 전문체육 부문에는 월드컵경기장 건설비(2,103억원) 포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8년 현재 국민체육진흥 2조 1,119억원, 청소년육성 774억원, 올림픽기념사업 271억원 등 총 2조 2,164억원이 지원되었다. 이 중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에 9,656억원이, 생활체육에 1조 23억원, 학교체육에 1,440억원이 지원되었다.

(2) 용자 실적

국민체육진흥과 한축을 이루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기금의 용자실적을 보면 체육시설업체에 1991년부터 2008년까지 417개업체에 총 1,177억원이 용자되었고,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 103개업체에 159억원이 용자되었으며, 2006년부터 시작된 스포츠서비스업체에는 2008년 말 현재 총 10개업체에 28억원이 용자되었다. 이외에도 1991년부터 1999년까지 국제경기대회 시설설치자를 대상으로(2개업체 80억원) 용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5) 지원성과

지난 세월동안 우리나라 체육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위선양과 국민 사기진작 그리고 국민복지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체육정책에 따라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건인차가 되어 왔으며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서울올림픽잉여금 등 3,521억원을 기초재원으로 출발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그 동안 내실있는 조성·운영을 통해 2008년말 기준 1조 5,328억원을 적립하였으며, 기금조성 기간 중에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육성 등 국민체육진흥분야에 2조 1,119억원, 청소년분야에 774억원, 올림픽기념사업에 271억원 등 총 2조 2,164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체육진흥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금의 지원성과를 2008년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육복지 여건 조성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학교·지자체·특수시설 등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마을단위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기반시설(1,007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등 체육인력·보급, 각종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및 스포츠클럽 육성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참여율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426억원)를 견인하고 있다.

둘째, 전문체육, 국제대회 지원으로 국위선양 및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 종합 4위라는 놀라운 성과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온 바, '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31개의 메달획득으로 종합순위 7위라는 역대 최대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후보선수 육성, 전문체육시설 확충, 소년체전 지원, 연금 및 체육장학금 등 체육인 복지향상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2008년에는 우수선수 육성(74억원), 국내대회(132억원), 학교체육육성(45억원), 체육인복지사업(70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체육교류 증진을 위해 청소년체육교류, 국제체육교류에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북경올림픽대비 특별지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등 국제대회 참가 및 유치활동(189억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스포츠산업을 신규 유망산업으로 육성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지원사업 이외에도 국내 열악한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체(94억원) 및 우수체육용기구 생산업체(15억원), 스포츠서비스업체(13억원) 등에 체육산업 융자를 실시하였고 경륜사업, 경정사업 등 기금사업융자(43억원)와 경쟁훈련원 건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등 기금조성투자사업(41억원)을 지원하였다.

넷째, 장애인체육을 진흥해 나가고 있다. 2006년 1월 장애인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광부(現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과 아울러 장애인체육 정착 및 진흥을 위한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까지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 6억원, 시각장애인생활체육 2억원 등 8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전문체육분야(10억원), 생활체육분야(39억원)에 지원을 하여 장애인체육의 진흥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체육의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으며 2008년에는 216억원으로 총 지원규모를 확대하였고 종합체육시설 건립지원에 신규 75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기여가 기대되고 있다.

다섯째, 스포츠과학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체육학회를 비롯한 분과학회의 학술활동 지원을 통해 스포츠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을 부설 기관화하여(現 체육과학연구원) 직접 운영함으로써 스포츠과학연구는 물론 체육정책개발 지원, 경기력향상 지원, 스포츠정보 전산화, 스포츠산업 기술지원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2008년 40억원 지원)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4절 체육관련법제

1. 개 관

체육관련법은 특수한 법의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실정법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을 말한다. 체육관련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법체계를 실정법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법을 분류하는 데는 법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효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의 수는 약 4,000여건으로 이런 법령은 형식에 따라서 피라미드식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최상의 위치에는 헌법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입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과 부령이 시행규칙으로서 존재한다. 또한 이외에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법규가 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주체가 되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공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법을 말하며, 사법은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 외에 공법과 사법에 걸쳐 법률관계가 규정되는 중간영역인 사회법이 있다. 이 사회법의 범주에는 보통 사회보장법, 노동법과 경제법 등을 들 수 있다.

체육관계법에 대한 분류는 주로 공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수상레저안전법 등도 특별법의 형태로 체육관계법에 속한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청소년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체육·스포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가진 법률들을 찾을 수 있다. 이외는 달리 사법에서는 직접 스포츠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률은 단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사고와 관련하여 그 주체가 사인이라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된다.

법률은 그 적용순서에 있어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목적

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체육관계법에서 일반법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이며, 한국마사회법이나 경륜·경정법 등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령은 시간적인 효력에 따라서 일반법과 한시법으로 분류한다. 보통 일반적인 법령은 절차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나, 한시법의 경우 유효기간을 부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처럼 명문으로 규정된 효력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나라의 체육관련법령은 체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체육관계법은 대략 5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 체육관계법 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법령

(1)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 9. 17. 제정된 후 2007. 4. 11. 전면 개정된 법률로서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 6장 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체육진흥의 기본이 되는 조장적 법률로서, 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 등의 제개념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체육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의무를, 제4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본시책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운동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육성, 경륜·경정 등 여가체육활동의 건전 시행,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을 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사용을, 제5장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가의 도핑방지의무를 위해 2006년 12월 22일에 설립된 기관으로 도핑방지와 관련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1989. 3. 31.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2007. 4. 11일 전면 개정되었다. 동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민간체육시설업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총 5장 40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업으로 나누며, 민간체육시설을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인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시설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에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의무를 부가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 동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스포츠산업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은 2007. 4. 6. 제정된 법률로서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4)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 3. 28일 제정된 법률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5) 경륜·경정법

경륜·경정법은 1991. 12. 31. 제정된 법률로서 “경륜 및 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타보트경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경륜·경정의 시행, 수익금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2007년 제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2007. 12. 14. 제정 공포된 법률로서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전체 6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대회 관련시설, 휘장 및 유사명의 사용금지,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2007. 12. 21. 제정된 법률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 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 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효율적인 태권도공원의 조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8)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은 1984년 2월 16일 제정된 규칙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은 체육지도자연수원, 연수과정 및 교과, 연수계획의 수립 및 제출, 연수시행, 수료증교부, 자격검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 체육유관법령

(1)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은 농림부 소관법률로서 1999. 8. 1. 제정되어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은 국민의 여가스포츠로서의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제1조에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형적인 여가스포츠에 관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이용한 스포츠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오늘날 사격은 스포츠경기의 한 종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적 스포츠로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격은 총기를 사용하는 스포츠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관계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사격및사격장단속법은 제1조에서 “사격과 사격장을 단속하여 공안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목적이 스포츠활동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에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1997. 4. 10일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동법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에서의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 및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건축물 및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목적보다 일반적인 접근과 이동,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하면 편의시설을 건물 출입에 관련된 매개시설, 시설 내 이동과 관련된 내부시설, 위생시설, 기타시설(매표소, 관람석 등) 구분하고 있고 각 시설마다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출입과 관련된 매개시설(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과 내부시설 부분의 출입구(문), 위생시설의 소변기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무시설로 규정해 놓고 있다.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 4. 10일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주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기타 법률

그밖에 체육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것에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스포츠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과 하천법,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한 조세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체육관련법에 해당된다.

3) 각종 규정과 예규

(1)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에관한규정(문화관광부 고시 1995-3호)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 훈령 제21호(1993.8.9)로 제정되었으며, 관세법 제36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총8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재위탁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3)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체육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부훈령 제19호(1993.7.13)로 제정되었다.

(4)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문화체육관광부고시)

이 요령은 체육부고시 제90-2호로 제정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의 지정대상업종·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

며,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우수업체 제품의 우선구매, 대한체육회 및 체육과학연구원의 기술지도,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지정업체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학교체육진흥위원회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1호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훈령으로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6)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이 훈령 제정 2007.11. 22 문화관광부훈령 제198호로 제정되었으며, 국제체육대회의 체계적·심층적인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국제체육대회 유치를 도모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단체 등이 국제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승인 또는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기금 내지 기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국제 종합경기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연맹(IFs)에서 주최·주관하는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로서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선수단(선수와 임원을 포함한다)이 참가하는 대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체육 관련 회의, 기타 중앙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로 제한하고 있다.

03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제1절 개 관

제2절 국민의 여가활동

제3절 생활체육 직접 참여 실태

제4절 생활체육 간접참여 실태

제1절 개 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 및 경제성장, 소득의 증가,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해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일과 여가는 인간생활을 구성하는 중심축으로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요소가 되었다. 특히, 여가시간의 질이 삶의 질의 주요 지표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의 여가선용과 여가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여가의 개념은 '휴식, 오락, 인격형성' 등의 소극적이고 고전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인지된 자유 상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여가의 본질적 요소인 '선택성, 융통성, 자발성, 자기결정성' 등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가 개념의 변화와 여가활동 욕구 증대는 자연스럽게 스포츠부문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인들의 여가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즉, 일과 놀이의 경계가 불명확한 아동들에게서는 특징적인 여가 행태를 찾아 볼 수 없으나 학교생활에 얽매이는 청소년이 되면 과중한 학업과 입시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짧은 시간에 표출해야 하므로 강렬하고 감각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한다.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성인들의 여가 행태는 '가정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미혼자들은 외적여가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기혼자들은 정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한다. 그 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시작하는 중년이 되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로 인해 가정 밖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찾게 된다.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과 이동성이 그들의 여가 활동을 결정짓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은 더 많은 자유시간과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반면,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은 극히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한편 생활체육 활동은 자유시간에 자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된 신체활동에 참가하여 즐거움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활동으로서, 인간의 활동적 욕구를 합법적 표출방식으로 나타내는 신체활동이다. 이러한 생활체육은 경쟁적 게임 활동, 특수한 지형지물의 돌파를 추구하는 야외 활동, 심미적 리듬활동, 체력단련운동 등(Council of Europe, 1980)을 통하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만족감과 자긍심을 고양시켜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한편, 직장인의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활체육 활동 참여는 삶의 질과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복지활동이며, 개인의 사회적

완성을 추구하는 여가문화 활동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08년에 실시한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체육활동의 직·간접적 참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제2절 국민의 여가활동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실시한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통계청의 2004 생활시간조사(5년 주기 조사 실시)에서 나타난 국민 여가활동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여가시간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2시간 50분, 휴일 4시간 41분인 것으로 나타나 2006년 평일 3시간 32분, 일요일 6시간 12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여가시간 조사 문항 변경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6년 “귀하의 하루 여가시간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라는 조사문항을 2008년 조사에서는 여가시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하루 중 먹고, 자고, 일하고, 출퇴근하고, 주변 잡일을 정리하는 등의 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아무 일 없이 쉬거나 놀이를 하거나 사교하는 시간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에서 비롯된 차이로 판단된다.

(표 3-1) 여가시간 분포(%)

요일 \ 시간	없다	3시간 미만	3~5시간	5~7시간	7시간 이상	평균시간
평일	1.4	50.7	35.4	9.2	3.4	2시간 50분
휴일	1.7	17.2	35.6	30.7	14.9	4시간 33분

한편 통계청의 2004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미국 및 독일의 성인(20세~74세)의 필수 생활시간(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 개인관리시간 등)은 하루 중 44~45%로서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무생활시간(일, 학습, 가사노동시간 등)은 한국이 가장 길고, 여가생활시간은 독일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여가시간 중 스포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우리나라가 26분으로 독일의 28분보다는 약간 짧지만 미국의 22분보다는 긴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건전한 여가선용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2) 한국·미국·독일 성인의 생활시간구조

(단위 : 시간:분)

구 분		한 국	미 국	독 일	
필수 생활 시간	수면	7:44	8:34	8:15	
	식사 및 간식	1:39	1:15	1:45	
	기타 개인관리	1:11	0:47	0:53	
	소 계	10:34	10:35	10:53	
의무 생활 시간	일	4:57	3:39	2:53	
	학 습	0:13	0:29	0:16	
	가사 노동	가정관리	1:39	1:52	2:31
		쇼핑 및 서비스	0:16	0:49	0:50
		가족보살피기	0:36	0:34	0:21
		소 계	2:31	3:15	3:41
소 계	7:41	7:23	6:51		
여가 생활 시간	미디어	2:22	2:52	2:37	
	교제	1:09	0:56	1:06	
	취미 등	1:04	0:54	0:47	
	스포츠	0:26	0:22	0:28	
	참여 및 봉사	0:05	0:27	0:21	
	종교	0:11	0:09	0:03	
	기타 여가	0:15	0:11	0:46	
	소 계	5:32	5:51	6:08	
기 타	0:14	0:11	0:08		
합 계	24:00	24:00	24:00		

* 출처 : 2004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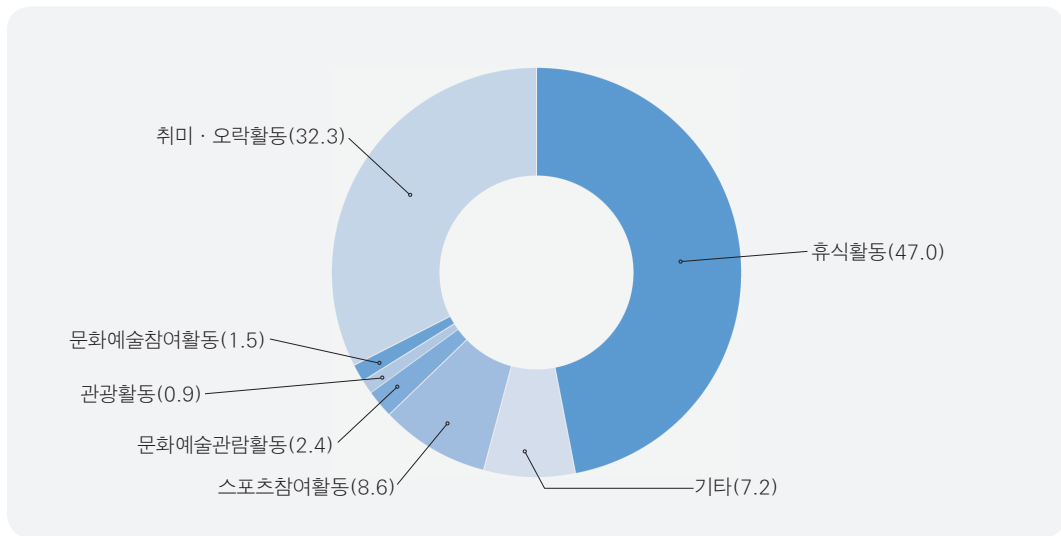
2. 여가활동 유형

여가시간에 즐기는 여가활동은 휴식활동 47.0%, 취미 및 오락활동 32.3%, 스포츠활동 8.6%, 문화 예술관람 2.4%, 문화예술참여 1.5%, 관광 0.9%, 기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유형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08년 스포츠활동 참여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그 이유는 2008년 여가활동 보기의 변경에서 찾을 수 있다. 2006년 조사까지는 여가활동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방법 조사가 단순히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음악 및 영화 감상, 경기 관람 등의 보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 조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백서의 여가활동 유형 분류기준을 활용, 유형별 세부 보기를 제시한 후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 보기의 세분화로 인해 스포츠활동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여가활동 유형(%)

(표 3-3) 여가활동 연도별 비교(%)

연도별	스포츠 참여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 활동	휴식활동	기타
1991년	14.8	16.7	-	-	7.7	29.5	31.3
1994년	13.4	10.7	-	-	13.6	28.9	33.4
1997년	14.4	14.8	-	-	4.8	25.8	40.2
2000년	12.2	-	-	-	9.8	37.2	31.1
2003년	19.2	11.3	-	2.0	24.0	33.9	9.6
2006년	20.5	8.9	-	2.5	20.0	34.1	14.1
2008년	8.6	2.4	1.5	0.9	32.3	47.0	7.2

주 : 2008년 여가활동 분류기준에 기준에 따라 여가활동을 재분류 한 것임

3. 레저스포츠 활동

산과 바다를 가다보면 흔히 산악자전거, 번지점프,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래프팅, 윈드서핑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레저스포츠로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이후 레저스포츠는 어느새 우리 생활에 의·식·주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간, 직장동료간, 때로는 연인 간에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여가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레저스포츠란 (사)대한레저스포츠협회에 의하면 'leisure + sports'의 합성어로 생활체육, 생활스포츠, 여가체육 등의 용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학문적 용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일상화된 용어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여가형 스포츠 활동'이다. 이러한 레저스포츠는 하루가 다르게 생성 및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의 선정요건으로는 국내 도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며 동호인의 수가 최소 500명 이상인 종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 수는 60여 종목이다. 육상레저스포츠로는 등산, 인라인스케이팅, 암벽등반(빙벽타기 포함), 사이클링, 서바이벌게임, 산악자전거, 클레이사격(권총사격포함), 스포츠클라이밍, 오리엔티어링스노보드, 사냥, 카트, 번지점프, 트레킹, 사륜오토바이, 자전거묘기, 다트, 오토캠핑, 오토바이경주, 스트리트보드, 석궁, 백패킹, 휠맨, 모터보드, 라켓볼, 오토바이묘기, 스케이트보드 등을 들 수 있고, 수상레저스포츠로는 웨이크보드, 수상오토바이,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낚시, 래프팅, 카누, 카약, 워터슬레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항공레저스포츠에는 패러글라이딩, 모형항공(모형로켓 포함),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초경량항공기, 모터패러글라이딩(파고제트), 열기구 등이 있다.

대한레저스포츠협회가 2008년 실시한 국내 레저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레저스포츠 종목 수와 이용자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육상분야는 연간 약 300여만 명, 사업 및 단체는 약 5,000여개소가 활동하고 있으며, 수상분야는 연간 이용자가 1,000여만 명, 업체 수는 약 5,400개소가 있다. 항공분야는 약 120여 개 활공장에서 연간 약 3, 4천명 정도가 즐기고 있으며 관련 업체 수는 약 770여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스포츠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종목이 생겨나고 있어 이 분야에 13만 명의 종사자와 15,000개의 레저스포츠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전국 130개의 대학에서 매년 레저스포츠 전공자 3,000여명도 배출되고 있어 이제 레저스포츠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산업군(群)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 간 경쟁력을 ‘국민의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미국·일본 등 주요 스포츠선진국은 레저스포츠를 급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레저스포츠산업은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기반이 취약하고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질적·양적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가 레저스포츠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08년 레저스포츠 시설지원기금이 처음 마련되어 레저스포츠 발전의 발판을 다져나가고 있다. 또한 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2회 코리아레저스포츠챔피언십 및 낚시대회를 비롯하여 국제열기구대회,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세계사회체육대회, 대통령컵 패러글라이딩대회를 비롯한 100여개의 대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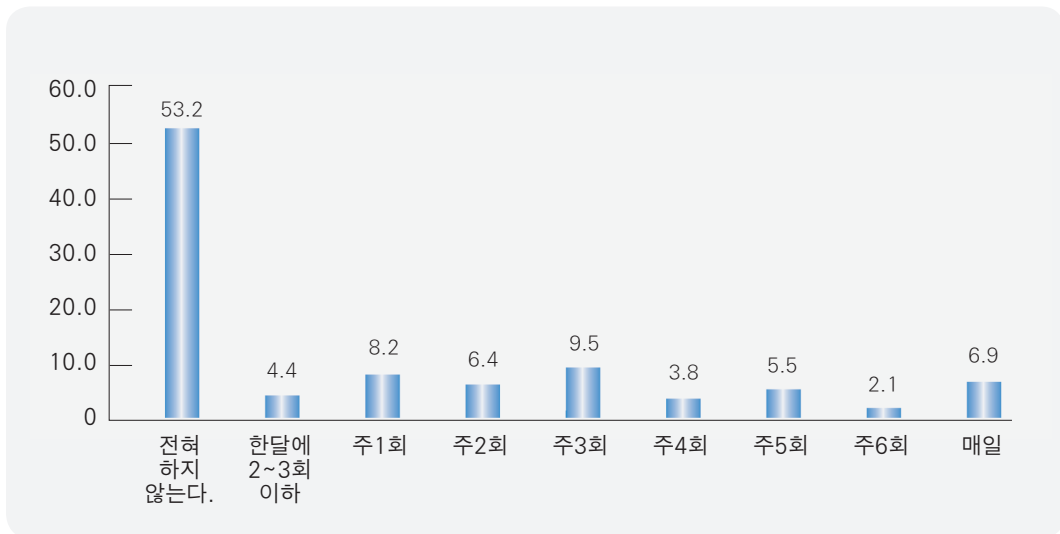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레저스포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와 레저스포츠의 안전한 이용활동을 위해 전문지도자 및 심판요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제3절 생활체육 직접참여 실태

1. 생활체육 참여유형

1) 생활체육 참여율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여부 및 빈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53.2%), 주3회(9.5%), 주1회(8.2%), 매일(6.9%), 주2회(6.4%), 주5회(5.5%), 한달에 2~3회(4.4%), 주4회(3.8%), 주6회(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46.8%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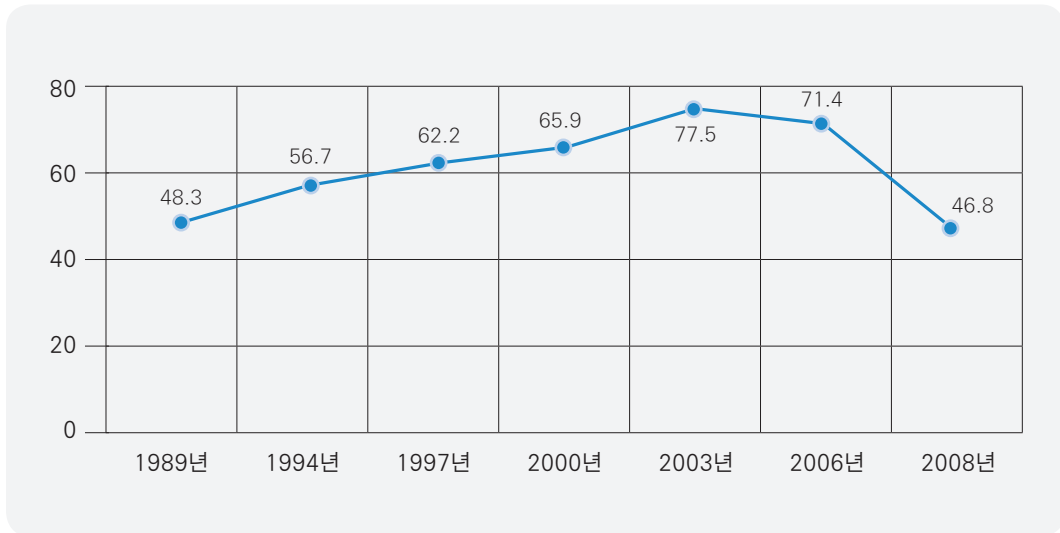


〈그림 3-2〉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2008년 참여율 46.8%는 2003년 참여율 77.5%와 2006년 참여율 71.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8년 체육활동 참여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경제 위기감 고조, 고용 불안, 실업률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2008년 8월과 9월, '9월 위기설'이 공공연하게 회

자되었으며, 사오정과 조기퇴직의 본격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청년 실업률의 지속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체육활동 참여율에 부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가 체육활동 참여율 저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증가일로에 있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이 IMF 직후 조사시점인 2000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던 선례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2008년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저하 이유로는, 2008년 조사연령대가 10세까지로 확대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기존 조사에서 10대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는 10대 조사대상자 수의 확대가 참여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림 3-3〉 연도별 생활체육 참여율 비교(%)

생활체육 참여빈도에 대한 연도별 비교 결과, 2000년 이후 월 2~3회와 주1회이하의 참여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주2~3회, 주4~5회, 주6회 참여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 주2~3회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해야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는 인식 확대와 체육활동 일상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체육활동 참여 확대 정책보다는 ‘스포츠7330 캠페인’과 같이 올바른 참여와 참여 효과 극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표 3-4) 월2~3회이상 생활체육 참여빈도 연도별 비교(%)

연도별	월2~3회	주1회	주2~3회	주4~5회	주6회	매일
1994	13.9	19.8	27.9	7.9	-	30.5
1997	16.1	21.6	27.8	15.1	-	19.4
2000	25.4	24.0	25.3	10.8	-	14.5
2003	23.5	25.2	25.7	11.0	-	14.7
2006	18.7	19.5	33.6	16.8	-	11.4
2008	9.5	17.5	33.9	20.0	4.4	14.8

2) 참여종목

생활체육 참여종목을 살펴보면, 걷기가 29.9%로 가장 높고, 보디빌딩 14.2%, 등산 13.6%, 축구 8.6%, 배드민턴 5.6%, 수영 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종목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등산, 육상/조깅/속보, 축구, 체조/줄넘기, 보디빌딩/헬스, 농구, 배드민턴, 수영, 볼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조사시점에 따라 약간의 순위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결과에서 걷기 종목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2006년까지와 달리, 일상생활의 걷기를 제외한 걷기운동을 운동종목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보디빌딩 참여 증가는 일명 '몸짱' 만들기에 효과적인 종목으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5) 참여종목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1986	육상/조깅	축구	체조/줄넘기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1989	체조/줄넘기	축구	육상/조깅	등산	농구	배드민턴
1994	육상/조깅	체조/줄넘기	등산	볼링	농구	테니스
1997	등산	농구	체조/줄넘기	배드민턴	수영	볼링
2000	등산	체조/줄넘기	농구	축구	보디빌딩(헬스)	수영
2003	육상/조깅/속보	등산	보디빌딩(헬스)	체조/줄넘기	수영	축구
2006	등산	축구	육상/조깅/속보	배드민턴	보디빌딩	체조/줄넘기
2008	걷기	보디빌딩(헬스)	등산	축구	배드민턴	수영

3) 1회 운동시간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1회 평균 운동시간은 92.9분으로 나타났으며, 60분~90분 미만(40.8%), 120분~180분 미만(20.9%), 90분~120분 미만(13.8%), 30분~60분 미만(12.0%), 180분 이상(11.8%), 30분 미만(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1회 평균 운동시간 95.0분 보다 약간 감소한 것이다.

(표 3-6) 운동시간 분포도(%)

운동시간	분포도
30분 미만	0.8
30~60분 미만	12.0
60~90분 미만	40.8
90~120분 미만	13.8
120분~180분 미만	20.9
180분 이상	11.8
평균(분)	92.9

4) 운동시간대

(표 3-7) 운동시간대 분포도(%)

운동시간대	분포도	
	평일	휴일
아침(새벽포함)	18.7	8.9
오전 시간대	9.5	12.4
점심시간	2.4	0.8
오후 시간대	9.3	9.5
저녁 시간대	34.9	13.1
불규칙	9.5	51.2

평일에 참여하는 운동시간대는 저녁(34.9%), 아침(새벽포함)(18.7%), 오전(9.5%), 일정하지 않음(9.5%), 오후(9.3%), 점심(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휴일에는 일정하지 않음(51.2%), 저녁

(13.1%), 오전(12.4%), 아침(새벽포함)(8.9%), 오후(9.5%), 점심(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연도별 운동시간대 분포도 비교(%)

연도별	아침(새벽)	오 전	점심시간	오 후	저 녀	불규칙
1986	42.3	9.8	4.1	19.4	9.6	14.6
1989	35.9	11.4	3.1	17.0	12.3	17.8
1991	24.7	16.8	3.4	19.0	10.8	25.2
1994	34.9	11.7	3.2	21.0	16.4	12.9
1997	26.6	13.1	3.9	15.5	21.7	19.2
2000	24.1	14.2	1.8	19.8	22.4	17.6
2003	17.0	11.0	2.3	15.3	38.0	16.4
2006	12.7	13.9	1.4	20.7	30.9	20.4
2008	13.8	11.0	1.6	9.4	24.0	30.4

주 : 2008년 운동시간대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평균치로 환산하였음.

운동에 참여하는 시간대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아침시간대 참여율은 감소 경향이 있는 반면, 참여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새벽)시간의 운동참여율 감소 경향은 출근과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으면서 2008년 큰 폭으로 증가한 불규칙한 시간대의 운동참여는 파트타임직의 증가나 무직자 또는 실직자의 증가와 점점 다양해지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때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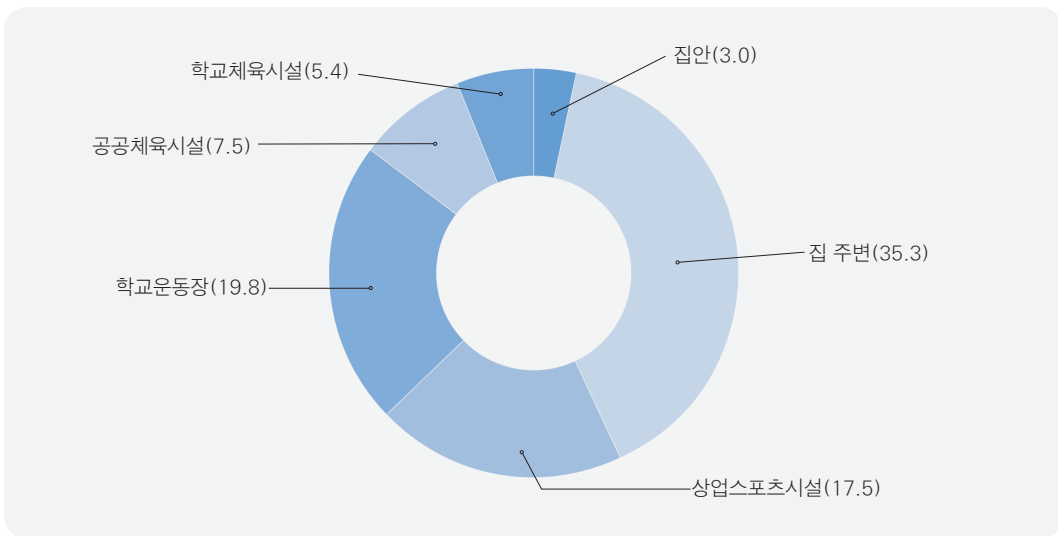
5) 운동장소 (1순위)

주로 운동을 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집 주변이 35.3%로 가장 많고, 학교 운동장 19.8%, 상업스포츠시설 17.5%, 공공 체육시설 7.5%, 학교 체육시설 5.4%, 집 안 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원, 공터, 약수터, 등산로, 골목 등의 집 주변시설과 학교 운동장이 주요 운동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운동 장소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집안에서의 운동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집 주변, 학교운동장, 상업스포츠시설이 운동장소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에서 운동 참여가 감소하는 이유는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공간적 제약 등이 따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2008년 조사결과에서는 공원, 공터, 약수터, 등산로, 골목 등의 집 주변시설과 학교운동시설 이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접근성이 높고 운동경비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가일로에 있는 걷기 운동장소로서 적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정부의 학교운동장 잔디우레탄 사업, 학교복합화 사업, 학교공원화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학교시설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시설의 주민개방율도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 운동실시 장소 분포(%)

〈표 3-9〉 운동장소의 연도별 비교(%)

연도별	집 안	자연환경 (야외)	집 주변	상업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직장 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	학교 체육시설
1989	-	13.0	29.1	14.9	30.9	4.0	7.3	-
1991	-	-	37.6	29.1	21.9	7.4	4.1	-
1994	-	9.5	38.8	24.9	21.6	2.9	2.4	-
1997	-	7.9	42.2	23.4	18.5	2.9	5.1	-
2000	-	8.9	40.8	23.5	20.0	2.6	4.3	-
2003	8.6	11.4	32.7	19.9	12.5	3.7	11.2	-
2006	5.2	7.2	24.5	24.8	18.1	2.8	17.3	-
2008	3.0	-	35.3	17.5	19.8	-	7.5	5.4

6) 운동경비

월 평균 운동경비는 없다(43.4%), 3~6만원 미만(22.8%), 3만원 미만(14.6%), 6만원~10만원 이상(7.8%), 10만원~15만원 미만(7.4%), 15만원~20만원 미만(1.5%), 20만원~25만원 미만(1.4%), 30만원 이상(0.9%), 25만원~30만원 미만(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경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거나 소액 지출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경기침체로 인한 여가활동비용의 감소와 참여율이 높은 걷기 및 등산 종목 특성상 운동경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0) 운동경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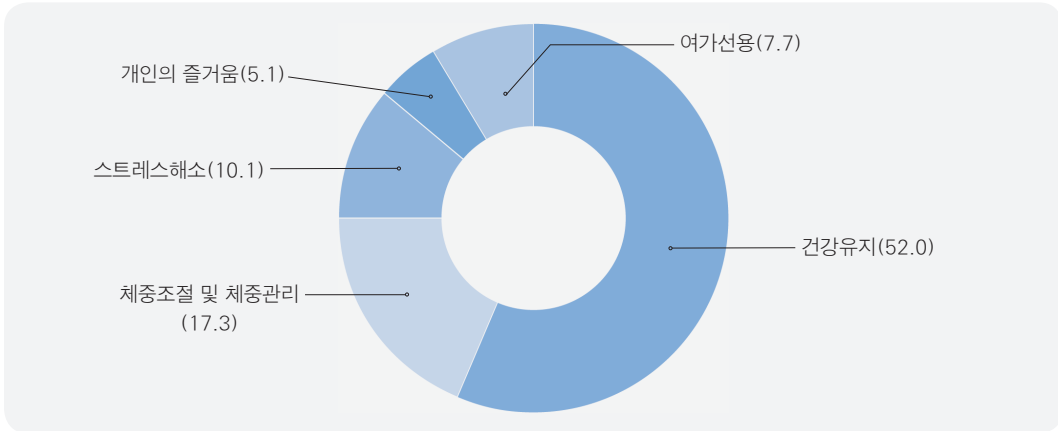
운동경비	분포도
없다	43.4
3만원 미만	14.6
3~6만원 미만	22.8
6~10만원 미만	7.8
10만원~15만원 미만	7.4
15만원~20만원 미만	1.5
20만원~25만원 미만	1.4
25만원~30만원 미만	0.2
30만원 이상	0.9

2. 운동 참여 및 불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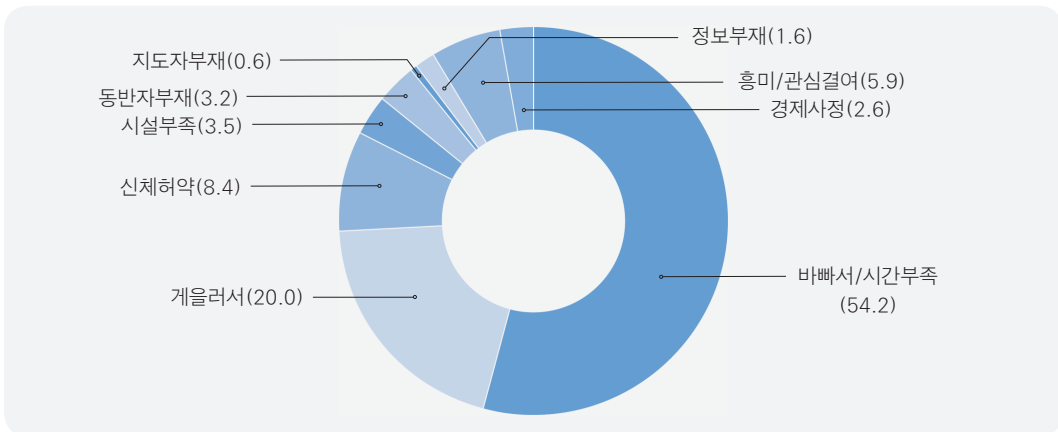
운동에 참가하는 이유는 건강유지 및 증진(52.2%)이 가장 많고,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17.3%), 스트레스 해소(10.1%), 여가선용(7.7%), 개인의 즐거움(5.1%), 대인관계 및 사교(3.3%)로 나타났다.

한편, 운동에 불참하는 이유는 바빠서/시간부족(54.2%)이 가장 높고, 게을러서(20.0%), 신체허약(8.4%), 관심이 없어서(5.9%), 주변에 운동할 장소나 시설이 없어서(3.5%),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3.2%),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6%), 정보가 부족해서(1.6%), 지도자가 없어서(0.6%) 순으로 나타났다.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그림 3-5〉 운동 참여 이유(%)



〈그림 3-6〉 운동 불참 이유(%)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의 주요 이유는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1994년 59.4%에서 2008년 54.2%에 이르기까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 무관하게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 하나로, 체육활동이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건강과 체력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생활체육이 활동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인식이

시간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이라는 방식으로 생활체육의 위치를 규정짓기 때문에, 여가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체육이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선택적 활동이 아닌, 심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행복 등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필수적 활동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표 3-11)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의 연도별 비교(%)

연도별	바빠서/ 시간부족	게을 러서	신체 허약	동반자 부재	시설 부족	지도자 부재	정보 부재	흥미/관심 결여	경제 사정
1986	61.9	-	6.7	2.7	-	-	7.5	17.6	3.5
1989	59.2	-	12.6	2.8	-	-	8.1	13.4	-
1991	53.4	-	9.2	3.1	-	-	5.4	13.8	5.4
1994	59.4	16.0	9.0	2.8	-	-	4.6	6.3	2.0
1997	52.4	-	6.4	4.4	-	-	2.0	3.9	3.2
2000	39.1	20.8	5.8	7.1	1.9	0.2	0.2	1.1	1.1
2003	48.0	26.8	8.1	3.2	4.3	0.3	1.3	5.1	2.8
2006	44.6	21.5	13.8	2.2	2.8	2.4	0.2	11.7	1.3
2008	54.2	20.0	8.4	3.2	3.5	0.6	1.6	5.9	2.6

3. 희망 운동 종목

향후 참가해 보고 싶은 운동 종목으로는 수영(17.8%)이 가장 높고, 골프(7.2%), 요가(6.5%), 보디빌딩(6.0%), 등산(5.9%), 걷기(4.7%), 테니스(3.7%), 배드민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운동 종목에 대한 연도별 비교결과, 수영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골프, 등산, 헬스, 요가 등이 꾸준히 일정 수준에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비교적 신체적 제약과 운동 기술적 제약이 적어 초기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수영은 신장이나 근력 등 체격과 체력상태에 따른 제약 요인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가 용이하며, 사전 운동기술을 습득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기술이 부족한 남녀노소 누구나의 참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참여 희망 종목으로 꾸준히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표 3-12) 희망 운동 종목(%)

순 위	희망 운동종목	분 포 도
1	수영	17.8
2	골프	7.2
3	요가	6.5
4	보디빌딩(헬스)	6.0
5	등산	5.9
6	걷기	4.7
7	테니스	3.7
8	배드민턴	3.5

(표 3-13) 희망 운동 종목의 연도별 비교(%)

연도별	테니스	수영	볼링	에어로빅 미용체조	골 프	육 상	축 구	등 산	스쿼시	헬스	요가
1986	15.2	5.2	6.1	6.8	4.3	3.2	2.9	6.8	-	-	-
1989	4.0	12.3	5.9	7.4	-	-	4.0	9.1	-	-	-
1991	20.0	19.9	7.0	5.5	4.9	4.2	4.1	3.4	-	-	-
1994	20.0	20.4	8.6	5.3	2.7	4.2	3.8	5.2	-	-	-
1997	7.9	21.3	4.4	4.5	7.1	4.2	3.8	5.2	-	-	-
2000	8.0	22.5	2.6	-	6.1	1.7	2.8	4.8	-	-	-
2003	4.9	17.0	1.1	1.0	8.0	6.8	2.5	9.0	5.7	4.3	-
2006	5.1	15.6	-	2.3	11.6	2.5	3.3	3.9	3.6	2.3	7.2
2008	3.7	17.8	0.8	2.2	7.2	0.6	3.4	5.9	2.0	8.0	8.5

제4절 생활체육 간접참여 실태

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난 1년(2007년) 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15세 이상 인구의 54.3%로 2004년의 51.0%에 비해 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음악·연주회나 영화를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경우가 86.8%로 가장 많았으며, 전시장 관람은 36.6%, 스포츠 관람은 18.4%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시장 관람은 4.5% 증가한 반면 공연장 관람은 0.6%, 스포츠관람은 1.1% 감소하였다.

(표 3-14)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단위 : %, 회)

	계	공연장 이용					전시장 관람			스포츠 관람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2000	39.9	32.6	9.7	7.3	0.9	26.6	11.7	8.5	6.3	9.5
2004	51.0	87.4	22.8	20.8	2.4	90.1	32.1	77.6	54.3	19.5
2007	54.3	86.8	26.6	26.0	2.5	85.0	36.6	75.4	56.8	18.4
남 자	53.6	83.2	23.8	21.9	1.8	85.8	33.9	78.4	53.0	26.6
여 자	55.0	90.2	29.0	29.6	3.1	84.4	39.1	73.0	59.8	10.8
15~19세	76.6	93.3	27.5	18.3	3.0	91.1	32.5	73.6	60.2	13.6
20~29세	77.5	94.7	19.4	26.4	2.0	94.5	25.5	68.2	64.7	20.9
30~39세	67.7	86.6	23.4	28.8	2.4	87.5	43.4	80.6	53.8	19.9
40~49세	52.1	84.1	31.1	22.4	2.4	83.6	39.4	75.3	56.4	18.3
50~59세	37.5	79.2	37.2	28.7	3.5	70.1	38.1	74.5	56.4	17.3
60세이상	21.9	67.8	41.8	36.7	3.0	43.2	45.6	74.6	49.3	13.9

* 출처 : 2007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영화와 박물관관람 비율이 높았고 특히 스포츠관람 비율은 2.5배나 높았다. 이는 스포츠관람이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람스포츠업계는 여성의 스포츠관람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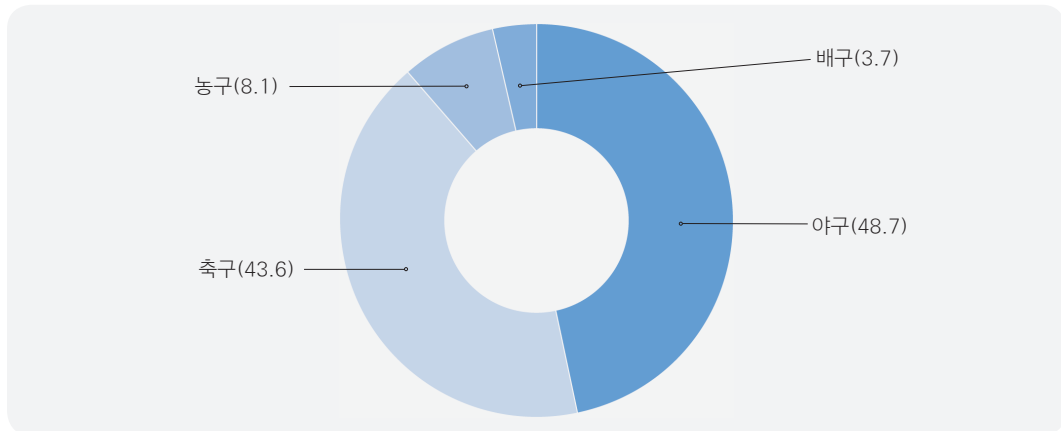
면 여자는 남자보다 음악·연극, 무용, 미술관 관람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비율이 77.5%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21.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노인여가 활성화와 노인의 스포츠관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운동경기 관람유형

2008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경기장에 가서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한 사람은 전체의 14.5%이며, 나머지 85.5%는 경기장에 가서 직접 관람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관람종목

경기장에 직접 가서 관람한 사람들의 관람 경기종목을 살펴보면, 야구(48.7%)가 가장 많고, 축구(43.6%), 농구(8.1%), 배구(3.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관람종목 분포(%)

관람 운동종목으로는 야구와 축구의 선호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8년 야구 관람은 전년 대비 21.6%나 상승한 반면, 2002월드컵이후 관람스포츠로서 인기를 구가하던 축구는 2008년에 전년 대비 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구 관람율의 증가는 부산 연고인 롯데팀의 선전으로 인한 부

산 관람인구의 급증과,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이 그 중심에 있다. 한편 축구관람율의 감소는 2002월드컵이후 기대이하의 성적과 올림픽 성적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하락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주요 관람종목이 대부분 프로화되어 각 종목 모두 홍보와 광고 및 스폰서십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각 종목 간 경쟁이 보다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종목이 더 마케팅 노력을 강화해 나가느냐에 따라 종목관람 비율이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5) 관람종목의 연도별 비교(%)

연도별	배구	야구	축구	농구
1986	4.6	48.3	25.2	5.8
1989	6.0	43.2	24.4	6.6
1991	6.4	44.7	19.3	14.3
1994	3.5	59.2	18.3	9.5
1997	3.4	54.8	20.1	11.6
2000	1.7	45.1	32.4	10.5
2003	1.7	37.4	41.5	10.3
2006	1.1	27.1	48.7	12.3
2008	3.7	48.7	43.6	8.1

2) 경기관람 빈도

운동경기의 평균 관람 빈도에 대한 연도별 비교 결과, 1년에 1~2회 정도 관람율은 지속 증가추세인 반면, 다른 관람 빈도율에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2008년 관람빈도 결과에서, 1년에 1~2회 관람비율이 전년 대비 12.6%로 나타나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관람객이 500만명을 돌파해 1995년 이후 13년만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관중을 동원한 프로야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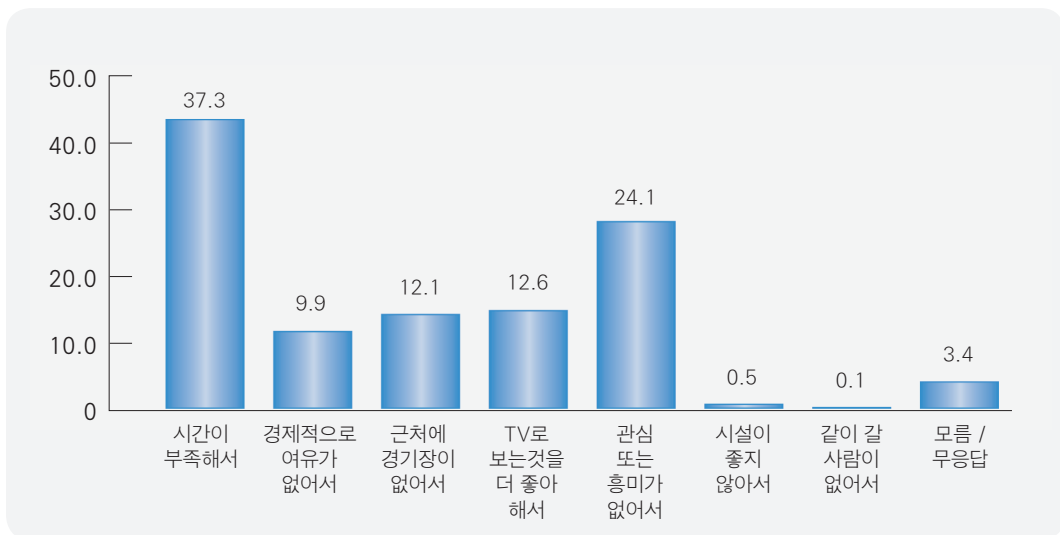
(표 3-16) 경기관람 빈도의 연도별 비교(%)

연도별	1년에 1~2회	3~4개월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1991	63.2	24.1	10.6	2.1
1994	54.2	24.4	18.3	3.0
1997	54.0	26.7	14.5	4.8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연 도 별	1년에 1~2회	3~4개월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2000	59.1	15.3	23.1	2.5
2003	70.1	20.5	8.7	0.7
2006	70.0	18.6	10.0	1.4
2008	82.6	11.2	5.6	0.6

3)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그림 3-8〉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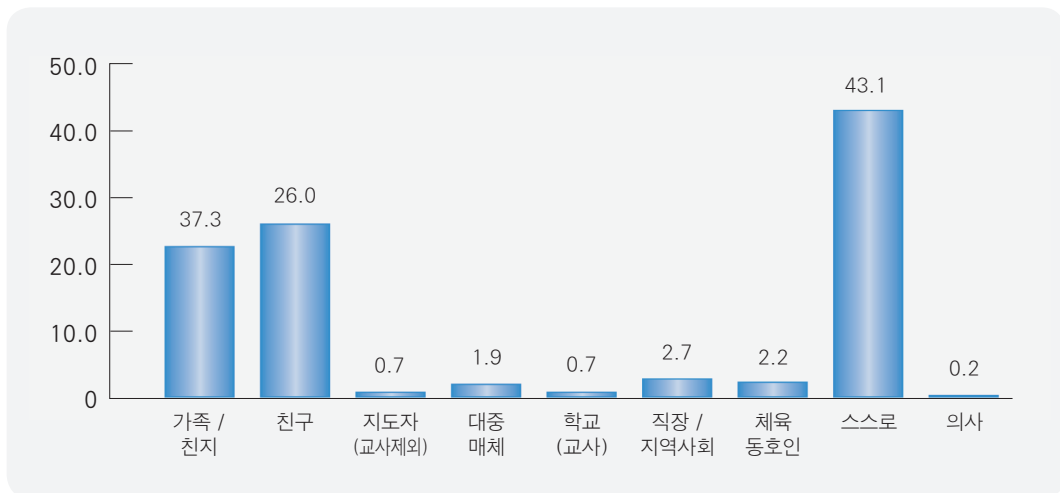
경기장에 가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37.3%), 관심 또는 흥미가 없어서(24.1%), TV로 보는 것이 더 좋아해서(12.6%), 근처에 경기장이 없어서 (12.1%),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9.9%)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직접 관람하지 못하는 이유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관심 또는 흥미가 없어서, 근처에 경기장이 없어서, TV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가 높게 나타났다. 2008년 조사결과, 시간이 부족해서는 2006년 대비 9.6% 증가한 반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는 4.7%, 관심 또는 흥미가 없어서는 9.1%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대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고물가, 저임금, 조기퇴직 및 은퇴 등 경제 불안으로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증가하고, 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현상을 들 수 있다.

(표 3-17)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연도별 비교(%)

연도별	시간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근처에 경기장이 없어서	TV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	관심/흥미가 없어서	기타
1989	48.1	6.2	17.6	22.9	5.1	-
1991	34.1	7.4	18.4	14.6	25.6	-
1994	41.8	4.4	22.4	11.2	20.3	-
1997	35.7	7.2	18.7	12.7	25.7	-
2000	36.0	5.5	18.1	10.0	30.5	-
2003	33.0	8.4	14.7	12.9	27.4	3.5
2006	27.7	5.2	13.8	13.3	33.2	6.9
2008	37.3	9.9	12.1	12.6	24.1	0.6

3.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그림 3-9〉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체육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체는 스스로(43.1%), 친구(26.0%), 가족/친지(22.6%), 직장/지역사회(2.7%), 체육 동호인(2.2%), 대중매체(1.9%), 지도자(교사 제외)와 학교(교사)(0.7%), 의사(0.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스스로, 친구, 가족/친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지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결과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스스로 알아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어떤 영향보다 개인의 체육활동 참여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8)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비교(%)

연도별	가족/친지	친구	지도자 (교사/코치)	대중매체	직장 및 지역 사회	체육동호인 조직	스스로
2000	23.3	26.7	2.7	6.0	6.8	3.9	30.5
2003	25.0	23.3	1.6	8.6	7.6	2.6	31.5
2006	22.5	26.2	3.0	9.2	5.7	5.0	28.3
2008	22.6	26.0	0.7	1.9	2.7	2.2	43.1

제4장 생활체육

제1절 개 관

제2절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제3절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

제4절 직장체육활동 육성

제5절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생활체육 나눔운동)

제6절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제7절 생활체육 홍보

제8절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및 협력

제9절 세계한민족축전

제10절 과제 및 발전방안

제1절 개 관

생활체육의 기본 철학인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의 이상은 1960년대 노르웨이의 트림(Trim) 캠페인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1975년 3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 각국 체육부장관 회의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유럽 헌장'이 채택되면서 생활체육은 사회운동과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헌장은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최초로 천명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범세계적 생활체육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생활체육운동은 체육 소외계층인 노인이나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3세계의 생활체육 환경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수행하면서 체육활동에서의 불평등을 해소시켜 왔다.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 개최, 1990년대의 경제발전,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체육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즉, 체육이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국민 누구나가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는 가치관 형성이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도시 산업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체육활동을 통해 운동 부족을 해소하고 삶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생활체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 생활체육정책 방향

정부는 생활체육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사업이다. 생활체육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모든 국민에게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주5일 근무제에 힘입어 1998년 IMF로 인해 2000년 참여율이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주2~3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이 2006년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감소 이유는 경제 위기감 고조, 고용 불안, 실업률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2008년 조사 당시 '9월 위기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었으며, 사오정과 조기퇴직의 본격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청년 실업률의 지속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체육활동 참여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06년 대비 2008년 체육활동 참여율 감소폭이 50대(16.1%)와 20대(15.0%)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는 고용 불안과 청년 실업의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위기가 체육활동 참여율 저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증가일로에 있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이 IMF 직후 조사시점인 2000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던 선례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2008년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저하 이유로는 2008년 조사연령대가 10세까지 확대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기존 조사에서 10대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는 10대 조사대상자 수의 확대가 참여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 불황기에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4-1) 주2회이상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변화(%)

연도별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8
참여율	34.7	37.6	38.8	33.4	39.8	44.1	34.2

※ 2006년까지 매 3년주기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2006년부터 2년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짐.

둘째,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이다. 그 동안 엘리트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홍보 등 생활체육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가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민간단체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수와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2)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의 증가

구분	클럽 수(개)	동호인수(명)	인구대비(%)
2000	41,986	1,442,145	3.0
2001	46,051	1,559,242	3.4
2002	52,020	1,776,604	3.7

제4장 생활체육

구 분	클럽 수(개)	동호인수(명)	인구대비(%)
2003	64,665	2,176,221	4.5
2004	73,802	2,449,948	5.1
2005	77,452	2,556,737	5.3
2006	82,781	2,701,736	5.6
2007	92,688	2,913,806	6.0
2008	95,075	2,985,253	6.2

※ 인구대비에서의 인구는 2008년 말 추계인구임.

(표 4-3)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결성 현황

전국종목별연합회	시·도종목별연합회	시·군·구연합회
2002 - 40종목	2002 - 63종목(441개 연합회)	2002 - 84종목(3,326개연합회)
2003 - 44종목	2003 - 65종목(524개 연합회)	2003 - 109종목(3,847개연합회)
2004 - 46종목	2004 - 67종목(548개 연합회)	2004 - 109종목(4,479개연합회)
2005 - 46종목	2005 - 67종목(565개 연합회)	2005 - 109종목(4,814개연합회)
2006 - 46종목	2006 - 69종목(586개 연합회)	2006 - 109종목(5,075개연합회)
2007 - 46종목	2007 - 68종목(582개 연합회)	2007 - 109종목(5,089개연합회)
2008 - 46종목	2008 - 72종목(605개 연합회)	2008 - 115종목(5,134개연합회)

직장체육은 운동부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작업환경 속에서 종업원 개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노사간 화합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권장되어 왔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지정하여 직장체육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직장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장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2008년 12월 현재 등록된 직장체육 동호인 클럽수는 15,937개이며 회원수는 476,11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수치는 79,138개 클럽의 회원수가 2,509,142명인 지역동호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직장체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다. 1975년 유럽 각국의 체육부서장관 회의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유럽 헌장’을 채택했는데, 이 헌장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가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인종, 성, 연령, 경제적 수준, 사회적 계층, 신체적 능력 등에 의해서 체육활동 참여가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사회적인 안정과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 지원 없이도 스스로의 비용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체육활동 소외계층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사업이다. 생활체육에서 홍보사업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홍보활동에서 중요한 요인은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동안 생활체육 홍보와 정보 서비스 사업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방법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정보전달 매체로서 대중화된 인터넷을 통해 생활체육 정보 서비스와 컴퓨터를 활용한 홍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사업의 운영 방향도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 동기 유발 위주에서 생활체육 참여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추진되고 있다. 특히 IT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활용 사업 분야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사업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시설, 프로그램과 함께 생활체육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생활체육 참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사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급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을 통하여 유자격 생활체육 지도자를 꾸준히 양성하여 왔다.

유능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양성된 지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말까지 정부가 배출한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638명, 2급 6,799명, 3급 116,933명 등 총 124,370명이다. 따라서 배출된 생활체육지도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 지역에서 생활체육지도 가능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제2절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1. 시·도 생활체육교실

시·도 생활체육교실은 「스포츠교실」운영 1만개소 확대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선호 종목을 중심으로 학교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근린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활체육교실은 소규모 지역단위로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의 일상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체육교실은 2002년 3,208개소, 2003년 3,261개소, 2004년 3,374개소, 2005년 4,241개소, 2006년 3,915개소, 2007년 3,946개소, 2008년 3,886개소가 운영되었다.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교실운영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2006년부터는 다소 감소하였다.

(표 4-4) 시·도 생활체육교실 연도별 운영 현황(생활체육교실 수)

연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2년	3,208	561	110	80	90	127	98	81	564	145	164	176	290	195	217	234	76
2003년	3,261	561	151	76	85	132	98	81	575	145	164	176	299	195	217	234	72
2004년	3,374	561	220	80	92	125	98	80	544	145	165	209	316	198	217	248	77
2005년	4,241	1,172	227	270	107	125	144	82	539	156	192	209	248	195	217	300	58
2006년	3,915	745	252	270	83	113	98	80	562	168	207	209	248	195	233	377	75
2007년	3,946	808	154	277	97	109	116	87	595	180	186	236	248	195	194	396	68
2008년	3,886	599	227	286	96	113	158	87	509	154	206	212	359	195	237	395	53

2. 생활체육 광장

생활체육광장은 지역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기초적인 참여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육활동의 생활화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의 체력향상 및 이웃 간 이해증진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화합과 건전한 여가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광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광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8년 12월말 현재 전국 520개소에 생활체육광장 지도자가 배치되어, 매일 아침 6~7시 전후로 3월~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지속 운영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의 기본 프로그램은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준비체조와 선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체조로는 태권, 스트레칭, 민속생활체조(가슴을 열자, 덩더꿍 체조, 민속 에어로빅스)를 지도하고 있으며, 선택 프로그램으로는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에어로빅, 족구, 테니스 등 지역실정 및 장소에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 중 참여자가 희망하는 종목을 지도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마나 태풍 등 기후에 따라 참여 인원이 유동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생활체육 참여 확산의 중심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4-5) 생활체육광장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업 실적	개 소 수	500개소	500개소	500개소	500개소	500개소	500개소	520개소	520개소
	회 수	140,016회	142,816회	137,074회	140,892회	142,672회	157,322회	166,180회	88,609회
	참가인원	6,024,524명	5,370,996명	4,703,464명	4,943,438명	5,029,846명	5,452,284명	5,955,670명	4,818,484명

3.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1) 어린이체능교실 및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체육참여를 통해 올바른 신체성장과 정신발달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시·도와 해당 지역 생활체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2008년 어린이체능교실에는 약 825천명이, 청소년체련교실에는 약 670천명이 참가하였다(표 4-6 참조).

2) 장수체육대학 및 여성생활체육강좌

스포츠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과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방비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장수체육대학에는 약 1,005천명이, 여성생활체육강좌에는 약 528천명이 참가하였다.

3) 레크리에이션교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에 놀이적 요소를 가미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명량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수용시설 및 복지관 등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생활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보급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8년 레크리에이션교실에는 약 31천명이 참가하였다.

4)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이 사업은 클럽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고 상호우의를 증진하며 협동심을 배양함과 동시에 대회참가를 통한 성취감과 사회성 발달을 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종목별연합회 주관으로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선수등록 사실이 없는 만 13세~19세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학생 및 근로청소년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종목 중 2종목을 선정하여 클럽 간 대항전을 개최하고 있다. 2008년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에는 약 56천명이 참가하여 2007년 약 178천명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5) 직장체육 지도자강습회

직장의 체육담당자에게 직장체육 운영방법 등과 같은 전문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직장, 지역체육지도자, 직장체육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종목의 개발과 체험 등을 통해 체육활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8년 직장체육지도자강습회에는 1,602명이 참가하였다.

(표 4-6) 2008년 지역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단위 : 명)

프로그램 지 역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학	여성생활 체육강좌	레크리 에이션 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
서울	51,694	54,206	58,346	1,000	918	2,330	30
부산	85,020	42,430	78,820	51,570	2,600	2,700	89
대구	86,848	44,128	79,399	44,636	3,245	2,665	89
인천	87,136	73,246	1,429	1,296	80	2,333	100
광주	31,296	32,576	26,400	63,360	2,800	1,107	80

프로그램 지 역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학	여성생활 체육강좌	레크리 에이션 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
대 전	12,823	18,433	11,901	18,468	805	1,730	124
울 산	1,239	1,278	12,430	22,106	2,400	1,679	60
경 기	15,366	11,576	38,176	10,747	1,675	3,094	40
강 원	90,531	39,184	64,919	62,955	1,828	3,198	266
충 북	27,106	22,725	38,148	35,904	610	10,625	100
충 남	12,355	15,758	20,367	12,561	10,635	11,649	200
전 북	78,928	72,204	96,593	20,395	1,029	2,254	50
전 남	82,000	90,050	100,025	85,300	460	1,111	100
경 북	85,340	76,334	95,931	45,899	1,000	6,200	150
경 남	70,395	62,128	268,788	41,765	320	3,212	124
제 주	7,211	14,516	13,492	10,050	950	500	0
합 계	825,288	670,772	1,005,164	528,012	31,355	56,387	1,602

6)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유명선수 생활체육 교실은 참여자의 동기 유발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선수가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유명선수에게 직접 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유명한 선수가 생활체육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을 통한 청소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성인 생활체육 기반 조성과 청소년의 기초체력 증진 및 전인교육 실천에 있다.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은 매년 3월~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에 개설된 종목 및 교실 수는 축구(67교실), 탁구(8교실), 농구(8교실), 배드민턴(3교실), 테니스(3교실) 등 5종목 89개 교실이 있다. 각 교실에는 지도자 수당 및 교육 용품 등을 지원하고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표 4-7)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연 도	교실수	지원용품	대회개최	지도자 교육	교재제작
2002	49 (축구35, 탁구7, 농구5, 배드민턴2)	9종 8,593점	1회 개최(축구)서산, 35클럽참가	-	-

제4장 생활체육

연 도	교실수	지원용품	대회개최	지도자 교육	교재제작
2003	80 (축구65, 탁구7, 농구8, 배드민턴5, 테니스3)	8종 20,705점	1회 개최 (축구)남해, 62클럽참가	-	-
2004	96 (축구70, 탁구10, 농구8, 배드민턴5, 테니스3)	10종 8,720점	1회 개최 (축구)안동, 70클럽참가 2,000명 참석	-	-
2005	96 (축구70, 탁구10, 농구8, 배드민턴5, 테니스3)	9종 8,427점	축구1회 개최 안성, 70개교실 3,111명 참가 농구1회 개최 울산, 8개교실 600명 참가	-	-
2006	88 (축구66, 탁구8, 농구8, 배드민턴3, 테니스3)	8종 4,685점	축구1회 개최 합천 70클럽 3,000명 참가 농구 1회 개최 인천, 24개클럽 600명 참가	6.21~23 충북단양 대명콘도 246명 참가	300부
2007	89 (축구67, 탁구8, 농구8, 배드민턴3, 테니스3)	8종 7,685점	169개 팀 4,850명 축구, 농구대회 통합	3.26~28 수안보상록호텔 264명 참가	-
2008	89 (축구67, 탁구8, 농구8, 배드민턴3, 테니스3)	8종 4,605점	-	1.20~21 충북제천청풍 리조트 181명 참가	-

제3절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

1.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동호인클럽은 생활체육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를 효율화하며 합리적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핵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전국종목별연합회가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의 연합체로서 지역 간, 클럽 간 체육교류활동을 가능케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종목별연합회 발전은 동호인클럽 육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 인구를 확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의 중심체인 전국연합회를 육성·지원하여 「국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구심단체로서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의 운영 방침은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클럽 활동의 구심체를 확대하고, 신규종목별연합회 결성을 유도하며, 동호인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규모 대회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동호인클럽의 체계적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전국연합회가 재정 자립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46개 단체(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자전거, 스케이팅, 윈드서핑, 탁구, 테니스, 배구, 족구, 사격, 궁도, 스키, 스킨스쿠버, 볼링, 택견, 생활체조, 풋살, 합기도, 패러글라이딩, 정구, 승마, 보디빌딩, 줄다리기, 야구, 농구, 국무도, 골프, 당구, 검도, 태권도, 국학기공, 등산, 씨름, 스쿼시, 종합무술, 하키, 익스트림게임, 인라인하키, 낚시, 트라이애슬론, 수영, 라켓볼, 인라인스케이팅, 우슈)이며, 주요 지원 사업은 종목별연합회의 전국규모대회, 종목별 초보자 및 지도자 강습회 등이다. 또한 전국종목별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지도사업으로 전국연합회 결성 종목의 시도연합회 확대 결성 유도, 전국연합회 사무처직원 실무교육 실시, 전국연합회에 대한 업무지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규 동호인클럽 결성 확대를 위해 국민 참여도가 높은 종목, 향후 동호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는 종목, 자연친화 및 극기 종목, 레저스포츠를 확대 지원하여 육성해 나가고 있다.

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의 중심체인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크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호인클럽이나 종목별연합회는 선진국의 스포츠클럽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자생력이 미흡하고 그 역할과 기능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2. 생활체육대회 개최

1)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체육활동 참여자에게 자신의 기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체력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유인책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은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를 격려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사업이 되고 있다.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사업은 전국 종목별 동호인 행사를 지원하여 체육의 생활화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종목별 동호인 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동호인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전국 대회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사업은 전국연합회별 동호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지방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지역 분산 개최를 권장하며, 종목별 지역동호인클럽의 신규육성 및 친선 교류 기회가 확대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은 전국일원에서 종목별로 연중 개최되며 전국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운영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대회운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종목별 장관기 대회는 시·도 지역예선을 거쳐 시·도 대항전 경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 특성상 시·도 대항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클럽대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실적은 (표 4-8)과 같다.

(표 4-8)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대회종목수	15종목	21종목	40종목	42종목	43종목	43종목	45종목	46종목
대 회 수	15회	21회	121회	124회	123회	128회	129회	124회
참가규모	12,436명	21,067명	82,236명	87,031명	99,547명	118,789	125,113명	132,754명

2)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은 16개 시·도가 함께 하는 축제로서 2001년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이란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년에 한번 전국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서 동호인 개인의 명예와 성취감 고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계층 간 우정과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 기회를 마련하며, 생활체육 실천으로 개인적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축전은 체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축전으로 개최되며,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민속경기 채택으로 전통 놀이 문화의 계승기반을 마련하며, 국제 생활체육 교류행사와 병행 실시 한다는 방침아래 추진되고 있다. 매년 각 시도별로 순회 개최되며 체육경기 외에 다양한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상설 프로그램으로 환영음악회, 월드스타 쇼, 전국노래자랑 등이 열린다. 학술행사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세미나가 개최되며 주변행사로는 내고향 특산물 전시회 및 먹거리 장터, 생활체육종목시연, 민속놀이체험, 가족체험, 연예인 스포츠 스타 싸인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4-9) 연도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현황

연 도	기간/장소	참가인원	실 시 종 목
2005	5. 14~5. 16 (충청남도)	6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21,000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종목(25개) - 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정구, 볼링, 족구, 탁구, 테니스, 야구, 농구, 자전거, 배구, 당구, 검도, 합기도, 스킨스쿠버, 풋살, 페러글라이딩, 보디빌딩, 사격, 등산, 태권도, 생활체조, 대학동아리 • 민속종목(4개) : 국무도, 씨름, 줄다리기, 택견 • 시범종목(5개) : 골프, 궁도, 단학기공, 사격, 트라이애슬론 • 장애인종목(3개) : 배드민턴, 보치아, 휠체어마라톤 • 전시종목(1개) : 그라운드골프
2006	4. 14~4. 16 (전라남도)	6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22,000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종목(25개) - 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정구, 볼링, 족구, 탁구, 테니스, 야구, 농구, 자전거, 배구, 당구, 검도, 합기도, 스킨스쿠버, 풋살, 페러글라이딩, 보디빌딩, 등산, 태권도, 생활체조, 단학기공, 인라인스케이팅 • 민속종목(4개) : 국무도, 씨름, 줄다리기, 택견 • 대학동아리(2개) : 축구, 농구 • 시범종목(5개) : 골프, 궁도, 낚시, 사격, 트라이애슬론 • 장애인종목(4개) : 배드민턴, 탁구 론볼, 휠체어마라톤 • 전시종목(1개) : 그라운드골프

제4장 생활체육

연 도	기간/장소	참가인원	실 시 종 목
2007	6. 1~6. 3 (울산광역시)	6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 선수 23,227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종목(29개) - 일반종목(25개) : 축구, 육상, 배드민턴, 정구, 탁구, 볼링, 배구, 검도, 생활체조, 자전거, 농구, 당구, 합기도, 패러글라이딩,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팅, 국학기공, 야구, 테니스, 보디빌딩, 게이트볼, 풋살, 족구, 스킨스쿠버, 등산·민속종목(4개) : 국무도, 씨름, 줄다리기, 택견 • 대학동아리(2개) : 농구, 축구 • 장애우종목(3개) : 테니스, 탁구, 휠체어마라톤 10km • 시범종목(7개) : 궁도, 철인3종경기, 낚시, 사격, 골프, 윈드서핑, 라켓볼 • 전시종목(2종목) : 그라운드골프, 론볼
2008	5.23~5.25 (대구광역시)	6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 선수 24,795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종목(29개) - 일반종목(25개) : 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정구, 탁구, 테니스, 볼링, 족구, 배구, 검도, 생활체조, 자전거, 야구, 농구, 당구, 합기도, 풋살,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보디빌딩, 태권도, 등산, 인라인스케이팅, 국학기공·민속종목(4개) : 국무도, 씨름, 줄다리기, 택견 • 시범종목(9개) : 궁도, 철인3종, 골프, 사격, 승마, 종합무술, 스퀘시, 라켓볼, 낚시 • 대학동아리(2개) : 농구, 축구 • 장애우종목(4개) : 탁구,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 전시종목(2종목) : 그라운드골프, 론볼

3. 동호인 리그

1) 지역동호인클럽 활성화

지역동호인클럽 활성화는 지역별, 종목별 동호인들의 연중 리그를 통하여 지역사회 동호인 활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민생활체육진흥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종목별리그에는 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234명)가 배치되어 연중 지속되는 동호인 리그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지역동호인클럽리그는 국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의 기초사업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군·구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생활체육 복지혜택을 균등히 제공하고 생활체육동호인 저변확대를 도모하며 생활체육 동호인클럽의 체계적인 육성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역동호인클럽 활성화 사업의 운영 방침은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체육 정착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실정과 지역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해 시·군·구별로 2종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

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역별 동호인클럽 간 정기 교류전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시·군·구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은 지역별로 연중 실시되며 지역별, 종목별 특성에 맞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표 4-10) 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 배치 현황

지 역	지도자수	지 역	지도자수	지 역	지도자수	지 역	지도자수
서울	25	광 주	5	강 원	18	전 남	22
부 산	16	대 전	5	충 북	12	경 북	23
대 구	8	울 산	5	충 남	16	경 남	20
인 천	10	경 기	31	전 북	14	제 주	4

(표 4-11) 지역동호인클럽리그 운영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실적	233개소 54,849회 2,460,885명	233개소 61,779회 2,438,816명	233개소 74,527회 2,588,620명	233개소 98,448회 2,697,198명	234개소 105,246회 3,412,834명	234개소 112,798회 3,990,392명	234개소 115,394회 3,995,645명
종 목	생활체육 종목 중5종목 선택 실시	생활체육 종목 중5종목 선택 실시	생활체육 종목 중5종목 이상 선택 실시	생활체육 종목 중5종목 이상 선택 실시	생활체육 종목 중5종목 이상 선택 실시	생활체육 종목 중5종목 이상 선택 실시	생활체육 종목 중2종목 이상 선택 실시

아울러 동 사업은 2005년도 「즐거운 주말리그」사업과 「시·도 동호인클럽 운영지원」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동호인클럽리그 운영 외에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2008년 기준 738회 지원)과 동호인클럽 등록 업무로 운영되고 있다. 동호인클럽 등록 업무는 지역에 배치된 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가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 및 시·군·구종목별연합회에 등록된 클럽현황을 취합하여 매월 중앙협의회 주 전산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 4-12) 시·도 종목별대회 연도별 지원 실적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대 회 수	393회	409회	385회	376회	441회	592회	738회
참가인원	151,060명	175,861명	179,433명	180,767명	208,834명	303,862명	325,868명

제4장 생활체육

(표 4-13)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현황

(2008. 12월말 기준)

지역	구분 인구수	합계		지 역		직 장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합계	48,497,166	95,075	2,985,253(6.2)	79,138	2,509,142	15,937	476,111
서울	10,043,258	10,168	315,375(3.1)	7,032	213,977	3,136	101,398
부산	3,591,677	5,514	164,512(4.6)	4,453	136,674	1,061	27,838
대구	2,547,186	3,951	133,765(5.3)	3,650	128,202	301	5,563
인천	2,603,480	5,150	176,530(6.8)	4,403	157,307	747	19,223
광주	1,440,096	3,382	86,516(6.0)	3,068	77,830	314	8,686
대전	1,469,304	2,856	235,856(16.1)	2,107	175,818	749	60,038
울산	1,097,679	3,847	95,434(8.7)	3,600	89,721	247	5,713
경기	10,954,856	19,790	630,472(5.8)	18,444	597,801	1,346	32,671
강원	1,473,661	3,825	107,340(7.3)	3,487	99,372	338	7,968
충북	1,485,544	6,325	163,924(11.0)	4,552	123,312	1,773	40,612
충남	1,921,046	5,623	173,163(9.0)	4,306	154,089	1,317	19,074
전북	1,793,980	3,042	95,336(5.3)	2,503	78,326	539	17,010
전남	1,820,250	4,451	123,352(6.8)	3,586	96,787	865	26,565
경북	2,622,822	7,530	219,714(8.4)	6,293	177,974	1,237	41,740
경남	3,090,575	6,764	188,875(6.1)	5,219	137,073	1,545	51,802
제주	541,752	2,857	75,089(13.9)	2,435	64,879	422	10,210

※ 인구수는 2008년 말 기준 추계인구수이며, 괄호안은 인구대비 회원수 비율임.

(표 4-14)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2008. 12월말 기준)

종목	클럽수	회원수	종목	클럽수	회원수
계	95,075	2,985,253	축구	14,667	482,942
검도	1,385	59,133	카누	11	215
경당	47	361	탁구	3,634	79,822
게이트볼	6,382	118,385	태권도	2,647	159,791
골프	534	15,620	태극권	41	1,285
궁도	666	17,360	택견	590	20,092
그라운드골프	184	3,735	테니스	7,942	226,018
기공	13	666	페러글라이딩	686	14,874
낚시	1,577	39,528	풋살	1,417	18,822

제3절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

종목	클럽수	회원수	종목	클럽수	회원수
농구	3,125	43,228	피구	47	1,026
단전호흡	40	1,062	필드하키	25	544
단학기공/법륜공	1,510	52,985	합기도	1,372	63,685
당구	1,180	27,051	항공스포츠	26	2,301
댄스 스포츠	525	36,633	핸드볼	33	554
등산	3,512	184,637	헬스	610	34,582
라켓볼	203	4,038	헝글라이딩	18	314
럭비	32	1,018	MTB	33	2,505
레크리에이션	157	5,855	X-게임	28	1,247
롤러스케이팅	126	8,124	스포츠글라이딩	1	30
무에타이	13	340	캠프	252	2,216
미식축구	38	694	인라인하키	214	15,477
배구	2,321	48,559	국무도	221	7,751
배드민턴	4,297	158,092	아이스하키	7	361
보디빌딩	1,221	70,584	트라이애슬론	43	2,204
복싱	118	3,455	부메랑던지기	3	65
볼링	9,770	220,687	레포츠	15	2,066
사격	237	4,692	레슬링	5	344
사이클	173	6,611	론볼링	7	214
생활체조	3,126	168,507	민속경기	44	18,480
석궁	6	146	생활무술기공	11	464
소프트볼	120	2,438	전통무예	4	54
수상스키	70	3,352	우드볼	29	1,052
수영	1,292	52,335	열기구	1	32
스케이팅/빙상	190	5,887	양궁	5	56
스쿠버다이빙	52	1,481	해동검도	26	2,541
스쿼시	355	11,963	레저복싱	11	269
스키	284	9,113	클라이밍	21	592
스킨스쿠버	458	16,612	격투기	11	731
승마	286	5,450	기천문	1	52
씨바이벌	8	266	킥복싱	19	642
씨름	377	8,080	활기도	1	38

제4장 생활체육

종목	클럽수	회원수	종목	클럽수	회원수
야구	2,879	63,513	오리엔티어링	23	304
에어로빅	1,309	57,587	파크골프	50	1,002
역도	6	167	보치아	1	16
요가	287	11,873	경비행기	9	539
요트	15	313	걷기	13	606
우슈/쿵후	313	11,552	법률대법	14	318
윈드서핑	194	4,052	프리테니스	50	1,171
유도	165	4,607	인라인스케이팅	595	52,038
육상/조깅마라톤	1,956	54,942	펜싱	-	-
자전거	879	23,324	특공무술	47	1,917
전통무용	109	2,975	경호무술	7	460
정구	573	12,636	무예24기	3	168
족구	3,983	67,288	궁수도	7	187
줄넘기	197	7,639	싱크로빅스	3	4,207
줄다리기	161	3,076	건강달리기	60	2,515
종합무술	283	6,718	국선도	7	334
철인3종	87	2,070	모터스포츠	1	26

2)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은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목간 연계와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종목별 클럽리그제 사업의 목적은 종목별 동호인 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직장간 교류 활동의 정례화와 종목별 동호인클럽의 지속적인 교류 촉진을 통한 동호인 참여 확산에 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운영종목의 확대를 유도하고 전국 종목별 동호인이 참가하는 동호인 축제로 운영되고 있다.

종목별 클럽리그제에는 2008년 10종목(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족구, 야구, 볼링, 풋살, 농구, 탁구, 테니스)이 포함되어 있다. 리그운영 방법은 각 종목별 시·군·구 리그(예선전 및 리그전) → 시·도 리그(폴리리그전) → 결승전(16개~32개 클럽)으로 연간 37,035개 클럽, 636,613명의 동호인이 참여하고 있다.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으로 축구, 탁구, 배드민턴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클럽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 클럽간의 교류를 정례화하여 생활체육 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호인 리그는 전문체육의 정규리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기단체의 관심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전문체육의 종목별 정규리그와의 연계 운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정규리그를 1부, 2부, 3부 리그 등으로 구분하여 동호인클럽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직장리그와 동호인 한마음리그는 2006년부터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에 통합되어 가고 있다.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 단위사업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체육의 구심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국민체육진흥정책은 국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체육진흥을 도모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은 국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를 통해 자율적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은 생활체육진흥의 핵심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4절 직장체육활동 육성

1.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은 전국의 직장·단체 등을 지도자가 직접 순회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보급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직장·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도·보급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체육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참여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며,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권장·지도하여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의 지도내용은 생활체조(가슴을 열자, 덩더꿍 체조, 민속에어로빅스, 태권, 스트레칭), 레크리에이션 체조(차차차, 포크댄스, 자이브 등), 직장 및 가정 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 및 체조, 배드민턴, 탁구, 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생활체육지도자가 지도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직장 단체에서 특별히 원하는 프로그램 및 여성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보급되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시·도별로 고정 배치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순회 지도를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각 시·도의 직장과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직장·단체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직장·단체를 찾다니며 적극적인 체육활동 서비스를 전개함으로써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직장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직장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 의사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체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은 2003년까지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제도가 없어지고, 이 사업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4-15) 2008년 전일제 지도자 활동 실적(12월말 기준 누계실적)

시·도	운영개소	참여인원	지도횟수
합 계	총 50,140	11,138,943	443,075
서울	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등 6,180	845,327	36,599
부산	부산시민체력센터 등 2,232	758,276	25,507
대구	대구재활센터 등 1,464	625,834	15,211
인천	만수장애인복지관 등 2,604	510,102	19,986
광주	주월1동 자치센터 등 2,448	485,963	19,880
대전	장애인체육재활원 등 1,968	567,559	20,589
울산	연양지역아동센터 등 1,872	430,652	19,088
경기	연무초등학교 등 8,184	1,443,887	57,910
강원	동내초등학교 등 2,112	525,471	29,064
충북	국민생활관 등 1,428	683,933	19,061
충남	삼취복지원 등 3,792	709,290	29,527
전북	늘빛지역아동센터 등 2,508	633,925	26,561
전남	나주시 정신건강센터 등 3,876	863,336	35,330
경북	영천 야사종합복지관 등 4,300	904,235	40,235
경남	마산종합운동장 등 4,224	886,689	39,857
제주	제주아동복지센터 등 948	264,464	8,940

2.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직장체육 육성의 핵심 과제는 직장 동호인클럽을 육성하여 집단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직장내 동호인클럽 육성은 연중 지속되는 직장 동호인클럽 전국리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는 2005년까지 '직장 동호인클럽 전국리그'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06년부터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사업의 목적은 직장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하고 동호인 클럽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은 직장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시·군·구리그 → 시·도리그(폴리그전) → 결승전으로 운영을 유도하며, 전국 또는 지역 스폰서십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5절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생활체육 나눔운동) ●

1.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사업의 목적은 소외계층의 건전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지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2005년까지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와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6년부터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1)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

정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소외계층에게 체육용구를 지원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하며, 명랑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용구를 복돋아 주기 위해 운동용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 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근거로 선정하고 있다. 운동용품 지원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대상별 희망 용품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지원 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순회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 4-16) 소외계층 용구지원 추진 실적(2008년)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아동시설	226개소 15종 11,350점
노인시설	290개소 12종 2,187점
장애인시설	150개소 16종 4,500점
한부모가정	107개소 13종 3,544점
이주노동자시설	73개소 10종 2,118점
교화시설	63개소 10종 2,181점
격오지 국방시설	61개소 8종 581점

2008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970개소[아동시설 226개소, 노인시설 290개소, 장애인시설 150개소, 한부모가정 107개소, 이주노동자시설 73개소, 교화시설 63개소, 격오지 국방시설 61개소]에 운동용구가 지원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 동안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2)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생활체육 활동 대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활체육 소외계층에게 폭 넓은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이 사업은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종목과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참가자가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시·군·구협의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수영, 배구,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볼링, 테니스, 에어로빅, 요가, 농구, 스쿼시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종목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일정은 시·도 및 시·군·구 실정에 따라 정해지며, 기간은 2박 3일씩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2. 외국인노동자 체육행사 지원

외국인노동자 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조성 및 다민족의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2008년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별 축구대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 병행), 어울림한마당공연, 국가별 번외경기 등이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16개국(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방글라데시, 라이베리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간다,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코트디브아르, 태국, 필리핀) 5,000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참가하였다.

● 제6절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

1.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란 일종의 체육지도자 뱅크(bank)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각급 연수원을 통하여 정부에서 배출한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와 지역내 체육지도 가능 인력들의 정보를 수집 보관하여, 체육지도자가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 적절한 지도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의 수요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다.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사업은 체육지도 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기관과 지도자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등록된 지도자의 현장 배치를 주선하며 생활체육지도자 개별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언론매체(소식지, 인터넷)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생활체육 지도자 구직, 구인란)를 지도자 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 운영되며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다.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등록대상은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 현장지도자, 경기지도자, 체육관련 학과 대학생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의 전국적 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체육지도가 가능한 인력을 파악하여 부족한 지도 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양질의 지도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및 배치의 효율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12월말까지 체육지도자 자격 검증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7)과 같다.

(표 4-17) 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008. 12월말 기준)

구 분	계	1급	2급	3급
생활체육지도자	124,370명	638명	6,799명	116,933명
경기지도자	19,823명	636명	19,187명	-

2.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사업은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로 충당할 수 없는 분야에서 생활체육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스포츠클럽들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클럽활동의 활성화와 예산절감을 이루고 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은 생활체육 지도인력을 광범위하게 확보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 봉사활동 분위기를 조성하며 봉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지역별 생활체육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자원봉사자를 생활체육 현장의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은 시·도생활체육협의회(시·도 자원봉사단)에서 연중 지속 운영하며 대상은 지역별 체육관련 학과 대학생,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 현장지도자, 우수선수출신, 체육교사, 체육교수 등이다. 각 시·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지역별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모집 및 구성, 생활체육 자원봉사활동 전개,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시상, 자원봉사단 평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충분한 지도 인력의 확보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현장에 자원봉사제도 정착, 지역 내 체육지도 가능 인력의 활용 최대화, 그리고 현장지도자의 원활한 수급체계 확보 등이다. 특히 생활체육에서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공공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생활체육 자원봉사단은 16개 시·도에서 총 528,652명 구성되어 1,284회의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각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육성할 유자격 지도자를 행정 구역별로 배치 운영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활체육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국민의 생활체육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며 청년층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련 업무는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여 공정한 채용계획과 절차를 통해 우수한 지도자원을 확보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무지는 시·군·구협의회가 관리·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도자 관리 및 활동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및 232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정식 유급 직원으로 연중 배치되어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생활체육 현장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하는 지도자 외에도 시간제(Part-Time) 생활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지역별 배치 현황은 제9장 참조). 이 사업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젊은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4. 노인체육지도자 배치

노인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급속히 증가일로에 있는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적인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2006년부터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어르신체육지도자 보수교육을 수료한 노인체육지도자 345명을 전국에 배치하였다. 배치된 지도자들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시·도별 노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노인의 지속적 생활체육참여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체육지도자는 지역별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보급하고 있으며, 지역클럽 가입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도프로그램은 지도자가 방문 시설의 운동여건 및 대상자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종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실시 종목은 생활체조, 요가, 스트레칭, 에어로빅,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수영, 재활운동, 필라테스, 근력운동, 탁구 등이다.

(표 4-18) 노인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지 역	지도자수	지 역	지도자수	지 역	지도자수	지 역	지도자수
서울	38	광 주	10	강 원	25	전 남	31
부 산	18	대 전	9	충 북	19	경 북	34
대 구	16	울 산	8	충 남	23	경 남	27
인 천	17	경 기	44	전 북	20	제 주	7

노인체육지도자 채용 관련 업무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여 공정한 채용계획과 절차를 통해 우수한 지도자원을 확보하고, 1년 단위

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역별 노인체육지도자 배치 및 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은 (표 4-18), (표 4-19)과 같다.

(표 4-19) 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시·도	기 간	장 소	참가규모	행 사 운 영		
				일반경기	번외경기	부대행사
서울	7.11	KBS 88 제1체육관	2,500명	5종목	-	축하공연
부산	5.9	부산종합운동장	1,500명	7종목	-	축하공연
대구	6.5	시민운동장	1,500명	9종목	-	축하공연
인천	6.20~21	도원실내체육관	2,000명	5종목	-	축하공연
광주	6.27	엄주 빛고을체육관	3,000명	8종목	-	실버가요제
대전	5.9	국민생활관	900명	6종목	-	축하공연
울산	6.21	종하체육관	900명	7종목	-	축하공연
경기	4.30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2,400명	11종목	-	축하공연
강원	8.21~22	양양군 공설운동장	1,500명	10종목	-	축하공연
충북	6.20	음성군체육관	1,500명	10종목	-	축하공연
충남	6.13	당진실내체육관	2,500명	7종목	-	축하공연
전북	10.8	부안 스포츠파크	1,500명	8종목	-	축하공연
전남	11.6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1,500명	5종목	-	축하공연
경북	10.22	문경실내체육관	1,500명	6종목	-	축하공연
경남	5.16	남해스포츠파크	2,800명	8종목	-	축하공연
제주	6.12	한라체육관	3,000명	9종목	-	축하공연

제7절 생활체육 홍보

생활체육 홍보는 규칙적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유인하고 비참여자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촉진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핵심 홍보 사업은 스포츠 7330 캠페인이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는 스포츠 7330 캠페인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우리사회의 구조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계획적 홍보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스포츠 7330 캠페인 전개

1) 스포츠 7330 정책 태동 배경

(1) 생산적인 여가문화로의 전환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여가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가형태는 TV시청, 낮잠 등 단순휴식과 외식, 쇼핑 등 소비형 여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국민여가시간을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인 문화로 전환할 정책적 대안이 필요했다.

(2) 운동방법에 대한 가이드 제시

스포츠 활동이 가장 생산적인 여가문화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보다는 '보는 스포츠'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보는 스포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스포츠 활동 직접 참여자의 운동 상해 예방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3) 생활체육 향유계층의 양극화 해소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2008년 현재 주 2~3회 규칙적 생활체

육 참가 인구는 34.2%에 불과하며, 참여계층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이 짙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적극 유인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4) 국민의 체력지수 향상

과학 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10년 이상 낮아지면서 노인의료비 부담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미래 국가의 주역인 청소년의 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 유인 홍보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스포츠 7330의 과학적 의미

스포츠 7330은 스포츠 참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에 기반 해 채택된 캠페인이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가 갖는 과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운동을 해야 하는가?

스포츠생리학적으로 우리 인체는 신체 활동 등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아 이 영향이 지속되는 시간은 약 2일(48시간)정도이다. 따라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운동을 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 했을 때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4일의 운동이 투자한 시간에 비해 최대의 건강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야 운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 왜 30분 이상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가?

선행 연구결과, 5~10분 동안 지구성 운동을 하더라도 심폐지구력이 증가하지만 운동효과 측면에서는 30분 이상이 유효하다고 한다. 여기서 유효하다는 말은 투자 시간에 비해 가장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운동에너지 소모와 관련이 있다. 운동할 때 사용되는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다. 이 중 탄수화물은 낮은 중강도 운동 때 주요기질로 작용한다. 그러나 장시간(30분 이상) 운동 시에는 탄수화물 대사로부터 점차 지방으로 기질대사의 의존율이 증가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후 30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방이 분해·소모되는 것이다. 따라

서 30분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운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 운동은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운동강도 결정의 주요 표준은 최대운동능력을 100으로 했을 때 약 몇 %의 강도로 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최대운동심박수의 약 60%~70% 내외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의 경우 특히 중장년층은 60% 이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60% 정도의 운동강도는 통상 목표심박수 130정도이며, 목표심박수는 $(220 - \text{본인나이}) \times 0.6$ 이다. 독일의 생활체육 슬로건인 'Trimming 130'은 바로 심박수를 130이상으로 올리는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의 운동을 하고 나면 대체로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축축하게 난다.

3) 스포츠 7330 정책 경과

정부는 스포츠 7330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참여 계몽을 위한 로고 개발과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7330 정책 추진 경과는 (표 4-20)과 같다.

(표 4-20) 스포츠 7330 정책 추진 경과

정책개발 및 적용 (2005년)	· 국민들의 운동참여방법에 관한 스포츠과학적 가이드 마련
	· 운동 참여 계몽을 위한 로고 개발
	· 스포츠 7330 선포식 및 범국민 가두캠페인 전개
다양한 캠페인 전개 (2006년)	· 혁신브랜드로 선정하고 비전 및 미션 설정
	· 언론과 연계하여 기획보도 · 각종 광고, 직접홍보 등 캠페인의 다원화
	·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직접홍보 강화
맞춤형 캠페인 전개 (2007년 이후 지속)	· 홍보 Tool의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틈새광고 시행)
	· 연령별 ·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포츠 7330 캠페인' 전개
	· 인지도 조사를 토대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캠페인 정책방향을 설정
	· 공모전을 통하여 스포츠 7330 캠페인에 대한 국민관심 유도

4) 스포츠 7330의 단계별 로드맵

스포츠 7330은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에 목표를 두고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40%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 7330 선포식과 로드맵을 설정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40~50% 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기법을 다양화하고 스포츠 7330 아젠더를 형성하였고, 3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50%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 7330 생활화와 브랜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4-21) 스포츠 7330 단계별 목표와 내용

구 분	1단계(시범사업-도입)	2단계(정착사업-확산)	3단계(강화)
목표	생활체육 참여율 40%	생활체육 참여율 40~50%	생활체육 참여율 50%이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7330 선포식 • 로드맵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기법의 다양화 • 스포츠 7330 아젠더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7330 생활화 • 브랜드의 국제화

(표 4-22) 스포츠 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실적

1단계 (2005~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명칭 확정, 브랜드 알리기 위한 전략수립 • 스포츠 7330 선포식 및 퍼레이드 전개
2단계 (2007~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Tool의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틈새광고 시행) • 학교기관과 연계(세미나, 학술대회, 교과과정에 편성) • 관공서 및 사회단체 집회 시 스포츠 7330의 이슈화 • 종목별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확산 • 지역문화 축제 및 각종 행사시 스포츠 7330 캠페인과 연계 • 생명보험사 및 기업체와 연계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체계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 스포츠클럽 활성화
3단계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7330 노래 제정, 확산 • 브랜드 상품개발(캐릭터개발, 브랜드의 상품화 등) • 브랜드의 해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국제교류, 세계한민족축전 참가자들을 통한 홍보 - 각종 국제대회 시 한국선수단을 통한 노출 - 재외공관, 한인회, 한국관광공사, 문화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

2.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전개

정부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자 범국민생활체육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은 TV·라디오, 주요 일간지 및 기타 간행물, 지하철, 전광판, 인터넷, 극장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에 관한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고, 생활체육정책,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방법 및 효과, 외국의 사례, 뉴스포츠, 동호인 활동사항 등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국민생활체육지를 제작하여 지역별,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소식과 생활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4-23)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보도실적	신문광고	TV광고	라디오광고
2001	205회	24회	151회(CA)	-
2002	210회	29회	27회, 545회(CA)	25회
2003	232회	37회	47회	71회
2004	268회	23회	24회	56회
2005	874회	14회	-	182회
2006	958회	38회	25회	182회
2007	1,190회	31회	26회	180회
2008	1,190회	28회	37회	186회

(표 4-24) 국민생활체육지 발간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행부수	68,000	72,000	72,000	48,000	96,000	96,000	96,000	96,000
발행회수	6회	6회	6회	6회	12회	12회	12회	12회
간별	격월간	격월간	격월간	격월간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면수	52면	52면	52면	52면	56면	56면	60면	60면

3.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전달 및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21세기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정보를 효과적

으로 다룰 수 있는 각종 통신기기와 정보통신망이 새롭게 등장하고 인터넷이 정보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생활체육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는 e비즈니스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정보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4-25)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고	생활체육 정보센터 운영	121,600	200,000	-	-	-	-	-	-
기금	생활체육 정보센터 운영	-	-	365,000	360,000	340,000	300,000	300,000	184,000

제8절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및 협력

1. 배 경

학교체육은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선진화와 교원단체가 선도하는 교육민주화 노력으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체육교과도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체육교사 선발방식의 개선으로 우수한 체육교사들이 중등학교에 임용되고, 체육전담교사들이 초등학교에 발령받기 시작함으로써 학교체육의 질이 21세기에는 급격히 향상될 전망이다. 대학입학 시험방법이 다양화되고 사회적으로 체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교과로서의 체육의 지위도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체격은 커지는데 비해 오히려 체력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의 체력 저하는 대학 입시에 따른 공부 위주의 생활,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반하고 있다. 이 중 운동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특히 운동 부족에 따른 비만의 증가는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학교체육 수업에 대한 학교, 학부모, 학생 등의 적극적 인식 없이 '시간 때우기'식으로 소홀히 운영되는 것도 학생 체력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연계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시스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2.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학교체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로 학교체육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 이원화로 인하여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양 부처의 공동 노력 및 업무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체육정책의 중심을 풀뿌리 체육으로 전환시키고 또한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표 4-26)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력 합의서 주요 내용('05.12.20)

구 분	주 요 내 용
업무협력 방향	양 부처는 학교·생활 체육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호연계 및 효율적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학교·생활체육 발전의 토대 마련	양 부처는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재정지원 확대 등 학교·생활 체육 발전의 토대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학생 등 청소년 체력증진	양 부처는 학생 등 청소년의 체력저하 현상에 대응하며 청소년 체력증진을 위해 조사·연구를 하고 대책을 마련·실행한다.
학교체육실무협의회의 활성화	부처간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부처는 기존 학교체육실무협의회의 운영을 다음과 같이 활성화한다. · 정기회의 : 현행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변경 · 분과기구 : '청소년 체력 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향후 새로운 분과 필요 시 학교체육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구성
우선 추진과제	체육시설 확충·선진화,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개선,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클럽 육성, 학교·생활 체육의 연계 강화, 교내 체육활동 기회 확대

최근,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의 연계·통합을 위한 시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5년 12월에 '체육분야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여 상호협력기반 구축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서 체결은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엘리트체육이 육성되는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체육시스템이 선진형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간 업무협력 합의서는 학교내 잔디운동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청소년체력 증진, 스포츠클럽제도 도입, 학교내 체육활동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체육의 지속 발전과 효율적 진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공동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학교체육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협력 및 홍보 강화

1) 학교체육 보급 프로그램 운영

학생내 체육활동 보급을 통해 전인교육 여건 및 건전한 학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제4장 생활체육

정서·사회성 함양과 스트레스 해소 등 학내문제의 근원을 예방·치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2개 체육단체 및 소속 유망선수와 체육단체장이 일선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기지도와 체육수업을 실시하는 등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학교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

(표 4-27) 학교체육 보급 프로그램(2008) 운영 현황

일 자	종 목	선 수	방 문 학 교
11.27	야구	김사연, 연경흠, 정범모, 최진호	충북 청주내덕초등학교
12. 3	태권도	손태진	경북 체육고등학교
10.31	세팍타크로	박금덕 외 9명	경북 김천대덕중학교
12. 8	카누	김유진	인천 백석중학교
9.22	당구	황득희, 박신영	안양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11. 6	공수도	김병철 외 11명	부산 운송초등학교
7. 4	체조	김대은	제주 도리초등학교
12.19	역도	전병국 외 7명	충남 온양고등학교
7.17	배구	배유나	제주 한림초등학교
11.30	핸드볼	명복희, 윤현경	경기도 의정부 기능초등학교
11.14	스쿼시	김현동, 김진희	경북 경주공업고등학교
12.18	빙상	이규혁	서울 리라초등학교

* 출처 : 대한체육회 생활체육과

2) 학교내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학생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여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학교내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학교운동장이라는 편리한 접근성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학교체육과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표 4-28) 학교내 잔디운동장 연차별 조성 추진계획

(단위 : 개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지원학교수	83	90	90	90	90	443

제9절 세계한민족축전

1. 개최배경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축적된 힘을 밖으로 표출시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수백만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긍지를 드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외동포 사회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조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중국, 구소련 거주 동포들에게 당시 이념의 장벽에 가려져 있던 조국 땅을 밟고 싶은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서울올림픽 개최를 두 달 앞둔 1988년 7월 마련된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추진기본계획」은 바로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바람을 수용하기 위한 검토 과정에서 착안되었고, 특히 88서울올림픽대회에 중국, 소련을 비롯한 30여개 미수교국의 참가가 확실시되면서부터 구체화되었다.

체육행사를 통해 세계 도처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단결시키고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둔 동 계획에 따라 1988년 10월말부터 당시 체육부 관계자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미주 및 유럽지역에 파견하여, 현지 대사관과 교민단체와 교섭을 갖고 세계한민족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동포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동 대회의 개최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대회 개최 계획이 확정된 이후, 체육부는 1989년 4월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올림픽개최 1주년 기념행사로 1989년 9월, 50개국에서 1,326명의 재외동포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수원시에서 개최된 제70회 전국체전과 함께 개막식을 갖게 되었다.

2. 변천과정 및 축전 특징

1989년 제1회 대회가 시작된 이래 문화·예술행사와 청소년축제가 함께 포함되었으며, 1995년부터 「세계한민족축전」으로 공식대회 명칭이 변경되었다. 처음에는 2년 주기로 행사가 열렸으나,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동 축전은 체육행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축전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으며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제4장 생활체육

(표 4-29) 세계한민족축전 연도별 개최 특징

회 차	축 전 개 최 특 징
10회 (2001)	• 행사직전미국 9.11 항공기테러사건으로 역대 참가율 최저수준 (32개국 478명)
11회 (2002)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32개국 668명)
12회 (2003)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42개국 601명) • 해외 입양아 8개국 61명 참가
13회 (2004)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41개국 623명) • 해외 입양아 6개국 56명 참가
14회 (2005)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45개국 501명) • 해외 입양아 24명 참가
15회 (2006)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35개국 483명) • 해외 입양아 5개국 17명 참가
16회 (2007)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46개국 473명) • 해외 입양아 3개국 11명 참가
17회 (2008)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44개국 430명) • 해외 입양아 4개국 25명 참가

3. 연도별 개최현황

초창기에 대규모로 행사가 개최되었지만 점차 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참가국과 참가인원을 대폭 축소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행사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의미 있는 한민족 생활체육축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 4-30) 세계한민족축전 연도별 개최현황

구 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 가 인 원
2001	2001세계한민족축전	2001. 9.20 ~ 26(7일)	서울, 경기, 충청 일원	25개국 620명
2002	2002세계한민족축전	2002. 9.13 ~ 19(7일)	서울, 경기, 충청 일원	32개국 668명
2003	2003세계한민족축전	2003. 8.29 ~ 9.4(7일)	서울, 경기, 제주 일원	42개국 601명
2004	2004세계한민족축전	2004. 9.17 ~ 23(7일)	서울, 경기, 제주 일원	41개국 623명
2005	2005세계한민족축전	2005. 9. 9 ~ 15(7일)	서울, 경기, 충청, 제주 일원	45개국 501명
2006	2006세계한민족축전	2006. 9.21 ~ 27(7일)	서울, 제주 일원	35개국 483명
2007	2007세계한민족축전	2007.10.10 ~ 16(7일)	서울, 제주 일원	47개국 473명
2008	2008세계한민족축전	2008. 9.18 ~ 24(7일)	서울, 경기 및 경주 일원	44개국 430명

제10절 과제 및 발전방안

생활체육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창조적 여가선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생활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동호인육성 및 활동지원, 직장체육 육성, 소외계층 체육활동지원(생활체육 나눔 운동),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사업이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제들은 생활체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사업의 확장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제공 사업은 지역주민이 쉽게 이동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 전에는 반드시 적절한 시행 장소와 시설 여건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소와 시설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어려우면 이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사업운영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 내 청소년의 참여가 신장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선호에 적합한 시행 방법을 고안하여 창조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의 전문화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육성의 핵심 과제는 국민생활체육의 기본적 활동단위 조직을 전문클럽화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사업의 초점은 21세기를 향한 선진화된 체육구조로서 스포츠클럽화를 지향함으로써 기존의 생활체육동호인클럽보다 훨씬 광범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동호인클럽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클럽화의 기반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역사회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및 운영조건을 개선하여 스포츠클럽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적 조건은 스포츠클럽화를 위한 법과 제도, 체육시설,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성 등이며, 내적 조건은 스포츠클럽의 조직화 및 전문화, 경영·관리 능력, 자립화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동호인클럽의 관리·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체육활동은 학교체육을 바탕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연계 운영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청소년 시절의 학교체육 경험이 청년기 이후의 지역사회 생활체육활동과 직장체육활동의 근간이 되며, 이는 다시 우수한 엘리트선수 육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동호인클럽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국민생활체육 단위조직을 전문클럽화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이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회원을 광범위하게 수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생활체육·학교체육·엘리트체육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호인클럽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동호인클럽의 경영능력과 전문화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스포츠클럽화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것이며, 스포츠클럽은 확보된 체육시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재정 자립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의 스포츠지도 분야에서 전문적 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클럽경영에서 탁월한 행정 관리자를 고용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3. 직장체육 환경구축과 내실화

직장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하며, 직장체육 환경의 복지화, 직장체육 내용의 다양화, 직장체육 활동의 조직화 및 직장체육 지원의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토대를 두고 직장체육 육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와 추진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4-31)과 같다.

특히 직장체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개별기업들이 모여 있는 산업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그 지역 근로자의 생활체육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

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표 4-31) 직장체육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추진과제	추진방법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준한 직장체육시설 설치 유도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지원 • 직장체육시설의 지역주민 개방 • 직장체육시설의 지역동호인 공동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 체육관련학과와 협력 지원 • 직장 생활체육 참가자의 욕구조사를 기초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공공 생활체육 프로그램 서비스 확장
체육지도자의 배치·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협조 • 지역대학의 체육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배치 협조 • 지역대학 체육대학생의 현장실습장 제공
동호인클럽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생활체육동호인의 직장체육동호인클럽 등록 • 동일종목의 지역생활체육동호인 조직과 교류 및 협력 확대
과학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 체육관련학과와 스포츠과학 혜택 제공 협력 • 체계적 과학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체력센터의 활용
안정적 재정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체육진흥을 위한 자체재정 자립도 확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보조 확보

최근 들어 밀집된 대단위 산업공단 근로자들과 지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산업공단지역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건강유지와 생활의 질적 향상 그리고 주5일 근무제 등에 따른 여가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산업공단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폐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과 이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산업공단 내에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4.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개선뿐 아니라 향후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조적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현장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신체적 장애자를 고려한 배려가 체육시설

설치 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체육활동에 처음 참가하게 되는 초보자를 체육활동의 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이들이 체육활동 현장에서 기능적 미숙과 환경적 부적응 등의 이유로 스포츠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을 전담할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활동 지원 모두 전문적 소양과 자격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한다.

5.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의 선진화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사업의 발전방향은 모든 국민이 생활체육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전달 수단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생활체육 홍보와 정보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적 감각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통한 효율적 방법을 변화 있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제는 TV를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는 것과 디지털콘텐츠를 통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 서비스는 미래 생활체육의 환경변화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생활체육 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생활체육 참여 및 생활체육 정보 수요의 증가 추세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 유지, 갱신하는 생활체육 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생활체육 정보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생활체육 정보가 수요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전달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활체육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텍스트,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Multimedia)의 형태로 전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미래 복지사회를 향한 대국민 생활체육 정보 서비스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미래사회에 있어서 생활체육 정보는 일반대중에게 생활체육 활동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가장 긴요하고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서비스는 대국민 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6.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정부가 양성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지도자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유자격지도자의 부족 현상을 보완하며 생활체육 투자예산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방안이 요

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출한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가 적절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의 신상정보와 체육시설 및 체육활동 현장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이와 같은 관리 운영 체계를 널리 홍보하여 배출된 지도자와 체육시설이 체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지속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인근대학의 체육계학과와 협력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지도 분야가 아니더라도 생활체육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모집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여가확장에 따른 시대적 변화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증가할수록 폭 넓은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생활체육지도자가 요구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운동 기능을 가르치고 대회를 운영하는 것 외에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생활체육지도자는 운동 기능만을 전수하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체육에 관한 폭 넓은 지식과 정보, 교양과 인격, 풍부한 현장지도경험, 전문적인 상담기술 그리고 전문적 기능을 겸비한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출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훈련, 그리고 지도자의 자기계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제5장 전문체육

제1절 개 관

제2절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제3절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훈련시설 확충

제4절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운영

제5절 프로경기의 진흥

제6절 과제 및 발전방안

제1절 개 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전문체육을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상위 입상을 통한 국위선양, 각종 국내대회 개최, 우수 선수의 선발 및 체계적 육성·관리, 선수지도를 위한 경기지도자 양성, 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 경기단체의 운영 및 지원 육성 등의 광범위한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즉, 전문체육은 선수의 운동경기활동은 물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육성 활동 및 관련 단체 및 기구의 지원·육성 활동 등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문체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기초하여 제반 전문체육 관련 기관, 즉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경기단체, 실업팀 및 각급 학교운동부 등 제반주체의 유기적 협력체계 하에 이루어지며, 이런 체계상의 특징으로 국내 체육분야의 중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전문체육은 국가의 이미지 및 위상제고, 국민통합 및 자긍심 고취, 생활체육 활성화의 선도적 기능,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의 국가적, 사회적 중요성과 사회전반에 걸친 긍정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하에 성장하였다.

정부의 전문체육 육성·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본장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분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꿈나무선수·후보 선수 등 우수 선수의 발굴·육성,
- 둘째,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훈련시설 확충 지원,
- 셋째, 선수의 경기력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 국내대회 운영지원,
- 넷째, 프로경기 활성화 지원 등이다.

제2절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경기력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스포츠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지속적으로 국내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대회 성적에 기초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특기자제도, 우수선수의 병역의무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병역특례제도, 군입대로 인한 경기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군체육부대 설치, 선수의 수업결손방지 및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한 체육계학교 운영,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태릉선수촌 운영, 국가대표선수와 후보선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우수선수 양성프로그램의 중추적인 핵심 분야는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후보선수와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이다.

1. 선수층의 저변확대

1)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 발굴과 선수 저변의 안정적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8년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지원대상 학교는 850개교이며, 세부적으로 후보선수 소속 학교 운동경기부 524개와 16개 시·도 교육감 지정 우수 운동경기부 326개이다. 시도교육감 지정 우수운동경기부의 경우, 첫째, 운동경기부수가 500개 미만인 시·도에는 18개의 우수 운동경기부를 지정하고 둘째, 운동경기부수가 500~1,000개 미만인 시·도는 20개의 우수 운동경기부를 지정하며 셋째, 운동경기부수가 1,500개 이상인 시·도는 21개의 우수 운동경기부를 지정한다. 시·도교육감 지정 우수 운동경기부는 종목당 등록선수가 2명 이상 이어야한다.

학교운동경기부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거나, 모범적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우수 운동부여야 하는데, 전국 체육중학교(5개교) 및 체육고(14개)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장 전문체육

지원대상 종목은 올림픽대회 종목(하계 28종목, 동계 6종목)이며 지원기준은 1개 운동경기부(2명 이상)당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선수가 1명인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육상, 수영, 체조는 세부종목별 운동부를 각각의 학교운동부로 인정하여 기본종목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은 단거리, 중·장거리, 허들, 경보, 투척, 도약, 혼성, 마라톤 운동부를 각각의 학교운동부로 하고, 수영은 경영, 다이빙, 수구, 수중발레를 각각의 학교운동부로 인정하며, 체조는 기계체조와 리듬체조를 각각의 학교운동부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훈련용품 구입비 등이다.

2008년에 총 19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원현황은 (표 5-1)과 같다.

(표 5-1) 2008년도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현황(2008.12.31 현재)

(단위 : 천원)

시·도 교육청	계 (A+B)	후보선수소속 운동경기부수			교육감 지정 운동경기부수(B)		'08년도 지원 소요예산					
		소계 (A)	선수 2인 이상	선수 1인	(전체 운동 부수)	계	후보선수 소속 운동경기부 지원			교육감 지정 운동부 지원	행정 지원비	
							소계	선수 2인 이상	선수1인			
합계	850	524	189	335	326	13,372	1,963,000	969,000	567,000	402,000	978,000	16,000
서울	122	70	31	39	52	2,098	296,800	139,800	93,000	46,800	156,000	1,000
부산	45	25	6	19	20	832	101,800	40,800	18,000	22,800	60,000	1,000
대구	41	26	7	19	15	624	89,800	43,800	21,000	22,800	45,000	1,000
인천	38	23	9	14	15	599	89,800	43,800	27,000	16,800	45,000	1,000
광주	21	11	4	7	10	423	51,400	20,400	12,000	8,400	30,000	1,000
대전	30	19	10	9	11	475	74,800	40,800	30,000	10,800	33,000	1,000
울산	33	26	4	22	7	289	60,400	38,400	12,000	26,400	21,000	1,000
경기	164	108	36	72	56	2,283	363,400	194,400	108,000	86,400	168,000	1,000
강원	77	53	22	31	24	931	176,200	103,200	66,000	37,200	72,000	1,000
충북	32	16	8	8	16	661	82,600	33,600	24,000	9,600	48,000	1,000
충남	56	37	13	24	19	780	125,800	67,800	39,000	28,800	57,000	1,000
전북	43	25	9	16	18	757	101,200	46,200	27,000	19,200	54,000	1,000
전남	42	27	11	16	15	639	98,200	52,200	33,000	19,200	45,000	1,000
경북	50	32	10	22	18	747	111,400	56,400	30,000	26,400	54,000	1,000
경남	40	21	7	14	19	777	95,800	37,800	21,000	16,800	57,000	1,000
제주	16	5	2	3	11	457	43,600	9,600	6,000	3,600	33,000	1,000

※ 육상, 수영, 체조 종목은 후보선수 소속운동부의 팀수 산정시 세부종목 단위를 각각의 팀으로 인정

2) 체육계학교 육성·지원

체육계학교 육성·지원 사업은 선수들의 훈련여건 개선 및 경기력 향상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8년 12월 현재 22개 학교(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5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체육계 학교에는 선수훈련용품, 장비구입비, 체육대회 개최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체육계 학교 현황은 (표5-2)와 같다.

(표 5-2) 체육계 학교 현황(2008.12.31 현재)

(단위 : 명, 개)

학교별		설립년월	학생수	졸업생수	비고
합계		22개교	4,365	33,576	
중 학교	소 계	7개교	778	5,318	중고병설 운영
	서울체육중	2004.3	141	1,116	
	광주체육중	1983.11	163	1,370	
	대전체육중	1993.3	121	758	
	강원체육중	2005.3	76		
	전북체육중	2007.3	60		
	전남체육중	2000.3	113	275	
	경북체육중	1973.6	104	1,799	
고등학교	소 계	15개교	3,524	29,557	
	서울체육고	1971.1	407	3,611	
	부산체육고	1972.11	257	2,394	
	대구체육고	2003.1	166	177	
	인천체육고	1993.11	258	6,582	
	광주체육고	1972.12	247	2,783	
	대전체육고	1973.3	260	2,436	
	경기체육고	1995.3	274	884	
	강원체육고	1991.3	196	908	
	충북체육고	1991.3	259	1,097	
	충남체육고	1992.1	176	1,043	
	전북체육고	1975.11	246	2,254	
	전남체육고	2002.12	167	180	
	경북체육고	1972.11	242	2,233	
	경남체육고	1984.12	260	1,772	
제주남녕고	1997.3	109	342		

제5장 전문체육

2008년도에 체육계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총 22억 3300만원이었으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표 5-3)와 같다.

(표 5-3) 2008년도 체육계학교 지원 예산(2008.12.31 현재)

(단위 : 천원, 명)

구 분	학생수 (중고 합계)	'08 도 지원 소요예산							
		합 계	연구학교 운영	체고체전 지원비	훈련비 (훈련 경비, 훈련용품 등)	훈련시설 · 장비비			
						소 계	일률지원	학생수 비례	후보선 수 비례
계	4,302	2,233,000	10,000	110,000	1,032,480	1,080,520	495,000	495,000	90,520
서울시교육청 (서울체육중·고)	548	239,346			131,520	107,826	33,000	63,054	11,772
부산시교육청 (부산체육고)	257	144,805	10,000		61,680	73,125	33,000	29,571	10,554
대구시교육청 (대구체육고)	166	96,000			39,840	56,160	33,000	19,101	4,059
인천시교육청 (인천체육고)	258	132,724			61,920	70,804	33,000	29,686	8,118
광주시교육청 (광주체육중·고)	410	181,823			98,400	83,423	33,000	47,176	3,247
대전시교육청 (대전체육중·고)	381	169,497			91,440	78,057	33,000	43,839	1,218
경기도교육청 (경기체육고)	274	141,653			65,760	75,893	33,000	31,527	11,366
강원도교육청 (강원체육중·고)	272	135,666			65,280	70,386	33,000	31,297	6,089
충북교육청 (충북체육고)	259	130,238			62,160	68,078	33,000	29,801	5,277
충남교육청 (충남체육고)	176	97,521			42,240	55,281	33,000	20,251	2,030
전북교육청 (전북체육중·고)	306	144,896			73,440	71,456	33,000	35,209	3,247
전남교육청 (전남체육중·고)	280	137,695			67,200	70,495	33,000	32,218	5,277
경북교육청 (경북체육중·고)	346	278,841		110,000	83,040	85,801	33,000	39,812	12,989
경남교육청 (경남체육고)	260	129,781			62,400	67,381	33,000	29,916	4,465
제주교육청 (제주남녕고)	109	72,514			26,160	46,354	33,000	12,542	812

2. 꿈나무 선수의 육성

우리나라는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종목 의존, 기본종목의 경기력 저조 등에서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문체육의 구조적 취약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 국가의 경기력에 대한 척도로 인정받고 있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본종목의 경기력이 매우 취약하다. 둘째, 소수 정예선수를 대상으로 집중훈련을 통한 단기적 성과 중심의 선수육성 관행으로 선수의 저변이 두텁지 못하다. 셋째, 전략종목 위주의 지원체제로 인하여 종목별 경기력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신인선수 발굴사업

꿈나무 선수 발굴사업은 1993년 신인선수 발굴사업으로 시작되어 후보선수 발굴사업과 통합되어 1995년까지 3년 동안 총 9개 종목 1,204명을 선발, 육성하였다.

(표 5-4) 신인선수(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종목수	종 목 현 황	인 원
1993	3	육상, 수영, 체조	200
1994	8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탁구, 빙상, 스키	485
1995	9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탁구, 빙상, 스키, 배드민턴	519

2) 기본종목 꿈나무선수 육성

(1) 개요

꿈나무선수 사업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한 어린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 과학적 훈련과 관리를 통해 차세대 국가 대표선수로 육성하는 것으로, 신인선수 선발·육성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부터 ‘꿈나무’ 제도로 개편하였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고 여타 종목 선수확보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받는 육상, 수영, 체조 3개 종목을 대상으로 “기본종목 꿈나무 발굴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2003년부터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빙상, 스키 종목을 추가하고, 현재는 핸드볼, 탁구, 유도 종목을 포함, 확대되었다.

(2) 꿈나무선수 선발·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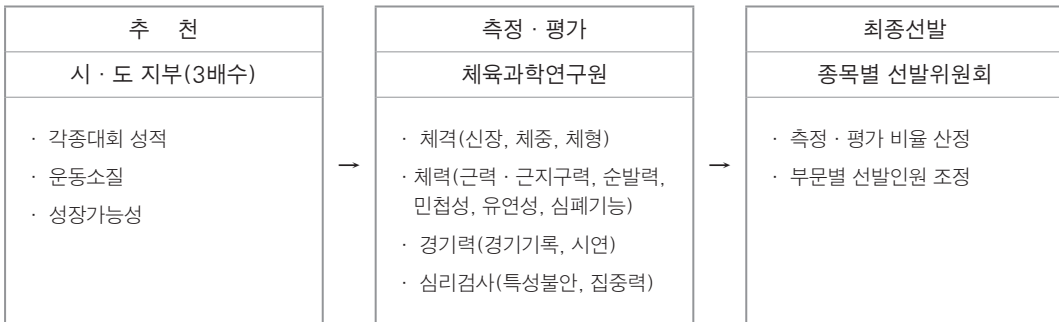
① 선발과정

꿈나무선수 선발은 종목별로 시·도에서 추천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체격(30~50%), 체력(30~40%), 경기력(20~30%)의 3개 요인을 종합 측정, 점수화한 평가결과와 특성불안과 집중력 등 심리검사결과를 합산하여 종목별 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꿈나무선수 선발과정은 4단계로 세분된다. 1단계는 ‘꿈나무선수 후보자 추천’ 과정으로, 일선학교 체육지도자·체육단체 코치, 스포츠클럽지도자 등이 꿈나무선수 후보자를 해당종목 시·도협회에 추천하고 시·도협회의 자체평가를 거쳐 중앙경기단체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2단계는 각 종목별 중앙단체가 선발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자를 선정하며, 3단계는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선발대상자를 측정·평가가 실시된다. 체육과학연구원은 기초검사, 정밀검사, 심리검사를 통해 선수의 경기력 및 체형(체력) 등을 측정하고 종목별, 연령별, 평가 항목별 표준점수 및 가중점수 등을 계산,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추진과정에는 해당 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전문가 등과 협의가 이루어진다.

4단계는 각 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위원회가 해당종목의 꿈나무선수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이다. 체육과학연구원의 측정·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각 종목별 꿈나무선수선발위원회에서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꿈나무선수를 최종 확정한다. 이상의 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꿈나무선수 선발 절차

2008년도에는 기존 5개 종목에서 핸드볼, 탁구, 유도를 포함하여 총 8개 종목 673명을 측정·평가하였으며 이는 (표 5-5), (표 5-6)과 같다.

(표 5-5) 2008년도 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 현황

(단위 : 명)

종 목	선발인원	측정·평가 참가인원	측정·평가 일정	장 소
육 상	80	152	2008. 4.23 ~ 25	대전 신일여고체육관
수 영	40	72	2008. 5. 5 ~ 14	체육과학연구원, 잠실학생체육관
체 조	40	85	2008. 4.28 ~ 6.11	체육과학연구원
빙 상	30	105	2008. 4.20 ~ 6.20	체육과학연구원
스 키	30	59	2008. 5. 7 ~ 8	체육과학연구원
핸드볼	30	63	2008. 5.16	체육과학연구원
탁 구	30	95	2008. 5.19 ~ 20	체육과학연구원
유 도	20	42	2008 .5. 6 ~ 9	체육과학연구원
총 계	300	673		

(표 5-6)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2008. 12월 현재)

(단위 : 명)

종 목	세부종목	최종선발인원	종 목	세부종목	최종선발인원
육 상	단 거 리	23	스 키	알 파 인	10
육 상	중·장거리	21	스 키	크로스컨트리	10
육 상	도 약	19	스 키	스키점프	5
육 상	투 척	17	스 키	스노우보드	5
수 영	경 영	30	빙 상	스 피 드	12
수 영	다 이 빙	8	빙 상	쇼트트랙	12
수 영	싱 크 로	2	빙 상	피 겨	6
체 조	남자기계체조	13	핸드볼	남자	15
체 조	남자기계체조	13	핸드볼	여자	13
체 조	여자기계체조	15	핸드볼	여자	13
체 조	리듬체조	12	탁 구	남자	15
유 도	남자	10	탁 구	여자	15
유 도	여자	10	총 계		300

② 훈련 및 관리

2008년도 신규종목인 핸드볼, 탁구를 제외하고 선발된 꿈나무선수의 훈련·관리 프로그램은 동·하계 합숙훈련을 중심으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만, 선수의 훈련 중 부상과 중도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충원은 재선발과정을 거치는데, 측정·평가를 거쳐서 종목별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순위 선수가 선발된다.

선발된 꿈나무선수에 대한 지원 및 관리운영의 주요내용은 첫째, 꿈나무선수 및 지도자에 대해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분기별 100,000원씩 연 300,000원을 각각 지급하며, 둘째,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꿈나무선수 상해보험(연중)을 가입하며, 셋째, 꿈나무선수 지방순회지도로서 연중 2회에 걸쳐 종목별 꿈나무선수 육성 담당지도자가 전국(꿈나무선수 소재지)을 순회하며 선수 개인별 훈련현황 파악 및 지도,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을 실시한다. 넷째, 꿈나무 선수의 경기력, 체형 등의 개인별 분석자료를 정리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매년 자료를 축적하여 꿈나무선수의 관련 자료의 지속적 보존·관리에 기여하게 된다.

③ 합숙훈련 현황

동·하계 방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합숙훈련은 해당 종목별로 실시되며, 해당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 훈련의 내용은 (표5-7)과 같다.

(표 5-7)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현황

(단위 : 명)

종목	훈련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선수	지도자	계
육상	하계합숙훈련	2008. 7.25 ~ 8.8	충북 보은	80	26	106
	동계합숙훈련	2008.12.15 ~ 23	충북 보은	80	26	106
수영	하계합숙훈련	2008. 8. 6 ~ 20	서울(잠실)	40	10	50
	동계합숙훈련	2008.12. 7 ~ 15	서울(잠실)	40	10	50
체조	하계합숙훈련	2008. 7.18 ~ 8. 1	대전	13	4	13
	하계합숙훈련	2008. 7.24 ~ 8. 7	인천	15	4	15
	하계합숙훈련	2008. 7.17 ~ 31	경기도 군포	12	2	12
	동계합숙훈련	2008.12.21 ~ 29	부산	13	4	13
	동계합숙훈련	2008.12.11 ~ 19	인천	15	4	15
	동계합숙훈련	2008.12.23 ~ 31	용인	12	2	12

종목	훈련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선수	지도자	계
빙상	하계합숙훈련	2008. 7.21 ~ 8.4	오대산	12	3	15
	하계합숙훈련	2008. 7.21 ~ 8.4	춘천	12	3	15
	하계합숙훈련	2008. 8. 1 ~ 5	태릉	6	2	8
	동계합숙훈련	2008.12.15 ~ 23	춘천	12	3	15
	동계합숙훈련	2008.12.17 ~ 25	한체대	12	3	15
	동계합숙훈련	2008.12.8 ~ 16	태릉	6	2	8
스키	하계합숙훈련	2008. 7.13 ~ 27	양산	10	2	10
	하계합숙훈련	2008. 7.10 ~ 24	용평	10	2	10
	하계합숙훈련	2008. 7.13 ~ 27	무주	5	2	5
	하계합숙훈련	2008. 7.13 ~ 27	양산	5	2	5
	동계합숙훈련	2008.12.20 ~ 28	포천	10	2	10
	동계합숙훈련	2008.12.20 ~ 28	포천	5	2	5
	동계합숙훈련	2008.12.12 ~ 20	무주	5	2	5
	동계합숙훈련	2008.12.30 ~ 09.1.7	용평	10	2	10
핸드볼	하계합숙훈련	2008. 8. 4 ~ 18	진천	30	6	36
	동계합숙훈련	2008.12.13 ~ 21	삼척	30	6	36
탁구	하계합숙훈련	2008. 8. 1 ~ 15	단양	30	6	36
	동계합숙훈련	2008.11.28 ~ 12.6	서산	30	6	36
유도	하계합숙훈련	2008. 8. 2 ~ 16	금곡	20	6	26
	동계합숙훈련	2008.12.11 ~ 19	대전	20	6	26

3. 후보선수의 효율적 관리

1) 후보선수 관리운영 개요

후보선수 육성사업의 목적은 첫째, 잠재력 있는 우수인재를 조기에 육성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수선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둘째, 국가대표선수와의 상호경쟁을 통해 경기력향상을 도모하며 셋째, 국가대표선수 결원시 우수한 기량을 갖춘 후보선수를 즉시 대표선수로 충원하는 등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을 지원한다. 후보선수 육성사업은 1982년도에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잠재력이 우수한 선수 4,359명을 선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83년부터 각 경기단체가 매년 우수선수를

제5장 전문체육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28종목에 1,300명의 후보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표 5-8)의 대표선수 배출비율은 당해연도에 대표선수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정요건을 충족한 후보선수가 대표선수로 발탁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표 5-9)은 2008년 12월 기준 국가 대표선수중 후보선수 출신 비율이다.

(표 5-8) 연도별 후보선수 발굴 및 최종선발 인원수

(단위 : 명)

연도별	발굴	탈락	(육성인원) 최종선발	대표선수배출	비율(%)
2003	1,300	-	1,300	54	4.2
2004	1,300	-	1,300	70	5.4
2005	1,300	-	1,300	104	8
2006	1,300	-	1,300	62	4.8
2007	1,298	-	1,298	108	8
2008	1,300	-	1,300	115	8.8

(표 5-9)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 비율(2008. 12월 현재)

(단위 : 명)

종목		후보선수 수	대표선수 수	후보선수 출신 대표	비후보선수 출신 대표
육상	단·허	33	15	13	2
	중·장·경	38	5	3	2
	도약	29	12	11	1
	투·혼	35	23	21	2
	소계	135	55	48	7
수영	경영	66	24	24	-
	수구	15	15	15	-
	다이빙	27	11	11	-
	싱크로	10	3	3	-
	소계	118	53	53	-
체조	기계	48	24	22	2
	리듬	12	4	4	-
	소계	60	28	26	2
복싱		30	20	19	1
레슬링		50	36	33	3
역도		30	13	11	2

제2절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종 목		후보선수 수	대표선수 수	후보선수 출신 대표	비후보선수 출신 대표
유 도		48	32	30	2
태 권도		48	36	17	19
양 궁		40	16	12	4
사 격		84	40	29	11
배 구		36	24	12	12
핸 드볼		48	41	38	3
하 키		48	16	15	1
탁 구		30	23	14	9
근대5종		15	20	14	6
펜 싱		48	36	32	4
테 니스		24	8	8	-
사이클		40	18	15	3
조 정		30	8	8	-
요 트		29	18	14	4
카 누		26	13	9	4
배드민턴		60	40	39	1
축 구		36	25	24	1
소프트볼		17	-	-	-
아이스하키		25	23	23	-
바이애슬론		18	12	9	3
빙 상	스피드	30	12	12	-
	숏트랙	36	10	10	-
	피 겨	12	8	8	-
	소 계	78	30	30	-
스 키	알파인	18	10	10	-
	노르딕	19	10	10	-
	스키점프	4	4	4	-
	스노보드	4	4	4	-
	프리스타일	4	2	2	-
	소 계	49	30	30	-
합 계		1,300	711	611(86%)	100(14%)

2) 후보선수 육성

후보선수를 육성하는 종목은 하계 24종목, 동계 4종목 등 총 28종목이다. 후보선수의 훈련육성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첫째, 후보선수가 소속된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에 훈련용품 구입비·대회참가비 등의 지원이며, 둘째, 동·하계 합숙훈련 지원사업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평시 훈련 및 경기력 향상 정도 등의 평가를 한다. 셋째, 국외전지훈련 지원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대회에 대비하여 후보선수 중 우수선수를 경기단체별로 선발하여 전임 및 전문지도자에 의한 기술훈련과 해외파견훈련을 통해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후보선수 육성 관련 사업의 예산지원 내역(표 5-11)은 다음과 같다.

(표 5-10) 2008년 후보선수 훈련종목과 정원

종 목	지도 자	선 수			계	종 목	지도 자	선 수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양 궁	4	20	20	40	44	수 영	경 영	6	33	33	66	72	
육 상	단·허	5	16	17	33		38	다이빙	3	14	13	27	30
	중·장	4	18	14	32		36	싱크로	2	-	10	10	12
	도 약	4	21	8	29		33	수 구	2	15	-	15	17
	투 척	4	15	14	29		33	소 계	13	62	56	118	131
	훈 성	1	3	3	6		7	태 권 도	4	24	24	48	52
	경 보	1	4	2	6		7	테 니 스	4	12	12	24	28
	소 계	19	77	58	135		154	배 구	4	18	18	36	40
배드민턴	6	30	30	60	66	역 도	4	18	12	30	34		
복 싱	4	30	-	30	34	레 슬 링	그레코	2	21	-	21	23	
카 누	4	18	8	26	30		자유형	3	21	8	29	32	
사 이 클	6	25	15	40	46		소 계	5	42	8	50	55	
펜 싱	5	24	24	48	53	요 트	4	25	4	29	33		
축 구	3	-	36	36	39	빙 상	스피드	4	15	15	30	34	
체 조	기계	6	27	21	48		54	쇼트트랙	4	24	12	36	40
	리듬	2	-	12	12		14	피겨	2	3	9	12	14
	소계	8	27	33	60		68	소 계	10	42	36	78	88
핸 드 볼	4	24	24	48	52	스 키	알파인	2	12	8	20	22	
하 키	4	24	24	48	52		크로스	2	13	8	21	23	
유 도	4	24	24	48	52		스키점프	1	4	-	4	5	
근 대 5 종	2	10	5	15	17		스노보드	1	4	-	4	5	
조 정	5	17	13	30	35		소 계	6	33	16	49	55	

종 목	지도자	선 수			계	종 목	지도자	선 수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사 격	10	49	35	84	94	바이애슬론	2	12	6	18	20
소 프 트 볼	2	-	17	17	19	아이스하키	2	25	-	25	27
탁 구	4	15	15	30	34	계(28종목)	152	720	580	1,300	1,452

(표 5-11) 2008년 후보선수의 훈련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세 부 내 역
• 경기단체 훈련비 보조	5,462,092	
- 동·하계 합숙훈련	3,970,259	· 종목 : 28개 종목 · 인원 : 1,452명 (선수 1,300 지도자 152) · 동·하계합숙훈련비 3,860,662 · 운영비 94,978 · 여비 11,968 · 업무활동비 2,651
- 국외전지훈련	296,297	· 훈련종목 : 10개 종목 · 훈련인원 : 130명 (선수 108 지도자 22) · 항공료 166,420 · 체재비 129,877
- 전임지도자 운영	1,195,536	· 종목 : 22개종목 · 인원 : 29명 · 인건비 1,052,536 · 운영비 105,590 · 순회지도여비 37,410

3) 전임지도자 제도 운영

1983년부터 시작된 전임지도자 제도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에 13종목 20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종목별로 월 20일 이상 전국단위 순회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는 1985년 대한체육회 회장이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기 1년인 전임지도자를 임명하면서 본격화 되었으며, 2005년부터 이들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처우를 보장해주는 각종 조치가 이루어

제5장 전문체육

어졌다.

전임지도자의 주요 업무는 첫째, 후보선수의 발굴·추천 및 선발관리. 둘째, 후보선수 동·하계 합숙훈련과 국외훈련 계획 수립 및 추진·평가 관리. 셋째, 후보선수 소재 지방순회지도. 넷째, 후보선수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경기력 향상도 평가 및 자료관리. 다섯째, 대표선수 훈련지원. 여섯째, 연간 및 월별 업무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일곱째, 각종 강습회 및 세미나 참석. 여덟째, 기타 우수 선수의 양성 및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사항이다.

2008년 12월 현재 22종목에 29명의 전임지도자가 임명되어 있으며, 미임용 종목은 수영(경영), 사이클, 근대5종, 테니스, 빙상 등 5종목이다.

(표 5-12) 전임지도자 종목과 정원

종 목		정 원	현 원	종 목	정 원	현 원
육 상	단 거 리	1	1	핸 드 볼	1	1
	중 · 장 거 리	1	1	하 키	1	1
	도 약	1	1	조 정	1	1
	투 척	1	1	사 이 클	1	미임용
수 영	경 영	1	미임용	테 니 스	1	미임용
	다 이 빙	1	1	탁 구	1	1
	싱 크 로	1	1	배 구	1	1
체 조	남 자(기 계)	1	1	배 드 민 턴	1	1
	여 자(기 계)	1	1	펜 싱	1	1
레 슬 링	자 유 형	1	1	요 트	1	1
	그 레 고	1	1	카 누	1	1
복	싱	1	1	근 대 오 종	1	미임용
유	도	1	1	축 구 (여)	1	1
역	도	1	1	빙 상	1	미임용
양	궁	1	1	스 키	1	1
사 격	공 기 총	1	1	아 이 스 하 키	1	1
	화 약 총	1	1	바 이 애 슬 론	1	1
계					34	29

● 제3절 국가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및 훈련시설 확충 ●

1. 국가대표 선수 경기력 향상

1) 국가대표선수 훈련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사업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대표선수는 중점지원종목의 경우 엔트리의 1.5~2배수로 훈련을 실시하고 아시안게임 종목의 경우에는 엔트리의 범위 내에서 적정인원을 책정하여 훈련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국가대표 코치는 효율적인 훈련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하며 세부 종목수 및 종목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는 다음의 (표 5-13), (표 5-14), (표 5-15)와 같다.

(표 5-13) 2008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구 분	종목수	인 원				계
		코 치	선 수			
			남	여	소 계	
하계종목	39	157	542	327	869	1,026
동계종목	6	23	77	61	138	161
계	45	180	619	388	1,007	1,187

(표 5-14)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연 도	종 목 수		인 원			계	총 계
			코 치 (트레이너 27명)	남자선수	여자선수		
2001	하 계	37	112	387	252	751	883
	동 계	6	18	68	46	132	883
2002	하 계	38	118	456	294	868	1,010
	동 계	6	19	75	48	142	1,010

제5장 전문체육

연 도	종 목 수		인 원			계	총 계
			코 치 (트레이너 27명)	남자선수	여자선수		
2003	하 계	28	102	340	239	579	830
	동 계	6	21	75	53	128	830
2004	하 계	38	117	391	254	645	905
	동 계	6	20	75	48	123	905
2005	하 계	39	143	521	378	1,042	1,203
	동 계	6	20	83	58	161	1,203
2006	하 계	38	157	532	356	1,045	1,175
	동 계	6	19	53	58	130	1,175
2007	하 계	38	156	510	354	1,020	1,171
	동 계	6	21	74	56	151	1,171
2008	하 계	39	157	542	327	1,026	1,187
	동 계	6	23	77	61	161	1,187

* 출처 : 대한체육회(2008)

국가대표선수 훈련기간은 연간 210일 이내로, 1월에서 6월까지의 전문체력육성 및 기술연마를 하며, 7월에서 12월까지의 개인 및 단체 특기개발 훈련을 실시한다. 대표선수대상 훈련은 태릉선수촌 및 태백분촌에서 실시되는 촌내훈련과 종목별 전용훈련장에서 행해지는 촌외훈련으로 구분되는데, 촌내훈련은 촌내 및 인근지역 훈련시설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훈련여건상 불가피한 종목이나 자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촌외훈련이 실시된다.

국내전지훈련은 태백분촌 및 무주훈련장 등을 활용하며, 특별훈련으로 파트너 훈련, 크로스컨트리 훈련,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 등이 병행된다. 파트너 훈련은 메달유망 종목 및 상대성 훈련이 필요한 종목을 중심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크로스컨트리훈련은 선수촌 입촌종목을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하였으며,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은 종목별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였다. 세부 훈련종목은 (표 5-16)과 같다.

(표 5-15) 2008년도 국가대표선수 훈련인원

구분	종 목	세 부 종 목			인 원				계	비 고
		남	여	혼성	코치	선 수				
						남	여	계		
하 계 (39)	양 궁	2	2		4	8	8	16	20	
	육 상	24	22		9	44	17	61	70	
	배드민턴	3	3	1	6	23	17	40	46	
	야 구	1			3	24	-	24	27	
	농 구	1	1		4	12	12	24	28	
	복 싱	11			2	20		20	22	
	카 누	12	4		3	13	4	17	20	
	사 이 클	12	7		4	13	5	18	22	
	승 마			8	3	12		12	15	
	펜 싱	6	6		6	18	18	36	42	
	축 구	1	1		4	20	18	38	42	
	체 조	9	9		9	12	16	28	37	
	핸 드 볼	1	1		6	24	24	48	54	
	하 키	1	1		6	22	16	38	44	
	유 도	8	8		6	16	16	32	38	
	근 대 5 종	1	1		2	8	4	12	14	
	조 정	8	6		3	5	5	10	13	
	요 트	6	3	4	4	18		18	22	
	사 격	26	18		8	23	17	40	48	
	소 프 트 볼		1		2		16	16	18	
	수 영	25	26		10	34	25	59	69	
	탁 구	3	3	1	4	10	10	20	24	
	태 권 도	8	8		4	6	6	12	16	
	테 니 스	3	3	1	2	6	6	12	14	
	트라이애슬론	1	1		2	4	4	8	10	
	배 구	2	2			12	12	24	29	
	역 도	8	7		5	10	10	20	25	
	레 슬 링	14	4		8	28	8	36	44	
	당 구	8	2		2	11	2	13	15	
	볼 링	6	6		3	8	8	16	19	
	골 프	2	2		2	4	3	7	9	
	공 수 도	8	5		2	6	4	10	12	
	력 비	1			2	16		16	18	
	정 구	3	3	1	2	6	6	12	14	
	세팍타크로	3	3		2	10	10	20	22	
	스 퀴 시	1	1		2	4	4	8	10	
	우 슈	8	3		2	8	4	12	14	
	인라인롤러				2	4	4	8	10	
댄스스포츠				2	4	4	8	10		
소 계	38종목	237	173	16	152	526	343	869	1,026	

제5장 전문체육

구분	종목	세부종목			인원				계	비고
		남	여	혼성	코치	선수				
						남	여	계		
동계 (6)	빙상	11	11	2	6	17	19	36	42	
	스키	15	12		6	20	10	30	36	
	바이애슬론	1	1		4	22	21	43	47	
	아이스하키	1	1		3	6	6	12	15	
	컬링	5	4		2	5	5	10	12	
	L B S	1	1		2	7		7	9	
소계	6종목	34	30	2	23	77	61	138	161	
합계	45종목	271	203	18	175	603	404	1,007	1,187	

(표 5-16) 2008년 국가대표선수 세부 훈련종목

구분	종목수	종목
하계올림픽종목	28	양궁, 육상, 배드민턴, 야구,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조정, 요트, 사격, 소프트볼,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철인3종, 배구, 역도, 레슬링
동계종목	6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LBS(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기타종목	11	당구, 볼링, 골프, 공수도, 럭비, 세팍타크로, 정구, 스쿼시, 우슈, 인라인롤러, 댄스스포츠
계	45	

3) 경기력향상 지원사업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은 훈련을 통한 실전경험 축적, 외국인 코치 초청을 통한 선진 경기기술 습득, 스포츠선진국에 지도자 파견을 통한 국외정보의 수집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1) 국외전지훈련

국외전지훈련은 실전경험을 통한 선진기술의 습득과 상대성 전술개발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훈련 참가 종목의 임원 및 선수의 엔트리 범위 이내에서 참가하게 된다. 훈련기간은 메달획득 유망종목의 경우 연중 2~3회, 1회 당 30일 이내이며, 기타 종목은 1회 20일 이내이다. 2008년에는 33종목 94건 1,344명(임원 260명, 선수 1,084명)이 참가하였다.

(표 5-17) 연도별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및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종목수 (세부종목)	임 원			지 원 금 액		
		계	임 원	선 수	계	국 고	기 금
'02	8(10)	119	23	96	302,909	-	302,909
'03	19(27)	478	85	393	1,400,229	1,400,229	
'04	13(40)	588	118	470	1,529,766	1,529,766	
'05	14(29)	376	67	309	964,025	964,025	
'06	26(57)	909	181	728	2,357,304	2,357,304	
'07	27(56)	1,375	252	1,123	3,929,398	3,929,398	
'08	33(94)	1,344	260	1,084	4,321,330	2,016,084	2,305,246

(2) 외국인코치 초청사업

외국인코치 초청사업은 스포츠선진국의 경기기술 습득 및 취약한 전술전략의 습득을 목적으로 '82년부터 도입되었다. 대상종목은 메달획득 유망종목 및 경기력 취약종목, 경기력향상과 지도자 자질향상에 효과가 큰 종목,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다. 초청대상 외국인 코치는 세계 정상급 선수경력 보유자, 세계 정상급 선수지도 유경험자 및 현 지도자인데, 2008년도는 4종목에서 9명이 초청되었다.

(표 5-18) 외국인코치 초청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종 목 수 (세부종목)	인원수	국가수	지 원 금 액			비 고
				계	국 고	기 금	
'02	4(4)	4	3	41,063	-	41,063	
'03	5(5)	6	-	112,653	112,653		
'04	3(4)	4	4	92,372	92,372		
'05	1(1)	1	1	29,944	29,944		
'06	5(8)	8	7	244,892	244,892		
'07	6(7)	8	6	203,012	36,321	166,691	
'08	4(6)	9	4	192,370	60,786	131,584	

(3)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은 각종 세미나 및 강습회 참가를 통해 지도자 자질 향상, 주

요 국제대회파견 상대국 전력 탐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종목은 메달획득 유망종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대상자는 종목별 국가대표코치와 훈련필수 지원요원(행정, 지도위원 등)이다. 정보를 수집할 대상은 세계정상급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대회, 각종 국제스포츠세미나 및 강습회 개최지, 체육선진국의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체계, 훈련시설 등이며 기간은 종목별 10일 내외이다. 2008년에는 18종목 24건 33명이 파견되었다.

(표 5-19) 국외정보수집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종목수(회)	인원수	국가수	지 원 금 액		
				계	국 고	기 금
'02	3	25	5	38,480	-	38,480
'03	15	25	14	68,718	68,718	-
'04	14(27)	48	19	123,100	123,100	-
'05	19(24)	40	14	92,574	92,574	-
'06	18(21)	35	12	70,446	70,446	-
'07	15(17)	27	13	70,738	70,738	-
'08	18(24)	33	17	87,065	87,065	-

4) 국가대표선수 훈련의 과학적 지원

국내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도에 체육과학연구원은 국가대표선수 훈련 지원을 3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는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경기력 향상지원, 대표선수훈련과학화를 위한 정보제공,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보수집제공의 하위영역 별 각종 사업으로 분류된다. .

첫째,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획득이 유망한 종목 18개를 중점/전략 종목으로 선정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훈련, 체력훈련, 심리훈련을 지원하였다. 기술지원 훈련은 실시간 기술분석 프로그램 개발, 기술·동작의 즉각적 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등을 통해 선수 및 팀의 기술 향상을 도모했으며, 종목별 체력측정 및 훈련처방제공, 주기별 체력평가에 의한 향상도 평가지원 등을 통해 체력훈련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기장면에서 선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적 요인 진단 연구, 심리기술 훈련 등의 심리 훈련을 실시하였다.

둘째, 스포츠과학교실운영, 스포츠과학세미나 개최, 연구발표회 등 훈련과학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자와 연구원간 공동으로 경기력을 분석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선진

화된 종목별 특성화 훈련방법을 개발하여 적용시켰다. 종목별 체력진단평가설명회, 대표팀 전체 스포츠과학교실 운영을 통해 대표팀 코치 및 선수 개인의 스포츠과학에 대한 인식제고, 자율훈련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지도자 선수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셋째, 정보분석·제공을 위해 선수의 실전 적응력을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 기술 분석을 통해 선수 및 코치의 기술, 전략 이해도를 증대하기 위해 정보분석·관리시스템 강화, 대표팀 동행현지 조사 활동 실시, 연구원 해외파견 정보 수집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가대표선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선수촌내 의무실 및 물리치료실의 적극적 활용과 강화훈련 참가 전 건강진단과 영양관리(교육, 상담, 지도)를 지원하였으며, 약물복용 검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종목별 팀닥터와 물리치료사를 두어 부상방지와 재활을 돕고 있으며, 종목별 체력강화 훈련과 체력측정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훈련을 도모하였다.

5) 국가대표선수 복지 개선

(1) 명량한 촌내생활 환경 조성

대한체육회는 선수촌 입촌선수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훈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선수촌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선수들의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선수회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회 저명인사 및 체육계 인사 또는 오리엔테이션 강사 및 연예인 등을 초청하여 월 1회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국가관, 사명감, 자신감을 고취하고 기본교양을 함양하며 정서순화 및 긴장감 해소를 도모한다. 셋째, 종교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회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2) 학생선수 학업증대

학생선수들의 훈련으로 인한 학업손실을 보전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 거주 학생의 오전수업 참가를 보장하고, 지방거주 학생 대상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업결손의 가능성이 높은 지방 중·고교 소속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기 위하여 훈련장 인근학교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국가대표선수단의 사기양양

제5장 전문체육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단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 선수와 코치의 사기양양을 위해 선수수당과 코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도 선수수당은 30,000원이며 코치수당은 월 3,550,000원이다.

(표 5-20) 국가대표선수·코치 훈련여건 개선 현황

(단위 : 원)

연도 구분	1990	1995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급 식	9,000	13,000	18,000 → 21,000	21,000	24,000	24,000	24,000	26,000
숙 박	5,500	7,500	11,000	11,000 → 16,000	18,000	18,000	18,000	20,000
선수수당 (1일)	3,000	4,000	5,000 → 15,000	20,000	25,000	30,000	30,000	30,000
코치 수당	763 천원	1,041 천원	1,521천원 → 2,021천원	2,021천원 → 2,800천원	3,000 천원	3,300 천원	3,300 천원	3,550 천원

2. 국가대표 훈련시설의 확충

1) 선수촌 현황

국가대표선수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태릉선수촌, 태백분촌, 무주합숙소를 관리·운영한다.

(1)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에서는 양궁, 역도, 탁구, 필드하키, 농구, 배구, 축구, 유도, 레슬링, 육상, 수영, 펜싱, 체조, 복싱, 배드민턴, 핸드볼, 태권도 등 하계올림픽 종목을 비롯하여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의 동계올림픽 종목의 선수를 수용한다. 입촌 대상자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국제종합대회와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예정 선수이다. 태릉선수촌은 총 93,985평의 부지 위에 연건평 3만 여 평의 각종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① 숙 소

숙소동(남자)은 수용인원이 500명으로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1996년에 건립하였으며, 여자 전용 숙소는 기존의 올림픽의 집과 외국인숙소를 철거한 후 2003년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210명 수용규모로 건립하였다.

② 체육관

선수촌 내의 체육관은 모두 11개로 체력단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상 1층의 월계관은 1978년 건립, 2001년 전면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다. 개선관과 연수관은 철거 후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탁구, 역도, 체조, 펜싱, 태권도 등 5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으로 2003년 신축하였다. 배구, 유도 종목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승리관은 1973년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하였으며, 농구 훈련장으로 이용되는 다목적체육관은 1983년에 건립,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이다. 경영, 수구, 싱크로 등의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실내수영장은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1985년에 건립하였다. 특히 육상, 핸드볼, 배드민턴의 훈련을 위해 2000년에 건립한 오륜관은 지상 1층으로 3,056평 규모이다. 쇼트 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의 훈련을 위해 2005년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실내빙상장을 신축하였다.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던 감래관은 여자선수 숙소용으로 리모델링중에 있으며, 필승체육관 A는 우수 종목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1978년에 건립되었다. 필승관은 유도, 레슬링, 복싱, 볼링의 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2005년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이다.

스피드스케이팅의 훈련을 위해 2000년 태릉국제스케이팅장이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건립하였다. 이는 세계 8번째 400m 실내링크이며 국내에서 유일한 규모의 시설로서 동하계 스포츠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문선수의 지속적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운영하며, 서울시교육청 지정 현장체험 학습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빙상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③ 옥외시설

태릉선수촌의 옥외시설에는 양궁장, 크로스컨트리코스, 인조잔디구장이 있다. 110×50M 규격의 양궁장은 2005년 새로 단장되어 양궁국가대표선수의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6년에 만들어진 크로스컨트리코스는 입촌선수의 기초체력훈련 용도로 사용되는데 1.6km×3M의 규격으로 부상 방지를 위해 톱밥이 포설되어 있다. 그리고 육상, 하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는 인조잔디구장은 400M 트랙 6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다.

④ 부대시설

태릉선수촌의 부대시설로는 선수회관, 행정동, 수위실, 양궁장 부속시설(창고, 사선대)이 있다. 이 가운데 영화관, 음악감상실, 당구장, 임원실, 이용실 등 위락시설과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수회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1986년에 건립되었다. 행정업무 공간과 기계실이 있는 행정동은 지상 2층, 지하 2층의 규모이다.

(2) 태백분촌 및 무주합숙소

① 태백분촌

태백시 함백산 고지대에 위치한 태백분촌은 국가대표선수들의 고지대 훈련을 통한 심폐기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1996년 6월에 개촌되었으며, 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사우나실, 휴게실 등 부속시설, 관리동 등의 시설이 있다. 태백분촌 훈련시설은 총 면적 9,761평(32,267㎡)으로 120평의 간이실내체육관, 400m 우레탄트랙 및 운동장이 있으며, 육상, 수영, 레슬링, 빙상 등 21개 종목의 훈련이 가능하다.

② 무주합숙소

무주합숙소는 국가대표선수의 동계훈련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숙박이 가능한 19평 4인용 3실, 28평형 6인용 4실, 39평형 8인용 3실을 1988년부터 2022년까지 분양 받아 스키, 바이애슬론 종목의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표 5-21)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현황

* 태릉선수촌:93,985평(310,696㎡), 태백분촌:18,600평 (61,486㎡)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인원	규모	건립연도
태릉 (22)	숙소 (2)	올림픽의 집	250실	지상4, 지하2(13,906㎡)	1996
		영광의 집	102실	지상4, 지하1(5,639㎡)	2003
	훈련 시설	월계관	체력단련장	지상1 (1,697㎡)	1978
		개선관	체조, 탁구, 역도, 펜싱, 태권도	지상2, 지하1 (7,792㎡)	2003
		승리관	배구, 유도	지상3 (2,075㎡)	1973
		다목적체육관	농구	지상2, 지하1(1,593㎡)	1983
		실내수영장	경영, 수구, 싱크로	지상1, 지하1(2,644㎡)	1985
		오륜관	육상, 핸드볼, 배드민턴	지상1 (10,102㎡)	2000
		감래관	29실	지상4, 지하2(1,877㎡)	2008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인원	규모	건립연도
태릉 (22)	훈련 시설	태릉국제스키이트장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컬링	지상3, 지하1(27,067㎡)	
		필승주체육관	우슈	지상3, 지하1(4,402㎡)	1978
		필승보조체육관	유도, 레슬링, 복싱, 볼링	지상2, 지하1(5,056㎡)	2005
		실내빙상장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지상4, 지하1(5,477㎡)	2005
		양궁장	양궁	110 X 50M	2005
		크로스컨트리	기초체력훈련	1.6km×3M 톱밥포설	1986
	부대 시설 (6)	인조잔디구장	육상, 하키, 축구	400M트랙 6레인, 인조잔디	1984
		선수회관	편의시설(영화관, 음악감상실)	지상2, 지하1(2,523㎡)	1986
		행정동	행정업무, 기계실	지상2, 지하2(1,917㎡)	1987
		수위실(정문)	수위실	지상1 (31.36㎡)	2003
		수위실(연구원)	수위실	지상1(62.28㎡)	1966
태백	시설	양궁장부속시설(사선대)	사대	지상2 (408㎡)	2005
		체육과학연구원	행정, 연구실	지상3, 지하1층(4,543㎡)	1978
태백	시설	숙소, 체육관	68명(17실~4명)	지상2(2,538㎡: 행정동 포함)	1997
		행정동		지상2, 지하1	
무주	숙소	무주합숙소	60명 38평:3실×8명 28평:4실×6명 19평:3실×4명	무주리조트	1997. 8 ~ 2022. 7

* 출처 :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내부자료

3) 선수촌 훈련시설 확충 지원

태릉선수촌은 입촌선수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 시설 개보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어 선수에게 쾌적한 조건을 제공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노후화된 훈련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첨단화된 시설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노후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경제성, 훈련의 안정성 등을 목적으로 월계관 증축 및 보수, 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스탠드 조성, 선수회관 내부 보수 등 기존시설 개보수를 실시 하였으며, 선수들의 훈련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제스케이팅장, 오륜관, 개선관, 실내빙상장, 필승관 등의 신규시설을 확충하여 왔다.

(1) 기존시설의 개·보수('07년)

노후시설물에 대한 경제적 유지를 도모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여

제5장 전문체육

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선수와 코치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노후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부분 개·보수하였는데 연도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2) 2008년 국가대표 선수촌 연도별 시설 개·보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
2008	체육관 및 부대시설 보수	471
2008	승리관 내부 보수공사	142
2008	올림픽의 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04
계		1,017

(표 5-23)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시설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총 계	계	9,081	9,034	9,914	10,539	7,894	11,945	9,755	2,092	1,700	4,937
	국고	9,081	9,034	9,914	10,539	7,894	11,945	9,755	2,092	1,700	2,500
	기금	0	0	0	0	0	0	0	0	0	2,437
1. 기존시설 개보수	국고	0	2,156	1,305	834	1,293	3,445	694	2,092	1,700	1,500
2. 신규시설 확충	소계	9,081	6,878	8,609	9,705	6,601	8,500	9,061	0	0	3,437
	국고	9,081	6,878	8,609	9,705	6,601	8,500	9,061	0	0	1,000
	기금	0	0	0	0	0	0	0	0	0	2,437

(2) 신규시설의 확충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촌내 노후시설 철거후 현대식 훈련시설을 도입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먼저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집약적으로 현대화·첨단화된 훈련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연도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4) 국가대표 선수촌 연도별 시설 확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
2003	종합체육관 건립	3,070
2003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2,439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1,000
소계		6,509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
2004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5,000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3,500
소 계		8,500
2005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4,561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4,500
소 계		9,061
2006	선수회관 리모델링	750
소 계		750
2007	선수회관 외장공사	345
	올림픽의 집 화장실 리모델링	135
	필승기숙사(A,B,C)동 철거후 부지정리	452
소 계		932
2008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	2,437
	태백선수촌 다목적 체육관 건립	1,000
소 계		3,437

(3)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조성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 35-2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데, 이는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현 태릉선수촌의 노후화와 대표선수 수용한계를 극복하고 훈련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로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2005년도 11월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마스터플랜을 현상공모를 통해 확정했다(그림 5-2). 이에 따라 대지면적 247,158평, 연면적 15,390평, 구조는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로 주요 건립 시설물은 실내육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숙소동, 편의 및 교육시설, 행정동, 스포츠의·과학센터, 옥외훈련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추진 계획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5)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조성 연도별 추진 현황

연 도	추진경과 및 일정	비 고
2001. 6	• 문화재복원정비 관련 선수촌 이전요구(3회)	문화재청
2003. 3	• 선수촌 장기이전계획안 수립	대한체육회
2003. 6	•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2003. 8	•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제5장 전문체육

연 도	추진경과 및 일정	비 고
2003. 11	•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예산처
2004. 3	•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한국개발연구원
2004. 9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	한국개발연구원
200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 통보(사업승인) - 조사결과 : 단계별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단 계 : 현 태릉선수촌에 없는 시설물 건립 제2선수촌 형태로 부분이전(2005~2010) ○ 2 단 계 : 향후 태릉선수촌 사용 불가능여부, 체육정책, 엘리트스포츠 육성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여 추진(2011~2015) 	기획예산처
200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촌 이전 대상지 선정 - 13개 후보지 중 2개 우수후보지 선정(음성, 진천) - 2개 우수 후보지 평가를 위한 용역 의뢰 - 선수촌이전 추진자문위원회(6차 회의/진천군 선정) 	대한체육회
2005. 11	• 선수촌이전 사업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	대한체육회
2006. 3	• 선수촌이전 마스터플랜 각계 의견수렴 및 최종확정	대한체육회
2006. 5~	•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진천군, 대한체육회
2007. 1~12	• 기본·실시 설계 및 공사계약(툰키 방식)	대한체육회
2008~2011	• 공사 완공	대한체육회



〈그림 5-2〉 국가대표종합훈련장 마스터플랜

● 제4절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운영 ●

국내 체육대회 개최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며 일반 국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는 1920년 조선체육회 창설 이후부터 조선체육회 강제 해산과 전쟁시기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개최되어 자질있는 우수선수 육성과 지방체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외에도 국내 체육대회는 종목별 전국대회, 종목별 시도대회, 시도별 종합대회, 협회장기, 시도지사기 대회 등이 있다.

1. 전국체육대회 운영

1) 약 사

전국체육대회는 1920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전조선(全朝鮮) 야구대회에서 기원하는데, 1920년에 조선체육회의 창립을 계기로 그 동안 산발적으로 행해져 오던 모든 경기를 조직화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전조선 야구대회를 개최한 이래, 각종 경기대회가 종목별로 개최되었다. 이후 1925년에 당시 경성운동장이 완공되면서 근대적 시설을 갖춘 운동장에서 경기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고, 1934년부터 축구, 야구, 농구, 육상, 정구 등 5개 종목 경기를 통합한 조선체육회 창립 제15주년기념 전조선 종합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1938년 조선체육회가 해산되면서 광복전해인 1944년까지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1945년 광복 이후, 체육인들은 조선체육동지회를 조직하였으며, 제26회 전국체육대회를 10월 27일부터 5일간에 걸쳐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라는 명칭으로 재개최하였다.

1946년 제27회 대회는 대회명칭을 조선올림픽대회라 칭하여 경기대회의 국제화 추세를 부각시키는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1948년의 제29회 대회 때부터 전국체육대회로 대회명을 변경하였으며, 경기운영방식을 시·도대항전으로 전환하였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1950년 제31회 전국체전은 중단되었으며, 1951년 제32회 대회는 전란 중에도 불구하고 피난지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1952년의 제33회 대회부터 이후 5회에 걸쳐 서울에서 대회를 개최하였고, 1957년도 제38회 대회부터 지방

순회 개최 원칙을 도입하여 지방의 체육시설 확충, 해당 시도민의 체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각 시·도에서 대회를 번갈아 개최하면서 체육이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1966년 제47회 대회부터 매년 대회표어를 채택하여 참가선수들의 의지를 북돋아 주었으며, 1967년 제48회 대회부터 우리나라 체전사상 처음으로 카드섹션을 도입하여 연출하기도 하였다. 1972년 제53회 대회부터 해외동포선수단이 모국의 전국체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재미동포가 최초로 해외동포선수단으로 참가한 이래 전국체전은 국내·외 동포의 성대한 체육제전으로 그 면모를 굳히게 되었다.

2) 제89회 전국체육대회(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굳센체력, 알찬단결, 빛나는전진’이라는 구호아래 전라남도, 전라남도체육회 및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은 총42종목 중 정식종목은 41개인데, 고등학교부, 대학부, 일반부에서 선수 18,530명, 임원 6,424명이 참가하였다. 시상은 종합시상, 부별종합시상, 종목별종합시상 등이 있다. 종합시상의 경우 1위는 대통령배, 2위는 국무총리배, 3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이며 대한체육회 우승기도 수여된다. 부별종합시상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부와 일반부에 주어지며 1, 2, 3위에 대한체육회회장배를 수여했다. 종목별종합시상은 1, 2, 3위를 대한체육회장배를 제공하며 개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1위 금메달과 상장, 2위 은메달과 상장, 3위 동메달과 상장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해외동포 종합시상, 성취상(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시·도에게 수여), 최우수선수상(대회 참가선수 중 가장 탁월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선수에게 수여), 모범선수단상(국회의장배), 경기단체질서상, 모범심판상, 특별표창 등이 수여되었다.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이은 대회로서 어느 대회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회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친환경 녹색체전의 일환으로 부별종합시상에 도자기 상배를 제작 수여하였으며, 개최식 행사에 축하불꽃놀이를 대체하는 물대포를 사용하였다. 또한 “보는 체전에서 참여하는 체전”이라는 가치아래 일반 동호인도 참여할 수 있는 동호인참가종목으로 체조(에어로빅)등 17개 종목 채택으로 약 4,490여명 참가하였으며, 특히 MBC의 무한도전프로그램의 팀이 에어로빅 종목에 참가함으로써 전국체육대회의 홍보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기기간 동안 총 207개의 신기록이 작성되었는데, 2개의 세계신기록, 42개의 한국신기록, 2개의 한국타이기록, 2개의 한국주니어신기록, 147개의 대회신기록 및 12개의 대회타이기록이 작성되었다.

3) 연도별 개최현황

(표 5-26) 연도별 전국체육대회 개최현황

회 수	개최년월일	개최지	참가종목	참가인원	순 위		
					1위	2위	3위
84회	'03. 10.10~16	전 북	40	23,732	경기	서울	전북
85회	'04. 10. 8~14	충 북	41	25,848	경기	서울	충북
86회	'05. 10. 14~20	울 산	41	26,930	경기	서울	경북
87회	'06. 10. 17~23	경 북	41	23,319	경기	경북	서울
88회	'07. 10. 8~14	광 주	41	23,612	경기	서울	광주
89회	'08. 10.10~16	전 남	42	24,954	경기	서울	전남

2. 전국동계체육대회 운영

1) 약 사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923년 1월 대동강에서 개최된 빙상대회에서 비롯된다. 그 후 2년 뒤 조선체육회 주최로 제1회 전조선(全朝鮮) 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고, 그밖에 조선학생 빙상경기연맹을 비롯하여 조선빙상경기연맹 등의 경기단체에 의해 크고 작은 빙상경기대회가 신설되었다. 한편 스키 대회의 효시는 1930년 2월 원산시 신흥리 스키장에서 원산체육협회가 주최하고, 조선체육협회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 제1회 조선스키선수권대회인데, 당시의 정황상 주로 일본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었다.

광복이후 1946년 1월 한강특설링크에서 빙상대회를 치르게 되면서 오늘날의 빙상경기대회로 연결되었다.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링크인 동대문 실내링크가 개장되어 1967년 동계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스키를 제외한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의 3개 종목 경기를 한자리에 치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후 1986년 제67회 대회부터 빙상대회와 스키대회를 동계대회로 통합하고, 종합체점제를 실시하여 동계 종합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의 동계 스포츠는 동계올림픽에서 10위내 성적을 거두었으며(90년 프랑스 알베르빌대회에서 10위, 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대회에서 6위, 98년 일본 나가노대회에서 9위, 06년 토리노대회에서 7위를 차지함), 각종 국제 대회에서 무수한 신기록이 작성되고 우수선수가 육성 되는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국동계체육대회

가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그 동안 전국동계체육대회는 태릉선수촌내 국제스케이트장을 포함한 실내 스케이트장 개장, 10여개에 이르는 스키장 건설, 스키 인구의 폭발적 증가 등 시설확충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2018년 동계올림픽 한국유치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 제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는 2008년 2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총 3,381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은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컬링 등 5종목이었으며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펼쳐졌다.

시상은 종합시상, 종목별종합시상, 개인 및 단체시상 등이 있다. 종합시상의 경우에 1위는 대통령배, 2위는 국무총리배, 3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이며 대한체육회 우승기를 제공하며 종목별종합시상은 1, 2, 3위에 대한체육회 회장배를 제공한다. 개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1위 금메달과 상장, 2위는 은메달과 상장, 3위 동메달과 상장을 수여하며 이외에도 최우수선수상(대회 참가선수 중 가장 탁월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선수에게 수여), 특별표창(한국신기록 이상 수립선수와 비기록의 경우 특별한 경기실적을 발휘한 선수나 팀에게 수여) 등이 있다. 종합순위는 경기도가 1위, 강원도가 2위, 서울특별시가 3위를 차지했다.

3) 연도별 개최현황

(표 5-27) 연도별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현황

회 수	개최년월일	개최지	참가종목	참가인원	순 위		
					1위	2위	3위
85회	'04. 2.18~20	전북	5	2,918	경기	강원	서울
86회	'05. 2.24~26	서울, 경기, 강원	5	3,363	경기	강원	서울
87회	'06. 2. 1~ 4	서울, 경기, 강원	5	3,192	경기	강원	서울
88회	'07. 2.21~24	서울, 경기, 강원, 경북	5	3,293	경기	강원	서울
89회	'08. 2.19~22	서울, 경기, 강원	5	3,381	경기	강원	서울

3.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1) 약 사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자라나는 소년·소녀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협동심을 기르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할 목적으로 '스포츠 소년단'이 창설되면서 시작되었다. 1972년 전국체육대회와 분리되면서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가 개최되었으며 2007년에 36회를 맞게 되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꿈나무 선수발굴의 산실로서 그 위상 및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실제로 올림픽을 포함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의 대부분이 이 대회 출신이며, 특히 '86, '88 양대회 참가선수의 약 50% 정도가 소년체전에서 발굴된 선수로서, 동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획득한 총 금메달의 72%가 소년체전을 통해 발굴된 선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소년체전은 시·도간의 지나친 과열경쟁,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증가, 선수의 수업결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89년부터 전국단위체전 형태를 폐지하고 시·도별 소년체전으로 경기진행방식을 전환하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등록선수 감소, 경기부 해체, 초·중학교 선수의 경기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92년부터 종합순위에 대한 시상을 폐지하고 개인시상만을 실시하는 개선책과 더불어 부활하게 되었다.

1994년 이후에는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서 다음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개최후보신청 시·도의 부족으로 개최장소의 선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되었고 전국체육대회 경기시설 및 인적자원의 연계를 통해 대회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회기간을 청소년의 달과 연계함으로써 청소년 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그 동안 전국소년체전은 지방순회개최를 통해 지방의 학교운동부 육성 확대, 우수선수의 조기발굴에 기여하였으며, 종합채점제 폐지를 통해 시·도간 과열경쟁을 완화하였다.

2)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08년)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인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아래 16,581명(임원 4,759명 선수 11,80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30종목과 시범종목 2종목(소프트볼, 요트)이었으며, 초등학교부의 경우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씨름, 유도, 양궁, 체조, 배드민턴, 태권도, 인라인롤러의 17종

제5장 전문체육

목이며 중학교부는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양궁, 사격,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볼링, 인라인롤러, 근대3종, 카누, 소프트볼(시범), 요트(시범)의 32개 종목이다.

시상은 단체시상과 개인시상 등이 있다. 단체시상은 단체전 종목 및 개인경기 단체전에 한정되어 실시하는데 1위는 금메달, 상장 및 대한체육회장배, 2위는 은메달, 상장 및 대한체육회장배, 3위는 동메달, 상장 및 대한체육회장배를 제공한다. 개인시상은 1위는 금메달, 상장, 2위는 은메달, 상장, 3위는 동메달, 상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종목별 최우수선수상(대한체육회장배상)이 있으며, 특전으로 개인경기 종목의 1위 입상자와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 및 단체경기 종목의 1위 입상자 중 1명에게 체육장학금을 지급하며 한국신기록 이상 신기록수립 선수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 우수지도자(교사포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장 등이 수여되었다.

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대회를 활성화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경기장의 전산화로 현장에서 신속 정확한 경기결과를 입력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소나마 대국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한 대회였다. 또한 전국어린이 스포츠백일장 및 사생대회와 각종 문화행사와 병행되어 개최되었으며, 부별 신기록 6개 등을 포함하여 77개의 신기록이 작성되었다.

(표 5-28) 연도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현황

회수	대회기간	장소	참가인원	순위			종목수 (정식·시범)	비고
				1위	2위	3위		
30	'01. 6. 2~ 5	부산	15,669	개인시상			29/1	시범종목(1) : 볼링
31	'02. 5. 11~14	충남	15,970	개인시상			29/1	시범종목(1) : 볼링
32	'03. 5. 31~6. 3	제주	16,113	개인시상			29/1	시범종목(1) : 볼링
33	'04. 5. 29~6. 1	전북	16,358	개인시상			30	
34	'05. 5. 29~6. 1	충북	16,524	개인시상			30	
35	'06. 6. 17~6. 20	울산	16,358	개인시상			30	
36	'07. 5. 26~5. 29	경북	16,581	개인시상			31	시범종목(1) : 소프트볼
37	'08. 5. 31~6. 03	광주	16,816	개인시상			32	시범종목(2) : 소프트볼, 요트

제5절 프로경기의 진흥

1. 종목별 프로단체 현황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1982년 한국프로야구 리그의 출범부터 본격화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프로권투와 프로레슬링의 프로스포츠 종목이 지속되어 왔으나, 프로야구의 출범은 스포츠를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다. 2007년 12월 현재 축구, 야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남·여), 씨름, 남자골프, 여자골프, 볼링, 권투, 레슬링 등 9개 종목에 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농구연맹,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사)한국씨름연맹,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사)한국프로볼링협회, (사)한국권투위원회, (사)대한프로레슬링협회 등 11개 프로단체가 조직되었다.

종목별로는 축구 14개 구단, 배구 11개 구단, 야구 8개 구단, 남자농구 10개 구단, 여자농구 6개 구단, 씨름 1개 구단 등 총 50개 구단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표 5-29) 프로단체 현황(2008. 12월 현재)

종목 구분	축 구	야 구	농구(남)	농구(여)	배 구	
단체명	한국프로 축구연맹	(사)한국 야구위원회	(사)한국 농구연맹	(사)한국 여자농구연맹	(사)한국 배구연맹	
대 표	곽정환회장	유영구총재	전육총재	김원길총재	이동호총재	
구단수(개)	15	8	10	6	남 7	여 5
구단명	제주 유나이티드 FC 울산 현대 호랑이 수원 삼성 블루윙즈 성남 일화 천마	두산 베어스 (서울) LG 트윈스 (서울) 삼성 라이온즈 (대구) 롯데 자이언츠 (부산)	KT&G카이츠 (안양) 전자랜드 블랙슬래머 (인천) 삼성샌더스 (서울) SK나이츠 (서울)	KB국민은행 세이버스 (천안) 삼성생명 비추미 (용인) 신세계콜캣 (부천)	대한항공(인천) 삼성화재(대전) LIG손보(구미) 현대캐피탈 (천안) KEPCO45 (수원) 신협상무	GS칼텍스 (인천) KT&G(대전) 현대건설(수원) 흥국생명(천안) 한국도로공사 (구미)

제5장 전문체육

종목 구분	축 구	야 구	농구(남)	농구(여)	배 구	
구단명	부산 아이파크	한화 이글스 (대전)	모비스피버스 (울산)	신한은행 에드버드 (안산)	우리캐피탈 (서울)	
	FC 서울	히어로즈 (서울)	KCC이지스 (전주)	우리은행 한새(춘천)		
	전북 현대 모터스	기아 타이거즈 (광주)	오리온스 (대구)	금호생명 레드윙스 (구리)		
	전남 드래곤즈	SK 와이번스 (인천)	동부프로미 (원주)			
	포항 스틸러스		KTF매직윙스 (부산)			
	대전 시티즌		LG세이커스 (창원)			
	대구 FC					
	광주 상무 불사조					
	인천 유나이티드 FC					
	경남 FC					
	강원 FC					

종목 구분	골 프(남)	골 프(여)	볼 링	권 투	레슬링	씨 림
단체명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사)한국프로볼링협회	(사)한국권투위원회	(사)대한프로레슬링협회	(사)한국씨름연맹
대 표	박삼구회장	선종구회장	김언석회장	김철기회장	김수홍회장	김수용총재

1)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Korea League)은 1983년 2월 대한축구협회 내에서 슈퍼리그 위원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당시 슈퍼리그 위원회는 1983년 5월 슈퍼리그라는 명칭으로 프로리그를 시작하였는데, 그때까지 다각적으로 프로화를 모색했던 한국축구계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서 출발한 슈퍼리그는 프로 2팀, 아마추어 3팀이 참가하는 다소 기형적인 모습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20년간 부침을 거듭하던 한국프로축구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중흥의 계기를 마련했다.

대전, 부산, 부천, 성남, 수원, 울산, 전남, 전북, 포항, 안양 등 10개팀이 참가한 2002년 K리그에서

는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룩한 여세를 몰아 7월 7일 개막전에 총 12만 3천여명이 입장, 역대 일일 최다관중수를 기록한 데 이어, 이어 열린 11일 경기에는 총 10만 8천여명이 입장, 역대 일일 2번째 기록이자, 평일 최다관중 기록을 수립했다. 또한 토, 일 양일간에 벌어진 다음 경기에는 총 13만 8천여명의 관중이 입장, 역대 주말(토, 일 합산) 최다관중 신기록을 수립한 데 이어, 17일에 열린 4차전에서는 총 11만 5천여명을 끌어들이 11일에 수립했던 평일 최다관중 기록을 1주일만에 경신하는 등 매 경기 관중기록을 경신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계기로 프로축구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된 가운데 2003년에는 프로축구계의 숙원이던 리그 참가팀 수의 증가가 현실화 되었다. 그러나 시민구단인 대구 FC와 광주 상무 불사조 두개의 팀이 추가되어 총 12개 팀이 리그에 참여하면서 보다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2003년 시즌은 기대와는 다르게 다시 전년대비 약 30%의 관중수 감소를 보임으로써 한국의 프로축구리그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 5-30) 프로축구 연도별 관중수 변화추이

연 도	경 기 수	총 관 중 수	평균관중수
2005	240	2,873,351	11,972
2006	275	2,448,128	8,806
2007	254	2,746,749	10,814
2008	253	2,945,400	11,642

* 위의 수치는 정규리그 및 컵대회, 올스타전을 합친 것임

이후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팬들의 관심 속에서 2005년까지 총관중수 및 평균관중수가 꾸준히 증대되었다. 2008 K리그는 전년대비 1경기가 줄었으나 평균 관중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주체의 노력으로 팬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현상으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ion)는 1981년 12월 창립총회로 시작되어 1982년 3월 (사)한국야구위원회로 법인허가를 받고 그 해 프로야구 원년리그를 치른 이래 현재까지 25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프로야구는 고교 및 대학야구와 실업야구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1981년, 삼성, 롯데, MBC, OB, 해태, 삼미 등 6개 구단을 회원으로 하는 프로야구 창립총회가 “자라나는 새싹

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에게 밝고 건강한 여가선용을” 이란 기치아래 개최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들 6개 팀은 드디어 1982년 3월 첫 경기를 가지며 프로야구시대를 열었으며, 지역연고제의 도입, 홈 앤드 어웨이제의 실시, 일년 시즌의 장기 레이스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당시까지 우리나라의 스포츠경기 체제에서는 행해지지 못했던 현대적 프로스포츠의 운영방식을 최초로 접목시켰다.

프로야구 개막 초에는 총 240경기에 불과했지만 20시즌을 넘긴 지금은 총 504경기가 벌어질 정도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팀의 수도 최초로 6개 팀에 불과했으나, 1986년 빙그레(현재의 한화구단)가 충청권을 연고로 제7구단을 창단했고 1991년 창단된 쌍방울을 포함 현재 8개 구단이 되었다. 관중수의 면에서 보면 개막년도에 143만 8,768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도 563만 6191명으로 확대되어 역대 최고의 흥행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베이징 올림픽 우승에 따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관중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시기별 상황에 따라 부침이 큰 편인데, 2003년에 들어와 이승엽의 홈런 아시아신기록 달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강하던 관중 수가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었으나, 2006년에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던 점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은 90년대 중반의 인기를 되찾고자 현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팬이 특정 연령 및 성별에 국한되어 있고 그 층이 두텁지 못하다는 근본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팬층을 다양화하고 그 폭을 넓히기 위한 장기적 프로야구 진흥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31) 프로야구 관중 입장수

연 도	경 기 수	총 관 중 수	평균관중수
2002	546	2,634,710	4,825
2003	545	2,950,231	5,413
2004	548	2,637,559	4,813
2005	517	3,640,690	7,042
2006	518	3,240,992	6,257
2007	517	4,410,340	8,531
2008	519	5,636,191	10,860

* 위의 수치는 정규리그 및 포스트시즌, 올스타전을 합친 것임

3) 한국농구연맹

1990년대 초반부터 프로화를 모색하던 농구계는 1995년 10월 한국농구연맹설립준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고 1996년 10월 한국농구연맹을 창립, 그해 11월 (사)한국농구연맹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1996~1997 시즌으로 첫 리그를 시작하였다. 대학농구와 실업농구에 대한 팬들의 열기를 이어받아 프로농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미국식 스포츠마케팅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한국농구연맹의 노력에 힘입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5-32) 남자 프로농구 관중수

연 도	경 기 수	총 관 중 수	평균관중수
2002~2003	289	1,043,531	3,611
2003~2004	290	1,051,598	3,626
2004~2005	288	1,109,793	3,853
2005~2006	288	1,104,503	3,835
2006~2007	291	1,160,113	3,987
2007~2008	287	1,155,399	4,026

* 위의 수치는 정규시즌 및 플레이오프, 올스타전을 합친 것임

(표 5-33) 여자 프로농구 관중수

연 도	경 기 수	총 관 중 수	평균관중수
2002	139	140,010	1,007
2003	138	159,574	1,156
2004	80	54,994	5,687
2005	138	169,518	1,228
2006	123	101,588	826
2007	72	75,449	1,048
2008	115	98,164	854

* 위의 수치는 정규리그 및 결승리그를 합친 것임

4) 한국배구연맹 및 기타 프로종목

타 구기 종목의 프로화 추세에 따라 배구계는 2004년 한국배구연맹창립추진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프로화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 2월 16일을 기해 한국배구연맹을 출범시키므로써 본격적인 프로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후 한국배구연맹은 2005년 2월 20일 KT&G V-리그가 개막 되면서 팬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시작했으며, 2006도하 아시아게임의 우승에 기초하여 2006년도와 2007년도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한일 V-리그 탑 매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신생 프로리그로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 5-34) 프로배구 관중 입장수

연 도	경 기 수	총 관 중 수	평균관중수
2006	191	159,716	836
2007	163	227,954	1,398
2008	187	234,308	1,253

* 총관중수는 남녀의 수치에 대한 합산임

제6절 과제 및 발전방안

1. 전문체육 시스템의 개선

그 동안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4위,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7위의 위업을 달성하는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가위상 제고와 국민통합에 기여해 왔다. 이외에도 올림픽대회 10위권 유지, 아시안게임 2위 고수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상위입상으로 체육 강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정부는 앞서 언급했던 각종 정책과 더불어 체육인복지제도, 병역특례제도, 체육특기자제도 등을 통해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에 체육관련 민간단체는 자신의 역량을 전문체육의 발전에 집중하여왔다.

그 동안 전문 체육은 학교운동부와 실업팀의 육성 및 국가대표 선수의 집중훈련에 힘입어 그 역량을 발휘해 왔다. 각급 학교는 학교운동부를 창단하여 시·도체육회와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실업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기업 등에 소속되어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대표선수와 후보선수에 대해서는 태릉선수촌의 시설사용과 재정지원, 체육과학연구원의 과학적 훈련지원 등을 통해 종목별로 특화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선수선발제도 및 훈련과정은 선진국 수준의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광범위한 저변에 기초한 선수선발과 과학적 선수발굴과 체계적 훈련시스템이 적용된 우수 선수 양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발된 선수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전통적 스포츠 선진국뿐만 아니라, 풍부한 인적 자원에 기초하여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중국도 그 경기력 수준이 이미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던 일본도 일본스포츠과학연구소와 최첨단 기구재 정부를 통한 대대적 투자에 힘입어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종합 14위(한국 12위)에서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는 5위(한국 9위)의 우수한 성적으로 한국을 추월하였다. 비록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8위로 한국의 7위보다 열세에 있지만, 일본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종목별 경기력 수준에 따른 선택과 집중, 일부 대표선수 및 우수선수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 훈련방식을 통한 경기력 향상방안의 한계를 절감하고, 세계적 외국인 코치 영입

및 지도자 자질향상 등을 통해 선진 훈련기법을 확대 적용하고 종목별로 특성화된 선수 발굴과 육성 프로그램(체력·기술·기술향상 등)을 개발·운영하는 차원과 더불어 일본의 JISS와 같은 최첨단 과학시설 등을 구비한 「종합선수촌」 건설운영 등 스포츠 과학화에 기초한 새로운 엘리트 체육 시스템 및 훈련방법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선수육성과 관련된 사회적 시스템의 정비도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체육선진국은 광범위한 생활체육 인구에 기초하여 전문체육이 발전되는 체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풍요로운 선수저변에 의해 전문선수가 원활히 공급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조화롭게 연계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한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을, 국민생활체육협회가 생활체육을 각각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어 양자 간의 체계적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연계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우수선수의 체계적 육성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구축된 현행 소수의 우수선수 집중 훈련방식의 경기력향상 시스템은 88 서울올림픽 4위 달성을 비롯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민소득 향상 및 국내외 체육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효율성 및 실효성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한 선수자원의 지속적 감소와 선수대상 폭력 및 학습권 침해 등과 같은 해묵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전문 체육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수선수 양성의 산실로 기능해온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은 종목 및 인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의 참여와 관심 부족으로 대회 의의 및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고 학생선수 등에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 결과 각종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엘리트체육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수선수 양성과 관련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동부의 구조가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종형으로 되어 있어 선수수급에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전국 학교운동부 규모와 증가 추이변화상 운동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간의 비율 차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수저변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스포츠클럽 등 대안적 구조를 통해 예비선수자원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후보선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종목 및 지원내역을 차별화하며 후보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후보선수 지원 종목은 경기력을 기준으로 지원을 차별화하고 국외 전지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은 체력검정 실시와 함께, 그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전산 처리하여 곧 바로 각 종목별 전임지도자들이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력과 실적에 의한 선수 선발이 필요하다. 선발대상 및 기준은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성적 및 기록 우수자, 종목별 최고기록 보유자, 종목별 각종 국내·외 대회 우수성적 입상자 등 경기실적과 종목별 특성에 따른 과학적 선수선발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향후 발전가능성과 훈련 적응력, 기초체력 및 기술을 참작한다. 이를 위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운영하되 종목 담당 연구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국가대표 선수선발 시와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시 대표코치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1인당 훈련비를 증액하고 식비와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가대표선수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사업도 고려되어야 한다.

3. 프로스포츠의 체질 개선을 통한 정상화 노력

프로스포츠는 아마추어 스포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스포츠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프로페셔널리즘에 기반 한 스포츠 형태를 의미한다. 한때 프로스포츠는 물질만능주의 조장, 지나친 상업화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경제성장, 물질문명의 발달로 특징지어지는 20세기 후반부터 스포츠계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프로스포츠는 대표적 관광스포츠 영역으로 대중적 위락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지역적 연대감 고취, 아마추어 선수의 진료 개척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 및 스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프로스포츠는 선수의 해외리그진출을 통한 선수자원의 고갈 및 무역역조 심화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메이저 리그, 프리미어 리그와 같은 해외 프로스포츠콘텐츠의 대중화 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 중계권료에 대한 부담이 점진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 프로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중계권료 케이블 TV 해외 프로그램 수입 총액의 20% 수준이며 스포츠전문채널 프로그램 편성료의 약 50%에 이르는 반면, 국내 프로 스포츠는 팬들의 외면

속에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프로스포츠에 대한 대외무역역조현상이 심각한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의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프로스포츠를 시장논리에 근거한 산업·경제적 관점이 아닌, 모기업의 홍보수단 정도의 의미로서 운영했던 관행 때문이라는 평가가 체육계 내에서 지배적이다. 그 결과 모기업 홍보와 공익성 추구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경영합리화나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자립이라는 프로스포츠 본연의 목표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프로스포츠는 고사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우려는 현재 프로씨름의 위기로 인하여 증폭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으로서의 프로스포츠의 속성상 국내의 프로스포츠가 산적하고 있는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주체는 구단 및 리그라 할 수 있다. 구단 및 리그 스스로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팬과 관객층을 확장시키고 팀 및 리그 운영과 관련된 선수, 마케팅, 경기력, 리그운영, 미디어,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에서도 목격할 수 있듯이 이 같은 주체의 노력에 기초하여 관중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국내 프로스포츠의 미디어 콘텐츠적 가치가 높아졌을 때, 각종 규제완화 및 여건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06

제6장 장애인체육

제1절 개 관

제2절 장애인체육 조직 및 재정

제3절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제4절 과제 및 발전 방안

제1절 개 관

장애인체육은 체육의 하위 영역 중 하나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체육활동을 의미하는 보편성을 띤 전문용어이며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장애인과 체육이 결합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문화관광부, 2007).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한 체육교과목과 병원 및 재활원 등에서의 체육활동으로 출발하였고, 특수학교와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수십 년 동안 재활·의료 패러다임의 수동적 개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2005. 10)과 더불어 현재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포괄하는 새롭고 능동적인 국민체육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05. 7)과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 4)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2008. 4)과 같은 법적 뒷받침과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체육과 설치(2005. 12)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2005. 11)과 같은 조직 기반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구조는 일반체육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전문체육(국제체육 포함), 학교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재활체육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장애유형별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다음의 (표 6-1)은 체육구조별 일반체육과 장애인체육의 정부 및 민간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표 6-1) 체육구조별 정부 및 민간조직

체육구조	일반체육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문화체육관광부-국민생활체육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학교체육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재활체육	없음	보건복지가족부-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체육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법적 기반 마련, 관련 조직 및 단체(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 설립 확산, 예산의 지속적 증가, 생활체육 사업 확대 및 참여율 향상,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2008년은 우리나라 장

에인체육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국제교류 분야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를 통한 참여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화를 위한 종목별·장애유형별 프로그램 보급 및 확대,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전개 중흥 기반
구축의 목표 아래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청소년체육활
동 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생활체육기초조사 연구,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생활체육동호인대향전 지원,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생활체육축제 개최 및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각종 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장애인체육 질적 수준 제고, 가맹단체 운영 활성화,
장애인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국제적 위상 강화의 목표 아래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지부, 가맹
경기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전문체육 육성, 장애인국제경기대회 참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가
맹단체 지원, 장애인 후보선수 지원, 장애인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시·
도지부 지원 등의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은
금 10, 은 8, 동 13으로 종합 1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국제교류 분야에서는 국제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한 IPC 및 APC와의 관계강화, 국제장애인스포
츠 외교역량 강화, 국제장애인스포츠 기구와의 협조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아래 국제장애인스포츠 교
류,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 스포츠교류, KPC 운영과 같은 협력 및 교류차원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제2절 장애인체육 조직 및 재정

1. 국내 장애인체육 조직 변천과정

국제장애인스포츠가 전쟁 이후 발전하였듯이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 역시 전쟁과의 연계성을 분리할 수 없다. 즉,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도 1950년 한국전쟁, 19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한 상이용사들의 재활수단으로서의 체육활동이 시초가 되었고, 특수학교에서 교과목 또는 운동부 창설, 대회 개최 및 참가 등과 함께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부족, 정부 지원의 취약 등으로 지금까지 장애인체육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육의 비전문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관장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의 기반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현재 재활체육 영역을 보건복지가족부(한국장애인개발원)가 담당하는 비합리적 구조를 정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장애인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장애인체육업무를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하여 2005년 7월 29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포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내에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체육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 일부 시·도에 장애인체육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전담 부서 및 공무원이 없거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2) 국내 장애인체육 발전과정

구 분	주 요 내 용
태 동 기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스포츠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원호청 창설(1961) - 국제적수장애인경기대회 참가(1965~) - 제1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최(1967) • 특수학교 체육활동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학생 야구 및 유도, 탁구대회(1960~70년대) - 서울농학교 배구부 창단 (1962)

<p>전 개 기 (1975~198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장애인체육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건립(1975) - 전국지체부자유 대학생연합체육대회 개최(1978)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1981~) - 국제노성마비경기대회(육상) 참가(1982) • 88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p>확 대 기 (1989~199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육 조직 창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1989)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편(1999) => 현 한국장애인개발원 • 학문적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수체육학회 창립(1990) =>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창간(1993)
<p>발 전 기 (2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육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개최 시작(2000) -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시작(2003)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05.7) -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2005.11) => 16개 시·도지부 설립 완료(2008. 2)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내 - 장애인체육과(현 장애인문화체육팀) 신설(2005.12) -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설립(2006.5)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 4)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명문화, 동법 시행령 시행(2008. 4)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개최(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2008. 10)

2. 대한장애인체육회

1) 설립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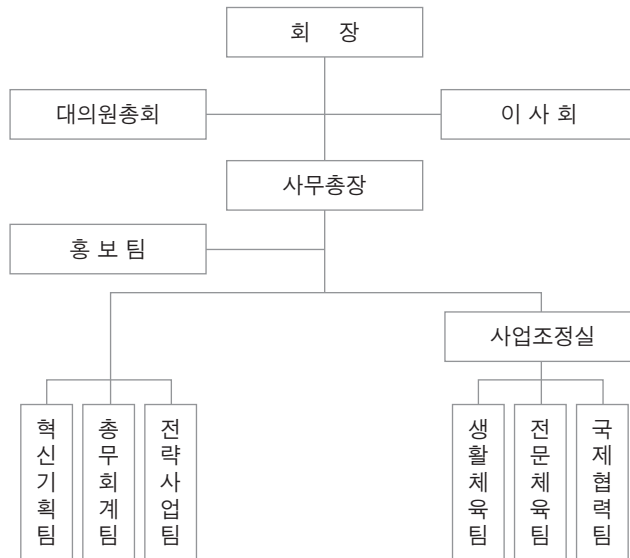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근거하여 2005. 11. 25 설립된 단체로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의 (표 6-3)과 같다.

(표 6-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과 역할

구 분	내 용
설립 목적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가맹경기단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및 시·도지부를 지원·육성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활동을 통한 국제 친선에 기여
주요 기능 / 역할	장애인 가맹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장애인체육 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장애인 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장애인선수·장애인 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체육계 유공자의 복지향상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직 및 인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포함 이사 25인과 2인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1실 7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6-1〉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

3) 시·도지부 운영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관 제54조에 근거하여 전국의 균형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는 16개 시·도지부 설립을 완료(표 6-4 참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 각 가맹단체와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육성 및 지도 감독
-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장애인체육 생활화 사업 전개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 특수학교 및 장애 학생체육의 육성
-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등

그러나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를 구성하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팀과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팀으로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운영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건에 따라 승인(2009년 3월 현재 5개 지부) 및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향후 시·군·구 장애인체육지회의 설립은 장애인체육 진흥의 원칙과 연계성의 원칙, 자율성 확보의 원칙, 지방화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설립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6-4) 시·도장애인체육회 현황(2009. 3월 현재)

연번	지부승인	단 체 명(회장)		소재지	설립일	시군구
1	06.09.27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김범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06.07.27	-
2	06.12.29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김태호	경상남도 창원시	06.07.18	-
3	06.12.29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김문수	경기도 수원시	06.11.20	구리시 부천시 시흥시 이천시
4	06.12.29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정우택	충청북도 청주시	06.12.18	청주시
5	06.12.29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김원주	전라북도 전주시	06.12.26	-
6	07.04.05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이완구	대전광역시 중구	07.01.17	-
7	07.04.0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7.02.14	-

연번	지부승인	단 체 명(회장)		소재지	설립일	시군구
8	07.04.05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오세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07.03.30	-
9	07.05.03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김관용	경상북도 경산시	07.04.10	-
10	07.05.22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허남식	부산광역시 연제구	06.12.07	-
11	07.05.22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박성효	대전광역시 서구	07.05.04	-
12	07.06.07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안상수	인천광역시 동구	07.04.11	-
13	07.08.27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김진선	강원도 춘천시	07.05.30	-
14	07.08.27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박광태	광주광역시 서구	07.07.18	-
15	07.12.28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박준영	전라남도 목포시	07.11.02	-
16	08.02.01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박맹우	울산광역시 중구	08.01.17	-

3. 가맹경기단체 및 등록선수

2008년 12월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는 종목별 경기단체 24개, 유형별 체육단체 2개, KPC 소관단체 2개로 총 28개이며, 별도의 인정단체 5개를 포함할 경우 총 33개이다. 각 가맹경기단체는 각각의 시·도지부(총 259지부)를 두어 활동하고 있으나, 단체별 편차가 매우 심한 실정이며,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8년 2월부터 선수등록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각 경기단체별 선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는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4개 단체에 7,285명(남 5,881, 여 1,404)이 등록되어 있다.

종목별 등록 선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축구(총 1,376명: 남 1,361, 여 15)이며, 그 다음으로는 육상(총 875명: 남 608, 여 267), 탁구(총 653명: 남 506, 여 147), 볼링(총 635명: 남 434, 여 201), 수영(총 498명: 남 359, 여 139), 론볼(총 477명: 남 343, 여 134)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 선수를 포함하는 종목의 선수가 많았다. 또한, 등록 선수를 남녀별로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남자선수들에 비해 여자선수들의 비율(약 19%)이 낮고, 전년도(25%)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총 911명: 남 730, 여 181)와 경기도(총 911명: 남 770, 여 141)의 등록 선수가 가장 많아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였으며, 부산(총 494명: 남 398, 여 96)과 경남(총 492명: 남 383, 여 109)이 그 뒤를 잇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300-400명 내외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다.

(표 6-5)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2008. 12월 현재)

구 분	가 맹 경 기 단 체 명	창립일	가맹일	시·도지부	비 고
1	대한장애인축구협회	04. 09. 09	06. 04. 27	3	종목별 경기단체
2	대한장애인골볼협회	06. 02. 03	06. 04. 27	11	
3	대한장애인농구협회	97. 04. 25	06. 04. 27	11	
4	대한장애인럭비협회	04. 12. 19	06. 04. 27	8	
5	대한장애인론볼연맹	92. 05. 16	06. 04. 27	15	
6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00. 02. 15	06. 04. 27	14	
7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06. 03. 18	06. 04. 27	10	
8	대한장애인볼링협회	02. 12. 12	06. 04. 27	15	
9	대한장애인사격연맹	97. 04. 15	06. 04. 27	13	
10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93. 07. 10	06. 04. 27	8	
11	대한장애인수영연맹	03. 03. 22	06. 04. 27	8	
12	대한장애인스키협회	01. 10. 20	06. 04. 27	4	
13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03. 02. 21	06. 04. 27	2	
14	대한장애인양궁협회	04. 04. 04	06. 04. 27	9	
15	대한장애인역도연맹	96. 02. 28	06. 04. 27	12	
16	대한장애인육상연맹	02. 02. 25	06. 04. 27	5	
17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93. 10. 07	06. 04. 27	10	
18	대한장애인펜싱협회	04. 11. 28	06. 04. 27	7	
19	대한장애인배구연맹	06. 02. 26	06. 04. 27	11	
20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02. 07. 28	06. 04. 27	15	
21	대한장애인조정연맹	06. 07. 08	06. 07. 31	8	
22	대한장애인탁구협회	93. 08. 20	06. 07. 31	15	
23	대한장애인컬링협회	07. 03. 27	07. 10. 16	5	
24	대한장애인오토연맹	06. 12. 15	07. 10. 16	4	
25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78. 05. 01	06. 04. 27	-	유형별
26	대한농아인체육연맹	82. 12. 30	06. 07. 31	16	체육단체
27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06. 01. 18	06. 04. 27	16	KPC
28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05. 08. 20	06. 04. 27	4	
소 계				259	
29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06. 04. 02	07. 10. 16	-	인정단체
30	대한장애인골프협회	04. 09. 19	07. 10. 16	-	
31	한국장애인바둑협회	99. 07. 25	07. 10. 16	-	
32	대한장애인다트연맹	07. 04. 13	07. 10. 16	-	
33	대한장애인소프트볼야구협회	07. 06. 15	07. 10. 16	-	

※ 인정단체의 경우 시도지부 현황 제외

제6장 장애인체육

장애유형별로 선수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단/기타장애(총 1,959명: 남 1,532, 여 427)와 지적장애(총 1,908: 남 1,601, 여 307)가 가장 많고, 청각장애(총 1078명: 남 829, 여 249)와 척수장애(총 988명: 남 851, 여 137), 시각장애(총 804명: 남 620, 여 184), 뇌성마비(총 548명: 남 448, 여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장애인선수(총 167명: 남 95, 여 72)도 육상(남 2), 론볼(여 2), 축구(남 9), 수영(남 2), 농구(남 54), 댄스스포츠(남 28, 여 70) 등 종목 특성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계속)

(단위 : 명)

종 목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양궁	6	3	9	0	0	0	5	0	5	3	0	3	7	2	9	2	0	2
육상	49	15	64	35	20	55	35	19	54	32	11	43	22	11	33	14	6	20
배드민턴	29	10	39	18	11	29	17	8	25	11	2	13	20	12	32	22	4	26
보치아	37	12	49	24	9	33	6	1	7	6	1	7	4	3	7	12	2	14
사이클	9	1	10	9	4	13	12	2	14	1	0	1	6	0	6	0	0	0
휠체어펜	6	3	9	0	0	0	2	0	2	0	0	0	3	0	3	0	0	0
골볼	9	5	14	12	0	12	9	7	16	0	0	0	7	12	19	5	0	5
론볼	85	27	112	37	16	53	20	3	23	5	0	5	16	10	26	16	7	23
역도	23	6	29	11	2	13	5	1	6	18	10	28	16	3	19	5	2	7
사격	19	4	23	7	2	9	9	3	12	3	0	3	5	0	5	7	0	7
축구	161	0	161	104	0	104	87	2	89	72	0	72	57	0	57	60	0	60
수영	76	30	106	39	14	53	18	4	22	25	9	34	28	8	36	20	3	23
탁구	35	13	48	11	2	13	33	11	44	43	12	55	32	7	39	19	4	23
좌식배구	13	18	31	9	0	9	7	0	7	25	8	33	12	12	24	0	0	0
농구	55	0	55	27	0	27	10	0	10	41	0	41	13	0	13	27	0	27
휠체어 테니스	10	0	10	4	1	5	9	2	11	10	2	12	4	2	6	4	0	4
볼링	51	21	72	24	13	37	28	13	41	35	16	51	21	8	29	18	8	26
휠체어력비	12	0	12	11	1	12	10	0	10	0	0	0	9	2	11	10	2	12
조정	3	3	6	0	0	0	10	3	13	7	3	10	4	2	6	10	3	13
댄스스포츠	1	2	3	2	0	2	3	2	5	3	0	3	0	3	3	3	2	5
요트	0	0	0	8	1	9	0	0	0	0	0	0	0	0	0	0	0	0
스키	17	5	22	3	0	3	0	0	0	0	0	0	0	0	0	0	0	0
아이스슬래지	10	0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휠체어컬링	14	3	17	3	0	3	7	3	10	5	1	6	0	0	0	4	1	5
소 계	730	181	911	398	96	494	342	84	426	345	75	420	286	97	383	258	44	302

(표 6-6)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계속)

시 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양궁	3	2	5	10	1	11	2	1	3	3	1	4	2	0	2	0	0	0
육상	19	12	31	72	31	103	50	23	73	27	15	42	37	21	58	60	20	80
배드민턴	8	5	13	35	8	43	11	7	18	15	2	17	21	8	29	10	5	15
보치아	9	1	10	14	3	17	7	2	9	18	8	26	14	0	14	21	4	25
사이클 휠체어	8	4	12	6	1	7	8	1	9	10	1	11	4	0	4	5	0	5
펜싱	3	3	6	3	4	7	6	1	7	5	0	5	3	4	7	0	0	0
골볼	0	0	0	50	3	53	4	0	4	8	5	13	6	0	6	41	0	41
론볼	18	9	27	23	9	32	8	0	8	33	10	43	10	5	15	23	22	45
역도	14	2	16	41	3	44	4	0	4	6	4	10	32	6	38	9	3	12
사격	6	0	6	14	2	16	9	2	11	7	1	8	5	2	7	16	6	22
축구	75	0	75	187	4	191	94	2	96	137	1	138	86	6	92	39	0	39
수영	16	8	24	51	22	73	2	4	6	12	8	20	9	5	14	11	3	14
탁구	22	9	31	66	19	85	29	13	42	19	0	19	64	17	81	9	1	10
좌식 배구	6	0	6	18	0	18	9	8	17	0	0	0	12	0	12	40	0	40
농구	19	0	19	46	0	46	44	1	45	15	0	15	28	2	30	10	0	10
휠체어 테니스	2	0	2	15	1	16	0	0	0	3	0	3	5	0	5	7	1	8
볼링	6	8	14	69	25	94	31	24	55	19	8	27	24	11	35	8	2	10
휠체어 력비	0	0	0	16	1	17	6	2	8	8	1	9	0	0	0	0	0	0
조정	0	0	0	8	3	11	6	5	11	4	1	5	5	5	10	0	0	0
댄스 스포츠	3	5	8	7	0	7	4	3	7	1	4	5	0	0	0	10	1	11
요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스키	0	0	0	0	0	0	5	3	8	9	5	14	0	0	0	0	0	0
아이스 슬래지	0	0	0	10	0	10	12	0	12	0	0	0	0	0	0	0	0	0
휠체어 컬링	4	1	5	9	1	10	4	1	5	7	3	10	4	1	5	0	0	0
소계	241	69	310	770	141	911	355	103	458	366	78	444	371	93	464	319	68	387

제6장 장애인체육

(표 6-6)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계속)

시 도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양궁	1	0	1	1	0	1	0	0	0	0	0	0	45	10	55
육상	48	23	71	52	16	68	44	15	59	12	9	21	608	267	875
배드민턴	7	0	7	11	2	13	25	3	28	6	2	8	266	89	355
보치아	10	4	14	4	1	5	11	1	12	2	3	5	199	55	254
사이클 휠체어	11	0	11	4	1	5	19	6	25	5	3	8	117	24	141
펜싱	0	0	0	5	0	5	0	0	0	0	0	0	36	15	51
골볼	56	2	58	5	0	5	5	5	10	0	0	0	217	39	256
론볼	28	12	40	12	0	12	1	0	1	8	4	12	343	134	477
역도	6	4	10	16	12	28	2	3	5	0	0	0	208	61	269
사격	8	1	9	2	0	2	17	5	22	0	0	0	134	28	162
축구	33	0	33	73	0	73	81	0	81	15	0	15	1,361	15	1,376
수영	16	6	22	5	1	6	24	10	34	7	4	11	359	139	498
탁구	28	9	37	28	5	33	61	21	82	7	4	11	506	147	653
좌식 배구	22	0	22	11	0	11	0	0	0	0	0	0	184	46	230
농구	0	0	0	16	0	16	10	0	10	20	0	20	381	3	384
휠체어 테니스	0	0	0	0	0	0	2	0	2	0	0	0	75	9	84
볼링	18	2	20	17	8	25	53	28	81	12	6	18	434	201	635
휠체어 력비	9	1	10	6	4	10	9	1	10	0	0	0	106	15	121
조정	4	0	4	5	3	8	11	9	20	0	0	0	77	40	117
댄스 스포츠	8	0	8	6	1	7	1	1	2	4	2	6	56	26	82
요트	0	0	0	0	0	0	0	0	0	0	0	0	8	1	9
스키	0	0	0	13	6	19	2	0	2	0	0	0	49	19	68
아이스 슬레지	0	0	0	0	0	0	0	0	0	0	0	0	32	0	32
휠체어 컬링	6	1	7	4	2	6	5	1	6	4	2	6	80	21	101
소 계	319	65	384	296	62	358	383	109	492	102	39	141	5,881	1,404	7,285

※ 유형별 단체 및 KPC 가맹단체 선수는 종목별 경기단체에 포함, 인정단체 제외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2008년 12월 31일 현재)

(표 6-7)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

구 분	합 계			절단/기타		시 각		척 수		뇌 성		지 적		청 각		비장애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양 궁	45	10	55	23	9	0	0	22	1	0	0	0	0	0	0	0	0
육 상	610	267	877	119	16	94	28	14	1	89	31	212	131	80	60	2	0
배 드 민 턴	266	89	355	142	38	0	0	51	6	2	0	36	25	35	20	0	0
보치아	199	55	254	8	3	0	0	0	0	190	52	1	0	0	0	0	0
사이클 휠체어	117	24	141	32	0	33	13	2	0	8	0	33	11	9	0	0	0
펜 싱	36	15	51	28	12	0	0	8	3	0	0	0	0	0	0	0	0
골 볼	217	39	256	0	0	217	39	0	0	0	0	0	0	0	0	0	0
론 볼	343	136	479	156	89	0	0	180	42	5	3	1	0	1	0	0	2
역 도	208	61	269	65	19	13	0	7	0	0	0	83	38	40	4	0	0
사 격	134	28	162	68	19	0	0	64	9	2	0	0	0	0	0	0	0
축 구	1,370	15	1,385	0	0	89	0	0	0	105	2	747	13	420	0	9	0
수 영	361	139	500	127	61	34	25	12	1	2	4	163	37	21	11	2	0
탁 구	506	147	653	179	48	12	11	220	40	7	1	51	22	37	25	0	0
좌 식 배 구	184	46	230	184	46	0	0	0	0	0	0	0	0	0	0	0	0
농 구	435	3	438	149	0	1	0	22	0	0	0	209	3	0	0	54	0
휠체어 테니스	75	9	84	11	4	0	0	64	5	0	0	0	0	0	0	0	0
볼 링	434	201	635	82	24	79	37	37	6	26	5	36	14	174	115	0	0
휠체어 력 비	106	15	121	20	7	0	0	83	8	3	0	0	0	0	0	0	0
조 정	77	40	117	16	5	31	26	29	7	0	0	1	1	0	1	0	0
댄 스 스포츠	84	96	180	22	9	8	2	11	4	8	2	2	1	5	8	28	70
요 트	8	1	9	6	0	0	0	2	1	0	0	0	0	0	0	0	0
스 키	49	19	63	5	0	9	3	1	0	1	0	26	11	7	5	0	0
아이스 슬래지	32	0	32	32	0	0	0	0	0	0	0	0	0	0	0	0	0
휠체어 컬 링	80	21	101	58	18	0	0	22	3	0	0	0	0	0	0	0	0
소 계	5,976	1,476	7,452	1,532	427	620	184	851	137	448	100	1,601	307	829	249	95	72

※ 비장애등록선수(167명) 포함으로 시·도별 등록선수 현황과 차이가 있음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2008년 12월 31일 현재)

4.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는 국제장애인올림픽헌장 제3장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의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National Paralympic Committee)로서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Paralympic Committee(KPC)라 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8)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설립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올림픽사업에 관하여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올림픽정신의 함양·보급, 스포츠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적·신체적 자질의 발전 도모, 국제친선, 세계평화 및 장애인의 지위와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 2. 스포츠윤리의 증진, 반도핑 및 장애인올림픽운동(Paralympic Movement)을 전개하는 사업을 수행 3. 목적수행을 위해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할 수 있으나, 장애인올림픽헌장에 부합하여야 하며 독립을 유지
사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에 대해 한국을 대표 2. 장애인올림픽대회, 장애인아시아안게임 등 IPC의 후원을 받는 세계선수권대회, 지역대회, 대륙대회, 대륙간대회 등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을 파견·관리 3. 국내에 있어서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장애인올림픽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올림픽표장 등을 관리 4. 대회 이외의 학술연구지원사업 등 IPC, APC 및 장애인아시아안게임 사업에 대표자 선정파견 및 주관 5. 장애인스포츠의학의 진흥과 IPC 및 국제장애인경기연맹이 금지한 약물의 사용 금지 활동 6. 장애인올림픽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7.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의 스포츠 교류 8. 제2호에 해당하는 대회의 국내 개최 시 개최도시 지명권 및 장애인올림픽헌장에 근거한 대회조직의 책임 9. 국제심판, 기술임원, 국제등급분류위원, 스포츠행정가 연수 및 국제장애인체육 관련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10. 기타 본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재 정

장애인체육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부분의 사업예산으로 집행된다. 2005년도 장애인체육 예산은 약 49억원이었으나, 장애인체육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장애인체육의 전문성 확보와 활성화, 생활체육 참여여건 개선 및

장애인체육 추진체계·조직정비 등으로 매년 100-200%의 대폭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이천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장애인체육예산의 연도별 증가액 및 증가율은 다음의 (표 6-9)와 같으며, 2009년도 세부예산 내역은 다음의 (표 6-10)과 같다.

(표 6-9) 대한장애인체육회 예산의 연도별 증가추세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예 산	4,955	10,913	19,635	25,324	36,387
전년비 증가액	-	5,958	8,722	5,689	11,063
전년비 증가율	-	220%	180%	129%	144%

(표 6-10) 2009년도 대한장애인체육회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십만단위 절사)

구 분		예 산
국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문체육육성 - 장애인국제체육교류지원 - 공공체육시설환경평가 	4,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장애인종합체육시설운영지원 	2,000
	소 계	6,610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장애인체육회운영 	2,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생활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생활체육지원 - 장애인생활체육대회지원 - 생활체육지도자교육및배치 	5,3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문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지원 - 가맹경기단체지원 - 시·도지부지원 - 후보선수지원 - 국제대회개최지원 - 이천장애인종합체육시설운영장비지원 	7,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10,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1,8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장애인체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주최생활체육대회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시·도지원 	1,900
	소 계	29,777
	계	36,387

제3절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1. 생활체육부문

1)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장애인에게 있어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운동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을 생활체육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꾸준히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청소년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생활체육기초조사 연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생활체육동호인대항전 지원,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개최, 종목별생활체육축제 개최 및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2008년 장애인생활체육 관련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11)과 같다.

(표 6-11) 2008년 장애인생활체육 사업영역 및 사업실적 현황

사업영역	사업실적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연구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 통합체육수업매뉴얼 개발 직장장애인 체육활동 효과분석 연구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구성 기개발종목 보급(파크골프, 등산 등) 장애인체육활동 사진공모전
	생활체육기초조사 연구	실외형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환경실태 및 리모델링방안 연구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연구 장애인생활체육 사업 평가 연구

<p>프로그램 개발 보급 / 연구 지원</p>	<p>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p>	<p>콜서비스 운영(전화상담, 영상상담서비스) - 전국 대표전화: 1577-7976 생활체육 잠재군 발굴 및 생활체육정보센터 관리 전일제장애인체육지도자 관리 및 운영</p>
<p>교실 및 동호인 지원</p>	<p>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p>	<p>장애청소년 체육활동 126개소 지원(유소년체육교실 98개소, 대학생체육교실 9개소, 유형별체육교실 18개소, 장애학생 스키교실 1개소) 장애대학생 국토대장정 지원 운영사례발표회 개최</p>
	<p>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p>	<p>생활체육교실 118개소 지원(초보자교실 52개소, 생활체육교실 42개소, 직장인운동교실 13개소,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11개소) 계절스포츠교실 4개소 동하게 캠프 8개소 스키학교 운영 1개소</p>
	<p>생활체육동호인 지원</p>	<p>16개시·도 83개 클럽 지원 생활체육정보센터(http://sports.kosad.or.kr) 운영</p>
<p>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p>	<p>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p>	<p>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 5개 대회 지역어울림생활체육대회 29개 대회</p>
	<p>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p>	<p>5개종목(탁구,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론볼) 16개시·도 538명(선수 280, 임원 등 258)</p>
	<p>생활체육동호인대항전 지원</p>	<p>전국생활체육동호인최강전 14개 대회 지역생활체육동호인대항전 39개 대회</p>
	<p>전국장애평소년체육대회 개최</p>	<p>9개종목(정식 7, 시범 1, 전시 1) - 정식: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 시범/전시: e스포츠/실내조정</p>
	<p>종목별생활체육축제 개최 및 지원</p>	<p>종목별생활체육축제 17개(대회형) 종목별생활체육행사 4개(행사형)</p>
<p>지도자교육 및 배치</p>	<p>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p>	<p>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39명 배치 -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15, 시·도지원 24 - 총 841개소, 3,521회, 58,706명 지도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교육(08년 8월)</p>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2008)

2)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

(1)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우리나라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2000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칭)에서 1993년부터 지도자양성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총 569명의 지도자가 배출되었고, 이후로 국가공인 자격제도에 대해 논의가 확정되어 법안 제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지도자 강습회의 교과목은 장애인 체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이론 및 실기종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실기 종목은 국내 미 보급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현장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격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지도자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사후관리, 전문지도자의 양적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지도자자격 제도화는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2) 경기지도자 양성

장애인 체육분야에 있어서 비장애인 경기지도자에 상응하는 전문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모두에 걸쳐 유일한 자격으로, 현재 국가대표 전임 지도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임용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전문체육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전문체육의 경우와 같이 쿼터 시스템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체육 선수의 지도와 생활체육현장에서의 지도를 동일한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지도자가 담당한다는 것은 양쪽 모두의 전문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특수체육관련학과 설치 대학 현황

198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유도대학(현 용인대학교)에 특수체육학과가 설치되었고, 1990년 비로소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의 발급이 인정되었으며, 2008년 현재 12개 대학에서 중등 특수체육교사 및 특수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용인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등 10개 대학이며, 기타 체육 부전공 중등 특수교원 자격증 소지자, 일반체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육 대학원 졸업자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표 6-12) 특수체육교사 양성대학 현황(2008년 12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학교명	학과명	양성정원			계	설치년도
			초등	중등	기타		
1	가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20(20)	-	20	2005
2	경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20(20)	-	20	2005
3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30(30)	-	30	2002
4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30(30)	-	30	1988
5	중부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20(20)	-	20	2003
6	진주국제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20(20)	-	20	2005
7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40(40)	-	40	2004
8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30(30)	-	30	1998
9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	40(4)	-	40(4)	1994
10	신라대학교	체육학부(특수체육전공)	-	30(3)	-	30(3)	2006
11	동의대학교	특수체육학과	-	30	-	30	2007
12	나사렛대학교	장애인체육학과	-	30	-	30	2008
계				340(217)	-	340(217)	

* () 교사자격증 발급 대상 인원

(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용

생활체육지도자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각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지정된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실제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현장의 지도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의 경우에는 자격증 자체가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배치와 활용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실제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의 활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유사 자격증의 증가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 자격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 제도의 국가공인 취득과 더불어 일선 장애인생활체육현장에 공인자격증

제6장 장애인체육

취득자의 채용을 의무화하여 현장 지도의 질을 높여 날로 높아 가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7년에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요 충족의 일환으로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일부 경기단체에서 총 20명의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시·도 11명, 경기단체 4명, 총 15명) 및 보조생활체육지도자(시·도 5명)를 배치하였고, 2008년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지원으로 총 39명(대한장애인체육회 15명, 시·도 24명)을 배치 활용하였다.

향후 체육지도자자격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이 법제화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체육시설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 의무 채용에 관한 법률적 강제, 세부 배치기준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인된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를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다.

(표 6-13) 2008년 전일제지도자 배치 현황(2008. 12. 31 현재)

(단위 : 명)

연 번	구 분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시·도 지원	총 계	비 고
1	서 울	1	2	3	시·도 자체 1명 배치
2	부 산	1	1	2	
3	인 천	1	5	6	시·도 자체 4명 배치
4	대 구	1	1	2	
5	광 주	1	2	3	시·도 자체 1명 배치
6	대 전	1	1	2	
7	울 산	0	0	0	
8	경 기	1	1	2	
9	강 원	1	1	2	
10	충 북	1	1	2	
11	충 남	1	1	2	
12	경 북	1	1	2	
13	경 남	1	1	2	
14	전 북	1	1	2	
15	전 남	1	1	2	
16	제 주	1	4	5	시·도 자체 3명 배치
계		15	24	39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2008) 내부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 매칭 방식

2. 전문체육

1) 국내대회 개최

(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체육인의 경기력 향상 및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 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환경 조성과 장애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을 위하여 매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981년 유엔(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제5회 대회부터 1987년 제7회 대회까지는 '88서울장애인을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였다. 제8회 대회는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로 인하여 열리지 않았으며, 제9회 대회부터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로 매년 개최되었다. 2000년 제20회 인천대회부터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장소에서 다음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하여 2001년 부산, 2003년 충남, 2004년 전북에서 대회를 거행하였으며(2002년은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로 미개최), 2005년 제25회 대회부터 종합점수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2007년 대회는 광역시도에서 벗어나 김천시에서 대회를 주관하여 경북 일원 7개 지역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루었다. 2008년 광주광역시 대회는 16개 시도지부가 모두 설립되어 치뤄진 첫 대회로서 전년대비 25%의 선수단 참가 증가율을 보였고, 대진추첨시스템 전산화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대진추첨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대회였다. 향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11년부터 일반대회와 동반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201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미개최와 더불어 2015년부터 동반 개최될 예정이다(표 6-14 참조).

(표 6-14)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예정 현황

구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전국체육대회	경남 (제90회)	경기 (제91회)	인천 (제92회)	○○ (제93회)	△△ (제94회)	●● (제9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전 (제30회)	경남 (제31회)	경기 (제32회)	인천 (제33회)	○○ (제34회)	●● (제35회)

* 201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음

제6장 장애인체육

(표 6-15) 연도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개최기간	개최지	개최종목	참가선수단(명)			순위		
				계	선수	일원	1위	2위	3위
1회	'81. 10. 2 ~ 10. 4		5	1,011	761	250			
2회	'82. 10.11 ~ 10.12		7	1,295	945	350			
3회	'83. 9.15 ~ 9.16		7	1,140	860	280			
4회	'84. 10.24 ~ 10.25		8	1,507	1,157	350			
5회	'85. 10.19 ~ 10.20		7	1,624	1,224	400			
6회	'86. 10.11 ~ 10.13		9	1,733	1,314	419			
7회	'87. 9.19 ~ 9.22		16	1,932	1,500	432			
8회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관계로 개최하지 않음								
9회	'89. 10.15 ~ 10.17		16	1,469	1,129	340	서울	경기	대구
10회	'90. 5.14 ~ 5.26		15	1,443	1,052	391	서울	경기	경남
11회	'91. 5.22 ~ 5.24		16	1,588	1,189	399	서울	경기	경북
12회	'92. 5.7 ~ 5.9		16	1,708	1,304	404	서울	경기	부산
13회	'93. 5.25 ~ 5.27		16	1,637	1,222	415	서울	경기	경남
14회	'94. 5.14 ~ 5.16		16(시범1)	1,733	1,310	423	서울	경남	부산
15회	'95. 5.23 ~ 5.25		17	1,695	1,276	419	경기	서울	부산
16회	'96. 5.14 ~ 5.16		17	1,740	1,305	435	경기	서울	대구
17회	'97. 5.20 ~ 5.22		17	1,756	1,340	416	경기	서울	충북
18회	'98. 5.19 ~ 5.21		17	1,744	1,312	423	경기	서울	충북
19회	'99. 5.25 ~ 5.27		17	1,766	1,334	432	경기	서울	충북
20회	'00. 6.13 ~ 6.15	인천	17	1,867	1,375	492	경기	서울	충북
21회	'01. 5. 9 ~ 5.11	부산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부산
22회	제22회 대회는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안게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으로 개최하지 않음								
23회	'03. 5.14 ~ 5.16	충남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충남
24회	'04. 5.11 ~ 5.14	전북	17	2,291	1,656	635	경기	서울	충남
25회	'05. 5.10 ~ 5.13	충북	18	2,586	1,885	701	서울	경기	충남
26회	'06. 9.12 ~ 9.15	울산	19(시범1)	3,272	2,462	810	경기	서울	부산
27회	'07. 9.10 ~ 9.14	경북 (김천)	22 (시범1, 전시1)	4,031	2,991	1,040	경기	서울	경북
28회	'08. 10.5 ~ 10.9	광주	23 (전시2)	5,459	3,987	1,472	경기	서울	광주
29회 (예정)	'09. 9.21 ~ 9.25	전남 (여수)	22	7,000 (예상)	-	-	-	-	-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2008),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보고서

(2)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장애인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국 대회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신인선수 발굴 육성, 장애인 동계스포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2004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대회 개최 현황은 다음의 (표 6-16)과 같다.

(표 6-16)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현황

회수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종목	참가선수단(명)			참가대상	주 최
				계	선수	임원		
1회	2004. 2.22(화) ~2.25(수)	용평스키장 춘천의암빙상장	알파인스키 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빙상	150	100	5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관 : 각 경기연맹
2회	2005. 2.17(목) ~2.18(금)	용평스키장 춘천의암빙상장	알파인스키 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150	80	7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주최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관 : 각 경기연맹
3회	2006. 2.22(수) ~2.24(금)	보성휘닉스파크 춘천의암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시범종목)	209	102	107	척수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한국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슬레지 하키협회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4회	2007. 2.22(수) ~2.24(토)	강원랜드 춘천의암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크로스컨트리(시범)	224	117	107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종목별 경기단체
5회	2008. 2.19(화) ~2.22(금)	하이원 스키장 춘천의암빙상장 울산과학 대학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크로스컨트리	446	215	231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한국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슬레지 하키협회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2008), 제5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결과보고서

2) 경기력 향상 지원

2008년은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가 있는 해로서 장애인올림픽국가대표선수 훈련 지원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되, 장애인올림픽 미참가 종목 훈련과 더불어 2010년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대비 동계종목 훈련지원도 병행하였으며, 특히 후보선수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선수 훈련지원 관련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 6-17)과 같다.

(표 6-17) 2008년 선수 훈련지원

구 분	종목/인원	훈련일수	비 고
베이징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훈련	13개 종목 132명(선수 79, 임원 53)	2,105일	탐팀과 올림픽팀으로 구분 시행(45 ~ 150일)
올림픽 미참가 종목 훈련	9개 종목 143명(선수 106, 임원 37)	180일	20일×9개 종목
국가대표 동계종목 훈련	4개 종목 56명(선수 37, 임원 19)	122일	스키 50, 하키 40, 컬링 12, 양궁 20
동계종목 추가훈련	3개 종목 33명(선수 21, 임원 12)	87일	스키 27, 하키 20, 컬링 40
장애인 후보선수 지원	15개 종목 218명(선수 168, 임원 36, 경기보조 14)	343일	종목당 평균 약 23일

* 대한장애인체육회(2008) 내부자료

경기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선수 훈련지원과 더불어 가맹단체별 83개 국내대회를 지원하였고,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단체별 추천 지도자를 국가대표 전임지도자로 배치, 지도자 수당을 지원하였다. 종목별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현황은 다음의 (표 6-18)과 같다.

(표 6-18) 2008년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현황

종 목	인원	종목	인원
역 도	1	보치아	1
사 격	1	수영	1
테 니 스	1	양궁	1
탁 구	1	사이클	1
육 상	1	축구(5인제 시각)	1

3) 체육인복지사업

체육인복지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력향상연금 등 총 8개 분야에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체육 선수의 경우 2005년까지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정관 제2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우수선수연금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고, 2006년부터는 일반체육선수 경기력향상연금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일반선수 연금지급액의 60%('05년) 수준에서 80% ('07년)로 지급하던 것이 2008년부터는 100%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장애인선수연금의 경우 월정액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전환되어 비장애인선수와 마찬가지로 일시불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졌다(2008년 일시금 수령자 1명). 지급대상 대회는 장애인올림픽 대회와 세계농아인올림픽대회이며, 연금지급액은 선수 월정금의 경우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 10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7만5천원씩, 평가점수 100점 초과부터 11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2만5천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하되, 장애인올림픽 금메달에 한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초과점수가 장애인올림픽대회 금메달인 경우에는 10점당 50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2008년은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의 결과에 따라 10월부터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연차별 지급현황은 다음의 (표 6-19)와 같다.

(표 6-19) 경기력향상연구연금(2005년 이전 명칭 '장애인선수연금') 지급 현황

(지급액 단위: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계획	비고(지급대상)
지급 인원	152명	160명	168명	168명	165명	180명	000명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 매달획득자
지 급 액	923	1,062	1,004	1,205	1,196	1,829	1,800	

* 출처 : 보건복지부('03년~'04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05년~'09년)

'08년 180명은 10월 이전 163명에서, 10월 이후 180명으로 증가, 이 중 1명은 일시금 수령

'09년은 예산만 확정된 상태임

또한, 2007년부터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에 선수·지도자보호 지원금(상해보험),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체육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경기지도자연구비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07년과 '08년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20)과 같다.

(표 6-20)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 체육인복지사업 지급 현황('07년 ~ '08년)

구 분	'07년	'08년	비 고
선수·지도자보호 지원금 (상해보험)	250명 24,586천원	236명 14,300천원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16명 32,000천원 (연 인원 192명)	16명 → 11명 69,500천원 (연 인원 139명)	08년 ~ 8월까지 16명 08년 12월 11명 08년 9,10,11월 대상 없음
체육장학금	50명 65,000천원	11명 12,000천원	
경기지도자연구비	-	21명 362,100천원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07년~'08년)

4) 실업팀 지원

장애인체육 실업팀은 장애인체육에 참여하는 선수와 지도자의 직업적 안정 도모와 선수생활을 그만둔 이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 배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애인선수의 훈련 여건 보장의 일환으로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실업팀 육성 지원은 2009년 2월 현재 총 6개 팀이 창단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기량을 발휘하고 평소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기업 등의 후원을 통한 적극적인 실업팀 육성책이 필요하다.(표 6-21 참조)

(표 6-21) 장애인체육 실업팀 현황(2009. 2월 현재)

종 목	창 단 년 도	소 속	담당자	감 독	인 원
사 격	2004	청주시청	장호진	유호정	8명 (감독1, 주무1, 선수6)
아이스슬래지하키	2006	강 원 도	이호	이영국	16명 (감독1, 코치1, 주무2, 선수12)
휠체어테니스	2006	달성군청	강미진	정필교	3명 (코치1, 선수2)
육 상	2007	울산광역시	노대환	박정웅	5명 (감독1, 선수4)
스 키	2008	하이원리조트	문찬호	김보성	6명 (감독1, 코치1, 선수4)
사 격	2008	강릉시청	최규영	-	2명 (선수2)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2009) 내부자료

5) 이천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전문체육시설(국가대표선수 선수촌) 확보와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기반시설 확보의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체육계의 숙원사업으로서, 2006년 장애인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을 계기로 정식 정부정책사업차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2008년 12월 현재 70%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체육 상시훈련장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표준화, 지도자 양성 및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의 건립내역과 활용계획은 다음의 (표 6-22) 및 (표 6-23)과 같다.

(표 6-22)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 건립내역

구 분	시설 주요내역 및 규격(규모)		비 고
건 축 면 적	연면적 21,667㎡(6,554평) / 지하1층, 지상4층		
종합체육관	제1체육관 (종합플로어)	농구코트 3면 크기	1~4체육관 : 14,708㎡ (4,449평)
	제2체육관 (실내수영장)	50m × 8레인	

제6장 장애인체육

구 분		시설 주요내역 및 규격(규모)	비 고
종합체육관	제3체육관 (테니스장)	테니스코트 2면 크기	1~4체육관 : 14,708㎡ (4,449평)
	제4체육관 (개별종목실)	역도·펜싱·탁구·유도·골볼장 체력단련실	
생활관 (숙소, 식당, 사무실)		2인용 70실(140명 수용) 식당, 주방, 관리사무실	6,480㎡ (1,960평)
운동장 (육상장, 축구장)		육상장: 트랙, 투척·도약장 축구장: 훈련용 잔디	23,800㎡ (7,200평)
기타시설		조경, 정문	479㎡ (145평)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2008)

(표 6-23)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의 종목별 공간사용계획(14개 종목 활용)

시 설 명	사 용 종 목	비 고
제1체육관	휠체어농구,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휠체어력비	5개 종목
제2체육관	수영 / 타종목 기초체력훈련	1개 종목
제3체육관	테니스 / 타종목 공동사용	1개 종목
제4체육관	역도·펜싱·탁구·유도·골볼 / 체력단련실(공동사용)	5개 종목
운 동 장	육상, 축구, 타종목 기초체력훈련	2개 종목

* 사격, 양궁, 론볼, 사이클 종목은 지자체 시설을 활용한 촌외시설로 운영

3. 국제교류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전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등 각종 국제장애인체육기구에 한 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가입하여 장애인체육 관련 교류 활동을 하였으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보교류가 부족하여 변화하는 국제장애인체육계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06. 5. 12)가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PC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등 국제스포츠기구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며, 국제교류 및 국제대회·회의 참가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관련 코리아하우스 운영을 통해 선수단 지원 및 프레스센터 운영, 국제스포츠외교 활동 등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현대 장애인올림픽의 효시가 된 88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장애인스포츠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장애인올림픽정신 제고 및 국제장애인스포츠 정책 방향 수립에 일조하였다.

(표 6-24)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가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가입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 국제뇌성마비인경기연맹(CP-IS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단체 가입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농아인스포츠경기연맹(ICSD) : 대한농아인체육연맹 - 국제시각장애인경기연맹(IBSA) :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 국제휠체어및절단장애인스포츠협회(IWAS)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국제지적장애인경기연맹(INAS-FID) : 한국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
--	---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2008) 내부자료

* ISMWSF와 ISOD는 2004년 IWAS(국제휠체어절단장애인스포츠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합

*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FESPIC)은 2006년 APC로 통합 출범

1) 장애인올림픽대회(Paralympics)

장애인올림픽의 기본이념은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의 우정과 이해의 증진을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올림픽이념과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조화시킨 것이다. 즉, 올림픽이 인종, 국가, 정치, 문화 및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화합, 나아가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범세계적인 축제로서 세계 젊은이들의 힘과 기록의 제전이라면, 장애인올림픽은 인간의 평등을 확인하는 대회이며, 인간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감격의 대축제이다.

(1)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1960년 로마올림픽대회 때부터 장애인올림픽(Paralympics)을 동반개최하게 된 것이 국제관례로 이어져 오다가 모든 장애인스포츠를 조직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인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설립(1997년)된 이후, 2000년 시드니장애인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IOC와 IPC간의 대회 개최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올림픽 대회를 유치한 국가는 반드시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장애인올림픽대회가 동반개최되고 있다. 2008년 제 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는 전세계 147개국 총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단 131명(선수 77, 임원 54)이 금 10, 은 8, 동 13개를 획득함으로써 종합 1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제6장 장애인체육

(표 6-25)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회수	연도	개최장소	참가장애	대회규모	한국선수단입상현황			비고
					종목	임원/선수	결과	
1	1960	로마 (이탈리아)	척수장애	23개국 (550명)	-	-	-	
2	1964	동경 (일본)	척수장애	22개국 (515명)	-	-	-	
3	1968	텔아비브 (이스라엘)	척수장애	29개국 (1,100명)	2	10 (4/6)	-	처음 참가
4	1972	하이델베르크 (독일)	척수장애	44개국 (1,400명)	2	16 (6/10)	금4/은2/동1	첫메달 획득
5	1976	토론토 (캐나다)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시각장애	42개국 (2,660명)	2	11 (4/7)	금1/은2/동1	종합27위
6	1980	안헴 (네덜란드)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시각장애 뇌성마비	42개국 (3,406명)	2	15 (5/10)	금2/은2/동1	종합26위
7	1984	뉴욕 (미국)	뇌성마비/시각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45개국 (2,500명)	6	25 (11/14)	동1	동반개최 종합37위
		에일즈버리 (영국)	척수장애	45개국 (1,422)	2	24 (12/12)	은2/동1	
8	1988	서울 (한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61개국 (4,103명)	16	366 (130/236)	금40/은35/ 동19	종합 7위
9	1992	바르셀로나 (스페인)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82개국 (4,242명)	10	92 (27/65)	금11/은15/ 동18	종합 12위
10	1996	애틀랜타 (미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103개국 (4,750명)	13	92 (28/64)	금13/은2/ 동15	종합 12위
11	2000	시드니 (호주)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정신지체	123개국 (6,032명)	13	119 (30/89)	금18/은7/ 동7	종합 9위
12	2004	그리스 (아테네)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정신지체	136개국 (6,274명)	13	123 (41/82)	금11/은11/ 동6	종합 16위
13	2008	북경 (중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정신지체	147개국 (7,000여명)	13	131 (54/77)	금10/은8/ 동13	종합 13위
14	2012	런던 (영국)	개최 예정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2008).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보고서

(2)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는 1976년 스웨덴 외른쉴드스비크(Sweden-Ornskoldsvik)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하계대회가 올림픽 개최국가에서 관례적으로 개최되는데 비해 동계대회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로 유럽지역에서 개최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Tignes-Albertville)에서 열린 제5회 대회를 계기로 동계올림픽 개최국가에서 동반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Lillehammer), 1998년 일본 나가노(Nagano)대회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와 2006년 이태리 토리노에서 개최된 제8회와 제9회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는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통하여 동일 조직 안에서 조직, 인력, 물자, 시설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반 개최하는 것이 의무화됨으로써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다. 향후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서 연중 기술 강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며, 선수 저변 확대 및 최신 장비 보급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표 6-26)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회수	연도	개최지	참가장애	참가국가	대회규모 (선수)	한국선수단		비고
						선수 (여자)	성적	
1	1976	Ornskoldsvik(Sweden)	시각 기타장애	14	250	-	-	
2	1980	Geilo(Norway)	전 장애인	18	350	-	-	
3	1984	Innsbruck(Austria)	전 장애인	22	457	-	-	
4	1988	Innsbruck(Austria)	전 장애인	22	397	-	-	
5	1992	Tignes-Albertville(France)	전 장애인	25	475	2	-	첫 참가
6	1994	Lillehammer(Norway)	전 장애인	31	492	2	-	
7	1998	Nagano(Japan)	전 장애인	32	571	4(1)	-	
8	2002	Saltlake(America)	전 장애인	36	416	6(1)	은1	첫 메달
9	2006	Torino(Italy)	전 장애인	39	486	3	-	
10	2010 (예정)	Vancouver(Canada)	개최 예정					

* 출처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공식홈페이지(2008). <http://www.paralympic.org>

2)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극동 및 아시아남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FESPIC Games ; The 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는 아시아 지역과 남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4년마다 개최하는 스포츠 행사였다. 1970년 인도네시아 YPOC단체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을 회원으로 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가칭 ASSOD(아세안장애인스포츠기구) 설립을 관계국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일본 오이타의 유다카 나카무라 박사는 설립될 장애인스포츠 기구의 회원을 아세안 5개국뿐만 아니라 극동 및 남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여 이에 대한 최종합의를 하고 1974년 10월 8일 일본 오이타에 본부를 둔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연맹(FESPIC Federation)을 정식 발족하였다. 그러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추구하는 지역위원회 설립에 따라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로 병합(2006)되면서 향후 2010 대회부터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새롭게 명칭을 바꾸어 개최될 예정이다.

(표 6-27) 역대 대회개최 및 참가현황

회수	개최년도	개최지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선수단 참가 현황		
				인원 (선수/임원)	메달획득 (금/은/동)	종합순위
1	1975	일본(오이타)	18/973	-	-	
2	1977	호주(파라마타)	16/430	6	6/·/1	
3	1982	홍콩	23/744	11	8/4/3	
4	1986	인도네시아(수라카르타)	19/834	76 (62/14)	40/19/9	
5	1989	일본(고베)	41/1,648	114 (78/36)	73/29/29	4위
6	1994	중국(북경)	45/2,081	131 (93/38)	48/28/17	3위
7	1999	태국(방콕)	42/2,500	137 (104/33)	31/26/27	4위
8	2002	한국(부산)	40/2,268	425 (303/122)	63/67/60	2위
9	2006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47/3,000	256 (166/90)	58/42/43	3위
10	2010	중국(광저우)	개최 예정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2008) 내부자료

3) 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

종목별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장애인올림픽대회 다음으로 가장 큰 국제대회이다. 기록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올림픽대회를 능가하고 있다. 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는 대부분 장애인올림픽대회 중간년도에 개최된다.

2008년 국제대회 국내개최는 IPC 강원랜드월드컵알파인스키대회 등 총 5개 대회였으며, 국제대회 참가는 월드컵 휠체어펜싱대회 등 총 12개 대회에 참가하여 장애인올림픽 출전권 획득 및 경기력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6-28) 2008년 국제대회 국내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 현황

구분	대 회 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대회규모 (결과)	
국 제 대 회 개 최	1	IPC 강원랜드월드컵알파인스키대회	2.14~2.18	강원도 정선	13개국(136명)
	2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4.27	서울 잠실	12개국(5,000명)
	3	부산 오픈 ITF 휠체어테니스시리즈대회	5.21~5.24	부산 금정테니스 코트	15개국(215명)
	4	대구 오픈 ITF 휠체어테니스시리즈대회	5.26~5.29	대구 유니버시아드 코트	10개국(227명)
	5	코리아컵 ITF 휠체어테니스시리즈대회	9.30~10.2	인천 가좌시립 테니스장	10개국(선수300명)
국 제 대 회 참 가	1	월드컵 휠체어펜싱대회	1.17~1.21	독일 베를린	2명
	2	APC 양궁선수권대회	1.28~2. 1	태국 방콕	17명 (종합1위, 금5, 은4)
	3	휠체어컬링 세계선수권대회	1.31~2.11	스위스 루체른	9명 (은메달, 벤쿠버 동계장애인올림 픽 참가자격 포인트 획득)
	4	IPC 일본 월드컵알파인스키대회	2.20~2.25	일본 하쿠바	10명
	5	IPC 월드컵 크로스컨트리스키대회	2.27~3. 3	노르웨이	5명

구분	대 회 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대회규모 (결과)
6	IPC 세계 아이스슬레이지하키선수권대회	3.28~4. 5	미국	21명 (B그룹1위, A그룹 진입)
7	IPC 슬로베니아 오픈탁구선수권대회	4.28~5. 4	슬로베니아	11명 (금5, 은2, 동3)
8	베이징올림픽 조정 최종예선전	5. 8~5.12	독일 뮌헨	7명 (이종례 Final 1위, 베이징장애인 올림픽 출전권 획득)
9	IPC 세계 휠체어테니스선수권대회	6. 9~6.15	이태리	10명
10	2008 아태지역 축구예선전	6. 9~6.18	태국	26명
11	IPC 세계 휠체어댄스선수권대회	10.23~10.27	벨라루스	12명
12	아시아 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12. 9~12.15	인도	15명 (금14, 은4, 동2)

4) 농아인올림픽대회(데프림픽 대회)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기구는 여러 국가에서 1차 대전 이전에 조직되었지만(독일의 경우 1888년 베를린에서 최초의 청각장애인스포츠기구가 발족됨) 1924년 이전까지는 그다지 큰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국제청각장애인경기대회(International Games for the Deaf / International Silent Games)로 시작된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s)는 1969년 제 11회 유고 벨그라드(Belgrade) 대회부터 청각장애인월드게임(World Games for the Deaf)으로 개최되던 것이 2001년 제 19회 이탈리아 로마 대회부터 지금의 Deaflympic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49년 시작된 동계 대회는 1949년 4회 스위스 몬타나 대회부터 하계 대회 개최년도 중간년도에 개최되고 있다. 동·하계 농아인올림픽은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올림픽으로서 스포츠를 통한 심신 단련과 친목도모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15회 대회에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하였고, 제16회 대회에서는 29명(선수21, 임원8)의 선수단 참가, 제17회 대회에는 육상, 축구, 사이클, 탁구 4개 종목 36명(선수25, 임원11)의 선수단을 파견하였으나 입상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8회 대회에는 육상, 축구, 탁구, 볼링,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 4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대회 참가 처음으로 육상 남자 100m 채경완선수와 배드민턴 여자단

식의 박혜연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회원국도 최근에 대만,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이 가입하여 72개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1984년 6월 1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경기종목으로는 육상경기, 배드민턴, 사이클, 사격, 수영, 탁구, 테니스, 레슬링, 농구, 축구, 핸드볼, 배구, 수구(Water-Polo), 볼링, 오리엔티어링 등 15개 종목이 있고, 참가자격은 국제 연맹의 규정에 따른 아마추어로서 잘 들리는 쪽의 귀의 청력상실 정도가 55데시벨(dB) 이상인 농아인만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 제한은 없다.

(표 6-29) 역대 농아인올림픽대회(하계) 개최 및 참가현황

회수	개최년도	개최지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선수단 참가현황		
				임원 (임원/선수)	매달획득 (금/은/동)	종합 순위
1회	1924	파리(프랑스)	9/145	-	-	-
2회	1928	암스테르담(네덜란드)	10/210	-	-	-
3회	1931	뉴렌베르크(독일)	14/316	-	-	-
4회	1935	런던(영국)	12/293	-	-	-
5회	1939	스톡홀름(스웨덴)	13/264	-	-	-
6회	1949	코펜하겐(덴마크)	14/405	-	-	-
7회	1953	브뤼셀(벨기에)	16/524	-	-	-
8회	1957	밀라노(이탈리아)	25/625	-	-	-
9회	1961	헬싱키(핀란드)	24/595	-	-	-
10회	1965	워싱턴(미국)	27/697	-	-	-
11회	1969	베오그라드(유고슬라비아)	33/1,183	-	-	-
12회	1973	말뫼(스웨덴)	32/1,061	-	-	-
13회	1977	부쿠레슈티(루마니아)	32/1,118	-	-	-
14회	1981	켈른(독일)	32/1,213	-	-	-
15회	1985	로스앤젤레스(미국)	29/1,053	19(9/10)	-	-
16회	1989	크라이스트처치(뉴질랜드)	30/959	30(8/22)	-	-
17회	1993	소피아(불가리아)	51/1,705	36(11/25)	-	-
18회	1997	코펜하겐(덴마크)	62/2,068	40(11/29)	· / · / 2	38위
19회	2001	로마(이탈리아)	71/2,405	44(16/28)	4 / 4 / 4	11위
20회	2005	멜버른(호주)	80/4,000	50(15/35)	6 / 5 / 5	10위
21회	2009	타이페이(대만)		개최 예정		

* 출처 : Deaflympics (<http://www.deaflympics.com>) / 대한장애인체육회(2008)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2008년에는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지원 하에 IPC 인턴십 파견사업(2명, 2008. 3. 1~2008. 11. 30 / IPC 요청에 의한 1명 5개월(09. 4. 30) 근무 연장)과 2차에 걸친 장애인체육스포츠아카데미 사업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국제심판 및 등급분류사 양성사업 등을 시행하여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양성 및 지원 로드맵을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6-30) 2008 스포츠외교인재육성을 위한 IPC 인턴십 파견사업 현황

구분	내용	비고
기간	2008. 3. 1 ~ 2009. 4. 30 (1년2개월)	※ IPC 요청에 의한 근무기간 연장 (5개월, '08.3~'08.11→'08.3~'09.4, 1명)
장소	IPC 사무국	독일 - 본 소재
인원	2명	프로그램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한 IPC & KPC 간 "양해각서" 체결

(표 6-31) 2008 장애인체육스포츠아카데미

구분	장애인체육스포츠아카데미(1차)	장애인체육스포츠아카데미(2차) (KPC 국제스포츠외교인재 양성교육)	비고
대상	30명(국가대표출신 선수 및 장애인체육단체 임직원)	30명(국제협력팀 주관 공모 15명, 1차 우수교육생 15명)	
교육기간	'08.7.2~8.21(8주)/60시간 (수·목, 18:00~22:00)	'08.9.1~10.28(8주)/60시간 (월·화, 18:00~22:00)	
교육장소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관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관	
교육내용	소양교육, 리더십, 영어회화, 체육학, 워크숍 등	스포츠외교마케팅 국제스포츠정책론 장애인스포츠영어	
수료인원	25명	24명	출석율 40% 이상인 자
우수교육생 선정	15명(선정기준 : 성적) ※특전 : 2차 심화교육 참가기회 부여	3명(선정기준 : 성적) ※특전 : 해외단기연수 파견(IPC)	

(표 6-32)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연번	시도	연계대학	기간	교육시간	수료인원(명)
	계				337
1	서울	한국체대	8. 4(월)~8.14(목)/8일간	60H(이론40H,실기20H)	104

연번	시도	연계대학	기간	교육시간	수료인원(명)
2	충남	단국대	8.18(월)~8.29(금)/15일간	62H(이론42H,실기20H)	69
3	경기	용인대	8.11(월)~8.22(금)/12일간	65H(이론44H,실기21H)	39
4	부산	신라대	8.11(월)~8.22(금)/12일간	63H(이론42H,실기21H)	71
5	광주	호남대	8.11(월)~8.27(수)/13일간	64H(이론44H,실기20H)	54

(표 6-33) 국제심판·등급분류사 양성사업

구분	계	휠체어농구		탁구		휠체어력비		골프	
		등급	심판	등급	심판	등급	심판	등급	심판
인원(명)	180	20	15	20	20	15	10	30	50

제4절 과제 및 발전 방안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법적 기반 아래 16개 시·도지부 설립 완료 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된 시점에서 다양한 생활체육사업 확대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와 지속적인 참여율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의 종합 13위 달성과 2009년 10월 완공되는 이천장애인체육종합시설은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꾸준한 발전과정과 미래로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과 같은 법적 기반 아래 우리나라 장애인의 원활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앞으로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에 기초하여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1)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3)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 지원 (5) 전통종목 육성 (6) 장애인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 (7)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8)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9)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대축전 참가 (10) 장애인 체육동호인 대회 지원 (11)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12) 종목별 장애인생활체육 축제 (13)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14) 시·도주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1)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지원 (2) 장애인 국제체육 교류 지원 (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4)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지원 (5) 시·도장애인체육회 지원 (6) 장애인 후보선수 지원 (7) 장애인 국제체육대회 개최지원 (8) 장애인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등의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국제교류 분야에서는 (1)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운영 지원 (2) 국제장애인스포츠 교류 등의 협력적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다.

특히, 2009년에는 국가차원의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 지방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2) 지방 장애인 체육행정 실무자 교육 (3) 시·도주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4) 장애인체육용 휠체어리프트장착 특장차량 구입지원 (5)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 시설 개선 추진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제7장 체육시설

제1절 개 관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제4절 태권도공원 조성

제5절 과제 및 발전방안

제1절 개 관

1. 체육시설의 개념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의 터전으로써 운동을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의 필수요건이며, 체육활동 참여에의 강력한 유인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체육시설을 통해 인간은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게 되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기도 한다. 인간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체육시설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이자 직접생산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체육시설은 학문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포괄적으로는 ‘운동에 필요한 물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인공적으로 정비한 시설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로 정의함으로써 운동장으로서의 공간적 개념 뿐 아니라 용구와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까지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반면, 협의의 개념으로는 ‘운동학습을 위한 각종의 장소’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공간적 개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효과적이며, 보다 쾌활하고, 적합하며, 안전한 운동활동을 전제로 설치·관리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물적 환경’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법적 개념은 ‘건전한 신체·정신 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운동의 개념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체시법시행령 별표 1에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운동종목과 체육시설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

2. 체육시설의 종류

체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은 체육시설을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운동종목에 따라서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등 45개의 시설과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형태별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운동종목과 시설형태별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의 (표 7-1)과 같다.

또한, 설치주체나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1994년 체시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체시법은 공공체육시설을 시설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목적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체시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체시법시행령 제3조).

(표 7-1) 운동종목별·시설형태별 체육시설의 종류

구 분	체 육 시 설 의 종 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출처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시·군·구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읍·면·동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체시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체시법시행규칙 별표2)〉

1. 시·군·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2.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팅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의 장이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로서, 상시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 이상인 직장에는 체시법시행령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체시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체시법 제8조는 이상 세 가지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경기대회 개최와 직장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함으로써, 공적 이용이라는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명백히 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표 7-2)와 같다.

(표 7-2)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수)

종목	시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계		12,342	2,172	539	290	447	239	274	209	2,360	846	457	675	786	807	929	1,099	213
육상경기장		187	3	3	3	2	3	2	3	30	22	13	13	13	18	21	26	12
축구경기장		467	53	15	15	12	6	10	14	100	28	11	8	41	35	28	77	14
하키장		11	1	1	1	1	-	-	-	2	1	1	1	-	-	1	1	-
야구장		51	8	2	3	1	1	1	-	9	5	3	-	2	3	5	6	2
사이클경기장		11	1	1	1	1	-	1	-	1	1	1	-	1	1	-	1	-
테니스장		428	51	4	14	4	9	5	1	90	45	17	25	39	41	28	53	4
씨름장		28	-	1	1	-	-	1	1	5	3	-	-	4	2	6	3	1
간이운동장 (동네체육시설)		9,531	1,814	477	218	389	189	215	171	1,886	560	330	458	527	595	765	794	143
체육관		529	100	15	13	12	14	16	5	90	41	26	25	37	35	32	48	20
수영장		427	1	-	1	2	2	2	4	41	77	20	116	88	27	4	31	11
롤러스케이팅장		243	87	2	11	7	6	13	4	42	11	6	4	12	8	14	14	2
사격장		100	17	9	2	7	1	2	1	14	6	8	4	5	4	6	13	1
국궁장		21	-	1	1	1	-	-	1	1	4	2	1	1	2	4	2	-
양궁장		205	8	2	3	7	2	3	3	35	29	13	19	12	32	11	24	2

종목 \ 시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승마장	17	1	11	2	1	1	1	1	3	2	2	-	-	1	1	-	-
골프연습장	12	1	2	2	-	1	1	-	1	2	-	-	2	-	-	-	-
조정카누장	39	23	-	-	-	3	-	-	2	4	1	-	-	1	-	4	1
요트장	6	-	1	-	-	-	-	-	1	1	2	-	-	1	-	-	-
빙상장	9	-	1	-	-	-	-	-	1	1	1	1	1	1	1	1	-

※ 2008. 12월말 기준

민간체육시설은 체육단체·사회복지단체·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체육활동 또는 그 기관의 고유목적에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모든 비영리 체육시설과 개인·영리단체 또는 기업에서 영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모든 상업용 체육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체시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체육시설업”이라는 용어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은 당초 9개의 등록체육시설업과 11개의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5년 7월 29일 개정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로 되어 있는 등록체육시설업 중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등 6개 시설을 시·군·구 사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2006년 3월 24일 개정법률(법률 제7913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육성·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상기의 등록체육시설업에서 신고체육시설로 전환된 6개 업종을 포함 17개 신고체육시설업종 중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체육시설업은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 등에 따라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체육시설업 현황은 (표 7-3)과 같다.

(표 7-3) 전국 시·도별 체육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종목 \ 시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 계	38,664	8,568	2,482	1,646	2,178	1,074	1,132	749
등록시설계	332	-	5	2	4	-	2	3
골프장	311	-	5	2	4	-	2	3
스키장	19	-	-	-	-	-	-	-
자동차경주장	2	-	-	-	-	-	-	-
신고시설계	38,332	8,568	2,477	1,644	2,174	1,074	1,130	746
요트장	4	-	-	-	-	-	-	-
빙상장	38	8	5	3	1	1	2	-

제7장 체육시설

종 목 \ 시 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승마장	70	-	1	-	-	-	-	-
종합체육시설	203	81	16	10	2	5	6	2
수영장	606	67	31	23	20	14	20	18
체육도장	13,026	2,317	878	777	763	344	359	310
골프연습장	6,356	1,595	314	302	279	131	186	223
체력단련장	6,064	1,480	497	308	280	199	218	137
당구장	22,519	4,632	1,129	737	1,317	781	607	495
썰매장	135	5	-	2	3	2	2	1
무도장	53	18	1	-	3	-	-	-
무도학원	1,206	168	62	127	36	81	53	33

종 목 \ 시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 계	7,954	1,586	1,163	1,562	1,749	1,628	2,232	2,333	628
등록시설계	117	48	20	10	12	21	31	19	38
골프장	110	37	19	10	11	21	31	18	38
스키장	6	10	1	-	1	-	-	1	-
자동차경주장	1	1	-	-	-	-	-	-	-
신고시설계	7,837	1,538	1,143	1,552	1,737	1,607	2,201	2,314	590
요트장	-	-	-	-	-	1	-	2	1
빙상장	6	3	1	1	1	2	2	1	1
승마장	221	4	2	9	3	2	4	2	22
종합체육시설	50	1	3	3	5	3	12	3	1
수영장	165	50	19	33	18	30	37	40	21
체육도장	3,211	391	364	518	528	432	760	928	146
골프연습장	1,667	225	178	189	181	170	315	283	118
체력단련장	1,247	170	191	210	194	164	326	373	70
당구장	5,326	869	738	937	1,068	964	1,233	1,426	260
썰매장	36	29	10	10	6	8	10	10	1
무도장	22	-	1	-	-	1	3	2	2
무도학원	204	35	23	45	38	53	102	89	57

※ 2008. 12월말 기준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1. 체육시설 조성정책의 전개과정

우리 나라는 19세기 후반 서구교육의 도입과 이들이 세운 학교를 중심으로 육상, 축구, 야구, 병상 등의 스포츠가 소개되면서 체육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각급 학교의 운동장이 대표적인 체육시설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체육시설은 자연상태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1897년 2월 영어학교의 영국인 교사 허치슨(Hutchison)이 탁지부(현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학생들의 식비 예산 1,000원 중 일부를 운동장 확장과 운동기구 구입에 충당한 것을 적극적 체육시설 조성의 시작으로 하고 있다. 그 후 1923년 7월 전조선 육상경기대회 준비를 위하여 휘문의숙 교주(校主)인 민영휘(閔泳徽)가 계동궁 절반을 매입, 그 넓이를 측정한 후 경기장 한가운데 100m 직선코스를 만들고 주변에 333m의 트랙을 설치함으로써 처음으로 정규 육상경기시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춘 최초의 근대적 체육시설은 경성부가 1926년 건립한 경성운동장(현 동대문운동장)이며, 특히 1957년부터 전국체육대회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개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에 각종 경기장 시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서울운동장(1959)과 효창운동장(1959), 그리고 장충체육관(1960) 등이 건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체육은 1950년대까지는 민간부분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된 1960년대부터는 상당 부분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주도되어 왔다. 1962년 9월 법률 제1146호로 제정, 발효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육을 더 이상 학교와 교육의 영역만이 아닌 국민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하였고, 체육 진흥을 국가와 지방의 중요정책 요소로 명문화한 계기가 되었다.

1966년 우수선수 양성을 통한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로서 태릉선수촌이 세워졌고, 1970대 이후 전국의 주요 도시에 운동장, 체육관 등의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81년도에 서울올림픽 대회의 개최가 확정되고, 1982년 체육부가 발족한 데 이어 1986년 서울아

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1986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체육시설사업을 국고보조대상사업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1989년 3월 31일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권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체시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골프장, 스키장은 교통부, 수영장은 보사부, 체육도장은 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체육시설의 관리업무를 체육부로 일원화하여 체육지도자 배치와 이용자의 피해보상제를 마련하는 등 일반인들이 보다 싼 이용료로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올림픽 이후 정부는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15개 시·도에 건립되는 등 지역사회 체육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 수립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계획)'과 1993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은 체육시설 부분의 확대와 개선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되었다.

2.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계획)

정부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완수로 고조된 체육에 대한 관심을 생활체육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1990년 3월 3개년계획의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호돌이 계획은 생활체육진흥의 목표를 국민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국민·복지사회의 실현, 축적된 에너지의 합리적 활용을 통한 국가·사회발전의 가속화, 여가생활의 건전화를 통한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에 두고, 기본방향으로서 평생체육의 실현, 국민의 체력·정신력 강화를 통한 국력배양, 건전 여가생활 기회의 확대 등을 설정하였다.

체육시설부분에서는 신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민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운동장, 체육관 등 기본체육시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동계체육시설, 체육인 올림픽동산, 직장체육시설 등을 신규 확충 대상으로 하여, 민간투자 촉진, 체육시설 설치지역의 확대 등을 전략적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장화, 올림픽시설 활용, 직장체육시설 개방, 학교체육시설의 주민생활

체육장화 등의 실천 방안을 수립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3년~1997년)에서는 국민 전체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을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공급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부족한 동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의 기본체육시설로서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을 설치하고, 생활권체육시설인 동네체육시설, 종합체육회관, 구민문화체육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자연속의 체육시설인 체육공원 등의 집중적인 설치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열악한 동계체육시설을 확충하고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내빙상장, 실외빙상장, 스키점프대, 크로스컨트리 코스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8년~2002년)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수요에의 대응을 위해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 시·군·구별로 부족한 기본체육시설과 근린체육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체육시설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성과 복합 기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운동장, 체육관, 실내빙상장, 지방스포츠센터(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등의 체육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더불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체육활동 향유기회 확대, 시설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등 관리운영의 다양성 확대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2003년~2007년)은 참여, 분권,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 수립되었다. 체육시설 공급 수준이 체육활동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구체적 지표가 제시되었으며, 국민의 체육활동 수요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생활권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지역단위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게이트볼 경기장,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전문체육시설 부문에서는,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더불어 체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군 기본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지원, 관리·운영실적 우수 공공체육시설 인센티브 부여, 종목별 전문체육시설과 전국체전시설 등의 확보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주5일 근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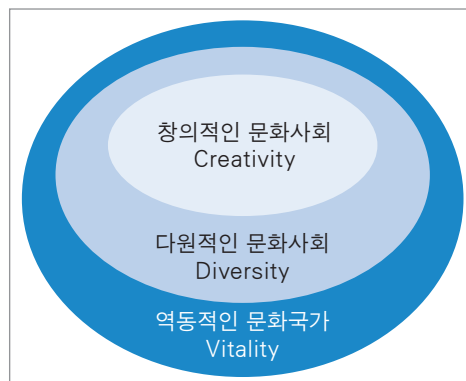
시행, 지방분권의 확대 등의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육시설 조성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4. 창의 한국

우리부는 참여 정부의 출범과 함께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실현 가능한 몇 가지 처방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문화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문화의 긍정적 잠재력을 사회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할 가치이자 이상인 문화비전을 수립할 것을 계획하였다. 문화비전은 2003년 7월말 문화비전추진반을 구성하고 2003년 8월에 착수하여 2004년 5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었으며, 2004년 6월 '창의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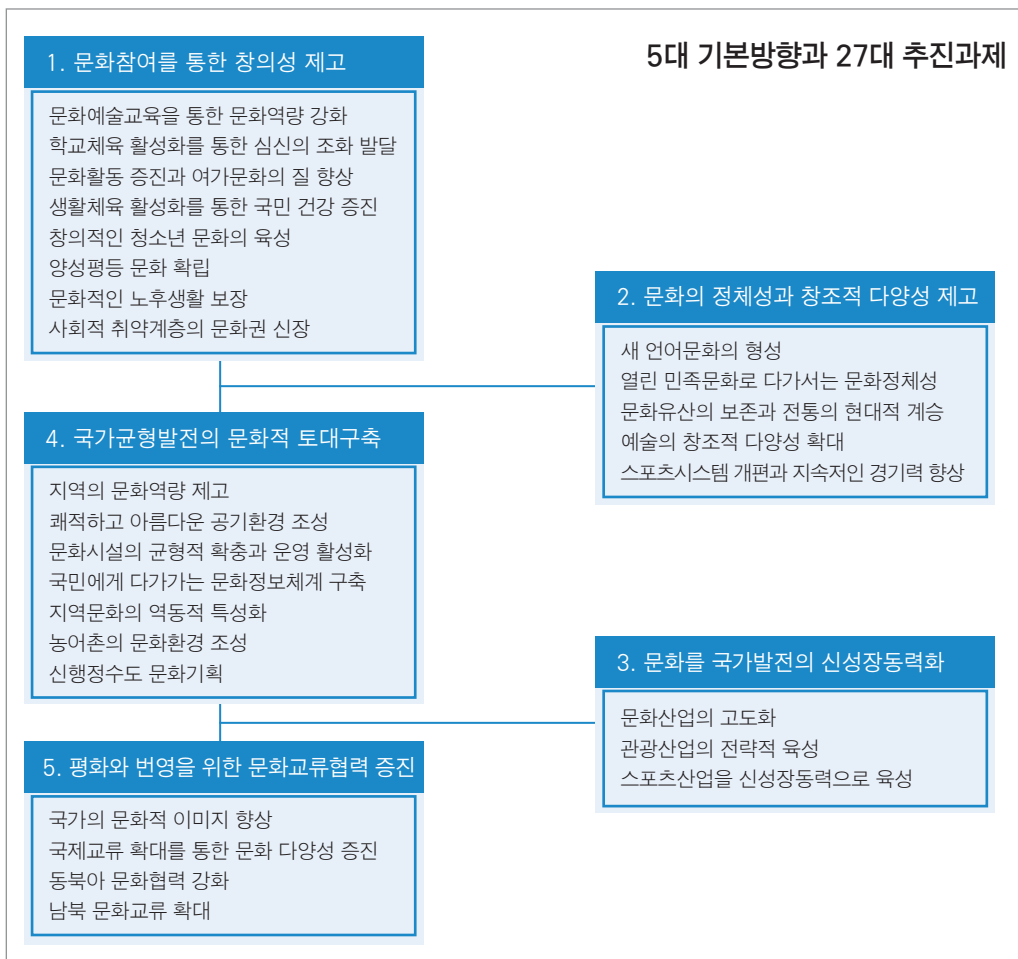
창의한국에서는 문화개념을 협의의 개념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광의의 문화개념에 기초하여 정책영역을 재편하였으며, 기존의 중산서민층 중심의 정책집행에서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 분석틀의 도입과 문화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소수자의 문화권까지 섬세하게 보장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의적 문화시민, 다원적 문화사회, 역동적 문화국가 등 3대 추진목표를 도출하고, 5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체육부문에서는 27대 과제 중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스포츠시스템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스포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등 4개 과제가 도출되었다.



〈그림 7-1〉 창의한국 3대 추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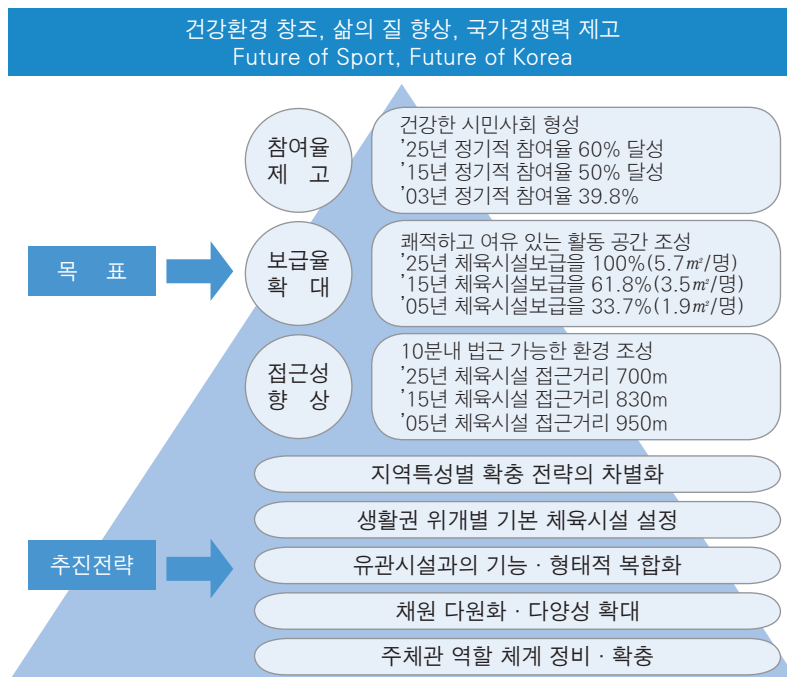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체육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학교체육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과제에 체육시설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수 부족과 다양성 미흡, 운동장의 축소와 기능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체육관, 수영장을 중심으로 학교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간이체육시설을 조성하며, 운동장 뿐 아니라 체육관 등도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학교운동장의 기능도 점차 개선하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7-2〉 창의한국 5대 기본방향 및 27대 추진과제

5.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우리부는 2006년 10월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하며, 2015년까지의 사업계획을 담은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은 건강환경의 창조,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제고를 미래 비전으로 하여 체육활동 참여율 제고, 체육시설 보급률 확대, 접근성 향상 등 3대 목표를 설정, 2025년까지 정기적 참여율 60%, 체육시설 보급률 100%, 체육시설 평균 접근거리 700m(시간거리 약 10분)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별 확충전략의 차별화, 생활권 위계별 기본체육시설 설정, 유관시설과의 기능적·형태적 복합화, 재원의 다원화 및 다양성 확대, 주체간 역할체계 정비 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적정 체육시설 면적을 5.7㎡로 규정하고, 체육시설 보급률 61.8%(3.5㎡/인), 참여율 50%, 접근거리 830m 등을 중기목표로 설정, 2015년까지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7-3〉 Sports Future 21 비전 체계도

5.7㎡/인은 월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자 비율이 75%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되었으며, 201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 3.5㎡(보급률 61.8%)는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클럽 활

동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되었다. 균형은 지역의 환경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체육시설 확충 전략을 차별화함으로써 지역간·계층간 체육서비스 접근기회를 균등히 제공함을 의미한다. 지역을 인문지리적 특성, 산업경제적 특성, 체육환경적 특성 등에 따라 10개의 유형으로 구분, 지역유형별로 공급주체, 상급정부의 보조, 시설의 배분 형태, 공급기준, 주요 공급시설의 종류를 차별화하여 제안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간단위를 생활권 단위로 구분, 각 생활권별 기본체육시설을 설정, 시설유형별 적정 입지, 개발방식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미래의 문화, 문화의 미래

미래문화 전략수립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각 분과별(미래전략,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2006년 12월 '미래의 문화, 문화의 미래'라는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활동 결과보고서는 우리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향후 우리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분야는 '체육으로 신명나는 사회'라는 제하에 미래환경에 걸맞는 국민체육진흥 모색,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분야 인력양성, 체육단체의 운영혁신, 학원스포츠 정상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전략으로서 국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체육시스템 선진화, 학원스포츠 정상화 등을 채택하였다.

비전달성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 각 과제별로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향,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국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4) 공공체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2008년도)

시 설 명		목 표	지원금액 지원기준	주 요 시 설	비 고
시군기본 체육시설	운동장	163개 시·군 1개소	· 국고, 지방비 각 50%	축구장, 육상트랙 등	균특회계
	체육관	163개 시·군 1개소	· 국고, 지방비 각 50%	구기가능 시설	균특회계
동 계 체 육 시 설 (실내빙상장)		163개 시·도별 1개소 (서울·경기 2개소)	· 국고, 지방비 각 50%	피겨,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종목 가능 시설	균특회계
종목별체육시설		지자체 필요 체육시설	· 국고, 지방비 각 50%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승마 장, 하키장, 씨름장, 양궁장 등	균특회계
체육시설리모델링		노후 체육시설 현대화	· 국고, 지방비 각 50%	1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운동장, 체육관 등) 리모델링	균특회계
전 국 체 전 시 설		전국체전 개최지역 미보유(규격미달) 시설	· 국고, 지방비 각 50%	미보유하거나 규격 미달로 신규 건설이 필요한 시설 등	일반회계
생 활 체 육 공 원		전국 232개 시·군·구에 1개소	· 국고, 지방비 각 50%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실외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산책 로, 휴게실, 녹지공간 등	균특회계
국 민 체 육 센 터		시·군·구 단위에 1개 소 건립(올림픽 생활관 등 건립지 포함)	· 개소당 30억원 · 체육진흥기금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민간스포츠클럽수준 의 각종 체육시설 등	균특회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8. 9)으로 생활체육공원 및 노인건강체육시설은 국고 기준보조율이 50%, 그 외 지방체육시설 등은 30%로 조정됨

시 설 명	목 표	지원금액 지원기준	주 요 시 설	비 고
국 민 체 육 센터	전국 232개 시·군·구 별 1개소 건립	· 개소당 30억원 내외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민간스포츠크터 수준의 종합 체육시설	체육기금
운 동 장 생 활 체 육 시 설	초·중·고·대학교 및 공설운동장(토사) 중심 지속 추진	· 개소당 3.5억원 · 기금 3.5억, 지방비 1.5억	운동장, 트랙, 야간조명시설 등	체육기금
농 어 촌 복 합 체 육 시 설	읍·면지역 대상	· 개소당 7.5억원 · 기금 26.6%~80% 지방비 20%~73.4%	다목적 구장, 실내형 복합시설 (커뮤니티센터, 운동센터)	체육기금
길 거 리 농 구 대 (농 구 장)	2000년 종료	· 개소당 20백만원 · 기금, 지방비 각 50%	농구장 등	체육기금
동 네 운 동 장	2001년 종료	· 개소당 10~20백만원 · 기금, 지방비 50%	잔디운동장, 우레탄시설	체육기금
게 이 트 볼 전 용 경 기 장	16개 시·도별 1개소 (2006년 종료)	· 개소당 5억원 · 기금, 지방비 각 50%	게이트볼전용구장, 1개소 10면	체육기금
족 구 장	16개 시·도별 1개소 (2007년 종료)	· 개소당 1 또는 5억원 · 기금, 지방비 각 50%	족구전용경기장	체육기금
인 조 잔 디 구 장	초·중·고 (2008년 종료)	· 개소당 2.8억원 · 기금, 교육부 교부세 70%, 지방비 30%	인조잔디, 트랙 등	체육기금
마 을 단 위 생 활 체 육 시 설	전국 3,512개 읍·면·동 단위에 2개소 (2008년 종료)	· 개소당 10~20백만원 · 기금, 지방비 각 50%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등 간이운동시설, 체육단련기구,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등	체육기금

1. 전문체육시설

지방체육진흥을 위해 시·군 지역 기본체육시설의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 여가공간 마련 및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다양한 전문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군 기본체육시설과 종목별 전문체육시설,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 등의 신규 조성사업,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0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7장 체육시설

1) 운동장

운동장은 2008년 현재 총 140개 시·군에서 확보하여 85%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충남 아산 등 8개소에 142억원이 지원되었다. 국고 지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며, 지원규모는 자치단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책정되고 있다.

(표 7-5) 연도별·지역별 운동장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확보 대상	미 확보	확보	'82~'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지원	자체								
합 계	163	23	140	129	116	13	1	1	1	4	2	1	3	-
부 산	1	1	0	0	0	0	-	-	-	-	-	-	-	-
대 구	1	1	0	0	0	0	-	-	-	-	-	-	-	-
인 천	2	2	0	0	0	0	-	-	-	-	-	-	-	-
울 산	1	1	0	0	0	0	-	-	-	-	-	-	-	-
경 기	31	8	23	22	20	2	-	-	-	-	하남	-	-	-
강 원	18	1	17	17	17	0	-	-	-	-	-	-	-	-
충 북	12	1	11	11	9	2	-	-	-	-	-	-	-	-
충 남	16	4	12	10	10	0	부여	-	-	아산	-	-	-	-
전 북	14	0	14	12	11	1	-	임실	-	순창	-	-	-	-
전 남	22	1	21	17	16	1	-	-	구례	무안				
나 주	-	-	신안	-										
경 북	23	3	20	18	15	3	-	-	-	-	-	-	울릉 경산	-
경 남	20	0	20	20	16	4	-	-	-	-	마산 (기보유)	-	-	-
제 주	2	0	2	2	2	0	-	-	-	-	남제주 (기보유)	-	-	-

2) 체육관

체육관은 2008년 현재 총 130개 시·군에서 확보하여 79%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경기 광주 등 8개소에 101.5억원이 지원되었고 신규사업으로 대구 등 11개소에 101억원이 지원 되었다. 국고 지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며, 지원규모는 자치단

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책정되고 있다.

(표 7-6) 연도별·지역별 체육관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확보 대상	미확 보	확보	'82~'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지원	자체									
합 계	163	33	130	107	87	20	3	2	1	1	1	5	0	9	
부산(기장)	1	0	1	1	0	1	-	-	-	-	-	-	-	남구 (미대상)	
대구(달성)	1	0	1	1	1	0	-	-	-	-	-	-	-		대구 (미대상)
인천(강화옹진)	2	1	1	1	0	1	-	-	-	-	-	-	-		
울산(울주)	1	0	1	1	1	0	-	-	-	-	-	-	-		
경 기	31	3	28	24	18	6	-	-	-	-	-	하남	-	광주 의왕 안양	
강 원	18	1	17	13	11	2	-	고성	양구	-	-	영월 철원	-		원주 (기확보)
충 북	12	5	7	5	4	1	-	-	-	단양		영동	-		청주
충 남	16	4	12	9	9	-	당진	-	-	-	-	-	-	계룡 예산	
전 북	14	3	11	9	8	1	-	-	-	-	-	-	-	부안 남원 익산 (기확보)	장수
전 남	22	7	15	10	8	2	구례 진도	신안	-	-	-	담양	-		장흥 고흥 화순 영암
경 북	23	8	15	14	11	3	-	-	-	-	-	김천 (기보유)	-	경산	영천 상주
경 남	20	1	19	17	14	3	-	-	-	-	남해	-	-	함안	진주
제 주	2	0	2	2	2	0	-	-	-	-	-	-	-	추자 우도 (기확보)	

※ 2000년 이후 신규 지원 시·군이며, '03년부터 학교체육관은 통계자료에서 제외

3) 종목별 전문체육시설

종목별 전문체육시설은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전문경기장 및 전지훈련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제7장 체육시설

되고 있다. 2003년 15억원, 2004년 54.5억원, 2005년 65억원, 2006년 311.7억원, 2007년 421.9억원, 2008년에 계속사업 포함 35개시설에 419억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었다. 2008년의 지역별 전문체육시설 조성사업 지원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7) 지역별 전문체육시설 지원실적

(단위 : 개소수, 백만원)

지 역	시 설	지 원 금	비 고
인 천	인천대공원체육시설(축구장)	500	인천
광 주	첨단테니스장 조성	210	광산
대 전	수영장	840	대전
	롤러장	600	대전
경 기	축구장	108	양평
강 원	스키점프경기장	20,850	강원(평창)
	크로스컨트리경기장	1,900	강원(평창)
	종목별경기장	600	원주
	인조잔디야구장	500	속초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400	평창
	사이클경기장	1,700	양양
	카누슬라럼경기장	400	화천
충 북	인조잔디운동장	240	진천
충 남	보조축구장	270	계룡
전 북	인공암벽장	255	익산
	인조잔디구장	330	장수
전 남	실내수영장	350	목포
	배구보조경기장	300	목포
	실내수영장	500	광양
	웨이트트레이닝센터	500	나주
	축구보조구장	500	고흥
	국민에코스포츠시설	1,000	보성
	궁도장	300	진도
	하키장	300	담양
	국궁장	300	장성
경 북	축구장	270	예천
경 남	통영스포츠파크	300	통영
	거창스포츠파크	3,958	거창
	거제스포츠파크	200	거제
	시립테니스장	1,106	마산
	승마장	300	함안

지 역	시 설	지 원 금	비 고
제 주	남부전지훈련센터	1,000	제주
	전천후게이트볼장	240	제주
	전지훈련장 조성	400	제주
	축구장 조성	400	제주
계	35개소	41,929	

4) 전국체전시설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치 시·도의 미보유(규격미달 등) 경기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8년에는 전남 21개소에 117억원, 대전 1개소에 68억원, 경남 1개소 50억원, 경기 1개소 30억원 등 총 265억원이 일반회계로 지원되었다.

(표 7-8) 전국체전시설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개최년도	지 역	지원금액	지 원 대 상
'82	경 남	1,200	마산야구장(1,200)
'83	인 천	200	종합운동장(200)
'84	대 구	2,000	종합운동장(500), 수영장(1,500)
'85	강 원	4,500	춘천종합운동장(3,000), 벨로드롬(500), 원주운동장(500), 강릉운동장(500)
'87	광주·전남	7,000	광주체육관(2,800), 목포운동장(400), 체육관(600), 수영장(1,700), 나주사격장(700), 벨로드롬(800)
'89	경 기	3,000	성남로울러장(300), 의정부벨로드롬(700), 안양수영장(2,000)
'90	충 북	7,000	청주수영장(3,600), 로울러장(1,430), 궁도장(170), 사격장(1,100), 음성벨로드롬(600)
'91	전 북	8,000	전주수영장(2,500), 벨로드롬(1,500), 롤러스케이트장(1,000), 승마장(500), 군산체육관(1,500), 이리운동장(1,000)
'92	대 구	3,843	사격장(360), 로울러장(1,010), 다이빙장(250), 테니스장(505), 승마장(1,168), 궁도장(300), 조정카누장(250)
'93	광 주	4,000	수영장(4,000)
'94	대 전	4,913	수영장(2,736), 벨로드롬(2,177)
'98	제 주	5,500	제주체육관 4개소(2,300), 동흥, 조천, 한경, 안덕, 표선체육관(2,000), 서귀포궁도장(600), 서귀포테니스장(600)
'01	충 남	14,537	천안종합운동장(12,750), 천안실내체육관(750), 보령요트장(750), 예산운동장(500)

제7장 체육시설

개최년도	지 역	지원금액	지 원 대 상
'02	제 주	2,500	제주시 주경기장 및 야구장보수(1,250), 서귀포 롤러스케이팅장(750), 제주유도체육관(500)
'03	전 북	19,200	전북임실도립사격장(6,000), 전주실내수영장(11,200), 전주롤러스케이팅장(1,000), 부안요트장(1,000)
'04	충 북	12,100	청주운동장(2,500), 청주유도회관(2,000), 청주다이빙장(1,000), 충주체육관(2,500), 충주요트장(500), 제천하키장(1,100), 제천정구장(500), 진천운동장(1,500), 진천카누장(500)
'05	울 산	31,100	종합운동장(17,000), 수영장(11,000), 테니스장(1,000), 롤러스케이팅장(1,400), 사격장(700)
'06	경 북	15,000	실내수영장(2,800), 실내체육관(7,550), 테니스장(900), 롤러스케이팅장(710), 종합운동장 조명탑(670), 태권도경기장(1,500), 종합스포츠센터(870)
'07	광 주	14,200	핸드볼경기장(4,877), 정구장(349), 하키장(500), 사격장(475), 월드컵경기장증축(1,724), 수영장보수(1,800), 태권도장보수(1,768), 승마장보수 등 10개소(2,707)
'08	전 남	23,000	사격장(3,967), 나주인라인롤러장(1,905), 여수종합경기장보수(7,387), 망마경기장보수(2,797), 목포하키장(1,316), 목포수영장보수(1,181), 사이클경기장 보수 등 18개소(4,437)

5)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변화된 체육환경에 부응하고, 기존시설의 활용도 증대를 목적으로 노후한 운동장, 체육관 등에 대한 지방체육시설의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2005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40개 사업에 297억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었다.

(표 7-9)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소수, 백만원)

지 역	시 설	지원금	비 고
대 구	만촌사이클경기장	900	대구
	대구체육관	1,020	대구
광 주	상무시민공원축구장	240	서구
대 전	전국체전시설	1,500	대전
	국민생활관	503	대전

지 역	시 설	지원금	비 고
울 산	문수국제양궁장	1,380	남구
경 기	생활체육시설	300	의왕
	축구장테니스장	600	파주
	원시운동장	782	안산
	운동장	795	연천
강 원	운동장	1,000	동해
	운동장	300	인제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2,350	강릉
충 북	탄금축구장	600	충주
	종합운동장	600	옥천
	체육시설	488	제천
	종합운동장	894	제천
충 남	운동장	2,000	청양
전 북	조명타워	400	군산
전 남	수영장	350	목포
	운동장 트랙정비	200	여수
	진남체육공원 정비	2,959	여수
	실내체육관	200	광양
	종합사격장	750	전남
	운동장/체육관	400	영암
	운동장우레탄트랙	230	함평
	테니스장	100	해남
	우슬체육관	200	해남
	운동장	350	영광
	운동장	500	완도
	경 북	야구장	3,000
체육관		400	문경
경 남	하키경기장	300	김해
	운동장	340	하동
	운동장	470	합천
	운동장	605	진주
	사천운동장	400	사천
	삼천포운동장	300	사천
	운동장	330	함양
	운동장	640	산청
계	40개시설	29,677	

2.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공간 확충은 지역주민이 집 주변에서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신규시설의 적극적 조성 및 기존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마을단위체육시설, 운동장생활체육시설(구 천연잔디구장 및 우레탄 시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등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1) 국민체육센터 확충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여 서민 체육공간을 확충, 사회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복지에 환원, 생활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건립하여 체육서비스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7-10)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건립 지원 현황

구분	계		국민생활관('89)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량	금액												
계	124	3,809	15개 (450)	3개 (180)	17개 (516)	5개 (142)	7개 (210)	10개 (300)	13개 (390)	16개 (480)	12개 (360)	6개 (180)	7개 (210)	13개 (390)
서울	3	150	종로 (30)	강서 (90)	-	-	-	성동 (30)	-	-	-	-	-	-
부산	7	216.5	해운대 (30)	-	서구 (37.5)	-	-	사하 (30)	금정 (30)	영도 (30)	-	남구 (30)	-	기장 (29)
대구	5	157.5	달서 (30)	-	동구 (37.5)	-	-	-	경북대 (30)	달서 (30)	서구 (30)	-	-	-
인천	5	157.5	남동 (30)	-	계양 (37.5)	-	부평 (30)	-	남동 (30)	서구 (30)	-	-	-	-
광주	5	157.5	서구 (30)	-	광산 (37.5)	-	서구 (30)	-	북구 (30)	남구 (30)	-	-	-	-
대전	5	142	서구 (30)	-	유성 (22)	-	-	서구 (30)	-	-	대덕 (30)	-	-	중구 (30)
울산	4	119	-	-	중구 (30)	-	동구 (30)	-	-	-	북구 (30)	-	-	남구 (29)
경기	13	387	안산 (30)	-	의왕 (30) 부천 (30)	-	-	광명 (30) 평택 (30)	가평 (30)	시흥 (30) 하남 (30)	화성 (30) 오산 (30)	-	양평 (29)	포천 (29) 안성 (29)

구분	계		국민생활관('89)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량	금액												
강원	11	329	춘천(30)	-	춘천(30)	원주(30)	-	-	고성(30)	인제(30) 동해(30)	강릉(30)	평창(30)	태백(28)	속초(30) 횡성(31)
충북	8	255	청주(30)	제천(45)	-	충주(30)	-	보은(30)	청원(30)	음성(30)	증평(30)	-	영동(30)	-
충남	10	300	아산(30)	-	천안(30)	공주대(30)	금산(30)	연기(30)	서산(30)	보령(30)	논산(30)	서천(30)	-	태안(30)
전북	9	287	익산(30)	익산(45)	-	전주(30)	군산(30)	정읍(30)	완주(30)	남원(30)	장수(30)	-	-	부안(32)
전남	12	365	순천(30)	-	강진(30) 목포(30)	-	무안(30)	-	영광(30) 곡성(30)	나주(30)	해남(30)	구례(30)	진도(36) 여수(27)	장흥(32)
경북	11	321	구미(30)	-	영주(30) 군위(22)	-	-	문경(30) 경주(30)	안동(30)	포항(30)	상주(30)	경산(30)	청도(30)	칠곡(29)
경남	11	323	마산(30)	-	진해(30) 밀양(22)	-	함안(30)	-	의령(30)	양산(30) 진주(30)	거제(30)	거창(30)	김해(30)	통영(31)
제주	5	142	서귀포(30)	-	제주(30)	서귀포(22)	-	-	-	북제주(30)	-	-	-	남제주(30)

※완공지역(78개소) : 서울(강서, 성동, 종로) 부산(서구, 사하, 금정, 해운대) 대구(동구, 경북대, 달서2) 인천(계양, 부평, 남동2) 광주(광산, 서구2, 전남대) 대전(유성, 서구2) 울산(중구, 동구) 경기(의왕, 부천, 평택, 시흥, 하남, 가평, 광명, 안산) 강원(춘천2, 원주, 고성, 동해) 충북(청주, 제천, 충주, 보은, 청원, 증평) 충남(아산, 천안, 공주대, 금산, 연기, 서산, 보령) 전북(익산2, 전주, 군산, 정읍, 완주, 남원) 전남(순천, 강진, 목포, 영광, 곡성, 해남) 경북(구미, 영주, 군위, 문경, 경주, 안동대) 경남(마산, 밀양, 진해, 함안, 의령) 제주(제주, 서귀포2, 북제주)

1997년의 지방스포츠크터로부터 출발하여 1999년에는 보급형스포츠크터로, 다시 2001년부터는 국민체육센터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생활체육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도별로 각 1개소씩 연차적으로 착공, 2001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2001년 8월 문화관광부의 '생활체육활성화 대책'에서는 일반 대중이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형 종합 체육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시·구 단위에 각 1개소씩 기존의 35개소를 포함하여 85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목표를 확대하였으며, 다시 시군구에 각 1개소씩 건립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 시행주체가 된다. 2008년

현재 78개소가 건설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46개소는 건설 또는 사업추진 중에 있다. 2008년에는 13개 시·군·구에 기금지원이 결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39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형(4레인×25m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력측정실 등), 체육관복합(기본형+체육관), 다목적 체육관형(체육관복합형에서 수영장 제외) 등 3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지원되고 있다.

2) 생활체육공원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 선진국형의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휴식과 체육,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서는 전국 시·도 단위 별로 각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 후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발표된 '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소씩 확보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7개소에 대한 사업이 착수되었고, 2008년까지 총 143개소에 지원되었다. 2008년에는 25개사업(신규 15, 계속 10)에 140억원이 지원되었다.

(표 7-11) 생활체육공원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소)

시·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서울	-	-	-	-	-	-	-	-	-	-
부산	1	-	-	-	-	기장	-	-	-	-
대구	3	-	-	-	-	달서구, 남구	-	-	-	달성
인천	2	-	-	-	남동, 계양	-	-	-	-	-
광주	6	-	-	-	서구, 북구, 광산	남구, 동구	-	-	-	본청
대전	1	-	-	-	-	-	대덕구	-	-	-
울산	4	-	-	-	북구	중구	울주군	-	-	남구
경기	22	-	과천	가평, 양평	안양, 수원, 평택	용인, 부천, 여주, 시흥	연천, 양주, 김포	이천, 가평, 수원, 광주	동두천, 양주, 포천, 구리	양평
강원	12	화천	-	평창, 고성, 정선	인제, 홍천, 횡성	철원, 춘천	동해	영월	-	원주
충북	10	-	충주	제천, 단양, 진천	옥천	청주, 음성	-	청원, 보은	충주	-
충남	10	부여	-	금산	당진	연기, 천안, 아산	계룡, 홍성, 논산	-	태안	-

시·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 북	12	익산, 진안	-	전주, 순창	완주, 장수 정읍, 임실	무주, 고창	-	김제	-	완주
전 남	19	광 양	해 남	목포, 곡성	담양, 함평 화순	무안, 순천 신안, 고흥	완도	장흥, 강진	목포, 영광	신안, 곡성 보성
경 북	16	안 동	-	영주, 영덕 봉화	고령, 군위	상주, 울진 경주, 청송	예천	문경, 경산	-	포항, 의성 안동
경 남	20	김 해	진 주	진해, 밀양 함안, 함천 거창	하동, 거제	통영, 고성 남해, 산청	사천, 의령, 함양	-	고성	진해, 양산 창녕
제 주	5	-	제 주	-	서귀포	북제주	-	제주(2)	북제주	-
계	143	7	5	21	26	32	14	13	10	15

3)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

「2006년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에 의하면 운동을 하고 싶으나 시설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읍/면 이하의 경우와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의 체육시설 확충이 대부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편중되어 왔다는 사실을 볼 때 생활체육 활성화 및 균등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읍/면 단위이하의 체육시설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 한국마사회 경마수익금으로 지원되던 농어민문화체육센터(2004년 종료)의 대안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체육서비스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전국 읍·면·동 지역을 서비스 영역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복지에 폭 넓게 환원함과 동시에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농어촌 체육복지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도·농간 격차 완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의 균형발전 도모 및 국민 체육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말 현재 5개소가 건설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16개소가 건설 및 사업 추진중에 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이며, 2009년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하여 확대여부 등 합리적 시행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3가지 모델을 개발(주요시설 : 레크리에이션센터, 커뮤니티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 등) 하여 지원되고 있다.

(표 7-12)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 : 지원금액 (단위: 개/억원)

시·도	개소수	2006년도 지원지역	2007년도 지원지역	2008년도 지원지역
서울	-	-	-	-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경기	5	남양주(3.5), 포천(5)	양주(5), 여주(5)	파주(5)
강원	2	삼척(6)	-	영월(6)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2	순창(5)	-	정읍(5)
전남	4	고흥(6)	영암군(6)	강진(4.5), 신안(6)
경북	4	-	구미(4.5), 포항(5), 영주(6)	봉화(6)
경남	4	사천(6), 산청(6)	하동(6)	창녕(4.5)
제주	-	-	-	-
계	21 (112.5)	7 (37.5)	7 (37.5)	7 (37.5)

4)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1990년부터 동네체육시설 이란 사업으로 전국 읍·면·동 단위에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2002년부터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여 전국 3,571개(2004년 1월1일 현재) 읍·면·동 단위에 2~3개소 설치를 목표로 등산로, 약수터, 마을공터 등 인근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소규모 간이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2년에 150개소, 2003년에는 162개소, 2004년 154개소, 2005년 127개소, 2006년도 163개소, 2007년도 142개소, 2008년 150개소 등 현재까지 총 5,432개소에 지원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7-1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소수)

시·도	계	'96까지	'97년	'98년	'99년	'00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서울	872	576	12	34	64	64	5	18	16	13	39	14	17
부산	318	204	32	7	7	11	2	6	9	9	10	8	13
대구	145	93	4	-	-	21	1	3	5	5	4	4	5
인천	255	159	27	-	6	22	2	3	7	4	10	4	11
광주	108	53	11	-	9	-	6	6	3	7	1	3	9
대전	157	81	14	13	12	6	4	6	3	5	5	3	5
울산	105	-	50	12	9	6	9	5	3	2	2	5	2
경기	946	365	134	85	163	81	15	15	24	15	15	15	19
강원	265	140	-	23	14	21	13	7	9	7	12	10	9
충북	201	89	18	11	9	28	13	5	7	5	5	6	5
충남	248	131	9	15	15	15	10	19	9	5	8	9	3
전북	325	205	9	12	11	7	14	9	12	12	12	13	9
전남	457	186	28	65	19	36	26	21	14	14	14	15	19
경북	396	160	21	54	33	33	12	14	16	10	15	16	12
경남	540	279	17	61	36	56	14	18	14	11	10	14	10
제주	94	44	9	1	9	8	4	7	3	3	1	3	2
계	5,432	2,765	395	393	416	415	150	162	154	127	163	142	150

5) 운동장 생활체육시설(구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학교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전문체육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국민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축구발전종합대책('97.9)과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2)에 의거 추진되었다. 1998년부터 공설운동장과 학교 운동장을 대상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 공설운동장 35개소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였다. 2000년부터 천연잔디구장과 잔디·우레탄 설치 지원사업으로 이원화 되었으며, 2003년에는 종합운동장 조성지원사업, 2004년부터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지원사업이 추가되었다. 2005년에는 사업명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로 개칭, 전국의 초·중·고·대학교와 공설운동장의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도에 평가(정량적, 정성적)를 통하여 초·중·고교 운동장 117개소, 대학(교) 13개소, 지자체 8개소, 특수 2개소, 특히, 북한 청소년 축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체육교류협회 지원(능라도 내 청도년 전용축구장)을 포함, 총141개소에 지

제7장 체육시설

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초·중·고교 운동장 85개소, 대학(교)5, 특수 4개소, 지자체 14개소 총 108개소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79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표 7-14)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소수)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천연잔디구장	'98	37	-	1	-	-	2	-	-	5	4	3	1	4	3	7	6	1
	'99	34	-	1	1	-	2	1	1	2	2	2	2	6	5	4	3	2
	'00	13	1	-	-	-	-	-	-	1	2	-	-	1	2	1	3	2
	'01	11	-	-	1	-	-	-	-	1	2	1	-	1	2	-	1	2
	합계	95	1	2	2	--	4	1	1	9	10	6	3	12	12	12	13	7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공잔디생활체육시설 ^잔디구장 ▽레탄	'00	13	5	1	-	-	-	1	-	-	1	-	-	2	1	-	1	1
	'01	50	6	2	2	1	2	3	1	9	2	2	4	5	2	4	3	2
	'02	55	4	2	4	2	2	2	2	9	3	2	3	6	3	5	4	2
	'03	109	12	12	8	3	5	4	4	10	5	4	6	6	7	9	11	3
	'04	104	11	13	8	4	5	4	3	9	4	6	6	5	6	9	9	2
	'05	116	10	11	8	4	6	5	5	11	6	6	7	6	8	10	9	4
	'06	100	12	10	6	3	4	4	3	13	3	4	5	6	5	8	10	4
	'07	141	16	14	8	6	6	5	4	18	9	5	8	5	10	12	12	3
	'08	108	10	10	7	5	4	5	4	16	5	5	6	4	8	8	9	2
	합계	796	76	65	44	23	30	28	22	79	33	29	39	41	42	57	59	21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6)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4강 진입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축구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 전국적인 축구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월드컵 잉여금 1,690억원 중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650억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전입되었다(2003년 6월).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은 축구센터(Football Center)와 축구공원(Football Park)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에 축구센터 3개소, 축구공원 14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축구센터는 충북 천안, 전남 목포, 경남 창원에 건립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2004년 12월). 축구공원은 대도시의 부지 확보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분리 조성이 가능토록 함에 따라 서울 3개소, 부산 기장,

대구 2개소, 인천 연수, 광주 3개소, 대전 4개소, 울산 울주, 경기 2개소, 강원 강릉, 충북 청주, 전북 익산, 경북 2개소, 제주 서귀포 등 총 23개소에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말 현재 축구센터는 천안이 완공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목포('09.6월 완공예정), 창원('09.10월 완공예정)은 공사 진행중에 있다. 축구공원은 16개소가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7개소는 공사중(부산 기장, 인천, 광주 광산, 대전 서구, 경기 가평, 강원 강릉, 전북 익산)에 있다

(표 7-15)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개요

구 분	축구센터(Football Center)	축구공원(Football Park)
지 원 액	375억원(개소당 125억원)	275억원(개소당 19.6억원)
세부시설	· 천연잔디 2면, 인조잔디 3면 · 풋살 경기장 1개 · 하프돔 1개 · 숙박시설(120베드 이상) · 편의시설(교육연수, 체력단련 등)	· 인조잔디 3면 · 풋살 경기장 1면 · 편의시설(관리실, 라커룸, 화장실 등)
부지규모	5~6만평 이상	1.5~2만평 이상
후 보 지	중부·호남·영남권 각 1개소	13개 시·도(경기 2, 각 시·도 1) * F·C선정 시·도는 제외

7) 간이체육시설(농구장, 족구장)

(표 7-16) 간이체육시설(농구장, 족구장) 지원현황

(단위 : 개소수)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구대	'05	34	-	-	-	-	-	-	-	4	4	4	4	5	5	4	4	
	'06	13	-	-	-	-	-	-	-	3	2	1	2	1	2	1	1	
	'07	20	1	1	1	1	1	1	1	2	2	2	2	2	2	1	2	
	'08	20	-	-	1	1	1	-	-	2	3	-	1	2	3	1	2	3
	합 계	87	1	1	2	1	1	1	1	3	12	8	8	10	10	10	8	10
족구장	'05	-	-	-	-	-	-	-	-	-	-	-	-	-	-	-	-	
	'06	5	-	-	-	-	1	-	-	1	-	1	1	-	-	1	-	
	'07	-	-	-	-	-	-	-	-	-	-	-	-	-	-	-	-	
	합 계	5	-	-	-	-	1	-	-	1	-	1	1	-	-	1	-	

* 족구장 : 강원, 전북은 국제규격경기장이며, 2006년도 종료되었음

8)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대구 노인건강체육센터에 15억원, 강원 삼척 게이트볼장 2억원, 충남 서천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에 4.6억원, 충북 옥천 전천후게이트볼장 및 그라운드골프장에 2.5억원, 전남 장흥군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에 5억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었다.

(표 7-17)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소수, 백만원)

구분 (개소)	계		'04	'05	'06	'07	'08
	수량	금액					
계	8	5,350					
대구	2	2,050				달성군	대구
광주	1	1,000	남구	남구			
강원	1	200					삼척시
충북	1	250					옥천군
충남	1	1,000				서천군	서천군
전북	1	350		장수군			
전남	1	500					장흥군

3.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국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수와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의 수와 규모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 시설들이 국민의 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설치목적에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된다. 시설수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시설활용도와 만족도가 민간체육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부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설의 활용도 제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종합운동장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

운동장, 체육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 수 증가와 함께 이들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증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관련 재정부담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7-18)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수(2008.12월 현재)

(단위 : 개소수)

계	육상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로울러장	국궁장	기타
2,811	187	529	243	428	467	51	100	205	601

* 동네체육시설 제외

이에 정부에서는 종합운동장의 공간·기능적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고, 체육시설 고유의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익시설의 설치, 운영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시설활용도 제고와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건교부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04.12.3)하여 종합운동장 내 수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종래 수익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운동장의 규모가 100만 m^2 이상이거나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 경기장을 갖춘 체육시설에서 10만 m^2 이상이거나 3종목 이상의 국제규격 경기장을 갖춘 체육시설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약 2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 운동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지자체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강화

교육을 통한 경영마인드의 도입과 시설운영개선을 유도하고자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체육행정공무원 및 지방체육시설관리자 대상 교육에서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과목을 개설, 체육시설의 공간적, 시간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연간 약 80여명의 지방 체육행정공무원 및 체육시설 관리 실무자들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변화된 체육환경과 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실무를 이해함으로써 지방체육행정의 선진화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전문단체 위탁관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침 배포

이용자 편의 위주의 시설관리운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유희화 방지와 공공체육시설의 주민 화합 및 복지센터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단체 관리제도의 합리화 및 대안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시설관리전문단체의 민간위탁관리를 확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테니스장, 수영장, 국궁장, 승마장, 골프(연습)장, 빙상장 등은 전반적으로 위탁율이 높고 위탁여건이 성숙된 시설로 보이나, 육상경기장, 하키장, 싸이클경기장, 체육관, 요트장 등은 위탁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간이운동장을 제외한 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의 특성별로 관리운영 환경이 다르며, 이미 위탁여건이 성숙된 종목의 체육시설은 위탁단체를 통한 관리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공공부문에 경쟁력있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는 공공시설 상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건립취지나 정책 목적과는 괴리된 결과를 수반하는 우려도 있다. 가장 바람직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은 그것의 운영방법이 정부 직영이든 민간위탁·민영화가든 저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좋게 제공해주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시·도와 시·군·구 소유의 각종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시설로 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의 합리화,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책 개발과 운영, 시설보완 및 이용절차 간편화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운영의 합리화는 수영장, 테니스장, 국궁장 등 민간위탁 여건이 성숙된 체육시설의 경우 민간위탁관리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주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책의 개발과 운영은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지역체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둘째, 유희공간내 간이체육시설 설치 및 경기장을 각종 문화, 집회, 행사 등 지역주민의 이용에 적극 활용하며, 셋째, 체육시설의 다용도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체육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시설 보완 및 이용절차 간편화는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등의 경기장시설에 대한 이용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4절 태권도공원 조성

1. 태권도공원 조성의 의의

1) 태권도공원 조성의 배경 및 의의

태권도는 2008년 현재 세계적으로 5개의 지역연맹, 188개 가맹국, 약 7천 만 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했다. 가라데와 우슈 같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무도 종목뿐만 아니라, 영·미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 스포츠 종목과 비교해도 태권도와 같이 40여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사례는 근대체육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태권도가 단기간에 양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경기에 기초한 세계화 추진전략”(윤상화, 2005)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계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범의 해외진출을 통해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모든 역량을 외연확대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전 세계에 10만 개 이상의 태권도장이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의 디딤돌 역할을 해 왔다. 또한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10대 문화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미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 태권도는 이러한 해외 태권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비교할 때, 국내에서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해외 태권도계에서의 한국인의 비중 역시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기위주의 단순성과 무도 및 생활태권도로서의 기능약화, 태권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저하 등 국내적 요인과 이종격투기 등과 같은 각종 무술종목과의 경쟁심화 등 국외적 요인 때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와 관련하여 태권도는 중주국으로서의 문화원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은 중주국 태권도의 문화브랜드화를 통하여 21세기 문화강국으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세계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태권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고 1997년 7월 대한체육회의 태권도성전 건립 건의 등을 계기로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1999년 8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태권도 관련 시설물의 조성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2001년 9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3년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과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선정

태권도공원은 태권도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확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태권도인과 세계 태권도인들의 순례와 수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공원 개념에서 탈피하여 세계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와 관련된 교육·문화·연구개발 등의 다양한 기능적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갖추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2004년 5월 정부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개년 간 계획부지 70만평, 조성부지 20만평에 명예의 전당, 종주국 도장, 종합수련원 등의 공공투자 부문과 세계문화촌, 숙박촌, 전통한방요양원 등 민간투자 부문의 시설물을 2단계에 걸쳐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선정을 위하여 15개 분야 19명으로 구성된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와 11개 분야 총 13명으로 구성된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후보지 신청기간(2004. 10. 7~11. 6) 중 접수된 총 17개 지역(부산시 기장, 광주시 광산구, 인천시 강화, 경기도-양주·양평·여주·포천, 전북도-무주, 전남도-여수, 경북도-경주)을 심사한 결과, 1차적으로 3개 지역(춘천, 무주, 경주)을 선정한 후 2004년 12월 30일 전북 무주(설천면)를 태권도공원 조성부지로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경과

1)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준비단 발족

정부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5년 2월 14일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준비단'을 발족,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준비단은 단장 이외에 4급 1명, 5급 1명, 6~7급 2명, 업무보조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로드맵 수립, 태권도공원 해외홍보, 태권도공원 명칭공모,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민제안, 태권도공원 조성을 담당할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2)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홍보방안 마련

태권도공원조성추진준비단은 2005년 3월 세계태권도연맹 이상철(미국) 부총재, 박선재(이태리) 부총재, 이태은(캐나다) 감사, 정화(미국) 집행위원 등 5명을 태권도공원 조성지인 무주로 초청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하였고, 2005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연맹 총회에 준비단장 및 무주군수 등이 참석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세계태권도연맹 각국 태권도지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또한 2005년 7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37명을 전북 무주로 초청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 태권도공원에 대한 명칭 공모 및 국민제안, 세미나 실시

태권도공원조성추진준비단에서는 2005년 3월 국내 및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179개국 태권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태권도공원 명칭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402명이 응모한 178편의 명칭 중 우수작 3편(세계태권도광장, 태권도센터, 태권도월드)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동 공모안과 태권도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태권도공원의 정식 명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태권도공원 명칭공모에 제안된 명칭은 다음과 같다.

(표 7-19) 태권도공원 명칭공모 결과

구 분	제안된 명칭
국내 공모 결과 (10건)	세계태권도광장, 태권도센터, 태권도월드, 태권도공원, 태권도본전, 태권터전, 태권타운, 태권도누리, 태권도랜드, 태권도밸리
해외 태권도지도자 제안(5건)	세계태권도전당, 태권랜드, 태권도밸리, 태권궁, 태권도토피아
국내 태권도지도자 의견 등(7건)	세계태권도피아, 태권시티, 태권신시, 태권세상, 태권세계, 태권도산, 태권도맥

또한 준비단에서는 2005년 6월과 7월 태권도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국민 제안을 공모하여 총 20건 중 최우수 제안자 1명, 우수 제안자 3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표 7-20) 태권도공원 조성 방향 국민제안 공모 결과

구 분	제 안 내 용
최우수 제안	태권도 세분화를 통한 홍보전략과 공원의 조성방안
우수 제안	태권도역사관, 명예의 전당, 전시관, 체험관 건립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 세계태권도인들의 체계적 관리(이메일, 아이디 등)
	태권도공원 발전 프로그램에 관한 제안

준비단은 태권도공원의 기본개념 정립과 향후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성격의 태권도공원 기본개념 정립 연구를 2005년 3월부터 7월까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추진하였다.

또한, 태권도공원 기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5년 7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태권도계, 관광계, 건축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하여 태권도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4)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태권도계와 문화·관광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05년 6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고, 7월 1일 문화관광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태권도진흥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문화관광부 태권도조성추진위원장을 맡아 태권도공원 조성지 선정에 참여한 이대순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이사 23명과 감사 1명 등 총 25명의 임원 및 2국 4팀 총 12명의 사무처 직원을 두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태권도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사업 이외에도 태권도 관련 연구·조사·홍보사업, 태권도 연수사업 및 태권도지도자 양성 지원 사업, 태권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6월 30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5)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4개 컨소시엄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8개월간 추진하였다. 동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태권도공원 기본개념 정립, 공간구성 등 건축프로그램 설정, 총사업비 산출, 운영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국제설계경기 운영계획수립, 설계지침서 작성 등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태권도공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초점은 태권도공원 이용자를 지도자, 일반인(고단자, 태권도인, 일반인), 수련자 등으로 구분하고 각 이용자별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 태권도인의 중심본부, 세계 태권도 발전의 중추적 공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명소 공간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아울러 이용자를 고려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태권도인에게는 전문교육과 수련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인에게는 태권도의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도입시설 계획은 태권도 중주국의 대표시설로서 태권도공원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으며, 지형 순응형 자연친화적 건축계획을 통해 태권도의 기본정신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의뢰(2006년 11월)하였고, 2007년 12월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총사업비 6,009억원 : 민자포함 시)되어 2008년도부터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

6) 관련 법체계 정비 및 마스터플랜 수립

2007년 12월 21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6월 22일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공원 조성을 위한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2008년 2월에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의해 태권도공원 입찰방법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2008년 5월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태권도공원 감리 및 턴키사업자 선정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였다.

2008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국제지명초정 설계경기를 추진하여 미국의 “Weiss & Manfredi”가 설계한 “Body, Mind & Spirit”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2008년 9월 태권

도공원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 12월 태권도공원 건설사업관리(CM, 감리) 사업자를 선정, 계약 체결하였으며, 건립공사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한 결과, 2009년 4월 21일 삼성, 현대, 대우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 5월 15일 삼성컨소시엄이 실시 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었다.

3. 태권도공원 향후 사업추진 일정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9월 4일 태권도의 날' 기공식을 계기로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 1차로 일부 국고시설을 준공하고 2013년 나머지 시설을 완공함으로써 태권도공원을 개관할 예정이다. 민자시설은 2017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표 7-21) 사업추진 일정

일 정	내 용	추 진 기 관
2009년 6~12월	실시설계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2009년 9월 4일	기공식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2012년	1차 국고시설 준공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2013년	준공, 개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제5절 과제 및 발전방안

1. 조성정책의 평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체육시설 관련 정책의 주요 기조는 시설 확충과 이용 활성화로 대표될 수 있다. 시설 확충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와 접근기회를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의 참여로 인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복지사회를 구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반면, 이용활성화는 지역의 체육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육활동 공간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기존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의 조성과 관리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므로 경비지출 및 수입조달 과정에서 이윤기대나 특정다수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정책적 목표나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며, 수요·공급관계 역시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예산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체육시설 조성정책의 이러한 기조는 1990년대 후반의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운동장, 체육관, 빙상장, 전국체전시설 등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공원, 스포츠센터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다. 일반 국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괄목할 정도로 증대되었고, 이를 공공부문이 주도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스포츠 욕구와 건강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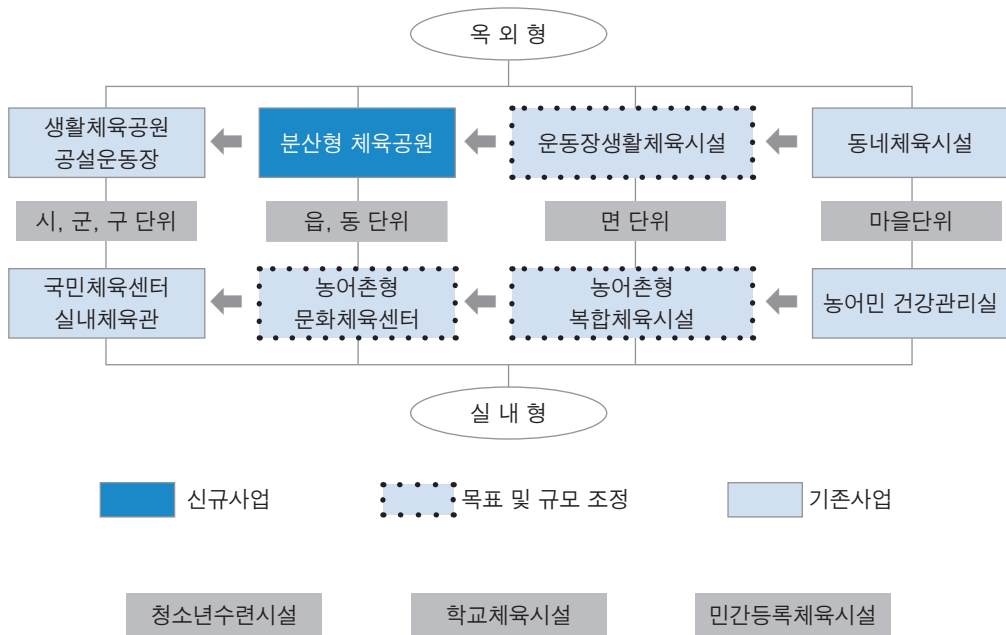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2.54m^2$ (2008년말 기준)로 보급률은 소요 면적 대비 44.8%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직도 국민 1인당 $3.16m^2$ 의 체육시설이 더 확충되어야만 비로소 체육선진국의 체육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만족할만한 체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체육시설 확충에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좀 더 집중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체육시설 조성정책 방향 및 발전과제

제7장 체육시설

이상 우리나라의 체육시설 공급 현황 및 성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 결과 향후 우리나라 체육시설 지원 정책의 전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은 여전히 체육시설의 공급 규모가 국민의 수요에 따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의 공급체계를 좀 더 발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노후한 체육시설, 단순한 경기대회 및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조성 방안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권 단위 등 서비스 공간 범위와 기술 수준별 체육시설 이용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시설간 이용체계의 합리화와 지역간 서비스 수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위계를 마을(리) 단위, 면단위, 읍·동단위, 시·군·구 단위, 광역 및 전국 단위로 구분하고 각 단위별 기본체육시설을 설정·정비함으로써 기본체육시설은 각 공간단위의 체육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기능·수행을 담당하게 한다.



〈그림 7-4〉 공간단위별 기본체육시설 조성방향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의 규모를 방대하게 건립하여 총사업비에서 국고비중이

10%~30%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합리적인 체육시설 조성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설의 활용, 운영 등을 고려한 적정 사업규모로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08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 생활체육공원 및 노인건강체육시설은 50%로 유지하고 전국체전시설, 지방체육시설 등은 30%로 조정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래 수준인 50%를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체육활동공간이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위탁 등을 통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 경기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유인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보급 확대, 체육지도자의 체계적 양성 및 효율적 활용 등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체육시설 소요면적 확충을 위한 효율적 실천 수단인 하나로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05년부터 우리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잔디운동장 사업 등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방향으로 평가된다.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BTL 사업방식은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조성 재원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BTL 사업방식 등 새로운 기회가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8장 스포츠산업

제1절 개 관

제2절 스포츠소비 현황

제3절 스포츠산업 현황

제4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제5절 과제 및 발전방안

제1절 개 관

1. 스포츠산업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스포츠의 가치는 전통적으로 교육적 가치, 사회적 조화에의 기여, 개인의 건강 증진 및 개인적 오락 기회제공 등에 있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사회문화의 환경변화에 따라 여가중시적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되고 몸과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이 짙게 나타나면서 스포츠는 스포츠 자체로의 역할을 넘어서 산업적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주도의 수출 지향적 성장전략이 지배하던 1970년대에는 산업적인 의미에서의 스포츠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스포츠의류와 스포츠신발류의 생산과 수출 등을 기초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스포츠 관련 산업은 1980년대 초 프로스포츠가 소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스포츠 자체가 스포츠산업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스포츠를 핵심상품으로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와 관련된 용품시장을 형성하고 해당시설의 건설 및 운영하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이와 관련된 스폰서십 시장과 마케팅 시장이라는 파생상품을 생성하게 된다.

오늘날 세계의 공통된 경향은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전체 산업구조 속에서 스포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스포츠산업의 전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007년 기준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연간매출규모와 소비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때 23조 2,698억원으로서 국내총생산(GDP)의 2.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6년의 22조 3,632억원보다 9,06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스포츠비즈니스의 성장으로 촉진된 관련 학문의 발달에 따라 스포츠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활동과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의된다. 또한 스포츠활동에 참가한 스포츠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단체와 기업의 생산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은 스포츠활동에 필요한 용품과 설비, 그리고 스포츠경기, 이벤트, 강습 등과 같은 유·무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유통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나로 묶은 것이므로 그 정점에는 스포츠활동이 자리한다. 관람스포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스포츠구단, 개인종목의 프로 및 세미프로 선수 등 스포츠활동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나 단체가 스포츠산업의 핵심부문이다. 또한 스포츠센터의 강습, 골프장의 골프라운딩, 마라톤대회 완주 등 직접적으로 고객이 참가하는 활동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도 스포츠산업의 핵심부문이다.

한편 이러한 핵심부문에 속한 업체(단체)가 스포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원 및 보조부문이 필요하다.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스포츠활동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 스포츠용품이 필요하고 체육시설도 요구되며, 선수 등 경기인력의 양성 및 공급, 스포츠스폰서십 수주 등의 재원조달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과 경제활동 주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의 대상 영역은 스포츠활동과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거나 스포츠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확장시키려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이다.

2) 스포츠산업의 법적 근거

스포츠산업의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스포츠산업진흥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육(운동경기, 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과의 관련성이 스포츠산업에 속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수용구생산 장려조항은 스포츠용품제조업 육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외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시설운영에 관계된 스포츠시설운영업의 법적 근거이다. 반면에 스포츠를 오락과 여흥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낼 수 있는 스포츠이벤트업이나 각종 스포츠정보를 생산 가공 유통시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스포츠정보업, 스포츠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스포츠마케팅업의 법적 근거는 없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을 준비하였다.

3)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

스포츠산업 내에 다양한 분야의 진흥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대안 및 지원조직 제도화를 위한 법제정이 매우 시급하면서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으며 마침내 2007년 4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지원정책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의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조항에 의거 체육용구제조업, 체육시설업의 육성 등에 한정하고 있을 뿐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과 육성은 불가능한 현실이 이 법의 제정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스포츠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자금지원, 스포츠산업 사업자단체 설립, 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지정, 국내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진출 지원, 프로스포츠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은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의 지속적,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지역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특성화 및 지방분권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스포츠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스포츠산업의 분류

스포츠산업의 분류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업분류이다. 스포츠산업은 정보산업, 관광산업, 환경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물류산업, 자동차관련전용부품제조업 등과 같이 산업분류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도소매) 및 임대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으로 구분되어 있다(표 8-1 참조).

둘째,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류로서 광범위한 스포츠산업을 정책대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3개 하위 산업영역으로 나눈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과 사업단위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특성에 따라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정책의 대상은 직접 참여와 관련된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간접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스포츠서비스업을 포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8-1) 스포츠산업 분류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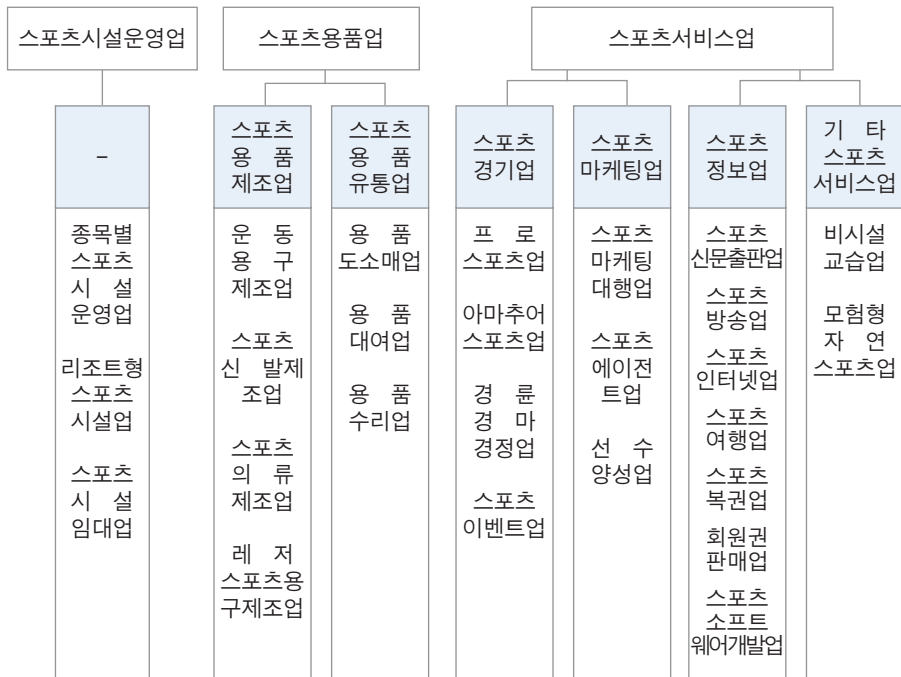
그룹	KSIC	항 목 명	품 목 명
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1	1814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스포츠의류 제조
1-2	19302	기타 신발 제조업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1-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그룹	KSIC	항 목 명	품 목 명
1-3-1	3693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3-2	3693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1-3-3	3693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1-3-4	3693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		경기장 운영업	
2-1-1	88311	실내경기장 운영업	
2-1-2	88312	실외경기장 운영업	
2-1-3	88313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2-2		경기 전문종사업	
2-2-1	88321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2-2-2	88329	기타 경기 전문종사업	
2-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3-1	88331	골프장 운영업	
2-3-2	88332	스키장 운영업	
2-4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4-1	8839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4-2	88392	수영장 운영업	
2-4-3	88393	볼링장 운영업	
2-4-4	88394	당구장 운영업	
2-4-5	88395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2-4-6	88399	그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5		수상오락 서비스업	
2-5-1	88921	해수욕장 운영업	
2-5-2	8892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
2-9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1	75995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	스포츠인 매니저
3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3-1	5147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2		운동 및 오락 용구 소매업	
3-2-1	5264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3-2-2	5264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자전거 소매
3-3	71303	경기 및 여가용품 임대업	

* 출처 : 통계청(2008). 표준산업분류, <http://www.nso.go.kr>

스포츠시설업은 생활체육에서부터 올림픽 또는 월드컵 같은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건설 및 운영업에 이르는 범위를 포함한다. 스포츠용품업은 스포츠용품제조업과 스포츠용품유통업으로 구분되며, 특히 스포츠용품업은 엘리트선수, 순수 아마추어 및 생활체육 동호인의 시장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에 필요한 장비, 의류 그리고 신발 등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범위를 포함한다. 스포츠서비스업은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관람스포츠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업종으로 스포츠경기업과 스포츠마케팅, 이벤트 기획 및 관리, 선수 사업 등이 있으며,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스포츠정보업이 있다.

최근 들어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활동에 기반하고 최소한의 경쟁성이 있고 조직화과정에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시키려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의 핵심 용어인 스포츠의 영역확대를 스포츠산업에 반영하는 추세다. 따라서 제도화수준이 높은 기성스포츠(올림픽종목인 것과 종목관리단체가 있고 대한체육회에 가맹하거나 가맹하게 될 가능성이 큰 종목)외에 다양한 변종 및 신종 스포츠활동을 생산하는 경제활동인 ‘레저스포츠용구 제조업’이나 ‘비시설 교습업’, ‘모험형 자연스포츠 교습업’들을 스포츠산업에 포함시켰다.



〈그림 8-1〉 국내 스포츠 산업 분류

4) 스포츠산업의 특성

스포츠산업은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마다 서로 다른 산업분류에 속하는 업종의 집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스포츠산업은 복합적인 산업분류 구조를 가진 산업이다. C.G.클라크가 '경제진보의 조건'에서 사용한 산업구조의 분류를 살펴보면 스포츠용품제조업은 2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포츠시설업 중 스포츠시설운영업과 스포츠용품유통업, 스포츠서비스업은 3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산업은 각기 다른 산업분류를 복합적으로 통합한 형태를 갖는데, 예를 들어 스포츠용품업에서 용품제조업은 스포츠산업이기보다는 각각 상품에 해당하는 제조업에 해당되기도 하고 도소매업은 다른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포츠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산업분류가 통합된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이러한 특성으로 종래의 산업분류에서 그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산업분류 구조를 가진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간·입지 중시형 산업이다. 스포츠참여 활동에는 적절한 장소와 입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포츠산업 분야의 서비스는 입지조건이나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예를 들어, 월드컵 주경기장, 스키장 그리고 골프장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규모나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가 소비자들에게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은 제한된 장소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의 입지조건에 크게 의존한다.

셋째, 시간 소비형 산업이다. 스포츠산업은 산업의 발달에 따른 노동시간의 감소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가활동의 증대로(예: 주 40시간 근무제) 발전한 산업이다. 관람스포츠와 참여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것은 체육 및 스포츠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넷째, 오락성이 중심 개념인 산업이다. 스포츠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필요'보다는 '재미'와 관련이 있는 '오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중들은 의식주와 관련된 것보다는 여유 있는 삶, 혹은 삶 속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스포츠활동을 한다. 행하는 것도 재미있고, 관전하는 것도 재미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한다.

다섯째, 감동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산업이다. 영화나 연극같이 각본에 의한 감동과는 달리 스포츠는 각본 없는 감동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로 전달된다. 또한 다른 산업에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도 건강과 감동을 함께 가져다주는 산업은 스포츠산업뿐이다. 스포츠산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정신적 만족과 함께 육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스포츠산업의 전망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체육·스포츠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식정보사회의 진전과 함께 그 동안 체육·스포츠 발전의 중심원리로 작용하여 오던 전인교육, 국위선양,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의 전통적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미디어가치 개발, 고부가가치 창출, 생산적 국민복지 등과 같은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는 스포츠를 소비지향적 문화·오락활동으로 간주하는 일상적이고 편협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지향적 산업활동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박세리, 김미현 등 골프스타와 이승엽, 박지성 등 야구, 축구스타는 민간 외교사절로서 뿐만 아니라 연간 수십·수백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인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선린 우호 및 세계 평화와 축제의 한마당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스포츠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자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나 관광경제적 가치가 크게 고려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스포츠산업은 전 세계적인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복합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산업이다. 특히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기술과 규칙을 공유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공통문화로서 광범위한 시장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중요한 비즈니스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 관련 직·간접적인 소비 증대로 문화·관광 등 스포츠연관 산업과 스포츠 서비스산업의 빠른 발전이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아마추어 및 프로스포츠 팀, 선수 등이 생산해 낸 스포츠산업의 규모만 2,130억달러로 자동차 산업의 2배 이상, 영상산업의 거의 7배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은 통산성 산하 산업구조심의회에서 스포츠산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타산업과 연관되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발을 통해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 이벤트 기획 등 신규직종에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으로 감성적 여가 및 오락지향 사회를 건전하게 선도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를 매개로 한 재화와 스포츠 서비스의 생산·유통·분배의 촉진을 가져와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민간 기업의 마인드를 스포츠 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스포츠산업은 우수한 경기력 및 국제 체육계에서의 높은 위상 등 유리한 세계시장 진출 여건과 발전가능성에 비해 이를 상품화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술, 인력, 정보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여타 산업 영역에 비하여 낙후된 상태이다. 따라서 기술축적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스포츠산업 환경

1) 대외 환경변화

(1)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2005년 7월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2006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07년 7월부터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08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어 정착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으로 인해 주2일간의 휴일이 발생하면 여가 활동이 종전에 비해 다양화되며 각 문화활동이 대중화·보편화되어 자기개발 및 취미활동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취미, 교육, 게임 등과 관련된 시장이 확대될 것이며, 기업노동 대체사업, 자기 계발과 사회성 개발, 가사노동 대체 사업, 그리고 체험형 여가산업, 관광산업 등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각종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의 발전도 가져오게 된다. 참여스포츠 시장은 더욱 세분화될 것이며, 프로스포츠는 관중 수의 증대로 인해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체육활동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용품의 수요증가, 스포츠용품의 다양화 및 첨단화도 전개될 것이다. 또한 여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스포츠산업(예 : 가족형·체험형 참여스포츠 등)의 등장도 예상된다.

(2) 산업의 IT화

우리나라의 IT관련 산업 기업투자는 1995~1999년 동안 연평균 3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1998년 이래 40%이상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IT산업이 실질 GDP에 대한 성장 기여율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01년 현재 40%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IT산업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인터넷에 대한 급속한 수요확대로 인해 관련 장비 및 서비스산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 인터넷 이용자수는 약 13만 8,000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2,000만 명을 넘어서 2,438만 명 선이었으며 2004년에는 3,000만 명 선을 넘어 썼고 2005년에는 3,301만 명을 넘었으며, 2007년에는 3,482만 명을 넘었으며 2008년에는 3,536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2) 국내 인터넷 사용자 추이

(단위 : 천명)

년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용자수	1,634	3,103	10,860	19,040	24,380	26,270	29,220	31,580	33,010	34,120	34,820	35,360

* 출처 : www.nic.or.kr

IT산업의 발전, 여타 산업의 IT화 가속, 그리고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인해 스포츠산업의 e-business화가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e-business화 기존 산업의 e-business화와 신규 사업(산업)의 e-business화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 산업의 e-business화의 경우 스포츠용품 산업, 참여스포츠 관련업체 그리고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인터넷 활용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신규 산업에서의 e-business화는 스포츠로 특화된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방송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는 스포츠산업의 IT화 및 e-business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이며, e-business를 통한 스포츠산업의 수익 모델 또한 새롭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위성방송, 유선방송, 인터넷 등이 등장함으로써 과거와는 크게 다른 다양한 매체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매체 수의 증가와 함께 디지털 기술, 휴대통신기술, 동영상기술 등의 개발은 기존 산업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고 있고 스포츠산업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신, 라디오, TV 등 새로운 매체가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스포츠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했다는 점으로

불 때 통신기술의 발전과 매체 수의 증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 수의 증가는 각 매체가 수용할 콘텐츠 수요의 급증을 동반하게 되고 이는 스포츠가 미디어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특히 IOC, FIFA 및 프로구단 등의 경기에 관한 저작권리를 소유한 스포츠조직은 뉴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콘텐츠 공급업체로서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디어의 콘텐츠 확보경쟁은 국내 방송사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방송중계권료가 대폭 인상되는 현상은 이러한 콘텐츠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05년에는 공중파 방송이 아닌 케이블방송에서 메이저리그의 방송중계권을 확보하여 방영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축구의 아시안컵 예선 등의 중계권을 케이블방송이 구매함으로써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 스포츠의 세계화와 경쟁의 심화

스포츠의 세계화란 스포츠영역에서 일어난 세계화이다. 세계화란 일종의 동질화이자 세계의 각 사회간에 상호의존성의 증대과정이기도 하다. 스포츠의 세계화란 스포츠의 세계에서 각국이 보여준 동질화가 심화되는 것이자 각국의 스포츠 간에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스포츠의 동질화는 올림픽스포츠의 권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것에서 발견된다. 전 세계 국가들이 올림픽 스포츠를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변화는 올림픽 참가국 수의 증가에서 관찰된다. 1960년 100개가 넘어서면서 주춤하던 참가국수가 2000년이 되면서 200개로 2배가 된 것이다. 1972년 몬트리올올림픽에 123개 국가가 참가하였고 이후 이념대립으로 반쪽짜리 대회가 열리면서 참가국수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던 것이 1988년 서울올림픽에는 140개국,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는 172개국,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는 197개국,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는 200개국,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는 202개국,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는 205개국이 참가하였다.

각 나라들이 올림픽스포츠를 수용해가는 과정은 사실 스포츠부문 세계화의 토대이지만 본격적인 스포츠의 세계화 현상은 각국의 스포츠가 함께 소비되는 것, 각국의 스포츠에 다른 나라 선수나 감독, 코치 등 경기인력이 이동하는 것, 스포츠사업에 투자되는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다.

스포츠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월드컵 시청인구를 들 수 있다. 프랑스월드컵을 시청한 인구는 370억 명이었고 2002년 한일월드컵을 시청한 인구는 420억 명 이상으로 2006년 독일월드컵을 시청한 인구는 500억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스포츠의 세계화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자본 및 상품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미디어와 스포츠와의 결속력강화에 의해서 더욱 진전될 것이다. 즉 스포츠세계화는 특정 스포츠대회나 특정 스포츠선수가 일시에 TV, 라디오, 신문, 잡지 및 디지털 매체에 의해서 수백억 명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게 됨으로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포츠의 세계화는 스포츠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스포츠의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특정 유명대회나 스타선수의 미디어가치가 커질 것이다. 스포츠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지원 외에도 높아진 관심 때문에 개인 소비자가 지출하게 될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스포츠세계화에 따라서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에서의 각 국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다른 나라의 스포츠산업과 경쟁을 해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2) 대내 환경변화

(1) 참여·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

참여·레저스포츠는 소득수준 및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소비자의 차별적인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1997년 IMF관리체제에 들어선 이후 많은 레저스포츠 시설들이 부도나거나 신규개발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995~2000년 기간 동안 레저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약 13.7%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면 레저스포츠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참여·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아스포츠, 실버스포츠 등이 새롭게 늘어날 것이며, 신세대를 위한 익스트림스포츠, 장년층을 위한 시니어게임, 암벽 등반 등 모험 스포츠 및 자연 친화적 스포츠 그리고 이러한 분야들이 상호 결합된 스포츠 등에 대한 소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소비지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2) 스포츠용품업의 경쟁 심화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 주 40시간 근무제 등은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여가시간의 증대를 가

저와 관련 스포츠용품의 소비를 증대시키게 된다. 국내 스포츠용품 시장은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극심한 경쟁에 처해 있다. 기존 스포츠용품은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방식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90년대 이후 국내 노동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스포츠용품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가동 중단, 연쇄도산,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 스포츠용품업체들의 시장(내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표 8-3) 운동용구의 수출입현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표 8-3) 운동용구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08	124,622	449,657	△325,035
2007	114,227	587,015	△472,788
2006	120,141	503,542	△383,401
2005	105,096	436,217	△331,121
2004	105,762	442,660	△336,898
2003	90,676	438,526	△347,894
2002	83,074	359,389	△276,315
2001	90,226	272,442	△180,216
2000	85,189	230,232	△145,043
1999	73,797	173,806	△100,009
1998	82,033	88,611	△6,578
1997	111,461	246,142	△134,681
1996	111,379	257,710	△146,331

* 출처 : 관세청(2008). 수출입통계 품목별무역수지

스포츠용품의 부가가치는 생산공정에서보다는 디자인 및 마케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특히 세계적 스포츠용품 회사들은 스포츠 스폰서십과 같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사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서 공식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경쟁사인 나이키는 각종 대표팀 유니폼 스폰서로 참여했다. 이 밖에 FILA, 푸마, 아식스 등도 각종 국제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 마케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 스포츠용품사의 이러한 활동은 자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함이다. 즉 국내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은 선진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스포츠용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용품업체들은 극심한 경쟁과 영세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공정 부문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 경쟁력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서는 선진국의 기술·디자인 경쟁력에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스포츠용품업계는 ‘소재의 첨단화’ 및 ‘새로운 디자인 개발’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스포츠소비 현황

1. 스포츠소비 정의

소비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재화를 소모하는 것이며 스포츠소비는 스포츠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를 소모하는 것이다. 스포츠소비는 상업적 시장에서 조달되는 스포츠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비용을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비상업적 스포츠활동(예, 동호인회 회비, 스포츠교실 참가비 등)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부문에 의해서 제공되는 스포츠참여 기회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 혹은 참여자 개인의 부담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소비라 할 수 있다.

스포츠소비의 규모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체육정책의 기초 자료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스포츠소비는 국민이 스포츠활동의 재원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특정 사회의 스포츠시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소비규모는 운동참여율 지표와 더불어 체육진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소비의 특징을 종목별, 소비자의 특성별로 파악하는 것은 스포츠산업을 진단하고 성장을 전망하는 데 기초적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일본의 경우 자유시간디자인센터에서 스포츠소비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해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가개발센터 조사는 스포츠활동에 쓰는 연간 총 비용은 물론 종목별, 참가형태별로 소요된 비용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년 주기로 조사 발표되는 국민생활참여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월평균 운동경비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으나 이 비용이 어떤 종목에 쓰였는지 혹은 용품구입에 쓰였는지 서비스이용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밝힐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초한 스포츠소비 현황 추계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2. 스포츠소비의 특성

스포츠소비는 운동용품 소비, 스포츠시설서비스지출, 그리고 운동경기관람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포츠시설서비스 이용료와 운동경기관람료는 서비스 구입에 해당되며 운동용품은 재화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이다.

국내 스포츠에 대한 소비통계는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가계조사연보의 가구당 소비현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하는 2007년의 국내 스포츠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체육시설이용료로 전체 스포츠소비의 19.9%를 차지하였고 운동복 구입이 19.2%로 그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 지출된 관람료는 가구당 연평균 1,200원으로 0.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소비의 내부 구성은 스포츠용품과 시설서비스 교습은 직접 스포츠참가로 파생된 소비인데 반해서 관람료는 간접적 스포츠참여에 대응되는 소비이다. 스포츠소비의 내부 비율이 우리사회의 스포츠활동 여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서비스소비 즉 운동시설 이용료와 교습비 등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자료에 근거할 때 관람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지출하는 소비는 매우 적다. 전체 소비의 0.36%이며 그 규모는 가구당 연간 1,200원 정도로 우리나라의 관람스포츠의 시장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소비를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주목할 점은 스포츠시설이용료와 운동강습비가 스포츠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스포츠시설이용료 및 운동강습비 지출이 스포츠용품 소비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개인적 경비 부담을 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2001년도에 비해 스포츠시설이용료와 운동강습비 지출이 스포츠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3. 스포츠소비 지출

여가보다 일을 우선 시하는 전통적인 사회 인식이 변화되어 여가생활의 중요성이 넓게 확산되었다. 여가를 중시하는 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여가생활의 여건도 여가활성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을 거친 이후 2000년부터 국내 경제성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향후 경제 성장도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축된 가계소비로 인해서 여가관련 지출이 크게 위축

되었으나 99년 이후 서서히 회복되어가고 있다. 여가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여가시간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직장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직장인수는 대폭증가 했다.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활동의 활성화는 스포츠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연간 스포츠소비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민간 소비의 주체인 가계나 기관(기업 등) 단위의 스포츠소비 즉 스포츠활동과 관련해서 파생된 경비를 합산해야한다. 그러나 기업의 스포츠관련 지출 자료는 공식 통계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고 관련 조사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스포츠소비는 가계단위 소비의 총량으로 대신하였다.

스포츠관련 소비통계로 활용 가능한 자료는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가계조사연보」를 들 수 있다. 동 자료 중에서 교양·오락비 항목 지출이 여가부문 가계 소비규모의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 스포츠소비는 가계조사연보의 전 가구지출 통계치 중 스포츠용품 구입과 스포츠시설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든 비용과, 그리고 운동경기 관람료를 합산하여 이를 연간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가계조사연보 품목별 지출 중에서 이온음료, 운동복, 운동화, 어린이자전거(98년 이후로는 어린이 승용물), 자전거, 등산낚시도구, 운동기구(97년부터 운동기구, 운동용품으로 항목이 분리되었음), 스포츠관람료(97년부터 운동경기관람료로 용어변경), 스포츠오락시설이용료(97년부터 수영장이용료, 볼링장이용료, 운동오락시설기구이용료로 구분), 교양오락강습료의 일부(97년부터 운동강습료와 운동 외 교양오락강습료가 1:2인 점을 반영해서 교양오락강습료의 2/3을 운동강습료로 가정하고 계산함)를 합산한 것이다.

품목별 스포츠소비를 연간으로 합산하면 2006년 연간 가구당 평균 321,600원으로 2005년 가구당 연간 스포츠소비인 318,000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항목의 조정에 의한 변화로 큰 의미가 없다. 2006년 가구의 스포츠소비를 스포츠용품소비와 서비스소비로 구분해 보면 스포츠용품 소비는 165,600원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으며 스포츠서비스소비는 156,000원으로 전체 스포츠소비의 48.5%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스포츠소비는 1996년 연간 207,600원이던 것이 97년 243,000원으로 증가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불황으로 1998년 207,600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경향은 1999년에 233,800원으로 1997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가 2000년에는 연간 286,800원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302,400원, 2002년에는 325,200원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480,000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4년 208,800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05년 318,000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6년 314,400년 2007년 331,200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스포츠소비가 가구 교양오락비 지출 총액 대비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24.1%이던 것이 1997년에는 26.8%, 1998년에는 29.5%, 1999년에는 27.5%, 2000년에는 28%로 시기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25%에서 30%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4년에는 17.0%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 27.0%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 24.1%로 감소하였다가 2007년에 25.6%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 변동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통계항목의 변화에서 오는 결과로 의미를 갖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8-4) 도시가구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 품목별 소비

(단위 : 천원)

	품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스포츠 용품	이온음료	3.6	3.6	3.6	-1)	-	-		-
	운동화	32.4	32.4	37.2	-1)	-	51.6	51.6	52.8
	자전거	4.8	4.8	6.0	4.8	8.4	8.4	6.0	6.0
	등산낚시용품	7.2	8.4	9.6	9.6	15.6	15.6	16.8	15.6
	운동기구	8.4	7.2	7.2	32.4	26.4	25.2	26.4	26.4
	운동용품	12.0	10.8	13.2					
	운동복	32.4	33.6	42.0	46.8	51.6	56.4	57.6	53.0
	소 계	100.8	100.8	118.8	93.6	102.0	157.2	157.2	164.4
스포츠 서비스	운동경기관람료	-	1.2	2.4	1.2	1.2	1.2	1.2	1.2
	수영장이용료	6.0	4.8	6.0	-1)	61.2	63.6	64.8	66.0
	볼링장이용료	4.8	3.6	6.0	52.8				
	운동오락시설 기구이용료	68.4	70.8	70.8	-1)				
	운동강습료	36.0	39.6	38.4	40.8	44.4	43.2	34.8	38.4
	교양오락강습료	13.2	14.4	12.0	-1)	-	-	-	-
	태권도학원	38.4	46.8	50.4	-1)	-	52.8	55.2	61.2
	기타 체육학원	19.2	20.4	20.4	-1)	-	-	-	-
	소 계	186.0	201.6	206.4	94.8	106.8	160.8	156.0	166.8
	합 계	286.8	302.4	325.2	188.4	208.8	318.0	314.4	331.2

출처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9~2002」, 「가계조사연보 2003~2006」

체육과학연구원 「한국의 체육지표 1999~2007」

주 : 1) 이온음료가 차음료 및 주류에, 교양오락강습료가 기타강습료, 기타체육학원비가 예체능계 학원비에 포함되어 지표항목에서 제외

(표 8-5) 교양오락비와 스포츠소비

년 도	가구교양오락비(A) (연)(원)	교양오락비 비율(%)	가구스포츠소비(B) (연)(원)	스포츠소비/교양오락 비 비율 (B/A)(%)
1998	703,200	4.5	207,600	29.5
1999	865,100	4.9	238,800	27.5
2000	1,023,600	5.2	286,800	28.0
2001	1,028,400	4.9	302,400	29.4
2002	1,059,600	4.8	325,200	30.7
2003	1,072,800	4.8	480,000	45.0
2004	1,126,800	4.8	208,800	19.0
2005	1,179,600	4.8	318,000	27.0
2006	1,303,200	4.9	314,400	24.1
2007	1,293,600	4.7	331,200	25.6

* 출처 : 도시가계연보 해당 연도

A : 각년도 도시가계연보 중 교양오락비 지출 × 12

B : 각년도도시가계연보중스포츠소비 품목 합산 총액 × 12

제3절 스포츠산업 현황

1. 스포츠산업의 규모 및 현황

1)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

2007년도 국내 스포츠산업은 23조 2,698억원 규모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8% 수준이다. 이러한 스포츠산업 규모는 총 연간출하(매출) 규모, 소비시장 규모로 산정하였다.

(표 8-6) 한국·미국·일본의 스포츠산업 규모 비교

구 분	국 가	한국(2007년)	미국(2005년)	일본(2008년)
GDP		901조2천억원	12조4,872억달러	4조4,530억달러
스포츠산업		23조2,698억원	2,130억달러	1,135억달러
GDP대비 스포츠산업비율		2.58%	1.71%	2.54%
비 고			레저스포츠 부문 제외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은 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산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가계 스포츠관련 소비를 보더라도 그 증가는 1998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스포츠소비의 증가에 힘입어 스포츠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것임을 시사한다.

(표 8-7) 연도별 스포츠산업 하위시장 시장규모

(규모 : 억원)

대 분류	소 분류	2003		2005		2006		2007		
		소 계	합 계	소 계	합 계	소 계	합 계	소 계	합 계	
스포츠 용품 품업	스포츠	운동용품	5,444	16,707	5,880	18,037	6,815	21,454	6,915	21,890
	용품제	스포츠의류 및 신발	9,234		9,419		11,958		12,210	
	조업	스포츠음료제조업	2,029	2,739	2,681	2,765				
	스포츠	스포츠도소매업*	4,192	6,707	9,655	9,750				
	유통업	스포츠용품 전자상거래*	1,277	5,469	3,193	9,900	4,876	14,531	5,240	14,990

대분류	소분류	2003		2005		2006		2007			
		소계	합계	소계	합계	소계	합계	소계	합계		
	소계	22,176		27,937		35,985		36,880			
스포츠시설업	시설 건설업	민간시설	1,968	6,792	1,673	7,848	8,095		5,287		
		공공시설	4,824		6,175						
	시설 운영업	시설이용 및 강습료	31,391	50,623	48,317	71,395	58,605	83,135	59,450	84,820	
		골프장 이용료	19,232		23,078		24,530		25,370		
	소계		57,415		79,243		91,230		90,107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경기업	경륜	24,122	88,117	17,566	73,241	15,895	73,007	17,735	81,460	
		경마	60,729		51,548		53,140		59,293		
		경정	3,266		4,127		3,972		4,432		
		아마추어스포츠		3,249		3,899		5,486		4,521	
		프로스포츠	팀스포츠	1,882	2,066	2,424	2,731	2,851	2,851	2,912	
			개인스포츠	184		307					
	스포츠이벤트		120		125		278		310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마케팅대행업	225	375	231	421	238	436	266	487	
		스포츠에이전트업	75		113		117		131		
		선수양성업	75		77		81		90		
	스포츠정보업	스포츠신문/출판업	3,021	5,304	2,180	8,911	2,022	14,359	2,256	16,021	
		스포츠방송업	644		531		900		1,004		
		스포츠복권 및 복표업	783		4,573		9,131		10,118		
		회원권대행판매업	464		474		667		744		
		스포츠게임 (인터넷게임)	354		1,047		1,379		1,539		
음성정보서비스 및 온라인 스포츠정보		38	106		260		290				
소계		99,231		89,327		96,417		105,711			
합계		178,822		196,507		223,632		232,698			

* 출처 : 각 업종 내부자료

주 : 1) 2007년도 시장규모는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스포츠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8%로 건설업(5.6%)보다는 작지만 농림어업(1.4%), 광공업(1.7%)보다 크다. 국내 스포츠산업 중 스포츠시설업은 2007년 현재 9조 107억원 규모로 전체 스포츠산업 중 38.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시설건설업은 5,28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운영업은 시설이용 및 강습료와 골프장이용료를 더해 8조 4,820억원이다. 국내 스포츠용품업은 3조 6,880억원의 규모로 스포츠산업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서비스업은 10조 5,711억원으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45.4%로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서비스업 중 스포츠경기업은 경마, 경륜, 경정 등 경주산업이 8조 1,460억원이며 아마추어스포츠는 4,521억원, 프로스포츠가 2,912억원이다.

2. 스포츠용품업

1) 스포츠용품제조업

스포츠의류 및 신발은 2007년 기준으로 1조2,210억원 규모이며, 생산은 2004년 기준으로 남녀수 영복을 비롯하여 15개 품목의 596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다. 2007년 운동용품의 시장규모는 6,915 억원이며 26개 품목, 510개 업체로 이뤄져있다. 2007년 스포츠음료제조업은 2,765억원의 출하 규모를 갖고 있다. 스포츠용품제조업체의 규모는 영세하다. 운동 및 경기용구제조업체의 55.48%가 5~9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으며 전체의 80% 정도가 20명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용품업체의 영세성으로 생산과정의 분업과 전문화가 미비하고 후진국 형태의 기업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신제품 연구개발 및 품질혁신의 미흡으로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표 8-8) 2006년도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체 종사자수

(단위 : 명, 업체수)

사업체	5~9	%	10~19	%	20~49	%	50~99	%	100~199	%	200~299	%	합계
운동및 경기용구 제조업	177	55.48	77	24.13	48	15.04	10	3.13	7	2.19	-		319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경비	28	43.75	19	29.68	14	21.87	2	3.12	1	1.56	-		64
놀이터용 장비제조업	19	61.29	8	25.80	2	6.45	1	3.22	1	3.22	-		31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87	65.41	18	13.53	21	15.78	5	3.75	2	1.50	-		133
가터운동및 경기용구 제조업	43	47.25	32	35.16	11	12.08	2	2.19	3	3.29	-		91
합 계	354	55.48	154	24.13	96	15.04	20	3.136	14	2.19	-		638

* 출처 : 통계청(2007). 2006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산업편-전국

2) 스포츠용품유통업

스포츠용품유통업은 2007년 기준 1조4,990억원으로 그 중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은 9,750억원, 전자상거래는 5,240억원이다. 운동용구의 수출은 2008년 기준 1억2,462만달러이며 수입규모는 4억

4,965만 달러로 3억2,503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운동용품 무역수지 적자는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는 형편으로 국민의 스포츠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용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스포츠용품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스포츠시설운영업

스포츠시설운영업은 2003년 5조 623억원으로 스포츠시설업의 88.1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8조 3,13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8조 4,82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스포츠시설운영업은 스포츠시설 이용 및 강습료와 골프장 이용료로 구분되어 작성되었으며 2005년에는 스포츠시설 이용 및 강습료가 4조 8,317억원, 골프장 이용료가 2조 3,078억원이었고 2006년에는 시설이용 및 강습료가 5조 8,605억원, 골프장 이용료가 2조 4,53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시설이용 및 강습료가 5조 9,450억원, 골프장 이용료가 2조 5,37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리조트형 체육시설 중 2007년도 골프장 내장객수는 약 2,222만 명, 스키장 내장객수는 664만 명에 달한다.

(표 8-9) 주요 리조트형 시설 현황

(업체수 : 개소, 면적 천㎡)

	골프장	스키장
업체수	311	19
면적	299,659	25,759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9). 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

국내 골프장 수는 지난 95년의 96개소에서 2008년에는 311개소로 224% 늘어났으며, 골프장 이용객수는 같은 기간에 800만 명에서 2,398만 명으로 200% 증가하였다. 미국은 14천명, 일본은 52천명당 18홀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260천명당 18홀을 갖고 있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수를 보면, 회원제 골프장이 3,814천명인데 반해 대중 골프장은 4,896천명으로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홀당 이용객수가 1.3배 더 많다.

국내 골프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골퍼 1인당 연평균 6~7회 라운딩을 한다는 수치이며 골프인구로만 따지면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에 이어 많은 수준에 있다. 한편 대중골프장 이용객수는 1993년 100만 명, 1997년에는 169만 명, 2000년에는 236만 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337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600만 명을 넘었고 전체 골프장 이용객수는 2008년말 기준으로 회원제 골프장

과 대중 골프장을 합하여 총 2,398만 명을 넘어섰다.

(표 8-10) 연도별 전국 골프장 이용객 현황

구 분	합 계		회 원 제		대 중	
	개소수	이용인원	개소수	이용인원	개소수	이용인원
1993	86	6,334,182	69	5,276,663	17	1,057,519
1994	88	7,060,534	72	5,965,151	16	1,095,383
1995	96	8,063,010	79	6,851,311	17	1,211,699
1996	104	8,772,650	82	7,387,806	22	1,384,844
1997	111	9,516,751	87	7,925,654	24	1,591,097
1998	120	8,175,799	92	6,827,235	29	1,348,564
1999	134	10,370,798	107	8,617,665	31	1,753,133
2000	150	12,005,610	107	9,642,953	43	2,362,657
2001	154	12,902,526	110	10,046,055	44	2,856,471
2002	161	14,117,369	113	10,745,795	48	3,371,574
2003	175	15,115,577	122	11,454,576	53	3,661,001
2004	194	16,179,740	136	12,205,437	58	3,974,303
2005	224	17,766,976	147	12,741,012	77	5,025,964
2006	250	19,653,359	157	13,507,219	93	6,146,140
2007	277	22,343,079	175	14,923,213	102	7,419,866
2008	311	23,982,666	183	15,654,098	128	8,328,568

* 출처 :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내부자료

또한 레저스포츠시설인 스키장업은 외국인 관광수입을 유발할 스포츠관광의 대표 상품이 되고 있다. 2008년 시즌(2008년 11월~2009년 4월)에 국내 스키장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24만 2천명으로 전년 19만 1천명에 비해 27%가량 증가하였다.

체육시설(등록, 신고체육시설업)의 경우, 1989년 25,680개소에서 1998년 48,115개소로 연평균 7.1%의 증가세를 보이다 2001년 들어와서는 41,984개로 감소했다가 200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8년말 현재 총 시설수는 50,612개소로 조사되었다.(표 8-11)

(표 8-11) 연도별 주요 신고·등록 체육시설현황

(업체수 : 개소 면적 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등록	업체수	377	390	407	417	442	454	236	265	295	332
	면적	163,067	180,151	176,593	182,094	196,202	212,050	239,504	261,256	293,721	325,829
신고	업체수	47,242	47,959	41,577	41,903	43,125	44,320	45,833	42,903	45,505	50,280
	면적	15,573	14,955	15,115	16,061	16,764	17,737	20,259	20,906	22,602	24,545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1999~2008). 2009 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

* 2005년에 등록체육시설이 급감하고 신고체육시설이 급증한 원인은 종합체육시설업 등 6개 업종이 신고업종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

* 2006년에 신고체육시설이 급감한 원인은 볼링장 등 3개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

4.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은 10조5,711억 원으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45.4%이며, 스포츠용품업과 스포츠시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나 스포츠경기업의 경마, 경륜, 경정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7%로 스포츠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이 부분을 제외한 여타 스포츠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스포츠서비스업은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큰 업종이다.

1) 스포츠경기업

스포츠서비스업 중 스포츠경기업은 경마, 경륜, 경정, 아마추어스포츠, 프로스포츠, 스포츠이벤트 등이며 그 규모는 8조 9,203억원이다. 이는 전체 스포츠산업의 38% 규모이다. 스포츠서비스업은 프로스포츠를 비롯한 관람스포츠분야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의 핵심 부문이다. 스포츠서비스업의 성장은 스포츠용품업과 스포츠시설업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는 스포츠산업의 선도 분야라고도 일컬을 수 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규모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향후 스포츠산업의 산업적 성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스포츠서비스업의 주요 업종 이용자는 경주스포츠 이용자와 프로스포츠 관람객을 합하여 2008년 4,319만 명이 넘었으며, 2008년의 프로야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축구, 프로배구 등 5개 프로종목 총 관람인원은 1,000만 명을 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프로스포츠가 주도하기 때문

에 팬 및 선수층이 두터운 종목은 프로화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장입장료, 구장부대수입, 방송중계권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프로구단을 비롯하여 아마추어 스포츠단체의 매출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스포츠경기업의 성장은 스폰서십, 라이선싱, 선수관리 및 계약,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마케팅기획 등의 활동을 통해 크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12) 2001~2007년도 스포츠서비스업 주요업종 이용자수 (단위 : 만명)

종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마장 입장객(서울+제주+김해 경마장)	1,628	1,674	1,541	1,618	1,645	2,045
경륜장 입장객(잠실+창원+금정경륜장)	552	565	572	545	564	905
경정장 입장객	45	122	143	191	197	368

*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2008) 2008 한국의 체육지표.

(표 8-13) 주요 프로스포츠 관중 추이 (단위 : 명)

구 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합 계
2003년	2,950,231	2,448,868	1,043,531	153,141		6,595,771
2004년	2,637,559	2,429,422	1,051,598	59,316		6,177,895
2005년	3,640,690	2,873,351	1,109,793	169,518	101,436/159,716	7,894,788/7,953,068
2006년	3,240,992	2,448,128	1,104,503	106,999	227,954	7,128,576
2007년	4,410,340	2,746,749	1,160,113	311,934	234,308	8,863,444
2008년	5,636,191	2,945,400	1,191,242	129,835	278,106	10,180,774

※ 프로배구 : 2005년도 ~ 2005년 상반기 / 2005년~2006년 시즌

※ 프로농구(남) : 2008년 '09.23 현재 기준(이하 동일)

* 출처 : 문화관광부(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표 8-14)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 수 및 경기당 평균 관중 수 (단위 : 회, 명)

구 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경기수	경기당 평균 관중	경기수	경기당 평균 관중	경기수	경기당 평균 관중	경기수	경기당 평균 관중	경기수	경기당 평균 관중
2003년	545	5,413	265	9,241	289	3,611	138	1,156	-	-
2004년	548	4,813	240	10,123	290	3,626	80	687		
2005년	517	7,042	240	11,972	289	3,840	138	1,228	112/191	906/836

구 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경기수	경기당 평균 관중	경기수	경기당 평균 관중	경기수	경기당 평균 관중	경기수	경기당 평균 관중	경기수	경기당 평균 관중
2006년	518	6,257	278	8,806	288	3,835	123	869	163	1,398
2007년	517	8,531	254	10,814	291	3,987	267	1,164	187	1,253
2008년	518	10,881	253	11,642	292	4,080	118	1,100	189	1,472

* 출처 : 문화관광부(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표 8-15) 주요 프로스포츠 수용규모 및 좌석점유율

(단위 : 명, %)

구 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수용 규모	좌석 점유율	수용 규모	좌석 점유율	수용 규모	좌석 점유율	수용 규모	좌석 점유율	수용 규모	좌석 점유율
2002년	21,934	22.0	31,008	47.3	5,039	74.8	3,776	26.7		
2003년	21,934	24.7	37,468	24.7	6,298	57.3	3,776	30.6		
2004년	21,934	21.9	42,173	24.0	6,283	57.7	3,776	18.2		
2005년	21,934	32.1	42,173	28.4	6,283	61.3	3,776	32.5	5,129	16.3
2006년	20,429	30.6	40,255	21.9	5,899	65.0	3,230	25.6	5,129	27.3
2007년	20,429	41.8	40,574	26.7	6,347	62.8	2,756	38.0	5,089	24.6
2008년	20,429	53.3	40,574	28.7	6,354	64.2	2,756	39.1	4,843	30.4

* 출처 : 문화관광부(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2)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마케팅업은 스포츠마케팅대행업, 스포츠에이전트업, 선수양성업 등으로 시장규모는 487억 원이며 스포츠서비스업 가운데 0.46%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은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람스포츠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해외진출선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마케팅대행 및 컨설팅업, 스포츠에이전트업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시장을 겨냥한 해외 선진스포츠마케팅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스포츠서비스업분야에서 IMG, ISL, 옥타곤 등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에이전트업에 있어서 관람스포츠의 핵심요소인 우수선수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포츠마케팅업은 전문가의 부재로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경쟁

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220여개 대학에서 학부 및 대학원과정으로 스포츠산업, 경영, 마케팅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전문대학을 포함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261개 체육관련 학과가 개설되었으나, 스포츠산업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은 6개, 대학원은 7개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산업스포츠학과, 스포츠경영전공 등의 대학원과정이 개설되었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표 8-16) 체육계학과 학생 및 스포츠산업 관련학과 현황

(단위 : 명)

연도	대학생총수	체육학과학생	체육계학과	스포츠산업관련학과		비고
				대학	대학원	
1996	1,266,876	23,777	146	1		
1997	1,368,461	25,689	172		5	
1998	1,477,715	28,229	200	3	5	
1999	1,587,667	31,555	200	4	7	
2000	1,665,398	34,891	216	7	7	
2001	1,699,293	38,563	236	8	12	
2002	1,771,738	42,957	245	7	17	
2003	1,808,539	46,653	267	7	17	
2004	1,836,649	44,387	234	7	17	
2005	1,859,639	45,745	234	7	17	
2006	1,888,436	50,042	295	7	18	
2007	1,943,437	53,863	261	6	7	

* 출처 : 교육부 (1995~2008) 교육통계연보

국내 아마추어 체육단체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국고보조나 회장협찬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기준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수입 중 자체수입은 평균 71.7%로 나타났다.

경기단체의 수입구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보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마케팅이 발전되고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표 8-17) 연도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수입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회장찬조금	기타찬조금	자체수입	기 타	합 계
1988	161		52		213
1989	146		64		210
1990	149		75		224
1991	164		95		258
1992	161		80		241
1993	144	45	97	5	292
1994	160	32	118	5	315
1995	176	24	216	12	428
1996	193	27	202	34	457
1997	208	13	180	57	458
1998	174	7	118	48	347
1999	137	42	180	21	380
2000	144	20	190	16	370
2001	100	13	382	142	637
2002	113	122	276	260	771
2003	133	17	367	429	946
2004	148	18	357	256	780
2005	144	19	456	324	943
2006	179	16	938	160	1,293
2007	161	19	948	264	1,392
2008	171	18	1,143	267	1,599

* 출처 : 대한체육회 (1988~2008). 대한체육회 예산 및 결산서

* 정부 보조금 제외

3) 스포츠정보업

스포츠정보업은 1조 6,021억원으로 스포츠서비스업중 15.2%를 점유하여 그 규모가 날로 성장하고 있으며 스포츠경기업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정보업은 스포츠신문, 출판과 방

송업, 스포츠여행업, 스포츠의학, 스포츠게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포츠정보업은 위성채널, 인터넷방송 등 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스포츠서비스업의 발전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스포츠 전문 방송채널로 MBCESPN, SBS골프, SBS스포츠, KBS'n Sports가 있으며 군소 스포츠채널이 격투기, 유럽축구, 자동차경주 등 저마다 특화된 스포츠컨텐츠를 주내용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스포츠는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중계되었지만 케이블TV, 위성TV의 스포츠중계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나 영리면에서는 그리 만족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과거에는 스포츠 중계비용이 타 프로그램 제작비보다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스포츠중계권료의 상승과 시청률의 정체 등은 아직 스포츠채널의 성장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와 관련된 출판업 및 신문 관련업 중 스포츠신문은 현재 5개사에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데는 인터넷의 확산과 무가치의 성행이 원인인 거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면에서 보면 과거 전성기의 1/3 규모에 그칠 정도로 그 규모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표 8-18) 스포츠신문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신 문 명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2006	356	298	427
2007	377	382	413
2008	280	381	179

* 출처 :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2007. 7. 1.~2008. 6. 30 기준으로 결산된 액수임.

제4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1. 스포츠산업 정책의 제도적 기반

국내 스포츠산업은 1980년대에서 1990년 초반까지 체육산업이라는 용어로 불려졌다. 체육시설업체와 용품제조업체 그리고 체육관련 각종 서비스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로 운영되었으며 정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은 미미하였다. 정부가 스포츠산업을 정책대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특히, 한·일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최경주, 박세리, 김미현, 박찬호, 김병현 등 한국선수들의 국제적인 활약이 어우러지면서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정부도 스포츠산업을 보다 과학적으로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하고 인력·기술·정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비교적 소외되어왔던 스포츠산업 부문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4년 문화관광부의 직제개편을 통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체육국내 신설하고 스포츠산업의 진흥의 정책적 기반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 스포츠산업 정책의 변천

종전까지 스포츠는 여가선용을 위한 소비활동의 대상으로 비생산적인 측면만 부각되었기 때문에 경제활력과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이라는 인식을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환경 하에서 스포츠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적절한 투자를 통한 이윤창출과 함께 첨단산업,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국가 산업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1) 1990년 이전의 육성 정책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등장한 것은 1965년 6월 14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률 제

1698호)으로 체육용구의 생산장려와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보조 및 면세 규정이 마련되면서부터다. 동법 제14조의2는 “국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운동용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1966. 2. 7. 대통령령 제2404호)에서는 “운동용구 생산업자에 대한 용자의 알선과 외국의 운동용구 생산기술의 도입과 보급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용품업의 육성과 외국 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 발전을 추진하였다.

또한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체육시설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시설 소요 경비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규격이 국제 공인 기준에 적합한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민간체육시설업 자체의 육성이라기보다는 부족한 국제경기대회 시설의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체육용구와 기자재”로 생산 장려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용구 생산우수업체를 지정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설치 자금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융자제도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고 199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6개 체육용구생산 업체에 9억 7,900만원이 지원되었다.

1989년 3월 31일에는 문교부, 보사부, 교통부, 농림수산부 등에 분산 관리되어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이 곤란하였던 체육시설 관련업무를 일원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민간 체육시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는 체육용구의 품질수준향상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용구의 적정한 공급을 목표로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전시회 개최 지원, 국산 체육용기구 구매·사용을 적극 장려하였으며, 대한체육회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으로 하여금 품질향상 및 표준화 기술지도를 하게 함으로써 공인 제품의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우수체육용구업체 지정 대상과 용자규모를 확대하여 스포츠용품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민간스포츠시설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체육시설 설치·운영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1996년 60개 스포츠시설업체에 51억8,000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2)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처음으로 ‘스포츠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스포츠를 산업적 시각에서 다루었다. 이 계획은 민간체육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용품업체에 대한 지원, 우수생활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산업적 지원, 경륜·경정 등 여가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소비자의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스포츠산업육성대책(2001)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2001년 8월 「스포츠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스포츠자원의 상품가치 개발, 스포츠서비스업 중점 지원,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지식정보 기반 구축,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장·단기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스포츠용품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 스포츠용품인증제도 시행, 우수체육용구 생산장려 및 용자지원 확대, 국제스포츠산업박람회 정기 개최
- ② 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 :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체육시설 경영 전문인력 양성
- ③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스포츠서비스업 집중 육성 :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정보화 지원, 스포츠마케터 등 전문인력 양성
- ④ 장기발전과제 : 스포츠산업육성재단 설립, 스포츠산업지원법령 제정

(5) 스포츠산업 비전 2010(2005)

문화관광부는 체육국의 직제개편을 통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2004년 11월 신설하고 스포츠산업을 21세기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스포츠산업 비전 201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지원하여 국가 전략 산업의 하나로 성장시키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동 발표 주요내용은 스포츠산업 진흥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향후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를 집중지원하는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스포츠산업 진흥 추진기반 구축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정,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조직 설립,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대상·스포츠서비스업 공모전 확대,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체계 구축
- ②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 IT 활용 첨단 스포츠용품 개발, 국제수준의 품질인증제(KISS) 시행 및 해외 유명 인증 획득 지원, 투자유인 및 마케팅 촉진
- ③ 레저스포츠산업 기반 확대 : 레저스포츠인구 1,000만 대비 제도 완비,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등으로 시설확충, 값싸고 접근이 용이한 대중골프장 확충
- ④ 프로스포츠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 프로스포츠 마케팅 역량 제고, 야구돔구장 건설 지원 및 프로경기 단체의 운영여건 개선, 기존 국제대회 육성 및 전략종목 국제대회 유치

(6) 2009~2013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2008)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강국에 걸맞는 스포츠산업 선진국 도약'을 비전으로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표적 융·복합 산업으로서 신성장 동력화', '순환구조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3대 목표 아래 5대 추진전략 및 15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선진국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 ① 스포츠용품 대표 브랜드 육성 : 중소 브랜드 유통망 및 내수 기반 확대, 10대 글로벌브랜드 육성 및 수출 촉진, 인증 지원체계 확립 및 상품화 지원
- ② 스포츠 융합 신서비스 창출 : 미래형 신규 스포츠콘텐츠 기술개발, u-스포츠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활성화, 모태펀드 조성으로 마케팅회사 육성 및 창업 지원
- ③ 프로스포츠 경쟁력 제고 : 프로구단 지역연고제 및 경기장 장기임대 도입, 시장확대를 위한 아시아리그제 등 도입, 프로구단 마케팅 및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④ 지역 스포츠산업 수요창출 및 인프라 구축 : 한류 스포츠 관광상품 육성, 지역 스포츠관광 인프라 조성, 민간 체육시설 경영 활성화
- ⑤ 스포츠산업 진흥기반 구축 : 스포츠산업 진흥 조직체계 구축, 스포츠산업 통합정보망 구축,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2) 스포츠산업 관련조직 설치

(1) 스포츠산업연구실

정부는 스포츠산업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스포츠산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01년 9월 30일 기존의 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과 시스템개발팀에서 담당하던 스포츠산업 관련 업무를 별도의 전문성을 지닌 스포츠산업연구실로 확대 개편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업무 및 연구개발을 전담하도록 했다.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연구실의 규정상 업무내용은 스포츠산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기획업무, 문화관광부 체육국의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각종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하는 것과 스포츠용품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증관련 업무를 지원·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육과학연구원의 조직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스포츠산업연구실은 스포츠용품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증관련 업무를 주로 전담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험소 설치·운영 중이다.

(표 8-19)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산업 연구 조직구조 변화

연 도	1999	2000	2001~2002	2003~2008
연구조직 (팀/실)	정책개발팀 생활체육팀 전문체육팀 시스템개발팀 정보전산팀 국민체력센터 (5개팀 1센터)	정책연구팀 전문체육팀 시스템개발팀 정보전산팀 (4개팀)	정책개발연구실 전문체육연구실 정보전산연구실 스포츠산업연구실 (4개연구실)	정책개발연구실 전문체육연구실 스포츠산업연구실 (3개연구실)

(2) 스포츠산업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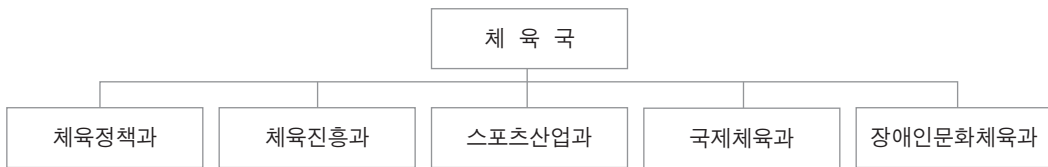
스포츠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공단내 스포츠산업부를 2005년 2월 신설하고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관련 업계를 지원하고 스포츠산업의 신규 영역을 창출하여 산업 규모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적 틀을 준비하였다. 스포츠산업부의 주요업무는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제도 개발과 우수 체육용구, 기자재 생산 및 장려와 용자지원, 체육시설업 용자지원, 스포츠서비스업 용자지원 등 스포츠산업체를 직접 지원하며 스포츠박람회 개최 및 참가업체 지원, 우수 스포츠산업체 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인 측

면에서 스포츠산업체를 지원한다. 한편 스포츠산업대상 및 스포츠서비스업사업공모전을 통해 업체를 격려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더불어 신규사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 및 운영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업무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내 스포츠산업과 설치

(1) 스포츠산업과 설치 배경

정부는 스포츠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2004년 문화관광부 체육국내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06년 초 스포츠여가산업과는 문화관광부 조직의 팀제로 전환하는 개편을 맞이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스포츠산업팀으로 개칭하고 담당업무를 스포츠산업에 한정하여 업무의 집중도를 개선하였다. 스포츠산업팀은 스포츠산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국민의 스포츠관련 소비 증대에 대비함과 더불어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스포츠산업을 국내 경제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성장기반을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림 8-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조직도(2008. 12월 현재)

(2)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정부가 스포츠산업을 전담할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주40시간 근무제 확산 등 새롭게 제기되는 스포츠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포츠산업을 21세기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특히 스포츠산업의 근간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제 “스포

츠경영관리사”를 시행, 스포츠마케터 등 스포츠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 정책 추진기반인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스포츠산업진흥법에는 스포츠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기틀마련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용어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육성지원 의무규정, 거점조직 설치,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육성관련 시책 등이 규정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스포츠산업진흥시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산업의 정책 및 지원대상을 기존의 전통적 스포츠산업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책적 대상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왔던 신종 여가스포츠산업도 포함시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상으로 하여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신종여가스포츠는 그 활동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상당 부분의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즐기기에는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안전검사를 획득한 질 높고 저렴한 장비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고품질의 국내브랜드를 외국에 수출하여 외화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레저스포츠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패러글라이딩 장비는 국내업체가 유럽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가이미지 제고와 외화획득에도 큰 몫을 하고 있어 향후 신종여가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경우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여가스포츠분야와 신종여가스포츠분야 산업에 걸린 각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과 관련된 레저스포츠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여가체육의 개념정립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래프팅장·활공장 등 신종 레저스포츠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레저스포츠 소비자 및 관련업체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의 추진하는 등 레저스포츠 관련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2. 스포츠용품업 지원정책

1)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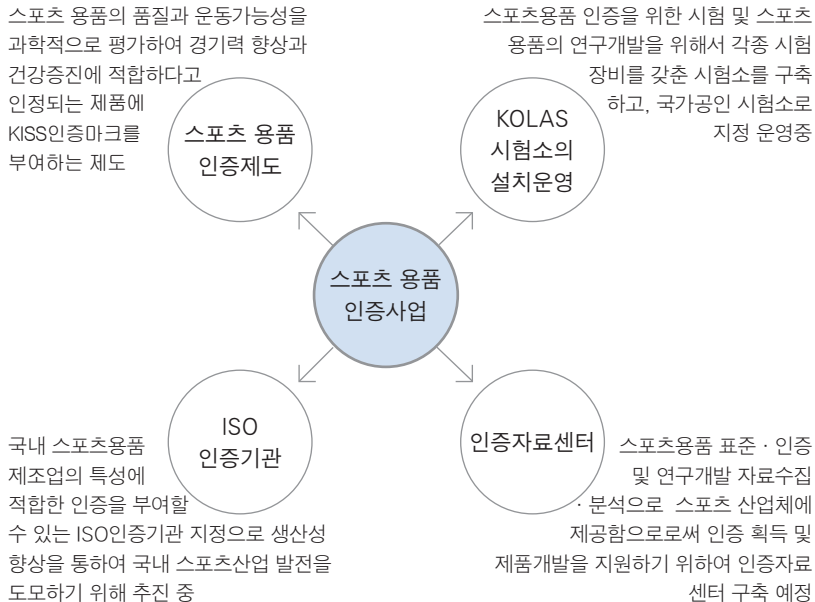
(1) 인증제의 개념 및 필요성

정부는 국내 스포츠용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는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운동용품에 대하여 품질과 운동기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제품을 공인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의한 무역자유화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산업, 무역, 금융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산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국에서는 WTO의 무역기술장벽(TBT) 규제원칙을 준수하면서 표준·인증제도를 자국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른바 표준, 기술, 무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준·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유인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2)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사업의 구성

스포츠용품 인증사업은 스포츠용품 인증제도의 도입, 제품의 과학적 시험을 위한 국가공인(KOLAS) 시험소의 설치 운영, 스포츠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SO 인증기관 지정 운영, 스포츠산업 정보와 자료를 서비스하는 인증자료센터의 설립 운영 등 네 분야로 구성된다. 스포츠용품 인증제 사업의 구성도는 <그림 8-3>과 같다.



<그림 8-3> 인증제사업 구성도

(3) 인증제사업 추진현황

정부는 국내 스포츠용품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63.2억원을 투자하여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8년말 현재까지 학교체육시설 등 75종의 인증규격을 개발하였으며, 인증 전산시스템 개발과 인증마크(KISS)를 제정하여 스포츠용품인증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험·검사를 위한 장비(만능재료시험기, 삼차원측정기, 로크웰경도기 등 62종, 2008년말현재) 도입을 통해 스포츠용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63.2억원을 투자하여 인증제 운영 전반의 컨설팅, 인증서류, 인증패, 홍보물 제작 등 인증제 도입 기반 마련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을 통한 인증사업의 기반 조성, 국내 공인 시험·검사기관 지정,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인증기관 지정과 공인시험·검사업무 등을 시행하였다.

(표 8-20)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를 위한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3까지	2004	2005	2006	2007	2008
금 액	63.2	25	10	8.5	7.2	7.5	5

(표 8-21) 인증 시험·검사장비 도입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품 목(총 47개)		
2001	4	• 동적재료시험기 • 정밀측정선반	• 삼차원측정기	• 로크웰경도시험기
2002	6	• 정적재료시험기 • 회전굽힘피로시험기	• 충격시험기 • 공기압축측정기	• 브리넬경도기 • 소형장비
2003	12	• 비틀림시험기 • 축하중측정기 • 소형장비 및 시험보조기구 등 3개	• 부하측정시스템 • 공구입체현미경	• 영상분석장비 • 온도조절챔버 • 항온습습기 2개
2004	10	• 비커스경도기 • 낙하식 충격시험기 • 소형시험장비 등 4개	• 낙하식 반력측정기 • 스트레인특정시스템	• 수평식 충격시험기 • 비파괴 검사기
2005	7	• 마찰시험기 • 초정밀 정적재료시험기	• 난연성시험기 • 소형 및 시험보조장비 등 3개	• 표면분석장비
2006	8	• 골프클럽 내구성시험기 • 스포츠화 피로시험기 • 자전거시험모듈	• 투사체 역학량측정기 • 골프클럽피팅시스템 • 런치모니터	• 자전거 구조 시험기 • 사이클운동량측정기

구분	계	품 목(총 47개)
200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프클럽 내구성시험기 •경사형 축구공 발사시험기 •샤프트토크측정기 •인조잔디회전저항측정기 •공압용 콤프레서 •기상관측기 •축구공구름길이측정기 •이동형인조잔디충격시험기 등 19 개 •표면형상 측정기 •하중편차측정기 •골프스윙측정기
200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부품충격시험기 •육상트랙성능측정기 •자전거프레임배열측정기 •휴대형다기능측정기 •골프공역학측정시스템 •인조잔디감속측정모듈 •스포츠기능분석기 •자전거구동저항측정기

*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2008). 내부자료

또한 2005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기반 구축사업을 바탕으로 스포츠용품 품질 인증 마크인 KISS 마크를 복싱관련 3개 업체의 3개 품목에 부여하는것을 시작으로 2008년말까지 신도상사, 프로사이클 등 18개업체의 복싱글러브, 자전거 프레임, 인라인스케이트 등 38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였다.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 받은 업체는 3년간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게 된다.

(4) 향후 추진과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용기구 관련 표준과 인증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체육용기구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가 있어야 한다. 법제도화에는 새로운 법의 제정, 기존 관련법의 활용, 단체 내규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법제도화 방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제도 등 유사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체육용기구 인증제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시험과 검사가 필수적이다. 공인 시험·검사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전문기술 요원, 시험장비 뿐만 아니라 시험 환경조건, 시험 결과의 숙련도, 시험 실적, 시험·검사업무의 규정화 등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연차적으로 공인 시험·검사 기관화를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체육용기구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규격 개발이 필요하므로 국내외 표준, 인증 관련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규격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들 자료를 스포츠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하고 필요할 경우 표준,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할 표준, 인증 관련자료 센터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되면 스포츠산업체와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어 전반적인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스포츠산업 박람회 개최

(1) 개최 목적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스포츠용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스포츠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2) 2008 서울국제스포츠산업전 개최

2001년 5월1일부터 5월6일까지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 국내·외 28개국 139개 스포츠용품업체가 참가하여 제1회 서울국제올림픽(스포츠산업) 박람회(International Olympic Fair Seoul 2001)를 개최하였다. 이 박람회는 국제스포츠용품 전시회, 국제올림픽기념품 전시회,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로 구성되었다.

국제스포츠용품 전시회에는 11개국 139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28개국 1,272명의 바이어가 참가하였다. 박람회를 통해서 진행된 스포츠산업 관련 상담건수는 850건에 이르고 그 중 2002년까지 25건(12개 업체) 1,736만 달러(220억원)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에는 IOC 문화교육 및 수집가분과위원회의, WFSGI(세계스포츠용품산업연맹) 이사회 및 3개 분과위원회의, WFSGI 이사회 아시아지역 특별회의를 비롯한 각종 학술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됨으로서 이론과 실재를 병용한 종합 박람회로 개최되었다.

2003년 박람회에는 11개국 182개 업체가 참가하여 내수부문에 1,479건과 수출부문에 190건의 상담실적과 내수 25,030백만원과 수출 86,612천 달러의 계약실적을 기록하였다.

2004년에 들어서는 박람회의 명칭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eoul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 Industry Show)으로 개칭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 주체의 변화를 시도했으며 그 내용도 내실화를 꾀했다. 2004년 박람회에는 16개국, 190개 업체가 참가하여 내수 3,566건과 수출 418건의 상담과 내수 15,667백만원, 수출 191,923천 달러의 계약을 성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박람회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134개 업체와 해외 69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03개 사가 참여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09부스, 해외업체가 170개 부스를 사용하여 2004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2006년 박람회에는 2월 23일부터 일정을 앞당겨 2월 2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8장 스포츠산업

개최되어 212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내수 부문에 4,325건과 수출부문에 450건의 상담실적과 내수 28,303백만원과 수출 93,350천달러의 계약실적을 기록하였다.

2007년 박람회에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143개 업체와 해외 73개 업체를 포함해 총 216개 사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08부스, 해외업체가 142부스를 사용하였다.

2008년 박람회에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148개 업체와 해외 76개 업체를 포함해 총 224개 사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16부스, 해외업체가 140부스를 사용하였다. 박람회의 규모, 참가국, 바이어 내한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표 8-22) 2008 서울국제스포츠박람회 전시규모 현황

구 분	국 내		해 외		계
	업 체	부 스	업 체	부 스	
2008년	148개사	616부스	76개사	140부스	224개사 756부스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2008). 2008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8-23) 국가별 전시참가업체 현황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독일	중국
업체수	148	29	8	6	6	4
구분	이태리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기타	합계
업체수	7	5	2	2	7	224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2008). 2008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8-24) 품목별 참가비율

계	피트니스 /헬스	아웃 도어라이프	수상/수중 스포츠	스포츠의류 /신발	일반 스포츠 용품	액티브 /익스 트림	기타
100%	23%	11%	29%	5%	15%	6%	11%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2008). 2008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8-25) 해외바이어 참가현황

계	일본	북미	남미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중국	중앙아시아	호주
601	205	78	5	133	45	25	74	23	13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2008). 2008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8-26) 상담 및 계약실적

구 분	내 수		수 출	
	금액(백만원)	건수(건)	금액(천달러)	건수(건)
2004년	15,667	3,566	191,923(220,711백만원)	418
증 감	-37.4%	141.1%	121.5%	-120.0%
2005년	32,287	4,567	92,252(106,090백만원)	433
증 감	106.1%	28.1%	-51.9%	-3.6%
2006년	28,303	4,325	93,350(백만원)	450
증 감	-12.3%	-5.3%	1.2%	3.9%
2007년	26,940	4,129	94,710(백만원)	472
증 감	-4.8%	-19.7%	1.4%	4.8%
2008년	25,890	4,216	95,840	480
증 감	-4.0%	2.1%	1.2%	1.7%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2008). 2008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3) 스포츠산업박람회 종합 평가

2008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16개국 224개사 756개 부스가 설치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서 수중스포츠는 증가한 반면 액티브 및 익스트림 업체 참여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수해외박람회와 차별화 전략으로 발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헬스 및 피트니스 부문은 매년 제품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참가업체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박람회의 특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운영인력의 최소화 및 전시대행사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증대하여 내실있는 행사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Spoex 박람회는 국내 유명박람회 중 10위내(모터쇼, 경향하우징, IT 전시회 등)에 들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부산시의 벡스포, 문화일보의 아웃도어 익스트림쇼 등 유사 박람회 신설을 유도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단지 박람회 자체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스포츠산업의 전체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규모면에서 중국, 미국, 독일 등 세계 유명 전시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이 사실이며 종목별 전시관의 구성도 미흡한 편이다. 또, 인지도가 높은 해외 대형 종합브랜드 업체의 참여도 미미한 점, 헬스 및 피트니스 종목에 편중되어 종합전시회로써의 신제품 및 전시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 참관객 중 실질구매 상담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아직은 미미한 것 등은 보완

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4) 개선방향

스포츠산업박람회가 아직은 인지도가 미약한 면이 있지만 국내 스포츠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박람회라고 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유사 스포츠산업박람회의 통합 또는 동시개최를 통해 박람회 부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신제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전시품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박람회와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피트니스, 아웃도어, 인라인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박람회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으며 무역 상담을 위한 소음규제,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급 비즈니스 전문전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으로 박람회의 질적이며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적 기구 등과 연계하여 전시를 갖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해외 국가관을 활성화하고 박람회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면 좀 더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기금융자 확대

(1)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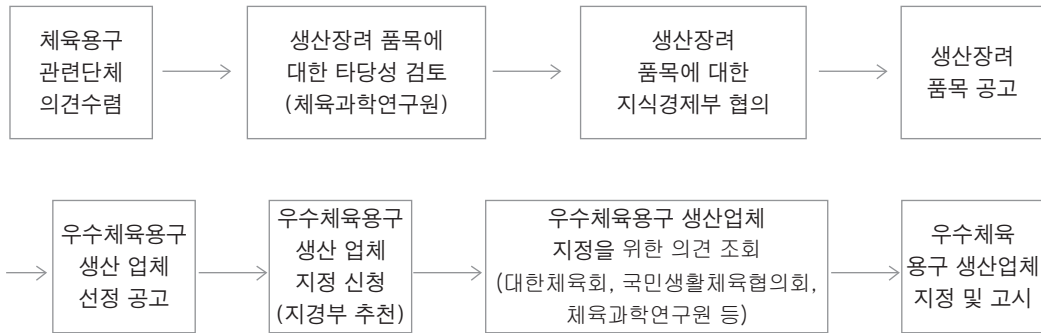
국내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생산장려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생산장려 품목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생산장려 체육용품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생산을 장려하는 체육용구·기자재는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 학교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 및 기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 등이며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장려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 구입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절차는 <그림 8-4>와 같다.



<그림 8-4>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절차

2008년 12월 현재 생산장려 품목으로 지정된 체육용구는 모두 464개 품목이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113개 업체이다. 생산장려품목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현황은 (표 8-27), (표 8-28)과 같다.

(표 8-27) 생산장려 체육용구 지정현황

종 목	품 목(464품목)
검 도	죽도, 목검, 호구, 도복, 전통도검
게이트볼	게이트용구
골 프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장갑, 골프채, 골프하드커버, 골프카트, 퍼팅연습기, 골프연습용구, 그린볼과 티, 만능클럽, 볼하우스, 골프그림, 골프화
공 수 도	경기용글러브, 샷보대, 마우스피스, 도복, 보호대(가슴, 팔, 정강이, 발 등), 심판기발, 심판화
국 무 도	코브라장갑, 치마, 보호대(몸통, 발목, 발등, 머리, 낭심, 정강이), 암미트(타켓), 막대미트(타켓), 만능미트(타켓), 스폰지 검
궁 도	화살(개량화살, 전통화살), 활(개량활, 전통활, 양궁활), 화살통, 각지, 핸들, 날개, 표적지, 조준기, 쿠션, 스태빌라이저
근력단련기구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근력단련보조용구, 체력단련시스템, 야외용체력단련기구
낙 시	안전모, 안전화, 구명복, 낚시복, 섀글라스, 텐트, 낚시대, 릴, 낚시가방 및 보조가방, 쿨러
승 마	바지, 부츠, 장갑, 헬멧
수상레저스포츠	구명조끼, 구명환

제8장 스포츠산업

종 목	품 목(464품목)
씨 림	살바, 팬티, 씨름경기장
야 구	야구공, 야구글러브, 야구배트, 보호장구(케처보호구 등), 모자, 헬멧
역 도	역도바벨원판, 경기대, 연습대, 하체대, 역도바벨
요 트	딩기(Dinghy)요트, 크루징요트, 모터요트(보트), 구조정
우 슈	투로용구(카페트, 신발, 유니폼, 도, 검, 창, 곤 등), 산타용구(산타경기장, 글러브, 헤드기어, 가슴보호대, 낭심보호대, 정강이보호대, 마우스피스, 유니폼)
유 도	유도복
유산소 운동기구	자전거에르고미터, 계단오르기운동기구, 전동식러닝머신, 엘립티컬(타원궤도 보행체력 단련기),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육 상	사건판정기, 스타팅블럭, 원판, 투창, 풍향풍속계, 포환, 해머, 허들, 디지털 줄자, 무인카, 높이뛰기 지주, 장대높이뛰기 지주, 해머 원반 그물망, 장대높이뛰기매트, 높이뛰기용매트, 마라톤 전자계측 시계(차량부착용), 3000SC 이동장애물, 주회표시기(디지털식 및 수동식), 스타트용 확성장치, 멀리뛰기 구름판(세트), 높이뛰기 고도계, 높이뛰기 바, 장대높이뛰기 고도계, 장대높이뛰기 바, 장대높이뛰기 상자, 포환 이동레일
인라인롤러	경기복, 인라인스케이트, 바퀴(휠), 신발, 지지대, 무릎보호대, 장갑, 헬멧, 팔꿈치 보호대, 베어링, 프레임, 고글, 콘(고깔), 락
재활운동기구	보행연습기, 평행봉연습기, 휠체어, 암에르고미터
정 구	고무공, 정구라켓, 정구네트, 정구라인테이프, 지주, 정구라인척소기
족 구	족구지주네트(지주, 네트, 라인), 점수판, 경기용 족구공, 전용족구화
조 정	경기정, 노
종합무술	도복, 보호대(머리, 몸통, 팔, 다리, 낭심), 장갑, 위·장 운동기계
주행식 운동기구	스케이트보드, 퀵보드(핸들브레이크, 바퀴, 핸들)
줄다리기	로프
체력측정장비	체성분분석기, 악력측정시스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시스템, 제자리멀리뛰기 측정시스템, 50m 달리기 측정시스템, 왕복달리기 측정시스템, 윗몸일으키기 측정시스템
체육계측장비	레이저스톱워치, RFID계측장비(수신기 등)
체육시설	바닥재(고무블럭 등), 인조잔디, 전광스크어판(휴대용 포함), 매트(공수도, 단학기공, 레슬링, 배드민턴, 유도, 줄다리기, 체조, 태권도 등)
체 조	뽀뽀, 철봉, 체조복, 평행봉, 트램플린(체조경기 일종),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링, 체조차지매트, 에어매트, 구름판, 프로텍터
축 구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구(발목보호대 등), 축구글러브, 골대, 임원선수벤치, 경기복, 골키퍼장갑, 동계축구니트장갑

종 목	품 목(464품목)
카 누	경기정, 패들(노)
컬 링	발판, 브러쉬, 슈즈, 컬링스톤
탁 구	탁구공, 탁구넷트, 탁구대, 탁구라바, 라지볼, 라지볼용네트, 라지볼용지주, 라지볼용러버
태 권 도	도복, 보호대(다리, 머리, 몸통, 팔, 손등, 발등 등), 살보대, 전자호구
택 건	택견수련복(철릭, 대자, 행진, 버선), 택견경기복, 경기용 매트
테 니 스	테니스공, 테니스넷트, 테니스라켓, 지주, 스트링거
T볼	배트, 공
파크골프	클럽, 공, 신발
풋 살	풋살볼, 풋살화, 풋살골대
패러글라이딩	기체(리스폰스, 밀레니엄, 컨피던스, 콘트롤, 프라임, 프로미스), 보조낙하산(대, 중, 소), 비행복, 산 줄, 웨빙, 하네스(선수용, 아크로, 연습자용, 코로나), 헬멧
펜 싱	심판기, 펜싱검, 전기심판기, 메탈피스트, 릴, 릴선
하 키	필드하키네트, 골대
핸 드 볼	핸드볼공, 핸드볼네트, 골대, 왁스
기 타	건강시계(심박측정기능 포함), 종목별 전문신발(암벽화, 스쿼시화, 소프트볼 경기화, 댄스스포츠화, 볼링화), 운동보조영상장치, 라인마커, 기능성신발, 운동화, 진동운동기, 어린이 놀이기구(조합놀이대, Fun Climber 등), 오십견예방운동기, 고령자용 운동기구(체력단련용, 재활치료용, 정신훈련겸용, 스트레칭용)

(표 8-28)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현황

(2008. 12월 현재)

지 정 업 체	지 정 품 목(464품목)
(주)낫소	축구공, 테니스공
동화에스엔티(주)	농구대, 허들, 스타팅블럭, 역도바벨, 철봉, 기계식 체력단련기구(Q마크 인증품에 한정), 평행 봉허들, 포환, 원반
미진체육산업	농구대
(주)삼익스포츠	양궁활
(주)낫소골프	골프공
수풍산업(주)	수영장용구(대한수영연맹공인품에 한정),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인공패널, 인공홀드, 근 력단련기구(야외용체력단련기구)
용운체육산업(주)	허들, 스타팅블럭, 뒹들, 체조매트, 레스링매트캔파스, 높이뛰기지주, 높이뛰기매트, 장대높이 뛰기지주, 장대높이뛰기매트
원앤원스포츠	양궁활(박주경)

제8장 스포츠산업

지정업체	지정품목(464품목)
주식회사 챔피언	탁구대
파트너스교역상사	복싱헤드기어, 복싱컴퓨터체점기, 복싱글러브, 복싱링
(주)팬텀골프	골프공
풍국레포츠	농구대, 허들, 스타팅블럭, 역도바벨, 철봉, 포환, 해머, 축구골대, 축구임원선수 벤치, 장대높이뛰기지지주, 높이뛰기지지주, 해머원반그물망, 럭비골대
한국체육산업	역도바벨(장승환)
한아스포츠	포환, 해머, 원반, 허들, 스타팅블럭, 사진판정기, 높이뛰기지지주, 해머그물망, 3000SC이동장 앰물 멀리뛰기 구름판, 높이뛰기 고도계, 장대높이뛰기 고도계
개선스포츠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김해산업사	야구글러브
신아스포츠산업	농구대, 탁구대
(주)에스피레저	수영코스로프 및 권치기 · 스타트대 · 배수그레이트 · 안전감시대 · 수위조절판, 수영장 자동 청소기
오성체육산업	농구대
주식회사 키카	축구화, 축구공
(주)에스앤에스케어	자전거에르고미터 엘립티컬
(주)대정	배구네트, 축구골네트, 농구네트, 배드민턴네트, 필드하키네트, 핸드볼네트
(주)비바스포츠	축구공, 셔틀콕
(주)허리우드	포켓당구대, 케농당구대
태하메카트로닉스(주)	전동식런닝머신
현대체육산업(주)	매트(체조, 유도, 레슬링용), 수영장용구(눈슬림매트, 다이빙보드, 수구골대, 수위조절판, 수중창, 출발대, 코스로프), 농구(농구대), 우수(투로용구), 근력단련기구(야외용체력단련기구)
제맥스코리아	탁구대
와타엔지니어링	런닝머신
(주)범우티엔씨	눈슬림매트, 배수그레이팅 수구골대, 수위조절판, 수중창, 심판대, 출발대, 코스로프 핸드레일
디트론(주)	건강시계
에이피전자(주)	전광스코어판
(주)미립기술	골프퍼터
삼성포리머(주)	우레탄바닥재
스포맥스	기계식체력단련기
(주)대한전광	전광스코어판
한국메가스포츠판사(주)	야구글러브, 골프장갑
신신상사(주)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핸드볼공, 테니스공

지정업체	지정품목(464품목)
(주)평화산업	탁구공, 탁구라바
에스케이월(주)	등반패널, 인공홀드
한일스포렉스	포환, 원반, 스타팅블록, 높이뛰기지지
(주)디자인파크개발	야외용체력단련기구
(주)다이나포스	기계식체력단련기구
(주)신화마린	크루징요트
(주)코베아	가스버너
(주)에어스켓	인라인
(주)동광산업	골프클럽, 골프샤프트
대우스포츠산업	농구대, 허들, 스타팅블럭, 장대높이뛰기지지, 배구지지, 배구심판대, 배드민턴 지지, 핸드볼 골대, 축구골대, 축구임원용 벤취
트랑고	등산화,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비너, 슬링/테이프, 빙벽용아이젠, 아리스엑스
(주)우남마린	구조정보트
(주)한국오리온	기계식체력단련기구
(주)동방데이터테크놀로지	전광판, 스코어보드
(주)태권웨일리	손·발등보호대, 팔·다리보호대, 머리보호대, 몸통보호대, 낭심보호대
(주)홍진HJC	오토바이헬멧
탑드림	댄스스포츠화
(주)모투스	전동식런닝머신, 유산소운동기구(엘립티컬 등)
삼익전자공업(주)	스코어보드전광판
(주)오투런	체력진단시스템
승경체육산업(주)	기계식체력단련기구(Q마크 인증품 한정), 농구대, 배구지지, 배구지지금구, 배구심판대, 배구 지지보호대, 축구골대
(주)시즈에프엔티	스키장갑
(주)제이슨상사	골프화, 스케이트보드화
디스커버리씨에스(주)	인공패널, 인공홀드
(주)이심기술	스쿠터
(주)어머니골프	골프(골프그립)
(주)바이오스페이스	체력측정장비(체성분분석기), 운동관리·처방·운영·지도관련 프로그램
(주)이다체육산업	수영(배수그레이팅), 수위조절판, 코스로프, 농구대
(주)케이엘에스	근력단련기구(야외용체력단련기구)
(주)티에스코리아	기타(전동운동기)

제8장 스포츠산업

지정업체	지정품목(464품목)
(주)재영엠앤씨	체육시설(의자 :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하나산업사	골프(골프클럽)
(주)승리체육산업	육상(높이뛰기지주, 장대높이 · 높이뛰기매트)
(주)리임코리아	골프(골프채)
(주)컬처메이커	태권도(신발, 도복, 보호대)
(주)태용	사이클(자전거부품)
(주)이지업	사이클(레저용자전거)
(주)블루파워코리아	골프(골프가방)
N-COREA	바이애슬론(롤러스키 : 프레임/휠)
인피닉스(주)	골프(퍼팅연습기)
(주)휴먼메텍스텍	진동운동기
(주)대원포티스	유산소운동기구(헬스용승마용 운동기구)
태영산업	유산소운동기구(런닝머신)
(주)INS102	스포츠의류(경기복)
(주)자이로	인라인롤러스케이트(바퀴)
맥스SNI(주)	야구배트
시원교구	라인 마커
하드스포츠	야구공
중앙체육공사	농구대, 배구지주, 배구심판대, 배구지구금구, 배구지주보호대, 배드민턴지주, 복싱링, 에어로빅매트,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허들, 높이뛰기지주, 장대높이뛰기지주, 높이뛰기용매트, 정구지주, 족구지주, 점수판, 매트, 뒹툼, 철봉, 평행봉, 이당평행봉, 평균대, 구름판, 프로텍터, 축구골대, 선수벤취,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하키(필드하키골대, 필드하키골대네트)
가야스포츠	개량활
(주)제일체육공사	야외용체력단련기구
웰텍	체력측정장비
(주)누리텍아이앤씨	체력측정장비
경일산업(주)	야외용체력단련기구
G.K SAIL	요트세일
동화체육(주)	농구대
소마스스포츠	양궁표적지
(주)자원메디칼	체성분분석기
(주)디엠비에이치	3차원 골프센서
(주)스카이라인스포츠	야구공

지정업체	지정품목(464품목)
(주)제이케이보드	근력단련보조용구, 에어로빅매트
한별체육산업	농구(농구대), 근력단련기구(근력단련기구)
이글아이드	골프화(기능성 골프화)
(주)스포닉스	스포츠IT(심폐 지구력측정용무선심박동평가 시스템)
(주)티에스메디텍	기타(음파진동 운동기)
(주)사루스	기타(진동운동기)
테크웨이브(주)	체육계측장비(RFID TAG)
(주)라저스트스포츠	태권도(전자호구)
(주)다트피쉬코리아	스포츠IT(학생건강 체력평가시스템 자세평가도우미)
신광바둑	바둑(바둑알)
광신스포츠	농구(농구대), 근력단련기구(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주)와룡산업	생활체조(줄넘기, 훌라후프)
(주)하림	낚시(낚시대)
(주)조인조경	근력단련기구(야외용 체력단련기구)
파마스스포츠	테니스(테니스라켓)
(주)구보코포레이션	파크골프(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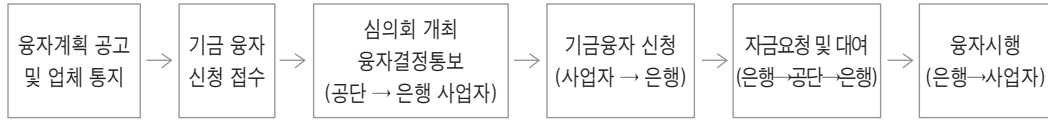
(3) 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 융자 사업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기금 융자 사업은 1991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 연간 18~2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자 대상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110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이며,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설비자금은 5억원, 연구개발자금은 3억원, 원자재구입 자금은 1억원을 한도로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 이율은 2001년 6%에서 2002년과 2004년 5%와 4%로 인하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및 조건은 (표 8-30)과 같다.

(표 8-29)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융자 사업개요

융자대상	융자분야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융자이율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설비자금	5억원	10년(거치기간4년)	4%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거치기간2년)	
	원자재구입자금	1억원	3년(거치기간1년)	



〈그림 8-5〉 기금 용자 시행절차

1991년 6개 업체에 설비투자 6억원, 연구개발 3억7,900만원 등 총 9억7,900만원을 처음으로 융자한 이후 2008년까지 103개 업체에 총 159억 2,800만원을 융자하였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연도별 기금융자현황은 (표 8-30)과 같다.

(표 8-30)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융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용자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합 계	총 계	180	36,091	161	28,822	103	15,928
	설비투자	65	18,175	57	13,700	29	5,874
	연구개발	75	14,186	67	11,857	48	7,858
	원자재구입	40	3,730	37	3,265	26	2,196
'91	계	12	2,742	6	979	6	979
	설비투자	9	2,363	3	600	3	600
	연구개발	3	379	3	379	3	379
'92	계	6	1,500	6	1,000	4	500
	설비투자	4	1,100	4	800	2	300
	연구개발	2	400	2	200	2	200
'93	계	7	1,565	4	1,100	3	699
	설비투자	4	1,100	3	900	2	499
	연구개발	3	465	1	200	1	200
'94	계	8	1,759	8	1,400	6	903
	설비투자	4	1,089	4	860	2	435
	연구개발	4	670	4	540	4	468
'95	계	7	920	6	720	4	470
	설비투자	1	180	1	180	-	-
	연구개발	6	740	5	540	4	470
'96	계	10	2,107	9	1,867	6	885
	설비투자	4	1,110	4	1,070	2	288
	연구개발	6	997	5	797	4	597
'98	계	14	1,910	14	1,910	10	1,490
	설비투자	3	370	3	370	1	250
	연구개발	6	1,080	6	1,080	5	880
	원자재구입	5	460	5	460	4	360

구 분	용자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99	계	8	1,249	8	1,249	4	669
	설비투자	3	569	3	569	1	292
	연구개발	3	480	3	480	2	277
	원자재구입	2	200	2	200	1	100
'00	계	19	3,213	19	3,213	10	1,346
	설비투자	5	994	5	994	1	50
	연구개발	7	1,542	7	1,542	4	796
	원자재구입	7	677	7	677	5	500
'01	계	8	2,000	7	1,900	2	525
	설비투자	3	1,100	3	1,100	2	525
	연구개발	3	700	2	600	-	-
	원자재구입	2	200	2	200	-	-
'02	계	7	1,965	7	1,965	6	1,580
	설비투자	4	1,465	4	1,465	3	1,080
	연구개발	2	400	2	400	2	400
	원자재구입	1	100	1	100	1	100
'03	계	8	1,380	8	1,380	8	1,380
	설비투자	1	180	1	180	1	180
	연구개발	4	900	4	900	4	900
	원자재구입	3	300	3	300	3	300
'04	계	10	1,960	10	1,960	8	1,107
	설비투자	2	560	2	560	1	60
	연구개발	4	1,000	4	1,000	3	700
	원자재구입	4	400	4	400	4	347
'05	계	7	1,842	7	1,842	-	-
	설비투자	4	1,339	4	1,339	-	-
	연구개발	2	403	2	403	-	-
	원자재구입	1	100	1	100	-	-
'06	계	7	2,100	7	2,100	4	1,050
	설비투자	2	1,000	2	1,000	1	500
	연구개발	3	900	3	900	2	450
	원자재구입	2	200	2	200	1	100
'07	계	12	2,038	10	1,638	5	857
	설비투자	2	494	2	494	1	63
	연구개발	5	1,050	4	750	2	600
	원자재구입	5	494	4	394	2	194
'08	계	30	5,841	25	2,599	17	1,488
	설비투자	10	3,162	9	1,219	6	752
	연구개발	12	2,080	10	1,146	6	541
	원자재구입	8	599	6	234	5	195

3. 체육시설업 및 스포츠서비스업 지원정책

1)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기금융자

(1) 목 적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체육시설업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1996년부터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융자 대상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융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등록 체육시설(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신고 체육시설 중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설치자금 과 개·보수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시설업체 융자제도는 연간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부가금 대상 시설이었던 수영장(시설설치 및 개·보수), 볼링장, 골프연습장(시설 개·보수)으로 제한하였으나 1997년 종합체육시설, 1998년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개·보수 융자를 확대하였으며, 2004년 체력단련장까지 추가하였다. 융자이율은 우수체육용구 생산 업체에 대한 융자와 같이 2004년도에 4%로 인하하였다.

(표 8-31) 체육시설업체 기금융자 기준

융 자 대 상		융자분야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융자이율
체 육 시 설 업 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 체육시설 신규설치자 (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자금	3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4%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신규설치자		5억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개·보수 자금	5억원	(거치기간 1년)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3억원		

시설설치자금은 등록체육시설의 경우 30억원(융자기간 10년), 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은 5억원(융자기간 10년)이며, 개·보수자금은 등록체육시설 5억원(융자기간 3년), 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은 3억원(융자기간 3년)을 한도로 융자하고 있다.

(3) 용자 현황

1996년 이후 총 879개 업체에서 4,207억 8,5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385개 업체에 1,088억 5,800만원이 용자되었다. 용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골프연습장으로 163개 업체가 357억 4,500만원이 용자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60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그 중 23개 업체가 243억 2,400만원이 용자되었다. 이밖에도 2005년부터는 체력단련장업체에 대한 용자를 개시하여 시설설치에 17개 업체가 66억 9,400만원을 신청하였고 개보수에 13개 업체가 24억 6,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시설설치에 3개 업체가 7억 8,500만원을 실제로 시행하였다.

향후 용자산업은 스포츠시설업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온 제한을 벗어나 그 대상을 스포츠서비스업체로 확대하여 스포츠산업의 고른 분야에 용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 8-32)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괄호는 업체수

년도	업종	계	볼링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스키 /빙상 /승마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기타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계	신청	420,785 (879)	44,860 (270)	86,518 (314)	17,080 (31)	10,538 (57)	123,706 (60)	6,323 (34)	48,000 (19)	7,398 (29)	19,040 (17)	1,920 (5)	90 (1)	6,694 (17)	2,460 (13)	6,207 (14)	300 (1)
	결정	198,171 (735)	22,938 (244)	54,626 (260)	9,472 (25)	7,034 (50)	51,487 (44)	4,265 (26)	24,176 (15)	6,022 (26)	7,850 (12)	1,439 (5)	90 (1)	3,917 (12)	996 (6)	3,761 (11)	300 (1)
	시행	108,858 (385)	10,304 (109)	35,745 (163)	3,863 (11)	2,550 (19)	24,324 (23)	2,030 (13)	17,607 (13)	3,683 (15)	4,698 (5)	900 (3)	-	785 (3)	655 (5)	2,073 (6)	300 (1)
'96	신청	26,639 (149)	15,002 (87)	8,814 (48)	1,100 (4)	1,723 (10)	-	-	-	-	-	-	-	-	-	-	-
	결정	10,166 (120)	6,177 (78)	2,271 (29)	580 (3)	1,138 (10)	-	-	-	-	-	-	-	-	-	-	-
	시행	5,180 (60)	3,438 (42)	1,244 (15)	498 (3)	-	-	-	-	-	-	-	-	-	-	-	-
'97	신청	62,526 (145)	8,984 (56)	7,359 (41)	3,900 (5)	2,665 (17)	37,772 (16)	1,846 (10)	-	-	-	-	-	-	-	-	-
	결정	25,008 (132)	5,279 (55)	3,255 (38)	1,030 (3)	1,974 (16)	11,961 (11)	1,509 (9)	-	-	-	-	-	-	-	-	-
	시행	15,727 (67)	2,062 (22)	1,986 (24)	711 (2)	924 (8)	9,505 (8)	539 (3)	-	-	-	-	-	-	-	-	-
'98	신청	80,956 (183)	13,922 (87)	4,637 (31)	4,550 (5)	2,413 (14)	50,534 (20)	1,900 (10)	-	2,600 (14)	400 (2)	-	-	-	-	-	-
	결정	35,925 (166)	8,003 (83)	2,727 (30)	1,852 (4)	1,508 (12)	17,616 (14)	1,419 (8)	-	2,400 (13)	400 (2)	-	-	-	-	-	-
	시행	22,199 (87)	3,161 (32)	2,027 (22)	1,414 (3)	602 (5)	12,619 (11)	743 (5)	-	1,435 (8)	198 (1)	-	-	-	-	-	-

제8장 스포츠산업

연도	업종	계	볼링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스키 /빙상 /승마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기타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99	신청	33,762 (109)	4,239 (28)	5,933 (43)	1,500 (3)	1,227 (7)	18,100 (13)	1,363 (8)	-	1,400 (7)	-	-	-	-	-	-	-
	결정	19,996 (80)	1,799 (19)	3,162 (31)	1,170 (3)	364 (4)	11,830 (11)	447 (5)	-	1,224 (7)	-	-	-	-	-	-	-
	시행	6,033 (36)	784 (8)	1,637 (16)	390 (1)	324 (3)	2,190 (3)	309 (3)	-	400 (2)	-	-	-	-	-	-	-
'00	신청	7,280 (8)	-	-	1,980 (4)	-	1,000 (1)	-	4,000 (2)	300 (1)	-	-	-	-	-	-	-
	결정	6,780 (7)	-	-	1,480 (3)	-	1,000 (1)	-	4,000 (2)	300 (1)	-	-	-	-	-	-	-
	시행	900 (3)	-	-	500 (1)	-	-	-	100 (1)	300 (1)	-	-	-	-	-	-	-
'01	신청	10,948 (10)	-	-	350 (1)	-	4,000 (4)	-	6,000 (3)	598 (2)	-	-	-	-	-	-	-
	결정	4948 (6)	-	-	350 (1)	-	2,000 (2)	-	2,000 (1)	598 (2)	-	-	-	-	-	-	-
	시행	998 (4)	-	-	350 (1)	-	-	-	100 (1)	548 (2)	-	-	-	-	-	-	-
'02	신청	27,229 (56)	275 (2)	15,690 (39)	1,030 (3)	1,200 (4)	-	334 (2)	6,000 (2)	1,500 (3)	1,200 (1)	-	-	-	-	-	-
	결정	26,595 (53)	275 (2)	15,190 (38)	930 (2)	1,200 (4)	-	300 (1)	6,000 (2)	1,500 (3)	1,200 (1)	-	-	-	-	-	-
	시행	18,397 (34)	97 (1)	10,560 (27)	-	300 (1)	-	-	5,980 (2)	1,000 (2)	460 (1)	-	-	-	-	-	-
'03	신청	15,993 (27)	788 (3)	6,275 (17)	-	300 (1)	-	300 (1)	7,500 (3)	-	740 (1)	-	90 (1)	-	90 (1)	-	-
	결정	12,753 (26)	788 (3)	6,275 (17)	-	300 (1)	-	300 (1)	4,260 (2)	-	740 (1)	-	90 (1)	-	90 (1)	-	-
	시행	9,910 (15)	420 (12)	3,810 (9)	-	300 (1)	-	300 (1)	4,260 (2)	-	740 (1)	-	-	-	-	-	-
'04	신청	13,700 (24)	-	7,700 (18)	-	500 (2)	1,500 (1)	-	500 (1)	-	3,500 (2)	-	-	-	-	-	-
	결정	9,600 (20)	-	6,900 (16)	-	200 (1)	1,500 (1)	-	500 (1)	-	500 (1)	-	-	-	-	-	-
	시행	5,477 (14)	-	4,967 (12)	-	-	10 (1)	-	500 (1)	-	-	-	-	-	-	-	-
'05	신청	29,110 (47)	400 (2)	9,260 (23)	500 (1)	510 (2)	6,000 (2)	200 (1)	6,000 (2)	1,000 (2)	2,200 (1)	650 (2)	-	1,820 (5)	570 (4)	-	-
	결정	13,950 (35)	195 (1)	5,295 (21)	300 (1)	350 (2)	1,900 (1)	150 (1)	2,922 (1)	-	1,400 (1)	400 (2)	-	887 (3)	151 (1)	-	-
	시행	8,972 (20)	-	3,950 (14)	-	100 (1)	-	-	2,922 (1)	-	1,400 (1)	400 (2)	-	200 (1)	-	-	-

년도	업종	계	볼링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스키 /빙상 /승마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기타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06	신청	39,480 (56)	850 (3)	10,170 (27)	1,670 (4)	-	4,000 (2)	-	18,000 (6)	-	900 (2)	500 (1)	-	2,760 (7)	630 (4)	-	-
	결정	15,334 (44)	190 (1)	2,955 (20)	1,430 (4)	-	2,880 (2)	-	4,494 (6)	-	570 (2)	500 (1)	-	2,040 (6)	275 (2)	-	-
	시행	5,671 (20)	30 (1)	1,226 (11)	-	-	-	-	3,745 (5)	-	-	500 (1)	-	85 (1)	85 (1)	-	-
'07	신청	40,591 (56)	300 (1)	10,497 (27)	500 (1)	469 (2)	3,200 (2)	800 (2)	15,000 (5)	-	6,200 (4)	770 (2)	-	1,100 (3)	1,115 (5)	640 (2)	-
	결정	12,137 (45)	162 (1)	1,956 (19)	271 (1)	92 (1)	1,200 (2)	433 (2)	2,044 (4)	-	3,357 (4)	541 (2)	-	862 (3)	579 (4)	640 (2)	-
	시행	8,830 (32)	162 (1)	1,542 (15)	271 (1)	92 (1)	200 (1)	271 (1)	2,033 (4)	-	3,195 (3)	270 (1)	-	135 (1)	162 (1)	497 (2)	-
'08	신청	32,571 (65)	100 (1)	10,680 (27)	500 (1)	-	800 (1)	380 (2)	-	-	10,100 (8)	770 (2)	-	2,114 (5)	1,260 (5)	5,567 (12)	300 (1)
	결정	17,116 (46)	70 (1)	6,596 (20)	350 (1)	-	800 (1)	1,470 (1)	-	-	3,640 (4)	539 (2)	-	990 (3)	570 (3)	3,121 (9)	300 (1)
	시행	9,394 (25)	70 (1)	4,338 (13)	-	-	-	-	-	-	1,900 (1)	-	-	500 (1)	570 (4)	1576 (4)	300 (1)

2) 체육시설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체육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간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만으로는 부족한 국민의 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민간 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골프장내 금지 시설물이었던 숙박시설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00년에는 준조세 폐지 정책에 따라 운동장·체육관·수영장·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부과하던 부가금을 폐지하는 한편, 급증하고 있는 골프 수요를 충족하고 대중골프장의 확충을 위해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대중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시군구별 회원제골프장 총량제한을 폐지하고 골프장 면적산정 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2005년도에는 골프장 부지면적 및 클럽하우스 면적 제한 규정 등을 폐지하였고, 2006년에는 대중골프장과 스키장에 대하여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골프장 입지기준 및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관계 법령 개

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해외여행 등과 연관된 서비스 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지방 골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등 세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시설 성격상 위탁관리가 어려운 시설인 전문체육시설 등은 시설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제7장 체육시설 참조).

또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2002년 월드컵경기장 및 아시아경기대회시설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00년 8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스포츠센터, 유스호스텔, 공연장 등 문화 시설, 대형할인점, 복합영상관, 게임제공 업소 등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장 시설의 민간위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사용기간을 3~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료 지불도 보증금과 월납입 방식 등으로 완화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표 8-33) 연도별 스포츠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연 도	규 제 명	개 선 내 용
1999년	신고체육시설업종 일부 자유업종화	탁구장, 롤러스케이팅장 자유업종화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 제한적 허용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특소세 부과	특소세 면제
2000년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6년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금제도	운동장·체육관·수영장·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 폐지 → 회원제골프장은 부과
	체육시설의 수익시설 설치	월드컵·부산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시설에 수익시설 설치 가능토록 개정
	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소세 부과	대중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2001년~2003년	골프장의 지역별 총량제한	시군구별 회원제골프장 총량제한 (임야면적의 3% 규제) → 폐지
2005년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	골프장 규모에 따라 제한 → 폐지
	골프장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골프장 규모에 따라 제한 → 폐지
2006년	골프장시설 규제	골프코스길이 제한 → 폐지 회원제골프장 홀규모 제한 → 폐지
2006년	골프장 및 스키장 세제	대중골프장, 스키장 세제 인하 → 별도 합산 0.8%

연 도	규 제 명	개 선 내 용
2007년	골프장시설 규제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총 규모 제한(5층) 폐지 자연보전권역일지라도수질오염 총량제도시행지역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기준 및 대상 완화
2008년	골프장시설 규제	수질기준 1a 등급 하천 상류방향 유하거리 20km 이내 지역 골프장 부지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규정 폐지 시·도기준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5% 초과 금지 폐지 골프장 부지 내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 폐지
2008년	사업계획 변경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
2008년	골프장 세제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제 경감 - 개별소비세→ 면제, 체육진흥기금→ 면제 - 보유세 및 취득세 → 경감

3)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기금용자

(1) 목 적

그간 스포츠산업내의 다양한 하위분야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이 되어온 반면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 정부는 스포츠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용자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균형적 육성을 도모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용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 추진배경

지금까지 체육산업 용자사업은 체육용구생산업체 및 체육시설업체에 대하여 용자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군인 관람스포츠 및 기타 스포츠에 대응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산업 활동인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하여 용자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스포츠가 중요한 비즈니스 콘텐츠로 부각됨에 따라 스포츠관련 직·간접적인 소비증대로 문화·관광 등 스포츠 연관 산업과 스포츠 서비스 사업의 빠른 발전이 예상되므로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적

극적인 육성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실시하게 되었다.

(3) 용자대상

스포츠서비스업체 용자사업의 용자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회사를 설립 후 만 1년 경과하였으며 설립 이래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현재 스포츠 단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 획득한 업체, 공고일 현재 대회조직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기업, 공고일 현재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 획득한 업체, 기타 스포츠 단체 및 대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용자규모는 연 40억 원이며 10억 이내의 용자한도 내에서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용자이율은 연 4%이다.

(표 8-34)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 기준

용 자 대 상		용자분야	용자한도액	용자기간	용자이율
스포츠 서비스 업체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운전자금	10억	5년 (거치기간 2년)	4%

(4) 용자현황

2008년 스포츠서비스업체 용자사업에는 총 2개 업체에서 13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2개 업체에 13억원이 용자되었다. 설비자금에 1개 업체가 10억원을 신청하였고 연구개발에 1개 업체가 3억원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거쳐 신청한 업체 모두 시행하였다.

(표 8-35)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구 분	용자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합 계	총 계	13	3,865	13	3,865	8	2,535
	설비투자	3	1,590	3	1,590	2	1,100
	연구개발	10	2,275	10	2,275	6	1,435
'06	계	6	1,280	6	1,280	2	250
	설비투자	2	590	2	590	1	100
	연구개발	4	690	4	690	1	150

구 분	용자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07	계	5	1,285	5	1,285	4	985
	설비투자	-	-	-	-	-	-
	연구개발	5	1,285	5	1,285	4	985
'08	계	2	1,300	2	1,300	2	1,300
	설비투자	1	1,000	1	1,000	1	1,000
	연구개발	1	300	1	300	1	300

4)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1) 목적

스포츠활동의 가치 재조명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가운데 스포츠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포츠과학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적 수준의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분야 전략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며 스포츠용품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지원대상과제

지원대상과제는 자유공모과제, 지정공모과제, 정책과제로 나누는데 자유공모과제는 과제 수행기간이 1~2년 이내의 단기과제로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기관, 업체가 스스로 제안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지정공모과제는 수행기간이 1~2년 이내의 단기과제로 정부가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수립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제안서를 제시하여 이를 수행할 기관, 업체를 선정·지원하고, 정책과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적정한 기관, 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제는 스포츠과학에 기반을 둔 기술로서 고부가가치의 상품성과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개발 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 2009년도부터 3년이상의 장기 수행과제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여기에서 선정된 스포츠과학기반 인체모델 구축 및 인체영향 평가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교회전율의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개발, 가상현실 기

반 실감형 스포츠 시스템개발, 스포츠과학기반 고기능성 경기용 자전거 개발 과제를 선정하였다.

(3)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스포츠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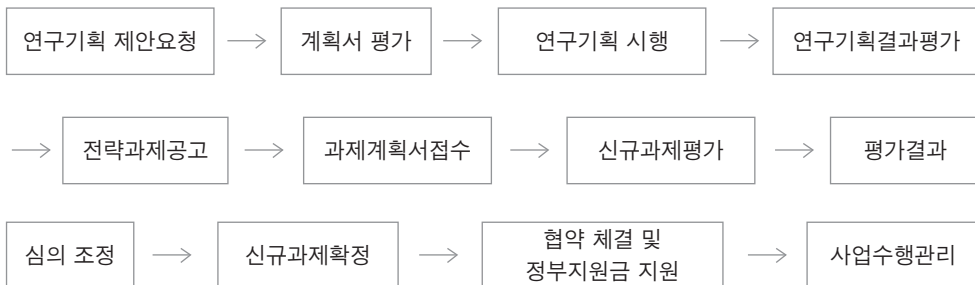
(4) 지원현황

2007년 정책과제 2건, 지정과제 4건, 자유과제 6건 총 12건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정부지원금 1,737,400천원, 민간지원금 567,700천원으로 총 2,305,100천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정책과제 1건, 지정과제 3건, 자유과제 18건 총 22건으로 전년에 비해 10건의 협약을 더 체결하였으며 지원금은 정부지원금 2,411,600천원, 민간지원금 926,400천원 으로 총3,338,000천원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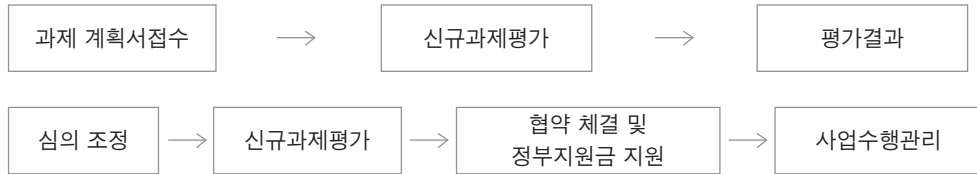
(표 8-36)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단위 : 천원)

	협약체결과제	정부보조금	민간보조금
2007년	12건(정책 2건, 지정 4건, 자유 6건)	1,737,400	567,700
2008년	22건(정책 1건, 지정 3건, 자유 18건)	2,411,600	926,400



<그림 8-6> 전략과제 (중·장기 과제) 선정절차



〈그림 8-7〉 자유공모 과제 선정절차

4.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

1)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현재 우리사회는 각 분야가 빠르게 전문화되고 있다. 전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활용성에 있다. 특히 지역적 이동성이 현저히 증가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각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체육분야가 공공체육시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스포츠산업체에서의 경영활동까지 확대되면서 체육활동 전반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전문가 양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스포츠산업체 및 체육단체 사무인력들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무능력 구비를 위한 재교육 및 새로운 창업기회 확대에 따른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희망자에 대한 지원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 및 교육과정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체육시설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용역을 실시(2000년 8월~2001년 1월)하였으며, 전국 공공체육시설을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체육시설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2001년 11월, 총96명의 전국 체육시설 관리 공무원)하여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이해하고 실용화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2년부터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마

케터, 스포츠시설업경영관리자과정 등을 운영 2008년까지 3,277명을 양성하였다.

2005년도부터는 전문스포츠마케터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과정을 개설하여 미국과 일본의 선진체육시설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그 인원과 지역을 확대하여 유럽 지역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된 국가기술자격인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들의 전문교육을 위한 과정 등도 도입하여 자격증 취득자들로 하여금 스포츠산업체에 인턴사원으로서 현장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스포츠마케팅 등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스포츠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으며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2008년 부터는 스포츠산업해외연수 프로그램과 프로스포츠 마케팅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스포츠 전문인력의 현장경험을 쌓아 실무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표 8-37)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스포츠마케터	39	129	171	199	198	188	185	1,109
스포츠시설 경영관리자	30	82	107	106	126	92	54	597
공공체육시설관리자	37	63	46	53	48	39	51	337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	-	-	16	25	33	20	94
특별과정	-	-	24	79	-	-	-	103
스포츠산업아카데미	-	-	-	-	240	373	-	613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십	-	-	-	-	19	23	22	64
프로스포츠 마케팅현장 체험학습	-	-	-	-	-	-	119	119
체육행정 공무원	31	52	47	36	46	53	46	311
합 계	137	326	395	489	702	801	497	3,347

3)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실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2년 이후 스포츠마케터과정과 스포츠시설업 경영관리자과정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면서 스포츠산업 현장의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2006년도에서부터는 이들 인력을 대상으로 41명을 선발하여 해외 선진 스포

츠마케팅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전문스포츠마케터 해외연수 과정을 신설 운영하였다.

교육대상자는 체육관계 공무원, 공공체육시설 종사자,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마케팅 업체 직원들로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미국과 일본의 선진 체육시설 및 스포츠마케팅 현장을 방문하여 9박 10일간 선진 스포츠 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교육의 실시는 국제경쟁력 있는 스포츠마케터를 양성하기 위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향후 개설될 전문 스포츠마케터의 전 과정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이 교육을 통하여 교육대상자들은 선진 스포츠마케팅 기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향후 전문 스포츠마케터과정의 전면적인 실시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다.

4) 프로스포츠 마케팅 현장체험 학습

프로스포츠 마케팅 현장체험 학습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마케팅 방법에 대한 현장체험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 첫 시행 되었다. 교육대상자는 스포츠관련 전공 대학생들로 각 차수별 15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선정된 스포츠클럽의 스포츠마케팅 방법을 보고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문으로만 배우던 마케팅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며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전문인력 양성사업 방향

국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교육을 담당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교수 인력 선정과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관련 교재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제도를 국가자격제도로 연계·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스포츠산업 정보망 및 연구활성화

정부는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기법·첨단기술·특허 등 산업정보 DB 구축 및 콘

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국내외 첨단정보의 체계적 수집, 가공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포털사이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 스포츠 정보 제공업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경기기록 조사·가공업, 선수기량 등 평가업, 스포츠판 성향조사업 등을 활성화하며 스포츠 에이전트 활동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산업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대행,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산업연구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마케팅 등 스포츠산업관련 핵심과제의 중점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과학연구원 내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 스포츠산업관련 중점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제5절 과제 및 발전방안

1. 법·제도 개선

스포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체육과 관련한 일반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제경기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과 2014 인천아시안경기대회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또한 스포츠관계법으로 경륜·경정법과 수상레저안전법 등이 있다. 그러나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체육단체 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입원 다변화

1)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내 스포츠단체는 재정운영규모가 영세하고, 활용도가 한정된 경기장을 관리·운영하는 자치단체 역시 시설 운영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 국내 스포츠조직은 기부금 혹은 현금에 상당하는 서비스, 인력 혹은 물품 등의 유치를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전략이 미진한 단계에 있다. 보기로 대부분의 아마추어단체는 재력 있는 협회장의 영입을 최선의 재원 조달방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마추어단체의 주요 재원인 협회장 출연금은 일시에 기부되는 거액이긴 하지만 협회장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수익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로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스포츠에 애정을 가진 소액 기부자들을 다수 확보하게 되면 안정적인 재원의 조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액기부자들의 유치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역시 유력한 자금유치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월드컵경기장의 구장명칭사용권(naming right)이나 좌석라이센스(permanent seat license)를 경기장건설 전에 판매하지 못했던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구장명칭사용권이나 좌석라이센스 판매는 일시에 거액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보유 경기장시설의 민간위탁운영도 잠실야

구장, 장충체육관 등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참고로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2) 개선 방향 및 기대 효과

스포츠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수입원의 다각화와 재원조달기법의 개선이 관건이며 자치단체가 보유한 경기장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첫째, 수입원 다각화를 위해서는 스포츠조직 중 가장 발전된 영리조직인 선진국의 프로구단이 운영하는 20여종의 수입원을 국내 스포츠산업 여건에 맞게 도입 응용할 필요가 있다. 이의 시행방안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산하 체육과학연구원 혹은 전문연구소에서 기본모델을 개발하여 각 단체에 보급하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둘째, 재원조달기법의 개선은 입장수입, 중계수입, 구장수입의 증대방안을 포함하여 스폰서 및 광고주 유치기법 등의 개선을 의미하며 특히 국내에서 초보적인 중계권시장의 공중파,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한 활성화는 아마추어 연맹이나 협회, 그리고 프로스포츠구단의 수익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과 국내 스포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기법의 일부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국내의 모델 개발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후속조치로 국내외의 성공사례 및 선진기법을 포함한 수익모델과 사례연구를 각 단체에 보급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및 세미나 개설 등을 포함한 정보 전달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스포츠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면 그 여력이 최종적으로는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스포츠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특정종목의 성공에 필수적인 팬 확보 및 유소년 육성프로그램으로 여유재원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보유한 경기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방안을 지역특색에 맞게 수익사업의 유치를 고려하여 적절히 수립하여 활용도 증가를 통한 공익성과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9장 체육전문인력

제1절 개 관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제4절 과제 및 발전방향

제1절 개 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인적 자원의 가치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는 체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체육전문인력의 효과적 양성 및 활용이 국민체육 진흥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육전문인력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국제체육, 스포츠산업, 학교체육 등 체육의 각 하위 분야에서 각 분야의 영역을 구성하는 선수, 지도자, 교사·교수 등을 말한다. 이들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선발·임용되며,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활동하거나 각 분야에서 체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체육은 우수선수를 선발·양성하고 각종 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체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 경기지도자, 선수, 심판 등이 있다.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건강 유지 및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다. 장애인체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체육은 국가간 체육교류 등 체육외교와 여러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동하여 국익을 증진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국제체육과 관련된 전문인력으로 국제체육기구의 임원 등을 비롯한 체육외교인력을 들 수 있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용품제조업, 시설업, 서비스업 등 체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 분야는 스포츠용품제조업 종사자, 시설업 종사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들 수 있다. 학교체육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평생체육의 토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학생선수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체육과 관련된 전문인력으로 체육교사, 체육계학과 학생, 교수 등이 있다. 본 백서에서는 전문체육분야의 선수·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1. 선수·코치

1) 등록 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종목별 등록 선수수의 현황은 (표 9-1)과 같다. 2008년 현재 등록된 선수수는 129,242명으로 2007년 132,815명에 비하여 3,57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속하게 증가한 2007년과는 달리 2008년도에는 중도탈락 및 포기한 선수가 매우 많음을 의미한다. 종목별 등록선수수는 축구(21,820명)가 가장 많고, 궁도(11,560명), 태권도(8,997명)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 이는 2007년과 동일한 순위이다. 반면, 루지(3명), 봅슬레이스켈레톤(38명), 수상스키(153명), 바이애슬론(222명), 트라이애슬론(246명), 수중(283명), 세팍타크로(302명), 승마(336명), 근대5종(338명), 소프트볼(429명), 바둑(445명) 등의 종목은 전체 등록선수가 500명 미만으로 저변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2008년 신규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바둑의 경우 기존의 비인기 종목에 비해 다소 많은 445명이라는 등록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 종목별 등록선수수

(단위 : 명)

	전 체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실업		군		시·도·군청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129,242	99,099	30,143	18,662	6,570	22,082	7,127	20,190	6,377	11,223	2,919	7,702	3,032	411	12	18,829	4,106
육상	6,178	3,725	2,453	1,050	746	1,060	729	970	539	323	142	52	38	24	0	246	259
축구	21,820	20,209	1,611	5,547	474	6,276	418	4,599	396	2,307	157	1,408	166	0	0	0	0
테니스	1,733	1,055	678	347	258	247	147	231	134	148	82	35	17	0	0	47	40
정구	1,633	968	665	376	264	205	153	153	133	109	30	19	23	1	0	105	62
탁구	1,783	844	939	345	379	159	180	149	170	88	95	30	41	9	0	64	74
핸드볼	2,182	1,097	1,085	372	380	261	287	214	235	174	60	45	12	16	0	15	111

제9장 체육전문인력

	전 체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실업		군		시·도·군청	
												남	여	남	여	남	여
역도	1,155	816	339	0	0	305	127	304	114	88	29	16	5	11	0	92	64
복싱	2,179	2,066	113	0	0	758	0	553	45	211	25	450	43	16	0	78	0
빙상	1,265	700	565	284	299	104	111	86	60	68	38	33	16	0	0	125	41
유도	3,926	3,011	915	568	93	917	337	936	283	405	124	81	24	34	0	70	54
체조	2,685	698	1,987	182	348	112	190	137	196	144	160	72	1,010	9	0	42	83
싸이클	823	575	248	0	0	150	86	238	81	45	2	50	28	21	0	71	51
농구	2,633	1,687	946	432	389	455	221	442	202	340	97	0	12	18	0	0	25
배구	2,444	1,527	917	477	367	378	230	324	179	185	48	79	13	18	0	66	80
씨름	1,795	1,795	0	553	0	445	0	382	0	231	0	102	0	0	0	82	0
력비	1,441	1,441	0	0	0	537	0	456	0	311	0	112	0	25	0	0	0
레슬링	1,756	1,611	145	0	0	706	5	472	59	247	40	22	0	17	0	147	41
수영	3,376	1,952	1,424	872	698	456	344	267	210	137	81	52	13	11	0	157	78
야구	6,083	6,082	1	1,841	1	1,685	0	1,535	0	987	0	0	0	34	0	0	0
스키	1,189	818	371	238	150	165	84	135	61	140	36	137	38	3	0	0	2
승마	336	250	86	1	4	10	10	29	19	42	17	25	2	13	0	130	34
아이스하키	1,785	1,652	133	1,093	106	296	9	111	0	98	0	54	18	0	0	0	0
하키	1,532	832	700	0	0	290	271	272	237	170	84	24	38	21	0	55	70
검도	7,853	6,557	1,296	557	64	608	86	542	77	679	213	163	14	0	0	4,008	842
궁도	11,560	10,370	1,190	0	0	0	0	97	28	0	0	73	0	0	0	10,200	1,162
사격	4,148	2,871	1,277	16	11	501	481	376	332	192	135	42	40	29	7	1,715	271
펜싱	1,446	814	632	0	1	317	275	250	190	121	59	14	12	9	0	103	95
태권도	8,997	7,044	1,953	1,078	128	2,199	737	2,508	686	1,097	315	56	19	23	5	83	63
베드민턴	1,938	1,035	903	464	401	198	185	144	124	116	91	27	30	8	0	78	72
조정	616	392	224	0	0	36	31	113	79	175	49	16	12	10	0	42	53
인라인롤러	975	653	322	127	101	117	73	88	77	21	15	246	15	0	0	54	41
요트	547	473	74	23	16	87	24	64	3	81	18	83	4	2	0	133	9
볼링	1,646	918	728	24	16	206	164	253	192	161	97	174	183	0	0	100	76
양궁	1,559	773	786	278	296	179	199	129	142	70	72	88	36	8	0	21	41
카누	640	441	199	0	0	116	61	142	77	82	17	22	7	8	0	71	37
골프	3,276	2,310	966	225	136	597	328	1,073	427	412	74	3	1	0	0	0	0

	전 체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실업		군		시·도·군청	
												남	여	남	여	남	여
근대 5종	338	316	22	11	11	110	2	104	5	36	4	29	0	8	0	18	0
수상스키	153	129	24	9	0	16	5	20	4	17	1	63	14	0	0	4	0
산악	911	715	196	13	13	13	7	140	20	63	12	486	144	0	0	0	0
보디빌딩	2,045	1,888	157	0	0	0	0	143	0	152	5	1,276	117	4	0	313	35
세팍타크로	302	193	109	0	0	17	8	102	51	48	29	5	13	0	0	21	8
수중	283	183	100	0	0	22	4	35	28	39	25	74	24	0	0	13	19
우슈	1,663	1,307	356	363	104	174	55	236	68	122	29	372	100	0	0	40	0
소프트볼	429	1	428	0	0	0	166	1	122	0	115	0	25	0	0	0	0
루지	38	34	4	0	0	0	0	6	0	4	1	24	3	0	0	0	0
컬링	739	424	315	77	75	89	77	92	72	10	12	12	15	0	0	144	64
트라이애슬론	246	159	87	76	27	3	2	6	8	8	3	61	47	0	0	5	0
바이애슬론	222	145	77	25	12	40	26	32	11	29	7	4	6	1	0	14	15
스쿼시	1,173	789	384	25	21	59	56	138	54	272	115	246	114	0	0	49	24
당구	551	503	48	2	1	0	0	4	9	1	0	496	38	0	0	0	0
택견	1,553	1,214	339	511	139	239	72	114	42	127	26	223	60	0	0	0	0
공수도	522	399	123	79	12	63	22	135	54	65	23	57	12	0	0	0	0
댄스스포츠	693	288	405	5	20	5	26	24	30	12	9	234	310	0	0	8	10
루지	3	3	0	0	0	0	0	1	0	1	0	1	0	0	0	0	0
오리엔티어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바둑	445	347	98	96	9	94	16	83	12	12	1	62	60	0	0	0	0

대한체육회(2008). 내부자료

한편, 연도별 선수수의 변화추이는 (표 9-2)와 같다. 2007년에 비해 2008년의 등록선수수 감소는 주로 학생선수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생 선수는 2007년도에 비해 3,141명(11.07%) 감소, 고등학교생 선수는 2,439명(8.84%)감소, 중학생 선수는 1,189명(3.91%)이 감소한 반면, 일반선수수는 3,557명(11.65%)이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9-2) 연도별 선수수의 변화

연도 \ 구분	계	초	중	고	대	일 반
2001	130,012	23,838	29,129	26,295	12,822	37,928
2003	136,588	25,539	29,979	26,931	14,220	39,919
2005	112,753	23,921	28,300	26,914	13,125	20,493
2006	116,832	24,102	28,475	27,697	13,764	22,794
2007	132,815	28,373	30,398	29,006	14,503	30,535
2008	129,242	25,232	29,209	26,567	14,142	34,092

* 출처 : 대한체육회. 각 연도. 내부자료

2) 꿈나무선수

꿈나무선수 제도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시기의 선수들을 선발하여 우수선수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꿈나무선수를 육성하는 목적은 첫째, 재능 있는 꿈나무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우수선수의 저변을 확대하고, 둘째, 조기에 과학적 훈련을 지원하여 차세대 대표선수로 양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엘리트체육의 장기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꿈나무선수 양성은 1993년 전국에서 초등학생 2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1996년에는 후보선수와 통합되어 운영되었으며 2002년에는 육상, 수영, 체조의 세 종목으로 분리 육성되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의 5종목 2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기존의 5개 종목에서 핸드볼, 탁구, 유도 등 3개 종목이 추가되어 8개 종목으로 증가하였으며, 선발인원도 총 200명에서 300명으로 100명이 증가하였다.

꿈나무선수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선수·지도자에 대한 분기별 훈련지원금 지원(분기별 각각 10만원), 둘째, 꿈나무선수 상해보험 가입 지원, 셋째, 연 2회 종목별 꿈나무 선수 육성 담당지도자에 의한 선수 개인별 훈련현황 파악·지도·상담 등, 넷째, 꿈나무선수 육성현황 자료 정리 및 발간을 들 수 있다.

(표 9-3) 꿈나무선수 육성 현황

구 분	종목수	육 성 종 목 현 황	인원(명)
1994	8	육상(125), 수영(95), 체조(60), 양궁(40), 사격(50), 탁구(40), 빙상(40), 배드민턴(40)	490

구 분	종목수	육 성 종 목 현 황	인원(명)
1995	9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탁구, 빙상, 스키, 배드민턴	519
'96~'01	-	후보선수와 통합 · 운영	-
2002	3	육상, 수영, 체조	163
2003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4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5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6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7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8	8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핸드볼, 탁구, 유도	300

대한체육회(2008). 내부자료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9-4)와 같다. 꿈나무선수 최종 선발은 선발정원의 3 배수를 해당종목의 중앙경기단체에서 추천받아 경기력, 기초체력, 심리검사의 종합 측정평가를 실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훈련은 학기 중에는 소속팀에서 실시(훈련비 및 지도자 순회 점검 · 자문 등) 하고 동 · 하계 방학에는 합숙을 하면서 집중훈련과 지도를 받고 있다. 선수의 훈련 중 부상과 중도 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충원은 재선발 과정을 거치는데, 측정 · 평가를 거쳐 서 종목별 선발위원회의 결정으로 차순위 선수가 선발된다.

(표 9-4)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

(단위 : 명)

종 목	세부종목	최종선발인원	종 목	세부종목	최종선발인원
육 상	단 거 리	23	스 키	알 파 인	10
	중 · 장거리	21		크로스컨트리	10
	도 약	19		스키점프	5
	투 척	17		스노우보드	5
수 영	경 영	30	빙 상	스 피 드	12
	다 이 빙	8		쇼트트랙	12
	싱 크 로	2		피 겨	6
체 조	남자기체조	13	핸드볼	남자	15
	남자기체조	13		여자	13
	여자기체조	15		여자	13
	리듬체조	12	탁 구	남자	15
유 도	남자	10		여자	15
	여자	10	총 계		300

3) 후보선수

후보선수 제도는 향후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위주의 선수군을 대상으로 종목별로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집중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보선수 제도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종목별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둘째, 국가대표선수와의 상호경쟁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며, 셋째, 국가대표 선수 결원을 대비하여 상시 우수한 경기력을 보유한 선수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현재 28개 종목에 1,300명의 후보선수를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후보선수의 종목별 정원은 (표 9-5)와 같다.

(표 9-5) 종목별 후보선수수

(단위 : 명)

종 목	남	여	소 계		남	여	소 계
양 궁	20	20	40	소프트볼	-	17	17
육 상	77	58	135	수 영	62	56	118
배드민턴	34	26	60	탁 구	15	15	30
복 싱	30	-	30	태 권 도	24	24	48
카 누	18	8	26	테 니 스	12	12	24
사 이 클	18	22	40	배 구	17	19	36
펜 싱	24	24	48	역 도	18	12	30
축구(여)	-	36	36	레 슬 링	42	8	50
체 조	27	33	60	요 트	26	3	29
핸드볼	24	24	48	근대 5종	15	-	15
하 키	24	24	48	빙 상	40	38	78
유 도	24	24	48	스 키	35	14	49
조 정	17	13	30	바이애슬론	12	6	18
사 격	40	44	84	아이스하키	25	-	25
계	377	356	733	총계	720	580	1,300

대한체육회(2008). 내부자료

후보선수 선발은 경기력, 체력, 체형 및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경기단체의 선수 선발위원회(강화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후보선수 관리·운영은 전임지도자를 배치하여 동하게 합숙훈련(종목별 20일 내외)과 국외전지훈련(종목별 15일 이내)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국가대표 선수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하기 위하여 각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선수이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단체에서 국내·외 대회성적 및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발전가능성, 기초체력 및 기술, 대표코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협회의 강화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고 있다.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수는 (표 9-6)과 같다. 2008년 현재 국가대표 선수수는 45종목에 1,007명이며 코치수는 175명이다.

(표 9-6) 종목별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수

(단위 : 명)

구분	종목	인원				
		코치	선수			계
			남	여	계	
하계 (39)	양궁	4	8	8	16	20
	육상	9	44	17	61	70
	배드민턴	6	23	17	40	46
	야구	3	24	-	24	27
	농구	4	12	12	24	28
	복싱	2	20		20	22
	카누	3	13	4	17	20
	사이클	4	13	5	18	22
	승마	3	12		12	15
	펜싱	6	18	18	36	42
	축구	4	20	18	38	42
	체조	9	12	16	28	37
	핸드볼	6	24	24	48	54
	하키	6	22	16	38	44
	유도	6	16	16	32	38
	근대5종	2	8	4	12	14
	조정	3	5	5	10	13
	요트	4	18		18	22
	사격	8	23	17	40	48
	소프트볼	2		16	16	18
	수영	10	34	25	59	69
	탁구	4	10	10	20	24
	태권도	4	6	6	12	16
	테니스	2	6	6	12	14
	트라이애슬론	2	4	4	8	10
	배구		12	12	24	29
	역도	5	10	10	20	25

구분	종목	인원				
		코치	선수			계
			남	여	계	
	레슬링	8	28	8	36	44
	당구	2	11	2	13	15
	볼링	3	8	8	16	19
	골프	2	4	3	7	9
	공수도	2	6	4	10	12
	력비	2	16		16	18
	정구	2	6	6	12	14
	세팍타크로	2	10	10	20	22
	스쿼시	2	4	4	8	10
	우슈	2	8	4	12	14
	인라인롤러	2	4	4	8	10
	댄스스포츠	2	4	4	8	10
소계	38종목	152	526	343	869	1,026
동계 (6)	빙상	6	17	19	36	42
	스키	6	20	10	30	36
	바이애슬론	4	22	21	43	47
	아이스하키	3	6	6	12	15
	컬링	2	5	5	10	12
소계	6종목	23	77	61	138	161
합계	45종목	175	603	404	1,007	1,187

대한체육회(2008). 내부자료

2. 심 판¹⁾

심판은 경기단체에서 종목별 자격조건을 가진 자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목별 협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선수출신자 또는 체육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과정과 실기 및 필기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2007년 현재 양성된 종목별 국내·심판 현황은 (표 9-7)과 같다. 국내 심판수는 총 51,047명으로 태권도(17,668명), 수영(9,292명), 육상(2,7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볼링, 골프, 댄스스포츠,

1) 심판 현황은 2007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오리엔티어링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심판수는 총 3,959명으로 태권도(2,572명), 탁구(170명), 사격(1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야구, 궁도, 볼링, 루지/봅슬레이, 컬링, 댄스스포츠, 오리엔티어링 등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심판수 대비 국제심판수의 비율이 높고 절대인원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해당 종목 심판의 수준이 국제화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국제심판으로 선정되는 절차는 축구의 경우 대한축구협회가 국내 1급 심판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추천을 하게 되면 아시아축구연맹은 서류심사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 3급 국제심판으로 임명하게 된다. 다른 종목도 대부분 축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국제심판이 된다.

(표 9-7) 종목별 심판

(단위 : 명)

종 목	국 내 심 판 (A)					국 제 심 판 (B)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합 계	4,981	7,566	34,778	3,712	51,047	425	815	2,140	579	3,959
육상	726	588	1,426	-	2,740	-	3	-	-	3
축구	256	36	101	61	454	18	-	-	-	18
테니스(사)	8	25	465	1,837	2,335	-	-	-	6	6
정구	176	607	-	-	783	3	45	27	-	75
탁구(사)	800	190	1,200	-	2,190	-	-	170	-	170
핸드볼(사)	250	300	-	-	550	8	-	-	-	8
역도(사)	98	62	73	-	224	61	70	-	-	131
복싱	-	-	-	185	185	-	-	-	22	22
빙상(사)	5	219	6	4	234	7	39	-	-	46
유도(사)	379	-	-	-	379	20	17	-	-	37
체조(사)	84	56	134	17	291	-	5	34	43	82
사이클(사)	65	83	-	-	148	5	-	-	-	5
농구	146	611	320	-	1,127	-	-	-	79	79
배구	30	102	462	-	594	-	-	-	22	22
씨름	69	37	181	-	287	-	-	-	-	0
력비(사)	5	5	11	-	21	2	5	-	-	7
레슬링	15	8	28	-	51	19	12	32	-	63
수영(사)	204	686	8,402	-	9,292	3	3	10	55	71
야구	-	-	-	21	21	0	-	-	-	0
스키(사)	21	92	427	-	540	4	6	-	-	10
승마(사)	65	-	-	-	65	0	7	6	-	13
아이스하키	-	-	-	51	51	0	11	-	-	11
하키	10	20	30	-	60	-	2	10	8	20

제9장 체육전문인력

종 목	국 내 심 판 (A)					국 제 심 판 (B)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검도(사)	-	200	917	-	1,117	6	-	-	-	6
궁도	161	225	941	-	1,327	-	-	-	-	-
사격(사)	-	-	-	187	187	41	95	-	-	136
펜싱(사)	-	129	79	-	208	1	43	80	-	124
태권도	699	1,993	14,976	-	17,668	151	389	1,729	303	2,572
배드민턴(사)	47	234	273	763	1,317	8	8	3	-	19
조정(사)	-	-	-	82	82	-	-	-	7	7
로울러(사)	176	121	333	-	630	1	-	-	-	1
요트	-	5	51	-	56	-	-	-	2	2
볼링(사)	-	-	-	-	0	-	-	-	-	-
양궁	97	107	399	-	603	-	-	-	11	11
카누(사)	50	11	46	16	123	5	-	-	-	5
골프(사)	-	-	-	-	-	-	-	-	-	-
근대5종(사)	16	15	19	-	50	4	23	10	-	37
수상스키(사)	11	89	1,026	-	1,126	-	-	-	5	5
산악(사)	24	135	-	-	159	1	-	-	-	1
보디빌딩	233	275	-	-	508	11	18	17	-	46
세팍타크로	14	31	454	-	499	33	-	1	-	34
수중(사)	-	-	405	-	405	7	-	-	-	7
우슈	5	56	287	348	696	-	6	4	12	22
소프트볼	8	9	28	-	45	5	-	-	-	5
루지/봅슬레이	-	-	-	-	-	-	-	-	-	-
컬링	-	-	-	100	100	-	-	-	-	-
트라이애슬론(사)	3	55	628	-	686	-	-	-	-	-
바이애슬론	2	30	20	30	82	-	-	-	1	1
스쿼시	-	23	273	-	296	-	6	-	-	6
당구(준)	-	-	-	10	10	-	-	-	3	3
택견(준,사)	-	35	145	-	180	-	-	-	-	-
공수도(준)	23	61	212	-	296	1	2	7	-	10
댄스스포츠(준)	-	-	-	-	-	-	-	-	-	-
오리엔티어링(준)	-	-	-	-	-	-	-	-	-	-

대한체육회(2007). 내부자료

3. 체육계 대학(원)

1) 전문대학

2008년 현재 전문대학 체육계학과 학생수는 306개 학과 23,093명이다. 2007년에 비하여 학과수는 58개 증가한 반면, 학생수는 1,634명 감소하였다. 직전년도 기준 2007년과 2008년의 학과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각각 0.81%, 2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과수의 증가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수는 각각 4.09%, 6.61% 감소하는 특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대학들이 시장의 요구에 기초하여 필요한 학과는 증설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감소 등으로 모집정원과 재학생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학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의 경우 18.23%, 2007년 21.15%, 2008년 19.98%로 나타나 2007년도에 약간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9-8) 체육계학과 학과수 및 학생수(전문대학)

학과명	학과수	합 계		학과명	학과수	합 계	
		계	여자			계	여자
<2006>	246	25,781	4,700	경호태권도과	1	77	6
<2007>	248	24,727	5,230	경호태권도전공	2	64	9
<2008>	306	23,093	4,613	경호합기도과	1	65	11
건강관리과	1	201	44	경호행정학과	1	8	-
경찰경호태권도과	1	99	-	골프경기지도과	2	36	9
경찰경호합기도과	1	36	-	골프과	1	1	-
경호과	1	107	16	골프운영지도과	1	6	2
경호무도과	1	94	12	골프지도과	2	71	22
경호무도스포츠과학계열	1	10	-	관광레저스포츠계열	2	268	21
경호비서과	2	111	6	관광레저스포츠과	4	166	16
경호스포츠계열	1	8	2	관광레저스포츠전공	2	23	2
경호안전전공	2	186	13	댄스스포츠과	1	2	2
레저스포츠계열	6	658	74	스포츠과학계열	7	692	78
레저스포츠과	37	2,230	507	스포츠과학과	1	29	-
레저스포츠전공	6	386	46	스포츠과학학부	1	309	32
레저스포츠학과	1	5	2	스포츠관광계열	1	200	80

제9장 체육전문인력

학과명	학과수	합 계		학과명	학과수	합 계	
		계	여자			계	여자
레저스포츠학부	2	266	46	스포츠복지과	4	111	67
레저스포츠과	3	146	35	스포츠산업계열	2	44	3
레크레이션과	2	264	77	스포츠외교과	1	198	15
레포츠지도과	1	125	15	승마조련전공	1	10	1
무도경호과	2	137	22	실용댄스과	2	133	61
무도과	2	147	26	실용무용과	1	68	56
무도·스포츠계열	1	54	5	아동놀이지도과	1	50	43
무용&레저스포츠과	2	75	75	아동무용지도자과	1	77	77
무용과	3	308	216	아동스포츠과	1	95	95
무용전공	1	4	1	아동체육과	2	145	145
사회체육계열	10	902	151	에체능공학부	2	151	90
사회체육골프과	3	171	30	요가과	2	51	47
사회체육과	40	4,012	795	운동재활전공	1	41	10
사회체육전공	7	350	28	웰빙건강관리과	4	135	66
사회체육학부	4	178	30	웰빙건강관리전공	1	19	8
생활레저스포츠과	2	56	2	웰빙테라피과	3	115	100
생활스포츠과	8	676	107	유아체육전공	1	27	-
생활체육	3	289	39	이종격투기전공	1	52	-
생활체육계열	6	1,002	121	자연건강관리과	1	20	13
생활체육계열(무도전공)	3	104	19	체육계열	3	559	73
생활체육계열(생활체육전공)	3	169	22	체육계열레저스포츠전공	2	311	35
생활체육과	24	1,468	147	체육계열휘트니스건강관리전공	2	133	61
생활체육무용	1	14	14	체육과	2	290	52
생활체육전공	6	442	61	태권도과	7	617	44
생활체육학과	1	11	5	태권도과(야간)	1	13	2
생활체육학부	4	573	88	태권도외교과	3	234	17
스키스노보드과	1	44	3	태권도전공	4	104	11
스트리트댄스과	1	7	-	태권도체육계열	2	399	37
스포츠건강관리과	6	513	112	택견전공	1	27	8
스포츠건강복지과	3	203	72	해동검도과	1	6	-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DB자료

전문대학의 체육계학과 교수수는 (표 9-9)와 같다. 체육계학과 교수수는 2007년 209명에서 234명으로 11.96%(2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학 전체 교수수는 2007년 11,685명에 비해 3.55%(415명) 증가한 12,1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교수수가 증가한 것은 학생1인당 교수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체육계학과의 교수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동안 체육계의 학생1인당 교수수가 타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시사한다.

(표 9-9) 체육계학과 교수수(전문대학)

교수수 설립별	전 체			체 육 계 학 과		
	계	남	여	계	남	여
2008	12,100	8,531	3,569	234	183	51
국 립	77	56	21	-	-	-
공 립	380	321	59	6	2	4
사 립	11,643	8,154	3,489	228	181	47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DB자료

2) 대학교

다음 (표 9-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 체육계학과 학생수는 2007년 355개학과 57,918명에서 2008년 511개학과 66,166명으로 8,248명(14.24%)이 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도의 7,876명(15.7%) 증가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체육계 학과에 대한 시장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과 함께 학과와 학생수가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육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적인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학과수에 있어서도 2007년도에 비해 156개(43.94%)가 증가하여 2007년도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학생수의 비율도 전년대비 22.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9장 체육전문인력

(표 9-10) 대학교 체육계학과 학생수

학 과 명	합 계			학 과 명	합 계		
	학과수	계	여 자		학과수	계	여 자
<2006>	295	50,042	7,873	경호학전공	3	510	70
<2007>	355	57,918	13,204	골프산업학과	1	19	4
<2008>	511	66,166	14,725	골프시스템학과	1	61	6
건강관리전공	4	140	66	골프지도학과	1	194	19
건강관리학과	3	237	125	골프학과	2	361	45
건강생활학부	1	2	-	국선도건강과학과	1	8	1
건강스포츠험전공	1	222	23	국제무도경호학부(경찰경호무도전공)	1	31	5
건강스포츠험학과	1	271	33	국제무도경호학부(국제무도교육전공)	1	29	3
격기지도학과	1	224	31	국제스포츠험저전공	1	27	12
격기학과	2	9	2	국제스포츠험저학부	1	38	8
경기지도전공	2	251	56	노인체육복지전공	1	87	11
경기지도학과	2	77	11	댄스교육학과	1	28	21
경기지도학전공	5	116	12	댄스스포츠험학과	1	10	7
경찰무도학과	1	463	32	동양무예학과	4	509	64
경호·무도학과	1	244	35	레저건강관리학과	3	133	25
경호경비학과	1	1	-	레저레크리에이션전공	1	12	3
경호무도전공	1	4	-	레저스포츠험과	1	19	-
경호무도지도학과	1	177	19	레저스포츠험산업학전공	1	71	1
경호비서학과	5	595	82	레저스포츠험전공	8	1,007	147
경호비서학부	1	106	13	레저스포츠험학과	17	2,096	414
경호비서학전공	1	205	38	레저스포츠험학과 국선도전공	1	3	-
경호전공	1	99	22	레저스포츠험학부	2	600	112
경호정보전공	1	82	18	레저체육학부	1	2	-
경호학과	3	525	73	레포츠험학부	1	194	18
경호학부	2	705	44	무도경찰학과	1	30	7
무도경찰학전공	1	33	4	생활체육학부	5	373	23
무도경호학과	2	170	18	생활체육학전공	3	11	2
무도체육학과	1	207	28	스포츠건강과학과	3	443	69
무도학과	2	265	27	스포츠건강관리전공	1	123	17
무도학과전공	1	51	2	스포츠건강관리학과	2	6	2
무도학전공	4	35	2	스포츠건강관리학부	1	306	49
무용공연학과	1	16	16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2	123	38

학 과 명	합 계			학 과 명	합 계		
	학과수	계	여 자		학과수	계	여 자
무용과	9	961	886	스포츠건강복지학부	1	127	16
무용과(예술대학)	1	86	86	스포츠건강학과	2	254	33
무용·공연학과	1	140	125	스포츠경호비서학전공	1	103	2
무용예술학과	1	135	116	스포츠경호학부	2	169	14
무용예술학전공	1	47	41	스포츠과학과	3	245	34
무용전공	8	578	493	스포츠과학과군	1	128	22
무용학과	25	2,482	2,117	스포츠과학대학 경기지도학전공	1	222	33
무용학과(예체능대학)	1	10	8	스포츠과학대학 무도학전공	1	87	6
무용학부	2	229	211	스포츠과학대학 무용학전공	1	32	28
무용학전공	6	456	387	스포츠과학대학 사회체육학전공	1	103	20
민속무용학과	1	71	65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부	1	2	-
바둑학과	1	207	32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전공	1	324	52
사회체육과	3	250	23	스포츠과학부	7	2,261	358
사회체육전공	3	452	48	스포츠과학부(골프지도전공)	1	197	33
사회체육학과	38	5,881	765	스포츠과학부(사회체육전공)	1	97	10
사회체육학과(인문예술)	1	186	37	스포츠과학부(생활체육학전공)	1	338	24
사회체육학부	7	1,634	246	스포츠과학부(스포츠보건전공)	1	39	11
사회체육학전공	13	867	151	스포츠과학전공	21	218	24
산업스포츠학과	1	113	-	스포츠레저복지전공	1	19	3
생활무용예술학과	1	193	167	스포츠레저복지학부	1	11	-
생활무용학과	1	122	107	스포츠레저전공	1	2	-
생활스포츠학부	2	141	15	스포츠레저학과	6	511	45
생활체육전공	4	216	42	스포츠레저학부	9	2,276	183
생활체육정보학과	1	233	42	스포츠미디어학과	1	128	37
생활체육지도학과	1	94	21	스포츠복지학부	1	38	14
생활체육지도학과(자연과학대학)	1	24	8	스포츠산업과학부	2	504	88
생활체육학과	17	2,282	424	스포츠의학과	1	107	29
스포츠의학전공	2	620	110	체육무용학부(무용전공)	1	6	-
스포츠지도전공	2	704	85	체육무용학부(체육전공)	2	29	1
스포츠지도학과	1	46	2	체육전공	2	338	69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1	113	19	체육학과	32	5,250	1,404
스포츠학과	1	87	87	체육학과(예체능대학)	1	31	1

제9장 체육전문인력

학 과 명	합 계			학 과 명	합 계		
	학과수	계	여 자		학과수	계	여 자
스포츠학전공	1	108	11	체육학부	29	5,253	528
요가명상학과	1	569	482	체육학부 경기지도학전공	1	208	19
요가치유학과	2	34	17	체육학부 생활체육학전공	1	204	14
요가학과	1	38	28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2	287	43
운동건강학과	3	481	106	체육학부 태권도경영학전공	1	117	9
운동기능학과	1	32	10	체육학부 태권도학전공	3	268	28
운동생리정보학과	3	139	36	체육학부 (사회체육학전공)	2	361	32
운동처방재활학과	1	55	13	체육학부 (운동과학전공)	1	194	17
운동처방학과	3	751	198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1	249	24
운동처방학전공	3	2	-	체육학전공	13	2,017	416
웰빙복지대학 체육학전공	1	110	9	춤, 대중예술학과	1	20	1
유도경기지도학과	1	70	15	태권도경기지도학과	1	40	12
유도학과	1	805	62	태권도전공	3	95	7
유아·시니어스포츠전공	1	171	32	태권도체육학과	1	153	16
체육·레저학과군	1	28	-	태권도학과	23	3,923	497
체육·레포츠학부	1	214	17	태권도학전공	5	130	13
체육경영학과	1	1	-	특수체육학과	4	377	55
체육계열	2	105	10	한국무용전공	2	50	41
체육과학과	1	109	109	한방스포츠의학과	1	232	46
체육과학전공	2	274	42	항공해양스포츠학과	1	152	15
체육대학	2	65	-	해양스포츠학과	1	266	45
체육레포츠학부(레저전공)	1	14	-	해양체육학과	1	167	31
체육레포츠학부(체육학전공)	1	65	4	현대무용전공	2	22	20
체육무용학부(레저스포츠전공)	1	19	-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대학교 교수수의 현황은 (표 9-11)과 같다. 대학교 체육계학과 교수수는 2007년 1,100명에서 2008년 1,094명으로 6명(0.55%)이 감소하여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다음 (표 9-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 체육계학과 학생수가 증가된 것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교의 체육계 교수가 전문대학에 비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 학생수 증가에 대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9-11) 체육계학과 교수수(대학교)

설립별	교수수	전 체			체 육 계 학 과		
		계	남	여	계	남	여
대학교	2008	57,417	47,287	10,130	1,094	856	238
	국 립	15,177	13,312	1,865	294	230	64
	공 립	568	505	63	15	11	3
	사 립	41,672	33,470	8,202	786	615	171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DB자료

3) 대학원

체육계학과 석사과정(체육교육계열 미포함)은 2007년 2,751명에서 2008년 196개 학과 3,375명으로 624명(22.68%), 박사과정은 2007년 1,372명에서 2008년 86개 학과 1,545명으로 173명(12.61%)이 증가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2) 대학원 체육계학과 학생수

구 분	학 과 명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대학원	건강관리과	5	-
	건강관리전공	61	-
	건강관리학과	25	-
	경찰무도학전공	4	-
	경호무도학과	15	-
	경호스포츠학과	9	-
	경호안전기획학과	1	-
	경호안전학과	15	30
	경호학과	34	17
	골프경영학과	6	-
	골프매니지먼트전공	8	-
	골프학과	55	-
	뇌교육학과	83	51
	레저·스포츠컨설팅전공	18	-
	레저스포츠전공	2	-
	레저스포츠학과	87	40

제9장 체육전문인력

구 분	학 과 명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대학원	레저스포츠학과	87	40
	레저·스포츠기획전공	4	-
	명상요가학과	6	13
	무도건강산업학과	20	-
	무도산업학과	6	-
	무용·공연학과	21	-
	무용과	9	4
	무용예술학과	25	-
	무용전공	5	-
	무용학과	408	113
	무용학전공	62	-
	민속무용학과	4	-
	바둑학과	7	-
	보건체육학과	4	-
	비만관리학과	19	-
	사회체육학과	273	92
	생활무용예술학과	9	6
	생활스포츠학과	27	24
	생활체육전공	98	-
	생활체육학과	22	7
	스포츠레저지도학과	18	-
	스포츠건강과학과	10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12	-
	스포츠건강학과	9	-
	스포츠과학과	69	52
	스포츠과학학과	27	-
	스포츠기록분석트랙	11	-
	스포츠기록분석학과	3	-
	스포츠산업정보학과	20	-
	스포츠예술산업학과	1	-
	스포츠지도전공	27	-
	스포츠학과	109	20
	심신통합치유학과	44	21
	야구지도자학과	8	-

구 분	학 과 명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대학원	엘리트축구지도자학과	7	-
	요가학과	37	-
	우슈기공학과	1	-
	운동건강학과	6	-
	운동과학과	2	-
	운동생리·처방학과	4	-
	운동생리정보학과	4	-
	운동처방과 비만클리닉학과	27	-
	운동치료학과	5	-
	전통무용전공	47	-
	체력관리학과	11	-
	체육 및 여가교육전공	66	-
	체육과학과	81	10
	체육전공	3	-
	체육학과	1,115	1,030
	체육학부	1	-
	체육학전공	10	-
	축구지도자학과	3	-
	태권도전공	20	-
	태권도학과	77	-
	특수체육학과	13	5
표현예술학과	7	-	
피부비만체형관리학과	3	-	
합 계	72	3,375	1,535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1. 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개요

1) 체육지도자 종류

현행 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목적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국가가 공인자격을 부여하여 엘리트체육과 국민체육 진흥에 부합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3조와 제24조에 의하면 체육지도자는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된다.

경기지도자는 해당 종목 전문체육분야의 코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해당 종목 생활체육분야의 코치로서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표 9-13) 경기지도자의 자격 요건

자 격 구 분		응 시 자 격
1급 경기지도자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②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경기경력 또는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자 ③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급 경기지도자	일반과정	①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②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④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⑤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자 ⑥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자격부여	① 2005년까지 입학한 대학의 경기지도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의 교과성적이 70/100 이상인 자 ② 2급 경기지도자 필기 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예정)자로서 대학의 교과성적이 80/100 이상인 자 ③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 ④ 경기지도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추가취득	②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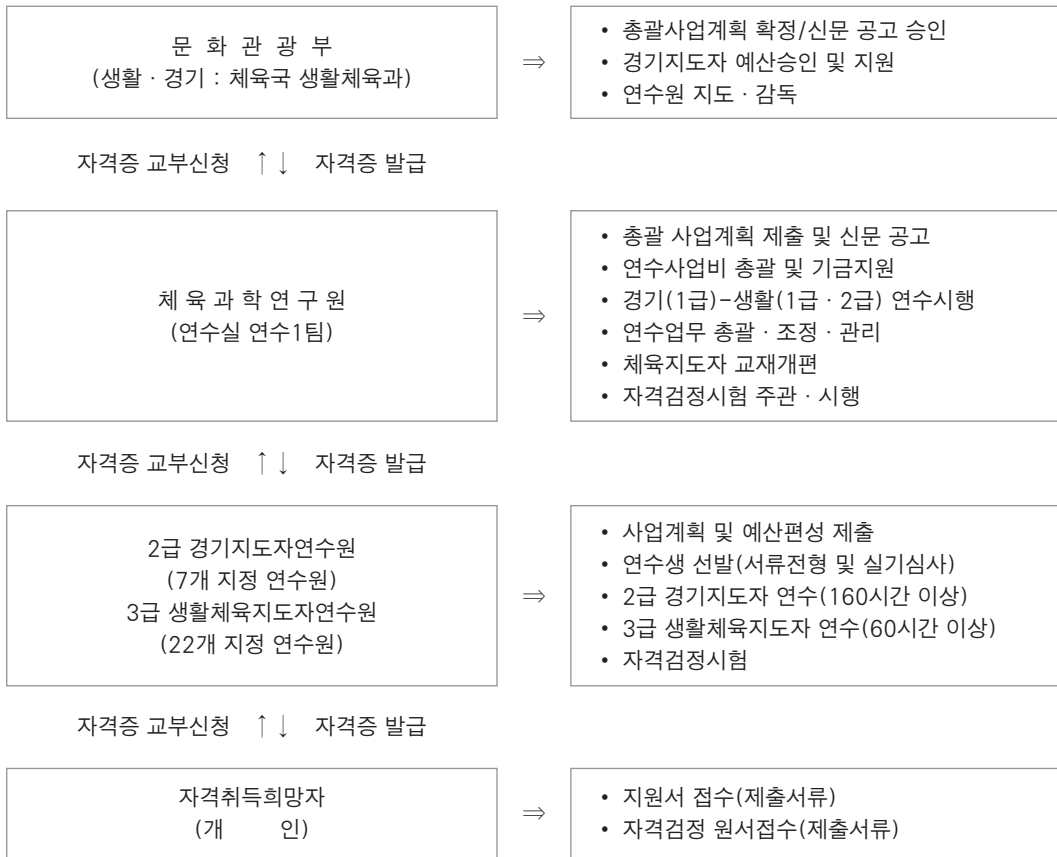
(표 9-14)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

자 격 구 분		응 시 자 격
1급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처방)	특별과정	① 운동처방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운동처방 분야의 종사기간 또는 연구·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특별과정 이수 후 전공과목 자격검정 실시) ② 운동처방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일반과정 이수 후 자격검정 실시)
	일반 과정	①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체육 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급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지도)	특별과정	① 1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②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일반과정	①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자격부여	① 2005년까지 입학한 대학교의 사회(생활)체육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② 2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예정)자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 80/100 이상인 자
	추가취득	①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3급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지도)	특별과정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② 자원봉사지도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자원봉사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일반과정	① 만18세 이상인 자
	자격부여	① 2005년까지 입학한 대학교의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 사회(생활)체육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②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예정)자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 80/100 이상인 자
	추가취득	①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2) 체육지도자 양성 절차

체육지도자 양성은 체육지도자연수원이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신문 등 언론에 공고를 하게 되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이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하여 시험과 연습 등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경기지도자 1급과 생활체육지도자 1급 및 2급과정은 체육과학연구원 체육지도

자연수원에서 접수·연수·검정 등을 담당하며 경기지도자 2급과 생활체육지도자 3급은 체육과학 연구원의 지도·감독 하에 지정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체육과학연구원 체육지도자 연수원, 급별 지정연수원의 체육지도자 양성 절차는 <그림 9-1>과 같다.



<그림 9-1> 체육지도자 양성절차

3) 체육지도자 양성기관 지정 현황

체육지도자 양성기관은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과 경기지도자 연수원으로 구분된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의 경우, 체육과학연구원이 1급과 2급의 연수와 자격검정, 3급의 자격 검정을 담당하고 있으

며, 3급의 연수는 22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은 (표 9-15)와 같다.

(표 9-15)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

급 별	연 수 원		자 격 검 정 기 관	
	연 수 원 명	지정년도	검 정 기 관 명	지정년도
1 급	체육과학연구원	'95. 5. 3	체육과학연구원	'95. 5. 3
2 급	체육과학연구원	'91. 10. 17	체육과학연구원	'91. 10. 17
3 급 (23개)	서울대	'88. 11. 29	체육과학연구원	'91. 10. 17
	용인대	'88. 11. 29		
	충남대	'88. 11. 29		
	조선대	'88. 11. 29		
	동아대	'88. 11. 29		
	제주대	'90. 9. 24		
	국기원	'90. 2. 23		
	계명대	'92. 2. 20		
	한국프로골프협회	'92. 12. 22		
	전북대	'96. 9. 20		
	강원대	'96. 9. 20		
	충청대	'97. 10. 23		
	인천대	'97. 10. 23		
	군산대	'98. 1. 21		
	부경대	'98. 1. 21		
	진주전문대	'98. 1. 21		
	공주대	'98. 1. 21		
	신라대	'02. 5. 29		
	경희대	'02. 5. 29		
	건국대	'02. 5. 29		
	순천대	'02. 5. 29		
	안동대	'03. 7. 1		
연세대	'06. 12. 26			

체육과학연구원(2007). 내부자료

경기도지도자는 체육과학연구원이 1급 경기도지도자의 연수와 자격검정, 2급 경기도지도자의 자격검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7개 기관이 2급 경기도지도자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지도자 양성기관 현

황은 다음과 같다.

(표 9-16) 경기지도자 양성 기관

구 분	급 별	연 수 원		자격검정기관	
		연 수 원 명	지정년도	검 정 기 관 명	지정년도
경 기 지도자	1 급	체육과학연구원	'89. 11. 1	체육과학연구원	'90. 8. 8
	2 급 (7개)	한 체 대	'83. 8. 31	체육과학연구원	'94. 1. 1
		국 기 원	'83. 12. 1		
		동 아 대	'92. 5. 22		
		조 선 대	'92. 5. 22		
		전 남 대	'92. 5. 22		
		충 남 대	'96. 9. 20		
		신 라 대	'02. 5. 29		

체육과학연구원(2007). 내부자료

4) 양성종목

경기지도자 양성종목은 주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종목으로서 다음과 같다. 경기지도자는 50개 종목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1종목, 2, 3급 42종목을 대상으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종목은 매년 조금씩 조정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경기지도자의 경우, 2004년에는 47종목이었으나, 2005년 10월에 당구, 스쿼시, 바이애슬론 종목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총 50종목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04년에는 2급 41종목, 3급 23종목으로 양성 종목이 각각 달랐으나, 2005년 10월에 2급과 3급을 총 42종목으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2급과 3급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일부 종목은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럭비풋볼'은 '럭비', '로울러스케이팅'은 '인라인롤러', '루지'는 '루지봅슬레이'로 각각 변경되었다.

(표 9-17)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분 야		자 격 종 목
경기 지도자 (50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봅슬레이,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생활 체육 지도자	1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운동처방분야 업무
	2·3급 (42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권투,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2. 경기지도자 양성현황

1) 연도별 양성현황

연도별 경기지도자 양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74년 양성을 시작한 이래 1급은 90년부터 매년 양성되고 있으며 2008년 12월 현재 1급 636명, 2급 19,187명이 양성되었다.

(표 9-18) 연도별 경기지도자 양성현황

(단위 : 명)

연도	1급	2급	계	연도	1급	2급	계
1975	17	60	77	1992	39	652	691
1976	0	39	39	1993	38	559	597
1977	0	36	36	1994	35	293	328
1978	0	58	58	1995	0	503	503
1979	0	61	61	1996	38	440	478
1980	22	22	44	1997	10	786	796
1981	27	92	119	1998	0	1,005	1,005
1982	0	250	250	1999	73	852	925
1983	0	372	372	2000	26	767	793
1984	0	519	519	2001	36	848	884
1985	0	499	499	2002	21	736	757

제9장 체육전문인력

연도	1급	2급	계	연도	1급	2급	계
1986	0	571	571	2003	30	827	857
1987	0	633	633	2004	26	1,017	1,043
1988	0	523	523	2005	34	846	880
1989	0	295	295	2006	0	1,125	1,125
1990	22	686	708	2007	128	1,465	1,593
1991	14	346	360	2008	0	1,267	1,267
*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2008), 경기지도자연수원				총계	636	19,187	19,823

2) 종목별 양성현황

종목별 양성 현황은 1급의 경우, 사격의 49명을 비롯하여, 육상 42명, 수영 41명, 태권도, 골프 34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급의 경우, 태권도 4,907명을 비롯하여, 야구 1,602명, 육상 1,272명, 수영 7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별 양성현황은 (표 9-19)과 같다.

(표 9-19) 종목별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 명)

종 목	1급	2급	계	종 목	1급	2급	계
검 도	2	128	130	승 마	10	129	139
게이트볼	0	0	0	십팔기	0	0	0
격투기	0	0	0	십팔반무예	0	0	0
골 프	34	478	512	씨 림	1	87	88
공권도	0	0	0	아이스하키	13	83	96
국선도	0	0	0	야 구	5	1,602	1,607
국 술	0	0	0	양 궁	11	338	349
궁 도	5	52	57	에어로빅	0	0	0
궁중무술	0	0	0	역 도	23	261	284
권격도	0	0	0	연식정구	1	9	10
권 투	3	1	4	오리엔테어링	0	0	0
근대5종	7	120	127	왕도특수무술	0	0	0
농 구	9	502	511	요 가	0	0	0
당 구	2	34	36	요 트	12	205	217
도봉술	0	0	0	우 슈	10	179	189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종 목	1급	2급	계	종 목	1급	2급	계
라켓볼	0	0	0	운동처방	0	0	0
럭비	0	32	32	윈드서핑	0	0	0
럭비풋볼	0	59	59	유 도	12	419	431
레슬링	26	294	320	유 술	0	0	0
레크리에이션	0	0	0	육 상	42	1,272	1,314
로울러스케이팅	0	47	47	육체미	0	0	0
루 지	0	5	5	인라인롤러	1	50	51
루지봅슬레이	1	0	1	정 구	6	154	160
리듬체조	0	10	10	조 정	7	143	150
바이아드론	2	0	2	체 조	21	379	400
바이애슬론	2	6	8	축 구	19	759	778
배 구	20	611	631	카 누	7	146	153
배드민턴	20	328	348	컬 링	5	59	64
보디빌딩	5	356	361	킥복싱	0	0	0
복 싱	12	348	360	탁 구	16	423	439
볼 링	8	364	372	태권도	34	4,907	4,941
볼무도	0	0	0	태수도	0	0	0
빙 상	12	267	279	테니스	13	601	614
빙상(쇼트트랙)	0	0	0	통일무술	0	0	0
빙상(스피드)	0	0	0	트라이애슬론	5	76	81
빙상(피겨)	0	0	0	특공무술	0	0	0
사 격	49	513	562	펜 싱	13	229	242
사이클	15	249	264	하 키	23	178	201
산 악	8	258	266	한무도	0	0	0
세팍타크로	2	40	42	합기도	0	0	0
소프트볼	7	71	78	핸드볼	11	256	267
수박도	0	0	0	행글라이딩	0	0	0
수상스키	2	63	65	회랑도	0	0	0
수 영	41	732	773	활기도	0	0	0
수 중	2	35	37	활 법	0	0	0
스쿼시	1	43	44	회전무술	0	0	0
스 키	18	197	215	계	636	19,187	19,823

체육과학연구원(2008), 경기지도자 연수원

※ 주: 현재의 양성종목은 (표 9-18) 참조

3.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1) 연도별 양성현황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현황은 (표 9-20)과 같다. 생활체육지도자는 1987년 2급 783명이 양성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현재 1급 638명, 2급 6,799명, 3급 116,933명이 양성되었다.

(표 9-20)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현황

(단위 : 명)

구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1급									17	21	23	52
2급	783		435			244	108	217	193	137	158	401
3급			2,629	2,825	4,408	1,146	3,153	3,131	3,262	3,777	4,105	5,716
계	873		3,063	2,825	4,408	1,390	3,261	3,348	3,427	3,935	4,286	6,169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1급	48	36	40	48	47	50	65	61	73	57	638
2급	370	404	481	163	440	218	588	715	409	335	6,799
3급	6,585	7,007	6,019	6,693	7,216	6,475	9,121	9,034	13,627	10,886	116,933
계	7,003	7,447	6,540	6,904	7,747	6,743	9,774	9,810	14,111	11,278	124,370

2) 종목별 양성현황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은 (표 9-21)와 같다. 2008년 현재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는 77개 종목에서 124,370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양성되었다. 종목별로는 보디빌딩(27,273명), 태권도(17,733명), 수영(16,714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21)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현황

(단위 : 명)

종 목	1급	2급	3급	계	종 목	1급	2급	3급	계
검 도	0	8	1,296	1,304	승 마	0	13	773	786
게 이 트 볼	0	81	787	868	십 팔 기	0	0	24	24
격 투 기	0	0	105	105	십 팔 반 무 예	0	0	11	11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종 목	1급	2급	3급	계	종 목	1급	2급	3급	계
골 프	0	322	7,791	8,113	씨 름	0	19	109	128
공 권 도	0	0	17	17	아이스하키	0	0	0	0
국 선 도	0	0	62	62	야 구	0	92	216	308
국 술	0	0	69	69	양 궁	0	4	0	4
궁 도	0	0	0	0	에 어 로 빅	0	203	9,512	9,715
궁 중 무 술	0	0	33	33	역 도	0	0	0	0
권 격 도	0	0	49	49	연 식 정 구	0	5	3	8
권 투	0	18	970	988	오리엔테어링	0	15	28	43
근 대 5 종	0	0	0	0	왕도특수무술	0	0	10	10
농 구	0	299	1,154	1,453	요 가	0	0	387	387
당 구	0	21	492	513	요 트	0	1	253	254
도 봉 술	0	0	8	8	우 슈	0	23	764	787
라 켓 볼	0	6	194	200	운 동 처 방	638	0	0	638
력 비	0	1	32	33	원 드 서 핑	0	81	82	163
력 비 풋 볼	0	14	0	14	유 도	0	53	1,837	1,890
레 슬 링	0	22	263	285	유 술	0	0	5	5
레크리에이션	0	103	166	269	육 상	0	33	0	33
로울러스케이팅	0	64	0	64	육 체 미	0	0	1,988	1,988
루 지	0	0	0	0	인라인롤러	0	21	316	337
루지봅슬레이	0	0	0	0	정 구	0	17	43	60
리듬 체 조	0	6	9	15	조 정	0	4	101	105
바이아드론	0	0	0	0	체 조	0	206	788	994
바이애슬론	0	0	0	0	축 구	0	373	1,620	1,993
배 구	0	221	627	848	카 누	0	16	140	156
배드민턴	0	361	5,226	5,587	컬 링	0	0	0	0
보디빌딩	0	1,032	26,241	27,273	킥 복 싱	0	0	151	151
복 싱	0	0	3	3	탁 구	0	185	2,067	2,252
볼 링	0	238	5,440	5,678	태 권 도	0	196	17,537	17,733
볼 무 도	0	0	28	28	태 수 도	0	0	3	3
빙 상	0	34	775	809	테 니 스	0	518	3,887	4,405
빙상(쇼트트랙)	0	3	0	3	통 일 무 술	0	0	18	18
빙상(스피드)	0	1	0	1	트라이애슬론	0	0	0	0

제9장 체육전문인력

종 목	1급	2급	3급	계	종 목	1급	2급	3급	계
빙상(피겨)	0	4	0	4	특 공 무 술	0	0	50	50
사 격	0	0	0	0	펜 싱	0	0	0	0
사 이 클	0	20	50	70	하 키	0	0	0	0
산 약	0	25	53	78	한 무 도	0	0	23	23
세팍타크로	0	8	6	14	합 기 도	0	0	1,677	1,677
소 프 트 볼	0	0	0	0	핸 드 볼	0	11	0	11
수 박 도	0	0	23	23	행글라이딩	0	3	0	3
수 상 스 키	0	50	51	101	화 량 도	0	0	18	18
수 영	0	1,353	15,361	16,714	활 기 도	0	0	1,018	1,018
수 중	0	28	65	93	활 법	0	0	596	596
스 퀴 시	0	112	2,368	2,480	회 전 무 술	0	0	33	33
스 키	0	252	1,031	1,283	계	638	6,799	116,933	124,370

체육과학연구원(2008. 3),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 주 : 1.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운동처방분야업무 종사자로서 자격종목은 없음
2. 현재의 양성종목은 (표 9-18) 참조

4. 체육지도자 배치 · 활용

생활체육 참여자에 대한 과학적 운동처방과 지도,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게 되는데 크게 관계법령에 의거한 민간부문의 의무배치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통한 공공부문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민간부문의 배치 · 활용

민간부문에서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8조의 체육지도자 배치규정에 근거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다. 2006년에 법률 개정으로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이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자유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이 삭제되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은 (표 9-22)와 같다.

(표 9-2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개정 '96.5.30, '06.9.26)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 모	배치인원
골 프 장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스 키 장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요 트 장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조 정 장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카 누 장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빙 상 장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승 마 장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20두 이하 • 말 20두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수 영 장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수영장 	1인 이상 2인 이상
체 육 도 장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골 프 연습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체 력 단 련 장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업종별 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은 (표 9-24)와 같다. 2008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체육지도자 1급 60명, 2급 1,297명, 3급 22,524명으로 모두 23,881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7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배치인원이 약간 증가하였으며, 1급 및 3급 지도자의 경우 배치인력이 증가되었고 2급 지도자의 경우에만 배치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9장 체육전문인력

(표 9-23) 업종별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구 분 업종별		업소수 (개소)	지 도 자 배 치 (명)				
				대상수	배치수	1급	2급	3급
등록 체육 시설	합 계		295	246	287	4	30	253
	골프장	소 계	276	223	262	3	22	237
		회 원 제	174	174	189	2	20	167
		정규대중	27	28	31	0	0	31
		일반대중	66	21	38	1	1	36
		간 이	9	0	4	0	1	3
	스키장		17	23	25	1	8	16
	자경 동주 차장	소 계	2	-	-	-	-	-
		2 료 차	-	-	-	-	-	-
		4 료 차	2	-	-	-	-	-
	신고 체육 시설	합 계		45,505	19,913	23,594	56	1,267
요 트 장		1	1	2	-	2	-	
조 정 장		-	-	-	-	-	-	
카 누 장		-	-	-	-	-	-	
빙 상 장		41	39	68	13	23	32	
승 마 장		68	66	78	2	12	64	
종합 체육 시설		소 계	203	727	1,120	11	121	988
		회 원 제	85	317	435	4	48	383
		대 중	118	410	685	7	73	605
수영장		소 계	618	656	951	10	52	889
		실 내	439	615	784	4	44	736
		실 외	179	41	167	6	8	153
체육 도장		소 계	12,627	12,283	12,677	6	807	11,864
		권 투	335	326	335	1	28	306
		레슬링	3	4	4		2	2
		유 도	404	397	407	1	14	392
		검 도	904	863	825		20	805
		태 권 도	10,822	10,544	10,946	4	738	10,204
		우 슈	159	149	160		5	155
골 프 연습장		소 계	4,900	1,132	2,070	6	133	1,931
		실 내	3,714	236	857	1	49	807
	실 외	1,186	896	1,213	5	84	1,124	
체 력 단 련 장		6,090	5,009	6,519	8	117	6,394	
당 구 장		19,527	-	-	-	-	-	
썰 매 장		128	-	-	-	-	-	
무 도 장		54	-	-	-	-	-	
무 도 학 원		1,248	-	109	-	-	109	

비고 1. 체육시설업종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종목은 기재하지 않음.

2. 대상수는 : 업체수 + 규모에 따른 추가 배치 인원수임

문화관광부(2008). 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

세부적으로는 등록체육시설업이 246개소에 287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평균 1.17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신고체육시설업도 19,913개소에 23,594명을 배치하여 평균 1.19명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공부문의 배치·활용

2000년부터 시작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장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신규 프로그램 보급을 확산시킴으로써 대국민 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청년전문인력 고용 지원계획’에 따라 2006년도에 995명의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인건비를 50%씩 부담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하던 사업에서 2004년부터 국고지원분을 기금이 지원하고 matching fund 방식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은 (표 9-24)와 같다.

(표 9-24) 2008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실적

구분	배치인원		지도실적		구분	배치인원		지도실적	
	정원	현원	회수	인원		정원	현원	회수	인원
계	1,200	1,197	443,075	11,138,943					
서울	135	135	36,599	845,327	강원	84	84	29,064	525,471
부산	70	68	25,507	758,276	충북	57	56	19,061	683,933
대구	51	51	15,211	625,834	충남	73	73	29,257	709,290
인천	45	45	19,986	510,102	전북	66	66	26,561	633,925
광주	42	42	19,880	485,963	전남	92	92	35,330	863,336
대전	46	46	20,589	567,559	경북	99	99	40,235	904,235
울산	50	50	19,088	430,652	경남	97	97	39,857	886,689
경기	168	168	57,910	1,443,887	제주	25	25	8,940	264,464

국민생활체육협의회(2008). 내부자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실적을 살펴보면, 배치인원은 총 1,197명이며, 경기가 16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135명, 경북과 경남이 각각 99명, 97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시도는 제주로 25명, 다음으로는 광주가 42명, 인천 45명, 대전 46명, 울산 50명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지도

자들의 지도실적은 443,075회였으며 약 11,138,943명이 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도부터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전담지도자 현장배치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도가 수월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방문 활동으로 호응도 및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노인지도자에서 어르신전담지도자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실적은 (표 9-25)과 같다.

(표 9-25) 2008년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실적

구분	배치인원		지도실적		구분	배치인원		지도실적	
	정원	현원	회수	인원		정원	현원	회수	인원
계	350	345	165,585	2,967,669					
서울	38	38	10,757	259,686	강원	25	25	8,750	179,746
부산	19	18	8,502	157,031	충북	19	19	7,124	152,820
대구	16	16	5,751	103,592	충남	23	22	12,025	187,482
인천	17	17	8,118	129,891	전북	21	20	11,710	176,210
광주	10	10	5,457	102,510	전남	32	31	18,794	334,713
대전	10	9	8,567	155,879	경북	34	34	20,487	335,598
울산	8	8	4,993	100,843	경남	27	27	15,587	306,897
경기	44	44	17,178	228,146	제주	7	7	1,785	56,625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실적을 살펴보면, 배치인원은 총 345명이며, 생활체육지도자와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4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38명, 경북이 34명, 전남이 3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시도는 역시 제주로 7명, 다음으로는 울산이 8명, 대전 9명, 광주 10명으로 나타났다. 어르신전담지도자들의 지도실적은 165,585회였으며 약 2,967,669명의 어르신들이 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과제 및 발전방향

일부종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선수 저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수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학교 운동부 위주의 단편적 선수공급시스템에서 각종 스포츠클럽에서 활동중인 선수가 공식선수로 등록·활동할 수 있도록 선수공급시스템의 다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선수들의 중도포기 또는 탈락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축구선수의 대회 리그제 전환·시행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심판양성은 선수, 지도자와 더불어 경기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심판의 중요성에 비하여 관련 연구나 현황 조사, 국제적 활동 지원 등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 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제심판 비율이 종목 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현저하게 낮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많은 경기에서 판정 시비나 자질 시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심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심판 양성 지원, 국내심판 평가제도 도입, 우수 심판에 대한 포상제도 강화 및 전임심판제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심판의 육성을 위해서는 심판 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체육지도자의 양성측면에서는 2005년도에 자격부여 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을 고양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 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지도자의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등 체육지도자 양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도자 양성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강사진 확보와 환경개선을 통해 과학적인 현장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체육지도자 배치의 경우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양성인원에 비하여 배치된 지도자가 매우 적다는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재조정, 배치기관과 실제 배치인원의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지도자 미배치 기관·시설에 대한 배치 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에 배치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요구되며, 배치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 지도 가능한 보유시설 위주로 그리고 다종목 지도가 가능한 자 위주로 생활체육지

도자를 선발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자격증 보유종목의 수가 많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안과 기존 생활체육지도자가 신규 종목 지도자 자격을 획득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10

제10장 체육정보화

- 제1절 개 관
- 제2절 체육정보화 추진현황
- 제3절 과제 및 발전방안

제1절 개 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 통신망을 고속·고도화하여 정보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정보통신망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식기반 경제 발전에 주력하여 왔다. 또한 정부는 정보화를 통해 창조적인 지식기반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정보화 정착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일괄된 추진전략과 체계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정보화추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총괄적인 정보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여 일관된 사업추진과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정보화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1996년 ‘문화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화정보화를 국가사회 정보화에서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인식하였다. 문화정보화추진계획은 분야별 10개 세부 정보망을 구성하여 이를 종합문화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함으로써 문화정보화 여건을 조성하였다. 문화정보화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체육·청소년·예술·관광 등 각 분야의 시책에 대하여 전산화 시스템에서 정보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종합문화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문화종합정보시스템은 체육정보망을 비롯하여 행정정보망, 문화재정보망, 박물관정보망, 도서관정보망, 미술관정보망, 예술정보망, 관광정보망, 청소년정보망, 월드컵정보망의 10개 세부 정보망으로 구성되고, 총 2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문화정보화 추진사업의 주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과 관련단체가 참여기관이며, 협조기관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다.

체육정보망은 문화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 따른 문화종합정보시스템 중 체육분야 정보망으로 체육과학연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체육정보망은 기관별 전산장비를 기반으로 내부정보망(Local Area

Network)을 구축하여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유 및 연계 시스템을 구성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문화정보화 추진사업 계획기간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정보화 추진현황에 따라 제 1단계 (~1997년), 제 2단계(1998년~2000년), 제 3단계(2001년~2010년)로 구분하며, 2009년 현재는 제3 단계 초고속정보망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단계이다.

제2절 체육정보화 추진현황

1. 체육정보화 정책

체육정보화 정책은 1993년 수립된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통해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다. 체육과학연구원을 주관으로 관련단체 간의 전산망 구축,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정보 자료의 공유 및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육정보전산망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그러나 체육정보화가 단위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업무전산화뿐만 아니라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조직 전체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정보화 정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실질적인 체육정보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1996년 '문화정보화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보화를 통한 세계화와 국가 이미지 제고, 다양한 문화 창출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영상·관광·문화예술 등 문화산업 분야의 광범위한 파급효과 창출 등에서 문화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정보화의 실체이며 결과물이 될 종합문화정보시스템 구축과 문화정보화 활성화 여건 조성이라는 목표를 수립, 다양한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였다.

체육 부문에서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과 문화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공공성 높은 정보를 우선 개발하며, 분산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의 구축과 영문판 등의 세계판 보급을 통한 정보의 세계화, 참여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유통체계 확립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재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 조직의 재구성 및 인력 확보, 참여기관 간의 실무추진반 운영 등을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

정보화 대상 업무로는 첫째는 체육과학연구원, 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련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른 체육정보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둘째는 전자사랑방 운영, 지역정보센터 운영, 체육정보 뉴스 서버 운영, 체육정보표준화 및 체육정보망 통합검색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체육정보 유통 기반 조성, 셋째는 경마 실황중계, 재택 발권 시스템 구축 등 경륜·경마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대상 업무별로 1단계(~1997)를 기반조성단계, 2단계(1998~2000)를 확산단계, 3단계(2001~2010)를 완성단계로 하는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국민의 문화의식 확산과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월드컵정보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홍보용 웹 서버 구축과 월드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요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세 개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1998년에 수립된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체육정보의 개발과 유통을 국가 체육정책의 주요정책 영역으로 포함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으로 사회·경제 환경에 근원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포착,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체육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 체육정책 분야에서 체육정보화 정책의 실질적 토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업영역은 체육정보관리체계 구축, 체육정보 개발, 체육정보의 확산 등 세 가지이다. 체육정보관리체계 구축 부문에서는 체육정보화 기반구축, 체육정보의 표준화, 체육정보화 교육 프로그램개발 등 세 가지 사업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정보개발 부문에서는 사업 분야를 체육문헌, 경기력 향상, 건강체력, 체육산업,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마 등 8개 분야로 대별하고, 관련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육정보 확산 부문에서는 사업 분야를 체육정보,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구분, 개발된 체육정보의 확산 및 유통경로를 다양화·고급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하였다.

2002년에 수립된 '제2차 문화정보화추진기본계획'은 1차 계획의 수립 당시와는 많이 변화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발전과 급증하고 있는 문화정보 분야의 수요 확대, 세계적인 지식정보사회의 변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1999년과 2000년 2년간에 걸쳐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하여 수행된 대대적인 체육정보 DB 구축사업은 1차 계획의 단계별 사업계획을 앞당기고 새로운 체육정보화 정책환경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제2차 문화정보화추진기본계획' 체육정보화 분야의 주요 내용은 체육종합정보망 구축, 국민체육진흥DB 구축, 생활체육 정보화, 엘리트체육 정보화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대별된다. 2001년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관광부(구 문화관광부)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구 농림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대상 업무 영역은 줄었지만, 관련기관별 체육정보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체육정보의 생산과 유통, 보급 및 확대 재생산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실질적 의미의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가시화하였다는 점에서 체육정보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차문화정보화추진기본계획'의 체육정보화 관련 계획은 2003년에 수립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체육정보화 부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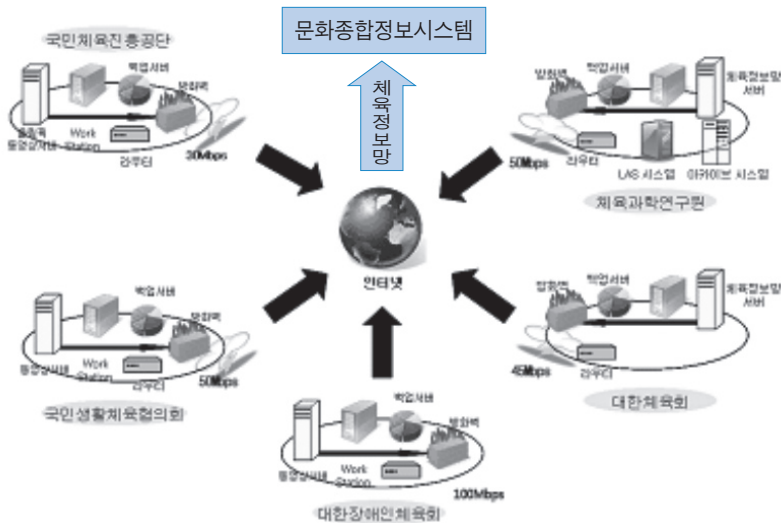
2003년에 수립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체육정보화 부문에서는 '제2차 문화정보화추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체육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사이버 체력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체육

정보 전자도서관 구축, 국민체육진흥 관련 정보자료 DB 구축,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체육정보화시스템 및 DB 구축 등 6개 부문으로 세부 사업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체육정보 포털사이트의 구축은 기존의 체육종합정보망(www.sportskorea.net)을 확대 구축,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체육정보를 체계적으로 콘텐츠화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2. 체육정보화 기반 구축

1) 정보화시스템 구축

체육정보서비스 시스템은 연차적으로 전산장비 도입과 초고속 통신망 구축, 응용시스템 개발·보급, 멀티미디어 자료구축,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체육정보서비스의 현실화를 위해 각 기관별 내부정보 및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였고,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기관간 자료 연계시 자료 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정보유통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전산장비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림10-1)은 체육기관별 연계된 정보화시스템 구성도이다.



<그림 10-1> 체육기관별 정보화 구성도

또한 각 기관별 근거리 통신망 구축현황(표 10-1) 및 초고속통신망 가입현황(표 10-2), 전산장비 현황(표 10-3), 보안시스템 운영현황(표 10-4)은 다음과 같다.

(표 10-1) 근거리통신망 현황

기 관	구성방식	사용 프로토콜	서버기종	회 선	용 도
체육과학 연구원	Ethernet	TCP/IP	UNIX Windows	150/250	인터넷정보 서비스 파일공유, 내부지원
국민체육 진흥공단	Ethernet	TCP/IP	UNIX Windows	250/300	인터넷정보 서비스 파일공유, 내부지원
대한체육회			Windows	300/350	인터넷정보 서비스 전국체육대회 업무지원, 체육행정업무 지원, 체육단체인트라넷지원
대한 장애인 체육회	Ethernet	TCP/IP	UNIX Windows	140/250	인터넷정보 서비스 파일공유, 내부지원 전국체육대회 업무지원 체육행정업무지원 가맹단체 웹 서비스
국민생활 체육협의회	Ethernet	TCP/IP	UNIX Windows	50/80	인터넷정보 서비스 파일공유, 내부지원

(표 10-2) 초고속통신망 현황

기 관	망 종류	회 선/회선속도	용 도
체육과학 연구원	공중망 사설망	ATM50M*1,VPN	인터넷 서비스, 기관홈페이지 서비스 및 16개, 학회 홈페이지 지원, 공단본부 MIS정보 이용
국민체육 진흥공단	공중망 사설망	ATM30M*1, 20M*1, 2M*1, 256K, 56K	인터넷서비스, 업무용 투표 전산, 운영본부별 MIS정 보 지원, 내부 동영상 서비스, 통합재무 연결용
대한체육회	공중망 사설망	ATM45M*1, 2M*2	인터넷서비스, 기관홈페이지서비스, MIS정보 지원, 체육단체인트라넷지원
대한장애인 체육회	공중망 사설망	100M*10, E1*1	인터넷 서비스, MIS정보 이용, 기관홈페이지서비 스, 가맹단체 웹서비스, 파일 및 전산지원, 시도지부 그룹웨어지원
국민생활 체육협의회	공중망 사설망	ATM50M*1	인터넷 서비스, 회원단체 홈페이지 서비스 및 인트라 넷 지원, 회원전용 서비스

제10장 체육정보화

(표 10-3) 전산장비 현황

기 관	구분	모 델 명	OS 및 버전	사 양		
				CPU	메모리	디스크
체육과학 연구원	Unix서버	Sun Enterprise 3000	Solaris 8	250MHz*2	1GB	18GB
		Sun V880	Solaris 8	900MHz*4	4GB*2	73G*6
		Sun V880	Solaris 8	900MHz*4	4GB*2	73G*12
		Sun V890	Solaris 10	2.1GHz*2	16GB	146GB*7
		SE T2000	Solaris 10	1GHz*1	16GB	146GB*4
		SE T2000	Solaris 10	1GHz*1	16GB	146GB*4
	Windows 서버	Proliant 5500	Windows 2000	Xeon 500MHz*2	1GB	104GB
		Proliant 3000	Windows 2000	Xeon 500MHz*4	1GB	76GB
		Proliant 5500	Windows 2000	Xeon 500MHz*4	1GB	18GB
		HP ML370	Windows 2003	Xeon 3GHz*4	3.8GB	100GB
HP ML370		Windows 2003	Xeon 3.6GHz*2	2GB	140GB	
국민체육 진흥공단	UNIX서버	SUN V890	Solaris 10	1.8Ghz*4	16GB	580GB
		SUN V890	Solaris 9	1.8Ghz*2	8GB	580GB
		SUN V890	Solaris 9	1.5Ghz*2	8GB	580GB
		SUN V490	Solaris 10	1.5Ghz*2	8GB	290GB
		SUN Ent T5440	Solaris 10	1.2Ghz*2	32GB	290GB
		SUN fire 280R	Solaris 8	900MHz*2	1GB	72GB
		SUN fire 280R	Solaris 8	500MHz*1	512	72GB
		SUN Ent 450	Solaris 8	400MHz*4	4GB	1,400GB
	Windows 서버	HP DL 380	Windows 2003	3.2G	4GB	400GB
		HP DL 380	Windows 2003	3.2G	4GB	400GB
		HP DL 370	Windows 2000	2.4G*2	2GB	108GB
		HP DL 380	Windows 2000	3G*2	2GB	216GB
		HP DL 380	Windows 2000	3G*2	2GB	72GB
		HP DL 380	Windows 2000	3G*2	2GB	72GB
HP DL 1400		Windows 2003	2.33G	2GB	1000GB	
대한 체육회	Unix서버	SUN Fire-880	Solaris 8	1.2GHz*2	8GB	438GB
		SUN Fire-480	Solaris 8	1.05GHz*2	4GB	288GB
		SUN Fire-880	Solaris 8	1.2GHz*2	8GB	438GB
		SUN Fire-880	Solaris 8	1.2GHz*2	8GB	438GB
		SUN Fire-880	Solaris 8	1.2GHz*2	4GB	438GB
		SUN Fire-880	Solaris 8	750MHz*2	4GB	218GB
		SUN Fire-880	Solaris 8	900MHz*2	4GB	438GB
		SUN E-3000	Solaris 7	400MHz*2	2GB	66GB
		SUN E-3002	Solaris 8	400MHz*2	2GB	180GB
		SUN Ultra I-140	Solaris 2.x	143MHz	256MB	2.1GB
		SUN Ultra-60	Solaris 8	450MHz	1GB	36GB
		SUN Fire-V490	Solaris 10	1.8GHz*2	8GB	292GB
SUN Fire-V490	Solaris 10	2.1GHz*2	8GB	292GB		

기 관	구분	모 델 명	OS 및 버전	사 양		
				CPU	메모리	디스크
대 한 체 육 회	Windows 서버	eSlim	Windows 2003	2.0GHz*2	4GB	146GB
		eSlim	Windows 2003	2.0GHz*2	4GB	146GB
		HP DL-380G4	Windows 2003	3.0GHz*2	4GB	588GB
		HP DL-380G4	Windows 2003	3.0GHz*2	4GB	441GB
		HP DL-380G4	Windows 2003	3.0GHz*2	2GB	364GB
		HP DL-380G4	Windows 2003	3.0GHz*2	1GB	146GB
		HP DL-380G4	Windows 2003	3.0GHz*2	4GB	437GB
		HP DL-380G5	Windows 2003	3.2GHz*2	4GB	1175GB
		HP ML-350	Windows 2003	2.5GHz*1	2GB	743GB
	Unix서버	HP DL-380G4	Linux red hat9	3.0GHz*2	2GB	587GB
국민생활체육협의회	Unix서버	IBM X306M	Linux red hat9	3.0GHz	512M	80GB
		SUN Fire v880	Solaris 8	750MHz*2	4GB	216GB
		SUN Enterprises 3500	Solaris 7	400MHz*2	2GB	252GB
		SUN Enterprises 3000	Solaris 7	400MHz*4	3GB	54GB
		SUN Enterprises 3000	Solaris 7	250MHz*2	512MB	18GB
		SUN Ultra 450	Solaris 7	250MHz*2	1GB	62GB
		SUN Ultra 60	Solaris 7	450MHz*1	1GB	36GB
		IBM 9115	AIX 3	1.9GHz*2	8GB	146G×2
	eSlim(2대)	Linux	2.66GHz*2	16GB	500GB×4	
	Windows 서버	LG-IBM xSeries235	Windows 2003	Xeon 3GHz*2	2GB	146GB×3

(표 10-4)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기 관	제 작 사	모 델 명	보안 평가등급	도입 연도
체 육 과 학 연 구 원	시큐아이닷컴	NXG2000	CC	2007
	나우콤	스나이퍼 IPS	-	2004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시큐아이닷컴	NXG2000	CC	2006
	Secure	SNIPER	-	2003
	원스텍	websray	CC	2007
	나우콤	스나이퍼 IPS2000	CC	2008
대 한 체 육 회	안철수연구소	수호신	CC	2007
대 한 장 애 인 체 육 회	어울림정보	시큐어웍스K2000	EAL 3+	2007
	지란지교소프트	스팸스나이퍼2.96		2007
국 민 생 활 체 육 협 의 회	어울림정보	시큐어웍스2000	EAL 3+	2006
	지란지교소프트	스팸스나이퍼2.0		2006
	LG엔시스	SZ-400	EAL 3+	2004

2) 기관 별 홈페이지 서비스

체육과학연구원 등 체육관련 기관에서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체육정보의 연계와 생산유통의 체계를 확립하고 정보생산 경로를 다양화하여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등의 종합체육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는 공단 본부, 경주사업본부, 스포츠산업본부, 그리고 (주)한국체육산업개발의 각 도메인을 구축하여 기관의 소개와 민원 접수 등 주요 업무를 서비스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 및 가맹경기단체의 소개와 대표선수의 정보, 체육인명사전 등 전문체육관련 자료와 동·하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홈페이지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진흥과 국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정보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종목 등을 소개하고 각종 대내·외 대회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원은 체육과학종합연구기관으로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등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 그리고 주요 사업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체육 유관기관 정보망의 포털사이트로서 체육정보망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체육정보망은 체육사랑방, 사이버체력관리, 청소년체력평가시스템의 도메인을 갖고 있으며,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체육통계, 학술정보, 올림픽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체육 관련기관 홈페이지는 체육정보,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분야를 서비스하고 있다. 연도별 기관 홈페이지 이용현황은 (표 10-5)과 같으며, 각 체육유관기관별 도메인은 (표 10-6)과 같다.

(표 10-5) 연도별 기관홈페이지 이용현황

(단위 : 명)

기관 \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체육과학연구원	467,587	497,724	519,633	1,457,551	1,217,212	1,414,377	1,722,647	1,967,946	2,456,868	2,739,187
국민체육진흥공단	1,826,000	2,914,000	3,500,000	3,900,000	4,500,000	6,779,028	7,000,000	7,200,000	7,410,747	7,632,300
대한체육회	100,000	130,000	160,000	195,822	388,734	461,105	506,768	881,373	923,928	1,511,770
대한장애인체육회	-	-	-	-	-	-	-	-	282,570	1,756,122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55,500	438,000	730,000	1,125,775	3,909,265	13,054,119	16,060,486	17,639,000	605,906	654,848
합 계	2,649,087	3,979,724	4,909,633	6,679,148	10,015,211	21,708,629	25,289,901	27,688,319	11,680,019	14,294,227

(표 10-6) 체육유관기관 도메인

기 관	도 메 인	비 고
체육과학 연구원	http://www.sports.re.kr/ http://www.sportskorea.net/ http://www.cyber-fitness.org/ http://www.teen-fitness.com/ http://www.insports.or.kr	기관 홈페이지 체육사랑방 사이버체력관리 청소년체력평가 연수관리시스템
국민체육 진흥공단	http://www.sosfo.or.kr http://www.cyclrace.or.kr http://www.motorboat-race.or.kr http://www.parktel.co.kr http://www.korea-sports.com/ http://www.spoex.com http://www.seoulolympicmuseum.com/ http://www.artmuseum.or.kr/ http://www.sportsluck.or.kr http://www.somamuseum.or.kr http://www.tourdekorea.or.kr	공 단 본 부 경 령 정 파 크 텔 체 육 산 업 스포츠산업박람회 서울올림픽기념관 서울올림픽미술관 체육진흥투표권 소마미술관 트루드코리아
대한체육회	http://www.sports.or.kr/ http://www.koc.org/ http://sunsuchon.sports.or.kr/ http://national.sports.or.kr/ http://junior.sports.or.kr/ http://winter.sports.or.kr/ http://www.sports.or.kr/intergames/2008_beijing http://ksclib.sports.or.kr http://people.sports.or.kr http://dbsd.sports.or.kr http://run.sports.or.kr	기관 홈페이지 K O C 홈페이지 대한체육회선수촌 홈페이지 전국체육대회 홈페이지 전국소년체육대회 홈페이지 전국동계체육대회 홈페이지 베이징올림픽 홈페이지 문헌정보 체육인정보검색 스포츠외교인력DB 올림픽의날달리기대회
대한장애인체육회	http://www.kosad.or.kr http://www.kosad.or.kr/english http://sports.kosad.or.kr http://kpcdb.kosad.or.kr	기관 홈페이지 K P C 홈페이지 생활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국제인력DB 구축
국민생활 체육협의회	http://www.sportal.or.kr/	기관 홈페이지

3) 기관별 콘텐츠 구축

체육유관단체들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구축 후 체육정보 콘텐츠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해 체육문헌정보 및 서울올림픽동영상 등의 DB 구축이 이루어졌고, 이를 검색하

제10장 체육정보화

여 서비스할 수 있는 체육정보검색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 후 제1~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의거 각 기관별로 체육정보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 10-7)과 같다.

(표 10-7) 체육정보화 콘텐츠 구축 내역

추진기관	년 도	내 용	
체육과학연구원	1996	• 홈페이지 개발	
	1997	• 문헌정보, 레포트, 체육사랑방 콘텐츠 자료 구축	
	1998	• 문헌정보, 레포트, 체육사랑방 콘텐츠 보완 및 추가 구축 • 스포츠산업정보 DB 자료 구축	
	1999	• 체육문헌정보 원문DB 및 이미지 자료 구축 • 스포츠산업정보 자료(텍스트/이미지) 구축	
	2000	• 스포츠산업 자료(텍스트) 및 대한민국체육사 자료구축 • 체육문헌정보 자료(텍스트) 구축 • 사이버(cyber)체력관리시스템 개발	
	2001	• 청소년체력평가시스템 개발	
	2002	• 스포츠산업정보 및 인증정보 시스템 구축 • 한국체육지표 검색시스템 개발 및 자료구축	
	2003	• 문헌정보 내부관리시스템 개발 및 원문 자료구축 • 홈페이지 재구축 • 체육지도자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2004	• 체육관련학회 통합전산관리시스템(16개학회) 구축 • 사이버(cyber)체력관리시스템 재구축 •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경기영상콘텐츠) 구축 • 스포츠산업정보 DB 구축 • 스포츠 전문인력양성 관리시스템 개발	
	2005	• 사이버(cyber)체력관리시스템 재구축 • 스포츠전문인력 양성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 원문관리 및 논문자료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 청소년체력인증 및 향상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사업 • 온라인 연구지원 및 연구과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06	• 국민체력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 경기력진단평가 프로그램 구축	
	2007	• 체육통계포털시스템 구축 • 연수·연구관리시스템 구축 • 아카이브시스템 연계 경기내용분석 시스템 개발	
	2008	• 체육정보망 이용자수요조사 및 콘텐츠 구축전략 수립 • 스포츠산업/인증정보 시스템 재구축	
	국민체육진흥공단	1997	• 홈페이지 개발
		1999	• 서울올림픽 멀티미디어 정보 자료(동영상/이미지) 구축
2000		• 올림픽 이미지 자료 구축	
2004		• 고객 지향적 홈페이지 재구축	
2005		• 올림픽 동영상 디지털 서비스(VOD)사이트 구축	
2006		• 고객 지향적 홈페이지 재구축 • 통합 온라인 고객센터(E-cs) 시스템 구축 • 국민건강체력 콜센터 구축	

추진기관	년 도	내 용
국민체육진흥공단	2007	• 고객 지향적 홈페이지 재구축
	2008	• 체육바우처시스템 구축, 계약시스템 구축, 기금지원시스템 구축
대한체육회	1996	• 홈페이지 개발
	1997	• 홈페이지 재구축 및 보완
	1998	•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 자료 구축
	1999	• 홈페이지 보완 구축
	2000	•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구축(올림픽, 문헌정보 등) • 경기 팀·선수 자료(텍스트) 구축 • 경기단체 자료(텍스트) 구축
	2001	• 홈페이지 보완 구축
	2002	•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구축(문헌정보 등)
	2003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관리 시스템구축 • 체육정보시스템구축 • 문헌정보자료(체육지) 1차DB구축 • 전국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1차 구축 • 역대전국체전자료 1차 DB구축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구축(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경기단체 홈페이지구축 • 선수등록 시스템구축
	2004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과거자료 구축 • 문헌정보자료(체육지) 1차DB 구축 • 전국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2차 구축 • 전국동계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1차 구축 • 역대전국체전자료 2차 DB 구축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하계올림픽대회:아테네) • 선수등록(2004년도) DB구축 • 시도체육회 홈페이지 구축
	2005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보완 구축 • 전국동계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2차 구축 • 전국소년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구축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 선수등록(2005년도) DB 구축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보완 구축
	2006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훈련기록DB구축) 보완 구축 • 동계종목대회운영시스템 구축 • 국내종합대회운영(전국체육대회 등)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제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대회 등) • 선수등록(2006년도) 온라인 접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보완 구축
	2007	•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 국내종합대회운영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제23회 토리노 동계U대회 - 제6회 장춘 동계아시아경기대회 - 제24회 방콕 하계U대회 • 선수등록(2007년도) 온라인 접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보완 구축 •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제10장 체육정보화

추진기관	년 도	내 용
대한체육회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종합대회운영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제29회 베이징 올림픽대회 • 선수등록(2008년도) 온라인 접수 • 국가대표관리시스템 보완 구축
대한장애인체육회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발 • 전국대회 홈페이지 구축(제3회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재구축/보완 • 시·도체육회 홈페이지 구축 • 선수등록시스템 구축 • 전국대회 홈페이지 구축 - 제 4회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 27회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 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시스템 보완(추가개발) • 생활체육프로그램 구축 • 2007 IPC경기총회 국·영문 홈페이지 구축 • KPC 영문 홈페이지 구축 • 생활체육정보센터 • 동계체전 경기운영시스템 구축 • 제전대진시스템 구축 • 가맹단체 홈페이지 신규 및 웹기반 구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 홈페이지 구축 - 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 • 전국대회 홈페이지 구축 - 제 5회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 28회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2008 전국장애인청소년체육대회 • UCC사이버전시관 구축 • 생활체육정보센터 추가개발 - 커뮤니티 공간 구축
대한장애인체육회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SAD 홈페이지 재구축 • 국제인력 DB구축 • 서훈관리시스템 구축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구축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구축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부분개편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시스템 보완 구축 • 사업실적관리시스템 구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편 구축

3. 체육종합정보체계 구축

체육종합정보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정보시스템 구축(1996~2010)과 관련하여, 체육유관기관의 정보교류 및 연계를 통해 다양한 체육정보를 제공하고 체육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령과 시책홍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구조는 <그림 10-2>와 같다.



<그림 10-2> 체육종합정보망 구성도

1) 체육과학정보

체육정보망은 체육유관기관의 체육종합정보 서비스 관문으로서 체육사랑방(sportskorea)의 이름을 갖고 있으며, 체육사랑방은 생활체육정보, 스포츠산업정보, 체육통계정보, 학술정보, 올림픽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은 체육정보망의 거점기관으로서 체육정보망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구축내용은 (표 10-8)와 같다.

(표 10-8) 체육정보망 주요 구축내용

정보제공명	정보 주요 내용	형 태	
		저장형태	구 축 량
운동과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운동 • 건강길라잡이 • 클리운동처방 • 사이버체중관리 • 건강과 영양 • 알고 싶은 스포츠세계 • 119상황별 응급대처 • 정보 나눔터 	Text	3분야 5분야 3분야 3분야 3분야 4분야 2분야 4분야
사이버체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문진 • 체력평가 • 심폐지구력 등 3개 분야 • 운동과 건강 상식 	Text Mpeg Image	6,417KB 1,700초 2,401장
청소년체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용 학생 체력관리 • 학생용 자가 체력관리 • 체력증진 및 권장운동 • 체육교육자료 	Text Mpeg Image	5.5MB 1,200초 600장
대한민국체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조직 단체, 경기대회, 정책·법규, 경기대회, 여가 오락, 학술, 시설용 기구 등 	Text	1,051건
스포츠적성진단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적성진단절차 • 개인정보보기 • 스포츠적성진단 안내 	Text	1단계 2단계
체육통계포털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체육지표 • 국민체력실태조사 •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 	Text	1,983건
체육학술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학회 및 16개 분과학회 논문 투고 및 원문 제공 등 	Text	11,510건

체육정보망 시스템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체육정보망 활성화 촉진 및 체육관련 포털사이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 정보 콘텐츠 추가 구축과 시스템을 확대·보완하였다. 사업내용은 체육사랑방, 운동과 건강, 전문가 상담 시스템의 홈페이지 개편 및 스포츠산업정보에 대한 DB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체육관련학회(16개 학회) 통합전산관리시스템, 타란툴라이아카이브시스템, 원문 관리 및 논문자료 통합검색의 학술자료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7년은 스포츠적성진단시스템, 체육통계포털시스템, 2008년은 체육정보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 제고에 필요한 콘텐츠 구축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추진하였다. 체육정보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운동과 건강 및 전문가 상담

운동과 건강 사이트는 건강에 대한 상식, 성인병과 운동 등 건강에 대한 기초 상식 정보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운동 참여 프로그램이다. 운동과 건강 사이트는 '98년에 개발하여 연차별(2002~2007) 자료 보완 및 신규 건강 정보를 구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용이하게 자신의 건강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연령이나 개인특성에 따른 운동처방과 식이요법에 의한 체중조절관리 등의 운동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건강과 운동, 건강 길라잡이, 클릭 운동처방, 사이버 체중관리, 건강과 영양, 알고 싶은 스포츠세계, 119 상황별 응급대처 및 정보나눔터와 전문가 상담코너 등이다.

(2) 사이버체력관리 시스템

사이버체력관리 시스템은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성인병이나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체력을 측정하고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력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를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이버체력관리시스템은 2000년 6월 정보화 사업에 의해 국민체육진흥정책지표 활용의 목적으로 체력평가 전문가 시스템, 체육지식데이터베이스 관리, 국민체력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기타 통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이버체력관리시스템은 2004년에 시스템 재구축과 함께 건강문진 결과문 확대 개발 및 건강자료 콘텐츠 추가 개발하여 이용자들의 사이버 운동처방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체력평가 기준치 보완사업을 통해 국민의 체력기준치를 지속적으로 수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2006년에는 일반인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

춤형 운동처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 체제를 갖추었다.

2001년부터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 내용은 체력진단평가, 운동능력 측정 및 처방, 개인별 맞춤 운동지도, 건강자료실, 나만의 체력관리실, 국민체력 통계자료 제공 등이다.

(3) 청소년 체력평가 시스템

청소년 체력평가 시스템은 그룹별 체력증진 원격지원 시스템으로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체력 통계 연구 분석을 통한 체력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참여를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 체력평가 시스템은 2001년 6월에 회원 기초정보 관리시스템, 청소년체력 평가시스템, 청소년체력 관리 지원시스템, 통계정보 시스템, 기준정보 관리시스템, 부가서비스 시스템 등을 개발하였다. 2002년 1월부터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되었고, 2007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체육비전 1080」계획에 청소년체력증진시스템 이용을 권장하였고, 그 계기로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의 참여율을 증대시켰다. 본 시스템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체격과 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교사용 체력관리지도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의 체력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 외 서비스는 청소년들의 효율적인 체력관리를 위한 체력 요인별로 체력증진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체격·체력 등 통계자료 그리고 교사들이 체육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육자료실을 제공하고 있다.

(4) 레포트 정보

레포트 정보는 국내외 35개 레포트종목의 소개, 강습장비, 배움터, 서적, 단체, 자격증, 쉽터 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레포트 기사 모음, 레포트학문탐방, 테마별 레포트, 레포트 용어사전, 포토 갤러리, 주말여행정보 등이 있다. 구축된 콘텐츠는 레포트 관련 사진 및 기사 3,061건, 주말여행정보 157건, 레포트관련 전문용어 사전 802건 등이다.

(5) 스포츠산업 정보

스포츠산업 정보망은 '97년에 개설하였고, '99년과 '00년에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2차에 걸쳐 확대 구축하였다. 또한 '03년도와 '04년에 걸쳐서 홈페이지 리뉴얼과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해 전

수 자료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객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08년도와 '09년도에 걸쳐서 현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편내용은 검색기능 확대 및 보완, 응용개발언어 변경, 메일링리스트 발송, 메인 디자인 변경 등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며 고객센터와 연관된 항목을 강화해 개편하였다. 스포츠산업 정보망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산업 정보, 업체 정보, 스포츠용품 및 시설 정보 등이다. 스포츠산업 정보는 스포츠산업에 관련된 최근 뉴스와 스포츠 산업 자료, 산업체 정보, 스포츠용품 정보, 스포츠시설 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정보의 주요내용은 (표 10-9)와 같다.

(표 10-9) 스포츠산업 정보 주요내용 및 DB구축

구 분	주 요 내 용	저장형태	구축건수
스포츠 산업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기술정보 • 업체정보 • 종목별 운동 용품정보 • 종목별 운동 강좌정보 • 종목별 민간 체육 시설정보 • 종목별 전문 운동강사정보 	Text, Image	2,714 건 1,518 건 16,926 건 5,961 건 2,040 건 400 건
	합 계		29,559 건

(6) 스포츠용품 인증사업 정보

인증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스포츠용품 인증 및 시험업무의 관리와 정보제공을 통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및 시험·검사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고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포츠용품 생산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용품시험검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시험장비 현황을 제공하여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험이 가능한 지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포츠용품 및 시설을 대상으로 스포츠과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규격을 개발하고 수탁 또는 업체 및 학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과 과정을 알림으로서 스포츠용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스포츠용품 인증사업의 정보자료 구축내용은 (표 10-10)과 같다.

(표 10-10) 스포츠용품 인증사업의 정보자료 구축내용

구 분	분 류	주요 내용
인증사업 관 리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 소개 • 품질인증 절차 • 품질인증 업체 및 품목 현황
	스포츠용품 시험·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검사 안내 • 시험·검사 절차 • 시험·검사 온라인 신청 • KOLAS 시험 품목 • KOLAS 시험 절차 • KOLAS 시험 온라인 신청 • 주요 시험장비 현황
	스포츠용품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개발연구 안내 • 규격개발연구 실적 • 수탁연구개발 안내 • 수탁연구개발 실적 • 공동연구개발 안내 • 공동연구개발 실적
인증지원	고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지사항, FAQ, Q&A
	회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가입 및 관리

(7) 스포츠적성진단시스템

스포츠적성진단시스템(<http://kostass.sports.re.kr>)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스포츠 적성진단을 통하여 자신의 체력 및 체력수준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 활동을 안내하고 나아가 직업적 전문 운동선수로서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다. 1단계 평가모형인 간이스포츠적성진단모형의 경우 학교 체력검사 및 체력검사의 결과만으로도 손쉽게 초·중학생 자녀의 스포츠적성을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육상, 수영, 체조와 같은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학교체력검사이외에 체지방율 검사 등이 추가된 2단계 기초스포츠영재발굴모형도 개발되었으며 골(骨)연령, 최대산소섭취량 등 운동생리학적 검사와 집중력 등 운동심리학적 검사가 추가된 3단계 전문 스포츠 영재 발굴 모형까지 개발되어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스포츠영재발굴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8) 체육통계포털시스템

체육 분야의 학문적인 깊이가 심화되면서 체육통계자료에 대한 사용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육통계는 단순 체육활동 통계 수준을 넘어 체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체육과학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등 국민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체육 분야 3대 통계로는 한국의 체육지표, 국민체력실태조사, 국민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가 있다.

체육통계포털시스템(<http://ssps.sportskorea.net>)은 국민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체육통계자료의 DB화 사업을 통해 체육통계정보의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정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홈페이지 이용자는 통합검색을 통해 체육지표, 국민체력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의 통계자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별·연령별·종목별·국가별 등 생활 속 체육통계에 대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체육통계별 원문서비스, 국민체력기준치,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체육통계포털시스템은 현재 체육사랑방 내 체육통계정보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향후 체육통계의 원시데이터까지 확대 구축되어 파워풀한 국내 유일의 체육관련 전문통계시스템으로 서비스될 계획이다. 또한 타 통계서비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DB정보를 연계하는 등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표 10-11) 체육통계포털시스템 구축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통계자료검색	• 통합검색 제공
생활속 체육통계	• 지역별, 연령별, 종목별, 국가별 체육통계 제공
체육지표	• 8개 부문에 총 159개의 국내의 체육지표 제공 - 체육의식, 건강 및 체력,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체육교류, 체육인력, 체육시설, 스포츠 산업, 체육재정 및 복지 • 95년 ~ 07년 자료 DB 구축
국민체력실태조사	• 체격, 체력 측정결과 제공 - 신장, 체중, 신체질량지수, 피하지방, 체지방율, 50M달리기, 12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윗몸앞으로굽히기 등 • 89, 92, 95, 98, 01, 04, 07년 자료 DB 구축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 4개영역 8개 부문 실태결과 제공 -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 체육활동 참여태도, 체육활동 여건의 수준, 체육시설 및 용품의 수준, 직접참여실태, 간접참여실태, 체육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 체육 정책의 대한 인식 • 89, 94, 98, 00, 03, 06년 자료 DB 구축

(9) 체육학술정보시스템

체육학술정보는 학회간 학문·정보 교류 증대와 체육학문 발전을 위해 체육과학연구원과 한국체육학회 및 15개 분과학회가 참여하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한 학술정보 사이트이다. 2004년 5월에 오픈한 체육학술정보시스템은 체육학술정보 포털사이트 (<http://ksa.sports.re.kr>)와 16개의 체육관련학회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논문투고 및 논문열람이 가능하다. 제공되는 주요서비스는 16개 학회의 학회소개, 학회소식, 논문투고, 학회자료 열람, 관련 사이트 정보와 체육과학연구원의 도서관 자료 검색 등이다.

(10) 기타 체육과학정보

그 외 정보 자료는 대한민국체육사가 있다. 대한민국체육사는 2000년 10월에 구축하였으며, 1920년~1940년간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던 체육·스포츠관련 기사를 기초로 한 한국근대체육자료이다.

2) 국민체육진흥정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기념 사업, 기금지원 사업, 기금조성, 운영 및 용자 사업,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외에 올림픽 관련 기념물품 및 사료정보, 올림픽 시설정보 등 올림픽 소장자료 검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정보는 1997년에 개설하였고,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정보화사업을 통해 올림픽 동영상정보(320분)를 추가 구축하였다. 2001년에는 올림픽 기념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기념관 소개, 스포츠 체험관, 서울올림픽의 경기기록 및 각종 문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자료실 등과 기존 홈페이지에서 지원되었던 한국어·영어 서비스에서 중국어와 일본어 서비스 기능을 추가 확장하였다. 경륜의 홈페이지는 1999년에 개설한 후 3차에 걸쳐 재구축을 실시하였으며 경주, 선수 정보 및 경기 동영상 자료를 2003년부터 구축하였다. 경정 홈페이지는 경정을 소개하는 정보와 선수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서울올림픽미술관 및 올림픽공원 생태공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올림픽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정보 내용은 (표 10-12)와 같다.

(표 10-12) 국민체육진흥 정보 및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저장형태	구 축 량
국민체육진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올림픽기념 사업 • 기금지원 사업 • 기금조성 및 운영 사업 • 기금 융자 사업 • 올림픽 시설 운영사업 	Html	40건
서울올림픽 동영상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올림픽 개요 • 대회참가국 및 국가별 메달 집계 • 올림픽 개최식, 올림픽 주제가 • 종목별 주요경기 장면 • 역대 올림픽 등 	Mpeg, Gif	37,715건
서울올림픽 문헌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차, 서지 올림픽 관련 자료 • 서울올림픽 도서영상 자료 	Text	30,100건
경륜정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 및 선수정보 • 한국경륜 및 세계 경륜 역사 • 경륜 클리닉 등 	Mpeg, Text	1,040,000건
경정정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의 역사 • 경정 및 선수정보 등 	Mpeg	50건

3) 생활체육 정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국민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1996년에 개설하였고, 2002년 우리나라 고유 정통무예인 택견 동작의 3차원 입체영상(3D)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2003년에는 우리나라 고유 구기 종목인 족구의 동작을 3차원 입체영상(3D)시뮬레이션을 추가 개발하였다. 아울러 생활체육 관련 각종 영상물을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 구축하여 서비스하였다. 2004년에는 생활체육 선호 종목인 농구, 배구, 등산, 인라인스케이팅, 생활체조, 요가, 헬스, 줄넘기 등 8종목을 이용자의 운동수행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생활체육 배워 보세요' 코너를 신설하였다. 이는 스포츠교육콘텐츠로써 인터넷을 통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2005년에는 회원단체와의 정보공유를 위한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45개 회원단체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구축하였다. 2006년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자전거,

배드민턴, 스쿼시,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인라인스케이팅, 국민체조, 워킹/조깅, 요가, 레크댄스, 새천년건강체조 동영상은 추가로 서비스하였다. 2007년에는 탁구, 테니스, 볼링, 당구, 아쿠아로빅, 스케이트, 다이어트댄스, 덩더꿍체조 동영상을 개발하여 서비스하였으며, 생활체육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다. 2008년에는 웨이크보드/수상스키, 윈드서핑, 스포츠클라이밍, 야구, 밸리댄스, 그라운드골프, 스키, 스노보드 동영상을 추가 서비스하였으며 홈페이지를 개편 구축하였다. 생활체육정보 지원내용은 (표 10-13)와 같다.

(표 10-13) 생활체육 정보 및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저 장 형 태	구 축 량
생 활 체 육 프 로 그 램	노인프로그램, 생활체조, 야외형 생활체육, 직장인 선호종목, 건강하게 사는 길, 프로그램 백과사전, 변형축구프로그램, 레비, 지도서, 가족형 뉴스포츠, 전통민속 뉴스포츠, 볼컬링, 생활체육현장지도자지침서	이미지, 동영상, Text	14종
체 육 시 설 물	등록 신고체육 시설, 16개 시·도체육시설, 체육관련 법령	PDF	22건
생 활 체 육 지 도 자	시·도(시·군·구)협의회 소속의 생활체육지도자 정보	이미지, Text	2,943건
생 활 체 육 동 호 회	시·도(시·군·구)에서 활동중인 동호회 정보	이미지, Text	3,222건
생 활 체 육 디 지 털 콘 텐 츠 구 축	국민체조, 태권, 족구	이미지, 동영상, Text	185건
동 영 상 서 비 스	생활체육 동영상 교실 및 기타 생활체육관련 동영상	이미지, 동영상, Text	341건

4) 전문체육 정보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 및 청소년대표 등 우수선수들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전문체육정보는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우수 선수발굴과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국종합체육대회, 학교체육, 선수훈련 및 시설,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 지부, 국제체육교류, 국제종합경기대회 등의 정보들이다.

홈페이지는 1996년에 개설되었고, 1997년도는 정보화사업을 통해 1,000페이지 분량의 경기단체 정보와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선수단 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영

문 홈페이지에 이어 대한체육회선수촌 홈페이지를 추가하였다. 1998년에는 가맹경기단체를 비롯한 체육유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를 위해 시·도지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개인 신상관리, 개인별 체육관련 단체 관리, 주소록, 체육인 통계자료, 체육 인명사전 등 데이터베이스 2,500건과 국가대표선수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550건을 추가 구축하였다.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때에는 대회정보, 선수단정보, 경기일정 및 결과, 선수단소식, 응원메시지 등의 메뉴로 구성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체육관련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자료실 소장자료(문헌정보) 1,860권의 서지사항을 DB구축하였고, 국가대표 선수 관련정보 데이터베이스 추가 구축과 역대 국제종합대회 경기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5,279건, 53개 단체 경기단체별 홈페이지 구축사업, 시도체육회별 홈페이지 구축사업, 경기단체 팀·선수에 대한 130,000건의 자료를 구축 확장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종합경기대회(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 운영 시스템을 WEB환경 구축으로 대회정보를 실시간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하고, 2005년부터 55개 종목을 단체별로 종목별 대회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국내종합경기대회운영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동계 종목 대회운영시스템을 구축·완료 하였으며, 2007년에도 종목별 대회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중이다. 전문체육정보 지원내용은 (표 10-14)과 같다

(표 10-14) 전문체육 정보 및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저장형태	구 축 량
체 육 단 체 정 보	경기단체, 시도체육회 정보 - 규칙 및 일반정보 등	이미지, Text	1,431,487건
국 제 종 합 경 기 대 회	개최현황,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경기종목 현황, 한국선수 메달획득 현황	이미지, 동영상, Text	288,765건
국 내 종 합 경 기 대 회	개최현황, 시도별 메달 및 득점현황, 경기종목 별경기결과, 신기록, 다관왕 현황	이미지, 동영상, Text	2,586,417건
체 육 인 명 사 전	신상관리, 개인 및 임원 기본 사항 등	이미지, Text	12,000건
국 가 대 표	국가대표, 후보, 꿈나무, 지도자 등의 대표 훈련 정보, 각종 대표 확인서 발급 현황, 선수식당 급식자료 등	이미지, Text	300,976건
선 수 등 록	선수신상, 경력, 학력, 가족 등	이미지, Text	891,963건
체 육 지	대회, 행사관련 자료 등	이미지, Text	1,320건
문 헌 정 보	도서명, 저자, 출판사, 입력일	이미지, Text	11,360건

5) 장애인체육 정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정보와 가맹 경기단체와 체육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장애인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국내대회를 운영·지원하고 국제대회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개발하였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2007년도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실시하였고 전국 16개의 시·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및 선수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제4회 동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27회 하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경기정보, 경기일정, 경기결과, 선수단 소개 등과 관련한 임시 홈페이지를 구축·보완 하였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조, 야외형 생활체육, E-Book, 장애인 생활체육 따라하기 동영상, 생활체육지도자 안내, 생활체육정보센터, 운동처방, 생활체육종목 안내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26종을 구축하였고, 전문체육의 경기종목으로 보치아, 양궁, 시각장애인 게이트볼, 혼성 수족구 경기 등 75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국제대회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PC정기총회 총회소개, 회의안내,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국·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KPC 영문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17개 가맹단체 홈페이지 신규 및 웹기반을 구축하였다. 2008년도에는 베이징올림픽대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회소식, 대회동영상등을 서비스하였고 전국체전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전서버를 도입하였다. UCC사이버 전시관, 생활체육정보센터의 커뮤니티 공간등 사용자들을 위한 공간을 구축하였다. 전국의 장애인체육관련 국제인력을 위한 DB를 구축

(표 10-15)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정보 및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저 장 형 태	구 축 량
생 활 체 육 프 로 그 램	생활체조, 야외형 생활체육, E-Book, 장애인생활체육 따라하기 동영상, 생활체육지도자 안내, 생활체육정보센터운동처방, 생활체육종목안내	이미지, 동영상, Text, PDF, e-book	23종
생 활 체 육 동 호 회	시·도(시·군·구)에서 활동중인 동호회 정보	이미지, Text	1052건
전문체육디지털콘텐츠구축	보치아, 휠체어테니스, 론볼, 수상스키, 스키, 좌식배구, 스킨스쿠바, 배드민턴, 아이스슬레지하기, 휠체어댄스스포츠, 휠체어농구, 골볼, 럭비, 사격, 양궁, 탁구, 체어펜싱, 호핑축구, 시각장애인 게이트볼, 혼성 수족구 경기, 요가, 웨이트 트레이닝, 생활체조	이미지, 동영상, Text, e-book	75건

구 분	주 요 내 용	저 장 형 태	구 축 량
국내·외 종합 경기대회	국내·외 경기 설명, 일정, 결과정보	이미지, Text	29건
웹 진 서 비 스	장애인체육, 선수 정보, 장애인체육소식	이미지, Text	32건
체 육 단 체 정 보	시도지부, 가맹단체, 국제기구 정보	이미지, Text	71건
동 영 상 서 비 스	생활체육 동영상 교실 및 기타 생활체육관련 동영상	이미지, 동영상, Text	75건

제3절 과제 및 발전방안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콘텐츠 사업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의 이용과 활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여가활동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체육콘텐츠에 대한 욕구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체육정보망은 체육관련기관의 연계와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과 체육단체의 전문적인 디지털 정보화와 고품질화를 지향하며, 체육에 대한 다양한 국민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국민과 공급자가 함께 성장하는 쌍방향 체육정보체계로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2007년은 참여정부(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로, 체육정보화 기반구축과 체육정보망의 포털사이트 확장을 통한 체육관련기관의 정보체계 유통과 대 국민 서비스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정보의 표준화,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양질의 정보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보화추진기본 계획에 따라 체육정보망의 포털시스템을 통한 스포츠산업 정보화, 체육관련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정보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전문 체육과학 문헌정보 개발, 체육정보 콘텐츠 개발, 스포츠산업 및 인증 정보 확장, 체육관련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정보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1. 포털사이트 재구축 및 실용적 콘텐츠 구축

'99년 체육정보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한지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개별 사이트 보완을 통해 체육정보의 확대·보급을 시도하였으나, 체육정보의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미비와 체육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부족으로 체육정보망 콘텐츠 일반화 및 체육정보망 거점기관으로써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반면 체육정보 수요는 확대되어 가고 있어 체육정보망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체육정보망의 재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비전 및 목표 설정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도별 실행 계획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 현황 분석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콘텐츠에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서비스 할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 구축전략 수립과 다양한 체육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한 검색기능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체육정보 포털사이트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체육정보망에서 서비스 될 실용적 콘텐츠 구축도 시급하다. 정보화 사업을 통해 많은 체육문헌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였으나, 체계적인 체육전문 학술자료나 유관기관 및 체육학회 저작권 정보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산재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육관련 전문 전자 도서관 구축이 시급하며, 이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국가정보사회를 위한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전문성 있는 체육정보의 체계화를 위한 체육관련기관의 학술정보 공유 및 확장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콘텐츠 확대·개발이 필요하며, 체육학회, 각 대학 및 대학학술종합정보망 등의 시스템 공유 및 자료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생활 도처에는 체육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체육단체 및 스포츠클럽 등 수 많은 체육자원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육자원의 종류별, 주체별, 지역 수준별 조사 및 전산화를 통해 체육활동 수요자의 참여를 고조시켜야 한다.

끝으로, 사용자의 이용도를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기 구축된 체육정보 DB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체육정보 콘텐츠의 재가공 및 유통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체육정보화 기반 확대

'97년부터 기본망 및 초고속 기간망 연결 등 연차적으로 체육정보화 기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급격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인 초고속통신 환경은 미흡한 실정이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고속·고품질의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화 기반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체육정보망의 지식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별 보안체계 및 정보망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개발 및 공유를 통한 연계·연동시스템의 확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체육산업체 및 체육단체, 체육학회, 분과학회간의 연계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전문체육정보망은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생활체육정보망 역시 전국 시·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전산망 구축을 통한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과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

3. 체육정보의 표준화

우리나라 정보화 분야의 표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관련 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체육정보관련 표준은 1997년 1차 기초연구 자료의 정규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체육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표준 연구단을 구성하여 규정화된 정보표현 방법과 체육용어의 개념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체육정보관련 표준화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인문사회과학 6개 분야(약 8,000 단어)의 체육용어사전을 개발하였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지속적인 추가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전산시스템 구성 및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개발에 관한 지침서를 편찬하여 보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체육정보의 표준안 제정과 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스포츠산업 정보 확장 및 개발

국내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용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국제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쟁여건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의 경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차원에서 장·단기의 체계적인 스포츠산업정보망의 포털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3년 12월부터 체육정보망의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 인증 정보망의 확장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정보망 확장과 개발은 스포츠용품 관련 정보, 인증에 대한 정보, 주요 인증제도 등 인증 사업과 관련된 지식정보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스포츠용품 전문 인증을 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산업 시스템의 포털 사이트 구축을 통해 자료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기하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스포츠산업정보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정보망은 국제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국·내외 표준·인증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산업 및 인증 정보의 주요 콘텐츠는 체육용기구 관련 표준과 인증제도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 스포츠산업의 금융지원 및 구매, 광고 등에 관한 정보, 스포츠산업체간의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종목별 국내·외 경기연맹과의 제휴에 관한 정보, 체육용기구 인증에 따른 제품의 시험·검사 및 규정에 관한 정보, 체육용기구 인증규격 개발에 관한 정보, 국내외 표준 정보 및 스포츠용품 R&D 관련 정보와 자료 등의 지식정보도 구축되어야 한다.

5. 체육정보화 5개년계획에 의한 정보경쟁력 강화

제1, 2, 3차(참여정부) 문화정보화추진 5개년계획 및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체육정보화도 괄

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체육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 전자 행정의 서비스 그리고 전문성 있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정보화 실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체육 관련 기관의 전산기반 확충과 기관별 전문성 있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 그리고 전문 인력의 보강이다. 체육관련 기관의 전산기반과 환경은 정보·전산의 환경과 통신기술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기관별 전산시스템의 운영과 지식정보 자원 관리에 필요한 전산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체육 전문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하지만 지식정보 자원관리에 대한 투자(인력, 시스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타 사이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제4차 문화정보화추진5개년계획 수립시에는 제1차~3차 추진계획에 미진한 면을 보완하고, 체육 정보화 확대 보급을 위한 연차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체육정보화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제10장 체육정보화

11

제11장 국제체육

- 제1절 국제체육계 동향
- 제2절 우리나라의 스포츠외교
- 제3절 국제교류 현황

제1절 국제체육계 동향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영역 중의 하나인 국제체육 활동은 문화·정치·경제 및 외교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 체육계는 세계 여러 문화의 변화 속에 발맞추어 인본주의와 환경보전의 추세로 도핑방지과 환경 친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체제에 부합되는 상업화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체육의 중요성과 시대적 조류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는 체육외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사업으로 국가간·NOC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 국제체육기구 임원으로의 진출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도 국제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파견과 국내유치개최, 국제회의 참석 등 많은 국제체육활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1. 국제체육기구 현황

국제체육기구는 전 세계국가가 참가하는 종합대회를 관장하는 기구와 대륙별 종합대회를 관장하는 기구, 그리고 종목별 세계대회 및 대륙별 대회 등을 관장하는 기구로 구분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동아시아대회협의회(EAGA) 등은 종합대회를 관장하는 국제적·대륙별·지역별 기구이며, 종목별 국제연맹(ISF)과 아시아경기연맹(ASF)이 해당 종목의 세계대회와 아시아대회를 관장하고 있는 기구이다.

국제체육기구 가운데 대표적 기관인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는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회원으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주관 조정·감독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체육단체로(표 11-1, 표 11-2), 현재 가맹국 205개국가중 IOC 위원은 107명이며 이외에 23명의 명예위원과 1명의 영예위원 및 1명의 평생명예회장이 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문대성 선수가 IOC위원으로 선출되어 2명의 위원이 있다.

(표 11-1) IOC 위원 국가별 배출 인원수 현황

(2009. 4월 현재)

인원수(국가수)	국 가	주요 대륙
5명(2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유럽
3명(4개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2명(16개국)	한국, 중국, 일본, 핀란드, 헝가리, 독일, 모로코, 프랑스, 미국, 브라질, 멕시코, 세네갈, 이집트,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1명(61개국)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벨기에, 대만, 덴마크, 북한, 인도 외	
0명(122개국)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외	제3세계 국가

* 출처 : IOC홈페이지(www.olympic.org)

(표 11-2) IOC 위원 대륙별 배출 인원수 현황

(2009. 4월 현재)

대 륙	인 원	구 성 비 율 (%)	
아 시 아	22	20.6	20.6
오 세 아 니 아	4	3.7	63.5
유 럽	47	43.9	
미 주	17	15.9	
아 프 리 카	17	15.9	15.9
합 계	107	100.0	

* 출처 : IOC홈페이지(www.olympic.org)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구성하고, 종목별 권위 있는 세계대회를 주관하는 국제경기연맹의 회장국가를 살펴보면 (표 11-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스위스가 6개 종목, 캐나다와 스위스가 각각 4개 종목, 이탈리아가 3개 종목, 대한민국, 미국, 스페인, 독일이 각각 2개 종목을 회장국을 맡고 있으며(표 11-3, 표 11-4), 특히 전체 국제 35개 종목별 연맹(협회)중 유럽국가가 18개로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5개로 14.3%를 점유하고 있다.

제11장 국제체육

(표 11-3)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의 회장국적

(2009. 4. 현재)

구분	종목	회장명	회장국적	국제경기연맹/홈페이지
하계 (28종목)	육상	Lamine Diack	세네갈 (SE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www.iaaf.org
	배드민턴	Young Joong Kang	대한민국 (KOR)	Badminton World Federation www.linternationalbadminton.org.
	야구	Harvey W Schiller	미국 (USA)	International Baseball Federation www.baseball.ch
	농구	Bob Elphinston	호주 (AUS)	International Basketball Federation www.fiba.com
	복싱	Ching Kuo Wu	대만 (TPE)	International Boxing Association www.aiba.net
	카누	Jose Perunera	스페인 (ESP)	International Canoe Federation www.canoeicf.com
	사이클	Pat Mcguaid	아일랜드 (IRC)	International Cycling Union www.uci.ch
	펜싱	Alisher Usmanov	프랑스 (FR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grime www.fie.ch
	승마	HRH Princess Haya Bint Al Hussein	요르단 (JOR)	Federation Equestre Internationale www.horsesport.org
	축구	Joseph S. Blatter	스위스 (SUI)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www.fifa.com
	체조	Bruno Grandi	이탈리아 (ITA)	International Gymnastics Federation www.fig-gymnastics.com
	역도	Tamas Ajan	헝가리 (HUN)	International Weightlifting Federation www.iwf.net
	핸드볼	Hassan Moustafa	이집트 (EGY)	International Handball Federation www.ihf.info
	하키	Leandro Negre	스페인 (ESP)	International Hockey Federation www.fihockey.org
	유도	Marius VIZER	오스트리아 (AUT)	International Judo Federation www.ijf.org
	근대5종	Klaus Schormann	독일 (GER)	Union Internationale de Pentathlon Moderne www.pentathlon.org
레슬링	Raphaël Martinetti	스위스 (SUI)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sociated Wrestling Styles www.fila-wrestling.org	

구분	종목	회장명	회장국적	국제경기연맹/홈페이지
하계 (28종목)	수영	Mustapha Larfaoui	알제리 (ALG)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www.fina.org
	소프트볼	Don E Porter	미국 (USA)	International Softball Federation www.internationalsoftball.com
	태권도	Chung WonChoue	대한민국 (KOR)	World Taekwondo Federation www.wtf.org
	테니스	Francesco Ricci Bitti	이태리 (ITA)	International Tennis Federation www.itftennis.com
	탁구	Adham Sharara	캐나다 (CAN)	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www.ittf.com
	사격	Olegario Vazquez Rana	멕시코 (MEX)	International Shooting Sport Federation www.issf-shooting.org
	양궁	Ugur Erdener	스위스 (SUI)	International Archery Federation www.archery.org
	트라이애슬론	Marisol Casado	스페인 (ESP)	International Triathlon Union www.triathlon.org
	요트	Goran Petersson	스웨덴 (SWE)	International Sailing Federation www.sailing.org
	배구	Jizhong Wei	중국 (CHN)	International Volleyball Federation www.fivb.ch
동계 (7종목)	바이애슬론	Anders Besseberg	노르웨이 (NOR)	International Biathlon Union www.biathlonworld.com
	봅슬레이	Robert H. Storey	캐나다 (CAN)	International Bobsleigh and Tobogganing Federation www.bobsleigh.com
	컬링	Lester M. Harrison	캐나다 (CAN)	World Curling Federation www.worldcurling.org
	아이스하키	Rene Fasel	스위스 (SUI)	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 www.iihf.com
	루지	Josef Fendt	독일 (GER)	International Luge Federation www.fil-luge.org
	빙상	Ottavio Cinqunta	이태리 (ITA)	International Skating Union www.isu.org
	스키	Gian Franco Kasper	스위스 (SUI)	International Ski Federation www.fis-ski.com

제11장 국제체육

(표 11-4) 올림픽 정식종목 국제경기연맹 회장의 대륙별·국가별 분포

(2008. 4. 현재)

대륙	국가	국가별 회장 수	대륙별 회장 수	대륙별 구성비율(%)
아시아	대한민국	2	5	14.3
	대만	1		
	요르단	1		
	중국	1		
아프리카	세네갈	1	3	8.6
	알제리	1		
	이집트	1		
유럽	스위스	6	19	54.3
	이태리	3		
	독일	2		
	스페인	2		
	프랑스	1		
	아일랜드	1		
	헝가리	1		
	노르웨이	1		
	스웨덴	1		
	오스트리아	1		
북미	캐나다	4	6	17.1
	미국	2		
중남미	멕시코	1	1	2.8
오세아니아	호주	1	1	2.8
합계		35	35	100.0

* 출처 : www.olymp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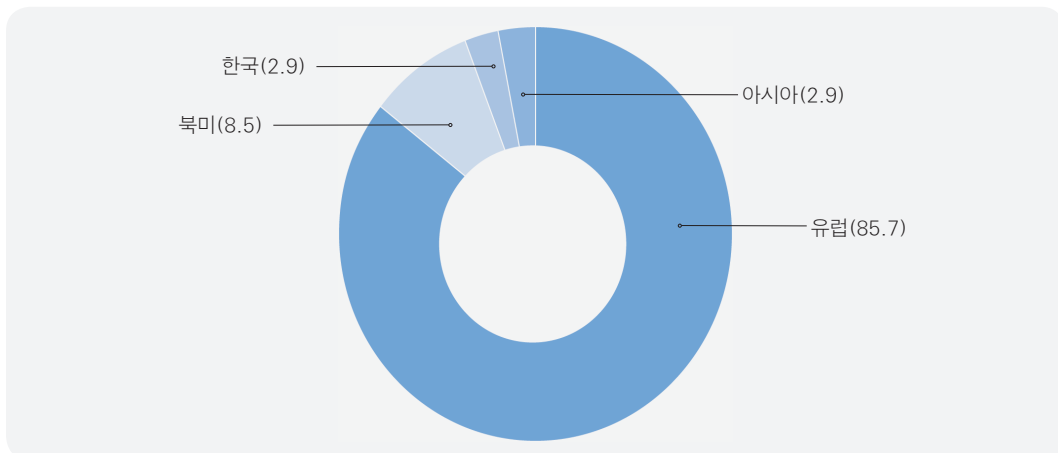
이들 국제경기연맹의 본부 소재지는 태권도(한국 소재), 소프트볼(미국 소재), 트라이애슬론(캐나다 소재), 배드민턴(말레이시아)을 제외한 31개 올림픽 정식 종목의 본부가 유럽에 있다(표 11-5). 한국이 회장국으로 있는 태권도는 본부가 서울에 있으며 배드민턴은 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소프트볼), 캐나다(트라이애슬론)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29개 종목의 본부가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제스포츠계의 중심은 근대 스포츠의 근원지인 유럽에 있으며, 특히 국제경기연맹 본부 소재지는 이동이 매우 어렵다는 점

에서 유럽 중심의 국제스포츠 역학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표 11-5)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 본부 소재지

국 가	본부 수	종목
스위스	20	조정, 야구,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펜싱, 승마, 축구, 체조, 배구, 핸드볼, 하키, 레슬링, 수영, 탁구, 양궁, 아이스하키, 빙상, 스키
영국	3	테니스, 요트, 컬링
대한민국	1	태권도
헝가리	2	역도, 유도
모나코	2	육상, 근대5종
미국	1	소프트볼
독일	2	루지, 사격
오스트리아	1	바이애슬론
캐나다	1	트라이애슬론
말레이시아	1	배드민턴
이탈리아	1	봅슬레이
합계 (11개국)	35	35종목

출처 : 각 종목 국제경기연맹 홈페이지(2008)



<그림 11-1> 올림픽 정식종목 국제경기연맹 본부의 대륙별 소재지 비율(%)

제11장 국제체육

또한, 국가 위상 및 이미지 제공에 크게 작용하는 국제체육기구 및 국제경기연맹기구의 위원회에
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위원 수를 연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6) 국제기구 각종 위원회 활동의 연도별 인원수

국제기구명		연도별 위원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 체육 기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11	10	10	9	6	6	4	7
	ANOC(국제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	-	-	-	1	1	1	1
	GAISF(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1	1	1	-	-	-	-	-
	AIPS(국제체육기자연맹)	1	1	1	1	1	1	1	1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4	4	5	5	5	6	7	6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6	6	6	7	6	6	4	6
	EAGA(동아시아대회협의회)	6	2	2	3	4	3	3	4
	GAASF(아시아경기연맹총연합회)	1	1	1	-	-	-	-	-
	ASPU(아시아체육기자연맹)	1	1	1	1	3	3	3	3
	IANOS(국제체육단체총연합회)	1	1	1	1	1	1	1	1
	APOSA(아시아-오세아니아연합회)	-	-	-	-	1	1	1	1
	TAFISA(세계사회체육연맹)	-	-	-	-	1	1	4	4
	ASFAA(아시아오세아니아체육연맹)	2	2	2	2	2	2	2	1
	소 계	34	29	30	29	31	31	31	35
경기 연맹	국제(IFF)	65	63	68	79	79	86	90	91
	아시아(ASF)	127	122	119	140	142	146	151	176
	소 계	192	185	187	219	221	232	241	267
계	227	214	218	249	253	263	272	302	

2. 스포츠에서의 도핑방지 강화

스포츠 분야에서 “도핑”은 선수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앓아가는 위협성을 지니고 있으며, 스포츠 페어플레이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고, 약물의 습관성 및 마약 사용으로의 진전,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등 사회적으로 해가 된다는 관점에서 도핑방지 활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금지약물 사용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스포츠가 줄 수 있는 혜택의 거의 모든 부분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유럽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도핑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유럽은 1990년에 이미 국내 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도핑방지협정(Anti-Doping Convention: ADC)을 가동시켜왔으며, 국제도핑방지협정(International Anti-Doping Arrangement : IADA) 등 반도핑 관련 여러 기구들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유럽 지역의 이런 활동들에 기초하여, 그리고 올림픽대회 등 국제 경기에서처럼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국제적 도핑방지 활동의 필요성에서, 또 경기 외 검사(Out Of Competition Test: OOC)나 적혈구생성촉진인자(erythropoietin : EPO)검사, 유전자 조작 등을 포함하여 점점 복잡해지는 반도핑 활동에 세계 각국 정부의 힘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함으로써, 1999년 IOC와 세계 각국 정부가 함께하는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를 주도하여 결성하게 되었다. WADA는 국제스포츠기구에 적용되는 세계반도핑규약(World Anti-Doping Code: WADC)을 제정하여,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 세계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대부분의 종목별 국제연맹(IF)의 서명을 받았고 이행 의무를 약속받았다. 그리고 UNESCO에서는 스포츠도핑방지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을 추진하여 2005년 제33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총 41개국이 비준하여 2007. 2. 1 공식발효하게 되었으며 2008년 5월 11일 이를 재확인하였다.

1) 세계반도핑기구(WADA)

WADA는 스포츠에서 금지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의 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WADA는 스포츠 관련 기구와 각국 정부의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선수들에게 도핑의 해악을 교육하고, 자기 자신과 스포츠를 속인 선수들을 제재하는 데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WADA는 로잔 선언문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이며 비정부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두었다. WADA가 수행하는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엘리트 선수에 대한 경기기한 도핑 검사 실시
- 세계 반도핑 규약 개발 및 이행
- 새로운 적발 방법에 관한 학문적 연구 지원
- 주요 대회의 도핑 통제와 결과 관리 프로그램 감시
- 선수와 코치 그리고 관련 관리자들에게 도핑방지 교육 제공
- 국가도핑방지기구의 설립 촉진

제11장 국제체육

WADA는 이사회(Foundation Board)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그리고 몇 개의 실무위원회(Working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7) WADA Foundation Board 구성

구 분		인 원	합 계	비 고
회장단	의장	1	2	Hon John FAHEY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자유당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준비위원회 위원장 역임, 호주)
	부의장	1		Arne LJUNGQVIST (IOC 의학위원회 위원장 ,스웨덴)
올림픽운동 Olympic Movement	IOC 대표	4	18	15명이 IOC 위원
	ANOC 대표	4		
	ASOIF 대표	3		
	GAISF 대표	1		
	AIOWF 대표	1		
	IOC 선수분과위 대표	4		
	국제장애자올림픽위원회 (IPC) 대표	1		
정부대표 Public Authorities	유럽연합	3	18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요르단
	유럽회의	2		
	아프리카	3		
	미주	4		
	미주	4		
	아시아	4		
	오세아니아	2		
			38	

WADA(2008). www.wada-ama.org

3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WADA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사회는 올림픽운동(Olympic Movement) 측과 세계 각국 정부 측 대표가 동수로 구성하며, 12인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도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까지 우리나라는 WADA의 각국 정부 측을 대표하는 17개 이사국 중 하나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와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현재 WADA는 17개 이사국이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WADA의 실무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며 WADA의 주요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2008년 현재 활동 중인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 윤리위원회(Ethical Issues Review Panel)
- 재정 및 행정위원회(Finance & Administration Committee)
- 건강, 의료 및 연구위원회(Health, Medical & Research Committee)
- 선수위원회(Athlete Committee)

WADA는 IOC로부터 처음 2년간의 운영 자금(US\$ 18,300,000)을 지원받았다. 2002년부터 WADA의 운영 자금은 IOC가 중심이 된 올림픽운동 관련기관 측과 세계 각국 정부 측으로부터 각각 동일 액수만큼 지원받고 있다. WADA의 2007년 예산은 23,026,000 US\$이었으며, 이를 Olympic Movement측과 각국 정부 측이 각각 50%씩 부담했다. 세계 각국 정부 측에 청구된 액수는 11,513,417 US\$이고, 우리나라는 2007년 WADA 예산의 약 0.5%에 해당하는 115,150 US\$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15,000 US\$를 분담하였다.

2) 세계반도핑규약(WADC)

WADA는 도핑에 관련하여 모든 스포츠기구를 동일한 질서 아래 규율하기 위해 세계반도핑규약을 제정하였다.

2003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반도핑 세계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에서 WADA 이사회가 WADC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이후 승인 및 서명이 추진되어 2008년 현재 205개 NOC와 FIFA를 제외한 모든 국제경기연맹이 이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표 11-8) WADA 금지약물 목록

분 류	성 분 · 물 질	비 고
각성제 (stimulants)	amineptinem anogetanubesm bromantan, caffeine*, cocaine, ephedrines*, mesocarb 등	* 기준 최소 허용량을 설정
마약류 (narcotics)	buprenorphine, heroin, methadone, morphine*, pentazocine, pethidine 등	

분 류	성 분 · 물 질	비 고
대사제 (anabolic agents)	androstenediol, clostebol, fenoterol, metenolone, salbutamol*, testosterone 등	* 기준 최소 허용량을 설정
이뇨제 (diuretics)	acetazolamide, bumetanide, furosemide, mersalyl, triamterene 등	
호르몬제 (hormones)	chorione gonadotrophin, cogrowth hormone, erythropoietin, insulin 등	

* 출처 : WADA(2008). <http://www.wada-ama.org/en/prohibitedlist.ch2>

WADC는 세 가지 수준(levels)으로 이루어져 있다. WADC 본문과 네 가지의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그리고 최상의 실행 모형(Models of Best Practices)이며 이 중 WADC 본문과 국제표준은 의무적인 규정들이며 최상의 실행 모형은 권장하는 수준이 된다. 네 가지 국제표준은 각각, 검사에 관한 국제표준, 실험실 승인에 관한 국제표준, 금지목록에 관한 국제표준, 치료적 예외적 허용(TUE: Therapeutic Use Exemption)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3) UNESCO 스포츠도핑방지 국제협약

WADA는 스위스 지방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국제 민간기구로 각국 정부를 직접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1990년대 유럽지역 내에서 반도핑의 국제협정(ADC)을 맺어 그의 법적 구속을 받아온 유럽 국가들은, WADC의 국제협약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UNESCO의 세계 체육/스포츠담당 장관 및 고위공직자회의인 MINEPS나, CIGEPS를 이용해 세계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3년 3월 세계 100여 국이 모인 파리 UNESCO 체육/스포츠담당장관 원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WADC의 국제협약화에 대한 UNESCO의 지원을 주장했고, 이 안건을 UNESCO 총회에 상정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UNESCO 총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참가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스포츠도핑에 관해 국내외적 법적 구속력을 갖는 UNESCO 반도핑 국제협약의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004년에는 UNESCO 반도핑 국제협약의 초안 작성 회의들이 진행되었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2004년 12월에 아테네에서 열린 MINEPS IV에서 정치적 타결을 보아 정리되었다. 2005년 1월 협약최종안이 완성되어 각국이 회람과정에 들어갔으며 2005년 10월 제33차 UNES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05년 11월 UNESCO 반도핑 국제협약은 각국 정부의 비준과정에 들어갔

으며 국제 협약은 30번째 비준 완료국의 서류가 UNESCO 사무국에 기탁된 후 30일이 지난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4) 국내 반도핑 활동

2004년 1월 1일부터, 도핑검사소 국제 공인의 권한이 IOC MC(의무위원회)에서 WADA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 공인 도핑검사소(WADA Accredited Lab)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이며, 2004년 4월 WADA로부터 스테로이드 검사에 대해 6개월간 효력 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기보강을 통해 기자재 및 검사 건수가 증가하였고, KIST의 자체인력 보강을 통해 2004년 11월 다시 전체 공인(full-accreditation)을 획득하였다.

2004년 국내용의 반도핑 교육자료(DVD)가 제작되어 전국에 걸쳐 교육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6년 1,851의 경기기간 중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경륜과 경정선수에 대한 도핑검사도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도핑컨트롤센터에서 년도별로 검사건수 횡수와 년도별 양성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1-9, 표 11-10).

(표 11-9) 도핑컨트롤센터 연도별 시료 현황

(2008. 12월)

분 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4분기	65	63	83	113	104	148	241	160	536
2/4분기	259	264	257	70	510	672	700	355	475
3/4분기	364	102	442	734	376	721	1,181	1,541	1335
4/4분기	63	170	1,006	617	698	957	1,457	777	601
총계(시료)	751	599	1,787	1,534	1,688	2,498	3,579	2833	2947

*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2008)

또한, 2006년 11월 13일에는 도핑검사 및 결과 관리를 전담하는 국내 최초의 국가도핑방지위원회인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2006년 11월 13일: 민법 제 32조)되었으며, 2006년 12월 22일에는 국가의 도핑방지 의무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6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제 35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한국반도핑위원회인 KADA의 활동 내용은 ①도핑방지 교육, 홍보 정보수집 및 연구 ② 도핑검사 계획수립 및 집행 ③ 도핑검사결과 관리 및 제재 ④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⑤ 치료목적사용면책(TUE) 허용기준 수립 및 시행 등이 있다.

(표 11-10) 도핑방지컨트롤센터 연도별 양성건수

(2008. 12월)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양성건수	20	10	47	5	29	12
경기/비경기	10/10	5/5	43/4	5	26/3	5/2
종 목 별	- 보디빌딩 15 - 레슬링 3(몽고) - 사이클, 유도 각 1	- 보디빌딩 4 - 복싱 3 - 사이클, 빙상, 육상 1	- 보디빌딩 33 - 사이클,육상 2 - 역도 3 - 근대오종, 레슬링, 모터보트, 야구, 양궁, 태권도, 펜싱, 핀수영 각 1	- 빙상 1 - 역도 1 - 사이클 1 - 보디빌딩 2	- 바디빌딩 13 - 스케이팅 1 - 역도 4 - 스키 1 - 야구 2 - 레슬링 1 - 사이클 3 - 육상 1 - 수상경기 1 - 유도 1 - 배구 1	- 바디빌딩 8 - 스키(알파인) 2 - 장애인역도 1 - 역도 1
약 물 별	스테로이드 17 흥분제 1, 이노제 각 2	스테로이드 5 베타길항제 1 항에스트론제 1 이노제 1 흥분제 1	스테로이드 35 항에스트론제 2 흥분제 3 이노제 6 베타차단제 1	이노제 1 흥분제 1 베타길항제 1 근육강화제 2	근육강화제 31 베타길항제 2 이노제 2 흥분제 4 부신피질 호르몬 2	S1드로스타노론 5 S6 캐틴 1 시료채취거부 1 테스테스테론 3 메탄디에논 1 클로르치이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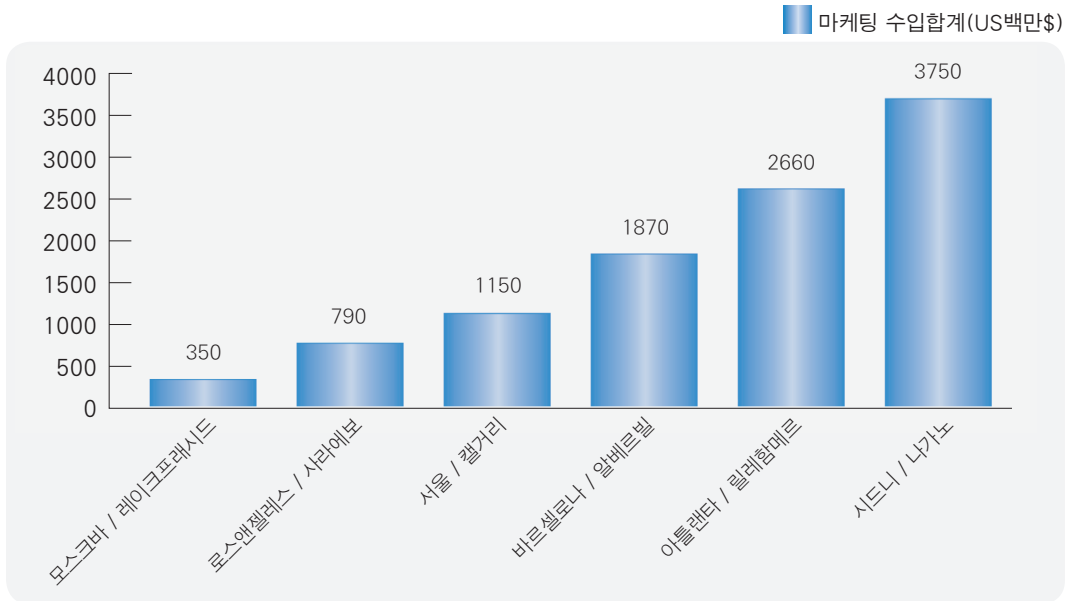
*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2008)

3. 스포츠의 상업화

스포츠이벤트가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 되면서 스포츠경기의 상업화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어가고 있다. 특히 TV중계권료 상승과 기업으로부터의 스폰서십 증가는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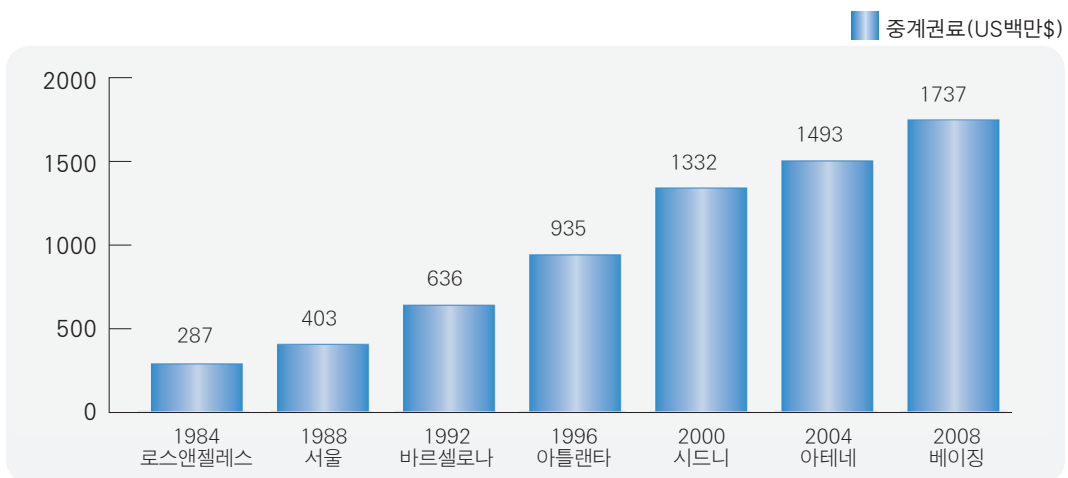
스포츠 상업화의 대표적 사례인 올림픽의 경우 TV중계권료, 후원금, 라이선스비 등의 마케팅 수입이 1980년 동·하계올림픽 당시 3.5억 US\$에서 1998년과 2000년 동·하계올림픽에서는 37.5억 US\$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11-2). 마케팅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TV중계권료는 올림픽의 상업적 가치가 크게 부각된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비해 20년이 지난 2004년 아테

네올림픽은 5.2배나 증가하게 되었다<그림 11-3>.



* 출처 :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

<그림 11-2> 동·하계올림픽대회 합산 마케팅수입



* 출처 :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

<그림 11-3> 하계올림픽대회 TV중계권료

제11장 국제체육

또한 IOC가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 후원하는 기업의 후원금도 제5기(2001~2004)에는 제1기보다 6.8배가 증가하여 기업 스폰서십을 통한 스포츠의 상업화가 크게 전개되고 있다(표 11-11).

(표 11-11) 올림픽 공식후원업체의 기별 후원금액

구 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올림픽게임	1988 캘거리	1992 알베르빌	1994 릴레함메르	1998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2006 토리노
	1988 서울	1992 바르셀로나	1996 아틀란타	2000 시드니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
업체수	9	12	10	11	11	12 (토리노 11)
후원금 (US백만\$)	96	172	275	550	650	866

* 출처 : IOC홈페이지(www.olympic.org)

제2절 우리나라의 스포츠외교

1. 스포츠외교 정책과 조직

1) 스포츠외교정책

우리나라의 스포츠외교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1998~2002)과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에 이어 문화비전(2008~2012)의 주요 과제로 세계속의 스포츠 한국 실현을 위해 스포츠외교 전문요원 양성과 국가간·국제체육기구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스포츠외교 역량 강화, 그리고 국제경기의 효율적 추진과 파견 활성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긍정적 파급효과와 국가 이미지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통한 중주국으로서의 역량 확대를 시도하고 생활체육 국제교류의 확대를 통해 민간교류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며 선진스포츠 도핑 방지시스템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표 11-12, 표11-13).

(표 11-12)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의 체육외교 정책

주요 정책	내 용	세 부 내 용
체육외교 역량강화 및 협력 내실화	체육외교 기반 강화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국제체육기구 임원진출 및 인적교류 확대
		주요 국제회의 유치 및 능동적 참여
	국가·지역 간 체육협력 강화	국가간 체육교류·협력 내실화
		제3세계국가 체육발전 지원
		동북아시아 체육협력 강화
	생활체육 국제교류 증대	생활체육 국제회의의 참가 및 민간교류 협력 증대
	태권도를 통한 국가 이미지 선양	태권도 공원 조성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한 지도자 파견
		해외 태권도 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초청연수
		태권도 시범단 파견 및 옴폼 지원

제11장 국제체육

주요 정책	내 용	세 부 내 용
국제경기 대회의 효율적 추진	주요 국제경기대회 적극 유치	2014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및 각종 국제대회의 합리적 유치
	국제대회 파견 활성화	국제 스포츠 · 관광행사 활성화
스포츠반도핑 활동 활성화	국제교류 · 협력 활성화	국제대회 파견 활성화
		세계반도핑기구 등과의 교류 활성화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3).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표 11-13) 문화비전(2008~2012)

주요 정책	중점과제	세 부 내 용
세계속의 스포츠 한국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 지속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활동 강화	대륙별 맞춤형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 실시
	태권도의 세계화	태권도 공원 조성
		대한민국 태권도 시범단 창단
		태권도 옴퐁 지원, 사범 파견 등 태권도 한류 확산
선진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	선진도핑검사 및 관리시스템 확립	
	반도핑 교육 및 홍보 확대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8). 문화비전

2) 조직과 인력

우리나라의 스포츠외교 담당 조직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가 주무부서로서 국제체육교류, 즉 각종 국제경기대회 유치 · 개최 · 참가에 관한 사항과 국제체육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스포츠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국가 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체육교류사업의 추진,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1982년 체육부 설립 당시 2개과(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에서 스포츠외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것에 비하면 매우 위축된 것이다.

2009년 4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의 주요 업무는 (표 11-14)과 같다.

(표 11-1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요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정책개발 및 정보화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스포츠외교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정책수립 및 그 시행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교류 및 협정추진	국제 체육교류 협정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국제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법인 감독에 관한 사항
	대한올림픽위원회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체육교류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 등 전통스포츠의 세계보급에 관한 사항
	태권도 단체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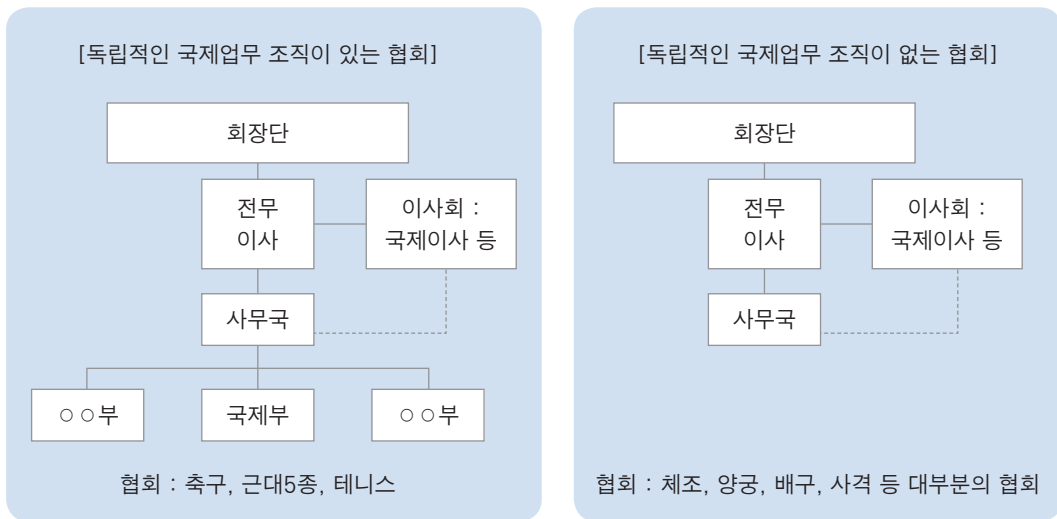
민간부문에서는 체육단체(KOC, 대한체육회, 각 경기단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임시조직으로서 주요 국제대회 조직위원회가 있다. KOC의 주요 업무는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과 국제경기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생활체육팀에서도 국제생활체육 교류 관련 업무(APOSA, IANOSA, TAFISA 등)를 일부 수행하고 있다(표 11-15).

(표 11-15)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과 국제경기팀의 주요업무

국 제 교 류 팀	국 제 경 기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업무 • 남북체육교류 관련 업무 • 경기단체교류 지원(대회, 회의) • NOC간 스포츠교류협정 업무 • 중·러동포 초청 사업 • TSE 관련 업무(T/F) • IOC/ANOC/GAISF 관련 업무 • 후진국 체육지원 업무 • 태권도 국제활동지원 업무 • OCA 및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지원 업무 •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 업무 • 국제스포츠정보 관리 업무 • KOC홈페이지 관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CA 대회 관련 및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업무 • 실내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업무 • 올림픽대회 코리아하우스 운영 업무 • IOC 대회 관련 및 동·하계올림픽대회 관련 업무 • KOC 관련제반 업무(각종위원회 포함) • IOA 및 KOA 관련 업무 • FISU 및 동·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업무 • KUSB 관련 업무 • 청소년캠프관련 업무(올림픽 및 아시아게임) • EAGA 관련 업무 • 국제체육유공자 포상 업무 • 기타 국제스포츠기구 종합대회 관련 업무(월드게임, 아셈유스게임 등) • 솔리다리티 관련 업무 • 올림픽문화예술행사(Olympic Day Run 등)

각 경기단체에서는 이사회에서 국제체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사무국 내에서 외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와 국제이사의 책임하에 사무국에서 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형태가 있다(그림 11-4). 특히 후자의 경우 원활하고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체육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사업협력부 국제협력팀에서 생활체육 국제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국제기구부 및 국제협력부에서 KOC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많은 국제경기 업무와 다양한 스포츠국제기구 관련 업무 등 스포츠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대회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사무총장 그리고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스포츠외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각 경기단체의 경우 대부분 스포츠외교 담당 상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림 11-4〉 경기단체(협회) 국제업무 기구 (음영 부분)

2. 체육교류협정 체결

국가간 스포츠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로서 국가간 또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간의 체육교류협정 체결이 있다. 1979년 이후 2006년 12월까지 29개 국가와 정부간, 그리고 50개국과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체육교류협정이 체결되어 국가간의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표 11-15).

특히 88서울올림픽 이후 25개국 정부와 32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와 협정체결을 이루어 올림픽 개최 이후 높아진 우리나라의 스포츠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 간 체육교류협정을 맺은 29개국 및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맺은 50개국 가운데 각각 24개국, 36개국이 서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소위 'AAA' (Asia, Africa, Central & South America)국가와 동구권 국가로서, 외교의 다변화 전략과 함께 추진되어 외교적 관계가 소원한 국가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11-16) 체육교류협정 체결 현황

구 분	정 부 간	국 가 올 림 픽 위 원 회 간
1979		대만
1980		바레인
1983	도미니카	미국, 쿠웨이트, 서독, 영국, 스웨덴
1984	이라크	이태리, 일본, 캐나다, 튀니지
1985		코스타리카, 프랑스
1986		탄자니아
1987		페루
1988	카타르, 스페인	베넨
1989	폴란드	
1990	말리,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모로코	멕시코
1991	체코	라오스, 베트남
1992	헝가리, CIS	몽골
1993	태국, 캐나다	카자흐스탄, 중국, 러시아
1994		칠레,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호주, 슬로바키아
1995	중국, 베트남	예멘,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카타르,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카메룬, 레바논
1996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리비아
1997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스왓질랜드, 아이보리코스트
1999	몽골, 이디오피아	시리아, 이집트
2001	알제리	
2002	멕시코	
2004	수단	
2005	이집트	
2006		우크라이나, 과테말라 ※재체결(이탈리아, 멕시코)
2007	이란	스웨덴, 알제리, 싱가포르
2008	쿠웨이트	루마니아, 방글라데시
계	29개국	50개 NOC

* 출처 : 문화관광부(2008)

※ 정부간 NOC간 중복체결국(9) : 캐나다, 카타르, 중국, 베트남, 슬로바키아, 몽골, 멕시코, 이집트, 알제리

※ 호주 : '93.10.28 체결, '05말 만료, 이란 : '88.9.20 체결, '07.8.23 재체결

3.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

1)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에서 입안되어 추진되었다.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공무원, 경기단체 및 KOC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자 등을 대상으로 KOC가 주관하여 근무시간 후 6개월 또는 어학연수기관의 교육이수를 통해 매년 10~100명씩 양성한다는 것이었다(표 11-16). 그러나 근무시간 후 교육에 따른 교육시간의 부족, 집중 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외국어 연수교육의 한계,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단기 어학교육과 소양교육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외교실무, 정치외교관계론, 체육학 관련 분야(스포츠외교론, 스포츠마케팅, 체육행정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3차 5개년계획에서 체육외교에 관한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권위 있고 교육·양성분야에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주관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1~5년의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11-17)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의 체육외교 전문요원 양성 방안

구 분	추천 대상자	인 원	주관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제1차 5개년계획 (1993~1997)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KOC 직원, 경기단체 및 KOC 추천자	년10명	KOC	6개월	외국어교육 소양교육
제2차 5개년계획 (1998~2002)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KOC 위원, 공무원, 대학생	년100명	KOC	어학 연수원 교육기간	외국어교육 소양교육
제3차 5개년 계획 (2003~2007)	우수 체육인(올림픽메달리스트 등)	년 10명	KOC	1~5년	외국어교육 체육외교 관련 분야 교육

2) 스포츠외교인력 강화 방안

스포츠외교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스포츠외교력강화방안」이 수립되었다. 이후 스포츠외교 인력의 전문성과 활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단기별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는 올림픽메달리스트인 전이경 외 2명을 선발하여 2004년부터 미국 세인트마이클대학

및 미국올림픽위원회 등에 파견하여 실무 연수 및 스포츠 관련인사 교류를 통한 스포츠외교의 근간이 되는 외국어능력을 배양하였으며 2004년에는 수영 메달리스트인 최윤희 외 2명을 선발하여 미국 워싱턴대학 등에 파견하였다.

(표 11-18) 스포츠외교인력 강화 방안

구 분	사 업 명	대 상
단기정책	인력 풀 구성	국제체육기구 임원, 전현직 외교관, 대학교수, 기업체 임원 등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심판, 코치, 국가대표급 선수
중·장기 대책	어학연수 프로그램 개설	체육단체 임직원, 메달리스트, 국제심판 등
	인력 고급화를 위한 학위과정 지원	메달리스트 및 국가대표 선수
	외교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국제스포츠기구 파견)	체육단체 임직원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심판, 코치, 국가대표급 선수

2005년에는 스포츠외교인력의 관련분야 적재적소 배치, 국제행사유치단 구성, 국제회의 참석 등 스포츠외교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와 관련하여 초기데이터를 입력, 완료하였다. 또한,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국가대표출신 및 국제심판, 경기단체 국제담당 직원들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외국어 수강(월 평균 135명), 한국외국어대학 어학과정 수강(23명)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김동성 등 8명, 2006년에는 8명, 2007년에는 올림픽메달리스트 김미정(양궁), 김소희(쇼트랙) 등 9명, 2008년에는 라경민(배드민턴) 등 9명을 선발하여, 해외대학 학위과정, 스포츠행정연수 및 어학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표 11-19) 스포츠외교인력 운영실적

년 도	구 분	프 로 그 램 명	실적 및 대상
2003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전이경(미국, 세인트마이클대학) 김성철(그리스, 아테네올림픽조직위) 박명규(미국, 미국올림픽위원회)
2004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박성수(미국, 미국올림픽위원회) 김인수(캐나다, 2010동계올림픽조직위) 최윤희(미국, 워싱턴대학)
2005		스포츠외교인력풀 구성	홈페이지 구축 완료 및 초기데이터 구축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조인철(미국), 홍진영(미국), 이주형(캐나다), 박용수(영국), 김동문(캐나다), 김동성(미국), 정기영(미국), 임석천(캐나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등 540명(월 평균 135명) 한국외대 국가대표출신 및 국제심판, 경기단체 국제담당 직원 등 23명

제11장 국제체육

년도	구분	프로그램명	실적 및 대상
2006	학위과정		홍은아(영국), 조지현(영국)
	어학연수과정		조인철(미국), 조은희(뉴질랜드), 김윤만(미국), 류지혜(미국)
	국제기구파견		김 옹(싱가폴), 박철근(캐나다) 장은경(스위스), 김경옥(미국)
2007	학위과정		김소희(스위스)
	어학연수과정		김광배(미국), 김미정(캐나다) 류혜민(캐나다), 박영숙(미국)
	국제기구파견		황호곤(중국), 백성일(미국) 김선중(벨기에), 여상경(모나코)
2008	학위과정		박성희(영국)
	어학연수과정		김태영(미국), 라경민(캐나다) 옥덕필(뉴질랜드), 한운수(싱가폴)
	국제기구파견		김영찬(미국), 정성훈(뉴질랜드) 정낙규(스위스), 김정은(스위스)

4.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국제체육기구의 주요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스포츠외교 영향력의 확대는 물론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다. 특히 IOC위원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이 되는 것은 IOC에서 한 국가의 스포츠 위상은 물론 정치적·경제적 위상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의 회장단과 집행위원 또는 이사로 진출하는 것은 해당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기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현재 107명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중 2명이 활동하고 있다. 유럽과 미주, 그리고 호주가 IOC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3명 이상이 위원으로 있는 국가는 6개국이다.

(표 11-2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활동하고 있는 위원 현황

직위	성명	피선년도	비고
위원	이건희	1996. 7	올림픽공식후원사 회장
선수위원	문대성	2008. 8.21	임기 8년의 IOC 선수위원

IOC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진출도 중요한 의사결정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4월 현재 25여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4명의 위원이 각 분과에 진출하고 있다(표 11-20).

(표 11-21) IOC 산하 분과위원회(commissions) 위원 진출 현황

(2009. 4월 현재)

분과위원회	진출 여부	성명	국내직위
라디오·TV	미진출		
TV인터넷	미진출		
마케팅	미진출		
문화·올림픽교육	미진출		
보도	미진출		
생활체육	진출	문대성	KOC 상임위원
선수	진출	문대성	KOC 상임위원
법사	미진출		
스포츠와 법	미진출		
올림픽경기조정 (2004, 2006, 2008, 2010)	미진출		
올림픽기념품수집	미진출		
올림픽솔리다리티	미진출		
올림픽 프로그램	미진출		
윤리	미진출		
의무	미진출		
재정	미진출		
올림픽서훈	미진출		
추천	미진출		
국제관계	진출	김상우	전 KOC 총무
보상	미진출		
스포츠와 환경	미진출		
총 25개 분과위원회		총 2명 진출	

* 출처 : IOC. www.olympic.org

제11장 국제체육

한편 올림픽 정식종목 국제경기연맹의 회장단과 사무총장, 또는 집행위원으로의 진출은 2008년 12월 현재 2개 종목 회장, 3개 종목 부회장, 1개 종목 사무총장 그리고 7개 종목 집행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표 11-22).

(표 11-22) 국제경기연맹·임원 진출 현황

(2008. 12월)

직 위	종 목	인원(명)	비 고
회장	태권도, 배드민턴	2	
부회장	축구, 양궁, 근대5종	3	
사무총장	빙상	1	
집행위원	육상, 빙상, 스키, 하키, 근대5종, 사이클, 야구	7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합 계	11개 종목	13	

* 올림픽정식 종목에 한정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아시아경기연맹에서의 집행부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올림픽 정식 종목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현재 11개 종목에서 11명이 회장으로 15개 종목에서 17명이 부회장의 위치에 있어 아시아권에서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표 11-23).

(표 11-23) 아시아경기연맹·회장단 진출 현황

(2007. 12월)

직 위	종 목	인원(명)	비 고
회 장	빙상, 사이클, 레슬링, 야구, 스키, 승마, 태권도, 양궁, 근대5종, 소프트볼, 트라이애슬론	11	
부회장	역도, 복싱, 유도, 체조, 농구, 레슬링, 하키, 사격, 태권도(2), 컬링, 펜싱, 배드민턴, 육상(2), 배구, 조정	17	
합 계	26개 종목	28	

* 올림픽 정식종목 한정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우리나라의 IOC 이외의 국제종합체육기구 진출현황은 다음 (표 11-24)과 같다.

(표 11-24) 기타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임원현황

(2008. 12월)

기 구	직 위	성명	피선연도	국 내 직 위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	집행위원 실무위원·재정위원	김종량	2003	KUSB 위원장
	국제조정위원	유병진	2003	KUSB 부위원장
	국제기술위원	장철희	2003	KUSB 상임위원
	대학스포츠연구위원	홍양자	2003	KUSB 상임위원
	의무위원	권광보	2003	KUSB 상임위원
	대학스포츠개발위원	김종량	2007	KUSB 위원장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ANOC)	스포츠경기장·분과위원	김영환	2002	KUSB 상임위원
세계반도핑기구 (WADA)	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TUEC)위원	김건열	2007	KADA 위원장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스포츠와 환경위원장	유경선	2007	KOC부위원장
	스포츠와 평화	박용성	2007	
	보도위원	박광재	2007	KOC미디어위원
	의무위원	김건열	2003	KOC 의무분과위원장
동아시아대회협의회 (EAGA)	위원	김영환	2006	KOC상임위원
	위원	박양천	2008	KOC 명예총무
	규정기술분과위원	정기영	2008	KOC 국제경기팀장
	의무위원	박희백	2006	
세계체육기자연맹 (AIPS)	특별고문	박갑철	2005	연세체육회 회장 (KOC위원)
아시아체육기자연맹 (ASPU)	회장	박갑철	2006	''
	재무위원	방준식	2006	
	사무총장	홍종서	2006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제3절 국제교류 현황

1. 국제종합경기대회

2008년도 우리나라가 참가한 국제종합경기대회로는 제 29회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제 1회 비치아시아경기대회이다. 특히 2008년 8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의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29회 하계올림픽에서 참가국 204개국 중 금메달 13, 은 10, 동 8개의 메달 획득하여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계속되는 10위권 이내의 종합 순위 세계 7위를 달성한 것은 한국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을 또 한번 도약시킨 대회였다. 또한 제 1회 아시아 비치경기대회는 수상스포츠, 비치스포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첫 대회로 향후 바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통해 스포츠교류 차원을 넘어 정치적 갈등과 경제·문화·종교의 차이 등을 해소시켜 아시아 국가간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적 공동 번영과 문화적 교류를 대폭 증가시키는 의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첫 대회에서 한국은 4위를 하였다.

(표 11-25) 2008년도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현황

대회명	개최일	개최지	경기종목	참가국인원	한국 참가 현황		
					인 원(임원/선수)	메달획득	순위
제29회 베이징 하계올림픽 대회	8. 8 ~ 8. 24	중국베이징	28종목	204 개국 16,000명	389(122/267)	금 13 은 10 동 8	7
제1회 아시아 비치경기 대회	10. 8 ~ 10. 26	인도네시아 발리	16종목	42 개국 6,000명	114(29/85)	금 4 은 7 동 10	4

1) 제 29회 중국 베이징 하계올림픽 대회

(표 11-26) 하계 올림픽 대회 개최 및 한국의 참가현황

회수	개최년.월.일	개최지	경기종목	참가국 인 원	한국 참가 현황		순위
					참가인원	매 달 획득	
1회	1896. 4. 6 ~ 4.15	그리스 아테네	10	13국, 311명	불참		
				13국, 280명			
2회	1900. 5.20 ~ 10.28	프랑스 파리	14	22국, 1,330명	불참		
				19국, 1,066명			
3회	1904. 7.11 ~ 11.23	미국 세인트루스	12	12국, 681명	불참		
4회	1908. 4. 27 ~ 10.31	영국 런던	20	22국, 2,035명	불참		
				22국, 1,999명			
5회	1912. 5. 5 ~ 7.22	스웨덴 스톡홀름	14	28국, 2,547명	불참		
				28국, 2,490명			
6회	1916년	독일 베를린		제1차 세계대전으로 무산			
7회	1920. 4.23 ~ 9.12	벨기에 안트워프	19	29국, 2,668명	불참		
8회	1924. 5. 5 ~ 7.27	프랑스 파리	19	44국, 3,070명	불참		
9회	1928. 5.17 ~ 8.1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6	46국, 3,014명	불참		
				46국, 2,694명			
10회	1932. 7.30 ~ 8.14	미국 로스앤젤레스	16	37국, 1,328명	불참(일본선수단으로 참가) 김은배, 권태하(마라톤), 황을수(복싱)		
11회	1936. 8. 1 ~ 8.16	독일 베를린	21	49국, 4,066명	불참(일본선수단으로 참가) 손기정, 남승룡(마라톤), 이성구, 장이진, 염은현 (농구), 김용식(축구), 이규환(복싱)		
12회	1940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무산					
13회	1944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무산					
14회	1948. 7.29 ~ 8.14	영국 런던	18	59국, 4,104명	67(17/50)	동2	24
15회	1952. 7.19 ~ 8. 3	핀란드 헬싱키	18	69국, 4,955명	41(20/21)	동2	37
16회	1956.11.22 ~ 12. 8	호주 멜버른	17	72국, 3,314명	57(22/35)	은1, 동1	29
	6.10 ~ 6.17	스웨덴 스톡홀름·승마	17	72국, 3,314명	57(22/35)	은1, 동1	29
17회	1960. 8.25 ~ 9.11	이탈리아 로마	17	83국, 5,338명	67(31/36)		
18회	1964.10.10 ~ 10.24	일본 동경	19	93국, 5,151명	224(59/165)	은2, 동1	27
19회	1968.10.12 ~ 10.27	멕시코 멕시코시티	18	112국, 5,516명	76(21/55)	은1, 동1	36
20회	1972. 8.26 ~ 9.11	서독 뮌헨	21	121국, 7,134명	68(22/46)	은1	33
21회	1976. 7.17 ~ 8. 1	캐나다 몬트리올	21	92국, 6,084명	72(22/50)	금1, 은1, 동4	19
22회	1980. 7.19 ~ 8. 3	소련 모스크바	21	80국, 51,179명	불참		
23회	1984. 7.28 ~ 8.12	미국 로스앤젤레스	21	140국, 6,829명	288(78/210)	금 6, 은 6, 동 7	10
24회	1988. 9.17 ~ 10. 2	한국 서울	23	159국, 8,391명	602(125/477)	금12, 은10, 동11	4
25회	1992. 7.25 ~ 8. 9	스페인 바르셀로나	25	169국, 9,356명	344(247/97)	금12, 은5, 동12	7
26회	1996. 7.19 ~ 8. 9	미국 아틀란타	25	197국, 10,318명	428(116/312)	금 7, 은15, 동 5	10
27회	2000. 9.15 ~ 10. 1	호주 시드니	28	199국, 10,651명	398(114/284)	금 8, 은10, 동10	12
28회	2004. 8.13 ~ 8.29	그리스 아테네	28	201국, 16,500여명	376(109/267)	금 9, 은 12, 동 9	9
29회	2008. 8. 8 ~ 8.24	중국 베이징	28	204국, 16,000여명	389(122/267)	금 13, 은 10, 동 8	7

(표 11-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8년 제 29회 하계올림픽 대회는 8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3천년 역사의 고도이며 중국 정치, 경제, 문화, 교통과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중국의 역사 중 금(金), 원(元), 명(明), 청(淸)나라를 거쳐 약 800년간 수도이기도 한다. 서울의 2.8배인 총 면적 16,800m²의 베이징은 총 인구 1,150만명으로 평균 해발 400~500m의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베이징 하계올림픽대회의 심볼은 (그림 11-5)과 같이 “중국의 봉인. 춤추는 베이징”으로 베이징의 친절과 희망을 가득하며 세계에 대한 도시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대회 심볼로 제작하였다. 또한 (그림 11-6)인 마스코트는 베이징 올림픽대회의 상징으로 “베이베이, 징징, 환환, 잉잉, 니니”로 각각 물고기, 팬더, 올림픽 성화, 티베트의 영양, 제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마스코트 각각의 이름 앞부분을 붙이면 중국식 발음으로 “베이징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대회 마스코트로서 개최국의 특성을 살렸다.



〈그림 11-5〉 대회 심볼 마크



〈그림 11-6〉 대회 마스코트

(1) 경기장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번 대회장 준비를 위해 체육공원 내 올림픽 그린 지역에 있는 선수촌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의 축구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예선전 외에 모든 지역은 0.5km에서 25km 내에 경기장을 시설화 시켰으며 크게 올림픽 그린 지역, 웨스턴 커뮤니티 지역, Noth Scenic 지역 그리고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기장을 배치하였다. 각 경기장 중 개·폐회식과 축구 결승 경기장인 국립 주경기장이 9만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경기장으로부터 북경사

격장과 북경 기술대학교에서 개최된 5천명 수용의 배구경기장을 준비하여 경기장으로 활용하였다.

(표 11-27) 베이징 올림픽 종목별 경기장 현황 및 선수촌과 이동거리

경기장	경기 종목	수용인원	이동거리	구분지역
올림픽주경기장	개·폐회식, 육상, 축구	91,000	0.5km	올림픽 그린
올림픽수영센터	수영, 다이빙, 싱크로	6,000	0.5km	올림픽 그린
올림픽체육관	체조, 트램플린, 핸드볼	20,000	0.5km	올림픽 그린
베이징사격관	사격	9,000	19km	웨스턴커뮤니티
오과송문화스포츠센터	농구	18,300	18km	웨스턴커뮤니티
노산사이클장	사이클(트랙)	6,000	23km	웨스턴커뮤니티
올림픽수상공원	조정, 카누, 외일드위터	28,800	36km	North Scenic
중국농업대체육관	레슬링	8,500	5km	North Scenic
북경대체육관	탁구	8,000	8km	North Scenic
북경과기대체육관	유도, 태권도	8,000	8km	North Scenic
북경과기대체육관	배드민턴, 리듬체조	7,500	25km	North Scenic
올림픽상림공원테니스장	테니스	17,400	0.8km	올림픽 그린
올림픽센터경기장	근대오종	40,000	1.5km	올림픽 그린
올림픽센터체육관	핸드볼	7,000	1km	올림픽 그린
공인경기장	축구	64,000	12km	베이징 외부
공인체육관	복싱	13,000	12km	North Scenic
수도체육관	배구	18,000	12km	웨스턴커뮤니티
풍태소프트볼경기장	소프트볼	13,500	23km	웨스턴커뮤니티
영동수영장	수구, 근대5종(수영)	6,000	1km	올림픽 그린
노산사이클장	사이클(산악자전거)	17,000	23km	웨스턴커뮤니티
북경사격장(클레이)	사격	5,000	19km	웨스턴커뮤니티
북경이공대체육관	배구	5,000	10km	North Scenic
북경항공항천대체육관	역도	6,000	3km	North Scenic
국가회의중심펜싱관	펜싱, 근대5종(사격, 펜싱)	5,900	0.5km	올림픽 그린
올림픽상림공원필드하키장	하키	17,000	0.8km	올림픽 그린
올림픽상림공원양궁장	양궁	5,000	0.5km	올림픽 그린
오과성야구장	야구	15,000	18km	웨스턴커뮤니티
비치발리볼장	비치발리볼	12,200	15km	North Scenic
모토크로스경기장	사이클(BMX)	4,000	23km	웨스턴커뮤니티
철인3종경기장	철인3종	10,000	28km	North Scenic
성구공로사이클장	사이클(로드)	3,000	8km	웨스턴커뮤니티

* 수용인원은 임시석까지 포함

일 자	2008년 8월																								메 달	일 수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요 트				⊙	⊙	⊙	⊙	⊙	⊙	⊙	2	1	2	2	2	2	R	R	R	11	13					
사 격				2	2	2	2	1	2	1	2	1								15	9					
소프트볼							⊙	⊙	⊙	⊙	⊙	⊙	⊙	R	⊙	1				1	9					
수 영	경 영			⊙	4	4	4	4	4	4	4	4			1	1				34	11					
	싱크로												⊙	⊙	1		⊙	1		2	5					
	다이빙				1	1	1	1		⊙	⊙	1	⊙	1	⊙	1	⊙	1		8	13					
	수 구				⊙	⊙	⊙	⊙	⊙	⊙	⊙	⊙	⊙	⊙	⊙	1	⊙		1	2	14					
탁 구							⊙	⊙	⊙	⊙	1	1	⊙	⊙	⊙	1	1		4	11						
태권도															2	2	2	2		8	4					
테니스				⊙	⊙	⊙	⊙	⊙	⊙	2	2									4	8					
철인3종													1	1						2	2					
배구	실 내			⊙	⊙	⊙	⊙	⊙	⊙	⊙	⊙	⊙	⊙	⊙	⊙	⊙	⊙	1	1	2	16					
	비 치			⊙	⊙	⊙	⊙	⊙	⊙	⊙	⊙	⊙	⊙	⊙	⊙	1	1			2	14					
역 도				1	2	2	2	2		2	1	1	1	1						15	10					
레슬링	그레코						2	2	3											7	3					
	자유형										2	2		2	2	3				11	5					
경기종목수	1	1		18	22	20	24	27	23	25	25	23	22	22	19	20	18	15	7							
금메달계				7	14	13	19	17	17	16	30	34	18	20	11	23	20	31	12	302						

(3) 경기성적

한국 팀의 하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1948년 런던올림픽에 “KOREA”라는 국가명으로 처음 참가하여 동메달 2개를 획득한 이후 이번 29회 베이징 올림픽 까지 15회 연속 참가하였다. 특히 1984년 제 23회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획득하면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한국은 다음 대회인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1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순위 4위에 입상하여 지금까지 기록한 종합순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이후 25회 바르셀로나, 26회 아틀란타, 27회 시드니, 28회 아테네 그리고 29회인 베이징 올림픽까지 시드니 대회를 제외한 하계올림픽에서 10위권에 진입하여 국제 스포츠경쟁력에서 Top 10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 29회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종합 순위 7위는 서울올림픽보다는 뒤이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역대 상위국가의 경기력과 비교한다면 매우 우수한 경기결과 뿐 만 아니라 금메달 13개 획득은 역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 획득이 이루어진 대회로 주요 스포츠 강대국의 참여에 비교한다면 매우 성과가 큰 대회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1-29)는 최근의 올림픽 대회에서 나타난

제11장 국제체육

15위까지의 종합순위 상위 팀과 북한 팀의 성적을 소개한 것이다.

(표 11-29) 베이징 하계올림픽대회 경기력 상위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금메달/총메달)

국가명	제29회 베이징		제28회 아테네		제27회 시드니		제26회 아틀란타	
	순위	메달수	순위	메달수	순위	메달수	순위	메달수
중 국	1	51/100	2	32/63	3	28/59	4	16/50
미 국	2	36/110	1	35/103	1	40/97	1	44/101
러 시 아	3	23/72	3	27/92	2	32/88	2	26/63
영 국	4	19/47	10	9/30	10	11/27	17	3/15
독 일	5	16/41	6	14/48	5	13/56	3	20/65
호 주	6	14/46	4	17/49	4	16/58	7	9/41
한 국	7	13/31	9	9/30	12	8/28	10	7/27
일 본	8	9/25	5	16/37	14	5/18	23	3/14
이 탈 리 아	9	13/28	8	10/32	7	13/34	6	13/35
우 크 라 이 나	10	7/27	12	9/23	13	3/23	9	9/23
프 랑 스	11	7/40	7	11/33	6	13/38	5	15/37
네 델 란 드	12	7/16	18	4/22	8	12/25	15	4/19
자 메 이 카	13	6/11	34	2/5	53	0/7	39	1/6
스 페 인	14	5/15	13	8/17	13	8/17	12	7/21
케냐	15	5/14	41	1/7	29	2/7	38	1/8
북한	33	2/6	58	0/5	43	1/4	33	2/5

이번 베이징 하계올림픽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개최국 중국이 종합 순위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한 미국을 제치고 종합순위 1위에 등극한 것이다. 중국은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대회에서 종합순위 4위를 하였으며 이후 그 순위를 한 단계씩 줄여 이번 베이징에서 목표한 종합 순위 1위(금메달 51개 획득)를 달성하게 되었다. 미국은 그동안의 대회에서 1위를 고수하다가 이번 올림픽에서 총 메달수 합계에서 110개로 중국보다 10개 앞섰으나 금메달 획득에서 금메달 36개를 획득하여 금메달 수에서 중국보다 15개가 적어 1위 자리를 중국에게 내 주게 되었다. 그 외 순위는 3위는 러시아가 차지하였으며 4위는 전 올림픽 대회에서 종합순위 10위였던 차기 올림픽 개최국인 영국이 차지하여 6단계나 상승하였으며, 5위는 독일이 예전과 비슷한 평균 종합순위를, 6위는 호주, 7위 한국, 8위 일본 및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순으로 종합 순위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프랑스가 그동안 10위 이내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하다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11위로 떨어졌으며 북한은 금메달

2개, 전체 메달획득 6개로 참가국 중 종합순위 33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한 중국은 향후 올림픽에서 미국과 계속해서 1위 다툼이 예상되며,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일본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스포츠 경쟁이 계속될 것이며 영국의 등극에 따른 정상권 유지 및 프랑스의 재도약을 위한 노력 등이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계속해서 출현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국가는 204개 국가로 이중 메달을 획득한 국가는 87개 국가이며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는 52개 국가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나타난 신기록 달성은 육상에서 5개 세부종목에서 신기록이 달성되었으며 수영종목에서는 21개 경기 종목에서 역도에서는 10개 경기종목에서 달성되었다, 한국의 강세 종목인 양궁경기에서는 1개 경기종목에서 달성되었는데 여자 단체전 예선전에서 한국의 박성현, 윤옥희, 주형정 선수가 231점을 기록하여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사이클 종목에서는 트랙 남자 단체추발에서 영국 팀이 3분 53초 314로 신기록을 달성하였다.

신기록 달성에 참여한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수영 10개 경기종목에서, 호주는 수영 5개 경기종목에서 신기록을 달성하였고, 한국과 중국, 벨로루시가 각각 4개 종목에서 기록하였으며 자메이카는 육상 3개 경기종목에서, 러시아와 영국은 2개 경기종목 그리고 일본, 이탈리아, 짐바브웨가 각각 1개의 신기록을 달성하였다.

(표 11-30) 베이징 올림픽 참가국별 메달획득 현황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계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계
1	중국	51	21	28	100	45	라트비아	1	1	1	3
2	미국	36	38	36	110	46	에스토니아	1	1	0	2
3	러시아	23	21	28	72	46	도미니카	1	1	0	2
4	영국	19	13	15	47	46	포르투갈	1	1	0	2
5	독일	16	10	15	41	46	벨기에	1	1	0	2
6	호주	14	15	17	46	50	인도	1	0	2	3
7	한국	13	10	8	31	51	이란	1	0	1	2
8	일본	9	6	10	25	52	바레인	1	0	0	1
9	이탈리아	8	10	10	28	52	파나마	1	0	0	1
10	프랑스	7	16	17	40	52	카메룬	1	0	0	1
11	우크라이나	7	5	15	27	52	튀니지	1	0	0	1
12	네덜란드	7	5	4	16	56	스웨덴	0	4	1	5
13	자메이카	6	3	2	11	57	크로아티아	0	2	3	5
14	스페인	5	10	3	18	57	리투아니아	0	2	3	5
15	케냐	5	5	4	14	59	그리스	0	2	2	4

제11장 국제체육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계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계
16	벨로루시	4	5	10	19	60	트리나드토바고	0	2	0	2
17	루마니아	4	1	3	8	61	나이지리아	0	1	3	4
18	이디오피아	4	1	2	7	62	오스트리아	0	1	2	3
19	캐나다	3	9	6	18	62	세르비아	0	1	2	3
10	롤란드	3	6	1	10	62	아일랜드	0	1	2	3
21	노르웨이	3	5	2	10	65	타지키스탄	0	1	1	2
21	헝가리	3	5	2	10	65	모로코	0	1	1	2
23	브라질	3	4	8	15	65	키르기스스탄	0	1	1	2
24	체코	3	3	0	6	65	바하마	0	1	1	2
25	슬로바키아	3	2	1	6	65	알레지	0	1	1	2
26	뉴질랜드	3	1	5	9	65	콜롬비아	0	1	1	2
27	그루지아	3	0	3	6	67	수단	0	1	0	1
28	쿠바	2	11	11	24	71	싱가포르	0	1	0	1
29	카자스탄	2	4	7	13	71	베트남	0	1	0	1
30	덴마크	2	2	3	7	71	남아리카공화국	0	1	0	1
31	태국	2	2	0	4	71	말레이시아	0	1	0	1
31	몽골	2	2	0	4	71	에콰도르	0	1	0	1
33	북한	2	1	3	6	71	칠레	0	1	0	1
34	스위스	2	0	4	6	71	아이슬랜드	0	1	0	1
34	아르헨티나	2	0	4	6	79	아르메니아	0	0	6	6
36	멕시코	2	0	1	3	80	대만	0	0	4	4
37	터어키	2	0	1	3	81	이스라엘	0	0	1	1
38	짐바브웨	1	3	0	4	81	베네수엘라	0	0	1	1
39	아제르바이잔	1	2	4	7	81	코고셔스	0	0	1	1
40	우즈베키스탄	1	2	3	6	81	이집트	0	0	1	1
41	슬로베니아	1	2	2	5	81	모리셔스	0	0	1	1
42	불가리아	1	1	3	5	81	몰도바	0	0	1	1
42	인도네시아	1	1	3	5	81	아프가니스탄	0	0	1	1
44	핀란드	1	1	2	4						

(표 11-31) 베이징 올림픽에서 나타난 세계신기록 현황

종목	세부종목	선수명(국가명)	수립일자	기록
육상 (5개)	남자 100m	우사인 볼트(자메이카)	8. 16	9초69
	여자 3000m 장애물 달리기	굴나라 갈기나 사미토바가(러시아)	8. 17	8분58초81
	여자 장대높이뛰기	엘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	8. 18	5m05cm

종목	세부종목	선수명(국가명)	수립일자	기록
육상 (5개)	남자 200m	우사인볼트(자메이카)	8. 20	19초30
	남자 4×400m 계주	자메이카	8. 22	37초10
수영 (21개)	남자 400m 혼영	마이클 펄프스(미국)	8. 10	4분03초84
	여자 400m 혼영	스테파니 아리스(호주)	8. 10	4분29초45
	남자 4*100계영	미국	8. 11	3분08초24
	여자 100m 배영	커스터 코벤티리(짐바브웨)	8. 11	58초77
	남자 100m 평형	키타지마 코스케(일본)	8. 11	58초91
	남자 200m 자유형	마이클 펄프스(미국)	8. 12	1분42초96
	남자 100m 배영	이론 페어솔(미국)	8. 12	52초54
	남자 100m 자유형	이문 설리반(호주)	8. 13	47초05
	여자 200m 자유형	페데리카 펠레그리니(이탈리아)	8. 13	1분54초82
	남자 200m 접영	마이클 펄프스(미국)	8. 13	1분52초03
	여자 200m 혼영	스테파니 라이스(호주)	8. 13	2분08초45
	남자 4*200m 계영	미국	8. 13	6분58초56
	여자 200m 접영	류쯔거(중국)	8. 14	2분04초18
	여자 4*200m 계영	호주	8. 14	7분44초31
	여자 200m 평영	레베카 소니(미국)	8. 15	2분20초22
	남자 200m 배영	로크테 리안(미국)	8. 15	1분53초94
	남자 200m 혼영	마이클 펄프스(미국)	8. 15	1분54초23
	여자 200m 배영	커스티 코벤티리(짐바브웨)	8. 16	2분05초24
	여자 800m 자유형	레베카 애드링턴(영국)	8. 16	8분14초10
	여자 4*100m 혼계영	호주	8. 17	3분52초10
	남자 4*100m 혼계영	미국	8. 17	3분29초34
역도 (10)	여자 69hg급 인상	류춘홍(중국)	8. 13	128kg
	여자 69hg급 용상	류춘홍(중국)	8. 13	158kg
	여자 69hg급 합계	류춘홍(중국)	8. 13	286kg
	남자 85kg급 합계	안드레 레비코브(벨로루시)	8. 15	394kg
	여자 +75kg급 인상	장미란(한국)	8. 16	140kg
	여자 +75kg급 용상	장미란(한국)	8. 16	186kg
	여자 +75kg급 합계	장미란(한국)	8. 16	326kg
	남자 105kg급 인상	안드레이 아람나우(벨로루시)	8. 18	200kg
	남자 105kg급 용상	안드레이 아람나우(벨로루시)	8. 18	236kg
남자 105kg급 합계	안드레이 아람나우(벨로루시)	8. 18	436kg	
양궁 (1)	여자단체전 예선	박성현, 윤옥희, 주현정(한국)	8. 10	231점
사이클 (1)	트랙 단체추발(남자)	영국	8. 18	3분53초314

(4) 한국 팀의 참가 종목 선수단 현황

베이징 하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한국 팀은 임원 122명, 선수 267명 합계 389명의 선수단이 구성되어 참가하였다. 선수 중 남자는 양궁을 포함한 23개 종목에 160명이 참가하였으며 여자선수는 19개 종목에서 107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표 11-32)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팀 종목별 참가 선수단

종 목	임 원	선 수		계
		남 자	여 자	
본 부 임 원	36			36
양 궁	4	3	3	10
육 상	5	10	7	22
배 드 민 턴	5	7	6	18
야 구	2	24		26
농 구	2		12	14
복 심	3	5		8
카 누	1		1	2
사 이 클	2	1	3	6
승 마	1	1		2
펜 심	4	5	5	14
축 구	2	18		20
체 조	5	6	2	13
핸 드 볼	5	14	14	33
하 키	4	16	16	36
유 도	6	7	7	20
근 대 5 종	1	2	1	4
조 정	2	2	3	7
요 트	1	4		5
사 격	1	6	8	21
수 영	경 영	7	9	20
	다이빙	4		2
탁 구	4	3	3	10
태 권 도	3	2	2	7
테 니 스	1	1		2
역 도	5	5	4	14
레 슬 링	6	10	1	17
합 계	122	160	107	389

(5) 한국 선수단 활동 홍보기능인 언론 매체 운영

이번 베이징 하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한국올림픽위원회인 KOC에게 배정한 미디어 ID카드는 총 90장이었으나 베이징이 한국과 근거리에 있고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배정을 요청하여 IOC로 부터 5장이 추가되어 총 95장의 미디어 ID카드를 배정 받았다. 이에 따른 배분은 KOC와 한국체육기자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각 카테고리별로 할당을 결정하였다.

(표 11-33) 한국 배정된 미디어 카드 할당 현황

카테고리	할당량	추가분	총계	구분
E	62	4	66	Journalist
Es	6		6	Sport specific journalist
EP	18	1	19	Photographer
EPs	2		2	Sport specific photographer
ET	2		2	Technician
계	90	5	95	

이번 올림픽에 홍보 활동으로 참여한 언론사는 총 25개로 취재 분야인 미디어 E 카드가 66장으로 가장 많으며 사진 분야인 EP 카드가 19장, 전문취재 분야인 Es가 6장, 전문사진 분야인 EPs가 2장 그리고 기술 분야인 ET 카드가 2장으로 총 95장의 미디어 카드를 배정받아 활동하였다.

특히 방송기자단과 관련된 카드배정은 이와는 별도로 배정받았는데 이는 IOC 및 대회조직위원회인 BOCOG 그리고 주관방송사(BOB)와의 계약관계로 KBS, MBC, SBS가 코리아폴을 구성하여 중계권을 구매하여 방송 3사가 직접 파견하였고, 방송 중계권이 없는 YTN은 IOC를 통해 직접 발급받았으며, CBS는 타 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해 RT카드를 확보하여 취재하였다. (표 11-34)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 방송분야에 참여한 5개 방송사의 파견 활동 인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 11-34) 베이징 올림픽 파견 TV 방송 기자단 현황

구분	취재	카메라	아나운서	해설	기타지원	계
KBS	15	9	12	21	88	145
MBC	19	21	12	23	44	119
SBS	18	12	11	19	48	108
YTN					12	12
CBS					6	6
계	52	42	35	63	198	390

제11장 국제체육

(표 11-35) 베이징 올림픽 언론사별 ID 카드 배분 현황

구 분		배 정	E(취재)	EP (사진)	Es (전문취재)	EPs (전문사진)	ET (기술)	계
			66(63)	19(14)	6(2)	2	2(1)	95(80)
1	경향신문		3		1			4
2	국민일보		3					3
3	동아일보		4					4
4	서울신문		2		1			3
5	문화일보		1		1			2
6	세계일보		3					3
7	조선일보		4					4
8	중앙일보		4					4
9	한겨레		4					4
10	한국일보		3					3
11	스포츠서울		4					4
12	스포츠조선		4					4
13	일간스포츠		4					4
14	스포츠칸		2		1			3
15	스포츠월드		2		1			3
16	연합뉴스		11	4	1		1	17
17	뉴시스			1				1
18	매일경제		1					1
19	한국경제		1					1
20	부산일보		1					1
21	매일신문		1					1
22	기호일보		1					1
23	경인일보		1					1
24	스포츠코리아		2					2
25	한국사진기자회			14		2	1	17
합계		66	19	6	2	2		

2) 제 1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

2008년 제 1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아시아지역의 42개국 약 6,000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 팀은 9개 종목에 114명(임

원 29명, 선수 85명)이 참가하여 종합 4위에 차지하였다.

(표 11-36) 제 1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 개최지역 및 종목

개최지역	행사 및 종목수	항사명 및 종목
Jimbaran 지역	1	공식행사
Nusa Dua 지역	6	우드볼, 비치카바디, 비치레슬링, 비치페낙실랏, 제트스키, 패러글라이딩
Sanur 지역	7	비치발리볼, 비치세팍타크로, 마라톤수영, 트라이애슬론, 비치핸드볼, 비치사커, 세일링/윈드서핑
Kula 지역	3	서핑, 보디빌딩, 드래곤보트

(표 11-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Inspire the World”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바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비치 스포츠를 통해 스포츠교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문화·종교 및 국가 이념의 차이와 갈등을 해소시키고자 아시아 국가가 먼저 경제적 공동 번영과 문화적 교류 기회를 갖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 및 실내 아시아경기대회에 이은 또 하나의 종합스포츠 축제로 각국의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친선을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었다.

제 1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총 9일간 16개 종목의 해양 및 비치스포츠 종목이 3개지역(Nusa Dua, Sanur, Kuta)에서 개최되었으며 동남 아시아 국가 위주의 생소한 종목 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기 참여에도 불구하고 4위에 입상한 것은 향후 이 대회에서도 아시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 매김 할 가능성이 매우 큰 대회라고 할 수 있다.

(1) 경기장

이번 대회의 한국 대표팀이 참가한 9개 종목의 경기장과 참가하지 않은 종목의 경기장은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있는 3개 지역인 Nusa Dua, Sanur, Kuta지역으로 각 경기장이 위치한 지역은 (표 11-3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으며 각 경기장은 물과 모래 그리고 파고 상태를 고려하여 경기장 시설을 3지역으로 분산하여 시설화하였다.

제11장 국제체육

(표 11-37) 아시아비치경기대회에 종목별 투숙 호텔 및 경기장 지역

종 목		호 텔	지 역
참 가	본부 임원	Inna Pulri & Ayodya Hotel	Nusa Dua
	비치 카바디	Goodway Hotel & Resort	
	패러글라이딩	Goodway Hotel & Resort	
	비치 레슬링	Swissbell Bay View Hotel	
	보디빌딩	Ramada Bintang Hotel	Kuta
	비치 세팍타크로	Aston Denpasar Resort	Sanur
	비치 사커	Cakra Hotel	
	비치 발리볼	Inna Grand Ball Beach	
	세일링 & 윈드서핑		
	트라이애슬론		
미 참 가	우드볼, 비치페낙시랏, 제트스키		Nusa Dua
	마라톤수영, 비치핸드볼		Kuta
	서핑, 드래곤보트		Sanur

(표 11-38) 아시아비치경기대회에 한국 선수단 구성 현황

종 목	선 수		계	임원	총계
	남자	선수			
본부 임원	-	-	-	10	10
비치세팍타크로	12	12	24	4	28
비치사커	10	-	10	2	12
비치발리볼	-	4	4	1	5
비치레슬링	4	-	4	2	6
보디빌딩	6	-	6	2	8
윈드서핑/세일링	7	3	14	2	12
트라이애슬론	2	2	4	1	5
비치카바디	6	6	12	2	14
패러글라이딩	7	4	11	3	14
총 계	54	31	85	29	114

한국 대표팀은 8개 종목 (세부 9개 종목)에 임원 29명, 선수 85명으로 총 114명의 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9개 세부종목 중 남자 선수는 비치발리볼을 제외한 8개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여자

선수는 비치사커와 보디빌딩을 제외한 7개 종목에 참가하였다.

(2) 경기성적

제 1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총 42개국이 참가하여 27개국이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중 개최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금 23, 은 8, 동 20개로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태국 2위, 중국 3위, 한국 4위, 일본 5위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도 마라톤 수영 여자부 5km와 10km에 2명이 선수가 참가하였으나 메달획득에는 실패하여 종합 순위에 국가명을 등록하지 못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경기 종목이 거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가지형 특성을 고려하고 자국에서 많이 성행하는 비치 스포츠 종목을 대회 종목으로 선정하여 아시아지역에서 스포츠 강국인 한국, 중국, 일본 국가가 종합순위에서 수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어 선수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3위에서 5위까지 중국, 한국, 일본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 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개 국가가 금메달을 획득하였는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전통무술인 비치페낙실랏 종목에서는 8개 세부 종목 중 말레이시아가 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그 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각각 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종목에서는 세부종목 8개 종목 중 인도네시아가 7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1개의 메달은 한국의 김진오 외 4명이 선수가 Team Accuracy 종목에서 우승하여 종합 우승한 인도네시아의 패러글라이딩 종목에서의 독주를 막았다. 주로 해변에서 실시하는 비치스포츠 종목인 비치카바디, 비치세팍타크로, 비치사커, 비치발리볼과 수상에서 실시하는 드래곤보트 레이싱이나 제트스키우드볼 등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가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종목과 유사한 보디빌딩, 비치레슬링,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수영과 같은 종목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메달을 획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에게 금메달이 1개 부족하여 5위를 기록한 일본은 서핑 종목에서 2개의 메달을 그리고 비치농구에서 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표 11-39) 아시아비치경기대회 각 국가별 종합순위 및 메달 분포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계
1	인도네시아	23	8	20	51
2	태국	10	17	10	31
3	중국	6	10	7	23
4	대한민국	4	7	10	21
5	일본	3	3	3	9

제11장 국제체육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계
6	홍콩	3	3	2	5
7	인도	3	0	2	5
8	베트남	2	5	3	10
9	미얀마	2	3	0	5
10	말레이시아	2	2	6	10
11	파키스탄	2	2	3	7
12	대만	2	2	3	7
13	시리아	2	0	0	2
14	쿠웨이트	1	2	0	3
15	카자흐스탄	1	1	2	4
16	아랍에미리트	1	1	1	3
17	싱가폴	1	0	2	3
18	아프가니스탄	1	0	1	2
19	몽골	1	0	0	1
19	오만	1	0	0	1
21	필리핀	0	2	8	10
22	브루나이	0	2	3	5
23	요르단	0	1	0	1
24	방글라데시	0	0	1	1
24	바레인	0	0	1	1
24	마카우	0	0	1	1
24	몰디브	0	0	1	1
계		71	71	90	232

(표 11-40) 종목별 금메달 획득 국가 현황

종 목	세 부 종목	획득국가	한국 선수
비치 농구	남자부	인도	
	여자부	일본	
비치 핸드볼	남자부	파키스탄	
	여자부	중국	
비치카바디	남자부	인도	
	여자부	인도	
비치 패낙실랏	Tanding Class A 남자	태국	
	Tanding Class A 여남자	베트남	
	Tanding Class D 여자	인도네시아	
	Tanding Class H 남자	말레이시아	

종 목	세 부 종목	획득국가	한국 선수
비치 페낙실랏	Tunggal 남자	인도네시아	
	Tunggal 여남자	인도네시아	
	Ganda 남자	인도네시아	
	Ganda 여자	인도네시아	
비치 세팍타크로	Team 남자	태국	
	Team 여자	태국	
	Regu 남자	태국	
	Regu 여자	중국	
비치 사커	남자부	오만	
비치 발리볼	남자부	인도네시아	
	여자부	태국	
비치 수구	남자부	카자흐스탄	
비치 레슬링	65kg 남자	파키스탄	
	75kg 남자	대한민국	이윤석
	85kg 남자	아프가니스탄	
	+85kg 남자	몽골	
보디 빌딩	60kg 남자	인도네시아	
	65kg 남자	베트남	
	70kg 남자	우즈베키스탄	
	75kg 남자	인도네시아	
	80kg 남자	태국	
	85kg 남자	대한민국	이진호
드래곤보트 레이싱	1000m 남자	인도네시아	
	1000m 여자	인도네시아	
	250m 남자	미얀마	
	250m 여자	인도네시아	
	500m 남자	미얀마	
	500m 여자	인도네시아	
제트스키	Jet Ski-Runabout 800 Open	쿠웨이트	
	Jet Ski-Runabout Endurance	태국	
	Jet Ski-Runabout Open	태국	
	Jet Ski-Ski Open	태국	
마라톤 수영	5km 남자	시리아	
	5km 여자	홍콩	
	10km 남자	시리아	
	10km 여자	중국	

제11장 국제체육

종 목	세 부 종목	획득국가	한국 선수
패러글라이딩	Accuracy 남자	인도네시아	
	Accuracy 여자	인도네시아	
	Distance 남자	인도네시아	
	Distance 여자	인도네시아	
	Team Accuracy 남자	대한민국	김진오 외 4
	Team Accuracy 여자	인도네시아	
	Team Distance 남자	인도네시아	
	Team Distance 여자	인도네시아	
세일링	Lasre 4.7	중국	
	Hoble 18	태국	
서핑	Aerial	인도네시아	
	Longboard 남자	일본	
	Shortboard 남자	인도네시아	
	Shortboard 여자	일본	
	Team Challenge	인도네시아	
트라이애슬론	남자부	홍콩	
	여자부	중국	
윈드서핑	남자 - Mistrat OD Heavy Weight	인도네시아	
	여자 - Mistrat OD Light Weight	홍콩	
	남자 RSX	대한민국	이태훈
	여자 - Mistrial	중국	
우드볼	남자 개인	싱가폴	
	여자 개인	대만	
	남자 단체	말레이시아	
	여자 단체	대만	

이번 아시아비치경기대회에 참가한 한국 팀은 거의 모든 종목이 체계적인 훈련 미실시 그리고 세부 경기종목에 대한 규정도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참가함에도 불구하고 비치레슬링 75kg에서 이윤석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보디빌딩 종목에서는 85kg급에서 이진호 선수, 패러글라이딩 종목 Team Accuracy 종목에서는 김진오 외 4명의 선수 그리고 윈드서핑 종목에서 남자 RSX 세부종목에서 이태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순위 4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번 대회는 향후 2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 및 협력관계 구축 차원에서 향후 참가가 정례화되는 대회이므로 대한체육회에서는 체계적인 선수관리 및 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한 국위 선양의 한 대회로 인식하여 관리해야 할 대회라고 판단된다.

2.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국가간 체육교류증진을 위해 실시된 2008년도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대한체육회 가맹 및 등록단체 종목 대회) 개최 또는 파견 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전개되었다.

(1) 세계선수권 대회 파견

2008년도는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세계선수권 대회가 다른 해에 비해 적은 한 해였다.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에 파견한 건수는 총 11건으로 총 집행액은 629, 58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파견현황은 (표 11-41)과 같다.

(표 11-41) 2008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선수단 해외파견 현황

순	사업명	파견기간	장소	임원	선수
1	세계 남자 테니스선수권대회 본선 1회전	2. 8~2.10	독일브라운슈베이크	1	4
2	IBU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 대회	2. 5~2.16	스웨덴,오스터순드	1	4
3	2008 FIS 스키플라잉 세계선수권	2.21~2.24	독일오버스트로프	1	4
4	2008 세계탁구선수권대회	2.24~3. 2	중국광조우	2	10
5	2008 세계 남·여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대회(본선전)	5. 9~5.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	2	16
6	2008년 트라이애슬론 세계선수권 대회	6. 4~6. 9	캐나다,밴쿠버	2	8
7	근대 5종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7. 4~7.15	이집트카이로	1	7
8	세계롤러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9. 4~9.12	스페인히혼	1	8
9	세팍타크로 세계선수권 대회	8.25~8.30	태국,방콕	2	11
10	제 62회 남자 보디빌딩 세계선수권 대회	11. 3~11. 7	바레인,마나마	1	7
11	제 19회 공수도 세계선수권 대회	11.11~11.17	동경,일본	2	17

(2) 종목별 국제대회 파견

국제체육 교류증진사업으로 전개된 2008년도 종목별 국제대회 파견 건수는 총 39건으로 각 종목별 파견현황은 (표 11-42)과 같다.

(표 11-42) 2008년도 종목별 국제대회 파견 현황

순	사업명	파견기간	장소	임원	선수
1	아시아스쿼시선수권대회	2.13~21	쿠웨이트	1	9

제11장 국제체육

순	사업명	파견기간	장소	임원	선수
2	UMB 월드 챔피언쉽팀3쿠션 대회(당구)	2.14~17	덴마크,비어센	1	2
3	제13회 아시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2.16~25	이란,에스파한	1	9
4	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	2.25~3. 2	불가리아,소피아	1	3
5	아시아태평양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3. 9	홍콩	1	8
6	아이스하키 세계주니어(U18)선수권대회(DIV. II ,GROUP A)	3.30~4. 5	프랑스,메리벨&쿠슈벨	2	9
7	아시아사이클 선수권대회	4.10~17	일본,오사카	2	19
8	제18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4.24~29	중국,하남성	2	12
9	2008세계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4. 5~14	이태리,시칠리아	1	8
10	플랫워터올림픽 아시아예선전(카누)	5. 2~17	일본,고마츠	2	13
11	제7회아시아 우수선수권대회	5.10~17	중국,마카오	2	13
12	2008세계청소년력비선수권대회	4.10~31	칠레,산티아고	1	7
13	제14회 세계여자주니어/제34회세계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6.12~24	콜롬비아,칼리	1	3
14	제6회 하키 남자주니어아시아선수권대회	7.11~18	인도,하이더라바드	2	10
15	제 12회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7. 8~13	폴란드,비드고슈치	1	5
16	세계청소년요트선수권대회	7.10~19	덴마크,아러스	1	4
17	2008세계올림픽에선 남자농구 토너먼트	7.14~20	그리스,아테네	1	7
18	세계청소년 볼링선수권대회	7.16~26	멕시코,몬테레이	1	8
19	제23회 세계청소년아구선수권대회	7.23~8. 5	캐나다,애드먼트	1	8
20	세계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7.26~8. 6	터키,이스탄불	1	8
21	2008년도헝가리아국제제정구대회	8.13~19	헝가리, 부다페스트	1	8
22	2008 제 14회 아시아청소년남자배구선수권대회	8.23~31	이란, 테헤란	1	7
23	2008 구제 장애물마장마술대회(승마)	7. 1~ 6	스위스,(뮌헨,아벤체)	1	3
24	2008월드컵핀수영대회(수중)	9.14~19	러시아,모스크바	1	8
25	제4회 아시아 시니어 체조선수권대회	11.12~20	카타르,도하	1	9
26	세계유스양궁선수권대회	10. 6~12	터키,안탈야	1	6
27	제26회 세계아마추어골프팀선수권대회	10. 2~19	호주,아델라이드	1	4
28	세계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10.19~27	태국,방콕	2	14
29	인도네시아 오픈스포츠클라이밍대회(산악)	11.27~12. 1	인도네시아, 반둥	1	3
30	2008 복싱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10.25~11. 1	멕시코, 구아달라자라	1	10
31	제14회 아시아 주니어조정선수권대회	11. 3~10	홍콩	2	13
32	스켈레톤 아메리카컵대회	10.17~11.24	미국, 솔트레이크 및 알바니	-	4
33	아시아태평양양궁선수권대회	11. 1~ 9	뉴질랜드,네이스비	2	10
34	2008/2009쇼트트랙3,4차 월드컵대회	10.17~11.24	중국,베이징/일본,나가노	12	2
35	2008에디허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제47회주니어오픈지불국제테니스 선수권대회	11.29~12.23	미국, 플로리다	1	4
36	제5회 하키 아시아 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제6회 하키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	12. 8~2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8	2
37	제3회 세계 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12.16~18	터키,앙카라	10	2
38	2008중국오픈국제유도대회	11.27~12. 1	중국,청도	16	2
39	2008세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	12. 3~15	스페인,마드리드	1	9

(3) 북경 올림픽 대비 심판 및 임원지원 육성

2008년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스포츠 외교 측면에서의 심판양성과 각 종목별 임원양성을 위한 지원 육성 사업으로 전개된 사업은 총 33건으로 171, 072,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다.

(표 11-43) 북경올림픽 대비 심판 및 임원지원 사업 결과

순	사업명	기간	장소	파견인원
1	2008 베이징 올림픽복싱 1차 아시아지역예선전	1.24~2. 3	태국 방콕	2
2	요트 관측관 세미나	1.25~27	벨기에 겐트	1
3	2008 세계탁구선수권대회	2.23~3. 2	중국, 베이징	1
4	국제장애물승마마승급강습회	3. 5 ~11	카타르, 도하	2
5	2008년 베이징 올림픽복싱 2차 아시아지역예선전	3.19~24	카자스탄, 알마티	2
6	유럽 레슬링 선수권대회	3.31~4. 8	핀란드, 탐파레	3
7	세계 청소년 펜싱선수권대회 및 FIE연차 총회	4. 4~15	이탈리아, 아씨레아레	2
8	베이징 월드컵 사격대회	4. 7~ 21	중국, 베이징	2
9	올림픽싱크로예선전	4.15~4.21	중국, 베이징	1
10	세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 및 시범경기	4.17~21	중국, 베이징	2
11	제1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4.22~29	중국 하이난성	2
12	세계배드민턴연맹총회 및 이사회	5.12~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
13	세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	5.11~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
14	세계근대5종선수권대회	5.25~6. 5	헝가리 부다페스트	3
15	배구국제심판후보자강습회	6. 1~10	바레인 마나마	2
16	2008 세계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6. 4~ 9	캐나다 밴쿠버	4
17	제14회 세계여자역도주니어 및 제34회 세계주니어역도 선수권대회	6.12~21	콜롬비아 칼리	3
18	제30회하키남자 챔피언스트로피	6.20~7. 2	네덜란드 로테르담	1
19	베이징올림픽 여자하키 예선전	4.18~5. 5	캐나다 밴쿠버	1
20	2008 월블던테니스대회	6.14~7. 4	영국 런던	1
21	2008월드리그 국제 남자 배구대회	6.25~7. 1	쿠바 하바나	1
22	아시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6.30~7. 8	에멘 사나	3
23	제12회 세계주니어육상 선수권대회	7. 6~14	폴란드 비드고슈치	2
24	세계 청소년근대5종선수권대회	7. 6~13	이집트 카이로	4
25	아시아배드민턴연맹 총회 및 집행위원회	7.11~2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
26	제2회 세계여자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	7.10~22	슬로바키아	1
27	세계주니어사이클선수권대회	7.12~20	남아공 케이프타운	1
28	제16회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7.18~8. 5	마케도니아 스코페	1
29	로저스컵테니스선수권대회	7.18~8. 3	캐나다 퍼몬토	1
30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및 FISA 총회	7.22~28	오스트리아 린츠	4
31	국제장애물승마심판승급강습회	7월	카자흐스탄 이스타나	2
32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7.23~8. 5	캐나다	2
33	세계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7.23~8. 6	터키 이스탄불	2

(4) 국제체육교류 사업

국제체육교류 사업으로 국제 스포츠기구 회의에 참가 파견 건수는 21건으로 총 집행액은 226,205,000원이 지출되었다.

(표 11-44) 국제스포츠기구회의 참가 파견 사업 결과

순	회의명	일시	장소	인원
1	제11차 말레이시아NOA	2.18~25	말레이시아	1
2	제4회 IOC세계여성스포츠총회의	3.6~13	요르단	2
3	IOC스포츠와환경지역세미나	3.28~29	인천	3
4	제16차 ANOC총회파견	4.5~12	중국	5
5	IOA, 임직원 세미나	5.12~19	그리스	1
6	IOC 국제관계특별위원회	5.28~6.4	스위스	1
7	제2차 FISU집행위원회파견	5.29~6.2	벨기에	1
8	OCA 스포츠 콩그레스 1차 준비회의	6.3~5	태국	1
9	OCA 스포츠를통한 평화분과 위원회	6.9~11	오만	1
10	IOA 정기연수회	6.11~25	그리스	3
11	EAGA총회 및 분과위원회	6.23~25	중국	1
12	제9차 FISU포럼 파견	6.29~7.8	폴란드	1
13	IOA 대학원생 세미나	7.1~30	그리스	1
14	제4차 여성스포츠행정세미나	8.31~9.6	스위스	1
15	OCA 스포츠 콩그레스 2차 준비회의	9.5~7	UAE	1
16	IOC 스포츠행정가석사과정	9.20~29	스위스	1
17	제6차 IOC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	9.25~29	부산	4
18	제27차 OCA총회	10.17~22	인도네시아	2
19	아시아체육기자연맹총회	11.10~15	쿠웨이트	5
20	제12차 세계생활체육총회	11.2~7	말레이시아	4
21	OCA 스포츠 콩그레스 2차 준비회의	12.14~16	쿠웨이트	1

그 외 국제체육교류비중 국제 스포츠인사 초청으로 4건의 사업이 전개되었다.

(표 11-45) 2008년도 국제스포츠인사 초청사업 결과

순	행사명	일시	장소	인원
1	Ottavio Cinquanta IOC위원(ISU 회장)초청	2.14	서울	1
2	제 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및2008드림프로그램 IOC위원 초청	2.18~21	강원도	4
3	Moustaph Larfaoui IOC위원(FINA회장)초청	2.24	서울	1
4	서울올림픽20주년기념 방한 IOC위원 초청	9.17	서울	3

한편 종목별로 개최되는 국제경기연맹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파견한 건수는 총 34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46) 국제경기연맹 총회 파견 사업 결과

순	회의명	기간	장소	인원
1	국제탁구연맹 총회	2.29	중국 광저우	1
2	세계컬링연맹 연차총회	4. 3~9	미국 그랜드폭스	1
3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연차 및 대총회	5.20~5.23	캐나다 몬트리올	1
4	제31차 세계수중연맹총회	5.22~24	이집트 허거타	1
5	국제세팍타크로연맹총회	5.23	태국 방콕	1
6	제46회 국제스키연맹총회 및 제10회 아이스하키연맹총회	5.25~31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1
7	국제봅슬레이경기연맹총회	5.26~31	이태리 시안치아노테르메	1
8	국제역도연맹총회	6.12~14	콜롬비아 칼리	1
9	국제댄스스포츠연맹총회	6.14~15	러시아 모스크바	1
10	제31차 국제 배구 연맹(FIVB)총회	6.16~17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1
11	제56차 국제루지연맹총회	6.27~28	캐나다 캘거리	1
12	국제조정연맹경기총회	7.25	오스트리아 린츠	1
13	국제복싱연맹임시총회	8. 8~24	중국 베이징	1
14	국제레슬링연맹총회	8. 9~11	중국 베이징	1
15	국제롤러경기연맹총회	9. 3	스페인 히혼	1
16	제8차 국제바이애슬론연맹총회	9. 4~7	체코 프라하	1
17	세계보디빌딩연맹총회	11. 3~7	바레인 마나마	1
18	국제산악연맹총회	10.15~19	이란 레헤란	1
19	국제골프연맹총회	10.13	호주 애들레이드	1
20	세계캐롬당구연맹총회	10.17~19	독일 ST Wendel	1
21	국제체조연맹총회	10.17~19	핀란드 헬싱키	1
22	제32차 국제카누연맹총회	11.28~29	이태리 로마	1
23	세계요트연맹총회	11. 6~16	스페인 마드리드	1
24	세계공수도연맹총회	11.10~17	일본 도쿄	1
25	국제승마연맹총회	11.16~2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
26	국제근대5종연맹총회	11.20~23	과테말라 안티구아	1
27	국제하키연맹총회	11.29	미국 LA	1
28	2008국제펜싱연맹총회	12. 6~7	프랑스 파리	1
29	국제트라이애슬론총회	11.29	스페인 마드리드	1
30	국제아이스하키연맹총회	9.25~27	스위스 몽트뢰	1

제11장 국제체육

순	회의명	기간	장소	인원
31	국제스키연맹가을회의	9.30~10. 5	스위스 취리히	1
32	세계스쿼시연맹정기총회	10.16~18	영국 맨체스터	1
33	국제야구연맹집행위원회회의	12. 1~2	영국 런던	1
34	국제우슈연맹집행위원회회의	12. 9	인도네시아 발리	1

또한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되는 아이사 경기연맹 총회 참가는 총 12건으로 다음과 같은 파견 사업이 이루어졌다.

(표 11-47) 아시아경기연맹 총회 파견 사업 결과

순	회의명	기간	장소	인원
1	아시아스쿼시연맹총회	2.20~21	쿠웨이트	1
2	동아시아핸드볼연맹회의	4. 5~7	일본 구마모토	1
3	2008 아시아사이클연맹총회	4.14	일본 오사카	1
4	제18차 아시아태권도연맹정기총회	4.25	중국 하남성	1
5	제20회 아시아볼링연맹총회	7. 2~4	홍콩	1
6	2008아시아테니스연맹총회	7.28	필리핀 마닐라	1
7	아시아빙상연맹총회	9. 4~7	태국 푸켓	1
8	아시아럭비연맹총회	11.13~14	대만	1
9	아시아공수도연맹총회	8.26	말레이시아 사바	1
10	아시아하키연맹총회	12.20	말레이시아 쿠아라룸프	1
11	아시아수중연맹총회	11. 1	중국 연태	1
12	아시아댄스스포츠연맹총회	12. 7	중국 대만	1

(5)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 사업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 및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사업 지원에 대한 건수는 세계선수권 1건과 종목별 대회 24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집행액은 세계선수권 26,276,000원이며 종목별 개최지원비는 460,779,000원이 소요되었다.

(표 11-48) 2008년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원 사업 결과

순	사업명	대회기간	장소	참가규모
1	2008 ISU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3. 7~3. 9	강원도	31개국240명

(표 11-49) 2008년도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사업 결과

순	사 업 명	대회기간	장소	참가규모
1	아시아태평양 주니어 컬링선수권	1.16~20	전북	4개국100명
2	스노보드월드컵	2.14~17	평창	24개국500명
3	제8회 아시아실내조정선수권	2.24~25	화천	5개국57명
4	바이애슬론월드컵	2.27~3. 2	평창	23개국276명
5	아시아안산악스키대회	2.16~17	평창	3개국107명
6	아시아레슬링선수권	3.17~23	제주도	30개국400명
7	국제여자챌린저테니스대회	4.27~5. 4	김천	11개국89명
8	통영월드컵트라이애슬론대회	4.23~27	통영	19개국83명
9	IDSF오픈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	4.27	서울	17개국500명
10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4.26~27	제주	32개국391명
11	4개국친선초청대회	5.13~18	영암	3개국50명
12	2008탁구코리아오픈	5.29~6. 1	대전	27개국154명
13	인천월드인라인킥2008	6.15	인천	27개국405명
14	아시아주니어스쿼시선수권	6.26~29	부산	12개국120명
15	2008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6.14~7.13	수원,울산,전주	4개국48명
16	아시아주니어대구국제승마대회	6.17~23	대구	10개국 120명
17	아시아·오세아니아 수상스키웨이크보드베어풋 선수권대회	9. 4~7	춘천	12개국75명
18	코리아오픈공수도선수권대회	9.24~29	부산	8개국371명
19	2008수원스리쿠선당구월드컵	9.28~10. 4	수원	21개국104명
20	아시아리그아이스하키	9.20~3.23	춘천	3개국210명
21	아시아주니어역도선수권	11.30~12.8	전주	19개국104명
22	제6회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	10.27~11. 2	문경	39개국250명
23	제13회 럭비아시아청소년선수권	11. 2~11	부안	8개국240명
24	국무총리배 세계야마 바둑선수권대회	11.7~11.12	고양	68개국96명

또 다른 국내에서 개최된 종목별 대회로 올림픽 재패기념 및 국위선양 사업으로 전개한 주요 3개 종목(배드민턴, 펜싱, 태권도)에 대한 국내 대회 개최 사업에 이루어져 총 282,945,000원이 집행되었다.

(표 11-50) 올림픽재패기념 및 국위선양을 위한 주요종목 개최 사업 결과

순	사 업 명	대회기간	장소	참가규모
1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	1.22~27	서울	28개국352명
2	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5.16~18	제주도	20개국130명
3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11. 1~5	수원	37개국504명

12

제12장 남북 체육교류 · 협력

제1절 개 관

제2절 남북체육교류 · 협력 정책 환경

제3절 남북체육교류 · 협력 사업

제4절 과제 및 발전 방향

제1절 개 관

1. 남북 체육교류 · 협력의 의의

남북 체육교류협력은 체육 분야가 갖는 비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남북교류 추진 시 가장 우선시되었던 교류영역이다. 따라서 남북 체육교류협력은 냉전이테올로기가 약화되고 상호 협력과 민족적 공동이익 추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서도 더디기만 했던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해 왔다.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08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문화관광부)에 따르면 10세 이상 국민 중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4%였고,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58.2%로서 전체의 64.6%가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25.2%이고, '전혀 혹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은 각각 1.6%, 8.6%로 나타났다. 이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한 2006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문화관광부)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람의 비율은 늘어난 것이다. 2006년조사에서는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7%였고,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42.6%로서 전체의 51.3%가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이다'는 응답율은 35.2%, '전혀 혹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각각 2.5%, 11.0%이었다. 2007년 「통일의식조사」(서울대 통일연구소)에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국민 중 체육인 교류를 포함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을 이루는 데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9%,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8%로서 전체의 6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남북체육교류는 1963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당시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은 긴 세월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후 남북 사이에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합의서가 교환된 것은 1991년에 이르러서였다.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는 체육교류 · 협력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문화된 바 있다.

첫째, 남과 북은 체육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 자료와 목록 등 정보 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정보자료의 상호교환은 특히 스포츠과학 연구 성과의 교환이 중요하다. 저널이나 국제경기동향분석서, 훈련지도서 등 연구 성과의 교환을 위한 공동 세미나, 연구 성과물의 교환(도서 주고받기), 국제학술회의에의 공동참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둘째, 남과 북은 체육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기술협력의 예를 들면 훈련방법, 경기의 운용기술, 심리치방, 선수영양관리법 등 선수의 경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과학적 지원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다.

셋째, 체육부문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에서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인적 교류에는 체육부문 전문인력(지도자와 선수, 교사, 교수, 연구자, 체육단체 관리자 등)교류와 생활체육 부문의 인적 교류가 해당될 수 있다.

넷째로는 남과 북은 체육관련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도서출판물 등 유관 성과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다섯째, 남과 북은 쌍방이 정한데 따라서 상대측의 각종 체육관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여섯째, 국제무대의 교환행위가 특히 많은 체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외사업의 공동 진출 및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하는 것이다.

남북체육교류·협력에서 중요한 점은 국제체육교류처럼 다양한 교류방식을 이루어나가되, 본질적으로 교류 목표가 남북 화해협력, 통일이라는 과제를 달성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 분야의 경우 '9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 구성 경험이 있고, 2000년대에는 국내 개최 국제대회인 2002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 대구 하계아시야드에 대규모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의 파견이 이루어졌다. FIFA와 IOC 등 국제적 스포츠기구가 존재하고, 국제체육 외교의 장에서 남북관계자가 접촉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남북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의 교류보다 쉽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올림픽 운동 등 국제 스포츠환경은 평화공존과 화합을 지향한다. 따라서 남북 체육교류는 평화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수월하며 국제적 이목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교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체육교류는 단순히 서로의 경기력을 과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일체감 조성과 신체적 접촉을 통한 상호교류라는 측면에서 타 분야가 지닐 수 없는 교류 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회식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공동입장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흥분과 감동을 안겨다 주었다. 남북한 공동입장은 시드니올림픽을 지구촌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만든 결정적인 이벤트였다. 이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에서는 모두 남북한 선수가 손을 맞잡고 함께 입장하였다.

올림픽 개폐회식에서의 선수단 공동입장은 남북체육교류 · 협력의 성과를 잘 보여 준다. 공동입장의 경우 세계 각국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남북 화해협력의 의지를 확신시켜주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볼 수 있었다.

남북체육교류의 또 다른 성취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을 뿐 만 아니라 수백 명의 응원단을 별도로 파견하였다. 특히 북한 응원단의 파견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대북 접촉 기회가 없던 일반국민들에게 직접 북한 사람들을 대면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부산아시안게임의 소중한 경험은 지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해서도 계승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남한 관광객의 피격사건 발생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 전반이 경색되면서 체육 분야의 남북교류도 전반적으로 후퇴하였다. 한국 체육계의 숙원이었던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응원단 파견 또한 무산되었고, 남북 선수단의 올림픽 개회식 공동입장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체육 · 교류 협력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할 것이다. 남북체육교류 · 협력을 통해 남북 간 평화화해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일은 통일 환경의 조성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좌절된 민족국가의 복원과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통하여 민족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 본다면 남북 간 체육교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체육교류 · 협력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타 분야의 교류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남북한 체육교류는 역사성을 갖는 문화행사로서 전통을 갖고 있다. 경평전과 같은 경기대회가 분단 전부터 해방 직후까지 면면히 유지되던 남북체육교류의 전통을 이어 왔다. 경평전은 1929년 시작된 경성(서울)과 평양간에 축구교류전으로서 당시에는 민족의 관심사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 대회는 함흥을 포함한 3대도시 교류 전에서 나중에는 전국 주요 도시대항전으로까지 발전하여 남북교류의 전통을 만들어왔다. 또한 해방 이후 서울운동장에서 열렸던 마지막 경평전에는 축구 이외에 농구경기도 경평대항전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체육교류는 우리민족의 관심과 교류의 필요성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남북체육교류 · 협력은 다른 영역의 교류에 비해 더 긴 교류노력을 공유해왔다. 남북한 체육

교류를 위한 체육회담은 1958년부터 나타난다. 남북체육회담제의는 1960년 제17회 로마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각종 국제대회와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마다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둘째, 체육교류협력은 타 분야의 교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중성을 지닌다. 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체육교류가 민족공동체 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스포츠는 일반인의 삶 속에 매우 친밀한 소재로 결합되는 일상재로서 규정되고 있다. 2006 독일월드컵대회 동안 한국의 대 스위스전의 TV시청률은 30.1%이고 한국 대 프랑스전은 29.5%로서 시청률 점유율 면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높았다. 특히 남북교류가 동질적인 민족공동체意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중성을 지닌 스포츠야말로 민족적 동질성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한 체육은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스포츠는 동일한 경기규칙규정에 의해 경기가 진행되므로 남북 간의 이질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류될 프로그램의 내용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남북교류의 장애요인이 없다. 또 신체의 표현 형식에서 이념이 드러날 소지가 거의 없으므로 교류의 내용과 형식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간의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체육교류·협력은 1990년 서울과 평양 간 축구교류전과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출전을 통해 남북 양측에서 합의한 전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전례는 체육 내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부분 - 예를 들면 단일팀 파견 시 국기 사용, 국가, 국호 등 어느 정도 양측이 인식을 공유하는 합의점이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체육교류는 국제단체를 통한 중재가 가능하다. 남북한 체육교류는 양 당사자간에 진행되었지만 국제체육의 장(場)에서 국제체육단체라는 중재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문의 교류와 다른 교류의 틀을 갖추고 있다.

남북인적교류가 가능한 언론, 문화, 예술 등의 제 분야와 달리 체육 분야의 경우 남한과 북한을 중재할 수 있는 국제적 기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IOC, OCA, 각 종목 국제경기연맹 등의 국제적 중재 기구가 남북체육교류 실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국제적 기구를 통해 남북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견 조정을 위해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체육관련 국제기구는 남북한 체육교류 실현을 위해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

왔다. 국제유도연맹의 경우 '98년 5월 대한유도회가 요청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승인하면서 1개국에서 1팀만 출전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예외로 적용한 바 있다.

또한 IOC는 남북체육교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 '97년 IOC가 북 NOC측에 남북한간 긴장완화를 위한 체육교류를 제안한 이후 '98년 9월에는 IOC의 특사가 축구, 탁구,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남북한 교류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FIFA의 경우에도 남북한의 축구교류가 '축구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라는 FIFA의 이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남북간 축구교류 및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체육교류의 특성 때문에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다른 부문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남북간 역사적 관계에 비추어 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용이하고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남북 체육교류 · 협력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체육교류가 국가간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사실은 현대 세계사에서 적잖게 나타난다. 1972년 미국과 중국 관계를 급변시킨 계기는 평풍경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평풍외교'가 시작된 지 불과 10개월 만인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전까지 상대방을 적대시해오면서 어떠한 사회 문화적 교류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스포츠경기는 양국간의 긴장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특히 80년대에는 서울올림픽을 통해 동서 진영 간 정치적 화해를 도모할 수 있었던 전례가 있다. 88서울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올림픽 경기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걸쳐 8년 동안 동서간의 정치적 대결로 점철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에 소련과 동구권을 포함함 공산국들 대부분이 참가함으로써 1976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지 12년 만에 동서화합을 이루게 되었다.

남북교류의 정치적 기능으로 볼 때 남북체육교류가 갖는 정치적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평화정착 단계에서는 특히 인적왕래와 정보자료교환을 통해 교류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체육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체육교류는 결과적으로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긴장관계를 완화시킴으로써 모든 분야의 대화,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나아가 남북통일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사회문화적 기능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상대방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이해를 통해 경쟁적인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는 것이라 할 때 체육교류는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기능을 하게 된다.

첫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의 사회 정서적 기능이나 사회 통합의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남북체육교류는 분단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오는 동안 약화된 민족의식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둘째, 남북체육교류는 동포애를 고무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지난 2002 부산아시아안게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부산아시아안게임이나 시드니 올림픽에서처럼 국제대회에서 남과 북의 응원단이 서로 상대방의 경기를 응원해 준다거나 또는 남북 양팀이 대결하는 경기에서 상대팀에 대한 공평한 응원 등은 민족의 화합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셋째, 남북체육교류는 민족의 정체성을 정립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었던 것이 1991년 일본에서 열렸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코리아 팀'을 구성하여 출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예일 것이다. 이 같은 남북 체육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민족의 능력을 평가받음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게 되며, 그것은 곧 민족의 정체성 정립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남북체육교류는 남북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거의 반세기 동안 분단된 상황에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 온 까닭에 생활의 양식과 사고방식 등에서 차별화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는 문제는 분단 상황의 극복을 위한 1차적 과제가 되었다. 남북한 체육교류는 체육인들의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상대방 체제와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생각하는 방식을 알게 된다. 이것은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단초로 작용하여 점차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진되어 갈 것이다.

3) 경제적 기능

남북체육교류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무드 조성에 일조하여 우리나라 국제 신용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외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스포츠 이벤트의 국내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체육교류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육과 관광이 연계되어 파급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남북간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적 체육행사가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지역의 이미지와 매력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남북체육 교류과정에서 체육행사와 병행하여 이벤트 관광을 실시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소강상태에 빠져있지만 금강산에 조성되었던 골프장은 금강산 관광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 바 있다. 골프장 이외에도 자동차 랠리나 자전거경주대회 등 도로를 활용한 경주대회, 정주영체육관 등 인지도가 높은 북한의 체육시설을 활용한 교류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정책 환경

1. 법제도적 기반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1990년 공포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의 1조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법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동법 24조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범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1997년 통일원장관의 고시로 발표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주민왕래, 주민 접촉, 교역 및 기타 협력사업을 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력사업은 법률적으로 “남과 북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 활동”(동법 2조)으로 폭넓게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그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과 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동 규정 3조)로 정의되었다. 이중 체육관련 협력사업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다음과 같이 범위가 명시되었다.

제3조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 학술연구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체육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의 협력 하에 주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국제체육과)은 남북체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이다. 통일부의 경우 사회문화교류본부(문화교류팀)에서 담당하고 정부 협의체로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두고 있다. 동 추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

조정 및 기본 원칙 수립'(동법 6조 1항)과 '남북 교류 · 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 · 승인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 · 조정'(동법 6조 2항)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증하는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2. 교류 자원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은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으로서 승인을 받게 되면 다른 부문교류와 같은 조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는 체육교류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 · 예술 · 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참가사업(2억 5700만원)과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사업(7억 7500만원)에 지원된 바 있으며, 그 이후 2000년대 들어서 2002년도 부산아시아게임(21억 2600만원), 남북통일축구경기(1억 5300만원), 남북태권도시범단교환(1억8900만원) 등에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13억5600만원), 제주 민족평화축전행사(4억9700만원)에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승인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기본방향

- 남북의 화해협력에 기여하는 가운데 건전하고 질서 있게 추진되는 협력사업에 대해 지원
- 지원방식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matching fund 방식으로 지원
- 지원 시기는 협력사업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정하되, 사업시행과정 혹은 시행이후 실제 소요시기에 지원
- 왕래경비는 방남 행사와 방북 행사를 구분하여 지원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또 하나의 공적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을 위해 조성되었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남북 체육교류를 위한 재원으로서 근거는 뚜렷이 명시된 바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11호의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가 규정화되어 있지만 이 조항에 근거한 시행령 역시 남북체육교류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체육교류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뚜렷하게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행히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관 제22조에 따르면 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조항에 근거하면 남북체육교류의 촉진이 정부의 정책사업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남북체육 교류에의 지원은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단복제작비 및 2006년 남북단일팀 구성 체육회담 개최비 등에 지원된 바 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장춘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공동입장 단복제작, 북한 청소년축구단 전지훈련비 지원, 남북축구친선교환경기 및 축구장 개보수 지원, 체육용품(축구화)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전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남북체육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한 교류사업- 주로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노력-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체육 교류가 평평 외교처럼 경색된 남국가 교류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체육단체나 관련 민간단체가 교류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체육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기금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이 다소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제3절 남북체육교류 · 협력 사업

1. 1990년 이전 남북체육회담을 통한 체육교류의 발전

남북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최초의 접촉은 1964년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1963년 1월 스위스 로잔에서 회담한 것이다. 이후 냉전 이데올로기의 강화에 따라 남북체육교류는 회담조차 없이 1978년까지 이어져온다. 그리고 1979년 제35회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를 위해 그 해 2월과 3월 판문점에서 4차례 접촉하게 되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1988년 서울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90년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문제 등으로 접촉하게 된다. 즉 1990년까지는 실질적인 체육교류라기 보다는 접촉단계로서 의미를 가지며,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 해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체육교류의 장을 열게 된다.

(표 12-1) 남북체육회담 주요일지

날 짜		장 소	명 칭	내 용
1963	1. 24	스위스(로잔)	동경올림픽 단일팀 구성 회담	동경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 토의(결렬, 별도참가)
	5. 17	홍콩	단일팀 구성 실무 1차 회담	동경올림픽 단일팀 구성
	7. 26	홍콩	단일팀 구성 실무 2차 회담	동경올림픽 단일팀 구성
1979	2. 27	판문점	제1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제35회 평양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 (결렬, 한국 참가무산)
	3. 5	판문점	제2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3. 9	판문점	제3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3. 12	판문점	제4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1984	4. 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LA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결렬, 북한 불참)
	4. 30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LA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5. 25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LA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날 짜		장 소	명 칭	내 용	
1985	10. 8~9	스위스(로잔)	제1차 남북체육회담	올림픽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협의(결렬, 북한측이 IOC수정안 거부, 북한 불참)	
1986	1. 8~9	스위스(로잔)	제2차 남북체육회담		
	6.10~11	스위스(로잔)	제3차 남북체육회담		
1987	7.14~15	스위스(로잔)	제4차 남북체육회담		
1989	3. 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논의(결렬, 별도참가)	
	3.28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10.20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11.16	판문점	제4차 남북체육회담		
	11.24	판문점	제5차 남북체육회담		
	12.22	판문점	제6차 남북체육회담		
	1990	1.19	판문점		제7차 남북체육회담
		1.29	판문점		제8차 남북체육회담
		2. 7	판문점		제9차 남북체육회담
1990	11.2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남북통일축구 정례화,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논의	
1991	1.15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토의	
	1.30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탁구단일팀 파견 및 청소년 축구 대회논의	
	2.12	판문점	제4차 남북체육회담	탁구단일팀 파견 및 청소년 축구 단일팀 구성합의	

2.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89년부터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의 단일팀 구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던 남북체육교류는 '90년 4월에 일시 중단되게 된다. 그리고 '90년 9월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10월 11일 평양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남북체육회담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다시 열렸다. 동 체육회담은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와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공동 발표하고 일본 지바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양 대회에 단일팀 출전을 이루게 되었다.

(표 12-2)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 · 평양 교환경기 개최 현황

구 분	평양 대 회	서울 대 회
방문기간	'90. 10. 9 ~ 10. 13	'90. 10. 21~10. 25
방 문 자	76명(선수단 45, 인솔 11, 보도 20) -인솔 : 체육부장관(정동성)	78명(선수단 45명, 인솔 11, 보도 22) -인솔 : 국가체육위원회위원장(김유순)
경기일 / 장소	'90. 10. 11 / 5 · 1경기장	'90. 10. 23 / 잠실주경기장
방문경로	서울-베이징-평양-판문점-서울	평양-판문점-서울
경기결과	북한승리 (2:1)	남한승리 (1:0)

남북체육교류는 '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 이후에 침체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가장 쉽게 교류할 수 있는 분야로서 체육교류 추진에 관심을 두고, 1994년 대통령 업무보고 안에는 문화체육부가 '남북문화체육교류 세부합의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북한의 폐쇄 정책으로, 남북체육교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남북체육교류는 아니지만 1997년 전국체전에는 북한의 수영 대표선수로 활약했었던 재일동포 선수(이여애)가 재일 동포 선수단의 구성원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1998년에는 방콕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단일팀 구성을 의제로 우리가 제안한 남북 체육 회담제안은 북한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간 체육회담이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민간부분의 남북체육교류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8월 노동단체가 주도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평양에서 열렸으며, 11월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 나서는 체육교류의 장이 열렸다. 현대는 북한과 합작 사업으로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여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 실내체육관의 기공식을 전후로 남북 농구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평양시내 8,000여평의 부지에 12,335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이 추진하는 평양실내체육관건설 사업은 남북 협력 사업으로, 남한의 건설근로자가 상주하고 건설물자와 장비 등이 육로로 운송되기도 하였다.

삼성전자는 2000년 7월 평양현지공장 설립을 앞두고 평양체육관에 전광판을 기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통일탁구대회'라고 명명한 남북 탁구경기대회를 열었다. 남녀 단복식과 남남복녀, 북남남녀가 짝이 되어 치른 혼합복식 등 5경기가 진행되었다. 2000년에는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금강산자동차질주경기대회를 7월 3~4일 양일간 남북한 양측을 가로지르는 지역에서 시행하였다. 동 대회에 남한에서는 인원이 22명, 자동차 47대가 참가하였다. 2000년에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이 성사되어 남북팀이 단일 국기와 국가, 복장으로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가하였다.

그 해 10월 제81회 부산전국체전 성화가 금강산에서 채화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2001년 이전 남북한간의 체육교류·협력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3) 1991년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현황

구 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일시/장소	'91. 4. 24 ~ 5. 6 / 일본 지바현	'91. 6. 14 ~ 6. 30 / 포르투갈 리스본
호 칭	「코리아」, 「KOREA」	좌 동
단 기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	좌 동
단 가	1920년 우리나라 「아리랑」	좌 동
선수선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서울·평양 공개 평가전을 기초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선수단구성	단장(북측) 총 56명(남북 각 28명, 선수 각 11명씩)	단장(남측) 총 62명(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선수훈련	일본전지훈련('91. 3. 26 ~ 4. 23)	남·북왕래훈련('91. 5. 6 ~ 5. 21) - 서울평가전 5. 6 ~ 9/70명(잠실) - 평양평가전 5. 10 ~ 16/70명(5·1) - 서울강화훈련 및 결단식 5. 17 ~ 21 72명(잠실주경기장)
선수단경비	남·북 공동부담	좌 동
장비조달	단복-북측, 운동복 등-남측	좌 동
귀 국	'91. 5. 8(동경에서 서울·평양으로)	'91. 6. 28(북한), '91. 6. 29(남한)
대회결과	여자단체전우승 및 개인단식준우승(리분희) 남자개인단식 3위(김택수) 혼합단식3위	8강진출(예선 1승1무1패) 준준결승전에서 브라질에 패배(5:1)

(표 12-4)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

사 업 명	개최지	일 시	참 가 자	비 고
남북(대표팀)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 (1990)	평양	'90. 10. 9 ~ 10. 13	76명(선수단 45, 인솔 11, 보도 20)	남한 : 체육부장관 인솔
	서울	'90. 10. 21 ~ 10. 25	78명(선수단 45명, 인솔 11, 보도 22)	북한 :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인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1991)	일본 오사카	'91. 4. 24 ~ 5. 6	총56명(남북 각 28명, 선수 각 11명씩)	한반도기 사용 국가 : 아리랑

사 업 명	개최지	일 시	참 가 자	비 고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1991)	포르투갈 리스본	'91. 6. 14 ~ 6. 30	총62명(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한반도기 사용 국가 : 아리랑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 대회(1999)	평양	'99. 8. 10 ~ 8. 14	37명(선수단 22, 인솔 15) 남북 노동단체	8.12(남북대결) 8.13(남북혼합팀 구성)
현대 통일농구 교환경기(1999)	평양	'99. 9. 27 ~10. 1	79명(선수단 42, 현대관계자 31, TV중계요원 6)	9.28(혼합경기) 9.29(남북대결)
	서울	'99. 12. 22 ~12. 25	62명(선수단 38, 교예단 14, 위성중계 기술자 2, 아태관계자 8)	12.23(혼합경기) 12.24(남북대결)
금강산 자동차질주 경주대회(2000)	서울, 평양, 금강산	'00. 6. 30 ~ 7. 4	차량 56대(경기차량 23대 포함), 241명	사업대가로 100만불 지급
삼성통일탁구 경기대회(2000)	평양	'00. 7. 26 ~ 7. 30	50명(선수단 13, 인솔 37)	남북대결 및 남북혼합팀 구성 경기
시드니올림픽대회 개막식 공동입장	호주 시드니	'00. 9. 15	남북 각 90명씩 180명	한반도기 사용 호칭 : KOREA
제81회 부산전국체전 금강산 성화채화(2000)	금강산 옥류동 무대 바위	'00. 10. 1	50명 (주관 : 부산광역시- 금강산관광총회사)	

3. 2001~2008년

1) 남북 체육회담

2001년 체육교류를 위한 접촉은 2월 제2차 통일염원 국제펠리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남북 당사자간 회담이 이루어졌고, 이어 3월에는 남북태권도시범단 교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후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문제를 협의하고(3월), 제18회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북한측을 초청하기 위한 업무(9월) 및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만남(11월) 등이 이루어졌다. 2001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이 공동응원을 하였고, 공동응원 경비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5,000만원

이 지원되었으며, 대한양궁협회와 삼성그룹에서 체육용품 및 체육설비 지원이 있었다. 2001년에는 남북체육교류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체육교류협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한편 방북을 통한 교류사업으로는 2001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 지역에서는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주최하는 제2회 자동차질주경기대회가 개최되었고 8월 15일에는 국제모터사이클 투어링이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12개국 모터사이클 동호인 35명 등 총 399명이 참가하였는데, 남한에서는 46대 차량과 209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2001년은 현대아산에서 건립하고 있는 평양실내체육관 건설사업이 계속 시행되었다. 이외에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사업이 합의된 바 있다. 당시 태권도시범단 교환 행사를 위해서 남한의 대한태권도협회와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 간의 협의를 위한 접촉 과정에서 북한의 협의 거부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북한이 제시한 협의 거부 이유는 미국 뉴욕의 9.11 테러로 인해 남한에 내려진 비상경계조치였다. 2001년 3월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방북 하였고, 방북 중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북측이 준비 상 어려움을 제기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체육교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합의된 이후에도 북한은 2001년부터 2002년 초까지 남북 당사자간 체육교류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2002월드컵의 경우도 분산개최와 단일팀 구성이 목표로 논의되면서 남한 축구협회 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과 함께 방북해서 현안 사항을 협상해나갔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2002년은 남북체육 교류에 있어서 획기적인 한 해였다. 그 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지던 국제행사에는 무조건 불참하던 북한이 대규모선수단을 이끌고 2002년 부산아시아안게임에 응원단과 함께 참가한 것이다. 역시 같은 해 남북태권도 시범단 교류가 있었고 이후에도 태권도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도 실시하는 등 민간 교류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후 북한은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였다. 같은 해 남북은 민간차원의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개최와 같은 대규모 남북체육문화교류사업을 성사시켰다.

이외에도 2003년 물밑에서 남북 체육교류를 위한 접촉도 진행되었다. 주요 접촉사례로는 「2004 국제평화마라톤대회」, 2005년도 동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 준비 등 남북유도 교류협의, 서울-평양 여자축구 교류관련 협의 등이 있다.

2004년은 아테네올림픽이 개최된 해이다. 아테네 올림픽은 또 다시 남한과 북한 선수단이 한반도 기를 흔들고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석하여 전 세계에 남북한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아테네올림픽 기간 동안에 일어난 방송위원회와 북측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간의 협력사업은 직접적인 체육교류는 아니지만 올림픽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문화교류의 진전이다. 2004년 8월 한국은 북한주민이 아테네올림픽 개막식 이후 국제경기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올림픽 중계 북측방송 중계를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남측에서 개최한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통일축구대회에 북측 남녀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제4회 마카오동아시아 경기대회에도 남북한 공동입장이 이루어졌다.

2005년 말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2008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의 남북 단일팀 참가는 남북 체육교류의 오랜 숙원이라 할 만하다. 남북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들은 2005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렸던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 기간동안 회합을 갖고 2006도하아시안게임 및 2008베이징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2006도하아시안게임과 2008베이징올림픽게임 단일팀 구성을 의제로 한 남북체육회담이 2005년 12월 7일 북한 개성에서 열렸다. 남북 체육계간의 협력분위기는 2006년 6월 29일 역시 북한 개성에서 열린 2차 남북체육회담으로 이어졌다. 제2차 회담에서는 북측의 요구에 의해서 도하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의제는 단일팀 선수단의 명칭(코리아), 선수단가(아리랑), 단기(독도 포함 한반도기), 단일팀 선포식 일정 및 훈련방법에 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3차 회의에서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에 대한 남북간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카타르 도하에서 이루어진 제3차 남북체육회담과 2007년 2월 개성의 제4차 회담에서도 파견할 단체종목의 선수선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2008 베이징올림픽단일팀 구성을 위한 선수선발 원칙에 대해서 개인종목의 경우는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 모두를 단일팀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이 합의되었으나 단체종목의 선수선발 원칙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측은 5:5 동수로 단일팀을 구성해서 예선전부터 참가하며 경기출전은 실력위주로 할 것을 안으로 내놓았고 남측은 남측이 각각 예선전에 참가하여 자격을 획득하고 결과적으로 일방만 획득한 경우는 그 일방을 주축으로 상대방의 우수선수를 포함시키고, 양방이 획득한 경우는 엔트리 2배수의 상비군을 구성하여 경기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하자고 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남북단일팀구성을 권고 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IOC는 2006년 12월 24일 남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종목의 경우는 남북올림픽위원회가 각각 개별적으로 참가자격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종목의 국제연맹과 최종 참가자격 및 인원에 대해 협의하며 단체종목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예선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 국제연맹과 종목별로 단일팀에 적용할 참가인원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두어 인정할 것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2007년 2월 13일 개성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체육회담에서는 핵심쟁점인 선수선발 방식과 예선전참가방식에 대해 재논의하였다. 북측은 단체종목의 선수선발 방식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5대5 동수로 단일팀을 구성해 종목별 예선전부터 출전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남측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에 따라 예선전에 개별적으로 참가한 후 참가자격 획득팀을 중심으로 단일팀을 구성하지는 안과 이것이 어려울 경우 엔트리의 두 배수 범위 내에서 남북 5대5 동수로 팀을 구성한 후 평가전 등을 거쳐 우수선수를 최종 선발하여 출전시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다만 선수선발 문제를 제외한 여타 문제(단일팀 명칭, 단가, 단기, 임원구성, 공동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견접근을 보였다.

선수단 구성 문제로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2007년 10월 개최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2008 베이징올림픽을 맞이하여 경의선 열차를 이용, 남북공동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6일 개최된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2월 28일 개성에서 갖기로 합의하였고, 12월에 제1차 실무접촉이 개최되어 응원단 규모, 응원단 이용 열차, 운행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8년 2월 4일 개최된 제2차 실무접촉에서는 응원단 규모(지원인원 포함) 남북 각각 150명씩 300명, 응원단의 개·폐막식 참가 등에 대해 합의하고 「2008년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본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남북응원단 규모를 300명으로 하며 전·후반기 남북 각각 150명씩으로 하자며 제1차 실무접촉 시 남측이 제안한 응원단 규모에 동의하였고,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가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응원단 이용열차 및 열차이용과 관련해서 남측은 이용할 열차, 운행횟수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응원단 실무접촉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이 문제는 경의선 개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철도관계자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여 경의선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또한 남북은 남북응원단이 개·폐막식에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응원종목은 남과 북의 경기 참가종목이 확정된 후에 선정하며, 응원곡, 응원복장, 응원형식·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과 입장권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 외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및 응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결국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파견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2000년 이후 계속된 남북 동시입장 또한 무산되고 말았다. 대한올림픽 위원회는 공동입장을 위한 체육회담 개최를 위해 2008년 전반기에만 수차례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접수조차 거부했다. 특히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한 뒤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체육분야 또한 마찬가지였다.

4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나란히 참석했지만 베이징(北京) 올림픽 남북단일팀 및 공동응원단 구성을 위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기간 박학선 신임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양자 회동을 갖자고 2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남측은 베이징 회담장 현지에서도 체육회담을 추진했지만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장이 호텔 식당에서 박학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우연히 만나 상견례만 했을 뿐 공동입장의 사전절차인 실무자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남북한 스스로 공동입장에 대한 해법을 풀어가지 못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BOCOG)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2008년 6월 자크 로게 위원장 명의로 남북한 정상에게 공동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던 IOC는 베이징 현지에서도 북한과 접촉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

베이징 올림픽 현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8월 2일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박학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러 왔으니 그 문제는 후에 논의합시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북한선수단 선발대로 도착했던 윤용복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은 "10.4선언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결국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 공동입장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양측 모두 거부했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공동입장이 무산되자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화합 분위기라도 조성하기 위해 입장순서를 한국은 176번, 북한은 177번째로 정했지만 북한은 이마저 거부하고 180번째로 입장하였다.

2) 남북체육교류

(표 12-5) 2000년~2008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주요 사항)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제 2차 금강산 자동차질주 경주대회(2001)	금강산	'01. 7.29 ~ 7.31	차량 56대(경기차량23대 포함), 241명	사업대가로 지급
태권도시범단 교환(2002)	평양	'02. 9.14 ~ 9.17	65명(남측35, 북측30)	- 7차 남북장관급회의 실무회의 합의에 근거 - 황봉영 조선태권도 위원회의 초청
	서울	'02.10.14 ~ 10	62명(남측41, 북측21)	
남북통일축구경기(2002)	서울	'02. 9. 5 ~ 9. 8	리광근 등 49명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2002)	부산	'02. 9.22 ~ 10.15	박명철 등 668명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2002)	부산	'02.10. 8 ~ 10.15	장웅 등 7명	
아오모리동계아시아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2003)	일본 아오모리	'03. 2. 1 ~ 2. 8	- 남한 선수단 110명 - 북한 선수단 40명	- 단기 : 한반도기 - 북한 2.30일 밤 전격 제안, 남한 수용으로 성사
22회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2003)	대구	'03. 8.20 ~ 9. 1	전극만 등 524명	- 선수단 197명 - 응원단 327명
남북태권도교류 협의 및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참관 (2003)	대구	'03. 8.17 ~ 8.21	장웅 등 3명	
경주영체육관 개관식 및 통일축구대회(2003)	평양	'03.10. 6 ~ 10. 7	김은규 등 800여명	- 경의선 임시도로로 육로 방북 - SBS 평양에서 통일 농구대회 중계
제주민족평화축전(2003)	제주	'03.10.23 ~ 10.28	김영대 등 190명	- 행사직전 취주단, 예술단 불참통보로 물의야기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 (2004)	그리스 아테네	'04. 8.14 ~ 9	- 남한선수단 136명 - 북한선수단 50명	- 단기 : 아리랑 - 단기 : 한반도기
제2회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2005)	대구, 전주, 대전	'05. 7.31 ~ 8. 7	북 선수단 65명	
남북통일축구(2005)	서울	'05. 8.14 ~ 8.16	남 · 여 선수단	

제12장 남북 체육교류 · 협력

사 업 명		개최지	일 시	참 가 자	비 고
제4회 마카오동아시아 경기대회 공동입장(2005)		마카오	'05.10.29 ~ 11. 6	남북선수단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강원도 겨울철체육경기		춘천	'06. 3. 2 ~ 3. 5	선수단 36명(단장 정덕기 북측 민화협 부회장)	- 남북선수단 합동훈련 - 남측대학 선발팀과 북한 선발팀 혼성경기 - 남북 시범경기
도하아시아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2006)		카타르 도하	'06. 2 ~ 12.15	남북선수단	- 공동기수는 이규섭선수(남측)와 리금숙선수(북측)
남북유소년 축구선수단 상호교류	북한 청소년팀 방한	제주, 수원, 순천, 광양, 서울	07.3.20 ~ 4.20	북 선수단 23명	- 15~17세 - 전지훈련
		강진	07.6. 1 ~ 6.14	북 선수단 34명	- 15이하 - 친선 경기
	남한 청소년팀 방북	평양	07.6.23 ~ 7. 3	남 선수단 26명	
		평양	07.11. 3 ~ 11.14	남 선수단 22명	
북한태권도 시범단 방남		서울, 춘천	07. 4. 6 ~ 4. 9	북 시범단 48명	- 단장: 장웅 IOC 위원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창원	07. 4.30		- 5·1절노동자통일대회 행사 - 북 대표단 60명 방한
2007 FIFA 청소년(U-17) 월드컵대회		서울 등 8개 도시	07. 8.18 ~ 9. 9	북 선수단 31명	- 16강 진출 - 2회연속 8강 진출 실패
제2회 국제청소년 친선 축구대회(10.16~25)		전남 강진	07.10.13 ~ 10.25	북 선수단 22명	- 한국, 북한, 프랑스 등 7개국 참가 - 한국 중등축구연맹 주최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준공식		평양	07.11. 9	남 대표단 145명	- 축구장 시설 현대화사업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제주도	08. 4.26 ~ 27	북 선수 7명	
제3회 동아시아축구대회		중국 충칭	08. 2.20		- 경기결과 1:1
2010남아공월드컵축구대회 3차 예선전		중국상하이	08. 3.26	남북 축구대표팀	- 경기결과 0:0
		서울	08. 6.22	남북 축구대표팀	- 경기결과 0:0
2010남아공월드컵축구대회 최종예선전		중국상하이	08. 9.10	남북축구대표팀	- 경기결과 1:1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축구단 교류		평양	08.10. 8 ~ 15	경수유소년축구단, 임원 등 30여명	- 친선경기 및 합동훈련
2008베이징올림픽 코리아응원단		중국베이징	08.8.10 ~ 14	응원단 400여명	- 남북한 팀 경기 응원

(표 12-6) 체육 관련 북한방문 현황(2001년~2008년)

(단위 : 건/명)

구 분	신 청	승 인	불허	철회	처리중	성 사
2001	전 체	786(9,148)	737(8,805)	3(30)	-	698(8,551)
	체 육	44(362)	43(353)		1(9)	37(310)
2002	전 체	802(13,502)	774(12,979)	5(167)	27(349)	753(12,825)
	체 육	38(336)	37(326)		1(10)	37(326)
2003	전 체	1,060(16,161)	1,028(15,697)	(17)	33(496)	983(15,280)
	체 육	19(1,190)	19(1,190)	-	-	19(1,190)
2004	전 체	1,532(30,455)	1,497(29,410)	-	-	1,428(26,213)
	체 육	6(8)	5(7)	-	-	4(5)
2005	전 체	6,475(98,945)	6,494(97,464)	1(32)	7(1,604)	6,086(87,028)
	체 육	28(804)	28(804)	-	-	27(799)
2006	전 체	11,297(97,343)	11,273(95,251)	3(529)	6(1,50)	12,468(100,838)
	체 육	34(266)	32(251)	-	-	34(266)
2007	전체	12,807(111,650)	12,803(109,476)	3(129)	33(2,078)	29,862(158,170)
	체육	68(1,272)	68(1,272)	-	-	65(1,198)
2008	전체	71,099(117,020)	70,987(115,174)	107(357)	3(1,677)	119,884(186,443)
	체육	25(308)	25(308)	-	-	22(272)

*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에서 재작성

주 : 전체에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과학환경,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등으로 금강산 관광은 제외함.

(표 12-7) 체육 관련 북한주민접촉 현황(2001년 8월~2008년)

(단위 : 건/명)

구 분	신 고	수 리	수리거부	철회	처리중	성 사
2001	전 체	1,169(2,332)	1,145(2,283)	17(48)	6(11)	1,211(1,879)
	체 육	26(84)	24(80)	-	1(3)	11(27)
2002	전 체	1,485(3,434)	1,453(3,367)	5(10)	12(39)	621(1,981)
	체 육	35(194)	34(192)	-	2(3)	24(147)
2003	전 체	1,581(4,169)	1,527(3,991)	13(57)	18(50)	954(1,964)
	체 육	24(107)	24(107)	-	-	12(31)
2004	전 체	1,663(6,778)	1,683(6,736)	-	-	1,349(5,385)
	체 육	37(167)	34(163)	-	-	31(51)
2005	전 체	1,322(3,518)	1,394(3,590)	-	2(2)	1,172(3,301)
	체 육	48(163)	48(163)	-	-	46(136)

제12장 남북 체육교류 · 협력

구 분	신 고	수 리	수리거부	철회	처리중	성 사
2006	전 체	861(2,853)	860(2,852)	-	-	783(2,744)
	체 육	24(124)	24(124)	-	-	24(124)
2007	전 체	994(2,448)	986(2,441)	-	-	936(2,474)
	체 육	2(2)	2(2)	-	-	27(87)
2008	전 체	681(1,465)	681(1,465)	-	-	689(1,600)
	체 육	18(175)	18(175)	-	-	18(175)

*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에서 재 작성

주 : 전체에 포함된 분야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과학 환경,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등으로 금강산 관광은 제외함

(표 12-8) 체육 관련 남한방문 현황(2001년~2008년)

(단위 : 건/명)

구 분	신 청	승 인	불 허	철회	처리중	성 사
2001	전 체	5(191)	5(191)	-	-	5(191)
	체 육	1(1)	1(1)	-	-	1(1)
2002	전 체	13(1,120)	13(1,120)	-	-	13(1,052)
	체 육	4(883)	4(883)	-	-	4(765)
2003	전 체	11(1,023)	11(1,023)	-	-	11(1,023)
	체 육	3(717)	3(717)	-	-	3(717)
2004	전 체	13(321)	13(321)	-	-	13(321)
	체 육	0(0)	0(0)	-	-	0(0)
2005	전 체	30(1,313)	30(1,313)	-	-	30(1,313)
	체 육	1(78)	1(78)	-	-	1(78)
2006	전 체	42(888)	42(888)	-	-	41(870)
	체 육	1(4)	1(4)	-	-	1(4)
2007	전 체	69(1,052)	69(1,052)	-	-	69(1,044)
	체 육	6(221)	6(221)	-	-	6(213)
2008	전 체	48(332)	48(332)	-	-	48(332)
	체 육	4(76)	4(76)	-	-	4(76)

*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에서 재 작성

주 : 전체에 포함된 분야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기타 등임

체육교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간에 인적 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 지침」 시행 이후 점차 활발해져가고 있다. 2008년의 경우 남북간 교류를 목적으로 한 방북 건수는 119,884건이며 방북한 인원수는 186,443명이다. 체육 관련 방북 사례는 22건이며 방북자수는 272명

으로 집계되었다.

(표 12-8)에 제시된 대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 건수는 총 230건이며 방문자수는 6,146명이다. 체육과 관련해서 남한을 방문한 건수는 총 20건이며 방문자수는 1,854명이다. 남북 체육교류의 경우 남한방문 건수에 비해서 방문자수가 많은 것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나 대구유니버시아드 등 인적 교류규모가 큰 경기대회 개최로 인한 것이다.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우 북한선수단 186명, 응원단 303명 등 489명이 대회 참가를 위해서 남한을 방문했으며, 10월에는 제주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이 개최되어 북한선수 110명, 참가단 80명 등 총 190명의 북한주민이 제주도를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이 행사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던 행사로 행사준비과정 및 협상 등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을 야기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이루어진 남북교류와는 달리 사상 처음으로 남북만이 참가하는 행사였다는 점과 교류종목이 정식종목 이외에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등 민속경기도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일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체육 분야의 경우 북측의 남한 방문은 1건에 불과하며 방문자수는 4명으로 집계되었다. 집계 외의 2006년 남북체육교류로는 강원도청이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아이스하키선수단의 남한 방문 및 교환경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 남북 강원도간에 이루어진 지자체간 남북교류의 일환이었다. 2006년 3월 2일 남한을 방문한 북한선수단은 총 36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측의 북한 방문 현황을 보면 2003년 10월에는 1999년에 착공한 「류경 정주영체육관」이 완공되어 개관식 및 통일농구대회 참관, 묘향산개성단지 관광 등의 목적으로 남한에서 1,000명 규모의 참관단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2005년 북한 방문은 총 27건이며 799명이 체육관련 업무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2006년에는 34건에 266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다음으로 남북한 인적 접촉을 보면 2004년은 상대적으로 체육관련 남북한 인적 접촉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인사의 남한 방문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로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남북한 주민의 인적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2005년 북한주민 접촉 건수는 총 46건이며 관련된 인원은 136명이다. 2006년은 남북 주민 접촉이 이루어진 건수는 24건으로 남측 관련자는 총 124명이었다.

2005년도 남북 체육교류는 마카오 동아시아대회 동안 시작된 도하아시아게임과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9월 중국 쑹저우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김정길 회장과 조선올림픽위원회 문재덕위원장 간의 회동이 시발점이 되어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후 2005년 11월초 마카오동아시아대회 기간 중 개최된 남북 체육회담 실무대표단 회의에 남북 양측 6명이 참가하였으며, 차기 회담은 12월 7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12월 7일 남북 체육회담이 개성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공동 보도문 발표에 합의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체육교류협력 사례는 점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협력사업 동향을 보면 경제분야 협력사업자 승인 건수는 2005년 29개 사업자가 추가되면서 총 117개가 되었으나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자는 2005년 47개가 추가되면서 총 107개가 되었다.

남북 사회교류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추진된 「코리아 민족의 체육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는 2005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 역시 남북한간의 체육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동 행사에서는 남북한의 스포츠 중에서도 엘리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이론적 접근을 소개하고 현 단계를 평가하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시도이다.

베이징의 남북 체육학술교류에서는 남한에서 민족통일체육연구원이 참여하고 북한에서는 조선체육대학교 교수 5명,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3명 등이 참가하였고 중국의 조선족 학자 1인이 참여하여 총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5년 8월 4일부터 9일 사이에 중국 연길시 연변대학교에서 남한의 한국체육학회,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변대학교 체육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스포츠과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동 학술대회의 주제는 「민족체육문화의 회고와 전망」이었다. 동 학술교류 행사에서는 남북 및 중국 거주 조선족 학자에 의해서 총 18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참석자는 남한의 경우 한국체육학회 대표단이 구성되었다. 학회 회장단과 각 분과학회를 대표한 학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여하였다. 북한에서는 평양체육대학교 교수와 기관차체육단 연구원, 체육연구소 연구원이 참가하였다. 중국거주 조선족 학자로는 연변대학교 체육계열 교수가 참여하였다.

2007년에는 축구분야의 남북교류가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남북체육교류협회(남한)와 4.25체육단(북한)이 남북유소년축구 상호교환경기 개최에 합의하였다. 양 단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남북 교환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교류 첫 행사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북한 청소년 축구팀 23명(15~17세)이 방한하여 제주와 수원, 전남 순천과 광양, 서울 등지에서 2007 FIFA청소년(U-17) 월드컵 대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다. 15세 이하 북한 청소년팀 34명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방한하여 강진에서 한국, 중국, 강진중 팀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남한 청소년팀의 방북도 이어져 6월 23부터 7월 3일까지 12세 이하 유소년팀 26명이, 그리고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22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가졌다.

북한 대표팀은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 등 8개 도시에서 개최된 2007 FIFA청소년(U-17) 월드컵대회에도 참가하였다. 북한은 선수단 31명을 8월 7일 사전 입국시켜 전남 광양에서 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나 16강 진출에 그쳐 대회 2연속 8강 진출에는 실패하였다. 10월 13일부터 25일에는 북한 청소년 팀 22명이 전남 강진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청소년 친선 축구대회(10.16~25)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하였다. 한국 중등축구연맹이 주최하고 강진군이 주관한 이 대회에는 한국(2개팀)을 비롯해 북한, 브라질, 프랑스, 일본, 중국, 동티모르 등 7개국 8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친선경기를 가졌다.

4월 30일에는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의 일환으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대항전이 개최되어 또 한번의 남북축구대결이 벌어졌으며, 남한팀이 0:1로 북한팀에게 패배하였다.

이외에도 인천시와 사단법인 평화 3000이 체육진흥공단의 지원 하에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보수에 10억 5천만원이 소요된 이 사업은 11월에 완결되어 11월 9일 평양에서 '축구장 준공식 및 기증식'이 개최되었다. 행사 참여를 위해 안상수 인천시장을 포함하여 남한 대표단 145명이 방북하였고, 준공식이 끝난 후에는 남북 청소년팀간에 훈련경기도 열렸다.

축구 이외에 태권도 및 권투분야에서도 남북교류가 진행되었다. 4월 6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의 초청으로 장용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겸 IOC 위원이 이끄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 48명이 방한하였다. 춘천과 서울에서 2차례의 태권도 시범행사를 실시한 북한 시범단은 각종 손발 응용동작, 1대1 대련, 건강태권도, 호신술 시범 등을 선보였다.

10월 19일에는 2004년 남북권투대회 개최 이후 여섯 번째로 남북권투대회가 개최되었다. 개성시 학생소년궁전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는 남한의 최신희(24), 손초룡(20) 및 북한의 류영심, 김혜성 간 논타이틀 매치(6R)경기, 남자 아마추어 친선경기 2경기 등 모두 4차례 남북대결이 벌어졌다. 박상권 WBCF 회장 겸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경기를 실황중계한 KBS-N 오수성 사장 등 남북 주요 인사들과 남측 관광객 500여명도 방북하여 개성 시내를 관람한 뒤 남북 복서들의 경기 장면을 관람하였다.

2008년에는 4월 26~27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 남자 3명, 여자 4명 등 북한 선수 7명이 출전하였다. 조선체육지도위원회가 선정한 2007년 10대 최우수선수에 뽑힌 김철수,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 동메달리스트 원옥임 등 지명도가 높은 선수들이 참가해서 남한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지만 북한선수의 남한 방문의 의의를 높였다.

체조분야에서는 남북 체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남북 체조가

모두 2008년 올림픽 단체전 출전이 좌절된 탓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남측의 조현주, 북측의 홍은정, 차영화 등 여자 선수 세 명이 조 추점 결과 한조에 편성된 것이다. 이들은 베이징 올림픽 예선 경기일인 8일까지 동일시간, 동일 장소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제4절 과제 및 발전 방향

2008년 축구분야에서는 제3회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 1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3차전에서 2회, 최종예선에서 1회 등 4차례의 남북 축구대결이 펼쳐졌다. 첫 남북대결이었던 2008년 2월 20일 중국 충칭 개최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는 남북이 1:1로 비겼으며, 3월 26일 중국 상하이 흥커우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전 3차전 1차 대결에서도 0:0으로 다시 비겼다. 이 경기는 원래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무시한 채 평양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제3국인 중국에서 진행되었다. 이 경기에는 재중 한국 교민, 북한 응원단 등이 경기장을 메우고 열띤 응원전을 펼쳐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6월 22일에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2010 월드컵 3차 예선 2차 남북대결이 치러졌으며, 남북은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종예선에 동반 진출했다. 이 경기에는 약 5만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최종예선에 동반 진출한 남북은 9월 10일 2010년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 1차 대결을 벌였으나 이 경기 또한 3월 대회와 마찬가지로 북측이 태극기 게양 및 애국가 제창에 난색을 표명해 평양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최종예선 1차 대결에서 남북은 또다시 1:1로 비겨 2008년 4차례의 남북대결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4월 1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남북축구대결이 또다시 펼쳐져 한국이 1:0으로 승리했다.

유소년 축구분야에서도 남북 교류가 지속되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사장 김문수 지사)과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상임위원장 김경성)의 선수단, 임원 등 30여명이 10월 8~15일 남북유소년 축구교류를 위해 방북하였다. 임원진과 함께 방북한 남측의 경수유소년축구클럽과 북측의 4.25 체육단 축구대표팀이 평양에서 남북 유소년 친선경기 및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방북한 남측 청소년 축구선수들은 한적한 남포 해변을 방문해 북한 어부들과도 대화하고 모래사장에 한반도 지도를 그리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는 비록 민간 차원이긴 하나 대규모 응원단이 파견되어 북한 선수의 경기를 응원하는 등 남북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민간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후원을 받아 응원단 400명을 모집해 베이징에 파견하였고, 응원단에는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유소년 축구선수, 미전향 장기수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포함되었다. 이들은 8월 10일 「2008 베이징 올림픽 코리아 응원단」의 깃발 아래 10일 한국 남자축구의 대 이탈리아 조별 리그 2차전, 한국 유도 왕기춘 선수, 북측 유도 계순희 선수 등 남북 양쪽 선수단의 주요 경기를 응원하였다.

8월 13일 북한 여자축구 경기에서는 남측 응원단 400여명, 북측 응원단 500여명이 입장하여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비록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주고받기 응원을 펼치지 못했으나 남측 응원단이 시작한 응원물결에 북측 응원단이 동참하자 남측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경기 종료 이후에도 경기장 밖에서 남북 응원단이 기념촬영을 하기도 하였었다.

2008년에는 남북관계의 전반적 경색으로 남북체육교류도 위축되었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남북한 체육교류의 오랜 숙원이었던 올림픽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파견, 그리고 동시입장이 무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남북한 사이에는 경제적 교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인적 접촉과 남북한 방문자 수가 증가하였다. 여전히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의 폭은 커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분야의 다변화 및 전문화가 이뤄져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 체육교류는 전문체육분야 및 생활체육분야의 공동 주관 혹은 공동 참가 대회에만 국한되어오다가 2005년에는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미 남측의 북한 방문자수 10만명이 넘어섰고 개성 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제협력이 활발해져왔다. 남북체육교류 · 협력의 질적 도약을 뒷받침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향후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발전 또한 기대된다.

한편, 남북체육교류에 관심이 갖게 된 단체도 늘어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남북 체육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보다 전문적으로 남북체육교류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단체의 역량도 커지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정부 차원의 공동응원단 구성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나마 올림픽 응원단이 파견되어 북한 측 경기를 응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을 위해서 풀어가야 할 남북체육교류의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체육교류 협력의 탈정치화 노력을 해야한다. 그 동안에 남북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고 체육교류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 때마다 체육외적 요소로 인해 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채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 이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남북체육교류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류의 제도화와 정례화가 필요하다.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위해서는 정부간 또

는 NOC간 체육협정과 후속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관급 회담 의제로 남북체육교류협력을 포함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을 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체육교류의 정례화와 중장기적인 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정부뿐만 아니라 체육 관련단체의 교류확대가 필요하다. 남북체육교류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북한간의 체제차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한올림픽위원회나 각 경기단체 등 연관성 있는 체육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방면적인 접촉과 교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체육교류 영역의 확대이다. 종전에 이루어진 통일축구와 남북단일팀구성, 부산아시아게임과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참가 등은 국가대표 선수위주의 엘리트 체육 교류에만 주안점을 둔 경향이 있다. 국제대회 개폐회식에서의 선수단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이외에도 선수단, 팀간 공동 훈련지원이나 남북 체육지도자 및 스포츠과학자, 연구자간 상호교류, 북측에 대한 체육용품 및 시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남한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교류 종목과 추진 주체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교류 종목과 관련해서 북한이 민족 고유의 놀이에 관심이 많은 만큼 민족의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씨름,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를 교류로 확대할 경우 한민족의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동서독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 결연을 맺고 지역 생활체육인간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남북주민간의 상호이해와 교류의 폭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교류재원의 안정적 확보이다. 현재 남북체육교류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한해서만 교류재원이 지원된다.

체육교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체육교류 사업의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체육교류와 관련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연구하며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야 한다. 이는 보다 많은 관계자와 단체가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이다.

일곱째, 남북체육 교류를 통해서 남북체육이 상생할 수 있는 현안이 관리되어야 한다. 남북 체육계는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제태권도협회(ITF)간 산적한 과제인 태권도 통합 과제를 풀어가야 하며, 각종 국제대회 개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올림픽위원회나 국제체육기구에서의 유대

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의 체육이 과거 수준의 경기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남한 체육계가 지원해 주는 문제도 현안과제라면 과제일 것이다. 공동 훈련기회를 만들고 스포츠과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도 남북체육교류의 현안 과제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과제는 체육전담 부처인 문화관광부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 가야할 사안이다.

[2008 체육백서] 집필진

◆ 책임기획 · 편집

- 문화체육관광부
김성호(체육국장)
-

◆ 집 필 진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책임집필 : 김양례
 - 집필위원 : 김권일, 민정미, 박영옥, 성문정, 송명규,
유의동, 유지근, 윤성원, 이용식, 한태룡
 - 집필보조 : 김현우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감수 : 이상일(체육정책과장)
 - 감수위원 : 양재완(체육진흥과장)
김정배(국제체육과장)
조향현(장애인문화체육팀장)
김승규(체육정책과 행정사무관)
-

[2008 체육백서]

발행일 : 2009년 7월 일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제 작 : (주)삼한정보기획

© 2008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백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연구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